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B27n0151

新續高僧傳

喻謙著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嚴修序](#)
 - [夏壽田序](#)
 - [述詞](#)
 - [啟](#)
 - [原書細目](#)
 - [譯經篇第一](#)
 - [之一](#)
 -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天傳](#)
 - [宋京師傳法院沙門釋天息災傳](#)
 - [宋西夏護國仁王寺沙門釋不動傳](#)
 -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護傳](#)
 - [宋京師傳法院沙門釋吉祥傳](#)
 - [之二](#)
 - [元甘泉馬謐山沙門釋智慧傳](#)
 - [元雲南玉案山寺沙門釋雄辯傳](#)
 - [元燕都慶壽寺沙門釋沙囉巴傳](#)
 - [元燕都廣寒院沙門釋識里傳](#)
 - [元會稽圓通寺沙門釋弘濟傳](#)
 - [明臨安淨慈寺沙門釋寺泐傳](#)
 - [明金陵鍾山西天寺沙門釋智光傳](#)
 - [清五臺清涼山寺沙門釋老藏傳](#)
 - [清蒙古多倫泊彙宗寺沙門釋克圖傳](#)
 - [義解篇第二](#)
 - [之一](#)
 - [宋永嘉瑞鹿寺釋本先傳](#)
 - [宋溫州東溪草堂沙門釋處元傳](#)
 - [宋吳會北禪寺沙門釋可觀傳](#)
 - [宋永嘉開元寺沙門釋繼忠傳](#)
 - [宋武林靈山日觀菴沙門釋遵式傳](#)
 - [松江興聖寺沙門釋淨直傳](#)
 - [宋杭州昭慶寺沙門釋仁嶽傳](#)

- [宋溫州瑞鹿寺沙門釋馮安傳](#)
- [宋武林鳳凰山聖果寺沙門釋希最傳](#)
- [宋錢唐寶藏寺沙門釋從義傳](#)
- [宋武林大悲閣沙門釋玄淨傳](#)
- [宋潤州金山寺沙門釋梵臻傳](#)
- [宋鳳凰山聖果寺沙門釋佛護傳](#)
- [宋泉州寶勝院沙門釋戒環傳](#)
- [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若訥傳](#)
- [南宋餘杭上天竺講寺沙門釋法照傳](#)
- [南宋餘杭上天竺講寺沙門釋善月傳](#)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居簡傳](#)
- [南宋台州白蓮寺沙門釋了然傳](#)
- [南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應如傳](#)
- [南宋明州寶林寺沙門釋了宣傳](#)
- [遼中京報恩傳教寺沙門釋法悟傳](#)
- [遼燕京奉福寺沙門釋非濁傳](#)
- [南詔蒼山再光寺沙門釋普瑞傳](#)
- [之二](#)
 - [元古杭淨慈寺沙門釋善慶傳](#)
 - [元杭州上天竺沙門釋性澄傳](#)
 - [元杭州下竺寺沙門釋蒙潤傳](#)
 - [元古杭淨慈寺沙門釋處林傳](#)
 - [元杭州慧因寺沙門釋盤谷傳](#)
 - [元紹興雲門寺沙門釋允若傳](#)
 - [元杭州演福寺沙門釋必才傳](#)
 - [元明州天童寺沙門釋悟光傳](#)
 - [元杭州上天竺寺沙門釋直淨傳](#)
 - [元天台薦福寺沙門釋善繼傳](#)
 - [元明州寶雲寺沙門釋子文傳](#)
 - [元松江延慶寺沙門釋融照傳](#)
 - [元四明延慶寺沙門釋本無傳](#)
 - [元天台佛隴修禪寺沙門釋可公傳](#)
 - [元五臺山祐國寺沙門釋文才傳](#)
 - [元秦州景福寺沙門釋英辯傳](#)
 - [元京都崇恩寺沙門釋德謙傳](#)
 - [元京都慶壽寺沙門釋達益巴傳](#)
 - [元京都寶集寺沙門釋妙文傳](#)
 - [元五臺山普寧寺沙門釋了性傳](#)

- [元玉山普安寺沙門釋寶嚴傳](#)
- [元金陵天禧寺沙門釋志德傳](#)
- [元鎮江普照寺沙門釋普喜傳](#)
- [元五臺山金河寺沙門釋道殷傳](#)
- [之三](#)
 - [明大理蕩山沙門釋無極傳](#)
 - [明嘉定淨信寺沙門釋祖爾傳](#)
 - [明杭州上天竺講寺沙門釋弘道傳](#)
 - [明寧波普陀寺沙門釋行不傳](#)
 - [明松江興聖寺沙門釋原直傳](#)
 - [明陽山大慈寺沙門釋善學傳](#)
 - [明餘杭上天竺寺沙門釋慧日傳](#)
 - [明餘杭演福寺沙門釋如玘傳](#)
 - [明紹興寶林寺沙門釋大同傳](#)
 - [明錢塘靈隱寺沙門釋原澗傳](#)
 - [明杭州集慶寺沙門釋十璋傳](#)
 - [明婺州智者寺沙門釋普仁傳](#)
 - [明上海安國寺沙門釋紹宗傳](#)
 - [明餘杭淨慈寺沙門釋明德傳](#)
 - [明會稽寶相寺沙門釋懷渭傳](#)
 - [明錢塘靈隱寺沙門釋大訢傳](#)
- [之四](#)
 - [明杭州淨慈寺沙門釋道聯傳](#)
 - [明松江普照寺沙門釋居敬傳](#)
 - [明杭州龍井寺沙門釋普智傳](#)
 - [明姑蘇延慶寺沙門釋善啟傳](#)
 - [明杭州上天竺沙門釋永顧傳](#)
 - [明桂林橫州壽佛寺沙門釋應能傳](#)
 -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盡玄傳](#)
 - [明百羊山秀峰庵沙門釋明龍傳](#)
 - [明蘇州華山沙門釋祖住傳](#)
 - [明杭州淨慈寺沙門釋大壑傳](#)
 - [明餘杭十橋庵沙門釋圓瓏傳](#)
 - [明隰州石室寺沙門釋圓鏡傳](#)
 - [明應天樓霞寺沙門釋直節傳](#)
 - [明塘棲大善寺沙門釋傳如傳](#)
- [之五](#)
 - [明金陵寶華山釋洪恩傳](#)

- [明嘉興東禪寺沙門釋明得傳](#)
- [明杭州昭慶寺沙門釋大惠傳](#)
- [明雲南雞足山放光寺沙門釋禪傳](#)
- [明餘杭徑山寺沙門釋圓澄傳](#)
- [明天台慈雲寺沙門釋直清傳](#)
- [明餘杭徑山寺沙門釋直可傳](#)
- [明清涼山竹林寺沙門釋鎮澄傳](#)
- [之六](#)
 - [明廬山法雲寺沙門釋德清傳](#)
 - [明寶慶五臺庵沙門釋觀衡傳](#)
 - [明餘杭理安寺沙門釋如嵩傳](#)
 - [明定遠白馬山蓮城寺沙門釋清宣傳](#)
- [之七](#)
 - [清青陽九華山華嚴菴釋智旭傳](#)
 - [清杭州上天竺沙門釋方誌傳](#)
 - [清官都青林寺沙門釋道隆傳](#)
 - [清潤州金山寺沙門釋通問傳](#)
 -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超樂傳](#)
 - [清安徽清涼寺沙門釋音可傳](#)
 - [清峽州石塔寺沙門釋戒隱傳](#)
 - [清當陽玉泉寺沙門釋圓惺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哲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超靜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門傳](#)
 - [清燕都廣濟寺沙門釋湛祐傳](#)
- [之八](#)
 - [清燕都萬善寺沙門釋通理傳](#)
 - [清錢塘淨慈寺沙門釋明中傳](#)
 - [清句容赤山沙門釋本心傳](#)
- [習禪篇第三](#)
 - [之一](#)
 - [宋常德文殊寺沙門釋心道傳](#)
 - [宋西蜀昭覺寺沙門釋純白傳](#)
 - [宋慶元天童寺沙門釋普交傳](#)
 - [宋潭州法輪寺沙門釋應端傳](#)
 - [宋溫州龍翔寺沙門釋士珪傳](#)
 - [宋衢州烏巨山沙門釋道行傳](#)
 - [宋餘杭靈隱寺沙門釋宗印傳](#)

- [宋潭州大滄山沙門釋法泰傳](#)
- [宋當陽玉泉寺沙門釋務本傳](#)
- [宋衡嶽石頭庵沙門釋懷志傳](#)
- [宋眉州中巖寺沙門釋祖覺傳](#)
- [宋台州釣魚臺沙門釋白回傳](#)
- [宋江寧蔣山太平興國寺沙門釋贊元傳](#)
- [宋虎邱雲巖寺沙門釋清順傳](#)
- [宋江寧太平興國寺沙門釋慧勲傳](#)
- [宋潼川護聖寺沙門釋居靜傳](#)
- [宋潭州大滄山沙門釋清日傳](#)
- [宋天台國清寺沙門釋行機傳](#)
- [澧州靈巖寺沙門釋仰安傳](#)
- [宋江州圓通寺沙門釋道昱傳](#)
- [宋隆興雲巖寺沙門釋天游傳](#)
- [之二](#)
 - [南宋西蜀昭覺寺沙門釋克勤傳](#)
 - [南宋泉州教忠寺沙門釋彌光傳](#)
 - [南宋嘉興報恩寺沙門釋法常傳](#)
 - [南宋成都信相寺沙門釋宗顯傳](#)
 - [南宋平江虎邱寺沙門釋紹隆傳](#)
 - [南宋直州長蘆庵沙門釋青了傳](#)
 - [南宋天台山萬年寺沙門釋法一傳](#)
 - [南宋建康華藏寺沙門釋安民傳](#)
 - [南宋潭州龍牙寺沙門釋智才傳](#)
 -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正覺傳](#)
 -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宗杲傳](#)
 - [南宋紹興慈氏院沙門釋瑞仙傳](#)
- [之三](#)
 - [南宋慶元育王山沙門釋端裕傳](#)
 - [南宋隆興黃龍寺沙門釋道震傳](#)
 - [南宋華亭昭慶寺沙門釋法寧傳](#)
 - [南宋安吉何山沙門釋守珣傳](#)
 - [南宋眉州象耳山沙門釋袁覺傳](#)
 - [南宋成都昭覺寺沙門釋道元傳](#)
 - [南宋平江南峰寺沙門釋雲辯傳](#)
 -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善悟傳](#)
 - [南宋隆興黃龍寺沙門釋法忠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如珎傳](#)

- [南宋天台護國寺沙門釋景元傳](#)
- [南宋臨安淨慈寺沙門譯妙倫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慧遠傳](#)
-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智策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道樞傳](#)
- [南宋明州普陀山沙門釋慧暉傳](#)
-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寶印傳](#)
- [之四](#)
 - [南宋餘杭淨慈寺沙門釋重顯傳](#)
 - [南宋常州華藏寺沙門釋有權傳](#)
 -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德昇傳](#)
 -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白圓傳](#)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彥充傳](#)
 - [南宋潭州上封寺沙門釋諱才傳](#)
 -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文禮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德光傳](#)
 - [南宋江州東林寺沙門釋道顏傳](#)
 - [南宋福州西禪寺沙門釋鼎霑傳](#)
 - [南宋建寧沙門釋道謙傳](#)
 - [南宋平江覺海寺沙門釋法因傳](#)
 - [南宋眉州中巖寺沙門釋蘊能傳](#)
- [之五](#)
 - [南宋餘杭靈隱寺沙門釋之善傳](#)
 -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曇華傳](#)
 - [南宋婺州智者寺沙門釋直慈傳](#)
 - [南宋福州鼓山沙門釋安永傳](#)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曇密傳](#)
 -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咸傑傳](#)
 - [南宋夔州臥龍山沙門釋祖先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崇嶽傳](#)
 - [南宋臨安徑山沙門釋師範傳](#)
 - [南宋名山天寧寺沙門釋禪惠傳](#)
 - [南宋巴川官密院沙門釋顯嵩傳](#)
 - [南宋平江靜濟寺沙門釋法全傳](#)
 - [南宋臨安徑山沙門釋道冲傳](#)
- [之六](#)
 - [金上京大儲慶寺沙門釋海慧傳](#)
 - [金濟南靈巖寺沙門釋道詢傳](#)

- [金燕都慶壽寺沙門釋教亨傳](#)
- [金燕都潭柘山寺沙門釋政言傳](#)
- [金薊州盤山雙峰寺沙門釋廣溫傳](#)
- [金鄭州普照寺沙門釋道悟傳](#)
- [金燕都潭柘寺沙門釋相了傳](#)
- [之七](#)
 - [元慶元育王山沙門釋如琪傳](#)
 - [元餘杭徑山寺沙門釋行端傳](#)
 - [元泉州開元寺沙門釋妙恩傳](#)
 - [元燕都西劉村沙門釋行秀傳](#)
 - [元餘杭淨慈寺沙門釋原妙傳](#)
 - [元保定興聖寺沙門釋德富傳](#)
 - [元明州佛巖寺沙門釋天倫傳](#)
 - [元吳興霞霧山沙門釋清琪傳](#)
 - [元錢塘靈隱寺沙門釋法林傳](#)
 - [元義烏雲黃山寶林寺沙門釋紹大傳](#)
 - [元徑山興聖萬壽寺沙門釋正源傳](#)
 - [元金華天龍寺沙門釋守貴傳](#)
 - [元錢塘妙果寺沙門釋水盛傳](#)
 - [元泰安靈巖寺沙門釋普就傳](#)
 - [元泰安靈巖寺沙門釋智慧傳](#)
 - [元泉州開元寺沙門釋如照傳](#)
 - [元鄒縣大明禪院沙門釋海印傳](#)
 - [元餘杭鳳凰山聖果寺沙門釋珠明傳](#)
 - [元餘杭吳山聖水寺沙門釋明本傳](#)
 - [元兗州布金山大雲寺沙門釋行全傳](#)
- [之八](#)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可光傳](#)
 - [明金陵鍾山寺沙門釋玘的答傳](#)
 - [明官興龍池寺沙門釋永寧傳](#)
 - [明處州福林禪院沙門釋智度傳](#)
 -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及傳](#)
 - [明四明寶陀寺沙門釋慧照傳](#)
 - [明溫州雁蕩山羅漢寺沙門釋正智傳](#)
 - [明五臺山靈鷲菴沙門釋寶金傳](#)
 - [明五臺山壽安禪林沙門釋具牛傳](#)
 - [明杭州天目山沙門釋印原傳](#)
 - [明虎邱雲巖寺沙門釋文琇傳](#)

- 之九
 - 明金陵靈谷寺沙門釋道謙傳
 - 明金陵靈谷寺沙門釋能義傳
 - 明金陵靈谷寺沙門釋三峯傳
 - 明燕京潭柘山龍泉寺沙門釋德始傳
 - 明五臺山顯通寺沙門釋迦也失傳
 - 明衡山南嶽寺沙門釋開緣傳
 - 明泉州開元寺沙門釋道超傳
 - 明五臺山普濟寺沙門釋淨澄傳
 - 明衡山南臺寺沙門釋無礙傳
 - 明雲南歸化寺沙門釋善堅傳
 - 明金陵大報恩寺沙門釋永寧傳
 - 明雲南雞足山聖峰寺沙門釋德住傳
- 之十
 - 明攝山棲霞寺沙門釋法會傳
 - 明燕京吉祥院沙門釋明信傳
 - 明新城壽昌寺沙門釋慧經傳
 - 明青陽九華山沙門釋性蓮傳
 - 明會稽華嚴寺沙門釋志若傳
 - 明廬山雲中寺沙門釋法忠傳
 - 明燕京大慈壽寺沙門釋覺淳傳
 - 明臨安東天日昭明寺沙門釋如空傳
 - 明金臺龍華寺沙門釋廣禎傳
 - 明會城斗光寺沙門釋洪上傳
- 之十一
 - 明徑山化城寺沙門釋法鎧傳
 - 明四明天童寺沙門釋圓悟傳
 - 明雲南竹林寺沙門釋密行傳
 - 明荊南普仰寺沙門釋正誨傳
 - 明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洪如傳
 - 明湖州上柏山報恩禪院沙門釋天隱傳
 - 明寧鄉大溈山同慶寺沙門釋如學傳
 - 明漳州南山報劬禪院沙門釋巨信傳
 - 明夾山沙門釋本豫傳
- 之十二
 - 清峨眉毘盧院沙門釋克誠傳
 - 清寧鄉大溈密印寺沙門釋正明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賢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容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道忞傳](#)
- [清錢塘淨慈寺沙門釋正品傳](#)
- [清孤嶼江心寺沙門釋本榮傳](#)
- [清瑞安仙巖寺沙門釋超志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書傳](#)
- [清荊南東山天齋禪院沙門釋明智傳](#)
- [清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普行傳](#)
- [清富民九峯山西華寺沙門釋慧宗傳](#)
- [之十三](#)
 - [清燕京柏林寺沙門釋超方傳](#)
 - [清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通荷傳](#)
 - [清永豐禪院沙門釋本實傳](#)
 - [清燕京西城雲居寺沙門釋僧廣傳](#)
 - [清漢陽棲賢寺沙門釋行敬傳](#)
 - [清枝江玉安山六合寺沙門釋行洪傳](#)
 - [清公安觀音寺沙門釋超乘傳](#)
 - [清虎邱雲巖寺沙門釋弘儲傳](#)
 - [清昆明勝因寺沙門釋德潤傳](#)
 - [清蜀北給孤寺沙門釋本襄傳](#)
 - [清燕京海會寺沙門釋超古傳](#)
 - [清怡山棲雲寺沙門釋超定傳](#)
 - [清青林龍安寺沙門釋超况傳](#)
 - [清漳州馴虎巖沙門釋超頂傳](#)
- [之十四](#)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導傳](#)
 - [清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印水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悅傳](#)
 - [清湘陰神鼎山沙門釋行澤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珍傳](#)
 - [清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智檀傳](#)
 - [清衡陽萬壽寺沙門釋行泰傳](#)
 - [清成都昭覺寺沙門釋通醉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超格傳](#)
 - [清杭州雲林寺沙門釋原志傳](#)
- [之十五](#)
 - [清杭州理安寺沙門釋性音傳](#)
 -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實徹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明鼎傳](#)
- [清燕京西山普覺寺沙門釋元日傳](#)
- [清杭州雲林寺沙門釋德元傳](#)
- [清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直旻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明羲傳](#)
- [清烏程陽山梵音院沙門釋通授傳](#)
- [清成都昭覺寺沙門釋了元傳](#)
- [清杭州理安寺沙門釋寶月傳](#)
- [清西蜀廣行寺沙門釋白光傳](#)
- [清揚州高旻寺沙門釋際聖傳](#)
- [清天台國清寺沙門釋道宗傳](#)
- [之十六](#)
 - [清什邡羅漢寺沙門釋達澈傳](#)
 - [清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祖直傳](#)
 -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大定傳](#)
 - [清金陵天寧寺沙門釋不二傳](#)
 - [清安陸西來寺沙門釋秀野傳](#)
 - [清九華山百歲宮沙門釋寶悟傳](#)
 - [清荊州如來庵沙門釋朗明傳](#)
 - [清衡陽岐山仁瑞寺沙門釋無來傳](#)
- [明律篇第四](#)
 - [之一](#)
 - [宋餘杭昭慶寺沙門釋允堪傳](#)
 - [宋錢塘靈芝寺沙門釋元照傳](#)
 - [宋台州赤城寺沙門釋有嚴傳](#)
 - [遼蘄州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非覺傳](#)
 - [金燕京左街淨垢寺沙門釋法律傳](#)
 - [南宋四明湖心寺沙門釋元肇傳](#)
 - [南宋新城碧沼寺沙門釋宗利傳](#)
 - [南宋桃原厲氏庵沙門釋晞顏傳](#)
 - [南宋錢塘七寶院沙門釋用欽傳](#)
 - [元餘姚極樂寺沙門釋戒度傳](#)
 - [之二](#)
 - [明華亭興聖寺沙門釋原直傳](#)
 - [明杭州昭慶寺沙門釋樸原傳](#)
 - [明燕都普慶寺沙門釋法聞傳](#)
 - [明燕都西山戒臺寺沙門釋道孚傳](#)
 - [明金陵天隆寺沙門釋如馨傳](#)

- [明五臺山清涼寺沙門釋承芳傳](#)
- [明金陵極樂寺沙門釋性相傳](#)
- [明燕都古愍忠寺沙門釋永海傳](#)
- [明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寂光傳](#)
- [明太原永明寺沙門釋遠清傳](#)
- [明姑蘇報國寺沙門釋性祇傳](#)
- [明廣陵福田律院沙門釋性福傳](#)
- [明潭州三角山沙門釋如幻傳](#)
-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直利傳](#)
- [之三](#)
 - [清江寧古林寺沙門釋性璞傳](#)
 - [清燕京廣濟寺沙門釋海祿傳](#)
 - [清廣陵五臺律院沙門釋書禎傳](#)
 - [清江甯寶華山隆昌寺沙門釋讀體傳](#)
 - [清晉陵天寧寺沙門釋戒潤傳](#)
 - [清江寧寶華山隆昌寺沙門釋德基傳](#)
 - [清宿遷極樂庵沙門釋性澄傳](#)
 - [清杭州昭慶寺沙門釋書玉傳](#)
 - [清姑蘇獅林寺沙門釋書秀傳](#)
 - [清淮安聞思寺沙門釋直賢傳](#)
 - [清姑蘇直諦寺沙門釋書淨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照福傳](#)
 - [清金陵寶華山慧居寺沙門釋直義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超越傳](#)
 - [清金陵慈應院沙門釋通明傳](#)
- [之四](#)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實\[王*永\]傳](#)
 - [清鳳山龍興寺沙門釋溥\[璣-山\]傳](#)
 - [清維揚石埭寺沙門釋學倫傳](#)
 - [清燕京瑞應寺沙門釋性證傳](#)
 - [清宿遷極樂庵沙門釋興祥傳](#)
 - [清淮安普應寺沙門釋溥範傳](#)
 - [清毘陵永寧寺沙門釋學潛傳](#)
 - [清淮陰聞思寺沙門釋溥訓傳](#)
 - [清徽州韻松山寺沙門釋寂融傳](#)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海華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澄林傳](#)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常松傳](#)

- [清儀徵隆覺寺沙門釋洪建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明壽傳](#)
- [之五](#)
 - [清燕京瑞應寺沙門釋祥暉傳](#)
 - [清徽州常樂庵釋照宏傳](#)
 - [清杭州昭慶寺沙門釋隋道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福傳](#)
 - [清杭州昭慶寺沙門釋果證傳](#)
 - [清宿遷壽聖寺沙門釋福住傳](#)
 - [清淮安觀音寺沙門釋源長傳](#)
 - [清金陵慈應寺沙門釋心觀傳](#)
 - [清維揚石塔寺沙門釋通和傳](#)
 - [清宿遷極樂庵沙門釋來照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圓瑞傳](#)
 - [清宿遷壽聖寺沙門釋祥珠傳](#)
 - [清江陰圓覺庵沙門釋宗深傳](#)
 - [清揚州慧因寺沙門釋實長傳](#)
- [之六](#)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福聚傳](#)
 - [清儀徵隆覺寺沙門釋普悅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諒傳](#)
 - [清燕京法源寺沙門釋性實傳](#)
 - [清燕京法源寺沙門釋昌濤傳](#)
- [護法篇第五](#)
 - [之一](#)
 - [宋錢塘靈隱寺沙門釋契嵩傳](#)
 - [宋餘杭淨慈寺沙門釋妙堪傳](#)
 - [宋餘杭白雲庵沙門釋清覺傳](#)
 -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妙高傳](#)
 - [元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祥邁傳](#)
 - [元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鑄傳](#)
 - [之二](#)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慧曇傳](#)
 - [明金臺永壽寺沙門釋思敏傳](#)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德明傳](#)
 -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心傳](#)
 - [明燕都普濟寺沙門釋自成傳](#)
 - [明杭州淨慈寺沙門釋道富傳](#)

- 之三
 - 清燕都廣濟寺沙門釋竄壽傳
 - 清四川昭覺寺沙門釋離指傳
 - 清雲南雞足山蘭陀寺沙門釋道足傳
 - 清江寧古林寺沙門釋本修傳
 - 清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了然傳
 - 清丹徒焦山自然庵沙門釋修敏傳
 - 清長沙麓山寺沙門釋芳圃傳
 - 清樂清白鶴寺沙門釋華山傳
 - 清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復餘傳
 - 清金陵毘盧寺沙門釋顯文傳
 - 清常州天寧寺沙門釋清鎔傳
- 靈感篇第六
 - 之一
 - 宋汴京景德寺沙門釋志言傳
 - 宋福州聖泉寺沙門釋紹鎧傳
 - 宋上海靜安寺沙門釋智儼傳
 - 宋溫州沙門釋了興傳
 - 宋天台常窟寺沙門釋處謙傳
 - 宋四明雪竇栖雲庵沙門釋知和傳
 - 金燕都潭柘山寺沙門釋開性傳
 - 元邢州開元寺沙門釋廣恩傳
 - 元潭州天臺山沙門釋彭彭傳
 - 元大理沙門釋左黎傳
 - 元晉寧東山盤龍寺沙門釋宗照傳
 - 之二
 - 明四明阿育王山廣利寺沙門釋崇裕傳
 - 明台州國清寺沙門釋曇噩傳
 - 明四明瑞雲山清涼寺沙門釋僧茂傳
 - 明襄陽承恩禪寺沙門釋覺成傳
 - 明昆明大德寺沙門釋道源傳
 - 明金陵法藏寺沙門釋杜聖傳
 - 明曲靖直峯山沙門釋鏡中傳
 - 明杭州佛慧寺沙門釋圓果傳
 - 明四川峨眉山沙門釋萬世傳
 - 明雲南雞足山西來寺沙門釋如唐傳
 - 明雲南筇竹寺沙門釋圓旭傳
 - 明九江廬山寺沙門釋治禪傳

-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周理傳](#)
- [明蘆州淨業寺沙門釋至明傳](#)
- [之三](#)
 - [清燕京玉泉山二聖庵釋僧清傳](#)
 - [清雲龍龍蟠寺沙門釋法鐙傳](#)
 - [清衡陽法輪寺沙門釋石隱傳](#)
 - [清燕京廣濟寺沙門釋性美傳](#)
 - [清龍溪圓照寺沙門釋行森傳](#)
 - [清江甯古林寺沙門釋寂鼎傳](#)
 - [清天台國清寺沙門釋達珍傳](#)
 - [清甯鄉大瀉山密印寺沙門釋濬明傳](#)
 -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廣福傳](#)
 - [清荊州二神寺沙門釋悟誠傳](#)
 - [清衡陽培元寺沙門釋無漏傳](#)
 - [清維揚沙門釋澍蒼傳](#)
 - [清潤州焦山寺沙門釋悟信傳](#)
 -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源修傳](#)
 -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常順傳](#)
 - [清燕京法源寺沙門釋護德傳](#)
- [遺身篇第七](#)
 - [之一](#)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德輝傳](#)
 - [南宋華亭青龍庵沙門釋妙普傳](#)
 - [元上海柘澤寺沙門釋德林傳](#)
 - [明長沙柏林寺沙門釋明星傳](#)
 - [明上海施水庵沙門釋善信傳](#)
 - [明金陵寶華山寺沙門釋普照傳](#)
 - [明荊門沙門釋明秀傳](#)
 - [明富陽栗塢山沙門釋康齋傳](#)
 - [明蘆州林亭庵沙門釋朗然傳](#)
 - [之二](#)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杲傳](#)
 - [清江甯華山沙門釋海潤傳](#)
 - [清荊門沙門釋無名傳](#)
 - [清衡陽法輪寺沙門釋淡遠傳](#)
 - [清杭州雲林寺沙門釋止安傳](#)
 - [清南嶽祝聖寺沙門釋齋子傳](#)
 - [清江南金山寺沙門釋了庵傳](#)

- [清房山上方黃龍庵沙門釋成淵傳](#)
- [清官昌慈雲寺沙門釋惺參傳](#)
- [清荊州資聖寺沙門釋性空傳](#)
- [清常州天寧寺沙門釋常慧傳](#)
- [清燕京隆安寺沙門釋直源傳](#)
- [淨讀篇第八](#)
 - [之一](#)
 -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有基傳](#)
 - [宋四明延慶寺沙門釋知禮傳](#)
 - [宋樂清政洪寺沙門釋覺秀傳](#)
 - [宋池陽松山庵沙門釋義懷傳](#)
 - [宋東山承天寺沙門釋本如傳](#)
 - [宋華亭招果寺沙門釋靈照傳](#)
 - [宋餘杭天竺寺沙門釋思義傳](#)
 - [宋餘杭祥符寺沙門釋擇瑛傳](#)
 - [宋汴京慧林寺沙門釋宗本傳](#)
 - [宋泰山靈巖寺沙門釋延珣傳](#)
 - [宋餘杭法慧寺沙門釋慧才傳](#)
 - [宋餘杭天竺寺沙門釋曇異傳](#)
 - [宋甬東棲心寺沙門釋中立傳](#)
 - [宋嘉禾崇福西寺沙門釋智深傳](#)
 - [宋餘杭法慧寺沙門釋法宗傳](#)
 - [之二](#)
 - [南宋仙潭無量壽佛閣沙門釋若愚傳](#)
 - [南宋溫州車溪壽聖寺沙門釋如湛傳](#)
 - [南宋餘杭天竺寺沙門釋齊玉傳](#)
 - [南宋臨安祥符寺沙門釋思淨傳](#)
 - [南宋潤州焦山寺沙門釋師體傳](#)
 - [南宋澱山湖白蓮寺沙門釋子元傳](#)
 - [南宋松江延慶寺沙門釋道因傳](#)
 - [南宋永嘉資福院沙門釋道琛傳](#)
 - [南宋南湖禪寺沙門釋妙雲傳](#)
 - [南宋上虞化度寺沙門釋智廉傳](#)
 - [南宋蒼山常照寺沙門釋慧明傳](#)
 - [南宋洪州黃檗山沙門釋了義傳](#)
 - [南宋錢塘法安寺沙門釋思聰傳](#)
 - [南宋烏鎮嘉會寺沙門釋若觀傳](#)
 - [南宋雪川千步寺沙門釋有開傳](#)

- [遼萬寧上方山寺沙門釋守常傳](#)
- [金燕都香林寺沙門釋祖朗傳](#)
- [元蘄州雲泉寺沙門釋妙文傳](#)
- [元嘉定西隱寺沙門釋悅可傳](#)
- [元泰山沙門釋太行傳](#)
- [元餘杭淨慈寺沙門釋蒙潤傳](#)
- [之三](#)
- [明餘杭淨慈寺沙門釋可授傳](#)
- [明黔中永祥寺沙門釋興宗傳](#)
- [明通州靜嘉寺沙門釋本明傳](#)
- [明嘉興天寧寺沙門釋僧秀傳](#)
- [明會稽沙門釋明證傳](#)
- [明梵村雲棲寺沙門釋袞宏傳](#)
- [明懷慶龍岡寺沙門釋如遷傳](#)
- [明杭州資福院沙門釋廣徹傳](#)
- [之四](#)
- [明南嶽上封寺沙門釋法祥傳](#)
- [明燕都慈慧寺沙門釋明玉傳](#)
- [明錢塘龍井寺沙門釋如清傳](#)
- [明幽溪高明寺沙門釋傳燈傳](#)
- [明京口淨業禪林沙門釋古松傳](#)
- [明青陽九華山東巖寺沙門釋海玉傳](#)
- [明新安黃山擲鉢菴沙門釋廣寄傳](#)
- [明餘杭徑山寺沙門釋圓信傳](#)
-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圓彩傳](#)
- [明會城大德寺沙門釋如意傳](#)
- [明常州天寧寺沙門釋海寶傳](#)
- [明仁和吉祥寺沙門釋大雲傳](#)
- [之五](#)
- [清諸暨大雄寺沙門釋大勛傳](#)
- [清常熟南洙靜室沙門釋崇文傳](#)
- [清台州大慈寺沙門釋靈睿傳](#)
- [清江寧天界半峯寺沙門釋成時傳](#)
- [清廬山普仁院沙門釋仁策傳](#)
- [清金陵大報恩寺沙門釋普見傳](#)
- [清雲南鹿溪淨樂庵沙門釋性香傳](#)
- [清大理雨珠庵沙門釋弘宗傳](#)
- [清燕京廣濟寺沙門釋正會傳](#)

- [清鄆山阿育王寺沙門釋實賢傳](#)
- [清淮安聞思寺釋常智傳](#)
- [清長沙泐潭寺沙門釋衍義傳](#)
- [之六](#)
 - [清淮安誕登寺沙門釋萬清傳](#)
 - [清潤州焦山寺沙門釋福毅傳](#)
 - [清杭州文殊菴沙門釋道徹傳](#)
 - [清吳山接引菴沙門釋廣志傳](#)
 - [清姑蘇龍興寺沙門釋明悟傳](#)
 - [清杭州大椿禪院沙門釋道證傳](#)
 - [清錢塘祇園菴沙門釋聞言傳](#)
 - [清天日山禪原寺沙門釋實定傳](#)
 - [清江甯靈谷寺沙門釋緒守傳](#)
 - [清海寧護國禪院沙門釋千一傳](#)
 - [清杭州孤舟菴沙門釋實裕傳](#)
 - [清海寧延恩寺沙門釋諦勇傳](#)
- [之七](#)
 - [清紅螺山資福寺沙門釋際醒傳](#)
 - [清嘉禾覺海寺沙門釋達純傳](#)
 - [清江寧靈谷寺沙門釋衍紹傳](#)
 - [清雲間西禪寺沙門釋悟虔傳](#)
 - [清潤州焦山寺沙門釋覺源傳](#)
 - [清姑蘇南禪寺沙門釋佛度傳](#)
 - [清杭州東園德寧菴沙門釋律淨傳](#)
 - [清金陵鷲峰寺沙門釋正直傳](#)
 - [清天台山國清寺沙門釋小有傳](#)
 - [清鎮江良簷山寺沙門釋白明傳](#)
 - [清高郵觀音寺沙門釋松園傳](#)
- [之八](#)
 - [清衡州中正禪林沙門釋離塵傳](#)
 - [清曲陽黃山寺沙門釋正通傳](#)
 - [清成都寶光寺沙門釋宗質傳](#)
 - [清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映冰傳](#)
 - [清丹徒竹林寺沙門釋悟先傳](#)
 - [清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大須傳](#)
 - [清善化護國寺沙門釋慧圓傳](#)
 - [清寶慶點石禪林沙門釋仁里傳](#)
 - [清樂清淨濟寺沙門釋機溥傳](#)

- [清上海玉佛寺沙門釋戒然傳](#)
- [清衡州西禪寺沙門釋常析傳](#)
- [清燕都南城觀音院沙門釋清苦傳](#)
- [興福篇第九](#)
 - [之一](#)
 - [宋餘杭靈隱寺沙門釋幻旻傳](#)
 - [宋南詔水日山寺沙門釋普濟傳](#)
 - [宋潤州金山寺沙門釋瑞新傳](#)
 -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敦照傳](#)
 - [南宋四明延慶寺沙門釋子親傳](#)
 -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了性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道昌傳](#)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可宣傳](#)
 - [南宋黃山雲嶺禪院沙門釋雲林傳](#)
 -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祖智傳](#)
 - [南宋福州雪峯寺沙門釋天錫傳](#)
 - [之二](#)
 - [金徂徠山法雲禪寺沙門釋福燈傳](#)
 - [金上方山感化寺沙門釋澄方傳](#)
 - [金沂州普照寺沙門釋覺海傳](#)
 - [元雲南大德寺沙門釋玄堅傳](#)
 - [元雲南直峯山正法寺沙門釋玄鑑傳](#)
 - [元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如山傳](#)
 - [元伏龍山聖壽寺沙門釋元長傳](#)
 - [元磐山北少林寺沙門釋雲威傳](#)
 - [元泉州開元寺沙門釋伯福傳](#)
 - [元當陽玉泉山寺沙門釋慧珍傳](#)
 - [元泰安竹林寶峰寺沙門釋法海傳](#)
 - [元泰安靈巖寺沙門釋淨肅傳](#)
 -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守忠傳](#)
 - [元雲南崇寶山正覺寺沙門釋定山傳](#)
 - [之三](#)
 - [明衢州西安福慧寺沙門釋世愚傳](#)
 - [明杭州靈隱寺沙門釋輔良傳](#)
 - [明錢塘淨慈寺沙門釋智順傳](#)
 - [明四明天童寺沙門釋元良傳](#)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力金傳](#)
 - [明金陵靈谷寺沙門釋仲羲傳](#)

- [明崇恩演福寺沙門釋顯示傳](#)
- [明寧海報恩寺沙門釋白緣傳](#)
- [明天台上雲峰證道寺沙門釋祖鐙傳](#)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懷信傳](#)
- [之四](#)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忻悟傳](#)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夷簡傳](#)
 - [明五臺山顯通寺沙門釋葛里麻傳](#)
 - [明銅梁龍興寺沙門釋空源傳](#)
 - [明江寧華嚴寺沙門釋佛妙傳](#)
 - [明泉州開元寺沙門釋正映傳](#)
 - [明杭州淨慈寺沙門釋師頤傳](#)
 - [明四明天童寺沙門釋祖淵傳](#)
 - [明杭州淨慈寺沙門釋宗妙傳](#)
 - [明遠安福河寺沙門釋普亮傳](#)
 - [明鳳皇山聖果寺沙門釋子敬傳](#)
 - [明泰山竹林寺沙門釋滿空傳](#)
- [之五](#)
 -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源傳](#)
 - [明燕京法華寺沙門釋德聚傳](#)
 - [明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鐘傳](#)
 - [明燕京廣濟寺沙門釋普慧傳](#)
 - [明潤州焦山普濟寺沙門釋妙福傳](#)
 - [明官都顯明山寺沙門釋道慶傳](#)
 - [明昆明妙湛寺沙門釋悟本傳](#)
 - [明潤州金山靈觀閣沙門釋定清傳](#)
 - [明通海東華山寺沙門釋慧心傳](#)
 - [明峨眉普賢寺沙門釋慧宗傳](#)
 - [明洱海般若寺沙門釋真語傳](#)
- [之六](#)
 - [明房山上方普濟寺沙門釋銀圓傳](#)
 - [明黃山慈光寺沙門釋惟安傳](#)
 - [明當陽玉泉紫紫庵沙門釋法瑄傳](#)
 - [明鼓山白雲洞沙門釋悟宗傳](#)
 - [明官都廣濟寺沙門釋徹天傳](#)
 - [明黃山雲嶺禪院沙門釋如本傳](#)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如通傳](#)
 - [明沙市白齋庵沙門釋道通傳](#)

- [明雲中普興禪院沙門釋義玄傳](#)
- [明皖中浮山華嚴寺沙門釋本智傳](#)
- [明遠安壽隆寺沙門釋普義傳](#)
- [明燕京資福寺沙門釋鎮端傳](#)
- [明梓潼迴龍寺沙門釋慧茲傳](#)
- [明代州七佛寺沙門釋道相傳](#)
- [之七](#)
 - [明五臺山聖光寺沙門釋福登傳](#)
 - [明雲南雞足山傳衣寺沙門釋寂觀傳](#)
 - [明四川黃龍寺沙門釋觀止傳](#)
 - [明曲靖玉龍寺沙門釋海量傳](#)
 - [明鼓山白雲峯湧泉寺沙門釋大艤傳](#)
 - [明潤州金山寺沙門釋洪肇傳](#)
 - [明湘鄉荊紫山寺沙門釋無學傳](#)
 - [明杭州上天竺寺沙門釋萬靈傳](#)
 - [端州慶雲禪院沙門釋道邱傳](#)
- [之八](#)
 - [清雲南雞足山斷際庵沙門釋寂定傳](#)
 - [清四明大梅山保福寺沙門釋行幟傳](#)
 - [清公安玉泉寺沙門釋海福傳](#)
 - [清當陽東禪堂沙門釋性關傳](#)
 - [清荊州天王寺沙門釋慧海傳](#)
 - [清四川雙桂福國禪院沙門釋海明傳](#)
 - [清盤山正法禪院沙門釋行乾傳](#)
 - [清黃檗山寺沙門釋隆琦傳](#)
 - [清興教萬壽禪寺沙門釋道仁傳](#)
 - [清黃檗山寺沙門釋性願傳](#)
 - [衡陽東山智勝寺沙門釋明德傳](#)
- [之九](#)
 -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老藏傳](#)
 - [清仙溪城峰禪院沙門釋一空傳](#)
 - [清漳州南山萬善庵沙門釋無疑傳](#)
 - [清杭州靈隱寺沙門釋弘禮傳](#)
 - [清公安報慈寺沙門釋濟亮傳](#)
 - [清潭州大滄山寺沙門釋明應傳](#)
 - [清臨安迎恩寺沙門釋淨極傳](#)
 - [清金陵靈谷禪寺沙門釋宗輝傳](#)
 - [清杭州靈隱寺沙門釋性證傳](#)

- [清仁和良山崇福寺沙門釋超海傳](#)
- [清四明阿育王山沙門釋持荃傳](#)
- [之十](#)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普璠傳](#)
 - [清廬山福興寺沙門釋然理傳](#)
 - [清維揚智珠寺沙門釋性賢傳](#)
 - [清姑蘇治平寺沙門釋性言傳](#)
 - [清鎮海瑞巖寺沙門釋宗輝傳](#)
 -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圓琳傳](#)
 - [清龍城雙鳳山朝陽寺沙門釋語蓮傳](#)
 - [清孤嶼江心寺沙門釋通榛傳](#)
 - [清燕京龍泉寺沙門釋直如傳](#)
 - [清衡山曉霞峯沙門釋續桂傳](#)
 - [清當陽玉泉寺沙門釋惠證傳](#)
 - [清衡陽太和菴沙門釋果法傳](#)
 - [清新化四願禪寺沙門釋慈源傳](#)
 - [清長沙定湘王廟沙門釋續成傳](#)
- [之十一](#)
 - [清新都寶光寺沙門釋覺賢傳](#)
 - [清燕京圓廣寺沙門釋顯珠傳](#)
 -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普德傳](#)
 - [清沔陽甘露寺沙門釋悟丘傳](#)
 - [清江陵章華寺沙門釋松青傳](#)
 - [清新都寶光寺沙門釋宗興傳](#)
 - [清東天日山昭明寺沙門釋頓覺傳](#)
 - [清東安麒麟寺沙門釋無彼傳](#)
 - [清成都昭覺寺沙門釋通朗傳](#)
 - [清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常照傳](#)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昌心傳](#)
 - [清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地華傳](#)
 - [清漢陽圓照寺沙門釋體海傳](#)
 -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覺海傳](#)
 - [清維揚福緣寺沙門釋日照傳](#)
 - [清梓潼永利寺沙門釋圓鏡傳](#)
- [雜識篇第十](#)
 - [之一](#)
 - [宋京師左街天壽寺沙門釋贊寧傳](#)
 - [宋虎邱雲巖寺沙門釋元淨傳](#)

- [宋餘杭靈隱寺沙門釋如璧傳](#)
- [宋潤州金山寺沙門釋懷賢傳](#)
-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良策傳](#)
- [宋潭州南嶽寺沙門釋宣義傳](#)
- [宋長沙開福寺沙門釋洪蘊傳](#)
- [宋直定木浮圖寺沙門釋懷丙傳](#)
- [宋京師相國寺沙門釋智緣傳](#)
- [宋四明雪竇資聖寺沙門釋曇穎傳](#)
- [宋溫州明慶院沙門釋處巖傳](#)
- [之二](#)
 - [南宋泉州開元尊勝院沙門釋太初傳](#)
 - [南宋江西羅湖沙門釋曉榮傳](#)
 -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智融傳](#)
 - [元雲南蒼山寺沙門釋圓護傳](#)
 - [元餘杭淨慈寺沙門釋希陵傳](#)
 - [元四明仗錫延勝寺沙門釋炳回傳](#)
 - [元泰安靈巖寺沙門釋福海傳](#)
 - [元泰安靈巖寺沙門釋思泉傳](#)
 - [元泉州開元寺沙門釋大圭傳](#)
 - [元渭南洪福寺沙門釋子成傳](#)
- [之三](#)
 - [明海鹽福臻寺沙門釋梵琦傳](#)
 - [明虎邱靈巖寺沙門釋至仁傳](#)
 - [明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宗繁傳](#)
 - [明泉州開元東塔院沙門釋正派傳](#)
 - [明燕京萬福寺沙門釋淨倫傳](#)
 - [明荊州普仰寺沙門釋滿秀傳](#)
 - [明雲昆明寺沙門釋廣慧傳](#)
 -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照兼傳](#)
 - [明荊州天阜寺沙門釋寒灰傳](#)
 - [明永嘉西岑紫芝峰沙門釋性靜傳](#)
 - [明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智闇傳](#)
 - [明金陵棲賢庵寺沙門釋性潔傳](#)
 - [明雲南石寶山寶巖居沙門釋思明傳](#)
 -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德璩傳](#)
 - [明福州雪峯寺沙門釋超弘傳](#)
- [之四](#)
 - [清虎邱雲巖寺沙門釋白扃傳](#)

- [清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元賢傳](#)
- [清泰山普照寺沙門釋元玉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儂傳](#)
- [清磐山青溝禪院沙門釋智朴傳](#)
- [清福州雪峯寺沙門釋照拙傳](#)
- [清漳州南山報敏寺沙門釋超極傳](#)
- [清長沙嶽麓寺沙門釋續燈傳](#)
- [清嘉魚西安禪院沙門釋弘照傳](#)
- [清燕京觀音禪寺沙門釋元徹傳](#)
- [清南嶽石浪庵沙門釋法智傳](#)
- [清黃山雲嶺禪院沙門釋普信傳](#)
- [清昆明妙湛寺沙門釋讀徹傳](#)
- [清大埔南安寺沙門釋幽明傳](#)
- [之五](#)
 - [清當陽玉泉寺沙門釋道巖傳](#)
 - [清海寧安國寺沙門釋大涵傳](#)
 - [清房山上方山寺沙門釋常岫傳](#)
 - [清太平白雀雨花寺沙門釋聖通傳](#)
 - [清南嶽曉霞峰沙門釋文惺傳](#)
 - [清潤州焦山寺沙門釋智先傳](#)
 - [清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湛傳](#)
 - [清福州雪峯寺沙門釋海印傳](#)
 - [清杭州淨慈寺沙門釋明幢傳](#)
 - [清杭州雲林寺沙門釋義果傳](#)
 - [清棲水大善寺沙門釋篆玉傳](#)
 - [清長沙華林寺沙門釋文楷傳](#)
- [之六](#)
 - [清長沙鐵佛寺沙門釋無跡傳](#)
 - [清金陵靈谷寺沙門釋彌垠傳](#)
 - [清杭州雲林寺沙門釋悟森傳](#)
 - [清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清恒傳](#)
 - [清銅梁壽隆寺沙門釋悟賢傳](#)
 - [清峽湄臥雲庵沙門釋源通傳](#)
 - [清公安今古寺沙門釋如慧傳](#)
 - [清當陽玉泉寺沙門釋隆昇傳](#)
 - [清金陵靈谷寺沙門釋禰修傳](#)
 - [清成都昭覺寺沙門釋照常傳](#)
 - [清四明天童寺沙門釋敬安傳](#)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 [63.](#)
- [64.](#)
- [65.](#)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序

嘗稽三寶之名曰佛曰法曰僧佛法之可崇尚無待贅言僧實與鼎足而三其隆重抑又可見蓋僧以弘法為唯一之責任而即為後來親證佛果之人其恢大悲之願而殫普度之誠作斯人之導師為同修之善侶揚宗風於不盡示模範於將來興言及此頂禮恐後已是故搜集闡揚後起之責非古德之私榮乃是非之公理懿夫梁代慧皎倡之於前道宣贊寧如惺諸宿繼之於後使夫窮山苦行面壁深功無礙辯才彌天宏誓悉昭竹帛常炳日星固奇珍有必發之光亦汲古有至修之綆語云相得益彰豈不然哉今燕都法源寺道階上人與諸山長老同抱盛懷思繼前軌輒以纂修之事屬諸社友喻味庵先生雖搗鳴表度遜讓未遑終以祈嚮所在義難自外乃百方採輯五載精勤甄今陶古門分類別又以如惺所集誼例未周本諸仁山之論略事修改參附其中使宋端拱以來迄清宣統之際千百年中碩德耆宿莫不采錄卓哉斯集洵桑門之大觀禪林之信史矣癸亥秋初編輯斯就於以彰潛德之幽光示後賢以法守仲仁山未盡之志暢諸宿深遠之懷事祇一端實兼四善余於佛學高深有志未逮今喜此編之成又重違味庵之請聊貢區區為詳顛末匪曰解人亦愚者一得焉耳
癸亥孟秋天津嚴修序

序

夫聖智不言而萬靈俱澈法身無相而眾品斯呈故能總攝羣方妙成至果豈必藉高文以炫世假隱遁而盜名欲證清修轉嫌佞口者乎然而靈山會邈道燄疇傳慧海波深慈航莫濟使無王子之碑何知淨域非有休文之記詎識法王善覺露盤因詞人而不朽同泰墓碣附作者以永留發般若之元音吼天毒鼓揆生花之彩筆梵地蓮池此尋奧誼於六通固在語言之表而究真諦於三藏不離文字之間欲示遺行多憑纂述僧傳之作其能已乎況慧皎刊修於梁代道宣綴輯於唐時自宋迄明間有續編並懋鬯禪芬永垂高範然攷贊寧所作止於端拱初元如惺所傳又僅教禪數卷若夫建炎而後宣統以前曠有千載閱歷四朝其中英材之士苦行之儔經求身毒說演天台禪振北派律繼南山翊法著辨疑之論安養闢淨讀之門密印神悟心佛形忘興崇福果兼擅眾長若斯之倫代有其選而此作蔑如斯文將缺方之往哲不其慙與燕都法源道階常州清涼靜波寧海普陀印光析津千福蓮舟暨諸山長老名刹碩耆俱懷悲憫共與籌商將續我佛慧命宜開方外史館庶事責有耑程功可冀而衡陽喻味庵先生耽志丘墳軼情述作猥以躋荒避地遠來應南北高侶之聘萃東西古德之言循舊例於十科輯新名之萬善徵諸志乘案之碑銘或訪輶軒之使或徇老宿之譚鉛槧三易寒暑

五周成書六十餘卷得僧千幾百人都五十餘萬言曰續高僧傳四集有聞必擇備法器之瓌奇無美弗收侈禪林之珍貴矧復比類屬詞條文本諸史傳因時致慨筆削擬乎春秋庶幾匡迪來學見賢思齊戒懼後生不肖知恥則是篇之成功用所及非徒燭微闡隱發潛德之幽光抑以指謬摘疵具宗門之痛喝也已至於文辭典正體例精嚴諒為空門之寶無慚大雅之林乃猶自視欲然更求該博未謀梓氏光付印人將欲希法藏之明鑑企哲匠之郢斤志量斯閱聲施彌遠(壽田)誼屬久交結斯雅契略敘所由用塵清慮如有未[□@舟]覽者詳焉
癸亥夏六月朔日桂陽夏壽田序

述詞

昔楊仁山居士取藏中高僧傳分刊之用廣流傳且識之曰梁會稽沙門慧皎撰高僧傳十六卷至天監中而止唐釋道宣續之終於貞觀間凡四十卷曰續高僧傳宋釋贊寧又續之迄於端拱之初凡三十卷曰宋高僧傳至明季沙門如惺輯錄南宋元明大德僅成六卷曰明高僧傳竊以宋明命名未恰蓋宋傳多唐五代人而明傳多宋元人也當易其名曰初集二集三集至於明傳遺漏殊多未臻完善擬博採羣書自北宋以迄於今擇其道行超著者彙為一編名曰四集嗟夫楊子固有志於斯而未之逮也戊午之秋避地北來寓於燕都法源寺時

道階長老久懷悲願欲繼往修屢舉相屬然自揆禱味罔鬯弘旨不敢輕許但為修輯寺志數月以來志稿初就復申前請辭不獲已乃從事搜討舊編徵求遺簡窮年矻矻忽焉五稔潦艸命觚大致羸就祇以明傳六卷分合為難躊躇再四商之同學僉謂仁山之言無以易也於是取其精詳汰其重複自北宋以至清季都六十六卷名曰續高僧傳四集仍楊議也至於分科別目雖參新誼實率舊章幾經咨度就正有道若夫追尋源派判析宗門詣有兼通唯其獨至猶慮異方僻處囿於見聞採訪未徧滋愧尤深輒復檢字排印先塵

清覽者所冀當代

高賢名藍

耆德董而正之匡其未備翹首雲天企之久矣

癸亥夏四月朔日衡陽喻謙謹述

啟

夫道不虛傳非言何述事無專美克紹斯彰是以玄奘西征貝經顯出達摩東渡象教流行秉德至化之儔激揚清風之士叩玄機而應響曾妙解以成文並光充四表譽專九州像可絢乎金碧蹟宜著乎竹帛由是慧皎纂修於

梁武道宣綴敘於唐宗贊寧則增麻宋代如惺則集會明時莫不窮討遺篇網羅舊史攷覈務其翔實刊削汰其繇蕪遂得累續前編式是往則芳躅宛然欽高山之仰止逝者如斯歎流景之不回然自明迄今歲曆彌永事踐兩朝年踰三百此間桑門英耆輩出翼教扶運代有其人而眾家記錄未能綜博致使隱德高風颯然終古矧時機多變法會陵夷凡夫墮清修之行俗子驚浮薄之名茲德莫崇儻焉是懼蓋徽音久息誰立正覺之程懿範不留曷興高尚之志用敢鳩聚同參纘承墜緒重開新續高僧傳館於北京法源寺幸當代尊宿叢席導師並顧斯文咸深贊勗爰集名流潛心搜採但見聞所囿過訪為勞是宜分面徵求別途湊集或案碑銘或據行狀或因志乘所載繇證譜所傳孤文片紙有可紀者罔弗擇取考其同異雖其有亡用宏四帙之編不外十科之例雖梁唐分篇互有出入宋明兩集微形詳略求之實際大旨不殊謹為條例附識於后凡我禪林大德護法檀越善心居士慧業文學煒諸彤瑄貽我新聞憑此郵笥竚望來簡

- 譯經篇第一
 - 西竺遺經尚未盡出有能譯得未刊之典殘編賸義尤當寶貴
- 義解篇第二(唐曰解義)
 - 尋文見義豁然悟解或釋經訓或撰語錄說理精深方當此選
- 習禪篇第三
 - 清修枯坐萬念俱亾幽山窮巖古佛所宅閉關深造方足當之
- 明律篇第四
 - 精嚴戒德說法警眾勘破虛妄著有律訓者均入此科
- 護法篇第五(梁無此目唐宋曾收)
 - 外道相賊功深捍衛議論縱橫辯者莫當或以身殉尤為難能
- 靈感篇第六(梁曰神異唐宋均曰感通)
 - 至誠所積感而遂通理有自然世俗罕測事必可驗道無或爽
- 遺身篇第七(梁曰忘身唐宋改比)
 - 捐軀見志明道相期捨此穢濁迴我金剛心無疾忿方足稱此
- 淨讀篇第八(梁有誦經又有經師唐宋改為誦讀今併入此科以淨為歸)
 - 誦經諷佛是曰淨修功果圓時西土非遙念念自持庶證真如
- 興福篇第九
 - 名勝古刹歲久荒落苦志重修或啟蘭若獨自剏構厥功尤偉
- 雜識篇第十(梁曰唱導唐曰雜科宋曰雜科聲德)
 - 聲音文字足顯佛法自古以來不廢此科戒德無愆不愧斯選

新續高僧傳四集目錄

- 卷首 北京法源寺沙門道階倡修
 - 序文
 - 述詞
 - 徵文啟
 - 義例
- 卷一
 - 譯經篇第一之一(本傳五人 附見十人)
 -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天傳
 - 京師傳法院沙門釋天息災傳(施護 道圓 行動 光遠)
 - 西夏護國仁王寺沙門釋不動傳
 - 京師傳法院沙門釋法護傳(惟淨 紹德 慧絢)
 - 京師傳法院沙門釋吉祥傳(慈賢 金總持 日稱)
- 卷二
 - 譯經篇第一之二(本傳九人 附見八人)
 - 元甘泉馬蹏山沙門釋智慧傳(廣福 安藏 逸林)
 - 雲南玉案山寺沙門釋雄辯傳
 - 燕都慶壽寺沙門釋沙囉巴傳(刺溫卜 迦囉思巴)
 - 燕都廣寒院沙門釋識里傳
 - 會稽圓通寺沙門釋弘濟傳(般若空利)
 - 明臨安淨慈寺沙門釋宗泐傳
 - 金陵鍾山西天寺沙門釋智光傳(班的答 惠便)
 - 清五臺清涼山寺沙門釋老藏傳
 - 蒙古多倫泊彙宗寺沙門釋克圖傳
- 卷三
 - 義解篇第二之一(本傳廿四人 附見八人)
 - 宋永嘉瑞鹿寺沙門釋本先傳
 - 溫州東溪艸堂沙門釋處元傳
 - 吳會北禪寺沙門釋可觀傳
 - 永嘉開元寺沙門釋繼忠傳
 - 武林靈山日觀寺沙門釋遵式傳
 - 松江興聖寺沙門釋淨真傳
 - 杭州昭慶寺沙門釋仁嶽傳
 - 溫州瑞鹿寺沙門釋遇安傳
 - 鳳凰山聖果寺沙門釋希最傳
 - 錢塘寶藏寺沙門釋從義傳
 - 武林大悲閣沙門釋玄淨傳
 - 潤州金山寺沙門釋梵臻傳(從諫)
 - 鳳凰山聖果寺沙門釋佛護傳

- 泉州寶勝院沙門釋戒環傳
- 南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若訥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法照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善月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居簡傳
- 台州白蓮寺沙門釋了然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應如傳(本如 道如)
- 明州寶林寺沙門釋了宣傳(善榮)
- 遼中京報恩傳教寺沙門釋法悟傳(志福)
- 燕京奉福寺沙門釋非濁傳
- 南詔蒼山再光寺沙門釋普瑞傳(普濟 皎淵 淨妙澄)
- 卷四
 - 義解篇第二之二(本傳廿二人 附見十五人)
 - 元古杭淨慈寺沙門釋善慶傳
 - 古杭上天竺寺沙門釋性澄傳(雲夢澤)
 - 古杭下天竺寺沙門釋蒙潤傳(古源 竹堂傳)
 - 古杭淨慈寺沙門釋處林傳(及庵信 夷簡 虛谷陵)
 - 古杭慧因寺沙門釋盤谷傳
 - 紹興雲門寺沙門釋允若傳(大山恢)
 - 古杭演福寺沙門釋必才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悟光傳
 - 古杭上天竺寺沙門釋真淨傳
 - 天台薦福寺沙門釋善繼傳
 - 明州寶雲寺沙門釋子文傳
 - 四明延慶寺沙門釋本無傳
 - 天台佛隴修禪寺沙門釋可公傳
 - 五臺山祐國寺沙門釋文才傳(迦羅斯巴)
 - 秦州景福寺沙門釋英辯傳(柏林潭)
 - 京師崇恩寺沙門釋德謙傳
 - 京師慶壽寺沙門釋達益巴傳(綽思吉)
 - 京師寶集寺沙門釋妙文傳(大德明)
 - 五臺山普寧寺沙門釋了性傳
 - 玉山普安寺沙門釋寶嚴傳(大林性)
 - 金陵天禧寺沙門釋志德傳(海聞 法照禧)
 - 鎮江普照寺沙門釋普喜傳(無念端)
- 卷五
 - 義解篇第二之三(正傳十六人 附見十四人)
 - 明大理蕩山沙門釋無極傳

- 嘉定淨慈寺沙門釋祖爾傳(石室瑛 竹屋淨)
- 餘杭上天竺寺沙門釋弘道傳
- 寧波普陀寺沙門釋行丕傳
- 松江興聖寺沙門釋原爭真傳
- 陽山大慈寺沙門釋善學傳(原澄)
- 餘杭上天竺寺沙門釋慧日傳(柏子庭)
- 餘杭演福寺沙門釋如玘傳
- 紹興寶林寺沙門釋大同傳(春谷 古懷錢 古林茂)
- 錢塘靈隱寺沙門釋原澗傳
- 餘杭集慶寺沙門釋土璋傳(天心瑩)
- 婺州智者寺沙門釋普仁傳(德祥)
- 上海安國寺沙門釋紹宗傳(靜庵鎮)
- 餘杭淨慈寺沙門釋明德傳(悅堂顏)
- 會稽寶相寺沙門釋懷渭傳
- 錢塘靈隱寺沙門釋大訢傳(了萬 晦機 東叟)
- 卷六
 - 義解篇第二之四(正傳十四人 附見九人)
 - 明餘杭淨慈寺沙門釋道聯傳(物先義 宗靜)
 - 松江普照寺沙門釋居敬傳(東源)
 - 餘杭龍井寺沙門釋普智傳
 - 姑蘇延慶寺沙門釋善啟傳
 - 餘杭上天竺寺沙門釋永顧傳(如蘭)
 - 桂林橫州壽佛寺沙門釋應能傳
 - 雲南雞足大覺寺沙門釋盡玄傳(幻空)
 - 北直羊山秀峰寺沙門釋明龍傳(大光)
 - 姑蘇華山寺沙門釋祖住傳(大章)
 - 餘杭淨慈寺沙門釋大壑傳
 - 餘杭土橋庵沙門釋圓瓏傳(紹覺承 直界)
 - 隰州石室寺沙門釋圓鏡傳
 - 應天棲霞寺沙門釋真節傳
 - 塘棲大善寺沙門釋傳如傳
- 卷七
 - 義解篇第二之五(正傳八人 附見十二人)
 - 明金陵寶華山寺沙門釋洪恩傳
 - 嘉興東禪寺沙門釋明得傳(百川海 妙峰覺)
 - 餘杭昭慶寺沙門釋大惠傳(紹覺 愚菴貴)
 - 雲南雞足放光寺沙門釋禪傳
 - 餘杭徑山寺沙門釋圓澄傳

- 天台慈雲寺沙門釋真清傳(寶珠 荆山 月溪)
- 餘杭徑山寺沙門釋真可傳(密藏 道開 法鐙 性田)
- 清涼山竹林寺沙門釋鎮澄傳(小山 笑巖)
- 卷八
 - 義解篇第二之六(正傳四人 附見十人)
 - 明廬山法雲寺沙門釋德清傳(西林 福善 通岸 通炯 超逸)
 - 寶慶五臺庵沙門釋觀衡傳(惠仁 空印)
 - 餘杭理安寺沙門釋如嵩傳(靜明 易庵)
 - 定遠白馬山蓮城寺沙門釋清宣傳(空谷)
- 卷九
 - 義解篇第二之七(正傳十二人 附見九人)
 - 青青陽九華山華嚴庵沙門釋智旭傳
 - 杭州上天竺寺沙門釋方誌傳
 - 宜都青林寺沙門釋道隆傳(敏樹)
 - 潤州金山寺沙門釋通問傳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超樂傳(明銓 實雄)
 - 安徽清涼寺沙門釋音可傳
 - 峽州石塔寺沙門釋戒隱傳(德儀)
 - 當陽玉泉寺沙門釋圓惺傳(一真 大咸)
 - 四明天童寺沙門釋本哲傳
 - 四明天童寺沙門釋超靜傳(元盛)
 - 四明天童寺沙門釋通門傳
 - 燕都廣濟寺沙門釋湛祐傳(靈機觀 天樹植)
- 卷十
 - 義解篇第二之八(正傳三人 附見二人)
 - 清燕都萬善寺沙門釋通理傳(心興)
 - 錢塘淨慈寺沙門釋明中傳(實蔭)
 - 句容赤山寺沙門釋本心傳
- 卷十一
 - 習禪篇第三之一(正傳廿一人 附見廿人)
 - 宋常德文殊寺沙門釋心道傳
 - 西蜀昭覺寺沙門釋純白傳
 - 慶元天童寺沙門釋普交傳
 - 潭州法輪寺沙門釋應端傳
 - 溫州龍翔寺沙門釋士珪傳(宗範)
 - 衢州烏巨山沙門釋道行傳
 - 餘杭靈隱寺沙門釋宗印傳(希夷)
 - 潭州大瀉山沙門釋法泰傳

- 當陽玉泉寺沙門釋務本傳(文宣 可忠 慧遠 宗道 懷遠 知忍 知藏 懷靜 齊月 慧本)
- 衡山南嶽石頭庵沙門釋懷志傳
- 眉州中巖寺沙門釋祖覺傳(慧日能 南堂靜)
- 台州釣魚臺沙門釋白回傳
- 江寧太平興國寺沙門釋贊元傳(法泉)
- 虎丘靈巖寺沙門釋清順傳(子英 智通 慧光)
- 江寧太平興國寺沙門釋慧懃傳(懷深)
- 潼川護聖寺沙門釋居靜傳
- 潭州大瀉山沙門釋清旦傳
- 天台國清寺沙門釋行機傳
- 澧州靈巖寺沙門釋仰安傳(表白)
- 江州圓通寺沙門釋道旻傳
- 隆興雲巖寺沙門釋天遊傳
- 卷十二
 - 習禪篇第三之二(正傳十二人 附見三人)
 - 南宋西蜀昭覺寺沙門釋克勤傳
 - 泉州教忠寺沙門釋彌光傳(黃蘗祥)
 - 嘉興報恩寺沙門釋法常傳
 - 成都信相寺沙門釋宗顯傳
 - 平江虎丘寺沙門釋紹隆傳
 - 真州長蘆庵沙門釋青了傳
 - 天台山萬年寺沙門釋法一傳
 - 建康華藏寺沙門釋安民傳
 - 潭州龍牙寺沙門釋智才傳
 - 明州天童寺沙門釋正覺傳(枯木成 丹霞淳)
 - 臨安徑山寺沙門釋宗杲傳
 - 紹興慈氏院沙門釋瑞仙傳
- 卷十三
 - 習禪篇第三之三(正傳十七人 附見十人)
 - 南宋慶元育王山沙門釋端裕傳
 - 隆興黃龍寺沙門釋道震傳
 - 華亭昭慶寺沙門釋法寧傳
 - 安吉何山寺沙門釋守珣傳(廣鑑英)
 - 眉州象耳山沙門釋袁覺傳(佛性)
 - 成都昭覺寺沙門釋道元傳(大別道)
 - 平江南峰寺沙門釋雲辯傳(穹窿圓)
 - 南康雲居寺沙門釋善悟傳

- 隆興黃龍寺沙門釋法忠傳
- 臨安靈隱寺沙門釋如珏傳(寒巖升 廣聞)
- 天台護國寺沙門釋景元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妙倫傳
- 臨安靈隱寺沙門釋慧遠傳(靈巖徽)
- 臨安徑山寺沙門釋智策傳(寂室光 大圓)
- 臨安靈隱寺沙門釋道樞傳
- 明州普陀山沙門釋慧暉傳(悟明)
- 臨安徑山寺沙門釋寶印傳
- 卷十四
 - 習禪篇第三之四(正傳十三人 附見八人)
 - 南宋餘杭淨慈寺沙門釋重顯傳(韓大伯 善暹)
 - 常州華藏寺沙門釋有權傳
 - 南康雲居寺沙門釋德昇傳(慧溫)
 - 南康雲居寺沙門釋白圓傳(善能)
 - 臨安淨慈寺沙門釋彥充傳
 - 潭州上封寺沙門釋諱才傳(海印隆)
 - 明州天童寺沙門釋文禮傳
 - 臨安靈隱寺沙門釋德光傳(光化吉)
 - 江州東林寺沙門釋道顏傳
 - 福州西禪寺沙門釋鼎需傳
 - 建寧沙門釋道謙傳
 - 平江覺海寺沙門釋法因傳
 - 眉州中巖寺沙門釋蘊能傳(澄甫 崇真)
- 卷十五
 - 習禪篇第三之五(正傳十三人 附見三人)
 - 南宋餘杭靈隱寺沙門釋之善傳
 - 明州天童寺沙門釋曇華傳
 - 婺州智者寺沙門釋真慈傳
 - 福州鼓山寺沙門釋安永傳(安分)
 - 臨安淨慈寺沙門釋曇密傳
 - 明州天童寺沙門釋咸傑傳
 - 夔州臥龍山沙門釋祖先傳(法薰)
 - 臨安靈隱寺沙門釋崇嶽傳
 - 臨安徑山寺沙門釋師範傳
 - 名山天寧寺沙門釋禪惠傳
 - 巴州宣密院沙門釋顯嵩傳
 - 平江靜慈寺沙門釋法全傳

- 臨安徑山寺沙門釋道冲傳
- 卷十六
 - 習禪篇第三之六(正傳七人 附見六人)
 - 金上京大儲慶寺沙門釋海慧傳(清慧)
 - 濟南靈巖寺沙門釋道詢傳(淨如)
 - 燕都慶壽寺沙門釋教亨傳(普照寶)
 - 燕都潭柘山寺沙門釋政言傳(慈照)
 - 薊州盤山雙峰寺沙門釋廣溫傳(圓新)
 - 鄭州普照寺沙門釋道悟傳(雲海)
 - 燕都潭柘山寺沙門釋相了傳
- 卷十七
 - 習禪篇第三之七(正傳廿人 附見九人)
 - 元慶元育王山沙門釋如珙傳
 - 餘杭徑山寺沙門釋行端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妙恩傳(契祖 真首座 杰道者)
 - 燕都西劉村寺沙門釋行秀傳
 - 餘杭淨慈寺沙門釋原妙傳
 - 保定興聖寺沙門釋德富傳
 - 明州佛巖寺沙門釋天倫傳
 - 吳興霞霧山沙門釋清珙傳
 - 錢塘靈隱寺沙門釋法林傳
 - 義烏雲黃山寶林寺沙門釋紹大傳
 - 徑山興聖萬壽寺沙門釋正源傳
 - 金華天龍寺沙門釋守貴傳(大道平 千巖長)
 - 錢塘妙果寺沙門釋水盛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普就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智慧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如照傳(道符 廣漩)
 - 鄒縣大明禪院沙門釋海印傳
 - 餘杭鳳凰山聖果寺沙門釋珠明傳
 - 餘杭吳山聖水寺沙門釋明本傳(惟則)
 - 兗州布金山大雲寺沙門釋行全傳(德友)
- 卷十八
 - 習禪篇第三之八(正傳十一人 附見五人)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可光傳
 - 金陵鍾山寺沙門釋班的答傳
 - 宜興龍池寺沙門釋永寧傳
 - 處州福林禪院沙門釋智度傳

- 杭州淨慈寺沙門釋智及傳(廣智)
- 四明寶陀寺沙門釋慧照傳
- 溫州雁蕩山羅漢寺沙門釋正智傳(大觀)
- 五臺山靈鷲庵沙門釋寶金傳
- 五臺山壽安禪林沙門釋具生傳
- 杭州天目山沙門釋印原傳(智曜)
- 虎邱雲巖寺沙門釋文琇傳(無盡慧 滅宗起)
- 卷十九
 - 習禪篇第三之九(正傳十二人 附見十三人)
 - 明金陵靈谷寺沙門釋道謙傳(居頂 淨戒)
 - 金陵靈谷寺沙門釋能義傳
 - 金陵靈谷寺沙門釋三峰傳
 - 燕京潭柘山龍泉寺沙門釋德始傳
 - 五臺山顯通寺沙門釋迦也失傳
 - 衡山南嶽寺沙門釋開緣傳(寶珠 圓昂)
 - 泉州開元寺沙門釋道超傳(秋鑑 祖淵 月溪 絕塵 無際 澤忠)
 - 五臺山普濟寺沙門釋淨澄傳
 - 衡山南臺寺沙門釋無礙傳
 - 雲南歸化寺沙門釋善堅傳(鐵封)
 - 金陵大報恩寺沙門釋永寧傳
 - 雲南雞足山聖峯寺沙門釋德住傳(興徹 祖復)
- 卷二十
 - 習禪篇第三之十(正傳十人 附見三人)
 - 明攝山棲霞寺沙門釋法會傳
 - 燕京吉祥院沙門釋明信傳
 - 新城壽昌寺沙門釋慧經傳
 - 青陽九華山沙門釋性蓮傳
 - 會稽華嚴寺沙門釋志若傳
 - 廬山雲中寺沙門釋法忠傳
 - 燕京大慈壽寺沙門釋覺涓傳
 - 杭州東天目昭明寺沙門釋如雲傳(曉本 性沖)
 - 金臺龍華寺沙門釋廣禎傳
 - 會城斗光寺沙門釋洪上傳(不語僧)
- 卷二十一
 - 習禪篇第三之十一(正傳九人 附見三人)
 - 明徑山化城寺沙門釋法鎧傳
 - 四明天童寺沙門釋圓悟傳

- 雲南竹林寺沙門釋密行傳
- 荊南普仰寺沙門釋正誨傳(了凡峇)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洪如傳
- 湖州上柏山報恩禪院沙門釋天隱傳
- 寧鄉大瀉山同慶寺沙門釋如學傳(圓上座)
- 漳州南山報敏禪院沙門釋巨信傳
- 夾山沙門釋本豫傳(方來)
- 卷二十二
 - 習禪篇第三之十二
 - 清峨湄毘盧院沙門釋克誠傳(貫之 性藏 實如)
 - 寧鄉大瀉密印寺沙門釋正明傳(慧山海)
 - 四明天童寺沙門釋通賢傳
 - 四明天童寺沙門釋通容傳
 - 四明天童寺沙門釋道恣傳
 - 錢塘淨慈寺沙門釋正岳傳(方孝)
 - 孤嶼江心寺沙門釋本瑩傳
 - 瑞安仙巖寺沙門釋超志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本畫傳
 - 荊南東山天齊禪院沙門釋明智傳(實妙)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普行傳(學蘊)
 - 富民九峯山西華寺沙門釋慧宗傳(心安 道瑞)
- 卷二十三
 - 習禪篇第三之十三(正傳十四人 附見六人)
 - 清燕京柏林寺沙門釋超方傳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通荷傳
 - 永豐禪院沙門釋本實傳(洪中 海航)
 - 燕京西域寺沙門釋僧廣傳
 - 漢陽棲賢寺沙門釋行敬傳
 - 枝江玉安山六合寺沙門釋行洪傳
 - 公安觀音寺沙門釋超乘傳(雲錫)
 - 虎邱雲巖寺沙門釋弘儲傳(本琇)
 - 昆明勝因寺沙門釋德潤傳
 - 蜀北給孤寺沙門釋本襄傳(懶石 福慧)
 - 燕京海會寺沙門釋超古傳
 - 恰山棲雲寺沙門釋超定傳
 - 青林龍安寺沙門釋超況傳
 - 漳州馴虎巖沙門釋超頂傳
- 卷二十四

- 習禪篇第三之十四(正傳十人 附見十一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昱傳
 - 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印水傳
 - 杭州理安寺沙門釋行悅傳(行洸)
 - 湘陰神鼎山沙門釋行澤傳(玄劍 懋功 修水)
 - 杭州理安寺沙門釋行珍傳(斯瑞)
 - 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智檀傳(操雪筠)
 - 衡陽萬壽寺沙門釋行泰傳
 - 成都昭覺寺沙門釋通醉傳(溪聲圓 佛冤綱)
 - 杭州理安寺沙門釋超格傳(超徹)
 - 杭州雲林寺沙門釋原志傳(慧輅 智廣)
- 卷二十五
 - 習禪篇第三之十五(正傳十三人 附見九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性音傳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實徹傳(際雲)
 - 杭州理安寺沙門釋明鼎傳
 - 燕京西山普覺寺沙門釋元日傳
 - 杭州雲林寺沙門釋德元傳(德琳)
 - 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真旻傳
 - 杭州理安寺沙門釋明羲傳
 - 烏程陽山梵音院沙門釋通授傳
 - 成都昭覺寺沙門釋了元傳(際定)
 - 杭州理安寺沙門釋實月傳(實道)
 - 西蜀廣行寺沙門釋白光傳
 - 揚州高旻寺沙門釋際聖傳(天慧徹 了貞)
 - 天台國清寺沙門釋道宗傳(妙祥瑞 淨鑒 文定靜)
- 卷二十六
 - 習禪篇第三之十六(正傳八人 附見十二人)
 - 清什邡羅漢寺沙門釋達澈傳(月容)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祖真傳(續果)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大定傳
 - 金陵天寧寺沙門釋不二傳(焦山長老)
 - 安陸西來寺沙門釋秀野傳(裕如 純備)
 - 九華山百歲宮沙門釋寶悟傳(寶初 寶月 寶印)
 - 荊州如來庵沙門釋朗明傳(月明 永明 妙明)
 - 衡陽岐山仁瑞寺沙門釋無來傳(懶放)
- 卷二十七
 - 明律篇第四之一(正傳十人 附見九人)

- 宋餘杭昭慶寺沙門釋允堪傳
- 錢塘靈芝寺沙門釋元照傳
- 台州赤城寺沙門釋有嚴傳(妙生)
- 遼薊州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非覺傳(等偉)
- 金燕京左街淨垢寺沙門釋法律傳
- 南宋四明湖心寺沙門釋元肇傳(道言 思敏)
- 新城碧沼寺沙門釋宗利傳
- 桃源厲氏庵沙門釋晞顏傳(惟月)
- 錢塘七寶院沙門釋用欽傳(行詵 慧亨)
- 元餘姚極樂寺沙門釋戒度傳(旨公 智印)
- 卷二十八
 - 明律篇第四之二(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明華亭興聖寺沙門釋原真傳(紹宗)
 - 杭州昭慶寺沙門釋樸原傳(廣霽 成玉)
 - 燕都普慶寺沙門釋法聞傳
 - 燕都西山戒臺寺沙門釋道孚傳
 - 金陵天隆寺沙門釋如馨傳
 - 五臺山清涼寺沙門釋承芳傳
 - 金陵極樂寺沙門釋性相傳
 - 燕都古愍忠寺沙門釋永海傳
 - 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寂光傳
 - 太原永明寺沙門釋遠清傳
 - 姑蘇報國寺沙門釋性祇傳
 - 廣陵福田律院沙門釋性福傳
 - 潭州三角山沙門釋如幻傳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真利傳(明鑑)
- 卷二十九
 - 明律篇第四之三(正傳十五人 附見一人)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性璞傳(隱微理)
 - 燕京廣濟寺沙門釋海祿傳
 - 廣陵五臺律院沙門釋書禎傳
 - 江甯寶華山隆昌寺沙門釋讀體傳
 - 晉陵天寧寺沙門釋戒潤傳
 - 江甯寶華山隆昌寺沙門釋德基傳
 - 宿遷極樂庵沙門釋性澄傳
 - 杭州昭慶寺沙門釋書玉傳
 - 姑蘇師林寺沙門釋書秀傳
 - 淮安聞思寺沙門釋真賢傳

- 姑蘇真諦寺沙門釋書淨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照福傳
- 金陵寶華山慧居寺沙門釋真義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超越傳
- 金陵慈應院沙門釋通明傳
- 卷三十
 - 明律篇第四之四(正傳十四人 附見八人)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實[王*永]傳(心開)
 - 鳳山龍興寺沙門釋溥[璠-山]傳
 - 維揚石墘寺沙門釋學倫傳(瑞亭)
 - 燕京瑞應寺沙門釋性證傳
 - 宿遷極樂庵沙門釋興祥傳(不器)
 - 淮安普應寺沙門釋溥範傳
 - 毘陵永寧寺沙門釋學潛傳
 - 淮陰聞思寺沙門釋溥訓傳
 - 徽州韻松山寺沙門釋寂融傳(心空)
 - 江甯古林寺沙門釋海華傳(心融 隆野 印含)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澄林傳
 - 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常松傳
 - 儀徵隆覺寺沙門釋洪建傳(佛定)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明壽傳
- 卷三十一
 - 明律篇第四之五(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清燕京瑞應寺沙門釋祥暉傳
 - 徽州常樂庵沙門釋照宏傳
 - 杭州昭慶寺沙門釋隨道傳(福溶)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福傳
 - 杭州昭慶寺沙門釋果證傳
 - 宿遷壽聖寺沙門釋福住傳
 - 淮安觀音寺沙門釋源長傳
 - 金陵慈應寺沙門釋心觀傳
 - 維揚石墘寺沙門釋通和傳(實森)
 - 宿遷極樂庵沙門釋來照傳(德明)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圓瑞傳
 - 宿遷壽聖寺沙門釋祥珠傳
 - 江陰圓覺庵沙門釋宗深傳
 - 揚州慧因寺沙門釋實長傳(冶牧)
- 卷三十二

- 明律篇第四之六(正傳五人 附見三人)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福聚傳
 - 儀徵隆覺寺沙門釋普悅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諒傳
 - 燕京法源寺沙門釋性實傳
 - 燕京法源寺沙門釋昌濤傳(信修 普照 海祥)
- 卷三十三
 - 護法篇第五之一(正傳六人 附見三十六人)
 - 宋錢塘靈隱寺沙門釋契嵩傳
 - 餘杭淨慈寺沙門釋妙堪傳
 - 餘杭白雲庵沙門釋清覺傳
 -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妙高傳
 - 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祥邁傳(辯的 達拔 福裕 合思八 至溫 從超 德亨 從倫 圓胤 慶規 行育 道壽 明津 本璉 道雲 了詢 祖珪 元一 貴吉祥 相叡 善朗 倫吉祥)
 - 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鑄傳(止嚴 寶淵 福明 惠溥 自智 至福 自善 明見 至悟 宗元 廣鎔 至榮 紹中 虛谷 福資 福祐)
- 卷三十四
 - 護法篇第五之二(正傳六人 附見四人)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慧曇傳
 - 金臺永壽寺沙門釋思敏傳(邃庵)
 - 杭州靈隱寺沙門釋德明傳(真祥)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心傳
 - 燕都普濟寺沙門釋自成傳(覺淳 本在)
 - 杭州淨慈寺沙門釋道富傳
- 卷三十五
 - 護法篇第五之三(正傳十一人 附見十二人)
 - 清燕都廣濟寺沙門釋寬壽傳
 - 四州昭覺寺沙門釋離指傳
 - 雲南雞足山蘭陀寺沙門釋道足傳
 - 江寧吉林寺沙門釋本修傳(續悟)
 - 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了然傳(悟春 超塵 一誠 智林 凡滌 了因 淨因 木森 明道 凡超 聖舉)
 - 丹徒焦山自然庵沙門釋修敏傳
 - 長沙麓山寺沙門釋芳圃傳
 - 樂清白鶴寺沙門釋華山傳
 - 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復餘傳
 - 金陵毘盧寺沙門釋顯文傳

- 常州天寧寺沙門釋清鎔傳
- 卷三十六
 - 靈感篇第六之一(正傳十一人 附見二人)
 - 宋汴京景德寺沙門釋志言傳
 - 福州聖泉寺沙門釋紹鐙傳
 - 上海靜安寺沙門釋智儼傳
 - 溫州沙門釋了興傳
 - 天台常寧寺沙門釋處謙傳
 - 四明雪竇棲雲寺沙門釋知和傳
 - 金燕都潭柘寺沙門釋開性傳
 - 元邢州開元寺沙門釋廣恩傳
 - 潭州天臺山沙門釋彭彭傳
 - 大理沙門釋左黎傳(連精)
 - 晉寧東山盤龍寺沙門釋宗照傳
- 卷三十七
 - 靈感篇第六之二(正傳十四人 附見十人)
 - 明四明阿育王山廣利寺沙門釋崇裕傳
 - 台州國清寺沙門釋曇噩傳(榮枯木)
 - 四明瑞雲山清涼寺沙門釋僧茂傳(啟原)
 - 襄陽承恩寺沙門釋覺成傳
 - 昆明大德寺沙門釋道源傳
 - 金陵法藏寺沙門釋杜聖傳(董伽 法光 大千)
 - 曲靖真峯山沙門釋鏡中傳(志登 匾屯)
 - 杭州佛慧寺沙門釋圓果傳
 - 四川峩湄山沙門釋萬世傳(牟羅漢)
 - 雲南雞足山西來寺沙門釋如唐傳(大智)
 - 雲南筇竹寺沙門釋圓旭傳(陝西僧)
 - 九江廬山寺沙門釋法禪傳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周理傳
 - 薊州淨業寺沙門釋至明傳
- 卷三十八
 - 靈感篇第六之三(正傳十六人 附見七人)
 - 清燕都玉泉山二聖庵沙門釋僧清傳
 - 雲龍龍蟠寺沙門釋法鐙傳(廣術)
 - 衡陽法輪寺沙門釋石隱傳
 - 燕都廣濟寺沙門釋性美傳
 - 龍溪圓照寺沙門釋行森傳
 - 江寧古林寺沙門釋寂鼎傳(能高)

- 天台國清寺沙門釋達珍傳(宗海 素庵 昭月)
- 寧鄉大瀉山密印寺沙門釋濬明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廣福傳
- 荊州二神寺沙門釋悟誠傳(酒肆浮屠)
- 衡陽培元寺沙門釋無漏傳
- 維揚沙門釋澍菴傳
- 潤州焦山寺沙門釋悟信傳
- 五臺山清涼寺沙門釋源修傳(釋柱)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常順傳
- 燕京法源寺沙門釋護德傳
- 卷三十九
 - 遺身篇第七之一(正傳九人 附見四人)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德輝傳
 - 華亭青龍庵沙門釋妙普傳
 - 元上海柘澤寺沙門釋德林傳
 - 明長沙柏林寺沙門釋明星傳(曼荼羅尊者 參靈)
 - 上海施水庵沙門釋善信傳
 - 金陵寶華山寺沙門釋普照傳
 - 荊州沙門釋明秀傳(明富)
 - 富陽栗塢山沙門釋康齋傳(歸化比丘尼)
 - 薊州林亭庵沙門釋朗然傳
- 卷四十
 - 遺身篇第七之二(正傳十一人 附見九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杲傳(侍者)
 - 江甯華山沙門釋海潤傳(長溼僧 羅墅僧)
 - 荊州沙門釋無名傳
 - 衡陽法輪寺沙門釋淡遠傳(香英)
 - 杭州雲林寺沙門釋止安傳(定世)
 - 南嶽祝聖寺沙門釋齋子傳(慧明)
 - 江南金山寺沙門釋了庵傳(絡絲僧)
 - 房山上方黃龍庵沙門釋成淵傳
 - 宜昌慈雲寺沙門釋惺參傳(顯遠)
 - 荊州資聖寺沙門釋性空傳
 - 常州天寧寺沙門釋常慧傳(香火道人)
- 卷四十一
 - 淨讀篇第八之一(正傳十五人 附見七人)
 -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有基傳
 - 四明延慶寺沙門釋知禮傳(省常)

- 樂清政洪寺沙門釋覺秀傳
- 池陽松山庵沙門釋義懷傳
- 東山承天寺沙門釋本如傳
- 華亭超果寺沙門釋靈照傳
- 餘杭天竺寺沙門釋思義傳(可久)
- 餘杭祥符寺沙門釋擇瑛傳(從雅)
- 汴京慧林寺沙門釋宗本傳(善本)
- 泰山靈巖寺沙門釋延珣傳
- 餘杭法忍寺沙門釋慧才傳
- 餘杭天竺寺沙門釋曇異傳(宗坦)
- 甬東棲心寺沙門釋中立傳
- 嘉禾崇福西寺沙門釋智深傳(智仙)
- 餘杭法慧寺沙門釋法宗傳(思照)
- 卷四十二
 - 淨讀篇第八之二(正傳二十一人 附見二十二人)
 - 南宋仙潭無量壽佛閣沙門釋若愚傳(則章)
 - 溫州車溪壽聖寺沙門釋如湛傳
 - 餘杭天竺寺沙門釋齊玉傳
 - 臨安禪符寺沙門釋思淨傳傳
 - 潤州焦山寺沙門釋師體傳
 - 澱山湖白蓮寺沙門釋子元
 - 松江延慶寺沙門釋道因傳
 - 永嘉資福院沙門釋道琛傳
 - 南湖禪寺沙門釋妙雲傳(有朋)
 - 上虞化度寺沙門釋智廉傳(惟渥 冲益)
 - 菁山常照寺沙門釋慧明傳(祖南 晞湛)
 - 洪州黃檗山寺沙門釋了義傳(法持 曇懿)
 - 錢塘法安寺沙門釋思聰傳(太微)
 - 烏鎮嘉會寺沙門釋若觀傳(師安 顯超)
 - 霅川千步寺沙門釋有開傳(如寶 瑩珂)
 - 遼萬寧上方山寺沙門釋守常傳(禪悅)
 - 金燕都香林寺沙門釋祖朗傳(淨觀 利先)
 - 元薊州雲泉寺沙門釋妙文傳(善住 文慧)
 - 嘉定西隱寺沙門釋悅可傳(祖輝 如鑑)
 - 泰山沙門釋大行傳(叩頭僧)
 - 餘杭淨慈寺沙門釋蒙潤傳
- 卷四十三
 - 淨讀篇第八之三(正傳八人 附見十人)

- 明餘杭淨慈寺沙門釋可授傳
- 黔中永祥寺沙門釋宗興傳(周續 慧鑑 儒施 真懷 真全)
- 通州靜嘉寺沙門釋本明傳(性專 祖香)
- 嘉興天寧寺沙門釋僧秀傳(月潭)
- 會稽沙門釋明證傳(靜明尊者)
- 梵村雲棲寺沙門釋袞宏傳
- 懷慶龍岡寺沙門釋如遷傳
- 杭州資福院沙門釋廣徹傳(體寬)
- 卷四十四
 - 淨讀篇第八之四(正傳十二人 附見十五人)
 - 明南嶽上封寺沙門釋法祥傳
 - 燕都慈惠寺沙門釋明玉傳(真貴)
 - 錢塘龍井寺沙門釋如清傳(傳記)
 - 幽溪高明寺沙門釋傳燈傳
 - 京口淨業禪林沙門釋古松傳(了然)
 - 青陽九華山東巖寺沙門釋海玉傳(傳鑑)
 - 新安黃山擲鉢庵沙門釋廣寄傳(寶相 墨浪 大守 毒鼓)
 - 餘杭徑山寺沙門釋圓信傳(照御)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圓彩傳(如然 雲峯)
 - 會城大德寺沙門釋如意傳(向和尚)
 - 常州天寧寺沙門釋海寶傳(無名僧)
 - 仁和吉祥寺沙門釋大雲傳(居溟 金童僧)
- 卷四十五
 - 淨讀篇第八之五(正傳十二人 附見十七人)
 - 清諸暨大雄寺沙門釋大勅傳(如會)
 - 常熟南洙靜室沙門釋崇文傳(人真 道樞 具宗)
 - 台州大慈寺沙門釋靈睿傳(恒轉)
 - 江寧天界半峯寺沙門釋成時傳(林谷 萬緣)
 - 虞山普仁院沙門釋行策傳(指南)
 - 金陵大報恩寺沙門釋普見傳
 - 雲南鹿溪淨樂庵沙門釋性香傳(寂舜)
 - 大理雨珠庵沙門釋弘宗傳(性遇 洪舒 德曙 法華尊者)
 - 燕都廣濟寺沙門釋正會傳(振寰)
 - 鄧山阿育王寺沙門釋實賢傳(明宏 明德)
 - 淮安聞思寺沙門釋常智傳
 - 長沙泐潭寺沙門釋衍義傳(三尹)
- 卷四十六
 - 淨讀篇第八之六(正傳十二人 附見七人)

- 清淮安誕登寺沙門釋萬清傳
- 潤州焦山寺沙門釋福毅傳
- 杭州文殊庵沙門釋道徹傳
- 吳山接引庵沙門釋廣志傳(實圓)
- 姑蘇龍興寺沙門釋明悟傳(德峻)
- 杭州大椿禪院沙門釋道證傳(梅松)
- 錢塘祇園庵沙門釋聞言傳(法真)
- 天目山禪原寺沙門釋實定傳(際會 佛安)
- 江寧靈谷寺沙門釋緒守傳
- 海寧護國禪院沙門釋千一傳(徹迷)
- 杭州孤舟庵沙門釋實裕傳
- 海寧延恩寺沙門釋諦勇傳
- 卷四十七
 - 淨讀篇第八之七(正傳十一人 附見九人)
 - 清紅螺山資福寺沙門釋際醒傳
 - 嘉禾覺海寺沙門釋達純傳
 - 江甯靈谷寺沙門釋衍紹傳
 - 雲間西禪寺沙門釋悟虔傳
 - 潤州焦山寺沙門釋覺源傳(灝融緣)
 - 姑蘇南禪寺沙門釋佛度傳(絕相 孫東瓜)
 - 杭州東園德寧庵沙門釋律淨傳(戒乘)
 - 金陵鷲峯寺沙門釋正真傳
 - 天台山國清寺沙門釋小有傳(妙修 靜清 崇池)
 - 鎮江良篷寺沙門釋自明傳(如月)
 - 高郵觀音寺沙門釋松園傳(清法)
- 卷四十八
 - 淨讀篇第八之八(正傳十二人 附見十二人)
 - 清衡州中正禪林沙門釋離塵傳
 - 曲陽黃山寺沙門釋正通傳
 - 成都寶光寺沙門釋宗質傳
 - 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映冰傳(一心 心有 續乘)
 - 丹徒竹林寺沙門釋悟先傳
 - 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大須傳
 - 善化護國寺沙門釋慧圓(開慧 靈一)
 - 寶慶點石禪林沙門釋仁里傳(開蓮)
 - 樂清淨濟寺沙門釋機溥傳(彥恢勝 妙能 大海)
 - 上海玉佛寺沙門釋戒然傳
 - 衡州西禪寺沙門釋常析傳(唯澄)

- 燕都南城觀音院沙門釋清苦傳(乘參 恒修)
- 卷四十九
 - 福興篇第九之一(正傳十一人 附見十二人)
 - 宋餘杭靈隱寺沙門釋幻旻傳
 - 南詔水目山寺沙門釋普濟傳(淨妙澄 皎淵 阿標頭陀)
 - 潤州金山寺沙門釋瑞新傳
 -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敦照傳(體瑛 祖機 善演 法均 本一 嗣祖)
 - 四明延慶寺沙門釋子親傳(文表)
 - 溫陵開元寺沙門釋了性傳(守靜)
 - 臨安靈隱寺沙門釋道昌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可宣傳(妙崧)
 - 黃山雲嶺禪院沙門釋雲林傳
 - 明州天童寺沙門釋祖智傳
 - 福州雪峯寺沙門釋天錫傳
- 卷五十
 - 福興篇第九之二(正傳十四人 附見十七人)
 - 金徂徠山法雲禪寺沙門釋福燈傳(善寧 法朗 智崇)
 - 上方山感化寺沙門釋澄方傳(圓覆 寶公)
 - 沂州普照寺沙門釋覺海傳
 - 元雲南大德寺沙門釋玄堅傳(節思杓 大雲)
 - 雲南真峯山正法寺沙門釋玄鑑傳(大休 宗嶼)
 - 鼓山白雲峯湧泉寺沙門釋如山傳(道傑 崇祖)
 - 伏龍山聖壽寺沙門釋元長傳
 - 磐山北少林寺沙門釋雲威傳(圓悟)
 - 泉州開元寺沙門釋伯福傳(守慈 永寶)
 - 泰安竹林寶峯寺沙門釋法海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淨肅傳
 - 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守忠傳
 - 雲南崇寶山正覺寺沙門釋定山傳(悅顏)
- 卷五十一
 - 興福篇第九之三(正傳十人 附見一人)
 - 明衢州西安福慧寺沙門釋世愚傳
 - 杭州靈隱寺沙門釋輔良傳
 - 錢塘淨慈寺沙門釋智順傳
 - 四明天童寺沙門釋元良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力金傳
 - 金陵靈谷寺沙門釋仲羲傳(古新)

- 崇恩演福寺沙門釋顯示傳
- 寧海報恩寺沙門釋自緣傳
- 天台上雲峯證道寺沙門釋祖鐙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懷信傳
- 卷五十二
 - 興福篇第九之四(正傳十二人 附見十一人)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忻悟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夷簡傳
 - 五臺山顯通寺沙門釋葛里麻傳
 - 銅梁龍興寺沙門釋空源傳(圓聰 明愈 智雲 本尊)
 - 江寧華嚴寺沙門釋佛妙傳(果聞 祖祥)
 - 泉州開元寺沙門釋正映傳(本源)
 - 杭州淨慈寺沙門釋師頤傳(天宇淨 時庵敷)
 - 四明天童寺沙門釋祖淵傳
 - 杭州淨慈寺沙門釋宗妙傳
 - 遠安福河寺沙門釋普亮傳(弘參 深潤)
 - 鳳皇山聖果寺沙門釋子敬傳
 - 泰山竹林寺沙門釋滿空傳
- 卷五十三
 - 興福篇第九之五(正傳十一人 附見十九人)
 -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源傳
 - 燕京法華寺沙門釋德聚傳(祖能)
 - 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鎮傳(碧潭 靜靈 道泰 悟景 普旺 青普)
 - 燕京廣濟寺沙門釋普慧傳(且住)
 - 潤州焦山普濟寺沙門釋妙福傳(慧印 樂一)
 - 宜都顯明山寺沙門釋道慶傳(妙性 明鏡)
 - 昆明妙湛寺沙門釋悟本傳(淨月)
 - 潤州金山靈觀閣沙門釋定清傳
 - 通海東華山寺沙門釋慧心傳(真澄)
 - 峩湄普賢寺沙門釋慧宗傳(寶曇 無窮)
 - 洱海般若寺沙門釋真語傳(圓省 定堂 南嵩)
- 卷五十四
 - 興福篇第九之六(正傳十四人 附見九人)
 - 明房山上方普濟寺沙門釋銀圓傳
 - 黃山慈光寺沙門釋惟安傳
 - 當陽玉泉紫紫庵沙門釋法瑄傳
 - 鼓山白雲洞沙門釋悟宗傳

- 宜都廣濟寺沙門釋徹天傳(徹容)
- 黃山雲嶺禪院沙門釋如本傳(妙光慧 櫟庵)
- 杭州靈隱寺沙門釋如通傳(良玠 慎庵祥)
- 沙市白齋庵沙門釋道通傳(德全 香林)
- 雲中普興禪院沙門釋義玄傳
- 皖中浮山華嚴寺沙門釋本智傳
- 遠安壽隆寺沙門釋普義傳
- 燕京資福寺沙門釋鎮端傳
- 梓潼迴龍寺沙門釋慧慈傳(無妄)
- 代州七佛寺沙門釋道相傳(道梅 法源)
- 卷五十五
 - 興福篇第九之七(正傳八人 附見三人)
 - 明五臺山聖光寺沙門釋福登傳
 - 雲南雞足山傳衣寺沙門釋寂觀傳
 - 四川黃龍寺沙門釋觀止傳
 - 曲靖玉龍寺沙門釋海量傳(來秀 性壽)
 - 鼓山白雲峯湧泉寺沙門釋大艤傳
 - 潤州金山寺沙門釋洪肇傳
 - 湘鄉荊紫山寺沙門釋無學傳
 - 杭州上天竺寺沙門釋萬靈傳(萬富)
- 卷五十六
 - 興福篇第九之八(正傳十一人 附見七人)
 - 清雲南雞足山斷際庵沙門釋定寂傳(楚石 普聯)
 - 四明大梅山保福寺沙門釋行幟傳
 - 公安玉泉寺沙門釋海福傳
 - 當陽東禪堂沙門釋性關傳(覺聰 本赤 印正)
 - 荊州天王寺沙門釋慧海傳
 - 四川雙桂福國禪院沙門釋海明傳
 - 盤山正法禪院沙門釋行乾傳(養心)
 - 黃檗山寺沙門釋隆琦傳
 - 興教萬壽禪寺沙門釋道仁傳
 - 黃檗山寺沙門釋性願傳(超炯)
 - 衡陽東山智勝寺沙門釋明德傳
- 卷五十七
 - 興福篇第九之九(正傳十一人 附見十七人)
 -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老藏傳
 - 仙溪城峯禪院沙門釋一空傳
 - 漳州南山萬善庵沙門釋無疑傳(行勉)

- 杭州靈隱寺沙門釋弘禮傳(戒顯 濟玆)
- 公安報慈寺沙門釋濟亮傳(問石 樹可徹 原直 雪幹遠)
- 大瀋山寺沙門釋明應傳(要旨輝 敬元足 浮雪正 天樞鉉 遠目敬)
- 臨安迎恩寺沙門釋淨極傳(普灼 妙庵 性融 悟禎)
- 金陵靈谷禪寺沙門釋宗運傳(際曙)
- 杭州靈隱寺沙門釋性證傳
- 仁和良山崇福寺沙門釋超海傳
- 四明阿育王山沙門釋持荃傳
- 卷五十八
 - 興福篇第九之十(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普璠傳
 - 虞山福興寺沙門釋海理傳
 - 維揚智珠寺沙門釋性賢傳
 - 姑蘇治平寺沙門釋性言傳
 - 鎮海瑞巖寺沙門釋宗輝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圓琳傳
 - 龍城雙鳳山朝陽寺沙門釋語蓮傳(吼天)
 - 孤嶼江心寺沙門釋通榛傳
 - 燕京龍泉寺沙門釋真如傳(月天寬)
 - 衡山曉霞峯沙門釋續桂傳
 - 當陽玉泉寺沙門釋惠證傳(寂清)
 - 衡陽太和庵沙門釋果法傳(清和澄)
 - 新化四願禪寺沙門釋慈源傳
 - 長沙定湘王廟沙門釋續成傳
- 卷五十九
 - 興福篇第九之十一(正傳十六人 附見十二人)
 - 清新都寶光寺沙門釋覺賢傳(真印)
 - 燕京圓廣寺沙門釋顯珠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普德傳
 - 沔陽甘露寺沙門釋悟丘傳(昌珩)
 - 江陵章華寺沙門釋松青傳
 - 新都寶光寺沙門釋宗興傳(本立 清福 達摩波羅)
 - 東天目山昭明寺沙門釋頓覺傳(圓參 慈壽)
 - 東安麒麟寺沙門釋無彼傳
 - 成都昭覺寺沙門釋通朗傳
 - 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常照傳(肇圓)
 - 江甯古林寺沙門釋昌心傳(虛舟真 輔仁友)

- 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地華傳(奇量)
- 漢陽圓照寺沙門釋體海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覺海傳
- 維揚福緣寺沙門釋日照傳
- 梓潼永利寺沙門釋圓鏡傳(海瑞)
- 卷六十
 - 雜識篇第十之一(正傳十一人 附見六人)
 - 宋京師左街天壽寺沙門釋贊寧傳
 - 虎邱雲巖寺沙門釋元淨傳(思悅)
 - 餘杭靈隱寺沙門釋如璧傳(白崖 如琳 慧光)
 - 潤州金山寺沙門釋懷賢傳
 - 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良策傳
 - 潭州南嶽寺沙門釋宣義傳(了信)
 - 長沙開福寺沙門釋洪蘊傳(法堅)
 - 真定木浮圖寺沙門釋懷丙傳
 - 京師相國寺沙門釋智緣傳
 - 四明雪竇資聖寺沙門釋曇穎傳
 - 溫州明慶院沙門釋處巖傳
- 卷六十一
 - 雜識篇第十之二(正傳十人 附見三人)
 - 南宋泉州開元尊勝院沙門釋太初傳(宗達)
 - 江西羅湖沙門釋曉瑩傳
 - 臨安靈隱寺沙門釋智融傳
 - 元雲南蒼山寺沙門釋圓護傳
 - 四明仗錫延勝寺沙門釋炳同傳(善來)
 - 泰安靈巖寺沙門釋福海傳(覺達)
 - 泰安靈隱寺沙門釋思泉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大圭傳
 - 渭南洪福寺沙門釋子成傳
- 卷六十二
 - 雜識篇第十之三(正傳十五人 附見十九人)
 - 明海鹽福臻寺沙門釋梵琦傳(梅雪)
 - 虎邱雲巖寺沙門釋至仁傳(心覺 德珉)
 - 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宗繁傳(善緣)
 - 泉州開元東塔院沙門釋正派傳(無斷)
 - 燕京萬福寺沙門釋淨倫傳(覺明 覺義 波羅)
 - 荊州普仰寺沙門釋滿秀傳(正海 死心)
 - 雲南昆明寺沙門釋廣慧傳(天祥)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照兼傳(清蔭 寂章)
- 荊州天皇寺沙門釋寒灰傳(常鎮 碧空)
- 永嘉西岑紫芝峯沙門釋性靜傳
- 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智闇傳
- 金陵棲賢庵沙門釋性潔傳
- 雲南石寶山寶岩居沙門釋思明傳(大錯 警秀)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德據傳(德一 德言)
- 福州雪峯寺沙門釋超弘傳
- 卷六十三
 - 雜識篇第十之四(正傳十四人 附見九人)
 - 清虎邱雲巖寺沙門釋自肩傳
 - 鼓山白雲峯湧泉寺沙門釋元賢傳(道霈 法文)
 - 泰山普照寺沙門釋元玉傳(佛藏正)
 - 四明天童寺沙門釋本豐傳(一揆)
 - 磐山青溝禪院沙門釋智朴傳
 - 福州雪峯寺沙門釋照拙傳
 - 漳州南山報敏寺沙門釋超極傳
 - 長沙嶽麓寺沙門釋續燈傳
 - 嘉魚西安禪院沙門釋弘照傳(宏琛)
 - 燕京觀音禪寺沙門釋元徹傳
 - 南嶽石浪庵沙門釋法智傳(異目宗)
 - 黃山雲嶺禪院沙門釋普信傳(蒼霞際)
 - 昆明妙湛寺沙門釋讀徹傳(一雨 水月)
 - 大埔南安寺沙門釋幽明傳(成鷲)
- 卷六十四
 - 雜識篇第十之五(正傳十二人 附見十七人)
 - 當陽玉泉寺沙門釋道嚴傳(道乾 遍見 弘禮 性愷 聖義)
 - 海寧安國寺沙門釋大涵傳
 - 房山上方山寺沙門釋常岫傳(大觀 知幻 達聞)
 - 太平白雀雨花寺沙門釋聖通傳(東悟本)
 - 南嶽曉霞峰沙門釋文惺傳(大成)
 - 潤州焦山寺沙門釋智先傳(德鏡 行載)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湛傳(通淵 元坩 實懿)
 - 福州雪峯寺沙門釋海印傳
 - 杭州淨慈寺沙門釋明幢傳
 - 杭州雲林寺沙門釋義果傳(上志)
 - 棲水大善寺沙門釋篆玉傳
 - 長沙華林寺沙門釋文楷傳(文暢)

• 卷六十五

- 雜識篇第十之六(正傳十一人 附見十八人)
 - 清長沙鐵佛寺沙門釋無跡傳
 - 金陵靈谷寺沙門釋彌垠傳(彌澍)
 - 杭州雲林寺沙門釋悟森傳(見初 品蓮月 寶林鑑 品高峰 體純 潔 研庵謙)
 - 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清恒傳(覺證 覺詮)
 - 銅梁壽隆寺沙門釋悟賢傳(真空 智曇)
 - 峩湄臥雲庵沙門釋源通傳(六義 涌泉 德輝)
 - 公安今古寺沙門釋如慧傳
 - 當陽玉泉寺沙門釋隆昇傳(培潤滋 香山滌)
 - 金陵靈谷寺沙門釋禰修傳(光遠)
 - 成都昭覺寺沙門釋照常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敬安傳(精一)

新續高僧傳四集卷第一

衡陽喻謙味庵氏編輯

- 譯經篇第一之一(本傳五人 附見十人)
 -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天傳
 - 京師傳法院沙門釋天息災傳(施護 道圓 行勤 光遠)
 - 西夏護國仁王寺沙門釋不動傳
 - 京師傳法院沙門釋法護傳(惟淨 紹德 慧絢)
 - 京師傳法院沙門釋吉祥傳(慈賢 金總持 日稱)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天傳

釋法天一曰法賢中天竺摩伽陀國人宋初至鄜州與河中梵學僧法進共譯經義始出無量壽經尊勝經七佛讚州牧王龜從潤色之獻闕下太祖建隆六年八月召見賜紫初興譯事詔童子五十人習梵書法天所譯大方等總持寶光明經五卷佛說未曾有正法經六卷外道問聖大乘法無我義經二紙餘佛說一切如來烏瑟膩沙最勝總持經七紙餘佛說聖曜母陀羅經三紙半聖無能勝金剛大陀羅尼經三紙半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五紙毗俱胝菩薩一百八名經三紙餘諸佛心印陀羅尼經一紙半聖虛空藏菩薩陀羅尼經六紙餘佛說慈氏菩薩誓願陀羅尼經一紙弱佛說大護明大陀羅尼經五紙佛說大乘聖吉祥持世陀羅尼經七紙佛說普賢菩薩陀羅尼經二紙強最上大乘金剛大教寶王經二卷妙臂

菩薩所問經四卷佛說金剛菩薩降伏一切部多大教王經三卷聖多羅菩薩一百八名陀羅尼經六紙餘佛說寶藏神大明曼拏羅儀軌經二卷大寒林聖拏羅陀羅尼經四紙餘最勝佛頂陀羅尼經二紙強無能勝大明陀羅尼經七紙半無能勝大明心陀羅尼經一紙半佛說聖寶藏神儀軌經二卷七佛讚唄伽陀二紙強佛說文殊師利一百八名梵讚三紙半佛說聖觀自在菩薩梵讚二紙弱韃椎梵讚七紙半佛說長者施報經六紙餘佛說七佛經一卷毗婆尼佛經二卷佛說大三摩惹經四紙半妙法聖念處經八卷佛說分別緣生經一紙餘嗟鞞囊法天子受三歸依獲免惡道經三紙餘佛說諸行有為經一紙強佛說目蓮所問經二紙弱佛說苾芻五法經四紙餘佛說苾芻迦尸迦十法經二紙半菩提心觀釋二紙餘佛一百八名讚二紙餘勝軍化世百喻伽陀經七紙弱六道伽陀經五紙綜上所譯都四十四種大小百一十九紙成帙者三十五卷其所敷者博而功亦勤矣自太祖以來迄於真宗四十餘年中累承恩錫賜天竺三藏朝散大夫試鴻臚卿號曰傳教大師太宗雍熙二年帝覽新譯經已改其名曰法賢蓋天賢皆譯音本疊韻也咸平元年復進所譯新經真宗為之製序今大藏載法賢所譯經共六十餘部中有佛說最上根本大樂金剛不空三昧大教王經七卷共二十五品首列聖教序以咸平四年五月示寂諡玄覺法師勅送終如慧辨禮

宋京師傳法院沙門釋天息災傳(施護 道圓 行勤 光遠)

釋天息災者中天竺惹蘭陀難國密林寺僧也宋太平興國五年二月與施護西來止於汴京時法天蚤至方譯大乘莊嚴寶王經太宗為製大宋新譯三藏聖教序詔普度天下童男為僧使習梵書復勅設譯經傳法院于東京太平興國之西如唐故事以宰輔為譯經潤文使息災譯經十餘部中有大方廣菩薩藏文殊師利根本儀軌經二十卷二十有八品又佛說大乘莊嚴寶王經四卷佛在舍衛國有無量菩薩及八部男女集從大地獄出大光明徧照園中見大莊嚴除蓋障菩薩請問因緣佛為說聖觀自在菩薩歷劫救苦之事及說所住種種三昧之名又說身毛諸孔希有功德普賢菩薩十二年不得邊際云云詞義明曉施護譯給孤長者女得度因緣經語意簡括皆依次呈覽宋自太宗尊崇梵典譯經設官前後所翻新來一切經律都九十餘部真宗為製繼聖教序護與息災皆承錫三藏朝奉大夫光祿卿并號傳法大師而息災更得紫方袍之賜咸平三年八月息災示寂諡曰慧辨法師勅有司具禮送終寵卹并優施護者烏墳曩國人其國屬北印度故稱北印度僧也又道圓者滄州人既從僧服便志西方後晉天福中負篋西邁在塗十二年足跡所屆徧五印度復居其間閱六春秋還經于闐與其國使偕至于宋乾德三年冬達于京師以佛舍利一水晶器貝葉梵經四十筴來獻太祖召問所歷山川道里及其風俗圓頗疆識一一指陳應對如響太祖嘉之時立譯經院詔與梵僧同事翻譯又有行勤光遠二僧亦求經于西域光遠

于太平興國七年始還京師後皆得入經院故宋代譯經之盛亦賴此久居西域者能通其語言文字也

宋西夏護國仁王寺沙門釋不動傳

釋不動梵名阿閃撇幹資羅華言不動金剛止行二字略也本天竺人初出家時遍遊五天竺顯密俱徹性相備知道譽流聞播于鄰封及來西夏棲止護國寺翻譯密部弘揚般若金剛調瑜伽有五部一曰佛部二曰金剛部三曰寶生部四曰蓮華部五曰羯磨部不動獨傳金剛一部故名金剛上師乃灌頂時所授稱也阿閃撇者謂其最初依阿閃撇部法而行持也不動勤修五悔廣演三壇嘗以唐三藏不空所譯三十五佛名經禮懺文前增五十三佛後綴普賢十大願偈都為百八拜期斷百八煩惱後遷四川蒙山取唐金剛智瑜伽施食儀軌重與譯述名曰噉口又演小施食號曰蒙山法因以甘露法食度孤復稱甘露法師弟子勒布傳其法再傳於保安三傳於威德幢今所傳尤眾舍是若無佛事者甚矣說法之難也不動不測所終

宋京師傳法院沙門釋法護傳(惟淨 紹德 慧絢)

釋法護中印度人聞宋室龍興尊崇象教設立譯館專待梵僧徧翻經論欲觀光上國以證所聞因結徒侶連翩東邁景德元年春始達京師召入譯院法護聰叡超倫五乘三學靡不研貫所演經說妙達其源前後譯經十有二部中有佛說大乘入諸佛境界智光明莊嚴經五卷佛在靈鷲法界殿中與二萬五千比丘七百二十萬俱毗那庚多菩薩俱放光集十方眾有師子座出偈讚佛佛升師座妙吉祥菩薩請問不生不滅是何增語佛言不生不滅即是如來增說因為廣說瑠璃地映帝釋宮影喻切利天大法鼓喻空中風雲水喻大梵王喻日光照喻摩尼寶喻響喻地虛空喻及說種種法句種種菩薩勝行於是妙吉祥偈讚禮佛佛為較顯持經功德云云尤為詳盡又同時與法護共譯事者有惟淨紹德惟淨姓李氏江南李煜之從子太平興國八年奏選童子五十人學梵字詔高品王文壽典選政以淨等充選引見令入經院受學淨天姿穎妙冠絕流輩口授梵章便解文義歲餘度為僧與護同譯新來諸經所譯佛說身毛喜豎經三卷佛說如來不思議祕密大乘經二十卷即大寶積第三金剛力士會同本異譯分作二十五品海意菩薩所問淨印法門經十八卷即大集經海慧菩薩品第五也又譯大乘中觀釋論九卷賜以朝散大夫試鴻臚卿號為光梵大師仁宗慶曆三年淨見執政裁省譯經之務因自奏疏乞罷勅曰三聖崇奉朕何敢罷且琛貢所入皆異域文字非鴻臚誰識不凡未幾御史中丞孔道輔等果乞罷譯館仁宗以淨疏示之其議遂止紹德者未詳何許人與淨同時預選所譯諸法無常經深通梵義但文詞稍遜於淨亦學僮之錚錚者又與慧絢等同譯菩薩本生鬘論

十六卷前四卷為聖勇護國尊者集釋迦飼虎救鴿分衛神化不為毒害兔王龍王慈力王八種緣起又商主人海獲安老母得度為病比丘灌頂獲安稱念三寶功德造塔勝報出家功德六種緣起凡十四事文並明暢後十二卷共三十四段語多苦澀殊難解了故當時譯師法護而外唯淨為最紹德亞之法護止觀兼持戒操高勝特賜嘉號曰普明慈覺傳梵大師授三藏銀青光祿大夫試光祿卿以嘉祐三年示寂壽九十有六

宋京師傳法院沙門釋吉祥傳(慈賢 金總持 日稱)

釋吉祥本曰智吉祥亦名法吉祥西夏僧也天聖五年同侶五人以梵書來獻仁宗嘉之賜紫方袍命入譯館譯佛說大乘智經五卷經言佛在迦蘭陀林入城乞食而還眉宇生光勸諸大眾安住如來所知境界愍一切有情受差別相詞誼斐然深明因果又譯佛說巨力長者所問大乘經三卷經言佛在祇園巨力長者心生覺悟為五百長者說世無常及三乘法五百長者咸皆有疑同來見佛佛為略說三乘諸方長者願聞大乘深法佛為廣說六度妙行並說生死過患長者得無生忍以偈讚求得出家佛為授記文甚明顯或云法吉祥本天竺人游方至西夏居久之始來中土故人稱西夏僧也又慈賢中印度僧持梵書來宋詔入譯經院所翻妙吉祥平等瑜伽祕密觀身成佛儀軌一卷妙吉祥平等觀門大教王經略出護摩儀七紙佛說如意輪蓮花心如來修行觀門儀九紙弱亦只是根本心心中心三呪後更有數珠身及解界等五真言金剛擁碎陀羅尼慈賢善於密部所翻四部皆密部也又譯妙吉祥平等祕密最上觀門大教王經五卷經言世尊在舍衛國彌勒菩薩等請問三乘妙法門外更有法否佛言有摩訶三昧耶祕密內法修者速得成佛文意朗鬯因賜三藏大法師之號并錫紫衣又金總持者亦西夏僧也與吉祥同行偕止宋京遂共翻譯所譯佛說法乘義決定舊分三卷者合而一之經言佛在祇園有二比丘名甚深勇猛請問鹿野苑中所說法乘決定之義佛為廣說五蘊五取十二處十八界十二緣生四賢諦二十二根五三摩地四禪四無色定四無量心四三摩地四念處四正斷四神足五根五力七覺支八聖道十六心念四無所畏四無礙辯十八不共法三十二相及行所感八十種又文殊所說最勝名義經二卷此與經部佛說最勝妙吉祥根本智最上祕密一切名義三摩地分相同而辭義簡括亦賜明因妙善普濟之號徽宗政和三年同譯語仁義筆受宗正南游江浙又日稱者亦西夏僧也慕化來朝館于譯院所譯事師法五十頌二紙餘及馬鳴菩薩依祕密教略出十不善業道經一紙餘日稱入中國蓋與吉祥同時或云開寶四年于闐僧吉祥以其國王書來自言破蘇勒國得舞象一以為貢詔許之又史稱太平興國二年西天竺沙門吉祥進貝葉梵經按于闐僧不聞譯經蓋名同耳而西天竺沙門與或言智或言法者殆一吉祥也

- 譯經篇第一之二(本傳九人 附見八人)
 - 元甘泉馬蹏山沙門釋智慧傳(廣福 安藏 逸林)
 - 雲南玉案山寺沙門釋雄辯傳
 - 燕都慶壽寺沙門釋沙囉巴傳(刺溫布 迦囉思巴)
 - 燕都廣寒院沙門釋識里傳
 - 會稽圓通寺沙門釋弘濟傳(般若空利)
 - 明臨安淨慈寺沙門釋宗泐傳
 - 金陵鍾山西天寺沙門釋智光傳(班的答 惠便)
 - 清五臺清涼山寺沙門釋老藏傳
 - 蒙古多倫泊彙宗寺沙門釋克圖傳

元甘泉馬蹏山沙門釋智慧傳(廣福 安藏 逸林)

釋智慧者舊傳甘泉馬蹏山僧也馬蹏今名馬鞍在甘泉西北三十五里慧善梵書與西來諸僧同譯文殊利發菩提心願文乃巴看落日瓦所傳也又譯聖妙吉祥真實名經一卷其經前有文殊菩薩發菩提心願文中明五智勇識真實名句後有文殊一百八名讚又文殊讚哀請攝受偈發願偈六波羅密偈迴向文呪或稱智慧為土番沙門蓋土番人也出家至甘泉居馬蹏山耳又廣福者未詳何許人譯密跡力士大權神王經偈頌一卷都一百七十五讚又安藏者仕至翰林學士雅好佛乘兼習梵文延祐七年十月庚申奉敕譯佛經所譯聖救度佛母二十一種禮讚經三紙二十二像前有七言頌後有結偈真言文詞警醒令人起信又逸林者世祖時嘗命譯藥師壇法儀軌將為天下消八苦之災增無量之福志願弘矣因賜紫衣法號以壽終

元雲南玉案山寺沙門釋雄辯傳

釋雄辯賜號洪鏡姓李氏善闡人也才思雋侷聰穎絕倫語音輕利善通方言少年出家事子雲國師為上足弟子元世祖既破大理段氏遺孽轉徙朝元南詔僧侶隨入華夏逾歲雄辯亦復北來居中國二十五年更事四師皆當世大德最後登班集之堂嗣壇主之法研窮方等妙解玄理其學大備乃喟然歎曰佛法種子不絕於世矯矯龍象豈擇地而行吾其南歸將以方言譯其經論饒我荒服因詣壇主乞白其語於帝師遂為璽書以賜之號曰洪鏡既歸取圓覺諸經及摩訶衍四絕論翻以熨語反復論辯曲盡幽微而詞旨淺近通於俗說故其書盛傳習者益眾六詔玄風普及婦孺實自茲始當

其攝齋升講口如泉瀉滔滔不竭人稱雄辯法師足副其名云時梁王為雲南王以天屬之尊事之甚嚴雄辯晚歲精進行道化人及物本諸慈惠於是德聲遐布法隆荒徼四眾歸之達數萬指而自視欲然蓋其猛志邁修閎願慈忱有不可思議者以大德五年十一月九日坦化壽七十有三臘四十有七荼毗時見有五色舍利其他異徵甚多弟子玄堅建塔于玉案山陽所譯經論多僂人語言華俗不曉故不流入中土今雖有傳書罕見善本

元燕都慶壽寺沙門釋沙囉巴傳(刺溫卜 迦囉思巴)

釋沙囉巴西域積寧人幼而通慧年才總中即依帝師癸思巴雜染習諸部灌頂法又從著栗赤上師學大小乘時有刺溫卜善通毘曼德迦密教為世所稱投之盡得其道所以善吐番音說諸妙法兼解諸國文字後因迦囉思巴薦於世祖命譯中國未備顯密諸經各若干部詞旨明辨因賜大辯廣智之號其時思巴已居帝師僧司雖盛而風紀寢弊官吏不能干城遺法抗禦外侮返為僧害世祖每論至此切憂之欲選能者匡正其失乃授沙為江浙釋教都總統世祖親送之既至江南盡削煩苛務從寬大故遐邇僧寺賴之以安尋改統福廣然自律嚴正行無偏倚語多峻切以是見忤同列嘗自歎曰天下何事耶吾人自擾之耳朝廷設官愈多則天下之事愈煩況釋教乎今僧之苦無他官多事煩耳所謂十羊九牧可勝言哉遂建言以聞因得盡罷諸路總統天下快焉沙即遁迹壠坻築室種樹將欲終老至大中復召至燕京拜光祿大夫大司徒皇太子諸王嘗問法要詔給廩館於慶壽寺所譯之經朝廷皆為刊行延祐元年十月五日示疾賜鈔萬緡勅大尉瀋王視醫藥謝卻之面佛端坐而化詔賜給葬遣使驛送建塔故里

元燕都廣寒院沙門釋識里傳

釋識里者本名必蘭納識里北庭感木嚕國人止行二字略也生而穎異幼習輝和爾及西域書長能貫通三藏曉西北諸國語言大德六年奉勅從帝師受戒於廣寒殿代帝出家更賜今名蓋初名只刺瓦彌的里也皇慶中命譯諸梵經延祐初特賜銀印授光祿大夫時諸番朝貢表牋文字無能識者皆令識里譯進會有以金刻字為表諸吏愕然乃遣識里視之廷中睽睽觀所以對識里取案上墨汁塗金葉審其字左右執筆以待乃口誦表中語及使人名氏與貢物之數書而上之明日廷獻有司察其物色與所譯書無少差異眾莫不服其博洽亦莫測所從受或以為神悟云尋賜開府儀同三司仍賜三台銀印兼領功德使司事厚其廩膳至治三年更賜金印特授沙津阿古齊且命為諸國引進使至順二年又賜玉印加號普覺圓明廣照宏辯三藏國師三年坐安西王子事死焉其所譯經漢字則有楞嚴經西竺梵書

則有大乘莊嚴寶度經乾陀般若經大涅槃經稱讚大乘功德經番書則有不思議禪觀經都若干卷

元會稽圓通寺沙門釋弘濟傳(般若空利)

釋弘濟字同舟別字天岸姓姚氏世為餘姚人幼孤從里中寶積寺舜田滿出家滿即其從父也雖在幼弱機穎俊發初授法華經便能成誦年十六受度為大僧日持四分律跬步之間不越繩尺已而歎曰戒為初學之門工之始基當更精教乘以資行解於是之鄞依半山全讀天台之書久之悉通其玄義嘗修法華光明淨土期懺斂意凝神積誠不貳髣髴於定中覩尊者界以犀角如意自是譚辯風生詞如泉湧了無留礙當是時大山恢尸松江之延慶越溪澄主武林之演福法幢雙峙光燄灼然照耀大江南北皆延濟分座說法而越溪愛之尤篤諸部疑難或有未易決者要其終始而折之蓋諦觀圓融洞若觀火故叩聲應響略無滯機高昌總統有般若空利者每謂學兼華梵出入經論世無能敵用其國語與濟共譯小止觀文彩煥發高昌為之赧然蓋濟與相處既久習其梵音而義理通澈涵泳胸中故從事翻譯人以為艱者濟則有餘裕焉泰定元年開法於萬壽圓覺寺浙河左右傑偉之士奔走其室唯恐後之明年鹽官海岸崩居民惴惴恐為魚鼈江浙行省右丞相脫驩甚憂之祈禱於上天竺請濟親履其地建水陸無遮大會七日夜濟冥心觀想取海沙誛之步率徒侶徧為灑佈凡足跡所及岸為不崩人多異之天曆元年分主顯慈集慶寺兩院皆杭之名剎處之泊然蘇人競欲致之以幣來聘主大德萬壽寺閱六寒暑莘莘小子多所造就至元五年江南行宣政院選主會稽圓通寺宇久廢鐘魚絕響濟念父母之邦欣然東歸闢齋館乞糗糧攝授徒眾多至數百人寺為中興歷四載還隱寶集專修西方念佛三昧當會心處不知念而非念非念而念也至正七年濟年已八十矣錢塘諸名山耆宿凋謝唯濟巋然獨存故士人又以大普福起之濟堅臥不應門人強之以赴居亡何竟拂衣旋故邱闢鏡清閣以深憩焉因覽諸家所注首楞嚴經繁簡失當方將折衷其說為之疏解俄疾作召四眾至以唯心淨土惓惓為勉有未喻其意者厲聲曰死生難死生難索觚翰書偈而寂時至正十六年三月十日也世壽八十六僧臘七十一葬於里之峩眉山松花塢生時所自卜者濟梵貌魁碩言詞清麗諸書過目終身不忘故其本末兼該無所滲漏鄉先達韓壯節公性巴西鄧文肅公文原皆欽其道範遺書殷勤讚歎不已平生孜孜以流布教化為務建法華本部百數十會苟有召者未嘗不應屢感祥符花雨繽紛然不自侈出處語默如未離止觀所著書有四教儀紀正及天岸外集若干卷並刊行之弟子靈隱元澗為狀其遺行徵宋文憲公濂為之銘曰佛法正傳實推台衡大者鏗鉤萬鼓齊鳴彼旁宗者自謂孤撐以此較之蒼蠅之聲猗與上師義觀兩融剋期破障息念歸宗煌煌神公心與之通授以如意無礙弗攻水蟲鼓浪涯岸善崩凝神冥漻沙

為兵變化儻忽風霆流形雙足所躡凝如堅城此願力故非由外假妙經之
宣集於蘭若天亦雨華繽紛而下有感而應理無愆者般若光中無非妙相
一鑑之明實含萬象生既不來死亦非往何必興嗟涉有情想青山崔崔流
泉在下迴景斂英絕斥邪窳萬松作花黃金滿塢舍利斯藏永奠終古

明臨安淨慈寺沙門釋寺泐傳

釋宗泐字季潭別題所居曰全室生有殊質幼而聰異授讀塾師便見稱許
期以遠到乃性厭俗榮獨契玄妙偶涉文苑別有悟心年當成立矢厥志願
竟從剃染受具足後得詣淨慈笑隱大訢博諮經典精求義蘊律論梵藏備
盡厥旨嘗居南屏松月居與竹庵涓同庵簡鼎庵需互相參究時有啟迪奧
理深疑一致推尋莫不說懌以解故所為文詞禪機淵味發人幽省當代儒
宿若虞文靖集張潞國翥黃晉卿潛皆一時巨子見泐所作皆傾心歎賞引
譽士林羣相推重會元季喪亂天下洶洶棲遲山谷息影潛聲歷有年所而
靜性彌堅道行益勵有明戡定佛學更興洪武初元應召入都居龍翔集慶
講演經義詳註論說又新製讚頌樂章宣鬯閱旨深契聖衷時見臨幸日有
賜饗嘗和其詩稱為泐翁恩眷擾隆莫與比數又以泐文學暢懋禪理洞悉
命往西域搜求遺經遂辭丹闕不憚煩疲冒渡流沙竟達天竺泐機才敏悟
聲入心通少時便習梵音能曉唄誼翻譯文殊等經而還今所傳者即此本
也晚歲禪悅時發吟興嘗見其懷以仁講師入觀圖詩云旭日千萬峰白雲
三四朵一笑山容開獨自松下坐瀑流天下來花飛面前墮此時中觀成無
物亦無我又遊雪竇云捫蘿登絕頂清興渺無窮兩目雲霞外一身霄漢中
珠簾飛瀑雪翠浪卷清風欲結茅庵住塵緣惜未空道味詩思意與俱清言
未空者真未空耶

明金陵鍾山西天寺沙門釋智光傳(班的答 惠便)

釋智光字無隱慶雲人不詳其氏族初出家時居燕都法雲寺志業敏慧苦
心向學內外典籍罔不研翫元至正中班的答自天竺遨遊上都棲止法雲
智光得親儀範昕夕請益聆聲通意漸達梵音遂為入室弟子有明肇剏定
鼎金陵師弟連翩望京朝請太祖嘉其勤勞召詢便殿答問之際見智光語
通梵漢命譯班的答所攜經典築庵鍾山給具供張頗示優崇智光乃即其
四眾弟子菩薩戒譯為漢文詞簡理明眾所推服甲子春與其徒惠便奉使
西域過獨木繩至橋尼己辣梵天竺諸國宣傳聖化眾皆感慕已而謁麻曷
菩提上師傳金剛鬘壇場四十二會禮地湧浮圖其國起敬以為非常人遂
併西番烏思藏相隨入貢比還居未久重渡流沙更歷西竺復率其眾來朝
太宗嘉之慰勞備至與論三藏領會深奧嗟歎久之乙酉擢僧錄左闡教仁
宗嗣位寵錫封號賜金印冠服并孔雀銷金蓋旛及金銀器物几案輿馬之

屬靡不畢具更廣能仁寺居之宣德初元加號西天佛子智光于經藏之蘊
旁達深探所譯顯密經義及所傳心經八支了義真實名經仁王護國經大
白繖蓋經並行于世宣德十年六月十三日示寂其徒請留偈乃曰大乘法
門無法可說眾復懇之始揚言曰空空大覺中永斷去來蹤實體全無相合
虛寂照同儼然而化茶毗骨皆金色舍利盈掬弟子進其遺像御製贊云託
生東齊習法西竺立志堅剛秉戒專篤行熟毗尼情徹般若澄明自然恬澹
瀟灑事我祖宗越歷四朝使車萬里有勤有勞攄瀝精虔敷陳秘妙玉音褒
揚日星垂曜壽康圓寂智炳幾先靈消曠海月皎中天

清五臺清涼山寺沙門釋老藏傳

釋老藏者即阿王老藏燕京西山之喇嘛也姓賈氏生甫十齡父母送之崇
國寺為沙彌年十八始受具稟性超穎度越眾流已習韋陀兼究瑜伽慧根
自覺真空獨證於番漢經書一目俱了復歷講肆徧聆奧機至於三密護身
壇儀悉練五部印契宣導咸推會大清定鼎順治初元應詔入都藏與同壇
五人攝齋受戒有一上土忽諦視曰此中有一五臺主人眾皆惘然莫測所
謂及順治己亥藏果以兼通番漢膺選乘傳上主五臺總理番漢經典舊時
所譯多所訂正術士之言始為有徵自蒞眾茲山乳竇重流荆條復茂損食
減衣以施貧乏禪堂駢集覺路弘開補綴殘典不憚勤勞生平不設衣鉢一
錫飄然無所繫念空諸所有即為正觀平等應緣解除一切乘五行之軾開
八正之門拯溺逝川大庇交喪內翰繆彤中行李嘉猷道過臺頂一見皈
[白/刂]玉帶山門雲天瓶水遠吟深契信非偶然厥後比歲赴覲闕廷欽
承天問妙謔微幾既協皇情而譯事鉤稽尤邀特眷是以殊禮異數寵賚滋
多康熙辛亥年已七十矣退居頤養日以禪誦課心長坐不臥遍繙大藏專
業華嚴以千部為期嘗以歲旱露跣禱祈甘雨應時而降萬眾交忭癸亥秋
聖祖幸臨臺山御書題賜號為清涼老人宸藻流輝焜燿千古住山二十八
稔法雲遠蔭火宅晨涼慧日載升重昏夜曉宗風方鬯祖庭用光以康熙丁
卯三月九日示寂先期集眾告以大限十日將從西去勉哉修持勿令墜失
日至索浴號佛不絕端坐而化春秋八十有七僧臘六十有九聖祖聞之賜
金營葬發龕茶毗塔於鳳林谷設食供眾至者四千餘人悲聲淒響感動林
壑戶部左侍郎蔣弘道為撰碑銘勒石山阿

清蒙古多倫泊彙宗寺沙門釋克圖傳

釋克圖者章嘉呼土克圖也西藏人生有異徵不迷本性相傳為達賴弟二
世呼畢勒罕轉生種種異徵眾所欽企幼育于寺乃居弟五世達賴弟子清
康熙時寰宇載寧重譯來朝聖祖晚歲頗耽禪理屢諮法典歎為玄識特錫
灌頂普慧廣慈之號命主蒙古多倫泊彙宗寺克圖博貫宗教梵行精純謔

誼圓妙西藏蒙古諸王尤相崇信多所歸依世宗在藩邸時傾心仰慕及總萬機廣搜禪集取其語列入御選歎為真再來人古今希有為造善因寺居之恩禮有加純廟登極膺詔入京翻譯大藏中一切呪語以滿文漢字梵書三體竝列使讀者瞭然不限方域刊入藏經用廣流傳嘗言其國有狼達爾瑪漢者滅法毀教其後補綴未全而經已佚因假楞嚴善本四譯而歸之又佐莊親王修同文韻統晚年病目與人講論能以手數經卷篇目而指其文往往不爽羣相驚歎非記誦爛熟未易臻此以乾隆四十一年寂于京師

- 義解篇第二之一(本傳廿四人 附見八人)
 - 宋永嘉瑞鹿寺沙門釋本先傳
 - 溫州東溪草堂沙門釋處元傳
 - 吳會北禪寺沙門釋可觀傳
 - 永嘉開元寺沙門釋繼忠傳
 - 武林靈山日觀庵沙門釋遵式傳
 - 松江興聖寺沙門釋淨真傳
 - 杭州昭慶寺沙門釋仁嶽傳
 - 溫州瑞鹿寺沙門釋遇安傳
 - 鳳凰山聖果寺沙門釋希最傳
 - 錢塘寶藏寺沙門釋從義傳
 - 武林大悲閣沙門釋玄淨傳
 - 潤州金山寺沙門釋梵臻傳(從諫)
 - 鳳凰山聖果寺沙門釋佛護傳
 - 泉州寶勝院沙門釋戒環傳
 - 南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若訥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法照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善月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居簡傳
 - 台州白蓮寺沙門釋了然傳
 - 臨安上天竺寺沙門釋應如傳(本如 道如)
 - 明州寶林寺沙門釋了宣傳(善榮)
 - 遼中京報恩傳教寺沙門釋法悟傳(志福)
 - 燕京奉福寺沙門釋非濁傳
 - 南詔蒼山再光寺沙門釋普瑞傳(普濟 淨妙澄 皎淵)

宋永嘉瑞鹿寺釋本先傳

釋本先姓鄭氏溫州永嘉人也幼從州之集慶院出家年二十五為沙彌始詣天台國清寺受滿分戒因侍韶國師服勤十年韶初導以非風幡動仁者心動語即時悟解乃述頌三首見色見心自己了明身心安樂物不礙膺及居瑞鹿足不歷城邑手不度財貨不設臥具不衣繭絲卯時一食宴坐申旦誨教徒子昕夕懇至踰三十載其志彌厲宋大中祥符元年二月謂弟子如晝曰為我造塔塔成我行矣中秋塔成翌日參問如堂至午坐方丈手結寶

印開一目微視奄然而寂如晝奏其所著竹林集十卷詣闕上進詔藏祕閣如晝賜紫衣

宋溫州東溪草堂沙門釋處元傳

釋處元永嘉人忘其姓字久參扶宗遂繼法明之席郡守仰其道化任以僧正澄清品流莫不厭服所著輔贊記三卷其論經體則推本法智廣智源流之說論無住本三種觀法答扶宗通相三觀其說明正學者宗之宋崇寧二年間居東溪草堂述義例隨釋六卷初荆溪以止觀文廣為七科名為義例俾學者知解行之大旨雖法智製述之多不暇為記元因義神智為纂要以初乘觀法性德之境為真如理觀修德之境為唯識事觀元詆其狂妄徒疑後學乃決志注釋以斥纂要之非

宋吳會北禪寺沙門釋可觀傳

釋可觀字宜翁年十六依南屏出家復從車溪卿有省宋建炎初主嘉禾聖壽選當湖德藏補註楞嚴一室翛然人或不能堪觀顧而樂之且曰松風山月此我無盡衣盃也乾道七年丞相魏[木*已]請主吳之北禪入門適當九日指座云胸中一寸灰已冷頭上千莖雪未消老步只宜平地去不知何事又登高魏公聞之擊節稱賞觀嘗五住當湖皆退隱於竹庵因號竹庵云大慧嘗訪之對語終日退而歎曰教海老龍也有竹庵集山家義苑行世

宋永嘉開元寺沙門釋繼忠傳

釋繼忠字法臣姓邱氏永嘉人也父母求嗣佛寺夜夢一僧授以子曰螺溪尊者寄汝養之及有孕即厭腥血故生而端詳性好清潔雖在髫年每睹佛像必致敬禮八歲入開元蒙恩得度即詣南湖依廣智學勞苦得疾乃行請觀音三昧見大士放光以水灌頂其疾即愈既而洞悟教觀無所凝滯廣智深器之時令代講雪竇顯禪師見而歎曰四明之道為有傳矣永嘉士夫請居開元東閣遷妙果慧安退隱江心研精禪觀出主西湖法明學者驟集有欲革大其居者忠曰施者方受其福吾忍毀之乎每歲正月上八於郡中受菩薩戒行放生事士庶嘗至數萬人每誓於眾曰入吾道場而歸命三寶者縱未得道願生生世世不失人身正見出家求無上道行法華光明彌陀觀音三昧日不虛度誦咒救疾神應莫測每入市坐者避席行者避路舉首加敬稱為戒師杭州大旱郡守范公仲淹命忠禱於湖甘雨隨應宋元豐五年十月八日沐浴更衣集眾說法結印坐亡人見赤光徹照空表淨社全教夢金甲士告曰今夜得道人入滅慶恩希妙夢神人告曰忠法師已生兜率忠久行施食後雖有繼鳥雀悲鳴三日不下葬於瑞鹿山傳法者及百人著扶

宗集五十卷十諫指迷抉膜十門析難及十義諸書用昭四明獨得祖道之正趙清獻公汴為之贊曰教明圓通聽眾依響以心傳心以真破妄真兮謂何有相非相如水中月如鑑中象

宋武林靈山日觀菴沙門釋遵式傳

釋遵式字知白姓葉氏寧海人投天台東掖山義全出家納戒於禪林寺習律於守初師郡校諸生要其還初服式答以偈曰真空是選場大覺為官位因詣普賢像前然指自誓習天台教法趨寶雲義通師講席盡得台宗祕奧遂然頂誓行四禪三昧後染疾危甚入靈墟佛室持咒伏消夢感神覺其疾乃愈於是澄心澈慮著觀音禮懺文復撰誓生西方記念佛三昧十四大願文大中祥符四年昭慶齊一律師啟請至寺宣講四部兼弘律儀學者嚮慕如水赴壑沛然莫禦杭之風俗以酒肴會葬式諭以勝緣其俗皆化易為蔬果因著戒酒肉慈悲法門以正其事至今猶則效之嘗赴姑蘇開元寺大專講席聽者踵止戶內之履幾不能容後居天竺靈山於寺東建日觀菴老撰天竺高僧傳補智者大師三昧行法說著金光明經懺法三昧儀名徹上聞召賜紫衣乾興元年賜號慈雲大師明道王申歲入寂葬寺東月桂峰下所著詩文金園集靈苑集釋元復贊曰台嶺一宗興於法智師出寶雲金昆玉季示無生忍住不退地徽稱累旌終古不墜其慈雲集中有酬伉上人詩云塵外清閒極誰能更似君山光晴後見瀑響夜深聞拾句書幽石收茶踏亂雲江頭待無事終學棄人倫又寄悟和尚詩云無累無機祇任緣一齋長掩古松邊長垂白髮過深雪不下青林知幾年木葉當薪燒更暖草苗為履著難穿竟何人問東林社時引清流灌碧蓮其風度超邁胸懷活淡可想見矣

松江興聖寺沙門釋淨真傳

釋淨真未詳姓氏從松江興聖寺若平法師雜染習賢首宗嘉熙三年遊浙江諸剎因錢塘江壩毀江濤泛溢漂蕩居民真以偈呈安撫使趙端明曰海沸江河水接連民居衝蕩益憂煎投身直入龍宮去要止驚濤浪拍天遂投身於海三日而返謂居民曰我在龍宮說法龍神聽受此塘不復毀矣語訖復投於海趙端明感其德具聞於朝敕賜護國淨真法師立祠於杭之會祠

宋杭州昭慶寺沙門釋仁嶽傳

釋仁嶽字潛夫姓姜氏霅川人聞法智至南湖往依為學法智器之撰問疑書及止疑抉膜指濫十難以折他師而輔四明甚力後因疾宴坐靜室恍若夢覺自謂向者皆非究竟更述三身壽量解以難妙宗妙宗者四明所著也自此道不合還浙陽靈山慈雲攝為法裔四明乃加十三簡以斥之仁復上

十諫雪謗往還不已會西湖昭慶移啟相請慈雲為詩送之學徒從往者半雲弗之禁既而遷石壁徙靈芝居永嘉淨社十年大弘化法誓守請主祥符觀察劉從廣請賜紫迦梨樞密胡宿上其事行賜號淨覺禪師晚歲專脩淨業熱三指於佛前持律至嚴不以事易節治平元年三月二十四日謂門人曰明日日午吾當行矣明日留偈安坐入寂於隱淪堂休室塔於何山之西隅仁嶽著述極富於稜巖尤加意撰集解十卷說題一卷熏聞記五卷胡宿為之序其略曰室中千鐙多光互入堂下六樂正聲相宣鼓吹妙經藻火圓教法施豈有盡哉其推許亦未為過葬後二百餘年何山更為禪居淨覺塔地已夷為蔬圃仁乃見夢於僧曰塔處灌溉非便乞遷之及開龕色身不壞舍利盈掬乃具禮易葬他所此與東山神照遷塔事相類皆能示兆於數百年之後異哉

宋溫州瑞鹿寺沙門釋遇安傳

釋遇安者閩之福州人也其姓字不詳初出家時習天台教一日讀首楞嚴經至知見立知即無明本知見無見斯即涅槃忽焉有省謂此當以知見立讀知即無明本為句知見無讀見斯即涅槃為句蓋以知見為入道之始知見無為證果之終理想圓通超然無礙時稱之安楞嚴謂於此經別有悟處也已而往天台禮韶國師韶便叩曰聞公常課首楞嚴經是否安曰是韶曰是則是是則非是更須體究始得安曰道是假名佛亦妄立十二部教亦是接物利生一切是妄何以為真韶云唯有妄故將真對妄推窮妄性本空真亦何有故知妄真總是虛名二字對治都無實體窮其根本一切皆空安曰既言一切是妄妄亦同真真妄無殊復是何物韶云若言何物亦是虛妄無相亦無語言道斷安於言下大悟乃呈偈曰推真真無物窮妄妄無形返觀真與妄真妄亦虛名遂獲印可後住錫仙巖仍卓庵於大羅之垠坑所謂白雲庵也相傳安居此山每騎虎出入至谿畔且屬之曰女且隱伏以俟我歸或餉之以食跨而登山由是風聞四方從者如歸嘗有仙子三人同來訪安曰聞帥宣揚正法眼藏度脫迷流遠來造請願示津梁安云有道不離寸步便到家鄉早已涉程途了也仙子三人從茲領悟欣然禮謝退於巖際牽臂入潭隱而不見宋至道元年春將示疾呼嗣法蘊仁示之偈曰不是嶺頭携得事豈從雞足付將來自古聖賢皆若此非吾今日為君栽付已沐浴更衣令舁棺至室良久自入棺三日門人啟棺視之見安右脇吉祥而臥四眾哀慟安乃再起訶責垂誡且云夢幻俱空空何所有此度更啟吾棺者非吾弟子言訖入棺長往安生於後唐莊宗甲申八月十三日寂於宋至道元年乙未三月三日世壽七十有二云

宋武林鳳凰山聖果寺沙門釋希最傳

釋希最姓施氏霽川人四歲出家覃恩得度年十五傳教觀於雷峯廣慈同門畏愛號為義虎治平中敷講於嘉禾隆平已而徙居聖果空室有怪每崇所棲希呪土擲之得片紙書云今被法來遣若法力沒當復來此數日擊物揚火變怪百出希呵之曰不聞惱法師者頭破作七分乃為廣說輪轉因緣眾僧聲咒助其破障忽空中轟然擲朱書云漢朝烈士沈光大略陳悔過之詞且云蒙師說法之力當生他化天自此絕跡希因淨覺背宗上十諫書法智作解謗淨覺復作雪謗時法智在疾不復答淨覺在靈芝對眾詫曰只因難殺四明師誰向靈芝敢開口希聞之乃作評謗以辨淨覺見曰四明之說其遂行乎哲宗元祐庚午秋集眾書偈坐化闍維舍利數百賜號妙悟

宋錢唐寶藏寺沙門釋從義傳

釋從義姓葉氏溫州平陽人也年十七通誦法華得度學扶宗主大雲五峯寶積嘗患它宗但任胸臆於所著補注集解處處辨明如論賢首妄判華嚴議慈恩專用唯識辨祖承無二十八祖判道家當攝入儒宗辭理切直為世所信晚居秀之壽聖大振宗教宋元祐六年春示疾就榻吉祥而逝瘞舍利於錢塘寶藏^諡曰神智憲使劉燾記其行業云端介清白不妄遊從寤寐三觀耽味著述過午不食非法不言非右脇不臥非瀘水不飲行步有常坐立如植未嘗求公卿之知可謂賢也已矣所著大部補注十四卷釋光明文句者也往生記四卷釋觀經疏也圓通記三卷釋不二門也纂要六卷釋義例也集解三卷釋四教儀也寓言四卷釋金錍也淨名略記十卷搜元記三卷

宋武林大悲閣沙門釋玄淨傳

釋玄淨字無象姓徐氏於潛人也母方孕時客有過其舍者曰嘉氣上騰當生奇男及淨生左肩起如袈裟條八十一日乃沒伯祖異之曰宿世沙門必使學佛事八十一者殆其算與後果符其數十歲出家每見講座輒曰吾願登此說法度人年十八就學於慈雲聞明智講止觀方便五緣頓然悟曰今乃知色香味觸本具第一義諦因泣下如雨自是遇物無非法界代講十五年杭守呂臻請住大悲閣嚴設戒律其徒畏愛臻為疏請錫紫衣辨才之號七年翰林沈邁撫杭謂上竺本觀音道場以音聲為佛事者非禪那居乃請淨居之鑿山增室廣聚學徒教苑之盛冠二浙宋元豐元年以事謝退眾亦隨散逾年復以畀淨眾更大集趙清獻蘇學士子瞻皆與為世外交趙公聞之乃為贊曰師去天竺山空鬼哭天竺師歸道場重輝東坡居士亦寄詩云道人出山去山色如死灰白雲不解笑青松有餘哀忽聞道人歸鳥語山容開三年復謝去居南山之龍井士夫爭為築室遂成藍宇六年太守鄧伯溫請居南屏越明年復歸龍井時靈山虛席淨以慈雲師祖道場俯就眾請及月餘於禪定中見金甲神曰法師於此舊無緣不宜久住既奉冥告遂還龍

井元祐四年蘇軾治杭嘗問淨曰北山如師道行者幾人淨曰沙門多密行非可盡識東坡生子迨已四歲不能行請淨落髮摩頂數日即能步及將示寂乃入方圓庵宴坐謝賓客止言語飲食招參寮告之曰吾淨業將成若七日無障吾願遂矣果七日吉祥而逝時元祐六年九月晦日也蘇學士轍為銘其塔

宋潤州金山寺沙門釋梵臻傳(從諫)

釋梵臻居南屏因以號焉錢塘人傳四明法智之道初住金山龍游侍講吳公倅都聞其名革興教禪居請主之學者朋來臻每講次會文集義貫穿始終浙西台學大振自茲始嘗述二偈贊妙宗鈔曰佛許六即辨蛄蟻何不知一不知二失西又失東三千若果成一切皆常樂蛄蟻不究竟諸佛斷性惡後與淨覺岳公辨教門陳詞有司乞築高臺立赤旛效西竺聖師與外道角勝以旛標顯處義墮者斷首截舌懸之竿頭府尹杜而不從聞者凜然初吳公多於休沐請講盛服止闔外臻未登座不輒入蘇東坡居士嘗云與臻語群集有所遺忘臻輒應口誦之亶亶不休東坡答辨才文云講有辨臻者是也崇寧中謚實相弟子從諫者松陽毛氏子幼見佛經輒能自誦父曰再來人也年十九試法華經得度即謁上竺辨才夙夜聽習復往依南屏於金山問辨如流南屏歎曰吾道繇子而行也熙寧中講於明慶徒眾日蕃乃遷淨住元豐初處人建壽聖迎居之越三年主南屏臻以年老屈諫首眾未幾舉以自代元祐五年上竺虛席辨才屬郡守蒲宗孟曰靈感勝迹非從諫不能當郡用其說復為奏賜慈辨之號義天僧統自高麗來求法郡以諫應命乃求鑪拂傳衣即詣智者塔誓之曰已傳慈辨法師教觀還國流通乞賜冥護既歸乃建剎立像尊為始祖大觀二年辭歸壽聖學子普明等十人詣室省候諫曰諸子遠至後會無期老僧不如乘興便行遂沐浴更衣升座說法書偈安坐而逝

宋鳳凰山聖果寺沙門釋佛護傳

釋佛護字淨梵姓笄氏嘉禾人母夢光明滿室見神人似佛孕而生護因名佛護十歲投聖果永懺主出家常念阿彌陀佛或問年少念佛何為曰我欲參訪去十八受具戒投湛謙二法師習教得其傳謁神悟親講說如夙習初住無量院講法華十餘會哲宗元祐初主姑蘇大慈講三大部弟子徧踵吳地嘗率二十七僧修法華懺每期方便正修二十八日作三會精恪上通感普賢受羯摩法至稱淨梵比丘者三洪音如撞巨鐘三昧將圓有來二僧曰春至石梁禮聖跡忽見空中飛花異香非常遇一僧曰姑蘇梵法主散花至此語畢輒不見某因得禮座下長洲令王公度親時日其事記刻於石元符中有黃衣使者請至冥府時王者迎就坐令吏檢祥靄簿吏云淨梵比丘多

劫講演法華王即起頂禮遣使引還建炎元年十月朔日坐亡闍維時有五色光塔擇橫塘之般若

宋泉州寶勝院沙門釋戒環傳

釋戒環溫陵人而佚其姓字賦性恬澹不溥世味寄身空寂研精梵誼深造道妙嘗病法華楞嚴舊釋詞義淵微初學罕喻因於禪暇作二經要解而楞嚴尤為翔曉其敘科判曰舊科經執匿王琉璃異代謂非一會頓說判教局持地耶輸等事而斷為法華之後愚竊疑焉夫夜壑負趨速於反掌匿王代謝可唯旦暮而楞嚴法會自夏徂冬此不應執異王疑異會也法華自證明以還諸佛無時不說菩薩無時不證持地既曰聞諸如來宣妙蓮華豈止釋迦與經稱摩登由神咒力消其愛欲與耶輸同悟夙由或得出纏或蒙授記若執授記為法華之事則靈山會上當有摩登乃可言同且既言由神咒力知非法華况有道記果記之異今經所言乃道記非法華果記也此又不應局授記而定先後者也經言最後垂範者乃結辯魔文當十卷末實楞嚴法會最後非臨滅之最後也舊引多說皆無足為科判準繩科判失準則理義差矣夫法王設王有條不紊初說一乘頓教以立本即華嚴也次說三乘漸教以逗機即阿含方等般若也後說一乘圓教以顯實即華法也楞嚴即般若法華之中實大乘終極之教故如來密因菩薩萬行修證之法一切畢竟自此以往無復進脩直造一乘圓妙之道故法華會上更無地位之說純譚妙法隨根印可授記作佛而已法華之後更說涅槃扶律譚常者扶律所以屬後事譚常所以示真寂此為臨滅遺付之事非有加於法華也說者不本扶律之意輒判楞嚴在法華後亦稱扶律譚常然則進脩既畢而又進脩扶律之後而又扶律前則加於法華後則贅於涅槃是乃倒置駢枝紊於法王之法矣夫進脩之事譬之稼穡猶耘耨也譬之芙蓉猶敷華也既號法華秋穫涅槃捃拾不應穫拾之中又耘耨也既號法華廢權立實如花落蓮見不應於廢落之後又敷華也以經證之[玄*令][玄*屏]之子既領寶藏復何所求化城之人既到寶所復何前進證明說已中夜涅槃釋尊說已四眾唱滅復何枝蔓於楞嚴哉如必楞嚴居後則阿難既於法華諸漏已盡而復於楞嚴未盡諸漏既於法華堪任佛記而復於楞嚴未全道力既先領悟妙法而復不知實際所詣既以安住佛道而復為彼所轉溺於淫舍是皆倒置理自不然故判楞嚴在般若後也蓋般若之後慧學方盛定力未充人或溺於多聞失於正受於是示首楞嚴之大定資般若之大慧使定慧均等學行兼全而究竟趣於一乘實相此楞嚴所以作也論三經大致無非為一大事因緣而必先藉般若發明次由楞嚴脩證終至法華印可然後盡諸佛能事序固如是也然則導達禪乘決擇正見莫尚楞嚴矣又判法華教曰法王應運出真兆聖唯為一事無有餘乘是以首唱華嚴特明頓法雖知根鈍且稱本懷及乎怖大昏惑乃權設方宜至於眾志貞純則還示實法華然則二經一

始一終教實相資故今宗華嚴而科釋也或謂華嚴純譚實相獨被大機法華引權入實三根齊被二經旨趣迥不相及引彼釋此殆不知宗而愚竊觀信解品其父先來求子不得中止一城其家大富窮子遙見恐怖疾走正喻初說華嚴也臨終命子委付財物窮子歡喜得大寶藏正喻終說法華迹此觀之始而驚怖終而親附者無異父窮之所棄達之所獲者無異寶既無以異何為而不應宗之耶又况二經以智立體以行成德放光現瑞全法界之真機融因會果開脩證之捷徑凡所設法意緒並同二經相宗亦足見聖人說法始終一貫果唯一事無有餘乘旨趣稍馴幸無深謫也開元寺志稱戒環所撰要解皆能痛去名相繁蔓使人無泥枝葉入佛知見直發明秘要寶藏者也至今學者多宗之殆不誣也一說開元千佛院有主僧日誦法華一白鴿常止簷間若聽經狀一日不至主僧怪之夜夢人曰我鴿也得師經力轉生為人生某氏家腋有白毛可識能視我乎主僧如其夢求之果然父母遂許出家少長來從之得度為戒環云

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若訥傳

釋若訥住上天竺常領徒千人大宏三觀十乘五重六即之道其詞辯若瀉懸河實為當世四依也南宋淳熙三年高宗臨幸欲禮大士訥出迎高宗問曰朕於大士禮得拜否訥對曰不拜則各自稱尊拜則遞相恭敬高宗欣然致拜又問歲修金光明懺其意為何訥曰昔佛為梵釋四王說金光明三昧囑其護國護人後世祖師立為懺法令僧每於歲旦奉行其法為國祈福此盛世之典也上說授訥右街僧錄賜錢即脩其道次年四月八日召訥領僧五十入內觀堂脩護國金光明三昧賜齋罷訥登座說法上問曰佛法固妙安得如許經卷訥曰有本者如是高宗大悅進訥左街僧錄號曰慧光法師自是每歲此日入內脩舉佛事賜絹帛五十疋七年八月召訥入內賜齋說法稱旨恩寵有加

南宋餘杭上天竺講寺沙門釋法照傳

釋法照姓童氏黃巖人父好善生九子照其次也母陳氏夢日貫蹇裳得之孕十二月而生氣貌奇偉耳垂肩眼如電幼入小學便多穎悟塾師異之年十三投聖水出家以蒙庵宣為師一夕自外歸寺僧遙望兩炬晶炯近之乃照也蓋目光遠射令人驚畏雜染後精進教乘三閱大藏出游諸方豁堂當代尊宿貽書褒勉諸山以職延致悉不就攜香禮北峯印次至蔣山參琰浙翁問答之際深器之北峯居下竺招之歸浙翁以教門為屬講論授受泠然有得北峯順寂振錫東還錢丞相作高僧堂延照共談年三十三改住天台大慈遷聖水史衛王舉住雲間延慶繼遷鳳山褒親丞相史永公舉住四明延慶海順二法師自日本來聽講且作讀教記繪照像歸國高麗崔丞相亦

致書問佛法大旨乞九祖圖並贈漂瓷鉢盂及金觀音香藥育王虛席郡請兼攝舉癡絕冲自代闍帥奪寺園為酒庫杖履而遁道出東掖兩山學徒迎之境上宏齋包公屈致智者真覺重祖庭也理宗聞其名敕住下天竺尋遷上天竺補左街鑒義御筆特賜佛光法師進錄左街賜金襴袈裟召見倚桂閣對御稱旨集慶寺成詔命開山力辭舉白蓮觀止誠公自代明年誠寂有旨特轉左右街都綱錄令住集慶不許辭免御書晦巖二大字賜之開無礙講凡禪教律三宗學徒雲集聞名開悟召見延和殿講華嚴經又大書靈山堂以賜遣姪武經郎童炎奉宸翰歸其里東宮召見復古殿講般若經再賜紫金襴袈裟齋於明華殿聖眷隆渥昔未曾有偶因面對力乞還山度宗即位敕再住上天竺前後居山二十四年平章賈魏公為造塔於寺之東岡奏請錫名曰天巖塔院復加恩賚賜田三頃以助其費癸酉秋示疾移居塔院卻藥屏醫作文自祭中秋之夕書偈曰佛壽八十我多九年虛空掇轉大用現前擲筆端坐而逝咸淳癸酉八月十五日也得年八十有九僧臘七十四弟子妙應繼席得法四十餘人得度者一百餘人窆於天巖遵初志也明年賜諡曰普通法師答曰慈應所撰讀教記錄二十卷為學者日月其餘法語遺文諸弟子多所記錄不可罄述

南宋餘杭上天竺講寺沙門釋善月傳

釋善月字光遠號柏庭姓方氏定海人母夢月墮懷生之夕白光滿室因以名焉初學語嘗合拿道南無字甫成童其父編六經授之讀如習舊業年十二通春秋大義母攜往正覺寺循殿楹數匝寺主道并謂其母曰吾夜夢白龍繞此柱其徵此兒乎於是父母始許出家年十五具戒乃往南湖依草庵嘗以科目繁冗為勞草庵誨之曰白日看家書有何難解善月為之一省草庵曰異時鼓吹吾宗者其在子乎梓庵講道月波往謁焉聞世相嘗住之旨益有省發乃復歸南湖見堂問如來不斷性惡之說心身豁然如卻關鑰見府庫以所悟白堂更為演其義月拜領而退及堂寂月往當陽請竹庵明年命月分講風儀清溫淡辯雅正竹庵讚曰吾與首座可謂得人但恨無繼之者所居古柏獨秀遂自號柏庭淳熙庚子初主東湖辯利遷慈谿寶巖居無何太師史真隱請居月波學士來奔廩食不足太師聞之喜使人告月曰師為道延眾欲食來取予不嗇也紹興二年郡守何公澹以南湖虛席親裁疏勸請講道不倦御眾有法十三年不改初度緇素以是信之嘉泰四年退隱衍慶精舍一息十載夢老叟耳語曰六十五七十一嘉定六年郡將陳卿以南湖有去思為更屈致辭弗克雨華更新舊徒再擁未逾月上竺以敕書召時年六十五也八年夏旱詔迎大士於明慶車駕親幸月為禱雨朝注暮洽皇情大悅特補左街僧錄十二年秋拂衣東歸偃息於城南祖關是年七十一又知所以驗前夢也紹定五年春有敕再領上竺人皆以東坡師去忽復來鳥語山容開之句為之賀端平三年得目眚請老東庵一日示疾坐牀上

若相酬酢者左右或問之曰吾與荆溪尊者對談祖道耳將入寂顧其屬曰人患無實德為後世稱若但崇虛譽我則不暇千載之下謂吾為柏庭叟則吾枯骨為無媿幸勿請諡以汙我素業言已累足而化淳祐元年正月十九日也留龕七日面色鮮白心頂俱暖塔於寺東壽九十三法臘七十八所遺衣髮及四經解合藏於南湖祖塔之側有楞嚴一覽金綱會解圓覺略說楞伽通義因革論簡境十策三部格言金錚義解宗教淺述仁王疏記附鈔箋要皆行於世自餘雜製曰緒餘講餘各若干卷嗣其法者香林清賜為上首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居簡傳

釋居簡字敬叟姓龍氏潼川人也家世儒素幼性穎異見佛書端坐默觀如宿習者依邑之廣福院圓澄得度參別峰塗毒於徑山沈默自究一日閱萬庵語有省遽往育王見佛照機契自是往來其門十五年走江西訪諸祖遺蹟瑩仲溫嘗掌大慧之記菴於羅湖纂所聞成書發揮祖道與議論大奇之久之出主台之般若遷報恩英衲爭附儒碩錢竹巖葉水心莫不推重時大參真西山為江東部使者虛東林待之以疾辭乃於飛來峰北磻掃一室居十年人不敢以字稱以北磻稱之起應雲之鐵佛常之顯慶碧雲蘇之慧日湖之道場奉詔遷淨慈所至道化大行垂老不倦頌楞嚴經六解一亡云六用無功信不通一時分付與春風篆煙一縷聞清晝百鳥不來花自紅關一室以居名曰薤室作賦以自見水心酬以詩云簡公詩話特驚人六反掀騰不動身說與東家小兒女塗青染紫不禁春晚歲居天台有二姓爭竹山構釁為作種竹賦以諷之而訟遂已趙節齋為奏補靈隱簡笑謝曰吾日迫矣乃舉天童癡絕道冲淳祐丙午春示疾三月二十八日索紙書偈於紙尾復書四月一日珍重六字呼諸徒誡之曰時不待人以道自勵吾世緣餘二日耳至期味爽索沐浴罷如假寐視之已逝矣壽八十三臘六十二所著有北磻集十九卷

南宋台州白蓮寺沙門釋了然傳

釋了然號志涌出家郡之白蓮寺講演天台教觀二十餘年精勵後學白業潛修日惟一餐常坐達旦一夕夢二龍雲中交戲空際忽然化為神人從空降謁且於衣袖出一書示曰師七日後行當西歸了然既寤知是往生之應乃撾鼓集眾登座說法遺囑後事已而書偈曰因念佛力得生樂國凡汝諸人可不自逸即索浴更衣命眾同聲誦彌陀經至西方世界倏然而化一眾皆聞天樂之音盈空祥光燭於天表

南宋臨安上天竺寺沙門釋應如傳(本如 道如)

釋應如姓胡氏浦江人幼默記多聞尤善持論來學上竺慈辨深器之嘗往靈山訪同志出六能義反覆辨詰彼義墮負應如即揭竿繫帛因謂之曰西竺破敵則豎勝幡道場峰魔亦表勝相今法戰既勝當揭一竿人畏其烈日之虎子初慈辨得南屏通相三觀之旨祕不授人玉慧覺祈請尤力許子夜為密說應如知之陟梯揭瓦伏身竊聽飛雪翻空背若被鎧旦白慈辨曰我於通相三關若有冥授即錄其言以示一眾慈辨怒曰應如盜法紹聖初主越之圓通嘗因講散謂待者曰今日東風吹教法過浙西去使眼中有耳者得以有聞紹興三年遷上竺兀兀焚蕩之餘唯存藏室有勸其營建者則曰我但流通大法耳他日自有興造者嘗以偈示人曰吾傳知者一性之宗三千實相妙空假中一念法界生佛體同凡聖一如善惡理融毗盧身上湛若虛空達斯旨者法法圓通左之右之受用無窮釋家稱如虎者三人神照本如四明道如與應如而三也一夕別大眾歸寢而終塔於寺西北隅有教義名指難集弟子崇先懷志白蓮慧仙皆足世其業

南宋明州寶林寺沙門釋了宣傳(善榮)

釋了宣四明人肄業於寶林因慕南湖之盛投之精究三觀十乘之旨閱大藏教無不知其大義修法華懺法二十七年與釋善榮為同志相善凡所脩進必偕榮嘗金書法華稜嚴淨名圓覺等經宣亦為助或遇西資會則施人手畫水墨觀音像二人結誓往生每說法則諄諄勸人皆求安養從之念佛者眾一日宣詣榮之室默坐榮故問之對曰我西歸有期矣難忘若道義與若淨土重會也榮曰正所幸願宣即集眾告別命誦經號佛端坐書偈曰性相忘情一三無寄息風不行摩訶室利合掌而逝時正炎暑停龕七日顏色紅潤口角有微涎觀者以帕裹之則異香噴人傾城士庶來裹香涎愈滋闍維舍利無算宣入寂三年榮忽取經像分施親故諷普賢行法經小彌陀經令眾同助念佛跏趺乃曰我為赴宣公之約言畢蛻然而化

遼中京報恩傳教寺沙門釋法悟傳(志福)

釋法悟者未詳所出氏族亦不知何許人賦性慧聰道心睿發研窮經論分析精微遼天佑時主中京報恩禰問鬯流上扃聰聽而皇衷亮哲優通玄旨頗耽釋典雅契性宗嘗謂釋摩訶衍論者包舉一乘總括百部庶有宗師繼為義疏恢闡正教深化羣生會因法悟偶譚要妙密愜宸中特降俞音廣求隱義於是殫思積慮先立御解四道皆識邁前人昭垂來許僅及十旬成書五卷遂呈聖覽果見褒稱乃命曰贊玄疏其自述略曰夫圓常果海湛寂靈源離教說以難思超因緣而最勝四法界詎能舍攝三世間奚足該收秀門法之兩重迴絕能所像希夷而獨立莫得詮緣不可智知非其數數者其唯不二摩訶衍歟冲虛本一炳煥隨宜為無為始異從生世出世畢同歸趣號

如意珠藏侔應用以無窮名廣大神王況威靈而不測者則十六所入法之謂焉真俗有辨頓漸無參自他對待以區分體相寂絕而清淨位殊因果智惑假立於斷修性出名言障道不存於遣立者即十六能入門之謂矣故我世尊順本所乘如義而說自鶴林倏變且失指提龍藏甚深罔窮幽秘馬鳴菩薩慨茲玄理匿在筌蹄蠢厥舍靈懵於修證由是迹滿二僧祇劫寄逮無功文憑百洛又經具彰總法摩訶衍論自此興焉字纔啻於萬言旨備包於眾典權輿果道隱括因門然法教淵含奈根宜淺局故於了義未達幽宗其猶管眼窺天羸觀寥廓毛頭滴海安測深弘龍樹大士膺記別以挺生導物情而示現以為攝義之論正投樂略之根乃依百本之金言廣釋一軸之寶冊師資繼作本末流芳而自譯出後秦時經累葉其間闡布未之前聞噫歷世久湮必將有待會逢外護果視中興其暢達宏旨足該全經末敘天佑每餘庶政止味玄風備究羣經尤精此論且言疊承中詔侍講內庭凡羸見於義門幸仰符於睿意當時寵眷可想見矣命太保燕國公耶律孝傑為之敘謂詔從模鏤言使傳通蓋遼時已有印本今其書猶流行云又志福者亦遼僧住醫巫閭山賜紫號曰通圓慈行著有釋摩訶衍論通玄鈔與法悟贊玄疏並傳

遼燕京奉福寺沙門釋非濁傳

釋非濁字真照姓張氏范陽人重熙初禮圓融國師為師居無何嬰足疾遯跡盤山敷課於太白峯顛每宴坐誦持時見山靈部從敬侍久之疾漸痊重熙八年冬有詔赴闕興宗契厥道要寵之紫衣十八年授上京管內都僧錄尋遷燕京管內左街僧錄清寧改元加崇錄大夫檢校太保踰年晉檢校太傅太尉賜號純慧大師濁搜訪闕章聿修睿典撰往生集二十卷進呈御筵大愜皇懷鑒賞久之親為序引命龕次入藏清寧六年春鑾輿幸燕回次花林濁侍坐於殿親受燕京管內懺悔主菩薩戒師明年二月設壇奉福寺懺受之徒不可勝紀清寧九年四月示疾告終於竹林寺旋移窆於昌平縣司空翽國公仰其高躅建立寺塔并營佛頂尊勝陀羅尼幢高踰尋丈庶陵壑有遷而音塵不泯文具山志釋真延為之記

南詔蒼山再光寺沙門釋普瑞傳(普濟 皎淵 淨妙澄)

釋普瑞字雪庭別號妙觀榆城人童時日記萬言因讀華嚴至若有如是如是思維則有如是如是顯現處豁開心地後見皎淵為之印可皎淵為普濟慶光弟子濟與淨妙澄同開水目山山舊無泉濟以杖卓之泉隨湧出世稱卓錫泉段氏為建梵宇贈澄號曰淨妙濟號曰慶光皎淵初參濟時便問如何免得生死濟以扇擊案淵忽然有省遂嗣其法水目山廣導諸方朝野尊仰瑞既承淵付屬南詔信從為建再光寺以居之瑞澂心妙悟深入玄理閉

戶著書兀坐終日積誠相感常夢與清涼賢首華嚴諸祖共語撰華嚴懸談會玄記四十卷今在藏帙又誦金剛經有白光如輪久而不散瑞雖印心南宗而恒闡華嚴為業嘗於水目講經感金甲神人示像所著有楞嚴纂要十卷金剛方語一卷餘有華嚴心鏡元談輔翼及外集諸書皆發明宗旨開悟後學每登講席發音磴磴弘綱微緒莫不畢宣聽者悅懌四眾歸心講堂之外本無池沼芳草叢中忽生蓮花時人嗟歎以為瑞應後無疾而逝荼毘獲舍利甚多瑩然耀目建塔奉之其嗣法弟子有黃龍無相與淨眾寺無相嗣五祖者同名彼見高僧傳第三集

- 義解篇第二之二(本傳廿三人 附見十五人)
 - 元古杭淨慈寺沙門釋善慶傳
 - 古杭上天竺寺沙門釋性澄傳(雲夢澤)
 - 古杭下天竺寺沙門釋蒙潤傳(古源 竹堂傳)
 - 古杭淨慈寺沙門釋處林傳(及庵信虛谷陵 夷簡)
 - 古杭慧因寺沙門釋盤谷傳
 - 紹興雲門寺沙門釋允若傳(大山恢)
 - 古杭演福寺沙門釋必才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悟光傳
 - 古杭上天竺沙門釋真淨傳
 - 天台薦福寺沙門釋善繼傳
 - 明州寶雲寺沙門釋子文傳
 - 四明延慶寺沙門釋本無傳
 - 天台佛隴修禪寺沙門釋可公傳
 - 五臺山祐國寺沙門釋文才傳(迦羅斯巴)
 - 秦州景福寺沙門釋英辯傳(柏林潭)
 - 京師崇恩寺沙門釋德謙傳
 - 京師慶壽寺沙門釋達益巴傳(綽思吉)
 - 京師寶集寺沙門釋妙文傳(大德明)
 - 五臺山普寧寺沙門釋了性傳
 - 玉山普安寺沙門釋寶嚴傳(大林性)
 - 金陵天禧寺沙門釋志德傳(海聞 法照禧)
 - 鎮江普照寺沙門釋普喜傳(無念端)
 - 五臺山金河寺沙門釋道殷傳

元古杭淨慈寺沙門釋善慶傳

釋善慶字千瀨姓彭氏嚴陵人也卅歲而孤萍蹤無寄就舅氏習儒初見懷楚知為法器問能出家否慶應之曰固本願耳遂度之受具戒品身律甚嚴徧歷諸宿庭戶咸無所證後聞佛心珏主淨慈遂往依焉聞舉洞山麻三稱語領悟後出世宜興之保安凡三徙名剎每主講筵貫激禪教乃至淨慈開堂示眾無虛日嘗著扶宗顯正論以進仁宗覽而嘉之賜以慧光普照文明通辯之號並金襴袈裟久之謝歸作室曰歸休宴息其間怡神空寂泊如也元至元戊寅八月三日化去春秋七十有九

元杭州上天竺沙門釋性澄傳(雲夢澤)

釋性澄字湛堂號越溪會稽孫氏子也父滿母姜氏夢日輪從空而墮既覺日光猶照其榻遂生澄四歲常戲拈筆為佛像授以佛經即能成誦元至元丙子投石門殊律師祝髮受具石門謂三世諸佛戒為根本乃命探律藏而通其遮性雙單止持作犯之義乙酉依佛鑿鈿公習天台教觀謁雲夢澤於南竺普福澤一見深加器重歷居清要以天台國清實台宗講寺後易為禪乃不遠數千里走京師具奏寺之建置顛末舊制之由元世祖賜璽書復之已而欲東渡鴨綠游高麗求天台遺書聞其國有事遂寢大德乙巳出住杭之東竺丁未吳越天旱澄率眾說法禱雨上格蒼穹甘霖立應歲饑民死無以斂乃為掩其遺骸作水陸大會普度之至大戊申遷南竺之演福至治辛酉驛召入京問道於明仁殿被旨居清塔寺校正大藏駕幸文殊閣引見問勞賜無量壽佛等經各若干卷事竣辭歸特賜金襴衣將行俄有旨即白蓮寺建水陸大無遮會時丞相東平忠獻王請升座說法事聞寵賚尤渥賜號佛海大師泰定甲子住上天竺劬苦九載不倦津梁至順壬申六月朔忽擿鼓告眾曰我三住名山逾三十年自行無益世緣有限雖愧不敏古德風烈猶或可攀竟拂衣歸天竺之雲外齋歲餘還越之佛果篤志淨土修一心三觀者七晝夜屢感瑞應一日詰旦眾以常儀問訊澄遽揖曰老僧向非急於退步一十二年幾在半途矣今日則有明日恐無光陰其可把玩乎煩點視衣鉢用表無常眾為念佛止曰佛須自念明晨卻送別黎明眾集遂端坐而逝閱世七十有八坐六十有四夏龕留七日顏貌如生全身窆於清泰塔院所著有金剛集註心經科注消災經註彌陀經句解及仁王經如意輪呪經科並行世

元杭州下竺寺沙門釋蒙潤傳(占源 竹堂傳)

釋蒙潤字玉岡海鹽人姓顧氏父敏隱君子也母孫氏實古源清之甥女母娠及誕俱感異夢潤年十四依古源於嘉禾白蓮方禮伽藍神土偶皆仆一眾驚異古源授經輒成誦遂命從祥公祝髮進具古源見其銳敏授以天台止觀金剛錍十不二門諸書即能了大意會古源歸寂乃事竹堂傳以卒業因苦學嬰奇疾修懺七七既獲靈應疾愈而心倍明利遂得分座於南竺演福湛堂澄公來蒞其席潤居首座無何出世主海鹽之當湖德藏夏講法華眾嘗千指屠酤為之易業瑞應之迹不可勝紀遷演福宗風益振六年退院事高臥於龍井風篁嶺之白蓮庵專修念佛三昧依者日眾宣政院以下竺法席強起之寺方災惟普賢殿巋然荆棘瓦礫中因慨然謂眾曰茲寺成於慈雲今殿尚存則祖師之願力有在矣乃為次第葺而新之昕夕演說無倦率眾修法華三昧感普賢放光現諸瑞相居三禩一日呼門弟子實法明策等示止觀安心之旨已而告之曰吾生緣殆盡茲惟其時驟稱佛號數百聲

泊然而化潤生平力修晝夜無怠嘗脩常行三昧以九十日為期者七修法華金光明大悲淨土以七七者不可以期數故其潛德密行密證者有未易淺窺之也

元古杭淨慈寺沙門釋處林傳(及庵信 虛谷陵 夷簡)

釋處林字平山姓王氏仁和人也母黃氏方誕之旦有異僧過其家持木刻梵僧像長尺許遺其父曰此即汝所生兒也言訖不知所往其家人始異之年十二即欲出家學佛父母以其有夙因弗奪也禮邑之廣嚴寺僧廣脩為菴度師年十七受戒具泝濤江上金華山謁及庵信於西峰一見器之命居侍席一夕及庵撚紙沁膏以代燭舉示林曰龍息吹滅作何觀念因之有省會及庵遷主湖之道場攜林與偕遂典藏鑰分座說法冬至之夕秉拂躋席新學畢萃發百餘問隨叩隨應響如鐘鳴辯同瓶瀉眾皆歎服已而及庵化去若失所依聞虛谷陵在仰山時門庭孤峻莫有當其機者因之江西求印焉初在眾中未有知者一日為茶瓢僧作頌虛谷讀之不勝驚喜曰宗門有人乃處以副座主賓之間相與激揚此事猶靈樹之待雲門也久之去遊江漢湖湘間徧禮祖塔而還皇慶癸丑始出世於大慈山定慧禪院瓣香所歸為及庵嗣延祐戊午嘉興之當湖張氏新建蘭若曰福源請林開山迺為創立制度重規疊矩纖悉備具昭示來者有所遵守至元庚辰遷中天竺三年高公納麟由樞密使掌行宣政院事知林有道行貫通宗教謂淨慈虛席非有德望不容倖進遂迎林主之學徒雲集動至萬指檀施泉湧不期而至因以餘力造建庭宇觀音羅漢諸殿華飾備臻近而祖堂遠而三塔凡所宜有皆一新之然林自奉則甚薄二時粥飯必首眾赴堂不厭麤糲寒暑布衲而已至於勘辯學者隨機策勵皆得其歸趣或滯於文字必從容誘導曰當知佛祖心傳不礙教相乃成妙覺居淨慈十八年始終如一日時靈隱方燬於火丞相達識帖睦爾起林移住靈隱將事脩復已庀材具會天下多故泰州張氏自蘇入杭明太祖以兵討之未下靈隱宿兵殿材焚焉未幾兵事亦解忽謂左右曰吾緣殆盡遂入城別丞相與素所往還者至淨慈取紙筆作辭世頌泊然而化元至正辛丑五月一日也壽八十有三臘六十有六所著有淨居吟二百餘首虞文靖公集讀之大喜因為作記敘其前代住持傳次賴之不墜高麗國王遣僧賚幣迎闡宗旨林辭以老其使乞林所撰四會法語錄之而去弟子夷簡字同庵能荷大法譽徹九重明洪武十二年主淨慈重建鐘樓復聚銅三十餘萬兩鑄巨鐘懸於上聲徹江湖二十五年徵為僧錄左善世教授為狀林行誼乞徐一夔為之銘焉詳具寺志

元杭州慧因寺沙門釋盤谷傳

釋盤谷號麗水海鹽人狀貌特殊而志氣超邁博覽經史復假山水以怡禪性至元中遊五臺莪眉伏牛少室諸名勝每止其地時發高吟人嘗謂其足迹半天下詩名滿世間谷笑謝之時附馬高麗瀋王聞其德望具書聘講華嚴大意於杭之慧因寺乃展四無礙辯七眾傾伏王大悅而聲價益重後至松郡構精舍勤脩淨業日課彌陀佛號年七十餘無疾預告以時端坐而寂有游山詩集三卷行世

元紹興雲門寺沙門釋允若傳(大山恢)

釋允若字季蘅號浮休因雲門之傍有若耶溪後又號若耶郡之相里人年九歲能通春秋大義父母鍾愛之稍長翛然有絕塵之趣遂依雲門元十五祝髮為大僧隨渡濤江首謁大山恢於杭之福山授以天台四教儀金錫十不二門指要鈔諸書一覽而知大旨聞湛堂主南竺往依焉凡法智所結立陰觀別理隨緣六即蛄蜺理毒性具等文靡不精究至於恩清之兼業昭圓之異說齊潤之黨邪仁嶽之背正亦皆察其非是於是湛堂甚器重之俾司賓客元至治初湛堂奉詔入燕都校大藏因奏若之行業錫以慈光圓照之號即命出住昌源淨聖院其院頗頽弊乃力為經度田蕪者闢之室圯者葺之三年遂成巨剎湛堂復招之徠歸命居首座攝眾規範泰定中復出主杭之興化時與天岸濟我庵無玉庭罕三師道望並峙湖上世稱為錢塘四依未幾退居越之雲門又與斷江恩休耕逸臨風吟咏不知夕陽在樹又稱為雲門三高至正住越之圓通遷上竺其山舊有纓絡泉涸久若至持錫叩巖禱曰苟吾緣在是泉當為我一來不然則涸如故言訖泉湧出淵冷漸盈時戶部尚書貢師泰稱比慈雲之重榮檜命之曰再來泉後退隱雲門築精舍專脩法華三昧為暮年淨業會天下大亂干戈紛擾眾欲擁若避去若斥曰難可苟免乎吾對將至待以酬之眾遁若獨危坐賊眾入其舍若毅然不為屈辭色俱厲賊首知為有道者約退一賊獨怒直前揮刃中之白乳溢出於地實元至正十九年二月二十九日也世壽八十僧臘六十有五賊退眾歸茶毗舍利如菽無算若平生風度簡遠不妄言笑趙孟頫稱為僧中御史得法弟子集慶友奎演福良謹延慶如瑩隆德法讓淨聖圓證十人所著內外集黃潛為敘

元杭州演福寺沙門釋必才傳

釋必才字大用姓屈氏台州臨海人父哲明大經為科目之儒母趙氏嗜善崇佛惟謹才娠十月母一夕夢梵僧振錫入堂內覺而生甫能言輒記孝經一卷七歲善屬句脫口而就聲文諧協宛有思致時有江西瞿法師居越之報恩實剎源暹公諸孫通天台教觀才年十二乃挾冊從之未幾為祝髮進具戒十六出遊虎林謁湛堂澄於南竺湛堂與語皆中肯綮即以法器期之

命典客司時玉岡潤居弟一座學者歸之如雲才亦執經入室雖至流金之暑折膠之寒足不踰戶限者十年凡山家之玄教觀之要一經指授意釋心融靡不臻其闡奧玉岡歎曰此子非靈山會上業已習之烏能至此哉一時儕輩如我庵無絕宗繼皆英聲偉望超出時流至於剖決宗旨議析教章必推才為選首玉岡出主海鹽德藏命才分座講演其辯若雨注河翻縱橫無礙聽者稱之泰定元年玉岡遷演福宣政院請才繼德藏當是時湛堂聲譽喧播中外眾意其必願為其弟子及升座辦香嗣玉岡君子謂其知義至正二年遷杭之興福三年補演福郡帥康里嘗咨決心要先是寺燼於兵才為次第新之建萬佛閣其高一百三十尺有奇才之為人凝重沈默觀行精勵孜孜脩進無斯須懈怠接人以慈誨人無倦門弟子據猊座者百人順帝特賜佛鑑圓照之號一日忽覺頭目岑然即謂眾曰吾緣盡矣乃焚香面西端坐高稱彌陀佛號盡一晝夜又告眾曰汝等勿謂脩持無驗吾淨土緣熟三昧現前矣即索浴更衣為書以別相識遂合掌而逝輿龕荼毗有五色光自龕中發火餘不壞者二舌根如紅蓮華齒牙若珂貝舍利滿地眾競取之一時俱盡最後至者乃穴地尺許求之亦有得者塔於寺南閱世六十有八坐五十六夏所著有妙玄文句止觀增治助文法華涅槃講義及詩偈並行於世

元明州天童寺沙門釋悟光傳

釋悟光字公實號雪窗姓楊氏蜀之新都人也母張氏感白衣大士授貫珠而孕及生有風雲光景之異幼而岐嶷性不好弄父母繼沒哀痛盡禮如成人舅氏賢公學佛天王寺光往依之日事講習賢沒迺受度於了冲間與同侶游譚便識旨趣年十有五詣大慈講席縱觀鈔疏慨然曰以名義為宗毋乃滯於見解乎欲化徐門戶妙徹真詮振衣出峽徧歷禪林至杭謁東嶼海知一見即待以法器杖屨頻加光堅坐苦究夜半飛蛾撲燈見之有省旦造方丈應答如響羣疑頓釋自是憤發益通內外典充淨慈記室海遷靈隱復侍巾瓶盡啟心要聲聞日閔元至順元年平江白馬寺請光開法朝夕提撕學徒整肅時論歸之元統元年廣教都督管府請主開元寺勿就郡守士民強起之屬天旱光至說法甘霖大沛至正二年行宣政院使納麟欲革僧寺舊弊舉光主阿育山先是諸僧構訟產業淪沒光力除其蝨旬月之間山川草木為之改觀墾田既復倉庾日積殿廡禪房次第完飾重建祖堂整嚴神相朝廷以釋迦佛舍利所藏歲頒金帛至是寵渥益加光悉以市材木築承恩閣以侈上賜復錫號曰佛日圓明普濟禪師會天童虛席宣政院俾兼領寺事光以五日分會說法俄示微疾危坐作書遺偈而逝時至正十七年六月甲辰朔也世壽六十有六坐夏五十有三悟光雖事參究而三諦圓融一心朗澈著有心要四會語錄行世所為詩清麗可傳有雪窗集稿二卷塔於鄮峯草堂大司農臨川危素為之銘

元杭州上天竺寺沙門釋真淨傳

釋真淨字如庵雲間華亭姚氏子也母朱氏夢月白海昇墜於懷覺而有娠及誕時瑞光滿室有異僧過指謂其母曰此兒海月法師之再來也九歲依化城寺明淨志授法華經歷耳成誦十六得度博究諸乘夙慧頓發乃以性學自許首謁杭之廣福雲夢澤公聞無極度化聲大振遂造其室盡傳所學元大德間出住海鹽德藏法嗣無極其寺方圯淨竭力扶樹眾散復聚田為豪門所奪復歸不數年翕然稱盛式廓舊模至治遷松江超果泰定乙丑元相脫驩舉住下竺居七禩講席不倦闢寺前之徑高大其門書佛國山以揭之至順辛未上竺湛堂澄以老告休舉淨自代先是淨因疾晝夜寢夢白衣大士持金瓶水灌其口曰汝勿憂非久自愈矣叩以未來休咎示云卻後二年當避喧大樹之下覺疾果差竊疑避喧樹下非入滅之讖耶及澄舉住上竺至見寢堂西有大樹堂匾曰淨處始悟夢之所示由是殫心宏法學者常數千指元主慕其道賜佛心宏辯之號及金紋紫伽黎衣淨素簡重有古人風舉止不妄言笑夙興默課法華經寒暑不輟癸酉冬預告終期乃命舟亟歸未幾示疾書偈而逝閱世七十有二坐五十有六夏闍維得舌根頂骨不壞舍利五色

元天台薦福寺沙門釋善繼傳

釋善繼字絕宗諸暨婁氏子生時母王氏夢人授白芙蓉始學語見母舉佛號合爪隨聲和之稍長從季父於山陰靈秘寺治春秋傳竊窺三藏慨然感歎身如泡聚官爵奚為大德乙巳投其寺僧思恭祝髮明年進具戒尋從天竺大山恢習天台教恢見其慧解卓倫嘗囑曰吾輪下數百人而堪繼大法者惟子耳當自愛勉之會大山遷雲間之延慶即往南竺謁湛堂澄澄一見便問曰入不二門屬何觀法繼對曰三種觀法對屬三部此文既與止觀同成觀體的是從行澄又問諸經之體為迷為悟繼曰體非迷悟迷悟由人亦顧所詮經旨何如耳澄公喜溢顏色謂眾曰法輪轉於他日將有望於斯子矣俾居第一座澄移上竺玉岡潤補其席亦居第一座天歷乙巳出住良渚大雄寺日講金光明經夜夢四明法智謂曰爾所講之經與吾若合符節自是益加精進至正壬午高公納璘請主天台薦福無何遷能仁弘闡法華玄義文句朝請暮誦又釋五章奧義嘗示眾曰吾祖有云止觀一部即法華三昧之筌蹄一乘十觀即法華三昧之正體須解行並馳正體兼運則圓位可登而不負祖命宗之意會元季天下大亂遂東還華涇專脩淨業繫念彌陀晝夜不輟一日忽告眾曰佛祖宏化貴乎時節因緣緣與時違化將焉托吾將歸矣乃端坐而逝至正丁酉七月二十二日也世壽七十有二僧臘六十三荼毗舌根不壞塔於靈秘之西得法弟子有靈壽懷古延慶自朋崇壽是乘廣福大影雷峰淨昱演福如玘報忠嗣璿車溪仁讓香積曇胄諸子

元明州寶雲寺沙門釋子文傳

釋子文字宗周四明象山人也即北溪聞法師之上足出主寶雲寺淹博教觀律規甚嚴常與人言則蹇訥若不出口至於升座滔滔如建瓴之水莫之禦也臨終時講十六觀經終即欲就座別眾入滅或有啟曰和尚後事未曾分付奈何遽爾告寂耶文曰僧家要行便行豈若俗人為兒女計而有後事眾懇益切於是下座復歸方丈一一條畫之即合掌回向遂入滅闍維舍利燦然異香襲人彌日而止

元松江延慶寺沙門釋融照傳

釋融照字慧光世家越之南明早歲受業於華藏刻意修習天台教觀於台之安國山及杭之天竺後從淵叟湛居華亭延慶寺力精教乘勤脩禪定燃膏繼晷旦夕無閒故學由志臻表於叢席職躋眾右四十祀矣名聞京師詔嘉獎賜師號每歲元日率眾脩金光明懺說法之外力事懺摩與諸眾生掃除塵翳攝入善根既老而彌勤得其法者三人曰居簡曰宗桀曰宗權皆法門龍象

元四明延慶寺沙門釋本無傳

釋本無號我庵黃巖人幼從方山寶禪師於瑞巖薙髮進具戒次依寂照禪師於中天竺命司箋翰寂照每深加錐剗亦有省處後有舅氏本習天台教挽之更衣見湛堂澄於演福精研教部寂照惜其去遂作偈寄之云從教入禪今古有從禪入教古今無一心三觀門雖別水滿千江月自孤本無後出世既嗣澄法仍爇香以報寂照蓋不以跡異二其心也寂照將入滅時本無方主延慶照乃遺書囑其力宏大蘇少林二宗餘無他說因奠寂照乃拈香云妙喜五傳最光燄寂照一代甘露門等閒觸著肝膽裂冰雪忽作陽春溫我思打失鼻孔日是何氣息今猶存天風北來歲云暮掣電討甚空中痕晚歲遷上天竺一日無疾端坐而蛻於白雲堂諡曰佛護宣覺憲慈匡道大師

元天台佛隴修禪寺沙門釋可公傳

釋可公號宜行博綜台宗精脩止觀踐履確實悟理圓融一夕因聽兩述偈曰簷前滴滴甚分明迷處眾生喚作聲我亦年來多逐物春宵一枕夢難成未詳其所終

元五臺山祐國寺沙門釋文才傳(迦羅斯巴)

釋文才號仲華清水楊氏子其先宏農人世官壠坻父淨義為清水主簿遂家焉才少孤事母盡孝性敏捷慧悟生知於古今墳典史籍無不精究尤邃於理學好古作善吟咏然所稟敦朴若無所知或對客討論邈如河漢莫窺其涯涘自受具後徧游講肆盡得賢首之學嘗曰學貴宗通言必會意以意逆志則得之矣其語言文字糟粕耳豈能開人之慧目乎初隱成紀築室樹松將欲終焉故人稱曰松堂元世祖命主洛陽白馬寺學者奔川赴海聲譽日馳成宗建萬聖寺于五臺詔求開山住持時帝師迦羅斯巴薦之成宗即鑄金印署為真覺國師總釋源宗兼祐國住持事帝師賚旨至才辭曰山僧荷蒙國恩居白馬寺亦過矣何德敢主祐國越分以居不祥不省而行不明吾坐此二煩為我辭帝師曰此上命也上於是寺心亦勤且至矣非師孰與此係教門事師善為之於是不得已而行既被命以來大宏清涼之道至老無怠大德六年壬寅九月朔日示微疾乃說法辭眾端坐而寂年六十有二闍維舍利數百粒塔於東臺之麓嗣法有普寧宏教普庵幻堂

元秦州景福寺沙門釋英辯傳(柏林潭)

釋英辯號普覺俗姓趙垂髻為驅烏沙彌弱冠受具戒年二十有五得學於柏林潭才三稜出世於秦州景福寺其道大震聲馳四表推伏異見樹正法幢英辯資性真純如玉含璞不加雕繪人愛重之至於悍卒武夫亦能展敬以為無佛世之佛也每得襯幣悉剋梵剝食僧伽施貧乏元世祖聞其高風降旨旌異至延祐元年六月庚戌無疾辭眾坐寂塔於普覺寺後年六十有八臘六十有一

元京都崇恩寺沙門釋德謙傳

釋德謙號福元姓楊氏定平人也幼而勤敏嗜誦佛書稍長即游秦洛汴汝逾河北齊魏燕趙之邦諮訪先德初受般若於邠州寧公習瑞應於原州忠公受幽贊於好時仙公學圓覺於乾陵一公究唯識俱舍等論於陝州頤公聽稜嚴四分律疏於陽夏聞公凡六經四論一律皆辭宏旨奧窮三藏之蘊而數公並以識法解義聲名遠聞謙皆親熏炙之而必臻其道後至京師受華嚴於大司徒萬安壇主初詔居萬寧寺遷崇恩前後十紀道德簡於宸衷流聲揚於海外未嘗以榮顯寵遇改其志嘗曰畦衣之士抗於世表苟不媿於朝聞夕死尚何慕焉自以重居巨剎久佩恩榮唯恬退為高乃讓席與弟子自居幽僻謝絕人事括囊一室以明其明樂其樂處世而遺世者也元延祐四年正月二十有六日示寂帝賜錢五十緡賻葬敕有司備儀衛旛幢音樂送之茶毗獲舍利數十顆建塔於城南隅世壽五十有一臘四十有三

元京都慶壽寺沙門釋達益巴傳(綽思吉)

釋達益巴未知何國人少為苾芻事帝師十有三年侍聽言論陶熏滋久鬱成美器凡大小乘律論及秘密部皆得乎理之所歸帝師西還送至臨洮命依綽思吉大士十有九年聞所未聞道益精萃秦人請居古佛寺其六波羅蜜靡所不脩兼通賢首之教於是名譽四表道重三朝元武宗踐祚召問法要稱旨所賜雖厚辭不受未久乞歸許之將謀以終自許俄而復召還京大宣法化帝親臨聽特賜宏法普濟三藏之號命鑄金印及紫方袍以旌異之敕王公大臣皆咨決心要延祐五年八月十有六日無疾端坐而化壽七十有三帝命兩宮賜幣助葬皇太子宰輔致奠敕有司衛送全身建塔諡曰祐聖國師

元京都寶集寺沙門釋妙文傳(大德明)

釋妙文姓孫氏蔚人也九歲出家十八受具已而遊學於雲朔燕趙之境年二十一抵京師依大德明學圓頓教陸沈於眾不自表見十有一年眾請出世始赤服升猊座縱無礙辯若峽倒川奔及乎間居簡默言不妄發其涵養冲挹無欲速不躁進大類如此年四十八住薊之雲泉勤儉節用老者懷其德少者嚴其教故眾睦而寺治廩有餘粟以賑饑民薊人稱之世祖召見顧謂侍臣曰此福德僧也詔居寶集自爾教乘法席益盛性相並融僧俗溥濟斯時海內講席紛紛方膠錮於名相凝滯於殊途文獨大宏方等振以圓宗使守株者融通於寂默之表龍象蹴踏競駕一乘年逾八十專脩念佛三昧延祐六年預知時至誡諸弟子高聲稱彌陀佛名面西趺坐手結三昧印泊然而蛻塔於平則門外

元五臺山普寧寺沙門釋了性傳

釋了性號大林武氏子也宋武公之後以諡為姓少即好學聰叡天啟初依安和尚薙髮登具戒歷諸講席精究三藏後遇真覺國師啟迪厥心既而周遊關陝河洛襄漢訪諸耆德從而學焉如泊林潭關輔懷南陽慈諸公皆以賢首之學着稱一時性悉造其門領厥玄旨及歸復參真覺於壠坻乃曰佛法司南其在茲矣乃從真覺至五臺未幾真覺化去遂北遊燕薊晦迹魏闕之下優游渤海之濱與世若將相忘成宗徵居萬寧聲價振蕩內外至大間太后勅寺臺山曰普寧延性居之性為人剛毅頗負氣節不能俛仰媚悅於人故足跡不入城闔不謁權貴人或忌之性聞嘗曰予本以一介苾芻蒙天子處之以巨剎惟乃夙夜宏法匪懈圖報國恩不暇餘復何求雖有臧倉毀鬲之言其如青蠅止棘樊耳顧予命之不遭道之不行則納履而去何往而不可也時元世因尊寵西僧其徒眾甚盛出入騎從擬若王公或項赤毳裘冠岸然自倨天下名德諸師莫不為之致禮摳衣接足丐其按顛摩頂謂之攝受性惟長揖而已顧謂眾曰吾敢慢於人耶吾聞君子愛人以禮何可屈

節自取卑辱苟為之屈非諂則佞吾自為道於彼何求識者高之至治改元九月三日示寂塔於竹林之墟諡曰宏教

元玉山普安寺沙門釋寶嚴傳(大林性)

釋寶嚴字士威幻堂其號也成紀康氏子因罹喪亂與弟同薙髮為僧後參真覺得傳賢首宗旨而嗣法焉嚴為人淳朴無偽方寸之地湛如止水值真覺三坐道場嚴與弟皆從而佐之真覺入滅乃繼其席無何奉詔住普安祐國二寺最久而與大林性公表裏大宏清涼之教至治二年七月入寂世壽五十一建塔於封谷之口

元金陵天禧寺沙門釋志德傳(海聞 法照禧)

釋志德號雲巖東昌鍾氏子也年十二受經於順德開元寺海聞後聞真定法照禧大宏慈恩宗旨於龍興寺徑從之學而盡得其蘊至元二十五年詔江淮諸路立御講三十六所務求其宗正行修者分主之德被選世祖召見賜宴並紫方袍命主天禧旌忠二剎日講法華華嚴金剛唯識等疏三十一年特賜佛光大師之號每與七眾授戒必令其父母兄弟相教無犯至於熱香頂指為終身誓居久之盡出衣鉢新其殿廡樓閣或歲儉乃煮糜食餓殍數萬人建康流俗尚醪醴好結官吏德獨以律自繩徒眾謹飾出止若互用常住物者誤一罰百故犯者擯之居天禧三十餘年一衲一履終身不易午過不食夜則危坐達旦以苦誦喪明忽夢梵僧迎居內院高座空中散花如雨因示微疾至治二年二月七日猶誦經不輟頃之辭眾安坐而化世壽八十八龕留二十一日顏貌紅潤如生闍維舍利無算會者數萬人塔江寧張家山學士趙孟頫為銘

元鎮江普照寺沙門釋普喜傳(無念端)

釋普喜號吉祥山東人也身偉面黑而瘠甚類梵僧早歲懇父母出家父母責以無後為大因娶育二子已而始得為沙門精究慈恩相宗研習唯識師地因明等論元至元二十五年薛禪皇帝勅立江淮御講之所普照居其一也詔喜主之升座敷演四眾傾服且日誦華嚴大經以十卷為常課而素與雲南端無念相善端為唯識之巨魁天下無出其右每與喜論辯理趣或有少失即以正言救之端亦為誠服入滅荼毘舍利甚夥其門人留其靈骨貯以髹函奉藏二十餘年始建塔於丹徒雩山逮入塔之際啟視之但見舍利霑綴函[袖-由+犬]若蜂屯蟻聚觸之熠熠然也鎮江之民多有圖像隨處祠之稱為吉祥佛云

元五臺山金河寺沙門釋道殿傳

釋道殿字法幢姓杜氏雲中人也家傳十善世稟五常始從齟齬兼習儒典天然聰辯性自仁賢年十五歷諸講席訪道禪林博達多聞羣推英悟蓋既精五教旁通百家名利不染愛惡非交如是者亦有年既而厭處都城肆志巖壑累載頽勤探窮藏奧抉擇樞要默識於心剖析義理若指諸掌嘗云大小之教不出顯密兩途皆證聖要津入真妙道覽其文體若異歸乎正理則同而學者妄生異義昧此通方於是尋原討本分細辨微錯綜靈編纂集玄旨號曰顯密圓通成佛心要文成二卷略分四門一曰顯教二曰密教三曰顯密雙辨四曰慶遇述懷詞則簡約義復該弘蓋欲會四教俱歸圓宗收五密咸入獨部庶使顯教者不以空有禪律自違而遺究竟之理密教者非僅壇印字聲為法而知秘奧之宗其有造於後學誠非淺尠宣政學士陳覺既為之序其弟子性嘉乃鐫刻之復為後序文並優勝與書俱傳

- 義解篇第二之三(正傳十六人 附見十四人)
 - 明大理蕩山沙門釋無極傳
 - 嘉定淨信寺沙門釋祖爾傳(石室瑛 竹屋淨)
 - 餘杭上天竺寺沙門釋弘道傳
 - 寧波普陀寺沙門釋行丕傳
 - 松江興聖寺沙門釋原真傳
 - 陽山大慈寺沙門釋善學傳(原澄)
 - 餘杭上天竺寺沙門釋慧日傳(柏子庭)
 - 餘杭演福寺沙門釋如玘傳
 - 紹興寶林寺沙門釋大同傳(春谷 古懷肇 古林茂)
 - 錢塘靈隱寺沙門釋原澗傳
 - 餘杭集慶寺沙門釋士璋傳(天心瑩)
 - 婺州智者寺沙門釋普仁傳(德祥)
 - 上海安國寺沙門釋紹宗傳(靜庵鎮)
 - 餘杭淨慈寺沙門釋明德傳(悅堂顏)
 - 會稽寶相寺沙門釋懷涓傳
 - 錢塘靈隱寺沙門釋大訢傳(了萬 晦機 東叟)

明大理蕩山沙門釋無極傳

釋無極號法天姓楊氏大理人也年十六禮蕩山海印出家印受法於杭州斷崖崖受法於高峯無極自弱冠便懷遠志徧歷諸方參叩明眼大徹宗旨而六相圓融三觀妙悟每登講席議論風生有聲於時時大理宰官欽其道譽延為山主無極至以宗印心以教化人常講華嚴法華諸經一方所仰明洪武十六年大軍奏凱六詔綏懷無極率緇侶間關入覲戾止金陵獻山茶龍馬征南賦進觀詩詩曰錫杖飛來自點蒼心含葵赤向春陽樛榆置縣初由漢南詔封王卻是唐世祖北來還宥段天兵南下便除梁累朝未有今方有萬國來朝仰聖皇六龍御宇道隆昌海不揚波奠大荒闢土神功同五帝開天聖德媿三皇河山氣壯鴻圖闊日月光綿鳳曆長澤及空門無以報敢將芹曝獻君王太祖御殿納之俄而龍駒嘶鳴山茶花放侍從歡呼天顏有喜館之上剎法衣典饌疊邀賜賞且御書乘春詩二章賜之詩曰春遊草木盡青青覓法年年會未寧石徑雲穿霞入樹江波煙罩氣橫汀芒屨馥郁山花嫩頂相馨香汗水清試問去來人指路上方雲谷幾程程又春行風暖漸塞輕華萼馨香雨露清一盃養生黎藿飯五天合性玉王經黃梅嶺畔人猶

集白鶴林中剎愈增幸際此時僧敬日杖挑雲衲下巍層敕授僧綱司都綱敕曰天下大道惟善無上其善無上者釋迦是也因大慈忍志立大悲願心行無所不至化無所不被論性原情談心妙理潔六塵以無垢淨六根以無翳去諸魔而清法界制外道而樂人天斯行斯脩而歷劫無量乃降兜率至於梵宮既舍金輪而猶苦行於雪嶺時道成午夜明星相符朕觀如來以己之大覺而欲盡覺諸法界眾生其為慈也大其為悲也深可謂無上者與世人宿有善根者皆慕佛力寰中之脩甚廣今大理僧無極博脩佛道善闡宗風俗人感化宜授以大理府僧綱司都綱欽哉特敕及無極辭歸復御製十八章詩以紀其跋涉之況并敕大學士李[冲*羽]僧錄如玘各贈和章又御製詩序曰朕朝天下八荒之來庭者皆荒徼諸蠻觀其威儀進退服色制度飲食詞語一切盡異非重譯不能通其情所以異於中國者為此也洪武十七年雲南大理府等州縣名剎高僧相率來朝朕甚嘉焉今諸僧居京師日久敕禮部宜以僧禮送歸其僧生本雲南學超土俗經通佛旨語善華言誠可謂有志之人矣特諭以詩仍敕翰林諸學士僧錄司諸首僧各和以詩贈行更敕建大雲殿并創三十六院以處其徒時洪武癸亥也踰年遣方伯張統臨山慰勞因達存注之意十九年無極始進表稱謝自是息影山阿研味經義精闡十年著法華註解七卷二十九年丙子八月遣徒文熹詣京呈進三十二年己卯以法授文熹使繼其席蓋老之將至勅於津梁矣永樂四年丙戌六月二十七日知時已至別眾而逝世壽七十四臘五十八後五日茶毗煙雲五彩光見人形葬於寺西北蕩山之原徒眾數百嗣法者四十餘人

明嘉定淨信寺沙門釋祖儻傳(石室瑛 竹屋淨)

釋祖儻字日章儻或作儻章亦作彰別號用拙常熟張氏子也祝髮後東游四明時我庵無住延慶石室瑛居育王皆侍以忘年後嗣法於竹屋淨法師出世永定教寺繼遷崑山廣孝嘉定淨信而主教吳下垂五十年洪武初預選高行有旨就天界寺說法上數召入禁中奏對稱允加賜慈忍法師之號後賜歸故里終焉

明杭州上天竺講寺沙門釋弘道傳

釋弘道字竺隱姓沈氏吳江澄源里人也幼而失恃鞠於嫂氏十年就外傳日誦數千言見人誦法華經歷耳成誦年十三父命禮密印寺雲屋慈為師弱冠薙髮進受具戒自此為學孜孜靡懈往見元叟端復歸密印時庭生五竹因以名軒將藏脩焉聞魯山文公講授有規矩乃從學台宗疏鈔諸書罔不通貫會我庵遷主上竺詣之我庵深言獎勵且曰為我掌記未期月入室請益曰前承指教嘗於淨夜試以平日所聞返照己心圓具法界念念即空

即假即中千界如一事理無礙若明日以此心對一切境接一切佛未免掉散昏沈不能任運混合不知過在何處我庵厲聲叱曰未在去弘道汗流浹背頓覺平日所聞所行一切疑礙冰消遂禮拜我庵復謂之曰子善護持他日教緒灰寒火冷之際以此對揚明廷重光末運可也明洪武初我庵既寂去從絕宗繼未幾秀之天巖耀退寂廣福請弘道自代遂拈香嗣我庵湖郡守請主慈感無何退於澄源溪上六時禮大悲像期生淨土為終焉之計三年詔天下高行僧道問鬼神事弘道建議唯允杭之靈山兵後廢敗眾請弘道主之乃偕其徒淨珠畚瓦礫荆榛重造光明懺堂自元季之亂期懺行法絕聞於時至是行之弘道之力也初居五竹軒時夢與大明照師同遊靈竺賦詩有出紅塵戶外德業至今存之句照嘗住此山始悟所夢為有靈應十年大祖有旨箋註楞伽諸經弘道與全室具庵同註三經頒行天下御製竺隱說賜之十五年遷住上天竺兼領杭郡都綱尋轉僧錄司左善世二十四年以老告間許之時年七十七矣退處長干脩一行三昧明年秋八月夢觀仁公請為學者講妙宗至三輩往生觀文忽示微病顧其徒正謨等曰昔我祖法智嘗為心境叵得故染可觀淨不礙緣生想成相起惟色惟心故當處顯現吾所修念佛三昧以此為準則今夕世緣當謝泊然而逝洪武二十五年九月三十日也世壽七十有八僧臘五十有九火餘藏舍利于天竺雙檜峯之麓曰雲隱塔少師姚廣孝為撰碑銘弘道四坐道場所至莫不興修唯靈竺懺堂其功最鉅為都綱僧錄三宗諸山有所依怙焉

明寧波普陀寺沙門釋行丕傳

釋行丕字大基鄞人也宗說兼通行解相應蔚為時望初由天台佛隴昇主寶陀匡眾說法恢復故業振興叢席洪武庚戌春正明部使者贛州劉君承直與丕抱杖西東遊使者曰此清淨境也盍為亭丕乃建清淨境亭於寺之南嶺上從三十尺衡如之左倚山右入潮音洞學士宋景濂為記

明松江興聖寺沙門釋原真傳

釋原真字用藏上海朱氏子也出家受具興聖寺傳天台教觀戒行高潔博極羣書精修法華彌陀懺法暇則書法華諸經隨緣演說禪坐達旦洪武乙丑微疾索浴書偈告眾曰四十二年無作無脩有生有滅大海一漚真歸無歸心空淨遊~~跌~~坐泊然而終

明陽山大慈寺沙門釋善學傳(原澄)

釋善學字古庭姓馬氏吳人也自幼離俗往大覺院初習華嚴經能知大義亭亭物表如青蓮出水不染泥滓元至治癸亥年十七始受度為大僧投華

嚴諸師而窮其說久之未有所入時寶覺講經曹溪亟往從之慧解濬發領悟敏捷聞響心通勢如析竹迎刃而解寶覺譽之不置自是名稱勃然興起老師宿德推為時望別傳教在報恩聘之出典賓客久之許溪之光福偶乏首懺者古田滋命學司之又久之無言宣繼席報恩復延之上座分筵說經聲采一時震動江南行宣政院請開法崑山薦福寺宣欲攝受為弟子學笑曰吾得法於寶覺忍背之乎賦曹溪水四章以見志越二年即棄去還東林隱居專修白業謂同志曰吾始習晉水源華嚴懺法行之已久及觀天竺慈雲式淨土懺儀明白簡要五晦諸文皆出華嚴吾欲籍是以祈生安養耳掌教者崇其道譽不容自逸強主陽山大慈先聲所被天人具欽杖錫初臨山川改色明室龍興庶政改革許溪人士戀慕尤篤爰具疏幣雜以香華請學居之學亦欲大弘賢首之教續佛慧命雖當儉歲節省衣資以供眾飯會天復旱院有觀世音像素著靈異郡守率僚屬迎致府解乞學作法祭之甘霖立沛大雨三日田野俱渥歲復大稔士民知精誠所致施捨接踵方思有所建置昭垂來茲而院僧以官賦違期當徙虔州有司知學專任講席不親財覷欲為辯釋學乃自承曰吾為主僧法當坐主者敢累他人乎遂請行或哂其迂學謝曰宿業已定不可追也行抵池陽馬當山示疾而化時洪武庚戌四月二十日也年六十有四學形貌庭瘠退然若不勝衣戒檢精嚴護持三業唯恐有所染汙獨居屋漏法衣不離體三藏諸文未嘗釋手雖盜無斗儲處之裕如恭謹自牧豎子請見亦無惰容勤於誘掖有不領解者多方比喻反覆數四俟其開悟始罷初傳華嚴於寶覺簡時凡清涼大疏鈔及圓覺楞嚴起信諸部雖妙義深微皆能融會遐邇學子斂衽翹瞻冀獲聽覩為快學因造十玄門賦以示圓宗大旨叢林傳誦謂能發越賢首諸祖之意或有好為立異以應觀法界性為十界差別事惟心造為真如之理者學聞之歎曰真如生滅倒置錯亂一至於此是可為大息也其於匡衛宗乘唯恐稊稗之混黍苗固若甚嚴然其植心平易不肯沈溺專家以殊戶異軌為高理之所在輒幡然從之每升堂示眾曰吾宗法界還源非徒事空言能於禪定而獲證入者乃為有得耳既而又曰吾蚤通法華雖累入法華三昧然長水璿問道於琅邪覺又從靈光敏傳賢首教靈光天台人也古人為法乃爾吾徒可拘守一隅乎君子美其至公無我一掃近代互相矛盾之陋故見諸著述不落偏卑又嘗與同學原澄以一乘同別之義更質疊難為法華問答若干篇復因主修法華期懺撰法華隨品贊三十篇辯正教門關鍵錄若干卷及詩文並行於世弟子處仁法慧請於九皋聲啟宗佑為造行業記而乞宋文憲公廉銘其塔其詞曰賢守之學雜華為尊建立六相條分十門固自以為瑣瑣而不可易至若天台性善性惡三觀三德之旨一念三千之文又曷嘗不引之而示人況脩門之注釋乃止觀熏習次第亦不外之而立言念古昔之諸祖皆契經之由循初何心於矛盾唯欲鑒於羣昏或謂無斷伏分齊而失修證之道乃後嗣之紛紜卓哉學師所見絕倫翦剔其末枝融通其本根談諸法之相即含性具之緣因庶幾森萬象於寸心合千江於一源觀會通於

大府關局隘之專門奈之何道未克施而遭於遘迤安養之生固知可以無憾但學子之凶師譬猶渡江河而失筏遵廣陸而折轅企瞻弗及鬱悒難伸評羣行以成章命勒之於貞珉

明餘杭上天竺寺沙門釋慧日傳(柏子庭)

釋慧日號東溟天台賈氏子即宋相賈似道之諸孫及似道責戍慧日尚幼志求出家依縣之廣嚴寺平山數年落髮受具戒年二十二聞柏子庭講台教於赤城即趨座下未幾能領大義子庭歎曰投丸於峻坂不足以喻機之疾也吾道藉子其大昌乎自是為學沈浸醞郁而名重一時一旦假寐恍見竹橫地下竹上凝者白粥粲然因臥地食之既覺言於子庭庭為解曰竹與粥同音子得就地而食殆非緣在上下天竺乎於是渡錢塘謁竹屋淨於上天竺所處房頗卑濕乃作詩風之竹屋見詩謂眾曰此子不凡異日當主茲山不可以少年易之也故乃遇如賓友無何命典客寮尋掌僧籍竹屋化去時湛堂澄繼其席延居後堂年餘出主吳山聖水元至正四年住薦福歷三稜下天竺災慧乞高納麟請新之寺宇告成王潛為之記四年遷上天竺知緣在此夙夜罔怠凡寺中所制一重緝之元順帝聞其名特賜慈光妙應普濟之號併金襴衣以徵之十六年退隱於會稽巖壑間人無識者元相達識帖穆爾遣使物色得之力請還山凡兩住上天竺二十五年至明太祖洪武二年詔赴蔣山佛會命禮部給饌明日召見奉天殿百僚咸集僧若魚貫惟慧日臘最高朱顏白眉班居前列太祖親問昇濟沈冥之道奏對稱旨太祖顧謂僧眾曰邇來學佛者惟飽餐優游沈蕘歲月如金剛稜伽心經皆攝心之要典何不研窮其義今有不通者當質諸白眉法師自後召見太祖但以白眉呼之而不名也嘗與別峰同金碧峰輩賜食禁中因奏瓦棺寺乃惰智者大師釋法華之所不可從廢太祖命就天界別建室廬以存其跡詔即開山說法五年孟春復於鍾山建水陸大齋命說毘尼戒太祖親率百僚臨聽事竣辭歸上天竺謝院事日脩彌陀懺以臻淨業十二年秋七月一夕夢青蓮花生方池中芬芳襲人寤告眾曰吾生淨土之祥見矣於人間世殆不久也後四日跌坐合爪而寂世壽八十九僧臘七十三越十日奉全身藏於寺之西峰妙應塔院慧日軀幹脩偉眉長寸餘目睛閃閃射人而人無老少見其入城感呼曰我白眉和尚來也爭持香花以散其上慧日狀甚嚴冷言不妄發嘗對王公大臣未出一媚語至於誘引後學其辭色溫如春曦故人多悅從其學嗣法有思濟行樞允鑑允忠良謹普智文會元秀景梵諸人

明餘杭演福寺沙門釋如玘傳

釋如玘字具庵別號太璞得法於文明海慧繼絕宗公學冠羣英才逸三教非但十乘三觀九經七史凡世間所有名言祕典無不博綜明太祖時命住

天界日與諸耆德闡揚教乘以備召問嘗同宗泐訂釋心經楞伽金剛諸經詔頒行之

明紹興寶林寺沙門釋大同傳(春谷 古懷肇 古林茂)

釋大同字一雲亦字別峰上虞王氏子父友樵母陳氏妊十月父晝坐堂上忽見龐眉異僧振錫而入父起揖曰和尚何來曰崑崙山竟排闥趨內急追聞房中兒啼聲父笑曰吾兒得非再來者乎同幼俊爽讀書輒會玄奧初習辭章翩翩大有可觀於是父以纘承家學屬之母獨歡曰是子般若種也詎俾纏溺塵勞乎遂命入會稽崇勝寺薙髮聞春谷講清涼宗旨於景德寺往依之盡得其傳又謁古懷肇精四法界觀會春谷移主寶林乃謂同曰子之學精且博矣恐滯心於羸執但益多聞縛於知見誠非見性之本宜潛修而滌之庶為吾宗之幸於是命出錢塘見晦機熙禪師見其揮塵之間同之夙習見聞一時蕩絕惟存孤明耿耿自照如是者閱六寒暑晦機深嘉其志又聞天目中峰法道之盛往參便有終焉之意中峰一日召而勉曰賢首一宗日遠而日微矣子之器量足以張之毋久滯此特書偈讚清涼像付以遣之同大喜曰吾今始知萬法本乎一心不識孰為禪又孰為教也還寶林復侍春谷且告中峰之意谷隨命分座講雜華經時宋故官徐天祐王易簡相與崇獎聲光煥著郡守范公憐春谷臘高欲風之讓席乃設伊蒲親與同言同毅然動容曰其所貴乎道者在師弟之分耳分明可以垂訓後學苟乘其耄而攘其位豈人之所為哉明公固愛我使我陷於名義實傷之也范不覺避席謝曰吾師誠非常人豈吾所能知耶元延祐初出主蕭山淨土寺次遷景德至元被命住嘉禾之東塔尋改寶林然寶林本清涼國師肄業之地人咸榮之同殊高臥不赴於是郡邑交疏延請再至始投袂而起乃倣終南草堂故事闢幽舍招徠俊人故天下學者莫不擔簦躡屨集其輪下至正初賜佛心慈濟妙辯之號併金襴僧伽衣元忠介泰不華守越苦旱力請同禱同爇臂香於玄度塔下雨即大澍元季天下大亂寺災同奮然謀復新之大明龍興太祖御極設無遮大會於鍾山召同人見武樓時年八十次日賜宴禁中事竣賜內庫白金數鎰並珍物榮其歸同神宇超邁狀甚修偉玉立亭亭而美談吐如坐王公貴人有排難教門者則法輪滾滾理或不直雖斧鑕在前亦不少挫其氣有以危法加之弗少顧惟誦華嚴經為常課而已不移日其人自斃同每扶植他宗毫無猜忌如繼江恩少林之學者乃薦之主天衣天岸濟台教之徒也挽之住圓通同遊閩時古林茂主福建之保寧而馭下過嚴楚僧無賴者將愬之於公府同偶遇旅邸乃設豐食餉之從容謂曰吾固不識古林聞其為禪林名德若輩將不利之君子以若輩為何如人不若且止否則恐自罹大咎事遂寢同性至孝恨蚤喪父每至忌日必流涕不已養母純至非惟順色涼溫而必使心餐道味同持律甚嚴一鉢外無長物惟有書史五千餘卷洪武二年十二月示微疾明年季春十日登坐說法辭眾端

坐而化世壽八十二僧臘六十有五闍維徵異甚多建塔於竹山所著有天柱稿寶林類編各若干卷弟子妙心大衍臯亭善現高麗若蘭景德仁靜姜山明善延壽師顛南塔國琛福城大慧景福性澄妙相道爾法雲道悅淨土梵翽寶林日益十三人俱繼其法化亦弘矣

明錢塘靈隱寺沙門釋原澗傳

釋澗原字天鏡一號樸隱姓倪氏會稽人也父機母嚴氏皆為士族童時從弘教大師立公於大報恩寺祝髮為僧受戒於昭慶濡律師嶷然有遠志韓莊節公性以道德辭章下帷授徒澗往從之於群經要旨作文程式俯仰變化開闔曲折悉洞然心胸伸紙引墨思源源不竭每進一解韓公未嘗不稱善天岸濟以台衡止觀開講於虎林之集慶澗又往從之濟為折三千性具之義及四明孤山同異之辨波瀾浩蕩廉陸高嚴澗能一一領解台宗諸老競以書聘之時元叟端說法雙經山人尊為當代妙喜澗又往從之入門叟厲聲呵之若聞雷霆黏縛盡脫遽卻立作禮叟曰汝果何所見耶復問答三四轉皆愜叟意顧左右曰是般若位中人也遂錄為弟子命歸侍司尋掌記室時年二十七久之出游建業大龍翔寺寺主廣智全悟訢公精貫儒釋行文為世模範不輕與人見澗盛稱之繼往臨川謁虞文靖公集虞公又盛稱之留三月乃還當時能文者若黃文獻公潛蒙古忠介公泰不華翰林學士危公素莫不聞風贊賞由是聲光遠施上達聰聽元至正十六年行宣政院請出世會稽長慶寺遷天衣萬壽禪寺四方問道者日至澗以衰病倦於將迎營精舍一區而歸老焉所調和塔處也元運既謝明室初興詔天下名僧建會鍾阜升濟幽靈澗與上竺東溟日五臺壁峰金特被召入內庭從容問道賜食而退已而辭歸和塔若將終焉洪武九年冬十二月靈隱虛席諸山交致疏幣延澗主之未及期年而崇德之禍作矣初靈隱有莊田在崇德都寺僧德現掌之開闢蕪萊以食四眾無賴比邱某歆其田利請於前主僧代之及澗入靈隱德現復充都監某懼發其奸私走崇德縣列現過失縣令丞實不問未幾有健令至上其事邢部刑部訊鞫得實以澗為寺主失於檢察法當緣坐移符逮澗或謂澗曰此三年前事且實不知宜自辯訴可免澗笑謝曰定業其可逃乎至部主吏問之曰現之犯禁爾知之乎曰知之曰既知之當書責款以上澗即操觚如吏言尚書侍郎見之皆大驚曰澗當今名德惡宜有是存審之務得其情澗了無異辭於是皆謫陝西為民行至寶應謂從者道昇曰吾四體稍異常時報身殆將盡乎夜宿寧國禪寺主僧總虛了舊日交游相見甚懼陳義安為青州衛知事移戍鳳陽以道經此亦留寺中與澗相遇澗喜曰吾遺骸有所託矣義安者澗之女弟夫也是夕共飯備言遷謫之故不見德色明旦端坐合爪稱佛而逝時洪武十一年正月十九日也世壽六十七僧臘五十三義安總虛為龕斂以俟法孫梵譯走寶應焚其骨舍利叢布如珠結竈山陰和塔瘞焉澗容貌魁偉衿懷煦然如春世間機

弃之術不禁自絕性尚風義斷江恩與為忘年交其卒也為刊其詩集復乞虞公銘其塔三主名山起廢補敗具有成績三會語有錄二卷詩文曰樸園集葺若干卷譯等哀慕慈法懼其湮沒疏為事狀徵文於宋文憲公濂而銘諸石

明杭州集慶寺沙門釋士璋傳(天心瑩)

釋士璋字原璞海寧王氏子也生有異骨直貫額頂目炯炯黑如點漆幼勿茹羶父母或陰試之輒嘔不止喜讀佛書鄰有寺僧請其父曰此釋氏種也盍乞師我父怒曰吾兒如芬陀花非若倫也遂捨入傳法寺受五戒時翰林侍制柳貫嘗憇寺舍賞其聰慧乃授以經史親為敷繹奧義璋聞迎刃即解年十九薙髮為大僧我庵無法師主上天竺璋將擔簦趨侍忽夢遊寶所有大菩薩教其胡跪作禮口宣懺文覺而思之乃普賢淨行品偈文及見我庵果刮目相視凡天台教觀一家章義以次授之而志慮專一力學無怠至忘寢食我庵陰鑒其勤常以遠大期之時有心瑩素具高志亢不下人世稱義虎獨羨其能約共燈火日與磨切詰難極於毫芒眾曰雙壁久之我庵化去東溟日公補其席陶冶學者選璋為開科領懺摩事元至正十三年受命住持棲真而地與南竺演福二剎相鄰時有大用才絕宗繼二老居之璋自視欲然以為未足日往扣焉凡教觀之奧偏圓本跡之微無不條析嘗太息曰佛法教藏渺如煙海固非獨善所能究盡使自畫而不進其能免於孤陋乎二十年移主旌德元季天下大亂兵戈擾攘人咸計自藏璋獨專心寺事不以世難自易厥志其彰善瘴惡風彩為之改觀日納淨眾講演經疏時無虛晷至明洪武集慶虛席郡守李公請就提唱教乘未幾中書被旨俾浙之東西五府名剎住持咸集京師共擘天界立善世院以統僧眾同監董其役諸方耆德皆莫知所為璋獨出方略具有條敘時十萬之眾咸做法之是年六月既望預知時至召弟子囑以後事至十七日安然坐蛻壽四十六臘二十八闍維其弟子圓覺一印昇元克勤等函其骨建塔於龍井辯才法師塔南璋器局瀟灑論議慷慨據直道而不徇流俗每懲諸剎之樹徒植黨者皆為怨府璋乃自誓不雜蓄弟子學者渴欲依附必勵言拒之不妄錄一人

明婺州智者寺沙門釋普仁傳(德祥)

釋普仁字德隱姓趙氏蘭溪人也性孤峭年十歲便有出塵之想依金華寶石演法院月公祝髮及受具乃慨然求道危坐達旦期息妄緣時隣院智者住山了然義道價甚高仁入室問答機鋒遞相奮觸久之應部使者之請出主金華西峯淨土元季喪亂天下紛擾仁遂引退戊戌冬有明兵至婺州太祖臨幸智者寺見其虛席特詔仁主之坐夏十五處之連雲韶之南華杭之中竺檄幣交至皆辭不赴洪武甲寅之秋使者三至請主淨慈始強起應之

開法之日聽者千人莫不挹深飲醅歎咏而去以乙卯八月八日端坐而寂臘五十年六十四著有三會語若干卷山居詩百首同時止庵德祥洪武初亦主淨慈與仁均以悟宗闡教為事未幾被徵為僧錄右善世後遷徑山主席二十五年甲戌十月十三日倚座而寂壽六十三所著有桐嶼集為詩刻苦逼近郊島尤善書法時人重之

明上海安國寺沙門釋紹宗傳(靜庵鎮)

釋紹宗字遂初上海陳氏子年十三父母捨入里中安國寺得法於靜庵鎮天資穎悟戒行精嚴初說法於杭之長慶寺大展玄風錙素嚮化次遷吳興慈感寺時金陵長干守仁法師延居首座一眾傾伏洪武癸酉應召有事廬山奏對稱旨賜金縷僧伽黎擢右講經尋遷右善世丁丑正月五日示微疾端坐而化太祖遣中使致祭茶毘日送者數千人徒眾奉舍利遺骨塔於安國寺

明餘杭淨慈寺沙門釋明德傳(悅堂顏)

釋明德字孤峯姓朱氏昌國人父有成與補陀怛洛迦山玠公交玠聞雞聲入道凡說法必鼓兩腋為雞鳴玠亡已久母夢玠來託宿而生兒時每跏趺端坐不動天童慧明者明德族諸父也見而訶之曰童子不習詩書癡坐將焉求德曰欲學坐禪求作佛耳慧明奇之挾至鄞縣金鵝院年十七詣五臺受具足戒杖錫而出首謁竺西坦於天童一日舉世尊拈花語德於眾中聞之若有省作偈以呈西頷之而德弗自是也復扣晦機熙於淨慈已而竺田霖延歸靈隱處以首座田上堂舉隱山泥牛入海語[諒-小+日][諒-小+日]誘掖音聲如雷德不覺慶快群疑頓釋因以偈呈田田歎曰天人眼目儼然猶在自是提唱宗風稱性而說且邀仲方倫結菴於桃花塢相與激揚時則檢閱華嚴足不踰戶限者五歷春秋禪教雙融聞譽遠邇行宣政院請主松江之東禪遷集慶之保寧元順帝時授以圓明定慧之號并金襴法衣大司徒楚國文公歐陽玄圭賦詩遠寄且為作內外錄序一時公卿莫不願與之交三遷湖之道場閱二年會淨慈虛席先是悅堂顏主淨慈樹大法幢四主名山東禪萬壽南屏雙徑俱有建施名聞京國璽書再下拜賜金襴說法四會有錄行世宗景濂為之序主席之盛頗難為繼是時浙江行省康里公謂淨慈居五山之一非明德不可固請主之但元季戎馬紛紜林柯不靜逮至明初尊崇佛法稍事安輯而明德以老年謝歸道場竹林庵一夕示疾索筆寫頌泊然入滅時洪武五年十二月二十七日也壽七十九臘六十二塔於東岡

明會稽寶相寺沙門釋懷涓傳

釋懷渭字清遠晚號竹菴姓魏氏南昌人也幼性穎異誦書屬文略加指授便爾開悟既出家從其舅氏全悟為師一日悟警勵諸徒眾未有對渭直前肆言如俊鶻橫秋日無留行悟振威叱之眾為駭愕渭氣不少沮如是詰難至於再三悟莞爾笑曰汝可入吾室矣命為記室浙江行省丞相康里公重其文行遣使者具書幣延至主會稽之寶相遷杭之淨慈誘道後進於五時八教多有啟迪明洪武初儀曹奉詔設無遮大會於鍾山二浙名僧咸集渭一至京師遂退居錢塘之梁渚梁渚者為全悟藏爪髮之地武洪八年十二月怡然而逝所著四會語錄及詩文曰外集者若干卷行世

明錢塘靈隱寺沙門釋大訢傳(了萬 晦機 東叟)

釋大訢字笑隱姓陳氏九江人也初謁開先一山了萬萬嘗經神祠見紙灰隨風旋起脫然忘所證以白東叟叟詰之無滯遂主開先訢叩之未深契也乃遣參淨慈晦機熙熙器重之問黃龍得旨泐潭領徒游方及見慈明氣索汗下過在何處訢抗聲云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一日又舉百丈野狐語詰之曰且道不落因果便墮野狐身不昧因果便脫野狐身利害甚處訢擬答機喝之生平疑滯渙然冰釋訢博學多通於涅槃法華大品般若靡不窮究故三諦圓融觀法入妙尤擅詞翰黃潛虞集品其文奇采爛然鏗鏘磊落名重一時元文宗順帝時屢承恩顧命坐咨問授三品文階賜賚甚厚盡用以建閣元至正四年五月詣御史大夫脫歡為別復留書與交游之善者二十四日書偈跌逝

- 義解篇第二之四(正傳十四人 附見九人)
 - 明餘杭淨慈寺沙門釋道聯傳(物先義 宗靜)
 - 松江普照寺沙門釋居敬傳(東源)
 - 餘杭龍井寺沙門釋普智傳
 - 姑蘇延慶寺沙門釋善啟傳
 - 餘杭上天竺寺沙門釋永顧傳(如蘭)
 - 桂林橫州壽佛寺沙門釋應能傳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盡玄傳(幻空)
 - 北直羊山秀峰寺沙門釋明龍傳(大光)
 - 姑蘇華山寺沙門釋祖住傳(大章)
 - 餘杭淨慈寺沙門釋大壑傳
 - 餘杭土橋庵沙門釋圓瓏傳(紹覺承 直界)
 - 隰州石室寺沙門釋圓鏡傳
 - 應天棲霞寺沙門釋真節傳
 - 塘棲大善寺沙門釋傳如傳

明杭州淨慈寺沙門釋道聯傳(物先義 宗靜)

釋道聯字祖芳晚號拙逸叟姓陸氏鄞人也幼而英敏舉止不凡讀書尤慧過目成誦父母鍾愛之稍長即好內典慕出世法年十四往游西浙禮崑山薦嚴悅堂顏時璽書再下有金襴法衣之賜王公大臣函書問道黑白奔走如市隨機接引霑被殊多聯既棲止遂亦得度久之受具足戒於鄞之五臺寺復還崑山則薦嚴已更主席物禪師一見器之遂留侍室而聯方篤意禪學兼窮止觀廢寢忘飧惟務明心見性用志精專智藏為開詞源湧瀉辯若懸河同侶無出其右者明洪武九年丙辰隨侍佛心住持靈谷已名震京剎天界覺源曇重其才識延居記室聲譽益著一時湖海尊宿若穆庵康恕中溫木庵聰皆相與忘年往復酬唱激揚宗旨莫不服其解脫始出世台之廣孝遷紫籙道場景山補陀能仁六徙名剎而至淨慈所主法席策勵後學隨機開示各極歸趣緇素向化道譽為禪林之冠洪武壬申淨慈又燬聯力任恢復不數年殿宇堂室為之一新先是茲寺困於賦役聯白有司減去田稅蠲除徭役眾賴以安既而舉任僧錄以疾固辭蜀王聞而賢之錫之衣孟永樂四年丙戌朝廷纂脩大典再被徵召命為釋教總裁以其博通經典文理縝密恩寵方深事畢還山五年丁亥寺僧擅自披雜因事逮及例謫五臺禮部尚書趙玘以聯名奏聞驛召至京上加慰勞己丑七月三日坐逝於京邸

大祐國寺世壽六十四僧臘五十著有拙逸語錄行世文宗為之嗟悼勅工部備龕茶毘歸葬藕花居之陰建塔焉胡澐為作銘刻于石弟子宗靜照菴者杭之高氏子投淨慈岳公薙染深究梵典時聯主席倡道聲高遂依焉參究有契因以典藏畀之永樂初聯被徵召纂修大典靜亦偕行途觸賊鋒不離左右人以為難已而聯逝京邸竟函其骨歸葬南屏由是義行聞於海內名山巨剎爭迎致之歲辛卯首主京師佑國宣德初遷明之雪竇閱五[袖由+異]僧錄善世以淨慈起之既至弘闡教觀緇白服從丁卯朝廷頒賜大藏以寵異之及赴闕謝恩止於彌陀寺一夕謂侍者曰吾緣其止矣索浴更衣危坐而逝

明松江普照寺沙門釋居敬傳(東源)

釋居敬字心淵別號蘭雪學通內外善屬文精嚴律部禮金陵大報恩寺一雨後參杭州集慶寺東源於懺摩堂居第一座從而講周易永樂初奉詔校大藏經預修會典已而住持上海廣福講寺遷松江普照大開法席垂十餘載建大雄殿海月堂三解脫門廊廡重軒精舍香積煥然新之七眾瞻仰道風大扇

明杭州龍井寺沙門釋普智傳

釋普智字無礙別號一枝叟臨平褚氏子出家於錢塘龍井寺依東溟日授天台性具之學優於講說歷四道場風教遠施晚歲演法於松江延慶寺因以終焉專脩淨業寒暑不輟永樂戊子正月二日微疾會眾端坐面西念佛而逝嘗集註阿彌陀經一卷

明姑蘇延慶寺沙門釋善啟傳

釋善啟字東白別號曉庵長洲楊氏子世為宦族甫能言教誦彌陀如舊習父母異之知是法器捨入永茂院無幾薙染受具屏跡龍山研窮大藏百氏諸史無不精究永樂戊子出世延慶寺明年應召纂脩永樂大典併校大藏經賜金縷僧伽黎一時名人若沈民望王汝玉錢原溥輩皆為方外交或辯儒釋之異啟曰無論聖人理同且各為其教又曰東魯垂道西竺見性皆莫先於厚本故吾儕雖離父母而養生送死率皆從厚與兄弟極友愛正統癸亥示寂塔於龍山

明杭州上天竺沙門釋永顧傳(如蘭)

釋永顧字本源號性庵鄞人也十歲喪母能執喪禮如成人服釋出家從四明都綱竹菴得度篤意釋典[一/(句-口+方)]通文藝既而謁南京僧錄唯菴實命和本宗偈有云三十世生一念有五千經旨片言該唯菴尤加器重為書狀侍者轉懺首會杭之梵天闕席唯菴命永顧主之凡七載刺血書妙法華阿彌陀經僧錄心田靈延為大報恩寺都講闡揚法華奧旨聽者川湧若陸參政友諒中書姜孟圭咸執弟子禮後詢駙馬都尉沐公冢宰黃公宗伯王公杜公太常鄭公請主上天竺至則啟滯覺迷舉廢興墜為之一新凡十年有都剛之命表率九邑勤劬十稔無少瑕類所著有講貫結偈朝野賡歌山居倡和缶音等集又如蘭字古春富春人淹通經論餘及詩文所著曰支離叟集忠肅于公彌月時召戚友為湯餅會蘭至摩其頂曰此兒他日救時宰相也後果如其言

明桂林橫州壽佛寺沙門釋應能傳

釋應能姓楊氏或曰即建文君也太祖之嫡孫懿文太子之長子封皇太孫名允炆生時頂顛頗偏太祖撫之曰半邊月兒及讀書甚聰穎一夕懿文太子與侍太祖命詠新月詩太子吟云昨日嚴陵失釣鈎誰人移上碧雲頭雖然未得團圓相也有清光徧九洲太孫吟云誰將玉指甲掐作天上痕影落江湖裏蛟龍不敢吞太祖覽之不悅蓋未得團圓影落江湖皆非吉兆洪武三十一年太祖大漸乃授以一小篋封鑰甚密戒於急難方開是年五月十六日即位年二十有三年改元建文召方孝孺為翰林侍講直文淵閣日講周官禮變更太祖舊制於是諸王多不遜服乃曲加恩禮侍讀太常卿黃子澄兵部尚書齊泰議削諸王之權謀者先燕命侍郎張昺都指揮使謝貴察燕動靜遂逼燕起靖難師南討黃齊建文四年六月十三日破金川門帝縱火焚宮啟太祖遺篋視之得楊應能度牒髻刀袈裟緇服遂削髮自御溝出遁雲遊四方自湖湘入蜀歷滇閩復入廣西橫州南門壽佛寺居十五年升座演法歸者甚眾所至成大法席復往南寧居一蕭寺衲子雲集能為隨緣開示一眾歡然久之至思恩州立於當道值知州出從者呵之能言我是建文皇帝也自滇歷閩至此今老矣欲送骸骨歸帝鄉巡按御史聞於朝賜號老佛命驛送至京師乃賦詩云流落江湖四十秋歸來不覺雪盈頭乾坤有恨家何在江漢無情水自流長樂宮中雲影暗昭陽殿裏雨聲愁新蒲細柳年年綠野老吞聲哭未休及至京朝廷未審虛實以太監吳亮曾經侍膳使審之能見亮即呼曰汝非吳亮耶曰不是能曰我昔御便殿曾棄片肉於地汝伏地舐食之何得忘也亮稽首大慟已而取入西內供養竟卒於宮中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盡玄傳(幻空)

釋盡玄字如如姓張氏澱江人也幼從塾師頗通文義因讀楞嚴維摩諸經即作超塵之想後從雞足禮幻空祝髮矢志參究了明宗旨有問法者隨機而道應答如響所著三教直指金剛定衡性學正宗諸書行世勅建拈花寺云幻空本北直人人真憇雞足大覺寺後居迦葉殿羅漢崖戒行孤潔諸方敬仰更勅碧雲寺參窮法旨四十餘年大為了悟語辯如流時直指姜思睿企慕高望入山叩訪見像懸壁間身在龕中因云和尚和尚業障業障既在龕中復在紙上此則為真彼則為妄速道速道免喫吾棒空應聲曰業障業障豈在和尚放浪室中威嚴堂上真也非真妄也非妄如是此說請收尊棒姜改容禮之為建寺勒碣

明直羊山秀峰庵沙門釋明龍傳(大光)

釋明龍姓姚氏宿遷人也原名東陽嘗入邑庠為名諸生居常好修嗜內典二十年不問家人產雅從善知識遊隆慶改元澹然為居士而北探諸名勝巨剎訪有道耆德寓清苑越三寒暑登銀山法華寺從大光祝髮進具尋居羊山秀峰庵名德日起鶉衣一衲不緇不襦不履諸陵中貴人多檀施弗之顧安七十二眾期千日親為說法闡三教宗旨時休寧汪司馬道昆奉詔行邊道出諸陵期督府法華寺聞龍高德乃趣一沙彌逆至見其敝衲曾不掩衲祈寒無所侵汪與督府避席禮之攜入洞中坐石牀與語略舉西來意督府灑然信服汪問千日畢能作常住乎曰無常無住明日辭歸越旬有五日立春羊山放光五色又越七日除夕集眾告曰元年元日吾當行矣汝等識字者用耳聞經不識字者用心念佛務禪定智慧務濟物普心即此是佛慎弗他求汝等勉之除夜既半命弟子視中星曰夜午乎曰午矣曰未也日午乃行元日羊山復放五色光如前至日中遂辭眾坐化越七日闍維復放光如前大眾與諸中貴人望光羅拜曰佛耶佛耶願以光普照下土已而舍利纍然督府治塔藏之汪公為之銘實萬曆元年正月也

明蘇州華山沙門釋祖住傳(大章)

釋祖住字幻依麓亭其號也姓楊氏丹徒人母朱氏夢梵比丘入其室覺而誕住少沈密不貪世緣喜作佛事年十三父母捨入龍蟠山依朝陽受法華華嚴諸大部經年十七雜染逾年受具通曉諸經大義自謂覺識所依非關真際遂擔簦游少室依大章五載復至伏牛依高安十二夏先後所得二師印可次游都下謁松秀二法師盡得清涼宗旨淮安胡給事延住鉢池山造大藏經作水陸無遮會至南京訪無極法師居第二座犍槌之暇即入眾作苦事後徑京口萬壽寺演華嚴大鈔至入法界品地震天雨甘露寶華時無極率徒與焉妙峰承印二禪衲亦居座下自是道價鬱跂叢林傾挹住智崇禮卑如常不輕提獎唱誘孜孜不倦所至皆成寶坊住演四十八願時有異

人頂白冠冠有蛇四足來聽說法人方怪問之對曰吾乃法冠而乃境觀忽不見萬歷甲申憇錫蘇之蓮華峰下建精舍居之了亥九月忽示疾語眾曰二十二日不作離散便可再展華巖但老僧不得曲徇人情至日晨起沐浴跣趺說偈曰虛空無面目無位強安排話頭不話頭處處見如來又曰今年六十六不知做甚麼咦諸人著眼看這箇消息佛祖到來也用他不著言訖而逝異香積時不散三日顏色若生茶毗斂遺骨塔於蓮華峰陰壽六十有六臘五十有四王世貞作銘

明杭州淨慈寺沙門釋大壑傳

釋大壑字元津姓薛氏錢塘人也父鸞母高氏夢衣絳梵僧授蔗一枝寤而產壑貌質清瑩朗若冰雪五歲寢樓上屋旁老樹低枝拂簷值鄰舍火起焚燬幾盡壑從燄中緣樹下端坐人皆異之年十六所恃見背從父入淨慈寺覩林木蒼翳徘徊不忍去因向父乞身為佛子父許之禮萬峰院僧祿薰薙度會以密藏開師賚慈聖所賜大藏之補陀駐錫茲山見壑器之以五字呈開因勉以生死大義勿墮世智綺語障迺往授具戒於雲棲尋赴白門謁雪浪究賢首教義一日定中見壽公三示十二之旨舉似雪浪曰永明三二文殊二三言下豁然諸經了義多所參證四方名刹爭以香幣延登講臺如勝果相國無垢及金明南禪報恩皆次第赴之豎義無上點石雨花洵人天導師偶歸登宗鏡臺憶初薙染時歎祖塔湮廢已十五年為之潛然於臺畔築方墳卒從大慈山巖叢篠中得所瘞壽祖遺蛻匣函舍利及金色骨精誠所通因起塔奉之復新宗鏡堂改建永明經室剏香嚴社脩大慈懺度南北陣亡遴同戒禮法華威儀梵頌秩然一變閒與達人名宿闡揚正法旁及詩詠嘗念明聖全湖請為放生池此壽祖本願湖之三潭葑踞泥淤游泳失所乃請於郡長監司交檄協助築內隄外塘中造殿閣門寮復古湖心亭之舊四方居士月舉放生會魚樂鳶飛各得其所石閭劉巡撫作碑記之具詳山志壑警敏博綜隨觸洞了謂諸佛立教以澄心耳不覓本心祇在音聲輪上分別字句譬猶認指為月入海算沙於是福際龍華以講期請者堅辭不赴聞者憬然知有證悟之學淨慈寺無專志歷七百年壑搜采成帙都為十卷事核詞典他山罕匹而吳山之寶成寺秀州金明之禪堂咸仗其力營構之不日而成坦性慈衷穎才實行惟法是荷自度度世動行無懈禪定之餘游泳翰墨書畫俱清所著永明道跡吳詠放生池黃山詩遷塔詩若干卷傳於世以明萬歷丙子十二月七日示寂年五十二臘三十七茶毘塔於方墳之左董其昌為之銘云天啟六年江西叅議黃汝亨為文記其生塔並見山志

明餘杭土橋庵沙門釋圓瓏傳(梁覺承 直界)

釋圓瓏字大覺姓鄭氏武林人也往來無極講席間與雪浪度門相友善而紹覺承執弟子禮唯謹各侍一母稱兩睦州時寄寓土橋民廬因奉母也有古松英者兄弟同出家淨慈瓏日與英語夜宿英寮如家唱和揮灑牆壁幾徧自謂寒山捨得人莫之許所寄廬地僅方丈而集海內名士座為之滿梵筵止一度一架取讀之恍入龍藏入無量法門矣自題栗主於案欲以謝客客至且疑且悲低回久之漸入其寢突遇瓏乃相視莞然嘗讀宗鏡有省與其徒承手錄百卷示鄰居士虞長孺曰吾得掃除宗鏡堂為壽師役足可無憾來時虛空包法界去時法界包虛空耳逝時喃喃二語不絕時宗鏡唯梵本妙峰福燈閱之而悟因勸藩王刻其書於秦而瓏始傳寫於吳吳中士人多喜讀之妙峰亦駐錫南屏與筠泉蓮為友皆遠嗣永明壽云有真界字幻居者樵李人亦來吳中棲止南屏松壽堂注解金剛經視古今百家註無當旨者獨會祖意而為之註直指人心而不襲舊語蓋六祖中峰於此頓悟非直註則經屬於論矣註成六夢居士序之去隱西溪無何端坐而化

明隰州石室寺沙門釋圓鏡傳

釋圓鏡臨人也早歲出家游心賢首講肆悟諸經密旨常遊平陽隰州石室寺隨緣為眾說法一日至北門瓦窰坡土鑿構一庵如龕燕默其中忽囑其徒曰吾將歸矣眾請其期曰來日耳晨興沐浴更三衣焚香趺坐說偈而逝

明應天樓霞寺沙門釋真節傳

釋真節字素庵襄陽人也少為郡弟子忽宿根內萌即辭割親愛禮明休祝髮既而北遊京師徧參講席謁秀法師饜餐法喜深得賢首之印節學富內外諸方每以龍象推之久之負錫南還金陵出主攝山樓霞眾逾三百教備五乘據師子座搥大法鼓三十餘年檀施之餘拓地為廬時殷宗伯得郎邪大士像五臺陸公亦鑄金像悉歸節供奉羅參知署曰圓通精舍句曲李石麓學士盟為外方交節闡大法不以期限嘗講法華經至多寶塔品空中忽現寶塔於座前一如經言四眾跂觀灑然希觀中使張某奉慈聖寶太后命至同覩聖瑞乃出尚方金縷僧伽黎衣一襲宣慈旨錫之即於講堂之西建一浮屠以徵神化汪道昆記其事

明塘棲大善寺沙門釋傳如傳

釋傳如本名興如字介山亦作戒山姓顧氏武原人母夢金甲神推車上堂遂舉子童時往僧舍見稜嚴經恍如宿習歸白母矢願出家投杭之昭慶禮鏡湖為師其祖大慈曰予嘗夢慈恩窺基尊者過吾家此子相貌奇偉殆類之名之曰興如謂能興佛道也後為真寂百松所器易名傳如摩頂謂之曰

三千界如是傳佛心證以此準子其勉之嘗至嘉興東塔翻閱藏經沈居士繼山隨取般若部經一函試令背誦傳如立誦數卷繼山驚服曰此神僧也東走鄮峰禮阿育王設利二七日設利放百寶光光中湧見無數佛菩薩一一皆身在其前瞻禮向有礙胸之物至是一時空盪以此質於百松松曰此普現色身三昧是方便境須修法華懺法方不住此位及受具區馮公西溪安樂之請修法華懺法六載默證師言嘗從妙峰法師學天台教與人譚論口如懸河辯者莫當庚子入都欲奏開昭慶戒壇並請龍藏與紫柏可公甚契及妖書事起如已南歸乃并逮如如易服自詣縣縣主曰何來自罹苦趣如曰解京遊方也坐獄住靜也受刑苦行也就死捨身也除此四法何處更有安心法門赴京與可同就獄刑部主政魯史曾游西山佛寺逢異僧語之曰吾教中有二大士將以罣誤入法網公當主此案幸左右之魯問為誰僧指庭柏及山示之魯心識已久及閱讞辭見紫柏介山名心感悟竭力剖護事得釋丙午因經廠王太監奏請得賜大藏經賜金建閣歸構齋堂寮舍登壇講演經論願力畢遂癸亥駐錫塘棲大善寺甲子還真寂示微疾更衣趺坐說金剛經及十六觀題畢寂然而逝世壽六十三塔於瓶匳駱園後遷本山臥牛石側所著有法華抒海稜嚴歇稜嚴截流老子芙莊子參若干卷有贈大善賓嶽上人詩云江海足優游嘗慮風波惡郊園可卜居塵俗紛相錯動止皆畏途何方堪著腳但教身雲飛悠然自賓嶽亦有感而言也又真可園中寄如詩云誰能念爾衝寒去傀儡提攜豈有神長別莫談身後願好從當下剖微塵蓋如釋可猶未釋故云又馮夢禎與如書云洪鐘不叩不鳴公頃無俗事吾幾失公矣蝓蛄六即之說敢不擊節以副賞音其見推當代名流如此

- 義解篇第二之五(正傳八人 附見十二人)
 - 明金陵寶華山寺沙門釋洪恩傳
 - 嘉興東禪寺沙門釋明得傳(百川海 妙峰覺)
 - 餘杭昭慶寺沙門釋大惠傳(紹覺 愚菴貴)
 - 雲南雞足山放光寺沙門釋禪傳
 - 餘杭徑山寺沙門釋圓澄傳
 - 天台慈雲寺沙門釋真清傳(寶珠 荊山 月溪)
 - 餘杭徑山寺沙門釋真可傳(密藏道開 法鎧 性田)
 - 清涼山竹林寺沙門釋鎮澄傳(小山 芙巖)

明金陵寶華山釋洪恩傳

釋洪恩字雪浪姓黃氏金陵人也出家住寶華雪浪山因以山為號性穎悟耽靜寂兒時便學趺坐雙目重瞳高穎廣顴大口方頤肌理如玉年十三從父往報恩寺聽無極講法華至三界無安猶如火宅髣然有覺遂留不去密袖翦禮玄奘髮塔自截其頂髮父來寺趣歸恩提髮向父曰以此遺母父慟哭恩瞪視而已為小沙彌時遇設齋學侶魚貫濟濟雍雍恩獨攝齋趨登抗席首座人或喝之恩曰此座待誰曰待通佛法者恩曰若然則我當坐矣曰汝通何法曰請問乃舉座上講語恩信口答之再問再答辯論不竭如倒峽懸河眾大驚異曰此兒再來人也於佛書無所不讀博綜外典旁及晉字唐詩乃曰不讀萬卷書不知佛學嘗從無極學極遷化綜其講說依次補訂盡掃訓詁稱性而談恒教學人以理觀為入法之門每當敷演聞聲嚮化日盈萬指說法三十年不立壇場不設高座一茗一鑪據几清譚嬋嬋動聽或杖履間游四眾圍繞依山水為妙音化樹林為寶網東南法席之盛無出其右明萬曆丁酉至焦山主楞嚴講會因撰般若心經述解一篇並講會疏引手書圓覺經刻於石戊戌報恩寺塔頂傾側恩奮志修理當道諸公莫不樂助給諫祝公為之首倡恩親領眾數百行乞於都市一時人心躍然興起金錢集者動以千百計大役遂舉塔高二十五丈其塔頂中心木約長七丈架半倍之則從空而下如芥投針其勢難矣恩心苦極忽嘔血數升而塔頂立正架上之人如鳥棲柔條竟無小恙嘗居虎邱講般若經有自題像偈云遊徧天目山來坐虎邱石人道是支公我說渾不識雪浪庵中不死人走向江南說消息晚歲於望亭結茆飯僧若將終焉一日腹疾謂其徒曰日而行夕而息未有夕而不息者吾其息乎弟子問滅後用龕用棺曰坐以龕子臥以棺相錫打瓶且莫言沐浴端坐而化壽六十有四遺命還葬雪浪山北恩生平

不作崖岸不避譏嫌說法談禪論詩度曲因人而施食鉢衣衲不擇美惡隨境所處事至不推事去不戀嘗於長城山中正定二日林木屋宇皆為震動嘉興楞嚴寺地饒水竹恩賞其幽秀作精舍三間經營數月手自塗墍落成三日飄然竟去終身不再至其逍遙脫略類此梁溪鄒迪光銘其塔

明嘉興東禪寺沙門釋明得傳(百川海 妙峰覺)

釋明得字月亭以紹萬松林法故又號千松烏程周氏子也生即穎異岐然不凡髫時隨父入西資道場遂指壁間畫羅漢像問父曰是何人耶父曰僧也因慨然曰吾願為是矣於是力求出家父母不聽至年十三始投郡之雙林慶善庵從僧真祥習瑜伽教越四載祝髮聞有向上事乃首參百川海不契因而單衣芒屨徧遊叢席匍匐叩請備歷艱辛自念般若緣薄擬投天竺哀懇觀音大士祈值明師道經中竺聞萬松說法先入禮謁萬松問曰大德何來欲求何事對曰欲叩普門求良導耳松豎一指曰且去禮大士卻來相見得泫然再拜求決生死大事松曰子欲脫生死須知生死無著始得得聞罔然依受具足戒自爾朝參夕叩久無所入松不得已授以楞嚴大旨於是苦心研究至清淨本然云何忽生山河大地處恍然若雲散長空寒蟾獨朗遂作偈曰楞嚴經內本無經觀面何須問姓名六月炎天炎似火寒冬臘月冷如冰松頷之囑曰汝既悟教乘異日江南講肆無出爾右向上大事藉此可明松住徑山得為眾負米採薪不憚勞苦偶行林麓間有虎踞道得卓錫而前虎遁去嘗閱棗伯合論至十地品中宵隱凡而坐夢遊兜羅綿世界登座闡華嚴奧旨至於結座乃說偈曰從本已來無今日何曾有一毛頭上現虛空笑開口寤白松松撫之曰此聖力之冥被耳非惟吾道之將行清涼一宗亦大振矣無何松化去得懸鐺守塔三載聞佛慧祇園法師講席之盛載笠投之祇園亦默識而愛重之其弟子沙泉頗自負不籍得名遂掛錫報先寺報先與佛慧咫尺之間故晨則持鉢午則聽講夕則與同參十餘人敷其義趣於是眾日漸益香積不繼得陰禱於伽藍神曰倘吾與聖教有緣神其無恪訶護移時有外道自雲間來施米百石自是報先之盛過於佛慧開堂之日祇園命侍僧奉以衣拂得謝還之瓣香為萬松拈出已而子身登徑山凌霄峰為礙膺未破又力參三年一夕初夜跌坐豁爾心境冥會疑滯冰釋乃躍然說偈曰千年翠竹萬年松葉葉枝枝是祖風雲嶽高岑棲隱處無言杲日普天同趨禮萬松塔曰老漢不我欺也自此道譽益隆學者輻輳四方交聘歲無虛日開堂靈隱門庭巖峻無賴僧徹空天然輩睨視不敢近竟以不測事誣得不終日事白天然坐誣遁餘黨答死者二十人得南遊赤城外道歸化者不可勝紀台郡教乘之被實得始也闡玄談於大中庵三日庵災獨所居丈室無恙講圓覺疏鈔於法海地產白蓮華紫芝生於前五臺居士因匾其堂曰湧蓮得居東禪夜夢文殊跨獅出乃遺獅乘空而去獅忽化為童子得故問曰爾方獅今童耶試開口童子啟頰口如丹硃得撫其背曰爾

猶獅也童曰師口何如得張口示之童躍入咽得驚覺而汗且喜曰文殊大智在我腹中矣不數月五臺陸公率眾命講華嚴大鈔眾常千指妙峰覺法師入室弟子也遙宗四明宏天台教觀之道以師闡賢首未諳台衡故質六即蛞蝓之義得曰天台六即在行人迷悟之分耳如我在名字則十界皆名字我證究竟則十界皆究竟若我蛞蝓則十界蛞蝓也非蛞蝓上別有六即覺曰不然天台六即不論世出世間有情無情物物皆具隨舉一法六即在焉何必以我迷悟觀彼優劣哉得曰聖人設教誠為汲引迷塗若云隨舉一法六即在焉是為惟談世諦成於戲論學人何有哉前五即置所弗論如云究竟一究竟則一切皆究竟如金出鑛似璧離璞是故如來初成正覺觀於九界一切眾生同時成佛非惟九界正報全體遮那則九界依報無非寂光所以歎云奇哉眾生具有如未智慧德相乃因妄想不自證得豈非以我成佛觀彼皆成佛也果如子言其究竟蛞蝓永無成佛日矣一切眾生而無一人發菩提心所謂十法界都為一隊無孔鐵鎚若言究竟蛞蝓容有成佛如來何日復迷而作眾生金重為鑛其失孰大覺曰究竟蛞蝓非是說也以其心體本具故曰理即色相已成方稱究竟一界既爾界界總然當界而論六即自備何必以其成佛不成佛難耶得乃笑曰子去作一究竟蛞蝓也聞者無不高其論吳俗尚崇事玄武比丘亦有披僧伽衣而禮者得見故逆而問曰汝奚為而來曰禮祖師也得叱曰汝身為比丘心實外道其玄武北方一水神耳教中所謂毘沙門天王是也彼以神力為佛外護稱其為祖師乃披七佛衣拜之不亦謬乎遂毀其像易事達磨之像謂其僧曰此爾祖師也凡所過名蘭精舍有事玄武三官盡去之俾學人專心正道其護教概如此也得為人修幹孤高性度剛毅以傳法為己任故禍患不避其身而欣感不形乎色至於登座則慈雲靄然七眾無不渥其沛澤白椎則三千炳著八萬森嚴室中雖不橫施棒喝聞毒鼓而心死者眾矣萬曆丁亥告秋眾曰吾為汝等轉首楞嚴法輪作再後示無復為汝更轉也冬示疾尤諄諄囑以教乘事明年正月望後二日吉祥而逝壽五十有八臘四十有六荼毘塔於徑山

明杭州昭慶寺沙門釋大惠傳(紹覺 愚菴)

釋大惠字靈源姓邵氏仁和人幼挺特姿託志超曠雖處華年淡於榮利時蓮居紹覺從雲棲分席土橋惠以白衣參叩問觀經上品上生章夙通頓發慨然遂稟歸戒詢及法要覺為首舉台相二宗惠即銳心研習多所詮解覺深器之越十載游燕都四威儀中不忘正定偶於慈慧寺聞愚菴貴師八識標指微參疑義貴為歎服就咨決焉請登講座惠以未唱善來為辭強而後可一音演暢皆蓮居唯識宗旨庚申至愍忠寺乞大慧海律師薙髮受具時年已五十七矣尋即登座談宗辯如瓶瀉繼歷牛宮石鐙諸席道風彌煽熹廟聞之賜紫伽黎皇太后復遣中使賚香供奉禪林榮遇惠略不介意海昌有刻唯識疏者與覺義稍嫌駢出惠固服膺覺師教義恐學者浸尋勦說而

失其宗乃奮起欲釐正之遂南還棲黃鶴山發故帙纂成唯識自考錄蓋不敢主名述作也同門新伊古德金臺元著諸上座咸卒讀贊歎謂儼若蓮居講筵未散惠以北緣未了復如石鐙冲元淨凡請歸杭駐錫昭慶諸山瞻禮者日益眾受請復開適園講席居士戒壇院宏教者六年復往吳中龍樹菴慧慶寺大演法化乙亥始還昭慶惠傳覺苑心印台教剛宗掃波旬障於唯識真詮獲旋陀羅於法華元義對機設化身性互融攝偏歸圓權實無礙而襟懷灑脫行履孤高雖歷主名藍仍隨緣旅泊誠非四流小果六欲梵天所能企及有自攷錄及元籤妙樂儀注三種備簡山宗筆要毘檀意旨稜伽日記唯識證義重訂因明論解若干卷將寂之日聲鐘集眾唱經佛名安詳而遊壽七十有三塔於瑪瑙山之陽吳本泰為之銘

明雲南雞足山放光寺沙門釋禪傳

釋禪字本無姓張氏昆明人幼孤失學放鷺不羈稍長乃知自艾從師授讀而天姿明敏了解文義偶游昆明見池中青蓮浮於水面童冠數人皆弗之覩始歎異焉年十九禮通海秀山妙空祝髮稟具於大方得法於所庵後棲雞足研窮經藏二十餘載見道精深默維心得及所庵主席傳衣挈本偕往同註肇論口述筆授議論颯舉一字未要當仁不讓唯大事未明中懷鬱結一日託盃洱海城中忽聞諺語有枕上思量千條路者胸中豁然冰釋明萬歷丁巳沐公增題建悉檀寺延之開山工師求材歎無大木山前龍潭古木參天人莫敢近每有樵採則雷電大作禪至作法持咒述為文詞以告山靈躬操斤斧率諸匠作棟梁長材一時取足神怪俱息林谷幽靜沐公奏請大內藏經時光宗御極企禪道風亦加敬仰特旨頒賜授秩為僧錄左善世兼錫紫衣所著有楞嚴懺法風響集禪林佛事因明論隨解標釋及老子玄覽詩文偈頌若干卷寂於崇禎壬申秋三日前簡約舊知二眾雲集殷殷語故已而示疾焚香拈偈曰蓋天匝地本齊平萬象森羅極有情只在當人高著眼波騰鼎沸見無生語畢而化

明餘杭徑山寺沙門釋圓澄傳

釋圓澄字湛然姓夏氏會稽人也得法於大覺明萬歷間始來徑山耽其幽寂還遂棲止所著有宗門或問慨古錄思益簡註楞嚴臆說法華意語涅槃疏金剛三昧諸書修建大剎五築石塘一百五十里屢著神異遠近宗之

明天台慈雲寺沙門釋真清傳(寶珠 荊山 月溪)

釋真清字象先湘潭羅氏子生而穎異修幹玉成威儀嚴肅不妄言笑日誦經史數千言終身不忘一字父為河南縣尹常對賓朋以大器期之年十五

補邑弟子員偶有異僧過而目之曰此法門之良驥也十九因家難起遂投南嶽伏虎巖依寶珠薙染受具足戒令看無字話自是一心參究寒暑不輟至二十五從珠遊金陵探禹穴因舟觸岸有聲忽有省珠大喜曰幸子大事已明宜自持護珠以年高自普陀棲隱於下天竺時內臣張公永慕珠道行密奏張太后賜紫色僧伽黎衣以徵其德珠忽一日命清曰吾欲觀化無令人聞吾擊磬聲當啟戶數日不聞聲息清密窺牖隙見珠鼻柱垂地越一日聞磬師方排闥而入珠已泯然逝矣珠既化去清乃訪鹽官古蹟駐錫覺皇俄患背疾感神入夢授藥病愈時佛慧寺月溪法師講起信論於吉祥以清為唱臨濟宗旨率眾叩其室清從容語之曰圓宗無象滿教難思我若有宗可講非但法堂前草深一丈即真空亦為緣慮之場汝若有法可聽豈特頭上安頭實際卻為聲名之境三世諸佛歷代祖師不過以楔出楔隨迷遣迷是故會旨者山嶽易移乖宗者錙銖難入况起信之旨大徹宗乘何須更煩切怛勉之眾皆稽首而退清乃南遊天台窮搜勝絕懷無見覩之高風誅茆其塔前三年有荊山法師赴石梁之社偕清至毘陵永慶互以楞嚴參究荊山歎曰某所講經雖精微於佛語聞師所論誠出卷於塵中清欲返初服而禮部唐公荊州留結千日之期已而復歸天台古平田寺臨海王司寇敬所入山訪道訂交而去隨遷華頂天柱峰修大小彌陀懺六年暇則敷演十乘闡明三觀故四方學者攀蘿而至戶外之履常滿一夕夢琳宮綺麗寶樹參差見彌陀三聖方展拜間傍有沙彌授與一牌書曰戒香熏修寤知中品往生之象也蓋清日勤五悔密持梵網心地品及十六觀經為常課是亦精誠之所感耳嘗示眾曰大乘八萬小乘三千實整六和之模範出三界之梯航也今世之高流輕蔑律儀惟恃見解遂令後學不遵佛制輒犯規繩本自無愆誤造深罪饒他才過七步辯若懸河不免識墮鐵城終未解脫汝等勉之萬歷丁亥八月慈聖宣文明太后遣使賜金紋紫方袍以寵之十月王太初居士因母喪乞清就永明禪室闡妙宗鈔百日為期時台郡邢主理親登雲嶠而設供焉戊子歲儉群盜蜂起相戒無敢入室樵李五臺居士陸光祖虛芙蓉之席見招辭不赴忽謂眾曰桃源之慈雲實懶融四世孫為開山唐天寶賜額曰雲居山曰安國五代德韶國師中興為第二道場永明壽禪師鬚髮之所今坐禪石永明庵故址在焉韶公常領徒五百說法此地昔螺溪寂法師請復台教諦觀亦親禮足皆此寺也今為豪民奪之將為掩骨之所竊思朝廷千數百年之香火一旦為俗子葬地誰之罪也遂罄衣鉢贖歸之將謀興建俄雲間陸宗伯平泉聘說法於本一院李方伯冲涵聘講於桐川已而返棹嘉禾龍淵歛抱疾告門人曰夜來神人啟我為魏府子其富貴非吾所志也遂付衣鉢遺囑弟子如法闍維盡發長物於五臺雲棲西興五處飯僧有勉服藥石者清謝曰生死藥能拒乎吾淨土緣熟聖境冥現此人間世固不久矣是歲正月七日乃絕粒惟飲檀香水期於二十九日告終每日雖米漿不入口與眾說無生法誨諭進修而拳拳弗倦至夕乃起別眾曰吾即逝矣無以世俗事累我眾請曰此去往生淨土九品奚居曰中品中生也

眾曰胡不上品生耶曰吾戒香所薰位止中品言畢泊然而逝延五日顏色紅潤如生手足溫蠕怡容可掬弔者無敢下拜茶毗日天色霽明淨無纖翳舉火之際忽有片雲如蓋凝覆其上灑微雨數點煙燄起時異香充塞內自殿閣僧房外自路人船子所聞種種隨力不同火餘骨有三色而鏘鏘有聲紅者如桃白者如玉綠者潤似琅竿猶香氣郁郁清寂於萬曆癸巳正月二十九日世壽五十七臘三十八釋如惺抱骨初建塔慈雲之南岡壬寅遷於寺西螺師山右繡文溪之上武塘了凡居士袁黃撰銘

明餘杭徑山寺沙門釋真可傳(密藏道開 法鑑 性田)

釋真可字達觀晚號紫柏老人姓沈氏其先句曲人後徙居吳江大湖灘畔母夢異人授以桃實枝葉相附色鮮而大寤而有娠生時香氣盈室人多奇之雖在襁褓貌若潛沈五歲不語父母憂之有異僧過門摩頂謂其父曰此兒出家當為人天師言訖不見真遂發語不異成人先是庭中時見巨人跡爾後不復見髻年嬉逐性獨雄猛狀貌魁傑不喜見婦人浴不許人先一日姊先就浴乃大怒自是親戚婦女莫敢近稍長志益壯父母不能拘年十七方仗劍遠遊塞上行至姑蘇閭門徘徊市中天大雨值虎邱僧明覺冒雨來相顧還問壯其貌因蔽之以蓋遂同歸寺具夕飡驩甚聞僧夜誦八十八佛名心悅之侵晨入覺室解腰纏十餘金授覺請剃度因禮覺為師是夜即兀坐達旦覺嘗欲募鐵十萬兩造大鐘真曰吾助之徑往平湖巨室門外趺坐三日不食主人進食不為動問何所為苦行乃爾曰欲得鐵十萬兩造大鐘主人立予之乃受食載鐵回虎邱歸即閉戶讀書年餘不越閩人多敬憚之年二十從講師受戒具嘗至嘉興東塔寺見僧書華嚴經跪誦良久歎曰禪者不當如是邪遂之武塘景德寺掩關三年復回吳門辭覺曰吾將行腳諸方歷參知識遂仗策去一日聞僧誦張拙見道偈至斷除妄想重增病趨向真如亦是邪乃大疑之徧書二語於壁間默思潛索頭面俱腫偶爾舉箸忽焉而悟凌躒諸方嘗言使我在臨濟德山座下一掌便醒安用他為過匡山窮相宗奧義一日行二十里足痛更以石砥腳底至日行二百里乃止其猛進類此遊五臺至峭壁空巖見老宿孤坐因問一念未生時如何宿豎一指又問既生後如何宿展兩手豁然領解跡之失所在至京師參徧融問荅之間機鋒敏捷融為折服因留居焉九年復歸虎邱省覺更至淞江掩關百日尋至嘉興見太宰陸光祖心相契先是有密藏道開者南昌人棄青衿披剃於南海聞真風往歸之真知為法器留侍焉郡城楞嚴寺為長水法師疏經處久廢有力者侵為園亭真慨然傷之欲為恢復計屬開任其事陸太宰弟雲臺為建禪堂五楹既成真刺臂血題其柱云若不究心坐禪徒增業苦如能護法詆佛猶益真修後二十年太守槐亭蔡公捨貲重脩之蓋真願力所持也居常坐歎道法陵遲又念大藏卷帙重多遐方僻陋有終身不聞佛法名字者欲刻方冊易流通普使見聞作金剛種子即有謗者罪當自代遂與

太宰陸公及司成馮公夢禎廷尉曾公同亨問卿瞿公汝稷一商度之以開董其事萬曆己丑創刻於五臺居四年以冰雪苦寒復移於徑山寂照庵工既成開以病隱去初桐城吳公用先為儀曹郎參道入室從容及刻藏事真遽曰君與此法有大因緣真化後吳公出長浙藩用馮司成初議脩復化城為徑山下院藏貯經版人以為真預識云嘗於于園書法華經顏書經處曰墨光亭聞妙峰建鐵塔於蘆芽乃送經置塔中且與計藏事復之都門訪愍山於東海遂走海上至膠西秋水泛漲眾度必不能渡真解衣先涉疾呼眾水已及肩真躍而前既渡顧謂弟子曰死生關頭須直過為得耳眾皆欽服及底都門訪石經山禮隋琬公塔念琬公慮三災劫壞正法漸滅創刻石藏於巖洞感其護法深心淚下如雨琬公塔院地已歸豪右矢復之而未果乃決策西遊蛾嵎由三晉歷關中跨棧道至蜀禮普賢順流下瞿塘過荊襄登太和至匡廬尋歸宗故址唯古松一株寺僧易米五斗匠石將伐之有乞者憐而乞米贖之樹賴以存真聞而興感樹根為樵斧剝斷勢將折真砌石填土咒願復生以寺重興兆後樹日長寺竟復其願力固如此過安慶阮君自華請遊皖公山馬祖庵喜其超絕屬建梵剎江陰居士趙我聞謁請出家遂薙髮於山中命名曰法鎧所謂最後弟子也復北遊至潭柘慈聖太后聞之命近侍陳儒致齋供特賜紫伽黎因隨過雲居禮石經於雷音寺啟石室佛座下得金函貯佛舍利三光燭巖壑因奉舍利入內供三日出帑金重藏於石窟以聖母賜金贖琬公塔院初在潭柘居常禮佛後方食一日客至誤先舉食乃對知事曰今日有犯戒者命爾痛責三十棒輕則倍之知事愕然不知為誰真乃自伏於佛前受杖如數股盡墨乃云眾生無始習氣如油入灰牢不可破苟情折不痛未易調伏也又與愍山議脩大明傳燈錄以禪宗凋敝往濬曹溪以開法脈先至匡山以待時癸巳秋七月也越三年乙未愍山供奉聖母賜大藏經建海印寺成以別緣觸聖怒詔逮下獄鞫無他辭遣戍雷陽毀其寺真在匡山聞報為誦法華經百部冀祐不死往探曹溪回即赴都下救之及聞南放遂待於江滸執手歛歔曰君不生還吾不有生日瀕行且屬曰吾他日即先君死後事屬君遂長別庚子朝廷以三殿工榷礦稅中使者駐湖口南康太守吳寶秀劾奏被逮其夫人哀憤以環死真在匡山聞之曰時事至此其如世道何遂杖策赴都門吳入獄真多方調護授以毘舍浮佛半偈謂誦滿十萬當出獄吳持至八萬聲果蒙上意解得未減每歎法門無人謂愍山不歸則吾出世一大負礦稅不止則吾救世一大負傳燈未贖則我慧命一大負若釋此三負當不復入王舍城矣居無何妖書發震動中外忌者乘間劾真竟以是罹難及輸司寇乃索浴罷屬侍者性田曰吾去矣幸謝江南諸護法因說偈端坐而逝御史曹公學程以建言逮繫聞之即趨至撫之曰師去得好真復開目視之微笑悠然而息時癸卯十二月十七日也世壽六十有一法臘四十有一越十一年乙卯葬於雙徑山後弟子法鎧啟之以丙辰十一月十九日茶毘歸靈骨塔於五峰內文殊臺真生平以荷負大法為懷每見古剎荒廢必思恢復始從楞嚴終至歸宗雲居重興

梵剎一十五所既刻大藏凡古尊宿語錄若寂音尊者所著諸經論文集及蘇長公易解盡搜刻之行於世性耽山水雲行鳥飛一衲無餘氣雄體豐面目嚴冷而立心最慈每示弟子必令自參以發其悟直至疑根盡拔而後已所著有內外集若干卷行世

明清涼山竹林寺沙門釋鎮澄傳(小山 芙巖)

釋鎮澄字空印姓李氏苑平人也父仲武母李氏夢一僧持錫入室覺而遂生幼性聰慧不類凡兒嬉戲喜作膜拜年十五投西山廣應寺禮引公得度為沙彌服勤三年登堂受具一江豐西峰深守庵中諸師弘教於大都澄尋依講肄參窮性相宗旨融貫華嚴靡不該練如是者十餘年復從小山芙巖究西來密意妙契心印一時義學推為上首明萬曆壬午愍山妙峰結隱五臺將集海內耆碩建無遮法會招澄至欣然相許以所居紫霞蘭若居之壁觀三年大有開悟塔院主人大方廣公請脩清涼傳隨留講諸經聲光赫奕四方學者日益集未幾與雲峰創獅子窟建萬佛琉璃塔遂成叢林講演華嚴學者數千指坐寒巖冰雪儼金剛窟中也慈聖太后為國祈福注念臺山聞澄風雅重之特賜大藏經尋復命澄於都城千佛寺講所著楞嚴正觀復於慈因寺講演諸經時妙峰造千佛銅殿於大顯通寺神宗嘉其功行命重脩更賜額曰永明建七處九會道場延諸法師講演華嚴以澄主第一座會罷以古竹林寺文殊現身處也廢久復緝所用多出內帑不日而成更集學子重講華嚴疏復脩南臺為文殊化境自是疲於津梁遂謝諸弟子默然兀坐頃之示微疾猶危坐三日夜中宵寂然而逝萬曆丁巳六月十四日也世壽七十有一僧臘五十有奇塔於竹林之左澄生而安重寡言笑律身甚嚴而處眾以和說法三十餘年三演華嚴雖登高座萬指圍繞意若無人天厨日至而疏糲自如居嘗專注理觀脇不至席淵沈靜默老無惰容受法弟子以千百計出其門者率皆質樸無浮習其於講演提綱挈要時出新意北方法席之盛稽之前輩無出其右者所著有楞嚴正觀金剛正眼般若照真論因明起信攝論永嘉集諸解行於世

- 義解篇第二之六
 - 明廬山法雲寺沙門釋德清傳(西林 福善 通岸 通烟 超逸)
 - 寶慶五臺庵沙門釋觀衡傳(惠仁 空印)
 - 餘杭理安寺沙門釋如嵩傳(靜明 易庵)
 - 定遠白馬山蓮城寺沙門釋清宣傳(空谷)

明廬山法雲寺沙門釋德清傳(西林 福善 通岸 通烟 超逸)

釋德清字澄印晚號憨山姓蔡氏全椒人也父彥高母洪氏夢大士攜童子入門抱之遂娠及誕白胞重裹生性穎異方七歲叔父死陳尸於牀便問死從何處去及見人舉子又問生從何處來若已抱生死去來之疑者九歲能誦普門品才及舞勺辭親入江寧報恩寺依西林染荊內江趙文肅公摩其頂曰兒他日人天師也逾年受法華四月而成誦遂以次講習通貫內外典籍年十九祝髮受戒具於無極聽講華嚴玄譚至十玄門海印森羅常住處悟法界圓融無盡之旨從雲谷結禪於天界寺發憤參究疽發於背禱於伽藍神願誦華嚴十部乞假三月以畢禪期禱已熟寐晨起而病良已三月之中恍在夢中出行市上儼如禪坐嘉靖丙寅寺燬於火有司以本寺官住頭首執事下司法者十五人寺為皇室造建所費皆出內帑事干重典法當論死僧眾懼逃獨清奔走法庭看點鹽菜饘粥荷擔往來多方調護設法解救竟從末減坐罰囚糧先是西林臨化撫清囑眾曰我身後寺事無大小立我像前聽此兒主張庶幾可保無虞由是一寺僧眾皆服其知人然清與雪浪恩誓志興復相與畜德俟時遠出參方大德壇越庶或旦夕遇之故嘗聽講天界廁溷清除了無人蹟每早起見後院脩潔意主東淨者非常人也訪之一黃面病僧日光射激遂與定參訪之約質明則已行矣清以江南習氣柔暖宜人苦寒之地以自摩厲遂飄然北邁天大雪乞食廣陵市中曰一鉢足輕萬鍾矣抵京師妙峰衣褐來訪須髮毳毳如河朔估客望其眸子相視啞然參編融融無語唯張目直視又參笑巖巖問何方來記得來時路否曰一過便休巖曰子卻來處分明遊盤山至千像峰石室見不語僧遂相與樵汲度夏時明萬曆元年癸酉也明年偕妙峰結冬蒲坂閱物不遷論至梵志自幼出家白首而歸鄰人曰昔人猶在耶志曰吾似昔人非昔人也遂豁然省悟頓了旋嵐掩嶽之旨作偈曰死生晝夜水流花謝今日方知鼻孔向下峰一見遽問何所得清曰夜來見河中兩鐵牛相鬪入水去至今絕消息峰曰且喜有住山錢矣遇牛山法光禪師坐參請益法光發音如天鼓清深契之

清遊五臺居北臺之龍門老屋數椽在萬山冰雪中春夏之交流澌衝擊靜中如萬馬馳驟之聲以問妙峰峰舉古人三十年聞水聲不轉意根當證觀音圓通語清然之日尋緣谿橫約危坐其上初則水聲苑然久之忽然忘身世眾籟闐寂水聲不復聒耳一日粥罷經行忽立定光明如大圓鏡山河大地影見其中既覺身心湛然了不可得因說偈曰瞥然一念狂心歇內外根塵俱洞徹翻身觸破大虛空萬象森羅徒起滅遊雁門兵使胡君請賦詩甫構思詩句逼湊喉啞從前記誦見聞一瞬見前渾身是口不能盡吐清默念此法光所謂禪病也唯睡熟可以消之擁衲跣趺一坐五晝夜胡君撼之不動鳴磬數聲乃出定默坐卻觀知出入動息住山行腳皆夢中事其樂無以喻也還山刺血書華嚴經點筆念佛不廢應對口誦手畫歷然分明鄰僧異之眾相詰難已皆讚歎而去嘗夢登彌勒樓閣聞說法曰分別是識無分別是智依識染依智淨染有生死淨無諸佛自此識智之分了然心日清嘗與妙峰登建祈儲道場於五臺光宗既應期而生清遂遠遁東海之牢山慈聖命龍華寺僧瑞菴行求得之遣使再徵不能致賜內帑三千金復固辭使者不敢復命清曰古有矯詔賑饑之事山東歲凶以此廣聖慈於饑民不亦可乎使者持賑籍還報慈聖感歎率闔宮布金造寺賜額曰海印因詣京謝恩為報恩寺請藏遂奉命齎送寺塔有光照曜累夕迎經之日光如浮橋北度經在光中行也清還以報恩本末具奏曰願日減膳羞百金十年工可舉也慈聖許之而黃冠之難作清住山十三年方便說法東海彌離車地咸向三寶而黃冠以侵占道院飛章誣奏有旨逮赴詔獄先是慈聖崇信佛乘敕使四出中人讒構動以煩費為言上弗問也而其語頗聞於外庭所司遂欲中清以法因以株連慈聖左右並按前後施捨帑金以數十萬計拷掠備至清一無所言已乃從容仰對曰公等欲誣服易耳獄成將置聖母何地公所按數十萬在縣官錙銖耳主上純孝度不以錙銖故傷聖母心獄成之後懼無以謝聖母公窮竟此獄將安歸乎主者舌吐不能收乃具獄上所列惟賑饑三千金有內庫籍可考慈聖及上皆大喜然猶坐私造寺院遣戍雷州非上意也達觀真可聞之將走都門為之申救遇於江上清曰君命也其可違乎為作逐客說而別清度五嶺入曹溪抵五羊赭衣見粵帥就編伍於雷州歲大疫死者相枕籍率眾掩薶作廣薦法會大雨平地三尺癘氣立解參政周君鼎石率學子來叩擊舉通乎晝夜之道而知發問清曰此聖人示指人要悟不屬生死一着耳周君擊節歎賞粵之文秀馮昌曆輩聞風來歸清構禪室於壁壘間說法華至寶塔示見娑婆華藏涌見目前開悟者甚眾居粵五年乃克住錫曹溪歸侵田斥僦舍屠門酒肆蔚為寶坊緇白分集攝折互用大鑿之道勃然中興蓋丙午始遇赦癸丑至衡陽遊南嶽禮八十八祖道影甲寅夏至湖東慈聖上賓詔至慟哭披剃返僧服又二年念達觀法門生死之誼赴葬於雙徑為作茶毗佛事箴吳越禪人之病作擔版歌弔蓮池宏於雲棲發揮其密行以示學者自吳門返廬山結庵五乳峰下效遠公六時刻漏專脩淨業示人偈曰但觀一句彌陀佛念念心中嘗不斷若能念念最分

明即與彌陀親見面只想淨土在目前日用頭頭無缺欠佛土全收一句中便是往生異方便只在了了分明時不可更起差別見居四年復往曹溪以天啟三年癸亥十月十一日妙峰登也清示寂曹溪水忽涸百鳥哀鳴夜有光燭天三日入龕面色如生鬚髮皆長鼻端微汗手足如綿世壽七十八僧臘五十九所著有楞伽筆記華嚴綱要楞嚴懸鏡法華擊節楞嚴法華通義起信唯識解及觀老莊影響論道德經解大學中庸直指春秋左氏心法夢遊集各若干卷行於世清身體魁梧氣宇軒朗所至及物利生如日暄雨潤加被而人不知山東再饑清盡發其困親泛舟至遼東運糶以賑旁山之民咸免捐瘠稅使與粵帥有隙嗾使市民以白艚作難群噪圍帥府清緩頰諭稅使解圍不動聲色會城以寧珠船千艘罷採不歸剽掠海上而開礦之役繹騷尤甚採使謁曹溪清以佛法攝受徐為言開採利害由是珠船罷採不入海而礦額令有司歲解制府戴公遺書謝曰吾今乃知佛祖慈悲之廣大也嘗言居北臺時大雪高於屋昏夜可鑑毛髮堅坐待盡身心瑩然遲明塔院僧穴雪以入相攜行雪洞中里許乃出當詔獄拷治時忽入禪定榜箠刺熱若陷木石逾年在雷陽聞侍者趣呼逮繫毒楚卒發幾無完膚此楞伽筆記所由作也前後得度弟子甚眾從之於獄職納橐餽者福善也始終依於粵者善與通烟超逸通岸也歸肉身於五乳留爪髮於曹溪為之塔銘者弟子皖舒吳應賓常熟錢謙益也為之傳與碑記者會稽陸夢龍也為述靈龕還曹溪供奉始末者劉起相也俱詳夢遊集

明寶慶五臺庵沙門釋觀衡傳(惠仁 空印)

釋觀衡字顛愚姓趙氏霸人也家世農業母夢大士攜童子入門亟取抱之遂生衡性端凝不好嬉戲七歲從鄉塾讀能通字義邁凡儕顧喜近桑門不樂章句年十二即蔬食自持常念觀世音號自在流露若出於不自知漸有超塵之思請於父母不之許乃潛逸途遇五臺山圓炤寺惠仁皈依求度止於沙村棲遲五載年十八詣五臺清涼山師子窟參空印令居侍寮親授經典敷繹旨要迎刃而解如是三年無間寒暑萬歷庚子年二十二隨印至北京侍楞嚴講席進菩薩戒參達觀後曆齊魯吳越叩雪浪雲棲二師至天台華頂峰喜其孤迥結菴獨處讀楞嚴經豁然融徹癸卯春至雙徑訪樂愚尋過金陵休夏長干秋遊九華冬上匡山卜靜乾罡嶺苒荏數秋嘗月夜經行忽焉省悟遂下嶺禮育王舍利復渡海丁未再至天台入閩游武夷古寺戊申夏自瑞金入粵游南華冬進曹溪己酉夏見憨山於端州秋登南嶽遂卜居石廩峰誤食草烏而病壬子春紫蘿劉居士迎入茶陵養疾雲陽冬講楞嚴釋論朗徹聽者百餘人風紀肅然甲寅過邵陵車自心居士延居無念閣丙辰年三十八邵陵諸檀那於雙清磯後首闢荊棘荆建禪林顏曰五臺不忘厥初經語佛聲朗朗動聽啟人信心見聞隨喜大生歡悅丁巳紫陽梁五峰施以己宅助建靜室堂閣廚庫次第落成鄭太史為題曰崑山蘭若地

靜人幽闡志撰述是夏著心經小談戊午春集律儀常軌及律學知要夏四月說戒立圓通懺法一卷并戒壇規則壬戌作中庸說白及天主說辯癸亥年四十五作述志詩自道其生平甚悉詩具集中又以此方教體在音與聞捨聞無音捨音無教因述禮觀音儀一卷率眾薰脩得真實行者十五人是則合音聞而為教體即音聞而歸聖性也又著金剛四依解丁卯作禮佛發願儀己巳著首楞嚴經懸談辛未著金剛般若略談門人集所著刻之成帙衡名之曰閉門語壬申著楞嚴四依解甲戌秋泛舟之武陵詣德山禮鑿大師塔憩於乾明寺常德榮王迎衡於梅園說戒冬至湘潭居法寶庵乙亥秋去攸縣歷雲陽過吉州禮青原大師塔丁丑春之吉安城理舟楫詣匡山掃愍山師塔秋下匡山登雲居禮祖塔主人味白請主法不許乃去雲門疾作憩甘露庵熊給諫青嶼與山中僧眾合詞堅請九月朔入雲居方丈以禪堂久廢躬親畚插更建靜室築羅漢堂葺年之間棟宇一新是時衡年已六十餘矣辛巳秋七月赴吉州劉孝則翰撰青原祖庭之請九月至青原說戒結制法席甚隆壬午秋復歸雲居築橋於南溪曰安樂橋下鐫隱語有再遇游鮮主蓋豆函八字人莫之識甲申金陵士夫迎主石城清涼寺法席時燕京已陷明主死之五月建薦思宗烈皇帝及后妃諸臣道場冬十月得竹林於金陵城北欲避煩囂卓錫此間號曰紫竹林更建禪堂及殿寮靜室丙戌弘戒天界寺得新學百七十七人五月三日疾增劇命弟子音乘等攝林中事四日招眾居士謝別六日端坐而逝年六十有八丁亥九月奉靈龕詣雲居建塔衡廣頽豐頤平頂大耳脩髯如戟短髮覆肩歲一剃落目光炯炯學者見之不威而嚴初侍空印宗賢首而禪宗印可於愍山立法不為崖岸不分門戶田夫牧童禮不異節故所至香花爭迎於楞嚴宗旨得最上正覺所作法語偈頌包舉深宏今所見者有語錄三十卷而詩頌書疏附之弟子音乘為編年譜

明餘杭理安寺沙門釋如嵩傳(靜明 易庵)

釋如嵩更名仲光字佛石晚號法雨老人姓戴氏錢塘人父邦賢母陳氏夢僧以伽黎覆體而生嵩襁褓中即惡聞腥羶甫四齡禮靜明為師荏苒十載始從剃染年十八受戒於蓮池明年歷遊講肆習天台教觀及聞雪浪弘揚賢首宗相依最久一日讀圓覺至以思惟心測度如來大圓覺大海如以螢火燒須彌山乃歎曰尋名取義皆思惟心也遂掩關竟千日自尋究竟疑終未破會易菴提倡少林宗就座累月復歎云古人臨機觀面語若只如此疏通與講論何異仍別去依雪浪至甲午謁紫柏於金陵靜海寺問訊殷殷便以聽雪浪講楞嚴對紫柏因指示曰經中說當處發生隨處滅盡幻妄稱相其性真為妙覺明體如何是妙覺明體嵩云生滅盡處是妙覺明體紫柏痛呵之嵩惘然少頃從容進問曰畢竟如何是妙覺明體紫柏乃震聲一喝嵩便禮拜自後始知宗門下事非學解所到來日具威儀歸依因為更名仲光

實授記法也已復笑曰山僧二十年前口不多遜二十年後一字不出矢口歌云一泓清可沁詩脾冷煖年來只自知晚歲厭客避居峰頂築一庵一壙曰吾生可遊死可葬四十餘年受用過分住得一日是一日因顏其庵曰且住瞰江俯谿蘿懸徑絕雖弟子亦罕接見營壙後忽示微疾就寢席者月餘唯以天氣方暑若有所待適秋至謂弟子曰今日晴爽吾欲遠去或不喻意乃從容扶杖起出寢室盥沐趺坐屬付後事誠勿妄求安分守訓復命邀諸檀越欲嚴淨伽藍禁客攜觴時蔡居士在法相山房應聲而至見之喜曰有居士證明吾道存矣餘不及待也弟子戒慧請留遺偈走筆書曰一句彌陀五十年分明掘地討青天而今好箇真消息夜半鐘聲到客船書竟顧視左右擲筆而逝時崇禎九年七月十日也壽六十有八臘五十有四嘗自記云金陵歸即深入十八澗一蓋一笠蒲團夜安沙鐺晝鑲坐松下旁為深坑野篠豐叢即虎穴也猙獰欲怒未免戒心因隨語曰此地當仍復梵剎汝速往他山如不欲讓夜當大吼余即去矣是夜竟不聞聲遲明已他徙即編茆而處棲止八載上雨旁風不禁荒寒時仲期居士覓余踪跡不得由兩峰至澗中竟於淒煙衰草間見索衣頭陀居然余也歎羨者久之隨同伯霖貞甫兩公邀吳寶二方伯來游馮具區先生為訂蓮社藍輿頻至無異虎溪即其所記可想見其為人

明定遠白馬山蓮城寺沙門釋清宣傳(空谷)

釋清宣字法雨姓王氏岳池人也幼而神穎初習詩文便尋義理長依華銀山空谷剃落始研教乘論辯亶亶及專講筵蜚聲林院明崇禎元年復參福庵習禪有省及受衣法更承聖眷敕主燕京彌勒院并賜御製手卷大興講席宗教弘焉已而杖策遊方契茲山水助我禪悅庚午至滇黔國沐公請入覺照寺結制三期法旨遠敷明之季葉永曆窮蹙跋涉滇粵猶加褒諭兼錫紫衣命居定遠白馬山建蓮城寺弘開鑪冶德響諸方一時稱為滇南宗匠寂於癸卯預知期至其辭世偈云來從此處來去從此處去來去不離此徧在一切處塔於龍岡年五十八著有堆雲集行世

- 義解篇第二之七(正傳十二人 附見九人)
 - 清青陽九華山華嚴庵沙門釋智旭傳
 - 杭州上天竺寺沙門釋方誌傳
 - 宜都青林寺沙門釋道隆傳(敏樹)
 - 潤州金山寺沙門釋通問傳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超樂傳(明銓 實雄)
 - 安徽清涼寺沙門釋音可傳
 - 峽州石塔寺沙門釋戒隱傳(德儀)
 - 當陽玉泉寺沙門釋圓惺傳(一真 大咸)
 - 四明天童寺沙門釋本哲傳
 - 四明天童寺沙門釋超靜傳(元盛)
 - 四明天童寺沙門釋通門傳
 - 燕都廣濟寺沙門釋湛祐傳(靈機觀 天樹植)

清青陽九華山華嚴菴釋智旭傳

釋智旭字素華晚稱藕益老人姓鍾氏吳人也父岐仲持大悲咒十年母金氏夢大士抱兒授之遂生子旭七歲聞父訓甘蔬食不逐腥羶年十二就傳讀書日聆師說即以聖學自任作關佛論數十篇復進酒肉弱冠閱蓮池自知錄敘及竹窗隨筆乃取所著論焚之年二十詮論語至天下歸仁不能下筆廢寢食者累日是歲居父喪讀地藏本願經動出世心日誦佛名盡焚所為文鬱鬱三載聽一法師講首楞嚴經至空生大覺忽疑何故有此大覺致為空界張本悶絕無措因於佛前發願捨身後夢禮憨山涕泣言自恨緣慳相見大晚憨山云此是苦果應知苦因語未竟遽請曰弟子志求上乘不願聞四諦法憨山云且喜居士有向上志時憨山在曹谿不能往從乃從其徒雪嶺剃度明天啟二年也尋往雲棲聽古德法師講唯識論疑與首楞嚴宗旨不合問古德云性相二宗不許和會心竊怪之佛法豈有二耶遂入徑山坐禪明年精進益深覺身心世界忽然消殞從此性相二宗一時透徹又明年受比丘菩薩戒徧閱律藏未幾母病刲股和藥卒不能救既葬掩關於吳江疾甚乃一意求生淨土及疾少閒結壇持往生淨土咒七日說偈云稽首無量壽拔業障根本觀世音勢至誨眾菩薩僧我迷本智光妄墮輪迴苦曠劫不暫停無救無歸趣劣得此人身仍遭劫濁亂雖獲預僧倫未入法流水日擊法輪壞欲挽力未能良由無始世不植勝善根今以決定心求生極樂土乘我本願船廣度沈淪眾我若不往生不能滿所願是故於娑婆畢定應

捨離猶如被溺人先求疾到岸乃以方便力悉拯暴流人我以至誠心深心迴向心然臂香三炷結一七淨壇專持往生咒唯除食睡時以此功德力求決生安養我若退初心不向西方者寧即墮泥犁令疾生改悔誓不戀人天及以無為處折伏使不退攝受令增長獨居二年足不踰閩既而度南海觀洛伽山還住龍居慨律學墜廢多緣譎誤以弘律自任既述毗尼集要擬注梵網蕪香告佛以決所宗拈得天台於是究心台部已而居九華華嚴述梵網合注旭律儀雖精每念躬行未逮不敢為範因於佛前枚卜自和尚以次退居菩薩沙彌優婆塞應居何地位卒得菩薩沙彌遂終身不為人授戒其後歷溫陵漳州石城晟谿長水新安而歸於靈峰生平撰述都四十餘種其著者有首楞嚴玄義法華文句會義楞伽義疏唯識心要而彌陀要解提持淨土尤為簡切今有淨信堂集行世可見一斑當時禪者多目淨土為權教遇念佛人必令參究誰字旭獨謂持名一法即是圓頓心宗有卓左車者嘗設四問如何是念佛門中向上一路如何得離四句絕百非如何是念佛人最後極則如何是洵譎腦後一鎚旭答之曰向上一着非禪非淨即禪即淨才言參究已是曲為下根果大丈夫自應諦信是心作佛是心是佛設一念與佛有隔不名念佛三昧若念念與佛無間何勞更問阿誰淨土極則事無念外之佛為念所念無佛外之念能念於佛正下手時便不落四句百非通身畢露但見阿彌陀佛一毛孔光即見十方無量諸佛但生西方極樂一佛國土即生十方諸佛淨土此是向上一路若設現前彌陀別言自性彌陀捨西方淨土別言唯心淨土此是洵譎公案經云三賢十聖住果報唯佛一人居淨土此是腦後一鎚但能深信此門依信起願依願起行則念念流出無量如來徧坐十方微塵國土轉大法輪照耀古今震驚大千皆已性中事豈待外求清順治十年冬有疾命弟子曰闍維後脣骨和粉施諸水中明年正月二十一日示寂後二年將就闍維啟龕髮長覆耳面如生牙齒不壞門人不忍從遺言收骨塔於靈峰年五十七臘三十四其別眾偈曰生平過失深重猶幸頗知內訟渾身瑕玷如芒猶幸不敢覆藏藉此慚愧種子方堪寄想樂邦以茲真言苦語兼欲告誡諸方不必學他口中瀾翻五宗八教且先學他一點樸樸實實心腸嘗集僧十五人結淨社以三年為期日三時誦佛名迴向淨土二時止靜研究諸大乘經其生平行事多實踐云

清杭州上天竺沙門釋方誌傳

釋方誌字觀如姓馬氏海陵人少持素抵洛伽回參上天竺夙緣有待因於竺之兩山居投歷庵為之薶染萬曆庚子竹亭無塵兩山伴雲率合寺請曆菴建禪堂誌勦力勤事嘗持銀十六兩走龍游更募助得材四百餘株又乞榷關免稅舁歸畚築擔負與眾不殊往聽雲棲似空講楞嚴曆菴促歸誌念大事未明辭游南都五臺徧悉禪講乙巳回竺聽明宗講法華於宋園而歷菴以禪堂付僧自然誌亦為之輔明年臺山澄方大師同內監張然送御藏至

昭慶與誌晤深相契合比於函蓋戊申得古心律師大戒即請澄師自華嚴而下所流通法寶於竺徧演福田事咸力主之閱藏齋僧尤為恒課送澄師北上返於楓嶺之陰造中印庵以供地藏甲寅冬碧海昭陽李公請說金剛法華於慧照寺泰州梁塚諸處四期講香相接道化盛矣丁巳澄師登皇壇誌為阿闍黎受神宗賜紫又受光宗賜紫大小衣服十一襲天啟乙丑說皇戒再受慈聖賜紫及金冠密旨弘經崇禎庚辰回竺注法華正旨竟即受徑山請主席三載甲申冬至泰州修西山寺清順治戊子應撫院陳公講華嚴全部逾年而畢己丑冬就杭之慧林說法華正旨庚寅夏還竺復講是經期終疾作歸中印庵以順治七年七月二十六日示寂別眾偈曰七十八年幻夢中奔馳南北走東西還歸天竺靈山國統照元來色即空得法弟子野松松門恒觀野管玄聞隱生清白石田道燈見明朗生十一人茶毘塔於中印山麓

清宜都青林寺沙門釋道隆傳(敏樹)

釋道隆字博達一字克文姓沈氏枝江人也少習儒修介然自守壯值世變親屬流離逃入禪林記迹空門初至武定師子高庵為之披祝具足於曲靖東山寺知止後棲夔萬慈雲敏樹勤求法要將及廿載盡得所傳敏樹名印相得法於破山明嘗付以偈曰堪笑陳蒲鞋記濟為大樹蓋蔭天下人其根深於土土因地道殊則產人亦異斯人叩我前取我授懸記口占而號之敏樹亦如是敏樹主慈雲數十年從化者眾道隆尤錚錚者清初定鼎燕京中原略定己亥之歲始歸三楚受宜都之請重興廢剝力振青林更請龍藏以饒學者四方緇侶聞風而集退居紫陵預知時至安禪順化著有芝秀集六卷芒屨集六卷行世

清潤州金山寺沙門釋通問傳

釋通問字箬庵姓俞氏吳江人世居荊溪父安期博學著書有名於時就佛寺禱而生通幼失怙弱冠偶過僧舍閱首楞嚴經至此身及心外泊虛空山河大地咸是妙明真心中物因疑不釋聞天隱居磬山乃往謁之示以父母未生前語無入處天隱嘗與客論金剛經通適至前因言金剛經洵妙不應住色生心不應住聲香味觸法生心應無所住而生其心天隱忽顧通曰如何是其心通爽然自失遂矢志參決潛去武林投南潤理安寺佛石落髮復往金山參密雲自言久看未生前不得入處密曰但看到未生前便是入處通方作禮密迎頭一踏歸堂一夜不昧遲明復入擬進問又被擊出得此淬厲孤危絕倚乃復上磬山一日聞風聲豁然開朗呈偈曰千玄萬妙隔重重箇裏無私總不容一種沒絃琴上曲寒巖吹落五更風磬山為之印可以偈屬通有他年起我臨濟宗殺活縱橫開天目之句乙亥天隱寂縛茅山後榜

曰死心期畢心喪丙子秋佛石遷化眾心注通羣請繼席一住十年家風嚴冷條令森然同居衲子戒抑狂見唯尚實行真參稍忤鞭斥不稍假借晚歲移金山江水環流真性澄徹隨境遇合無所希求自號旅泊老人嘗應七眾請建水陸大會升座僧問踏翻滄海大地塵飛喝散白雲虛空粉碎即今拔濟水陸幽冥向何處安身立命通迎機應荅辨論不窮謂竭此心力仿依舊制晝夜於中無一佛事不與身俱無一纖塵或離本座一香一花一鐙一供一歌詠一贊唄一經一佛一字一句如帝網光如摩尼色交光相羅互融周攝到此不可說不可說微塵世界中或幽或顯或暗或明一切沈溺苦處眾生何啻如日並照如風普吹達性本空一真獨見如是所說足資證明故通於十界互具之義推闡至切今日畜生明日如來本自無窮宗教一源何分門戶庚寅春復洵禾人之請住西河古漏澤寺申西之變兵燹連年漏澤居郡東偏殿宇俱燼唯鐵佛一軀巍然瓦礫中羣心惻然兩點斑痕遠視之若有淚從佛眼出三學禪德同志圖復先鐵佛殿久之未竟舉以屬通既至畚剔荒穢營構堂廡半載拮据鬱成叢席甲午走南澗自卜地於理安左營建窳堵苟完即還磬山順治十二年寓吳江天應寺卒著有續燈存稿及諸會語錄十二卷磬室後錄一卷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超樂傳(明銓 實雄)

釋超樂字法乳姓陳氏淮安鹽城人父母俱好禪悅嘗構庵延僧居之超兒時嬉游每至庵聞梵唄輒依依不去及失恃乃就庵居從事染剃得法行海繼主金山清康熙己卯聖祖南巡駐蹕斯寺超為住持從容奏對請以磬山天隱修語錄入藏許之明年入都謝恩疊邀賜賚有菩提葉帽藏於山嘗頌百丈野鴨子語因作偈曰一羣野鴨貼天飛何用邀名鼓是非恨殺馬師施毒手錯將鼻痛當知歸殊為了解自三昧移錫曾赴金陵興善之招受鑿江宏宗之請仍領金山超生於壬午其化也亦以壬午得法弟子九人其最著者明銓字量聞棲金陵蔣山香林寺繼主金山清康熙五十二年癸巳賜紫五十九年修金山新志據行海舊書重加潤澤為十六卷其宗統一門詮次明晰詳於舊志其編次多出其徒實雄之手雄字獨峯

清安徽清涼寺沙門釋音可傳

釋音可字元白姓鄧氏武岡人年二十謁顯愚衡遂祝髮學圓通法門參訪博山湛然憨山雪嶠諸老後謁天童密多所咨叩楮柱大法人或忌之翩然辭去過江陰黃子介請開堂因溯江右恢復泐潭祖庭一鼎新之乃掃遠祖塔至浮山四眾請弘法慧山二十餘年重建佛剎宗風烜赫居無何退休舒城華蓋山復應安徽張撫軍之請住錫皖城清涼撰集圓通廣懺六十卷鏤版行世一日示微疾委順而化塔於灑之天柱世壽七十六僧夏五十六著

語錄若干卷音嘗棲黃山蓮花峰庵中有詩曰黃海青蓮開萬仞天都猶下未為高予何直到青雲上樂道三年此結茅其神識超曠非久住黃山者弗能道也

清峽州石塔寺沙門釋戒隱傳(德儀)

釋戒隱字雪庵姓陳氏江陵人也幼歲捨白棲止峽州石塔依年進具從玉泉無跡老人肄習毘尼講演玄旨追隨左右十八載江浙名藍或為宏經之地或為說法之場開示來學津津不倦嘗講楞嚴於揚州眾以楞嚴註釋甚多未能貫串戒隱因集諸家註解合為一集名曰貫珠金陵寶華山三昧寂為之序又德儀字鴻衢姓王氏家世儒素康熙乙丑忽棄諸生遁跡禪林參藥山長老有所悟入年已四十餘矣其子已附於庠德儀晚歲愛綠蘿溪山水幽秀訪古剎舊址結廬以居註金剛觀音明捷解若干卷所著語錄多為世傳誦

清當陽玉泉寺沙門釋圓惺傳(一真 大咸)

釋圓惺字鑑菴一號傳真姓蘇氏西蜀通江人也幼失恃怙依於外宅九歲避寇梁山旁匿沙河菩提庵禮偶然師出家後為破山老人行者清順治三年出蜀入楚謁玉泉恒河律師潛心向學五年進具肄習律儀兼窮賢首二時聽受十有七年嘗參耳根圓通猛然開寤為主僧一真所知真本當陽劉氏子初習賢首教觀洞明經旨嘗講楞嚴經說三聚戒得圓通法門及體性三昧者不可勝數惺參動靜二相了然不生之旨有省作偈呈真有云原來在者裏何須向外求爛嚼人糟粕驢年未了休真為印可付以衣法康熙元年湖南九谿鎮將郝公請演金剛楞嚴二年土司宣慰向公延講法華皆能闡明祕奧妙入幾微教海神龍無以踰之三年遊金陵見華藏大咸問訊之餘一喝云汝興教乘此喝應如何講惺曰下文繇冗附在來日歸寮呈頌曰晴天轟霹靂平地起波濤欲曉如斯旨塚頭滄萊蒿咸覽之嘿然翌日咸復問曰楞嚴經空有俱非汝試說之惺答以偈曰說有不有說空不空行住坐臥常在其中咸厲聲曰此子大有悟入已而入兩浙謁玉琳[日*秀]於天目遂參木陳老人為道玉泉山水之勝曰堆藍出仙掌泉吐漱玉珠語意雋絕四年由四明禮南海拜舍利越石梁五年復至華藏代座說法咸付以衣拂惺辭不受咸曰宗教兼弘說行並用古今昭然何用辭為惺拜而受之六年登九華清涼道出終南至峨嵋十三年乃旋玉泉結茅山腰川湖總督蔡公毓榮重輝殿宇廣增香田十八年提督徐公請開堂弘法一時賢俊如慧目具拙宗乘鶴飛梅谷照玉瑩石皆當機演唱王公士庶亦樂聞法要二十二年剏修珠橋二十八年增築十方堂三十五年邑侯以關陵請為建坊表三十七葺觀泉亭董治唐賢碑碣三十八年復神州刻惠王所書法華經板

其維持象教不憚勤苦四十年三月八日說偈而逝先數日自知期至力疾還玉泉與眾譔別語音琅琅其病若失眾方冀其延年乃如約而去世壽七十四僧臘五十四門人建塔於羅漢山荊州釋天茨為之銘以彰盛德天茨文詞爾雅別有傳具弟十科惺著有語錄二卷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哲傳

釋本哲字山曉姓魏氏長壽人也父國琦家世儒素母楊氏夢梵僧授如意而生哲髫年有出塵之志見梵經佛像輒生敬愛投近邑定慧寺薙染初學法華楞嚴精究義旨年十九下三峽至金陵聽講時以所學質法侶辨晰折衷同席有聲者推服焉適天童密雲至長干往謁不會所問遂棄教參禪得報恩大覺指示疑情輾轉發憤研求頓釋所懷遂渡錢塘參山翁禪師於雲門得契隨司職廣潤深自晦藏結茅東海郁州山中七載杜絕人事愈厲操行復移西泠法華山以嘯堂名其廬山翁再主天童招充首座即付以衣鉢清初入關雅崇釋典隨侍山翁應詔入都陛見之日世祖優眷特賜紫僧伽黎開法隆安寺駕臨丈室屢相問證復舉浮山初參葉縣事[諒-小+日]諭眾僧親近有道嘗幸隆安面承獎訓稱其法範森嚴風徽遠邇允足師表人天聖祖御宇恩賜馳驛還山凡居禁庭賜賚隆渥封奉祕閣移主餘杭佛日振興凋敝三載辭歸復為名流邀居洞庭巴山既而重至佛日繼續三載康熙王子舉住天童湖海奔赴座盈萬指鎚鍛之餘彙宋元諸尊宿語成寶積錄九十三卷蓋繼其師殘編未竟之志修葺殿宇及諸祖塔濬萬工池復古山門增置田畝勤劬十載屢思退休而眾志固留復力任五稔以弟子元靜代席康熙丙寅仲冬示寂塔陶龕於青鳳峰之麓所撰有奏對錄全錄後錄詩有嘯堂初集偶錄疊秀軒集甬上葛同果敘其語錄謂其風味似大覺璉焚龍腦鉢政黃牛去國土筵而其調護心宗申晰大義則虎邱隆明教嵩柔剛並濟也若其應機杼緒游戲墨林勞於求賢精於付授梵海之砥柱末法之鍼石斯可謂知言矣遂寧李侍郎仙根銘其塔焉

清四明天童寺沙門釋超靜傳(元盛)

釋超靜字冷崖姓李氏昌化人也幼有異稟素懷出俗志薙染後首參湛菴常於南廣後依山曉哲於佛日入室司香隨至天童歷年既久始受記苴首眾山中更號柏堂後受姚江東山請開法三年脩復殿宇四眾悅服因哲養病中峰郡守萊嵩李煦延靜代座說法靜律已臨眾惟一嚴厲禪規整肅海內嚮風凡作務之勞以身先之不異首眾時也哲寂後守龕一載因抱疴欲謝去李守又延同參元盛理院事靜得息肩不旬日怡然而化塔於幻智菴後有二會錄行世盛字慰弘姓沈氏桐鄉人也家世儒門天資穎異有志向上既從薙染勤求梵冊而目光近覲閭室中能一日數行著作蒼古時謂杼

山再世因號杼山聞山曉暫闡化佛日乃往參謁暫甚器之命為內記後隨往天童典記室尋開法於佛日三年退歸守塔於中峰及繼席柏堂辛勞八載錙素趨慕無虛日退隱於姚江說偈坐脫歸葬於玲瓏南山之麓有二會錄華梵集語杼山詩文集藏之笥中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門傳

釋通門字牧雲號臥菴姓張氏常熟人也從近邑破山寺洞聞祝髮後參密雲得法於天童出世古南甲申渡江埽塔遂主四明栖真復住嘉禾梅溪遷破山及鎮江鶴林王辰延主天童尋遷秀峰著有七會語錄二十卷及別集偶集懶齋集盛行於世門生平蕭散磊落苴眾甚嚴詩章超潔書法遒勁後退老於湖邨恤廬康熙辛亥十一月望日從容舒展而逝塔於西資庵數年忽洪水湧出塔幾壞因茶毗得舍利無算其色晶瑩投入水盆中以髮引之聯如貫珠時曉山本暫主持天童為建舍利塔於南山

清燕都廣濟寺沙門釋湛祐傳(靈機觀 天樹植)

釋湛祐字天孚三韓人也姓金氏祐甫生而家燬於火生孩七月其父見背六歲得危疾有道人踵其門手拈一丸納之口中疾尋愈道人復來謂其母曰此子空門法器也勿久留年十三入燕山廣濟寺落髮師事恒明未幾母亡祐哀毀甚久之豁然曰吾有以報母矣於是恪守經訓究心義解受具戒后手書華嚴經一部忽有省乃發足南遊徧參江浙諸方與靈機觀問答契合復至京口鶴林寺時天樹植弘法茲山道風甚熾因留居之深入闡奧遂授衣偈而都門檀護有啟請歸廣濟至乃別築一室深自韜晦凡諸名剎祈請開筵者卒不一赴室前種棗樹一株甚賞愛之久之樹枯別種一樹人多不識或曰桐也以其葉相似耳康熙甲戌冬翠華幸臨坐別室中見此樹扶疏因指問之祐曰人謂之桐殊未得也時聖祖雅好吟覽頗矜博洽覩茲奇卉欲資攷覈詳加詢采並及花時色相形狀祐悉舉以對蓋季春始花色紫而藍明年花時車駕復臨即坐花下問侍臣曰識此樹否皆莫能名帝謂斯樹皮柔質細枝不旁引聳翠上出真異種也嘉賞久之祐因得從容言曰此樹有二一在圃中既承睿賞可並移根上苑馥馥仁風帝曰福地禪林賴茲嘉植此誠勿動圃中者小庶可植耳及節屆長至進樹暢春園團團青翠喜動天顏凡所賚賜有御書金剛經八部藥師經十卷羅漢讚十首臨米芾觀音讚一首並特賜帑金寺額他物稱是東宮更錫以文徵明遺杖一枝時天童祖席有啟請繼忽焉示疾一夕而化年五十四僧臘四十一建塔玉泉山下著有廣濟寺志三卷並詩文集若干卷唯志已梓行有曹日瑛為之傳贊具詳志中

- 義解篇第二之八(正傳三人 附見二人)
 - 清燕都萬善寺沙門釋通理傳(心興)
 - 錢塘淨慈寺沙門釋明中傳(實蔭)
 - 句容赤山寺沙門釋本心傳

清燕都萬善寺沙門釋通理傳(心興)

釋通理字達天姓趙氏新河人也父士公母白氏生性端慧不隨俗躡方在齠齡便解超善投妙音鐸師雜染依顯如珍始肄經論年二十禮潭柘山岫雲寺德彰受具研精律部津津以講習為念因負笈都門初聽彌陀於善應微有開省復依衍法聽楞嚴別見會心雍正三年甲辰不二老人於京北香巖寺講法華理參之每於難解釋處輒有新悟老人屢印可焉退而隱居妙峰山下石草精舍有志註釋法華諸經嘗於方便品初雙歎二智之文頓發疑情至視聽罔覺食不知味十餘日不能措一詞凝然深究苦無所得偶讀經至如是相處忽然了解自是徧閱諸經泮若冰釋矣已而復至岫雲參洞翁律主探四分止作之宗研五篇輕重之誼水乳交融乃受南山之傳又入京師參永祥有祖深得秘要遂發明十宗五教之旨不遺餘力為清代中興賢首一人後為萬善教授二載辭居遺光老屋敗椽講誦不輟移主嘉興善應香界拈花諸山講經三十餘會每逢舉拂萬指環繞弘戒十四期造就新學不可勝計理嘗閱清涼大疏識臺山為菩薩住處遂發心往禮止萬緣庵講報恩經為臺山供養一日至北臺霽日光風倏忽白雲鬢鬢山谷中有光芒若一道銀漢但天色向晚罔識歸途因默祝曰菩薩示我遂拜而起俄頃之間已及庵門歡喜而入謂眾曰菩薩送我來因作禮讚偈曰菩薩慈悲不可思議六十餘里頃刻而至乾隆癸酉奉命管理僧錄司印務圓明園佛樓行走并賜紫衣庚子秋高宗七旬萬壽西藏班禪厄爾德尼來京祝嘏理與其會誦讚之餘暢論佛法大義奧旨莫不推勘深致班禪稱善因贈理以香帛曼答諸物未幾復荷聖恩勅封為闡教禪師敕曰通理三乘說妙布花雨於諸天四諦觀空現鬢雲於初地懸法門之寶炬必通定慧之關結願海之真香已入聲聞之座宜申渥典用獎清修爾通理不昧前因克參正覺皇畿毓秀紹尊宿之薪傳禁籟承恩受都綱之印錄侍佛樓而合掌曾依丹地之班直經館以齋心旋荷紫衣之賜白溯真如於臨濟月鏡澄源近皈勝果於須彌風旛契旨深嘉梵行特予褒封茲以爾為闡教禪師錫之勅印爾其勉闡宗風勤宣法教駐祥輪於臘度耆齡符老壽之名示慈筏於春浮淨業注維摩之字永曼國慶益懋僧祇弟子心興字隆法繼席香界操履端嚴宅心

妙要著有山居撰要五經會要八識規矩摘要都三卷名曰翠微三要通理於雍正癸丑之春奉旨入圓明園校對宗鏡錄及教乘諸書精心研錘時契聖覽及憲廟賓天始還舊所更尋前緒窮年匆匆老不遑寧所著有楞嚴指掌疏十一卷法華指掌疏十卷心經合釋一卷金剛新眼二卷孟蘭摘要一卷圓覺新義疏四卷普門品別行疏一卷五教儀增註五卷行世乾隆壬寅六月十三日謂弟子曰予八十餘年未離佛法且道即今是有佛法是無佛法眾未之應理視之微笑而逝春秋八十有二

清錢塘淨慈寺沙門釋明中傳(實蔭)

釋明中字大恒一字芟虛原名演中後得法於無闕永覺始從玉琳支派易演為明姓施氏桐鄉人也七歲薙染於秀水楞嚴寺其師早世依太師含明讀內典外籍過日不忘穎悟非凡兒所及清雍正十二年受皇戒於京師法源寺世宗耆年潛心釋氏宏度千僧留選二十二人侍講佛樓明中與焉復於二十二人選得四人明中又與焉命住吉祥苑池南參究禪學萬幾之暇日必一至討論課程訓諭翔切於明中尤篤恩賜手勅數千言發揮本地光明及杖鉢如意法帖諸物未三歲龍馭上賓高宗御極始各還本籍乾隆四年受法於永覺六年主席西湖聖因寺寺為聖祖行宮百寮肅謁繡嶺屏圍花隄帶繞規模崇煥冠於諸刹眾仰清望檀施雲集禪侶日臻常數百人住持十載香積無缺山陰道俗介邑侯舒瞻請駐錫乾峰寺智杖暫臨旋歸湖上移主上天竺此間香市盛於補陀僧伽所欣羨然明中為大吏所引重清操彌勵纖塵不染十六年春三月翠華南幸駐蹕寺中御製七言命明中賡和日未移晷恭進一律并南巡頌十八首冊皆留覽及法駕重臨從容奏稱曰三竺有上中下者本土人習稱懇肇錫嘉名以光青簡竟邀俞允賜額法喜寺宸睭俯可天章下賁是歲冬皇太后萬壽賜如意一柄二十二年移住淨慈會高宗重游江南賜紫二十七年聖駕三巡復賜紫御書片石孤雲聯語三十年駕幸淨慈三次賜紫御製詩一首刊石寺中雲漢昭回照耀山谷前所未覩以乾隆三十三年二月一日示寂年五十八臘五十一其辭世偈有披蓑赤腳千峰去不問蘆塘舊釣舟之語得法弟子六人為建塔慧日峰下杭世駿為之銘具山志所著語錄上下卷詩集三卷明中天性冲夷恥與物迕餅拂蕭然犍椎不設而戒律精嚴道風秀出禪餘為詩性海游泳了自忘機間涉繪事妙參三昧得其片楮咸知寶貴晉有林遠唐惟禪月反覆比擬庶幾彷彿云爾弟子實蔭字佛裔漢陽鍾氏子五歲出家十六受具參方二十年薨不就席初居京依無闕問諸宗法要及遇明中復隨鍼砭乾隆壬午主乾峰遂再主淨慈重住聖因以辛亥九月二十日寂於淨慈丈室壽七十三臘五十六塔於南屏之麓所著語錄四卷

清句容赤山沙門釋本心傳

釋本心字法忍姓郭氏蔚人也童年好道不昧夙因年及弱冠禮本州朝陽寺明月得度月尚苦行躬親田牧不授一經心力作逾人少倦輒遭棒喝安然受之不以為苦歷六寒暑一日自念別母出家乃為種田求生計耶因於殘編中得般若經一卷讀之皆心中所欲言者及聞僧誦法華經至學無學品嗒然有省遂潛入都從西域寺圓通受具貧不能購經乃以直綴一襲易得法華全部披讀一周洞見諸佛出世本懷深入法華三昧適金山常靜自五臺回與心一見論宗乘如舊識同治十一年踐常靜之約南遊至金山見觀心慧觀以向上鍵鏈接之遂蒙印可如永嘉之遇曹谿也心深自韜晦結茅終南常於老虎穴習定坐數日如彈指後為金山高旻兩寺首座學者咨厥心要所至雲從惟賦性嚴正稍見非法即拂衣去光緒戊子過句容赤山喜其地幽闐誅茅覆葺為休息處四方衲子聞風來者至屋不能容乃伐柯結宇壘石為墻領眾立規儼如百丈一日不作一日不食嘗示眾云諸方浩浩說禪說教赤山祇鬪石鋤土設有問西來意便與鋤一柄覓生活心古道自處不徇世情呵斥諸方罕可其意蓋其時三關四句六步禪之說熾行心常曰古人三關四句乃大死大活後勘驗學者一時方便豈可認為實法有傳授耶今人業識茫茫無本可據不教看死諳頭何能敵生死得生悟又言末法之世淺嘗末道專用邪智穿鑿古人言句盲箋混釋自炫多聞無知之徒奉為秘典此楞嚴所謂斷送佛祖慧命者莫此為甚其痛心宗教如此心雖秉拈花之旨而深契如來一代時教每禪餘為眾講解大乘要義通徹骨髓楚北歸元寺請講楞嚴法華者再平日機辯縱橫如疾雷迅電不可摸捉及誘掖後進恒諄諄不倦務使人人因指見月得意妄詮而後已尤善楞伽唯識諸部語學者曰修行不能掀翻八識窠臼縱有妙語皆識神耳乙巳秋方講觀楞伽筆記忽焉示疾乃辭眾曰吾化緣已畢將長行矣有弟子問曰此去依止何地曰一切無依唯依般若語畢潛然次日黎明右脇吉祥而逝時光緒三十一年乙巳十月十六日也世壽六十有一僧臘四十有二年四月門人奉全身塔於茲山起龕之日千眾圍繞聲音動地香花塞途釋敬安寄禪於光緒紀元相與結夏金山明年丙子又於西湖龍井汲泉煮茗坐石上論宗門事歎為極生平法喜因追懷良契哀述善逝為之銘焉

- 習禪篇第三之一(正傳二十一人 附見二十人)
 - 宋常德文殊寺沙門釋心道傳
 - 西蜀昭覺寺沙門釋純白傳
 - 慶元天童寺沙門釋普交傳
 - 潭州法輪寺沙門釋應端傳
 - 溫州龍翔寺沙門還士珪傳(宗範)
 - 衢州烏巨山沙門釋道行傳
 - 餘杭靈隱寺沙門釋宗印傳(希夷)
 - 潭州大瀉山沙門釋法泰傳
 - 當陽玉泉寺沙門釋務本傳(文宣 可忠 慧遠 宗道 懷遠 知忍 知藏 懷靜 齊月 慧本)
 - 衡山南嶽石頭庵沙門釋懷志傳
 - 眉州中巖寺沙門釋祖覺傳(慧日能 南堂靜)
 - 台州釣魚臺沙門釋白回傳
 - 江寧太平興國寺沙門釋贊元傳(法泉)
 - 虎丘靈巖寺沙門釋清順傳(子英 智通 慧光)
 - 江寧太平興國寺沙門釋慧勲傳(懷深)
 - 潼川護聖寺沙門釋居靜傳
 - 潭州大瀉山沙門釋清旦傳
 - 天台國清寺沙門釋行機傳
 - 澧州靈巖寺沙門釋仰安傳(表自)
 - 江州圓通寺沙門釋道旻傳
 - 隆興雲巖寺沙門釋天遊傳

宋常德文殊寺沙門釋心道傳

釋心道眉州徐氏子也年三十得度詣成都習唯識了悟萬有證澈真如以為佛法盡在是矣同舍僧詰之曰三界惟心萬法唯識今目前萬象紛紜心識安在道茫然遂出游江淮間既抵舒州太平聞佛鑑夜參舉趙州柏樹子話至覺鐵嘴云先師無此語莫謗先師好因大疑提撕既久一夕豁然即趨丈室擬敘所悟鑑見便閉門道曰何事瞞人鑑曰十方無壁落何不入門來道拳破紙窗佛鑑即開門搗住云道道道即以兩手捧鑑頭作口啐而出呈偈曰趙州有箇柏樹話禪客相傳徧天下多是摘葉與尋枝不能直向根源會覺公說道無此語正是惡言當而罵禪人若具通方眼好向此中辨真假

鑑然之襄守請開法天寧擢大別文殊宋宣和改元詔改僧為德士因上堂曰祖意西來事今朝特地新昔為比丘相今作老君形鶴氅披銀褐頭包蕉葉巾林泉無事客兩度受君恩所以道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且道即今是甚麼時節毗盧遮那頂戴寶冠為顯真中有俗文殊老叟身披鶴氅且要俯順時宜一人既爾眾人亦然大家成立叢林喜得群仙聚會共酌迷仙耐同唱步虛詞或看靈寶度人經或說長生不死藥琴彈月下指端發太古之音碁布軒前妙著出神機之外進一步便到大羅天上退一步卻入九幽城中祇如不進不退一句又作麼生道直饒羽化三清路終是輪迴一幻身二年九月詔下復僧上堂曰不掛田衣著羽衣老君形相頗相宜一年半內間思想大抵興衰各有時我佛如來預識法之有難教中明載無不委知較量年代正在於茲魔得其便惑亂正宗僧改俗形佛更名字妄生邪解刪削經文饒鉢停音鉢盂添足多般矯詐欺罔聖君賴我聖明不忘付囑不廢其教特賜宸章仍許僧尼重新披髮實謂寒灰再燄枯木重榮迷仙耐變為甘露瓊漿步虛詞翻作還鄉曲子放下銀木簡拈起尼師壇昨朝稽首擎拳今日和南不審祇改舊時相不改舊時人敢問大眾舊時人是一是二良久曰秋風也解嫌狼藉吹盡當年道教灰建炎三年春示眾舉臨濟入滅囑三聖因緣乃曰正法眼藏瞎驢滅臨濟何曾有此說今古時人皆妄傳不信但看汝三月至閏三月有賊叛眾請避之道曰學道所以了生死何避之有賊至道曰速殺我以快汝心賊即舉槩殘之白乳上出賊駭引席覆之而去

宋西蜀昭覺寺沙門釋純白傳

釋純白姓支氏梓人也父謙聞法于松山道者素衣梵行以生死為幻純幼承父訓唯唯無違一日躍谿而過忽焉有省遂落髮受具遍歷成都講肆通性相宗去而南遊參黃檗惟勝親炙歲餘未嘗一顧純事之益勤偶晨參入室勝舉目視之若有所詢純即詰之曰老人兩眸炯炯浮光不定作麼生勝忽失笑為之印證元豐末勝歸蜀純負巾鉢以從會成都府帥奏以昭覺為十方勝乃舉純開山純示眾曰不超性海是理事縛不透聲輪是語言縛於是淨侶靡然嚮風講席一空

宋慶元天童寺沙門釋普交傳

釋普交萬齡畢氏子也幼穎異卓倫不汙塵滓惡喧嗜潔儼似衲僧未冠得度五夏無虧首謁南明聽習台教偶為檀信修事懺摩有人問曰師所懺罪為自懺耶為他懺耶若言自懺罪性何來若為他懺他既非汝烏能為懺交不能對大慚易服逕投泐潭足纔踵門潭即呵斥交擬申問潭即拽杖逐之一日忽呼交至丈室曰我有古人公案要與你商量交擬進語潭便喝交豁然頓悟顧乃大笑潭下繩牀執其手曰汝會佛法耶交便喝潭亦大笑於是

證人唱道日高聲施自遠後歸桑梓居天童掩關卻掃者八年寺偶虛席郡僚命開法恐其遯去遣吏候於道故不得辭上堂曰拙哉黃面老佛法付王臣林下無情客官差逼殺人莫有知心底為我免得者麼若無不免將錯就錯去凡見僧來必叱曰汝榔栗子未擔時我已為汝說了也且道說箇甚麼招手洗鉢拈扇張弓趙州柏樹子靈源見桃花且置不論山僧無恁麼間唇吻與你打葛藤何不休去歇去忽拈拄杖遂散宣和六年三月二十日沐浴陞座說偈曰寶杖敲空觸處春箇中消息特彌綸昨宵風動寒巖冷驚起泥牛耕白雲說畢脫袂而寂壽七十七臘五十八塔于本山

宋潭州法輪寺沙門釋應端傳

釋應端南昌徐氏子也生而眉宇豁如形儀整肅幼厭塵穢少入空門依郡之化度寺善月度為大僧謁真淨文機不諧時靈源分座雲居扣之源稍加砥礪端自負已解妙入經論乃援引馬祖百丈機語及華嚴經旨相為酬荅源見之笑曰舉馬祖百丈固誤矣而華嚴宗旨與箇事沒交涉端憤然欲去因辭揭簾忽大悟汗流浹背源見之喜曰子方識好惡矣馬祖百丈文殊普賢幾為汝累由是譽問四馳道欽七眾政和末太師張司成虛百丈堅命開堂舉僧問大隋劫大洞然時這箇壞也不壞話遂曰六合傾翻劈面來暫披蕪縷混塵埃因風吹火渾間事引得遊人不肯回壞不壞隨不隨徒將聞見強鍼錐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宋溫州龍翔寺沙門釋士珪傳(宗範)

釋士珪字竹菴成都史氏子也初依大慈宗雅出家講授稜嚴潛心義奧後南遊謁諸尊宿始參龍門佛眼遠以平日所得白之遠曰汝解心已極但欠著力開眼耳一日侍立次問曰絕對待時如何遠曰如汝僧堂中白椎相似珪罔措至晚遠抵堂司珪復理前問遠曰問言語珪于言下大悟宣和二年住和州天寧靖康改元江州漕使方郎中請住廬山東林後以兵亂避地閩中乾元十二年詔開山雁宕能仁時真歇了公居江心恐珪緣未熟迎至方丈大展九拜以誘溫人由是人皆翕然歸敬未幾其徒失火寺為煨燼珪就樹縛屋升座示眾曰愛閒不打鼓山鼓投老來看雁蕩山傑閣危樓渾不見溪邊茅屋兩三間已而聽法檀施併力營建復成寶坊十五年移住龍翔上堂明明無悟有法即迷諸人向這裏立不得住不得若立則危若住則瞎直須意不停玄句不停意用不停機此三者既明一切處不須管帶自然現前不須照顧自然明白雖然如是更須知有向上事豎拂子曰久雨不晴咄明年丙寅七月十九日召宗範長老付後事次日沐浴聲鐘集眾就座泊然而逝茶毗凡送者均得舍利塔于鼓山

宋衢州烏巨山沙門釋道行傳

釋道行字雪堂處州葉氏子也初依普照英得度出遊參佛眼一日聞眼舉玄沙築著腳指話遂大悟住郡南明上堂會得便會玉本無瑕若言不會確嘴生花試問九年面壁何如大會拈花南明恁麼商確也是順風撒沙次遷烏巨示眾舉璣和尚問僧禪以何為義眾雖下語末契厥心眾僧請益璣代云以謗為義道行曰三世諸佛是謗西天二十八祖是謗唐土六祖是謗天下老和尚是謗諸人是謗山僧是謗于中還有不謗者無談玄話妙河沙數爭似雙峰謗得親忽示微疾門弟子教授汪喬年至省遂以後事委之說偈曰識則識自本心見則見自本性識得本心本性正是宗門大病又註曰爛泥中有刺莫道不疑好黎明沐浴更衣跣趺而逝闍維獲五色舍利煙所至處舍利纍然齒舌不壞塔于寺西

宋餘杭靈隱寺沙門釋宗印傳(希夷)

釋宗印字鐵牛姓陳氏鹽官人得法於育王佛照光禪師寧宗時主靈隱上堂舉南泉示眾云王老師自小養一頭水牯牛擬向溪東牧不免食他國王水草向溪西牧亦不免食他國王水草如今不如隨分納些些總不見得頌曰不如隨分納些些喚作平常事已差綠草溪邊頭角露一簑煙雨屬誰家石鼓希夷禪師者亦臨濟宗嗣無用全為靈隱二十八代塔永安別苑今存和梁山遠禪師牧牛十頌句法與梁相伯仲而理趣超卓殊有過之一尋牛只管區區向別尋不知腳底已泥深幾回芳草斜混陽裏一曲新豐空自吟二見跡枯木崖前岐路多草窠裏混覺非麼腳跟若也隨他去未免當頭錯過他三見牛識得形容辨得聲戴嵩從此妙丹青徹頭徹尾渾相似仔細看來未十成四得牛牢把繩頭草放渠幾多毛病未曾除徐徐驀鼻牽將去且要回頭識舊居五放牛甘分山林寄此身有時亦踏馬蹏塵不曾犯着人苗稼來往空勞背上人六騎牛還家指點前坡即是家旋吹銅角出煙霞忽然變作還家曲未必知音冑伯牙七忘牛存人闌內無牛趁出山煙蓑雨笠亦空間行歌行樂無拘繫贏得一身天地間八人牛俱忘慚愧眾生界已空個中消息若為通後無來者前無去未審憑誰繼此宗九返本還原靈機不墮有無功見色聞聲不用聾昨夜金烏蜚入海曉來依舊一輪紅十入鄜垂手者漢親從異類來分明馬頰與驢腮一揮鐵棒如風疾萬戶千門盡豁開

宋潭州大瀉山沙門釋法泰傳

釋法泰字佛性漢川李氏子僧問理隨事變該萬有而一片虛凝事逐理融等千差而咸透實際如何是理法界泰曰山河大地曰如何是事法界泰曰萬象森羅曰如何是理事無礙法界泰曰東西南北曰如何是事事無礙法

界泰曰上下四維上堂渺渺漠漠十方該括坦坦蕩蕩絕形絕相日欲視而睛枯口欲談而詞喪文殊普賢全無伎倆臨濟德山不妨提倡龜吞陝府鐵牛蛇咬嘉州大象嚇得東海鯉魚直至如今肚脹上堂憶昔遊方日獲得二種物一是金剛鎚一是千聖骨持行宇宙中氣岸高突兀如是三十年用之為準則而今年老矣一物知何物擲下金剛鎚擊碎千聖骨拋向四衢道不能更惜得任意過浮生指南將作北呼龜以為鼈喚豆以為粟從他明眼人笑我無繩墨

宋當陽玉泉寺沙門釋務本傳(文宣 可忠 慧遠 宗道 懷

遠 知忍 知藏 懷靜 齊月 慧本)

釋務本未知何許人亦不詳其氏族出家時年二十四後得法於瑯琊覺禪師其弟子十有一人本居第二開悟甚早福慧兼修有無並鬯宋仁宗時詔主當陽玉泉寺慶曆八年荆門軍守謝公翮然來遊謂如此名勝昔賢留題當復不尠本因錄唐人自曲江至齊已得詩八篇謝公鑄之石立於蒙惠之側嘉祐六年命契寧等募造鐵塔高七丈為級十有三重百二十萬兩逾年而成其發願詞曰願以此功德普及於一切我等與眾生皆共成佛道願力深弘故壽諸金石永垂不朽本每說法學侶萬指有文宣可忠知忍知藏慧遠宗道懷遠懷靜諸子輔翊法化首出當機皆一時禪望有聲錚錚故玉泉宗風冠於三楚邑令左侯為請於朝錫號悟空并賜紫衣以元豐三年三月八日示寂壽八十三臘五十九本主玉泉四十年寂之日集眾為說法要曰平日橫說豎說東喝西喝有時揚眉瞬目有時鼓掌擊拳祇為諸人不察微露鋒芒若逐色尋聲白雲萬里又舉荊州白馬寺曇照禪師常云快活快活及臨滅時便叫苦苦且云閻羅王來取我也院主問曰和尚當日被節使拋向水中神色不動如今何得若是照舉枕子曰汝道當日是如今是院主無對照便入滅今我臨滅度時汝等看是快活是苦苦眾無語遂泊然坐化塔於羅漢山麓文宣宗說兼通教禪雙徹陸沈眾中人莫之識嘉祐間至玉泉務本崇以殊禮使之領眾導揚法旨學者宗之可忠者安州大安山住持也禪思瑩澈教眼尤精聞玉泉道聲鬯懋欲一闚真際振錫來游務本以最樂堂處之遂終老焉務本既寂付法於齊月宋崇寧時改玉泉為護國寺以加封關壯繆為崇寧護國真君乃改寺額故續傳鐙或稱護國齊月上堂僧問壁立千仞水泄不通還許學人請益也無齊月曰正令已行乃曰窮外無方究非內裏應用萬般無可比擬分明向你諸人道佛性精魂總不是齊月既老傳席於其徒慧本耀續傳薪禪風攸馥僧問有物先天地無心本寂寥未審是何物慧本曰一鎚墨曰恁麼則耀古騰今去也慧本曰作甚麼生是耀古騰今的僧喝本亦喝上堂好箇時節誰可承當苟或無人不加惜取良久曰彈雀夜明珠蓋是時荊門玉泉導師相繼演化諸方正未艾云

宋衡嶽石頭庵沙門釋懷志傳

釋懷志姓吳氏婺州人嘗欲會通諸宗異義有禪者問曰杜順賢首宗祖師也而談法身則曰懷州馬吃禾益州馬腹脹此偈合遶天台何義懷志不能對即遊方至洞山謁淨真問古人一喝不作一喝用意旨何如淨叱之趨出淨笑呼曰浙子齋後遊山好志忽領悟久之辭去菴居於南嶽石頭二十年不與世接有偈曰萬機休罷附癡憨蹤蹟時容野鹿參不脫麻衣拳作枕幾生夢在綠蘿菴宋崇寧元年往見龍安照禪師居於龍安最樂堂明年六月晦問侍者日早暮曰已夕笑曰我睡已覺遂寂

宋眉州中巖寺沙門釋祖覺傳(慧日能 南堂靜)

釋祖覺嘉州楊氏子自幼聰慧書史過目成誦乃著書排斥釋氏忽惡境現前大怖悔過出家依慧日能未幾疽生膝上五年醫治莫愈因書華嚴合論畢夕感異夢旦即捨杖趨履如故一日誦至現相品曰佛身無有生而能示出生法性如虛空諸佛於中住無住亦無去處處皆見佛遂悟華嚴宗旨至是始登僧籍精究賢首宗旨盡得其奧府帥請講於千部堂而詞辯宏肆眾所欽服適南堂靜禪師過其門謂曰觀公講說獨步西南惜未解離文字相耳儻能問道方外即今之周金剛也覺欣然罷講南遊禪社遂依圓悟於鍾阜一日入室悟舉羅山道有言時踞虎頭收虎尾弟一句下明宗旨無言時覲露機鋒如同電拂作麼生會覺罔對於是夙夜參究忽有所省作偈呈曰家住孤峰頂長年半掩門自嗟身已老活計付兒孫悟未許可次日入室悟問昨日公案作麼生會覺擬對悟喝曰佛法不是這箇道理覺復留住五年愈更迷悶後於廬山棲賢閱浮山遠荆執論云若道悟有親疏豈有旃檀林中卻生臭草始豁然大悟遂作偈寄圓悟曰出林依舊入蓬蒿天網恢恢不可逃誰信業緣無避處遶來不怕語聲高悟大喜持示眾曰覺華嚴徹矣自是諸方皆稱覺華嚴云上堂僧問最初威音王末後樓至佛未審參見甚麼人覺曰家住大梁城更問長安路僧問如何是一喝如金剛王寶劍覺曰血濺梵天曰如何是一喝如踞地師子覺曰驚殺野狐狸曰如何是一喝如探竿影草覺曰驗得你骨出曰如何是一喝不作一喝用覺曰直須識取把鉞人莫道鴛鴦好毛羽覺嘗修北宋僧史并華嚴集解金剛經註水陸齋儀若干卷

宋台州釣魚臺沙門釋自回傳

釋自回號石頭臨海人世業石工人因名之眼如盲龜不識一字善根內啟志慕空宗求人口授法華頗能成誦遂棄家投大隨供掃灑寺中令取崖石用砌階除回手不釋鎚鑿誦經不輟口隨見而語曰今日磴磴明日磴磴生

死到來作甚折合回愕然設禮願聞究竟法隨令罷誦經看趙州勘婆子因緣於是念念參究久之一日鑿石石堅乃盡力一鎚火光迸出忽然徹悟即走方丈禮拜呈偈曰用盡工夫渾無巴鼻火光迸散元在這裏隨大喜曰子徹也復述勘破偈曰三軍不動旗閃爍老婆正是魔王腳趙州無柄鐵掃帚掃蕩煙塵空索索隨可之遂為薙染授以僧服出世住釣魚臺上堂曰參禪學道大似井底叫渴殊不知塞耳塞眼回避不及且如十二時中行住坐臥動轉施為是甚麼人使作你眼見耳聞何處不是路頭若識得路頭便是大解脫處方知老漢與你證明山河大地與你證明所以道十方薄伽梵一路涅槃門諸仁者大凡有一物當途要見一物當途之根源一物無處要見一物無處之根源見得根源源無所源所源既非何處不圓諸禪德你看老僧有甚勝你處你有甚不如老漢處會麼太湖三萬六千頃月在波心說向誰

宋江寧蔣山大平興國寺沙門釋贊元傳(法泉)

釋贊元字普宗一字覺海姓傅氏義烏人也為雙林傅大士之裔三歲出家七歲為大僧受具足年十五遊遠方造石霜見慈明圓乃曰好好著槽廠去贊元作驢鳴明曰真法器也請為侍者二十年後闡法蘇臺天筆龍華白雲兄事蔣山心公心沒江寧府帥請居寶公道場提振宗要諸方推服丞相王安石重其德望奏賜章服安石致仕結廬定林山中與之蕭散林下清談終日元祐元年九月示寂安石痛哭為造塔焉又法泉字佛慧隨州時氏子居太平興國寺經營辛苦多所修建以成叢林與蘇東坡友善晚奉詔住大相國智海禪寺問眾曰赴智海留蔣山去就孰是眾未及對泉書偈曰非心非佛徒擬議得皮得髓漫商量臨行珍重諸禪侶門外千山正夕陽

宋虎邱雲巖寺沙門釋清順傳(子英 智通 慧光)

釋清順宋至道中知州事魏庠奏改虎邱律寺為雲巖禪寺迎清順主之虎邱自竺道壹道生以來主法席者多崇義解至清始啟禪派故後學奉清為鼻祖云又子英字覺印姓懷氏錢塘人在母孕時惡聞羶腥生質既異不伍凡童年十五從長老希言出家又五年受具游方一夕夢白衣大士注琉璃瓶水與飲若甘露灌頂自是豁然遂得法於圓通秀公坐大法會者九雲巖其最後也英頎秀深靜鬚髮長數寸目光炯然如古圖中老僧在巖壁者與人言不離忠孝慈順開悟來學隨其根性利鈍淺深示以津梁故人人遠信而名亦高說法三十餘年得度二百五十餘人政和七年七月十四日卒葬於虎邱東庵開封府司士曹事何安中為撰塔銘其弟子智通號法海繼主虎邱法席既狀其師行事請銘於何安中安中稱其扶教弘道名並其師東坡有遺虎邱通長老書知其聲望矣又慧光有道行賜號傳法慧滿大師

宋江寧大平興國寺沙門釋慧懃傳(懷深)

釋慧懃字佛鑑姓汪氏舒州人嗣五祖得度每以唯此一事實餘二則非真味之有省徧參名宿往來五祖之門有年政和五年居蔣山賜徽號紫衣政和七年十月二十八日沐浴更衣端坐手寫數書別故交停筆而化又懷深字慈受姓夏氏壽春人生之夕祥光滿舍文殊堅遙見之疑火也詰旦知鄰里生兒心異之往訪焉且告之故曰如此瑞徵宜善護之自後抱兒見堅輒笑因許出家及長遍遊方外請益鑑公乃大豁呈偈曰祇是舊時行履處等閒舉著便滄訛夜來一陣狂風起吹落桃花知幾多鑑撫掌曰者裏豈不是活祖師意後終於蔣山

宋潼川護聖寺沙門釋居靜傳

釋居靜字愚丘成都楊氏子也年十四依白馬寺安慧出家聞南堂禪師道望往謁堂舉香嚴枯木裏龍吟話詰之靜於言下大悟一日堂問曰莫守寒巖異草青坐卻白雲宗不妙汝作麼生靜曰直須揮劍若不揮劍漁父棲巢堂矍然曰這小廝兒靜珍重便行後出世住東巖嘗謂眾曰參學至要不出先南堂道最初句及末後句透得過者一生事畢儻或未然更與你分作一門各各印證自心還得穩當也未弟一須信有教外別傳弟二知有教外別傳弟三須會無情說法與有情說法無二弟四須見性如觀掌中之物了了分明一一田地隱密弟五須具擇法眼弟六須要行鳥道玄路弟七須文武兼濟弟八須摧邪顯正弟九須大機大用弟十須向異類中行凡欲紹隆法種須盡此綱要方坐得這曲条牀子受天下人禮拜敢與佛祖為師若不到恁麼田地祇向虛頭他時閻老子未放你在又偈曰十門綱要掌中施會得來時自有為作者不須排位次大都首尾是根基

宋潭州大瀉山沙門釋清旦傳

釋清旦字慧通蓬州嚴氏子也初辭親愛即嗜空宗聞有教外別傳之道注念日切乃發足遠游欲投叢席時大瀉山泰住德山謁之值泰上堂舉趙州曰臺山婆子已為汝勘破了也且道意在甚麼處良久曰就地撮將黃葉去入山推出白雲來旦聞平生疑礙釋然翌日入室泰問曰前百丈不落因果因甚墮野狐後百丈不昧因果因甚脫野狐旦曰好與一阇埋卻住後上堂曰三脚驢子弄蹄行步步相隨不相到樹頭驚起雙鯉魚拈來一老一不老為憐松竹引清風其奈出門便是草因喚檀郎識得渠大機大用都推倒燒香勘證見根源糞掃堆頭拾得寶叢林浩浩謾商量勸君莫謗先師好旦之門庭嚴肅機語峻利故學者仰之知取法焉

宋天台國清寺沙門釋行機傳

釋行機字簡堂天台楊氏子也生知夙發趣向高邁少棄妻孥超然出世精窮竺典妙貫三乘竊欲離言單求直指於是慕護國元公道價負簦相依稍觸鉗錘密有契證因住莞山刀耕火種獨處十有七年嘗有偈曰地爐無火客囊空雪似楊花落歲窮拾得斷蕪穿壞衲不知身在寂寥中每自視歉然輒興歎曰豈以住山樂吾事耶一日偶見斫樹倒地有聲忽大悟平日礙膺之物泮然水釋未幾適有江州圓通之命乃曰吾道行矣即欣然洩杖應之登座說云圓通不開生藥舖單單只賣死猫頭不知那個無思算喫著通身冷汗流聞者無不絕倒叢林至今稱焉

澧州靈巖寺沙門釋仰安傳(表自)

釋仰安未知所出生而穎異幼年舍俗既圓顛頂慕最上乘精謹律儀耽遊講肆久而棄之遂入佛果勤公之室時大瀋泰為座元昕夕扣之頓領玄旨後泰住持德山命安詣佛果且付以書果見問千里馳騁不辱宗風公案現成如何通信安曰覲面相呈更無回互果曰此是德山底那個是上座底曰豈有第二人果曰背後伊誰安即進書果笑稱作家次至僧堂前捧書問訊首座座曰玄沙白紙此自何來安曰久默斯要不務速說今日拜呈幸希一覽座便喝安曰作家首座座又喝安以書便打座擬議安曰未明三八九不免自沈吟又一擊之曰接時佛果佛眼同座見之果曰打我首座死了也眼曰官馬廝踢有何憑據安曰說甚官馬廝踢正是龍象蹴踏也果喚安至前曰我五百人首座汝為何犯之安曰和尚也須如是果顧佛眼吐舌眼曰未在卻問曰空手把鋤頭話意作麼生安鞠躬曰所供是實眼笑曰元來是屋裏人又往五祖山通書於表自白曰書裏說箇甚麼安曰文彩已彰曰畢竟說甚麼安曰當陽揮寶劍自喚曰近前來我不識字安曰莫詐敗好自顧侍者曰是那裏僧曰曾在和尚會下去自曰怪得恁麼活頭安曰被和尚鈍置來自將書於香爐熏曰南無三曼多安近前彈指自便開書自是聲播四方而不辱泰使命未幾出主靈巖衲子輻輳拈推豎拂大有古風

宋江州圓通寺沙門釋道旻傳

釋道旻賜號圓機興化蔡氏子也母夢吞摩尼珠而生五歲不履不言一日母入西明寺抱兒見佛置於蒲團遽趣合掌作禮隨聲稱南無佛見者大異之稍壯宦學大梁忽焉棄去依景德寺德禪出家得度徧扣禪林皆得染指後親為山喆無所入謁泐潭乾公具陳所得潭不為印可一日潭舉世尊拈花迦葉微笑話問之不契侍潭行次潭以杖架肩長噓曰會麼旻擬對潭朴之有頃復拈草示之曰是甚麼亦擬對潭又喝之於是頓悟玄旨便作拈花

勢曰這回瞞旻上座不得也潭曰便道旻曰南山起雲北山下雨即禮三拜潭首肯印之後開法於灌溪遷圓通學者宗之如川赴海朝廷聞其道錫以命服並圓機之號於是遐邇欽化人被其澤未詳所終

宋隆興雲巖寺沙門釋天遊傳

釋天遊字典牛成都鄭氏子也幼習儒業穎俊逸倫儕輩推重初試郡庠復試梓州二處皆與貢籍懼不敢承遂竄名出關適王山谷西還見其風骨不凡談論超卓邀與同舟策往廬山削髮不易舊名首參死心不契依湛堂準於泐潭一日湛堂普說曰諸人苦苦就準上座覓佛法遂拊膝曰會麼雪上加霜又拊膝曰若也不會豈不見乾峰示眾曰舉一不得舉二放過一著落在第二天遊聞之脫然悟入出世於雲蓋遷雲巖說法有湛堂之風嘗和忠道者牧牛頌曰兩角指天四腳著地拽斷鼻繩牧甚屎屁張無盡見之甚為擊節因退雲巖過廬山而棲賢主者意不欲納乃故曰老老大大正是質庫中典牛耶天遊遂述偈曰質庫何曾解典牛祇緣價重實難酬想君本領無多子畢竟難禁這一頭竟去庵於武寧匾曰典牛則終其身不出年近百歲而告寂焉徑山塗毒見時九十三矣

- 習禪篇第三之二(正傳十二人 附見三人)
 - 南宋西蜀昭覺寺沙門釋克勤傳
 - 泉州教忠寺沙門釋彌光傳(黃蘗祥)
 - 嘉興報恩寺沙門釋法常傳
 - 成都信相寺沙門釋宗顯傳
 - 平江虎丘寺沙門釋紹隆傳
 - 真州長蘆庵沙門釋青了傳
 - 天台山萬年寺沙門釋法一傳
 - 建康華藏寺沙門釋安民傳
 - 潭州龍牙寺沙門釋智才傳
 - 明州天童寺沙門釋正覺傳(枯木成 丹霞淳)
 - 臨安徑山寺沙門釋宗杲傳
 - 紹興慈氏院沙門釋瑞仙傳

南宋西蜀昭覺寺沙門釋克勤傳

釋克勤姓駱氏彭人也世守儒學兒時日記千言偶遊妙寂寺見佛書三復悵然如獲舊物曰予殆過去沙門也即出家依自省師祝髮從文昭通講說又從敏行授楞嚴俄得病瀕死歎曰諸佛涅槃正路不在文句中吾以聲求色見宜其無以死也遂棄去至真覺勝禪師之席勝方創臂出血指示勤曰此曹谿一滴也勤矍然良久曰道固如是乎即徒步出蜀首謁玉泉皓次依金鑾信大滄喆黃龍心東林度僉指為法器而晦堂稱他日臨濟一派屬子矣最後見五祖演盡其機用祖皆不諾乃忿然而去演曰待著一頓熱病時方思量我勤至金山病寒困極以平日見處試之無得力者追繹演言乃自誓曰我病稍閒即遶演及演一見而喜令人侍寮會部使者解印還蜀造演問道演曰曾憶少年讀小豔詩有頻呼小玉原無事祇要檀郎認得聲之句乎部使喏喏勤適侍立反復研詰演為舉如何是祖師西來意庭前柏樹子語有省出見雞飛上欄干鼓翅而鳴復自忖曰此豈非聲耶乃呈偈曰金鴨香銷錦繡幃笙歌叢裏醉扶歸少年一段風流事祇許佳人獨自知演喜遍謂山中耆舊曰我侍者參得禪也由此所至推為上首崇寧中成都帥翰林郭公之章請開法昭覺政和間謝事復出峽南遊時張無盡寓荆南以道學自居少見推許勤艤舟謁之與談華嚴旨要因言華嚴現量境界理事全真初無假法所以即一而萬了萬為一一復一萬復萬浩然無窮心佛眾生三無差別卷舒自在無礙圓融此雖極則終是無風雨之波無盡於是不覺

促榻勤乃更迭推勘謂雲門道山河大地無絲毫過患猶是轉句直得不見一色始是半提更須知有向上全提時節無盡為之首肯明日復舉事法界理法界至理事無礙法界因問此可說禪乎無盡曰正好說禪也勤笑曰不然正是法界量裏蓋法界量未滅始好說禪如何是佛乾屎橛如何是佛麻三斤是故真淨偈曰事事無礙如意自在手把豬頭口誦淨戒趁出淫坊未償酒債十字街頭解開布袋無盡歎曰美哉之論豈易聞乎於是以師禮留居碧巖復徙道林樞密鄧公子常奏賜紫服詔住蔣山學者歸之如市至無地以容敕補天甯萬壽召見便殿褒寵甚渥建炎初又遷金山適駕幸維揚入對賜號圓悟禪師改雲居久之復領昭覺徽宗為降敕使開堂焉略云匝地普天皆承恩力九州四海悉稟威靈百千法門之外殊特法門無量妙義之中真實妙義克勤禪師者雞園上品鹿苑名家早空六妙之門無慚饒舌接引四流之岸意許安心飛錫所至法雨咸沾布金而來願雲共領特啟祇園世界廣引方袍宏開覺路津梁都成圓具鈴鈴振策允為萬德之師凜凜戒規直入三摩之地於戲道生說法石亦點頭羅什談禪巖俱撒手普濟僧人行脚象負以游定儼菩薩低眉鳩分而食遍灑醍醐同登歡喜紹興五年八月示微恙趺坐書偈遺眾投筆而逝茶毘時舌齒不壞舍利無數塔於寺後威鳳山中諡真覺禪師清雍正十三年加諡明宗真覺禪師

(黃蘗祥)

釋彌光字晦庵閩中李氏子也生寡言笑聞僧貝梵則喜年十五依文慧禪師圓頂未窮海藏喜究羣書嘗自忖曰鬚髮染衣當期悟徹而醉心俗典耶遂首謁圓悟次參黃蘗祥高庵悟機語皆契以淮楚盜起歸謁佛心值大慧寓廣因從之慧曰汝在佛心處所得者試舉一二光曰佛心上堂拈普化公案曰佛心即不然總不恁麼來時如何劈脊便打從教徧界分身慧曰汝意如何曰不肯他後頭下個註腳慧曰此正是以病去法光毅然無信可意慧曰汝但揣摩光竟以為不然經旬因記海印信公拈曰雷聲浩大雨點全無光始無滯趨告慧舉道者見琅琊并玄沙未徹語詰之光對已大慧笑曰但道一步不著所在如人斫樹根下一刀則命根斷矣汝向枝上斫其能斷命根乎今諸方浩浩說禪見處總如是也何益於事其楊岐正傳止三四人而已光慍而去翌日慧問汝還疑否曰無可疑者慧曰祇如古人相見未待開口已知虛實或聞其語便識淺深此理如何光悚然汗下莫知所詣慧令究有句無句話慧過雲門庵光亦侍行一日問曰某到這裏不能得徹病在甚處慧曰汝病最癖世醫拱手何也別人死了不得活汝今活了未曾死要到大安樂田地須是死一回始得光疑情愈深後入室慧問喫粥了也洗鉢盂了也去卻藥忌道將一句來光曰裂破慧乃振威喝曰你又說禪也光即大悟慧即搥鼓告眾曰龜毛拈得笑哈哈一擊萬重關鎖開慶快平生在今日孰云千里賺吾來光亦呈偈曰一拶當機怒雷吼驚起須彌藏北斗洪波浩

渺浪滔天拈得鼻孔失卻口自爾名喧宇宙道洽緇素出住教忠瓣香為妙
喜拈出其為知本也歟

南宋嘉興報恩寺沙門釋法常傳

釋法常姓薛氏開封人丞相薛居正之後也宣和七年始解塵縛遐思高舉
遂依長沙益陽華嚴試公鬚髮受田衣見者獅王居必寶社非法不言異
軌弗顧深慕大乘不斥小教一日閱首楞嚴經乃廓爾義天淵通法海自是
肆遊淮泗放浪湖湘後至台山萬年參謁雪巢一見機語契會命掌翰牋未
幾請令首眾為僧入室殊有風彩澹然處世不飾眾緣室中唯一矮榻餘無
長物紹興庚子九月望日語眾曰吾一月後不復留矣至十月二十一日書
漁父詞於室門曰此事楞嚴嘗露布梅花雪月交光處一笑寥寥空萬古風
甌語迥然銀漢橫天宇蝶夢南華方栩栩斑斑誰跨豐干虎而今忘卻來時
路江山暮天涯日送鴻飛去書畢就榻收足而逝塔於寺西南

南宋成都信相寺沙門釋宗顯傳

釋宗顯字正覺潼川王氏子也少選為進士有聲於時嘗畫掬溪水為戲至
夜思之遂見水泠然盈室欲沒之不可得忽爾塵境自空歎曰吾世網裂矣
往依昭覺白公得度蕭然一衲隨眾咨參一日白公問高高峰頂立深深海
底行作麼生會忽於言下頓悟曰釘殺腳跟也白拈起佛子曰這箇又作麼
生顯一笑而出服勤七祀出遊至京都淮淞徧歷叢林晚登五祖見演問未
知關楨子難過趙州橋如何是關楨子演曰汝且在門外立顯進步一踏而
退演曰許多時茶飯原來也有人知味明日入室演問是昨日問話僧否我
固知爾見處祇未過得白雲關顯珍重便出時圓悟為侍者乃以白雲關意
扣悟悟曰直下會取顯笑曰我不是不會祇是未諳得耳次日演往舒城顯
與悟繼住適會於興化演問記得曾在何處相見顯曰全火祇候演顧悟曰
殊饒舌後遊廬山回舉高高峰頂立話所得之意白演演曰吾嘗以此事詰
先師先師曰我曾問遠和尚遠曰猫有歃血之功虎有起屍之德非素達本
源不能到也顯侍之久演鍾愛之辭返蜀演為小參復送之以頌曰離鄉四
十餘年一時忘卻蜀語禪人回到成都切須記取魯語顯歸昭覺白公尚無
恙再侍之聲譽藹然初出住長松次主保福大張爐鞴煅煉學者故龍象多
出其門

南宋平江虎邱寺沙門釋紹隆傳

釋紹隆合山人也年九歲辭親投佛慧院六年得度受具足戒精研律部五
夏而後遊方首訪長蘆信得其大略而已一日見有僧傳圓悟勤語錄隆讀

之歡曰想醉生液雖未得澆腸沃胃要且使人慶快但恨未聆警咳耳遂至寶峰依湛堂次見黃龍死心然後參圓悟於夾山一日入室圓悟問曰見見之時見猶離見見不能及悟忽舉拳曰還見麼隆曰見悟曰頭上安頭隆聞脫然契證悟曰見箇甚麼隆對曰竹密不妨流水過悟首肯之俾掌藏鑰有僧問於圓悟曰隆藏主其柔易若此烏能為哉悟笑曰瞌睡虎耳後因圓悟回蜀隆乃住邑之城西開聖宋建炎間結廬於桐峰之下郡守李光延居彰教次遷虎邱道大顯著嘗登座云此柱杖一劃劃斷生法師多年葛藤有人於此著眼知前阿師住此山者都從一鼻孔出氣庶不負點頭石拊掌一笑也因追繹白雲端立祖堂故事乃曰為人之後不能躬行遺訓於義安乎遂圖像奉安題讚其上達摩讚曰闔國人難挽西攜隻履歸只應熊耳月千古冷光輝百丈讚曰迅雷吼破澄潭月當下曾經三日聾去卻膏肓必死疾叢林從此有家風開山明教大師讚曰春至百花觸處開幽香旖旎襲人來臨風無限深深意聲色堆中絕點埃蓋白雲以百丈海禪師創建禪規之功宜配享達摩可謂知本矣隆既為讚且發明其道亦為知禮者歟紹興六年丙辰示微恙白眾曰當以首座宗達承院事索筆大書伽陀曰無法可說是名說法所以佛法無有剩語加趺而逝年六十夏四十五塔於寺之西南隅司農少卿徐林銘曰於穆初祖一花東土讖至馬駒益昭益著派衍而蕃實惟圓悟圓悟得師如馬之鬣大座虎丘雷動雲驚臨濟中興楊岐再住隻履忽西聿嚴龕墓有神在天來訶來護咨爾後昆展轉流布後一百七十四年當元至大二年歲在己酉吳興趙孟頫重書住山壽永立石

南宋真州長蘆庵沙門釋青了傳

釋青了字真歇姓雍氏西蜀左綿人也少小出家年十八試法華得度往成都大慈習經論略領大意出蜀至沔漢叩丹霞之室微悟元旨尋遊五臺至京師浮汴直抵長蘆謁祖照一語契合命為侍者踰年分座未幾照稱疾退居青了繼席學者歸之南宋建炎末游四明主補陀及台之天封閩之雪峰紹興七年奉詔住育王徙溫州龍翔並興慶為一繼遷杭之徑山慈甯皇太后復命開山皋亭崇先及終塔於寺西華桐嶋諡曰悟空禪師

南宋天台山萬年寺沙門釋法一傳

釋法一字雪巢姓李氏襄陽郡王駙馬李遵勗玄孫也世居祥符母夢一老僧至其家而生發聲洪亮質異凡庸年十七試上庠從祖仕淮南欲官之不就請去家事長蘆慈覺蹟禪師祖弗許母曰此兒必宿世沙門也願弗奪其志未幾慈覺寂禮靈巖通照願禪師祝髮相依十載覺心迷悶道無所入遂往蔣山謁圓悟一見器之適悟移住天寧一亦隨侍次見草堂於疎山一言之下忽爾徹其源底紹興七年泉守劉彥修請居延福四遷巨剎最後住長

蘆因慕天台形勝听夕懷之於是乞退居山之古平田觀音院高臥煙霞長嘯深翠一日忽示微疾書偈曰今年七十五歸作庵中主珍重觀世音泥蛇吞石虎乃入龕趺坐而逝塔於古平田

南宋建康華藏寺沙門釋安民傳

釋安民字密印嘉定米氏子也初至成都講楞嚴有聲於時聞圓悟居昭覺因造焉值悟小參舉國師三喚侍者因緣趙州拈云如人暗中書字字雖不成文彩已彰那裏是文彩已彰處民聞心疑之告香入室悟問座主講何經對曰楞嚴悟曰楞嚴有七處徵心八還辯見畢竟心在何處民多呈義解悟皆不肯民復請益悟令一切處作文彩已彰會偶僧請益十玄談方舉問君心印作何顏悟厲聲曰文彩已彰民聞悅然自謂至矣悟示鉗錘罔措一日白悟請弗舉話我自說之悟曰諾民曰尋常拈錘豈拂豈不是經中道一切世界諸所有相皆即菩提妙明真心悟笑曰你原來在這裏作活計民又曰下喝敲牀時豈不是返聞聞自性性成無上道悟曰你豈不見經中道妙性圓明雖諸名相民於言下釋然於是罷講侍圓悟出蜀居夾山民從行悟為眾小參舉古帆未掛因緣民聞未領遂求決悟曰請試問之民舉前話悟曰庭前栢子民即洞明謂悟曰古人道如一滴投於巨壑殊不知大海投於一滴悟笑曰奈這漢何悟說偈曰休誇四分罷楞嚴按下雲頭徹底參莫學亮公親馬祖還如德嶠訪龍潭七年往返遊昭覺三載翱翔上碧巖今日煩充第一座百花叢裏現優曇未幾開法保寧遷華藏大宏圓悟之道後示寂於本山闍維舍利叢生人或穴地尺許皆得之尤光明瑩潔心舌不壞併建塔焉

南宋潭州龍牙寺沙門釋智才傳

釋智才舒州施氏子早歲服勤於佛鑑及遊方謁黃龍死心翌日入室死心問曰會得最初句便會末後句會得末得句便會最初句最初末後拈放一邊百丈野狐話作麼生會才曰入戶已來知見解何須更舉轢中泥心曰新長老死在上座手裏也才曰語言雖有異至理且無差心曰如何是無差底事才曰不扣黃龍角焉知領下珠心領之才初住嶽麓次遷龍牙三十載以清苦蒞眾故衲子畏敬之又遷雲溪紹興戊午八月望俄集眾付寺事書偈曰戊午中秋之日出家住持事畢臨行自己尚無有甚虛空可覓每日垂訓如常至二十三日再示眾曰涅槃生死盡是空花佛及眾生並為增語汝等諸人合作麼生眾皆下語不契才喝曰苦苦復曰白雲湧地明月當天言訖驪然而逝火浴獲舍利五色塔寺西北隅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正覺傳(枯木成 丹霞涓)

釋正覺隰州李氏子也父諱宗道世學般若母趙氏嘗夢五臺山僧解右臂環與之誕覺之夕光出於屋人皆異之年七歲日誦書數千言十三通五經七史一日乞從釋氏學無生法依郡之淨明寺本宗薙髮受具於晉州慈雲寺智瓊年十八遊方因自訣曰若不發明大事誓不歸矣於是渡河首謁枯木成於汝州久之無所入時丹霞淳禪師道價方盛乃頂笠造焉入門霞問如何是空劫已前自己覺曰井底蝦蟆吞卻月三更不借夜明簾霞曰未在更道覺擬議霞一擊拂子曰又道不借覺忽大悟作禮霞曰何不道取一句覺曰今日失錢遭罪霞曰未暇罪爾且去後霞退唐州大乘寺覺亦從焉宣和二年霞主大洪俾掌記室三年遷首座時金粟智雪竇宗輩皆參隨之真歇了公住長蘆招之首眾未幾出主泗洲普照高宗建炎間住舒之太平遷江之圓通能仁次補長蘆時寇酋李在抄掠境上乃入寺眾懼奔散覺獨危坐堂中但以善語諭之李在稽首餽金贍眾僧於是一方賴安寇靜又越二年乃渡浙之錢塘至明州禮補陀會天童虛席郡守馳檄召之無何胡虜犯境虜至登嶺遙望嶺上若有神衛遂斂而退次年被旨主靈隱將行四眾號阻百鳥哀鳴未兩月獲旨再主天童初禮祖塔時夢至一山寺長松夾道有句紀之曰松徑森森窈窕門到時微月正黃昏及至天童苑如夢境有終焉之志故覺居天童三十年凡寺舍殿廊無不新者紹興二十七年九月朔別郡帥檀越七日還山飯客如常次辰索浴更衣端坐為書囑後事訖書偈曰夢幻空花六十七年白鳥煙沒秋水連天擲筆而逝先是育王缺席覺舉妙喜佛日主之相得益歡嘗於白椎傾倒劇談闊論執其手曰吾二人皆老大约一旦溘然先去則存者為之主及佛日得遺書夜至天童凡送終之典悉主之塔於東谷詔諡曰宏智禪師塔曰妙光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宗杲傳

釋宗杲字大慧因居妙喜庵又稱妙喜宣州奚氏子或云即雲峰悅之後身也靈根夙具慧性生知年方十二即投慧雲齊公受經論五載涵泳乃從薙染初遊洞宗之門洞宗耆宿因其鋒銳乃燃臂香授厥心印杲殊不自肯棄去依湛堂準久之不契湛堂因臥疾俾見圓悟悟居蜀昭覺杲躊躇未進一日聞詔遷悟住汴之天寧喜曰天賜此老與我也遂先日至天寧迎悟且自計曰當終九夏若同諸方妄以我為是者我著無禪論去也值悟開堂舉僧問雲門如何是諸佛出身處門曰東山水上行悟曰天寧即不然只向他道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杲聞忽前後際斷悟曰也不易你到這田地但可惜死了不能活不疑言句是為大病豈不見道懸崖撒手自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須要信有這些道理於是令居擇木堂為不釐務侍者日同仕夫不時入室一日悟與客飯次杲不覺舉筋飯皆不入口悟笑曰這漢參黃楊木禪到縮了也杲曰如狗舐熱油鑊後聞悟室中問僧有句無句如藤倚樹話杲遂問曰聞和尚當時在五祖曾問此話不知五祖道甚麼悟笑而不

答杲復曰當時既對眾問今說何妨悟不得已曰我問五祖有句無句如藤倚樹意旨如何祖曰描也描不成畫也畫不就又問樹倒藤枯時如何祖曰相隨來也杲當下釋然曰我會也悟歷舉數段因緣詰之皆酬對無滯悟喜謂之曰始知吾不汝欺也乃著臨濟正宗記付之俾掌記室未幾圓悟返蜀杲因韜晦結菴以居後度夏虎丘閱華嚴至第七地菩薩得無生法忍處忽洞明湛堂所示殃崛摩羅持鉢救產婦因緣宋紹興七年詔住雙徑一日圓悟訃音至杲自撰文致祭即晚小參舉僧問長沙南泉遷化向甚麼處去沙曰東村作驢西村作馬僧曰意旨如何沙曰要騎便騎要下便下若是徑山即不然若有僧問圓悟光師遷化向甚麼處去向他道墮大阿鼻地獄意旨如何曰饑餐洋銅渴飲鐵汁還有人救得也無曰無人救得曰如何救不得曰是此老尋常茶飯十一年五月秦檜以杲為張九成黨毀其衣牒竄衡州二十六年十月詔移梅陽不久復其形服放還十一月詔住阿育王二十八年令再住徑山大宏圓悟宗旨辛巳春退居明月堂一夕眾見一星殞於寺西流光赫然尋示微疾八月九日謂眾曰吾翌日始行是夕五鼓手書遺表併囑後事有僧了賢請偈杲乃大書曰生也祇麼死也祇麼有偈無偈是甚麼熱委然而逝世壽七十有五坐五十八夏諡曰普覺塔名寶光

南宋紹興慈氏院沙門釋瑞仙傳

釋瑞仙會稽人少纏塵網幾溺愛河年二十奮然去家會試經受度精習大小律藏至戒性如虛空持者為迷倒句忽自省曰戒者束身法耳胡自縛耶遂探究台教一日閱諸法不自生亦不從他生不共不無因是故說無生處疑曰既不自又不他不共不無因畢竟從何而生也歎曰因緣生法雖照以空假三觀不過抑揚性海心佛眾生名異體同十境十乘妙心成智不思議境智照方圓固非言詮所能及也遂更謁諸耆宿後登投子山見廣鑑禪師問曰甚麼處來曰兩浙東越鑑曰東越事作麼生曰秦望山高鑿湖水闊鑑曰秦望山與自己是同是別曰梵語唐言鑑曰猶是叢林祇樹畢竟是同是別瑞仙便喝鑑便擊之忽有省禮拜曰恩大難酬後開法於慈氏嘗問僧三箇橐駝兩隻腳日行萬里趁不著而今收在玉泉山不許時人亂斟酌你等向甚麼處與仙上座相見一眾無能下語投其機者終於本山

- 習禪篇第三之三(正傳十七人 附見十人)
 - 南宋慶元育王山沙門釋端裕傳
 - 隆興黃龍寺沙門釋道震傳
 - 華亭昭慶寺沙門釋法寧傳
 - 安吉何山寺沙門釋守珣傳(廣鑑英)
 - 眉州象耳山沙門釋袁覺傳(佛性)
 - 成都昭覺寺沙門釋道元傳(大別道)
 - 平江南峰寺沙門釋雲辯傳(穹窿圓)
 - 南康雲居寺沙門釋善悟傳
 - 隆興黃龍寺沙門釋法忠傳
 - 臨安靈隱寺沙門釋如珏傳(寒巖升 廣聞)
 - 天台護國寺沙門釋景元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妙倫傳
 - 臨安靈隱寺沙門釋慧遠傳(靈巖徽)
 - 臨安徑山寺沙門釋智策傳(寂室光 大圓)
 - 臨安靈隱寺沙門釋道樞傳
 - 明州普陀山沙門釋慧暉傳(悟明)
 - 臨安徑山寺沙門釋寶印傳

南宋慶元育王山沙門釋端裕傳

釋端裕字佛智吳越錢王之裔也六世祖守會稽因家焉裕生而岐嶷眉目淵秀十四驅烏於大喜寺十八得度受具往依淨慈一禪師未幾偶聞擊露柱曰爾何不說禪裕忽有微省去謁龍門遠甘露卓泐潭祥皆以穎邁見推晚見圓悟於鍾阜一日問正法眼藏向這瞎驢邊滅卻即今是滅不滅曰請和尚合取口好悟曰此猶未出常情裕擬對悟擊之裕頓去所滯侍悟居天寧命掌記室尋分座道聲藹著京西憲請開法丹霞次遷虎邱徑山謝事後復徇平江道俗之請菴於西華閱數稔敕居建康保寧更移姑蘇萬壽及閩中玄妙壽山西禪復被旨補靈隱慈寧皇太后幸韋王第召裕演法賜金襴袈裟乞歸西華舊隱紹興戊辰秋赴育王之命上堂曰德山入門便棒多向布袋裏埋蹤臨濟入門便喝總在聲塵中出沒若是英靈衲子直須足下風生超越古今遽起拈拄杖卓一下喝一喝曰祇這箇何似生若喚作棒喝瞌睡未惺不喚作棒喝未識德山臨濟畢竟如何卓一下曰總不得動著僧問如何是賓中賓裕曰汝是田庫奴僧曰如何是賓中主曰相逢猶莽鹵僧曰

如何主中賓曰劍氣爍愁雲曰如何是主中主曰敲骨打髓裕蒞眾色必凜然寢食有常度唱道無倦紹興庚午十月初示微疾至十八日首座法全請遺訓裕曰盡此心意以道相資語絕而逝火後日睛齒舌不壞其地發光終夕得設舍利無鼻踰月不絕黃冠羅筆常平日問道於裕適外歸獨無所獲羅念勤切方與客食咀嚼間若有物吐哺則設利也大如菽色若琥珀好事者持去遂再拜於闍維所聞香匣有聲亟開所獲如前而差紅潤門人奉遺骨分塔於鄮峰西華^諡大悟禪師

南宋隆興黃龍寺沙門釋道震傳

釋道震字山堂金陵趙氏子也垂髫依覺印英禪師英遷泗之普照得度久之辭謁丹霞瀆與論曹洞宗旨震呈以偈曰白雲深覆古寒巖異草靈花彩鳳銜夜半天明日當午騎牛背面著靴衫次依草堂日取藏經讀之一夕聞晚參鼓步出經堂舉頭見月忽大悟亟趨方丈堂望見即曰子徹矣遂為印可尋出三遷而至百丈道甚顯著紹興己巳有律師妄踞黃龍衲子散去黃龍主事走錢塘求王承宣繼先書達洪帥張如瑩公命震以從眾望而主事者請致書謝王震讓曰王公為護佛法何謝之有况我與之素昧平生於是主事慙退其嚴正如是故仲溫曰彼交結權貴倚之為藩垣者聞其言亦足顏汗諒哉

南宋華亭昭慶寺沙門釋法寧傳

釋法寧因住沂州馬[山*耆]山故號馬[山*耆]姓李氏莒人也初依沂州天寧妙空明得度參侍既久盡得雲門宗旨出世住沂之淨居寺大宏雪竇之道初寧於紹興間抵華亭青龍鎮察判章滾其母高氏夢天人告曰古佛來也翌日寧至迎之止錢氏園乃建精舍掘地得鐵磬斷碑佛像之應於是華亭令柳約奏所建剎賜額曰淨居因省明公於雪竇時郡守莫將請主吉祥哲宗元符余山有精舍曰靈峰部符改曰昭慶禪院右丞朱諤請寧開山無何遷明州廣慧復返昭慶紹興二十六年丙子正月八日沐浴端坐說法辭眾而寂世壽七十六僧臘五十九塔全身於寺之東隅

南宋安吉何山沙門釋守珣傳(廣鑑英)

釋守珣字佛燈姓施氏安吉人也初參廣鑑瑛不契遂謁佛鑑隨眾咨請亦無所入乃封其衾曰今生若不徹去誓不展此於是晝夜峭立如喪考妣逾七七日忽佛鑑上堂曰森羅及萬象一法之所印珣聞頓悟鑑曰可惜一顆明珠被這風顛漢捨得也乃詰曰靈雲道自從一見桃花後直至如今更不疑如何是他不疑處珣曰莫道靈雲不疑只今覓箇疑處了不可得鑑曰玄

沙道諦當甚諦當敢保老兄未徹在那裏是他未徹處珣曰深知和尚老婆心切鑑然之珣拜起呈偈曰終日看天不舉頭桃花爛熳始擡眸饒君更有遮天網透得牢關即便休鑑囑令護持是夕展衾厲聲曰這回珣上座穩睡去也圓悟聞之竊疑其未然乃曰我須勘過始得令人召至因與遊山遇到一水潭圓悟推珣入水遽問曰牛頭未見四祖時如何珣曰潭深魚聚曰見後如何珣曰樹高招風曰見與未見時如何珣曰伸脚在縮脚裏圓悟大稱之後出世初主禾山次天聖徙何山及天寧紹興甲寅謂居士鄭績曰十月八日是佛鑑先師忌日吾時至矣乞還障南至十月四日績遣弟僧道如訊之珣曰汝來正其時也吾雖與佛鑑同條生終不同條死明早可與我尋一隻小船來道如曰要長者高者珣曰高五尺許越三日雞鳴端坐如平時侍者請偈珣曰不曾作得言訖而逝闍維舌根不壞

南宋眉州象耳山沙門釋袁覺傳(佛性)

釋袁覺姓袁氏眉人也出家傳燈寺本名圓覺郡守填祠牒誤寫袁字守疑其嫌因戲謂之曰一字名之可乎對曰一字已多也郡守異之已而往大瀉依佛性入室陳所見性曰汝見遠矣俾充侍司掌賓客佛性每舉法華開示悟入四字令下語又曰待我點頭汝理方是偶不職被斥制中無依乃寓俗士家一日誦法華至亦復不知何者是火何者為舍乃豁然有省制罷歸寺白性首為肯之後至雲居見圓悟述所得悟呵之曰本是淨地何用穢濁於是所疑頓釋紹興丁巳郡守請居象耳法道大振四方英俊宿德聞風禮謁室無所容開堂詞辯河傾峽瀉叢林稱之

南宋成都昭覺寺沙門釋道元傳(大別道)

釋道元字徹菴姓鄧氏綿人也幼於降寂寺出家受具謁大別道令看廓然無聖之語忽爾失笑曰達摩祇如斯道命參佛鑑佛眼皆有啟沃又投金山見圓悟呈所見處悟弗許值悟被詔居雲居元從之雖有所入終以鯁胸之物未散因悟問僧生死到來時如何僧曰香臺子笑爾次問及元元曰草賊大敗悟曰有人問汝時如何元擬答悟憑陵曰草賊大敗元大徹悟以拳擊之元拊掌而笑悟曰汝見甚麼便如此曰毒拳未報永劫不忘

南宋平江南峰寺沙門釋雲辯傳(穹窿圓)

釋雲辯姑蘇人初依瑞峰章公得度旋謁穹窿圓忽有所得遂通所見圓曰子雖得入未至當也切宜著鞭乃辭扣圓悟值入室纔踵門悟遽曰看腳下辯打露柱一下悟曰何不著實道取一句辯曰師若搖頭某便擺尾悟曰你試擺尾看辯翻身而出悟大笑由是知名住後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曰

霸王到烏江僧曰如何是奪境不奪人曰築壇拜將僧曰如何是人境俱奪
曰萬里山河獲太平僧曰如何是人境俱不奪曰龍吟霧起虎嘯風生僧曰
向上還有事也無曰當面蹉過僧曰真箇作家曰白日鬼迷人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善悟傳

釋善悟字高菴洋州李氏子生有夙慧靈根自發年十一得度聞冲禪師舉
梁武帝問達摩因緣如獲舊物遽曰我既廓然何聖之有冲異其說勉之南
詢遂謁龍門佛眼一日有僧被蛇咬佛眼問眾曰既是龍門為甚卻被蛇咬
悟應聲曰果然現大人相眼器之後傳此語至佛果果曰龍門有此僧東山
法道殊未寂寥上堂心生種種法生森羅萬象縱橫信手拈來使用日輪午
後三更心滅種種法滅四句百非路絕直饒達摩出頭也是眼中金屑心生
心滅是誰木人攜手同歸歸到故鄉田地猶遭頂上一鎚

南宋隆興黃龍寺沙門釋法忠傳

釋法忠字牧菴四明姚氏子也十九試經得度習天台教悟一心三觀之旨
未能泯跡故徧參名德後至龍門觀水磨旋轉發明心性述偈呈佛眼曰轉
大法輪目前包裹更問如何水推石磨佛眼曰其中事作麼生忠曰澗下水
長流眼曰我末後一句待分付汝忠即掩耳而去後至廬山於同安枯樹中
絕食清坐宣和間湘潭大旱禱弗應忠躍入龍淵呼曰業畜當雨一尺雨隨
至嘗居南嶽每跨虎出遊儒釋皆望塵而拜上堂我有一句子不借諸聖口
不動自己舌非聲氣呼吸非情識分別假使淨名杜口毗耶釋迦掩室摩竭
大似掩耳偷鈴未免天機漏泄直饒德山棒臨濟喝若向牧菴門下祇得一
櫬千種言萬般說祇要教君自家歇一任大地虛空七凹八凸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如珏傳(寒巖升 廣聞)

釋如珏字荊叟婺人也得法於天童穎禪師繼席後上堂云新歲新擊鼓普
施新法兩萬物盡從新一一就規矩普賢大士忻歡乘時打門戶放出白象
王徧地無尋處拈拄杖曰唯有者箇不屬故新等閒開口吞卻法身擲下云
是甚麼千年桃核裏原是舊時仁僧云如何是佛珏云爛東瓜寒巖升者姓
吳氏建安人母氏游初生有肉如環在其左乳人皆異之年十四依郡之龍
居寺出家肉環隨隱弱冠進具有志遊方因之長樂會圓悟高弟佛智禪師
端裕演法於西禪入其室言下頓悟自是機鋒迅發人莫能當佛智移杭之
靈隱升為首座佛智歸升亦還鄉後住支提承天石霜泐潭諸大剎示寂於
鼓山壽七十九僧臘六十山陰陸待制務觀與升遊愛敬之如師友周丞相
子充為之塔銘又偃溪廣聞者侯官林氏子年十八得度受具初見鐵牛印

少室睦無際派迫隨甚久參浙翁於天童針芥雖投自知未契及再參於雙徑一夕坐簷間聞更三轉入堂曳履而蹶如夢初醒詰朝入室翁舉趙州洗鉢孟語將啟吻遽止之平生疑情忽焉冰釋紹定時由淨慈歷香山萬壽雪竇育王靈隱徑塢上堂云趙州喫茶去金牛喫飯來龍門多上客有人續得末後一句許入阿字法門景定四年六月十四日寂

南宋天台護國寺沙門釋景元傳

釋景元字此菴姓張氏永嘉人也年十八依靈山希拱圓具戒習台教三穢棄去謁圓悟勤於鍾阜間讀死心小參語云既迷須得箇悟既悟須識悟中迷迷中悟迷悟雙忘卻從無迷悟處建立一切法元聞而疑即趨佛殿以手托開門扉豁然大徹機辯逸發圓悟目為磬頭元侍者悟自讚像付之曰生平只說磬頭禪撞著磬頭如鐵壁脫卻羅籠截腳跟大地撮來墨漆黑晚年轉復沒刀刀奮金剛椎碎窠窟他時要識圓悟面一為渠農併拈出自爾沈彩埋光不求聞達後為括蒼太守耿延禧慕仰元欲致開法南明得元於台之報恩迫其受命僧問三聖道我逢人即出出則不為人意旨如何曰八十翁翁嚼生鐵僧又問興化道我逢人即不出出則便為人又作麼生曰須彌頂上浪翻空元後示疾請西堂應庵華付囑院事訓徒如常時俄握拳而逝茶毗得五色舍利齒舌右拳不壞塔於寺東北劉阮洞前世壽五十三

南宋臨安淨慈寺沙門譯妙倫傳

譯妙倫字斷橋姓徐氏黃巖人也母夢月而孕十八落髮於永嘉廣慈院見谷源道於瑞巖聞麻三稱語疑之徧叩諸方機終未湊自謂口訥耳聵不若根本修行日以誦經為業忽閱楞伽於雲居見山堂至蚊蟲螻蟻無有言說而能辦事頓然有省曰趙州柏樹子語可是直截然不以語人還謁無準於雪竇準以狗子因何有業識令下一語凡三十轉不契倫曰可無方便乎準以真淨所頌荅之即竦然良久忽聞板聲通身汗下於是始脫然矣準移育王雙徑俱以倫從俾分座出主祇園遷瑞巖國清至淨慈上堂荊山有玉獲得者不在荊山赤水有珠拾得者不在赤水衲僧有無位真人證得者不在面門驀拈拄杖按云會麼幽州江口石人蹲又嘗舉慈明室中安一盆水盆上橫一柄劍劍上安一兩草鞵凡見僧來便指擬議便打自頌云百花叢裏躍鞭過俊逸風流有許多未第儒生休眼覷滿懷無奈舊愁何又云德山低頭夾山點頭俱抵豎起手指頭元沙築破腳指頭提起拄杖云一葉落天下秋將終與大眾入室索筆作書辭諸山及魏國公公饋藥不受又使人問曰師生天台因甚死淨慈荅云日出東方夜落西遂晏然而化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慧遠傳(靈巖徽)

釋慧遠眉山彭氏子年十三從藥師院宗辯薙染首詣大慈講肆次參靈巖徽禪師微有所入會圓悟復住昭覺遂投之值悟普說舉龐居士問馬祖不與萬法為侶因緣遠頓悟仆於眾中眾掖之起遠乃曰吾夢覺矣至夜小參遠出問曰淨裸裸空無一物赤骨力貧無一錢戶破家亡乞師賑濟悟曰七珍八寶一時拏遠曰禍不入謹家之門悟曰機不離位墮在毒海遠便喝悟以拄杖擊禪牀云喫得棒也未遠又喝悟連喝遠便禮拜自此機鋒俊發無所抵午初住臯亭山顯孝宋乾道六年十月十五日詔遷靈隱上堂僧問即心即佛時如何曰頂分了角僧曰非心非佛時如何耳墜金環僧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又作麼生曰頽頂修羅舞柘枝七年七月十五日召入選德殿賜坐孝宗問如何免得生死遠對曰不悟大道終不能免帝曰如何得悟遠曰本有之性究之無不悟者帝曰悟後如何遠曰悟後始知脫體現前了無毫髮可見之相帝首肯之帝又曰即心即佛如何遠曰目前無法陛下以甚麼作心帝曰如何是心遠正身又手立曰只這是帝大悅八年秋八月七 召遠入東閣賜坐帝曰前日夢中忽聞鐘聲遂覺不知夢與覺是如何遠曰陛下問夢耶問覺耶若問覺而今正是寐語若問夢而夢覺無殊教誰分別夢即是幻知幻即離覺心不動故曰若能轉物即同如來帝曰夢幻既非鐘聲從甚處起遠曰從問處起帝又問曰前日在此閣坐忽思得不與萬法為侶有個見處遠曰願聞帝曰四海不為多遠曰一口吸盡西江水又如何帝曰亦未曾欠闕遠曰纔涉思維便成剩法正使如斷輪如閃電了無干涉何以故法無二故見無二見心無別心如天無二日帝悅賜佛海大師之號淳熙二年乙未秋示眾說偈曰淳熙二年閏季秋九月旦鬧處莫出頭冷地著眼看明暗不相干彼此分一半一種作貴人教誰賣柴炭向你道不可毀不可讚體若虛空沒涯岸相喚相呼歸去來上元定是正月半明年正月忽感微疾果於上元說偈曰拗折秤鎚掀翻露布突出機先鴉飛不度安坐而逝留七日顏色不異全身塔焉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智策傳(寂室光 大圓)

釋智策字塗毒天台陳氏子生而聰敏卓邁羣兒不樂世華潛思寥廓幼依護國楚光落髮授以僧儀一鉢蕭然研窮三藏首造國清寂室光公灑然有省次往明州謁萬壽大圓禪師問甚處來曰天台圓曰曾見智者麼曰即今亦不少圓曰因甚在汝腳跟下曰當面蹉過圓曰尚人不耘而秀不扶而直也一日辭圓出門送之拊其背曰寶所在近此城非實策敬諾欲往豫章參典牛遊道由雲居因風雪塞塗無客進履越四十二日午聞板聲豁然大悟及造典牛之門牛獨指策曰何處見神見鬼來策曰雲居聞板聲來牛曰是甚麼曰打破虛空全無柄靶牛曰向上事未在曰東家暗坐西家廝罵牛曰嶄然起出佛祖他日起家一麟足矣後住雙徑大宏典牛之道四方學者鱗布蝟集將示寂時為文以祭自危坐傾聽至云尚饗為之一笑後兩日沐浴

更衣集眾說偈曰四大既分飛煙雲任意歸秋天霜夜月萬里轉光輝泊然而逝塔全身於寺東岡之麓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道樞傳

釋道樞字懶庵吳興徐氏子也嘗參道場慧禪師得授心印道業日隆初主何山移華藏隆興初詔遷靈隱宋孝宗召入內殿賜坐問曰禪道之要可得聞乎對曰此事在陛下堂堂日用應機處本無知見起滅之分聖凡迷悟之則第護正念則與道相應亡情卻物則業不能繫盡去沈掉二病自忘問答之意矧今見在般若光明中何事不成見也上為之首肯後以老乞退居明教之永安逍遙自適嘗題偈於壁曰雪裏梅花春信息池中月色夜精神年來可是無佳趣莫把家風舉似人淳熙丙申八月示微疾書偈而逝塔於永安

南宋明州普陀山沙門釋慧暉傳(悟明)

釋慧暉字自得姓張氏會稽人也幼依澄照道疑染削進具年二十扣真歇於長蘆微有所證旋里謁宏智智舉當明中有暗不以暗相遇當暗中有明不以明相覩問之語不契初夜定回往聖僧前熱香宏智適至暉見之頓悟前語次日入定智舉堪嗟去日顏如玉卻歎回時鬢似霜暉曰其人離其出微自爾問荅無滯智許為室中真子紹興丁巳開法普陀徙萬壽及吉祥雪竇淳熙三年勅主淨慈上堂朔風凜凜掃寒林落葉歸根露赤心萬派朝宗船到岸六窗虛映芥投鍼本成現莫他尋性地間間曜古今戶外凍消春色動四山渾作木龍吟又云谷之神樞之要裏許旁參回途得妙雲雖動而常間月雖晦而彌照賓主交參正偏兼到十洲春盡花凋殘珊瑚樹林日杲杲又嘗舉風幡語乃曰風幡動處著得箇眼即是上座風幡動處失卻箇眼即是風幡其或未然不是風幡不是心衲僧徒自強錐鍼巖房雨過昏煙淨臥聽涼風生竹林七年秋退歸雪竇十年冬十一月二十九日中夜沐浴而逝塔於明覺之左後有晦翁悟明者福州人上堂舉夾山會下一僧到皋亭禮拜亭便打僧再拜又打趨去僧回舉似夾山山云會否云不會山云賴汝不會汝若會即夾山口啞去應庵拈云皋亭一期忍俊不禁爭奈拄杖放行太速當時此僧莫道皋亭夾山便是達摩也應斬為三段明云皋亭夾山門庭施設各得其宜但中間一人較些子應庵與麼道也是鞏縣茶瓶嘉定十年明纂修聯證會要至今傳於叢林

南宋臨安徑山寺沙門釋寶印傳

釋寶印字別峰嘉州李氏子也幼通六經長窮七史忽厭塵俗志慕竺典乃從德山清素得度往聽華嚴起信盡得旨覺勞算沙終非解脫遂依中峰密印民禪師密印舉僧問岩頭起滅不停時如何巖叱曰是誰起滅印聞大悟會圓悟歸昭覺遣印往省隨眾入室悟問從上諸聖以何接人印豎起拳悟曰此是老僧用底何者是從上諸聖用底印以拳揮之悟亦舉拳相交大笑而止又謁大慧於徑山慧問甚麼來曰西川慧曰未出劒門關與汝三十棒了也曰不合起動尊者慧欣然後住雪竇淳熙七年秋召印問道賜肩輿入選德殿帝曰三教聖人本同這個理否對曰譬如虛空東西南北初無二也帝曰但聖人所立門戶則不同耳如孔子性以中庸設教印曰非中庸如何安立世間故法華云治世語言資生業等皆與實相不相違背華嚴云不壞世間相而成出世法帝曰今時士大夫學孔子者多只工文字語言不見夫子之道不識夫子之心惟釋氏禪宗不以文字教人直指心源頓令悟入不亂於生死之際此為殊勝印曰非獨後世不見夫子之心嘗見孔門顏子號為具體盡平生力量只道得瞻之在前忽焉在後竟捉摸不著而夫子分明八字打開向諸弟子道二三子以我為隱乎吾無隱乎爾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是丘也以此觀之夫子未嘗迴避諸弟子而諸弟子自錯過了也昔張商英曰吾學佛然後能知儒此言實為至當帝曰朕意亦謂如此帝又問莊子若何如人印曰只是佛法中小乘聲聞以下人也蓋小乘厭身如桎梏棄智如雜毒化火焚身入無為界即如莊子所謂形固可使如槁木心固可使如飛灰若大乘人則不然度眾生盡方證菩提正如伊尹所謂予天民之先覺者也將以斯道覺斯民也有一夫不被其澤者若己推而內溝中也帝大悅詔住徑山開堂曰三世諸佛以一句演百千萬億句收百千萬億句祇在一句祖宗門下半句也無祇恁麼合喫多少痛棒諸仁者且道諸佛是祖師是若道佛是祖不是祖是佛不是取舍未忘若道佛祖一時俱是一時俱不是顛預不少且截斷葛藤一句作麼生道良久曰大蟲裏紙帽笑人又驚人十年二月帝註圓覺經賜印命作敘流行紹熙元年十一月往見智策禪師訣別策問行日印曰水到渠成索紙書云十二月初七夜雞鳴時也果至期而化留七日顏色明潤髮長頂溫葬全身於西岡諡曰慈辯塔曰智光

- 習禪篇第三之四(正傳十三人 附見人人)
 - 南宋餘杭淨慈寺沙門釋重顯傳(韓大伯 善暹)
 - 常州華藏寺沙門釋有權傳
 - 南康雲居寺沙門釋德昇傳(慧溫)
 - 南康雲居寺沙門釋白圓傳(善能)
 - 臨安淨慈寺沙門釋彥充傳
 - 潭州上封寺沙門釋諱才傳(海印隆)
 - 明州天童寺沙門釋文禮傳
 - 臨安靈隱寺沙門釋德光傳(光化吉)
 - 江州東林寺沙門釋道顏傳
 - 福州西禪寺沙門釋鼎需傳
 - 建寧沙門釋道謙傳
 - 平江覺海寺沙門釋法因傳
 - 眉州中巖寺沙門釋蘊能傳(澄甫 崇真)

南宋餘杭淨慈寺沙門釋重顯傳(韓大伯 善暹)

釋重顯字隱之姓李氏遂寧人也依普安仁銑出家受具後橫經講席究理窮玄詰難轉深機辨無敵咸欽法器元瑩講圓覺疏於大慈寺顯往復辯難瑩不能屈曰聞南方有得諸佛清淨法眼者彼待子之求也久矣往詣石門留居三年殊無所契負簋南游首造智門[袖-由+乍]即申問曰不起一念云何有過門召近前擊以拂子方擬陳詞又忽擊之遂豁然開朗無可言說將造錢塘值曾學士於淮南以書薦於珊禪師顯至靈隱浮沈眾中忽焉三載曾奉使歸訪之靈隱無識之者乃於淨頭寮舍物色得之曾詢薦書顯出袖中納之曰公意勤勤然行腳人非書郵也珊由是奇之有為道日損偈曰三分光陰二蚤過靈臺一點不楷磨區區逐日貪生去喚不回頭爭奈何出住翠峰忽遷淨慈未幾移主雪竇上堂僧問雪覆蘆花時如何曰點曰如何則為祥為瑞也顯乃頌曰雪覆蘆花欲暮天謝家人不在漁船白牛放卻無尋處空把山童贈鐵鞭一日遊山四顧瞿瞿悠然神遠久之謂侍者曰何日復來於此侍者哀乞遺偈顯曰平生唯患語之多矣翌辰出杖履衣盂散及徒眾乃曰七月七日復相見耳至期盥沐攝衣北首而逝塔於寺之西塢追諡明覺嘗同于祕丞賦瀑泉大禹不知鑿來源亦自成色應憐眾白聲合讓孤清遠勢曾吞海飛流未噴鯨靈槎如可放天際問歸程雪竇漫興春山亂疊青春水漾虛碧寥寥天地間獨立望何極日暮游東澗極日生晚照幽情

春蘭芷白蘋葉裏風不在秋江起送僧下雪竇雲衣輕拂下層巒松桂生風觸袖寒誰問親遊乳峰意百千年後與人看寄大平瑞千朵危峰杳靄間石房長帶瀑聲寒鳥啼花發尋常事松木青青雪裏看同時有韓大伯修苦行於大陽顯時為典客與客論趙州宗旨大伯侍其旁匿笑客退顯數之曰我偶客語汝乃慢笑笑何事大伯曰笑知客智眼未正擇法不明顯曰豈有說乎對以偈曰一兔橫身當古路蒼鷹才見便生擒後來獵火無靈性空向枯椿舊處尋顯陰異之結以為友後顯主雪竇法席之盛號雲門中興顯嘗經行植杖眾衲環之忽問曰有問雲門樹凋葉落時如何曰體露金風雲門答遮僧邪為說解邪有宗上座曰待老漢有悟處即說顯熟視驚曰非韓大伯乎曰老漢瞥地也於是令摠鼓集眾顯曰大眾今日雪竇宗上座乃是昔年大陽韓大伯具大知見晦迹韜光欲得發揚宗風幸願特升此座遂升座一眾大驚善暹初參德山後至雪竇謁顯顯喜其俊逸曰海上橫行暹道者遂命分座說法顯欲其住金鵝暹書二偈而去不是無心繼祖證道慚未廁嶺南能三更月下離巖竇眷眷無言戀碧層二十餘年四海間親師擇友未嘗聞今朝得到無心地却被無心趁出山

南宋常州華藏寺沙門釋有權傳

釋有權字伊庵姓祁氏昌化人也髫齡出家十四得度篤志勤勵博究群章年十八知有向上殫力參求首禮佛智裕於靈隱時無庵充首座權入室請益庵以從無住本建一切法問之權久而有省答曰暗裏穿針耳中出氣庵可之遂密付心印既有所得精進益堅一夕危坐深入禪那至於達旦雖行粥至忘乎展鉢鄰僧以手觸之頓然大悟偈曰黑漆崑崙把釣竿古帆高掛下驚湍盧花影裏弄明月引得盲龜上釣船佛智深加稱賞一日問權心包太虛量周沙界時如何對曰大海不宿死屍佛智撫其座曰此子他日據此訶佛罵祖權於是深自韜晦寄跡湖湘江浙之間十年然後或依應庵或見大慧凡明眼宿德躬往禮謁無庵出主道場召權分座說法自是聲播諸方未久有華藏之命開堂云禪禪無黨無偏迷時千里隔悟在口皮邊所以僧問石霜如何是禪霜曰甌甌僧問睦州如何是禪州曰猛火著猛油煎僧問首山如何是禪山曰猢猻上樹尾連顛乃知道無橫徑立處孤危然此三大老而行聲前活路用劫外靈機若以衲僧正眼檢點將來不無優劣一人如張良入陣一人如項羽用兵一人如孔明料敵若人辨白得出可與佛祖齊眉雖然如是忽有箇出來道長老話作兩橛了也適來說道道無橫徑無黨無偏而今又分許多優劣且作麼生祇對還委悉麼把手上山齊著力咽喉出氣自家知淳熙庚子秋示微疾書偈而逝茶毘齒舌不壞舍利五色者無數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德昇傳(慧溫)

釋德昇字頑庵漢州何氏子也幼溺塵滓長便醒悟二十得度游心講席三學四眾以義虎推焉忽以支解自嫌翻然易輟更衣頂笠謁文殊道懇示佛法省要之音道說偈曰契丹打破波斯寨奪得寶珠村裏賣十字街頭窮乞兒腰間掛箇風流袋昇將擬對道叱曰莫錯於是退參三年方領前旨入閩鼓山禮觀竹庵問國師不跨石門句意旨如何竹庵應聲曰間言語言下頓悟後有僧問如何是無位真人昇曰聞時富貴見後貧窮釋慧溫字蘿庵福州鄭氏子與昇同依竹庵未幾因竹庵謝事自以胸次尚未灑然又謁高庵悟南華曷草堂清諸耆宿俱承賞許會竹庵遷閩乾元溫復歸省竹庵曰情生智隔想變體殊不用停因長智道將一句來溫釋然悟入呈偈曰拶出通身是口何妨罵雨訶風昨夜前村猛虎咬殺南山大蟲竹庵肯之後住通州狼山與昇共樹竹庵赤幟為一方良道

南宋南康雲居寺沙門釋自圓傳(善能)

釋自圓字普雲緜州雍氏子也夙有靈根少能割愛脫彼欲梏棲此法林年十九試經得頒祠牒染衣之後先探律宗作犯止持白圭良璧淹流教海五祀而後出關南下徧扣尊宿始入龍門偶步廊廡觀繪壁間胡人之像忽爾有省至夕白於高庵庵舉法眼偈曰頭戴貂鼠帽腰懸羊角錐語不令人會須得人譯之庵即筵火示之曰我為汝譯了也圓於言下大悟呈偈曰外國言音不可窮起雲亭下一時通口門廣大無邊際吞盡楊岐栗棘蓬高庵遣侍佛眼眼曰吾道東矣釋善能亦高庵嗣法門人其族嚴陵一日高庵普請擇菜次庵知其緣熟忽以貓兒擲能懷中能擬議被庵欄胸踏倒豁然大悟起惟吟笑而已曆年既久德馨遠聞緇素傾心出住福州中際大闡宗風世稱雙樹法幢云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彥充傳

釋彥充字肯堂於潛盛氏子也生而慧性朗然善根內著爰在髫年願脫塵羈依明空院義堪薙髮五夏學律一鉢孤征逕造大愚宏智正堂大圓後聞僧舉東林顏示眾曰我此間別無玄妙祇有木札羹鐵釘飯一任汝等咬嚼彥竊喜之直謁陳所見解東林謂曰據汝所見處正坐在鑑覺中也彥盡將從前所得一時颺下專注一心精勤參究一日聞傍僧舉南泉道時人見此一株花如夢相似乃默自覺曰打草祇要蛇驚耳次日入室東林問那裏是巖頭密啟其意處彥曰今日捉敗這老賊林曰達摩大師性命在汝手裏也彥擬開口驀然被林一擊豁爾大悟汗流浹背點首言曰臨濟道黃蘗佛法無多子豈虛語哉呈偈曰為人須為徹殺人須見血德山與巖頭萬里一條鐵林深然之

南宋潭州上封寺沙門釋諱才傳(海印隆)

釋諱才字佛心福州姚氏子也幼為驅烏弱冠得度精求律部持犯霜清慕最上乘不憚遐扣一念力參首謁海印隆於大中偶見老宿達道看經至一毛頭師子百億毛頭一時現處才問曰一毛頭師子作麼生得百億毛頭一時現達曰汝乍入叢林未可理會許事才疑之適海印夜參至結座擲拄杖曰了卻毛端吞巨海始知大地一微塵才豁然有省次謁黃龍死心不契乃參靈源凡入室出必揮淚曰此事我見甚是分明祇臨機吐之不出奈何源曰須是大徹方得自在一日竊觀鄰僧讀曹洞廣錄至藥山採薪歸有僧問甚處來山曰討柴來僧指腰下刀曰鳴剝剝是甚麼山拔刀作斫勢才忽然大悟即揭簾趨出說偈曰徹徹大海乾枯虛空迸裂四方八面絕遮欄萬象森羅齊漏泄初住上封屢遷名剎詞河辯海潮湧波騰學者無能湊泊其涯涘也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文禮傳

釋文禮字滅翁姓阮氏臨安人也家於天目山麓因別號天目生性聰慧別具靈穎家世田作嘗在髫年從母出桑攜籃相隨母戲之曰提筐者誰忽焉有省始懷出塵之想年十六依邑之真相寺智月得度參淨慈混源不契謁佛照光於育王問風動旛動應對機敏喜其俊邁使掌書記久之還浙西聽一心三觀之旨於上天竺時擬議之間頓忘知解往參遂印可尋復辭去禮祖塔於江淮間因至蔣山浙翁琰留之分座嘉定五年張約齋居士鎡請開法於臨安慧雲既而遷溫之能仁未幾辭歸西丘時節齋趙公慕禮高行微服過西丘禮亦不問姓氏與語終日而去明日奏請禮住持淨慈復移居福泉遷住天童禮素崇古誼高絜簡儉不苟笑言其說法則風雅流麗讀之非解人亦復神動嘗誦楞嚴經諸可還自然非汝不汝還者非汝而誰句下忽作偈曰不汝還者復是誰殘紅流在釣魚磯日斜風定無人掃燕子銜將水際飛冬至上堂云黃鐘纔起時九數從頭數相將幽谷鶯啼次第雕梁燕語田父祭勾芒叢祠敲社鼓農父狎牛郎村姑教蠶婦光陰老盡世間人冬至寒食一百五其他妙語類如此尤邃於易乾渙諸儒大闡道學禮與之遊晦翁朱子問母不敬禮叉手示之楊慈湖問不欺之力答曰此力分明在不欺不欺能有幾人知要明象兔全提句看取陞階正笏時禮領剎五前後八九載餘多逍遙於梁渚西上而群衲聚扣與住院無異將入寂謂侍者曰誰與我造無縫塔或請其式曰盡力畫不出乃怡然脫去世壽八十有四闍維收舍利無算祔於應庵華塔之左尤煇序其語錄嗣法弟子橫川琪石林鞏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德光傳(光化吉)

釋德光賜號佛照臨江彭氏子也志學之年即依郡之光化吉菴髮受具一日入室吉問曰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箇甚麼光罔措通夕不寐次日復登方丈請曰昨蒙垂問既不是心不是佛又不是物畢竟是甚麼望乞慈悲指示吉乃震威喝曰這沙彌更要我與你下註腳拈棒劈脊一擊於是有省次謁月庵杲應庵華百丈震皆無所入適大慧住明州阿育王四海英才鱗集光亦造焉入室大慧舉竹篋問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得下語不得無語光擬對大慧便棒光豁然大悟從前所得到此瓦解冰消侍久之宋孝宗慕光道價降詔命住靈隱一日召問對答稱旨留宿內觀堂後示寂塔於東庵

南宋江州東林寺沙門釋道顏傳

釋道顏字卍庵潼川鮮于氏子也初參圓悟但登堂未能造其玄奧圓悟將還蜀以書遺大慧曰顏彩繪已特未點眼耳他日未可量也於是朝夕質疑於慧方大悟徹聲光遐溢黑白咸被其化僧問如何是佛顏曰誌公曰學人問佛何答誌公顏曰誌公不是閒和尚如何是法顏曰黃絹幼婦外孫壻曰曰是甚章句顏曰絕妙好辭曰如何是僧顏曰釣魚船上謝三郎曰何不直說顏曰玄沙和尚凡所說法簡易如此

南宋福州西禪寺沙門釋鼎需傳

釋鼎需字懶庵福之林氏子也幼業儒舉進士振振有聲年二十五因閱遺教經忽省曰幾為儒冠悞也即欲舍俗母氏難以親迎在期需笑絕之曰夭桃紅杏一時吩咐春風翠竹黃華此去永為道侶遂依保壽樂為大僧徧參名宿歸里結庵羗峰三年嘗以即心即佛話問學者時妙喜庵於洋嶼晦庵光在侍特以書招之曰此問庵主手段與諸方別可來少款如何需不答光以計邀至值妙喜為眾入室需欲隨喜而已妙喜因舉僧問馬祖如何是佛祖云即心是佛你作麼生需下語喜詬曰汝見解如此敢妄為人師耶乃鳴鼓訐為邪解需淚交頤不敢仰視自默計曰我既為所排而西來不傳之旨豈正此耶遂求人弟子之列一日妙喜問曰內不放出外不放入正恁麼時如何需擬開口喜拈竹篋劈脊三擊之需大悟厲聲曰如此已多了也喜復擊之需禮拜喜笑曰今日方知吾不汝欺也即以偈曰頂門豎亞摩醯眼肘後斜懸奪命符瞎卻眼卸卻符趙州東壁掛葫蘆自此名喧叢席始稱具眼宗匠云

南宋建寧沙門釋道謙傳

釋道謙建寧人未詳氏族初依佛果無所入妙喜住徑山謙亦在侍令往長沙通書於張紫巖乃自謂參禪二十年尚無個人處又有此行豈不荒廢乎將辭之同寮宗元叱曰不可豈以在路參禪不得耶汝去吾與俱往一日在途泣曰一生參禪無得力處今奔波若此何得相應元曰你但將諸方參得悟得并圓悟妙喜與說得底都不要理會途中我可替者盡替汝只有五事替不得須自承當曰何為五事元曰著衣吃飯遺矢放尿馱個死屍路上行謙於言下大徹不覺手舞足蹈元曰汝此回方可通書吾先歸矣後半載返雙徑妙喜於山門外亭一見便曰建州子這回自別也

南宋平江覺海寺沙門釋法因傳

釋法因姑蘇嶠山朱氏子也少泊塵俗無意出纏年二十四始披緇服不終五夏遽爾遊方謁慧日雅於東林慧日舉靈雲見桃花悟道因緣問之擬對曰曰不是不是忽有所契呈偈曰巖上桃花開花從何處來靈雲纔一見回首舞三臺慧日戒曰子雖見已入微更猛著鞭當明大法於是居蘆阜三十年不與世接四方仰之學者奔赴就其鑪鞴因亦不辭煅煉隨機說法宋建炎末盜起江左乃順流東歸覺海緇白踵門問道嘗謂眾曰汝等當飽持定力弗憂晨炊干求外務也晚年放浪自若稱曰五松散人

南宋眉州中巖寺沙門釋蘊能傳(澄苟 崇真)

釋蘊能號慧目姓呂氏眉人也少習儒博究經史年二十二校書村落偶於山寺見禪冊在几閱之似有得遂裂衣冠投僧圓具一鉢遐遊首參寶勝澄甫禪師徵詰酬酢所趣頗異逕往荆湖方謁永安喜真如喆德山繪諸公造詣益邁次抵大瀉參璿禪師問曰桑梓何處曰西川璿曰聞西川有普賢菩薩示現是否曰今日親瞻慈像璿曰白象何在曰爪牙已見璿曰會轉身麼能提具繞禪牀一帀璿帀曰不是能趨出一日璿問僧黃巢過後有人收得寶劍麼僧豎起拳璿曰菜刀子僧曰爭奈受用不盡璿喝出次問能亦豎拳璿曰也是菜刀子能便近前一築曰殺得人即休璿笑曰三十年弄騎馬今日被驢撲由是聲播諸方返蜀初主報恩次居中巖室中嘗問崇真氈頭曰如何是你空劫已前面目真忽領悟對曰且低聲遂呈偈曰萬年倉裏曾饑饉大海中住儘長渴當時尋時尋不見今日避時避不得能印可之能住持三十餘年說法不許人錄臨終書偈辭眾端坐而化闍維時暴風忽起煙之所至皆雨舍利道俗斷地亦有得者心舌不壞

- 習禪篇第三之五(正傳十三人 附見三人)
 - 南宋餘杭靈隱寺沙門釋之善傳
 - 明州天童寺沙門釋曇華傳
 - 婺州智者寺沙門釋真慈傳
 - 福州鼓山寺沙門釋安永傳(安分)
 - 臨安淨慈寺沙門釋曇密傳
 - 明州天童寺沙門釋咸傑傳
 - 夔州臥龍山沙門釋祖先傳(法薰)
 - 臨安靈隱寺沙門釋崇嶽傳
 - 臨安徑山寺沙門釋師範傳
 - 名山天寧寺沙門釋禪惠傳
 - 巴川宣密院沙門釋顯嵩傳(淨業)
 - 平江靜慈寺沙門釋法全傳
 - 臨安徑山寺沙門釋道冲傳

南宋餘杭靈隱寺沙門釋之善傳

釋之善字妙峰姓劉氏吳興人參佛照光於鄮山照舉風幡語妙峰直截了當機鋒不讓遂印可贈偈曰今日與君通一線斬釘截鐵起吾宗乃遊匡廬面壁妙高峰下十載出世慧因洪福萬年諸刹會天童虛席時鄭清之秉鈞軸謂非妙峰莫屬因勉其行妙峰答曰老僧踰耄矣尚夜行不休乎鄭公高之晚住靈隱上堂云久參高士眼空四海鼻孔撩天見也見得親說也說得親行也行得親用也用得親只是未識老僧拄杖子在何以故將成九仞之山不進一簣之土妙峰平生善誘一經指授輒神融意悟端平二年九月示寂壽八十四臘七十一荼毘舍利不可數計塔靈隱西岡鄭清之為之銘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曇華傳

釋曇華字應庵蘄州汪氏子也生而奇傑不類凡兒年十七依於東禪薙髮首謁遂師略得染指法味於是徧參知識靡所契證聞圓悟住雲居煅煉學者華往禮焉因依之悟乃痛與錐剗值悟返蜀指見虎邱隆趨侍一載頓明大事已而訪此庵元命分座於是開堂妙嚴遷歸宗時大慧在梅陽有僧傳華示眾語大慧見之極口稱歡復寄偈曰坐斷金輪第一峰千妖百怪盡潛蹤年來又得真消息報道楊岐正脈通虎邱忌日拈香曰生平沒興撞著這

無意智老漢做盡伎倆湊泊不得從此卸卻干戈隨分著衣吃飯二十年來坐曲糸牀懸羊頭賣狗肉知他有甚憑據雖然一年一度燒香日千古令人恨轉深世稱華興二甘露門嘗戒徒眾曰衲僧著草鞋住院何事口如龜蛇惡窟乎宋隆興元年六月十三日奄然而化塔於東山

南宋婺州智者寺沙門釋真慈傳

釋真慈字元庵潼州李氏子也總角即慕空寂好遊伽藍懇父母依成都之正法院圓頂受具足大小乘戒潔肅冰雪解慧日隆耽嗜貝文徧遊講肆聽圓覺修多羅至四大各離今者妄身當在何處畢竟無體實同幻化因而有省頌曰一顆明珠在我這裏撥著動著放光動地呈似諸座講師無能識者歸舉受業師師以狗子無佛性話詰之慈曰百千公案無出此頌也師乃叱出因而南遊廬阜掛錫圓通時卍庵為西堂為眾入室舉僧問雲門撥塵見佛時如何門曰佛亦是塵慈聞豁然隨聲便喝以手指胸曰佛亦是塵復呈頌曰撥塵見佛佛亦是塵問了答了直下翻身勸君更盡一杯酒西出陽關無故人又頌塵塵三昧曰鉢裏飯桶裏水別寶崑崙坐潭底一塵塵上走須彌明眼波斯笑彈指笑彌指珊瑚枝上清風起卍庵頷之於是聲揚四表道洽殊途出主智者誨誘學者大屠龍之手焉

南宋福州鼓山沙門釋安永傳(安分)

釋安永字木庵姓吳氏閩人也永生具道質行止肅然身泊愛纏心懷遐舉弱冠薙髮高標物外聞有別傳之道乃謁懶庵於雲門入室之際庵顧而問曰不問有言不問無言世尊良久不得向良久處會隨後便喝永倏然契悟作禮曰不因今日問幾喪目前機懶庵許之辛卯住當山上堂舉睦州示眾云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不得忘卻老僧永曰恁麼說話面皮厚多少木庵則不然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直須颺下箇入處始得凡所說法簡明如此時有安分庵主少與永共肄業於安國後永偕依懶庵不契辭謁大慧於徑山行次錢塘江干仰瞻宮闕忽聞街司喝侍郎來分忽大悟偈曰幾年箇事掛胸懷問盡諸方眼不開肝膽此時俱裂破一聲江上侍郎來竟回西禪懶庵迎之付以伽黎衣自爾不規所寓後庵居劍門化被嶺表學者從之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曇密傳

釋曇密字混源天台盧氏子也生即英敏穎異非凡幼失所天志懷高邁初依邑之資福道榮研窮竺教十六圓具登大僧籍大小律部瑩無瑕疵精習天台教觀而於頓漸偏圓性具理毒之旨如指諸掌一日歎曰教乘之妙無

得而稱但未離於名言終非見性不若更衣從別傳之學倘有隙見足快生平聞大慧唱道徑山頂笠謁之又訪雪巢一此庵元諸公皆無省發於是從閩而之泉南投教忠光因職維那聞忠舉香嚴擊竹因緣豁然契悟呈偈忠詰玄沙未徹之語對酌無滯始囑曰子此後方可見大慧也於是受教辭往梅陽服勤四載慧嘗命分座出住淨慈大宏教忠之道戶外履常滿示寂塔於寺西北隅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咸傑傳

釋咸傑字密庵福州鄭氏子也其母夢廬山老僧入舍遂舉傑自幼穎異過人及壯鬚髮進具徧參知識最後謁應庵華於衢州明果庵一日問曰如何是正法眼答曰破沙盆應庵頷之說偈曰大徹投機句當陽廓頂門相從今四載徵結洞無痕雖未付衣鉢氣宇吞乾坤卻把正法眼喚作破沙盆後出住衢州烏巨庵次遷祥符蔣山華藏未幾詔主徑山及靈隱上堂牛頭橫說豎說不知有向上關楨子有般漆桶漢東西不辨南北不分如何是向上關楨子何異開眼尿牀我有一轉語不在向上向下千手大悲摸索不著老僧今日布施大眾去矣良久曰達摩大師無當門齒上堂卓拄杖曰迷時祇迷這箇復卓一下曰悟時祇悟這箇迷悟兩忘糞掃堆頭重添搯[打-丁+(天/非)]莫有東涌西沒全機獨脫處道得一句底麼若道不得老僧自道去也擲拄杖曰三十年後又舉金峰示眾曰老僧二十年前有老婆心二十年後無老婆心僧問如何是有老婆心峰曰問凡答凡問聖答聖僧又問如何是無老婆心峰曰問凡不答凡問聖不答聖傑曰我當時若見他恁麼說好向他道你若自瞥地去自然不落這聖凡窠臼也又舉婆子燒庵話畢傑曰這箇公案叢林中多有拈提者老僧今日裂破面皮不免對眾納敗闕一上定要諸方檢點明白乃召眾曰這婆子住處深隱水泄不通徧向枯木上糝花寒巖中發燄這僧孤身迴迴慣入洪波等閒坐斷潑天潮頭到底自無涓滴仔細檢點將來敲枷打鎖則不無若謂佛法二人俱未夢見今老僧與麼提持畢竟意歸何處良久曰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欄杆上堂卓拄杖曰盡大地喚作一句子擔枷帶鎖不喚作一句子業識茫茫兩頭俱透脫得了淨倮倮赤洒洒不可把達摩一宗掃地而盡所以雲門大師道盡乾坤大地無纖毫過患猶是轉句不見一法始是半提更須知有全提良久曰劍去久矣方乃刻舟

南宏夔州臥龍山沙門釋祖先傳(法熏)

釋祖先字破庵廣安王氏子也幼歲出家力參祖道夜不安寢一衲隨身聞密庵大宏臨濟之宗遂往參謁密庵深加勘發一日密庵上堂示眾忽有省後密庵住靈隱命之分座偶有道人問曰猢猻捉不住奈何先曰用捉作甚

麼如風吹水自然成文有講楞嚴座主求示先說偈曰見猶離見非真見還盡八還無可還木落秋空山骨露不知誰識老瞿曇時有石田法薰往參先舉世尊拈花迦葉微笑話詰之薰對曰焦軛打破連底凍赤眼撞著火柴頭先領之後付以法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崇嶽傳

釋崇嶽字松源龍泉吳氏子也幼卓犖不凡長慕出世法年二十三棄家依埽塔服謁大慧杲於徑山杲稱應庵華為人徑捷岳聞之即行晨夕咨請應庵大喜以為法器勸令祝髮棟梁吾道隆興二年得度於杭之西湖白蓮精舍參方最久後謁密庵傑聞室中問僧不是心不是佛不是物話忽大悟遂得心印因密庵還靈隱命居首座久之出世首住平江澄照次居江陰光孝饒之薦福明之香山最後居虎邱道化盛行得法者眾寧宗慶元三年詔住靈隱三易寒暑以老乞退居寺之東庵嘉泰二年八月四日手書別公卿垂語示學者曰有大力量人因甚擡腳不起又曰開口不在舌頭上遺囑弟子以闡法是務乃書偈曰來無所來去無所去瞥轉玄關佛祖罔措跏趺而逝壽七十一臘四十塔全身於北高峰之原得法者香山光睦雲居善開

南宋臨安徑山沙門釋師範傳

釋師範字無準梓潼雍氏子也年九歲依陰平山道欽出家讀書過目成誦紹熙六年始遊成都謁正法堯問坐禪工夫堯曰禪是何物坐的是誰範於是晝夜體究一日偶提前話有省明年出遊廣浙謁佛照於育王照問何處人曰劍州又問帶得劍來麼範便喝佛照笑曰這烏頭子也亂做師貧無資雜髮故人目之曰烏頭子破庵居靈隱範侍次有一道者問破庵獼猴子捉不住奈何庵曰用捉作麼如風吹水自然成文範於言下大悟未幾同月石溪公遊天台雁宕時雪峰雲住瑞巖留之分座夜夢一偉人手持把茅授與範次日明州清涼寺專使來迎方入院見伽藍神牌書茅姓其衣冠與夢所見無異住三年遷焦山次雪竇復主阿育王久之補雙徑無何召入大內修政殿說法稱旨賜金襴衣加佛鑑禪師之號範住徑山其殿宇再燬於火皆復新之又去寺四十里築室百楹額曰萬年正續次於其西數百步結庵為歸藏之所又建重閣其上藏朝廷所賜御翰其先世居蜀遇亂絕嗣乃於山中設祠祀其所生祖父事聞於朝賜額曰圓照以徵其孝思宋淳祐戊申築室明月池上榜曰退耕是年三月旦日疾作遂升座謂眾曰山僧既老且病無力與諸人東語西語今勉強出來將從前說不到的盡情向諸人傾吐遂起身披衣曰是多少便歸方丈十五日集眾親書遺表書數十言而與客言笑如平時至夜書偈曰來時空索索去時赤條條更要問端的天台有石橋移頃而逝停龕二七日遺表上聞帝遣中使降香賜幣帛塔於圓照

南宋名山天寧寺沙門釋禪惠傳

釋禪惠名山人家世儒服屢舉不第元符間郡守呂由誠以僧敕戲之遂棄家從釋力參祖道得大開悟初出住邑之天寧寺出入必策馬乘輿諸耆宿言以佛法貴乎苦行固不宜乘輿馬服綺繡惠答以偈曰文殊駕師子普賢跨象王新來一個佛騎馬也無妨凡所說法機鋒敏捷有語錄數卷

南宋巴川宣密院沙門釋顯嵩傳(淨業)

釋顯嵩銅梁李氏子也飽參倦遊出住巴川之宣密院三十年跡不出閩紹興中集眾說偈曰八十年中常浩浩宏開肆貨摩尼寶也無一個共商量不是山僧收捨早言訖端坐而逝茶毘舍利無算時有淨業者石照文氏子少業屠有羊方乳二羔將殺之二羔銜其刀跪伏於門若乞母命業感歎棄家為僧力參宗匠忽大悟作偈曰昨日羅剎心今朝菩薩面羅剎與菩薩不隔一條線

南宋平江靜濟寺沙門釋法全傳

釋法全字無庵崑山陳氏子也生有偉質溫粹不凡幼請父母從道川禪師為僧參請精勤志明大事一日行靜濟寺殿前偶觸首為柱忽大悟傍觀者見其光彩飛動而不自知自此徧遊名山叢席道價益高乾道中將示寂眾求遺偈全瞪目下視眾又請遂援筆書無無二字端坐而逝闍維得舍利五色塔於金斗峰

南宋臨安徑山沙門釋道冲傳

釋道冲字癡絕武信荀氏子也首參杭之妙果曹源生大悟玄旨出主嘉禾之天寧次遷蔣山雪峰無何移住四明天童三年詔補靈隱時京兆尹建法華寺特奏請冲開山允之未赴宋理宗降敕命主杭州雙徑冲謂眾曰不赴法華則不信違徑山之命則不恭既失恭與信何以為後學法遂先就法華開堂月餘即銜旨登徑山於是一眾響合歡聲若雷當住靈隱時朝命改靈隱菜圃為閻妃香火院冲不冝署文字後命養老虎邱臨入滅乃手書記敘得法之由上堂說法辭眾入方丈囑後事至夜分正坐與眾論道移時蛻然而逝時理宗三年三月十五日也壽八十二僧臘六十一茶毘舍利瑩然弟子分塔二處一於菖蒲田玉芝庵一於金陵玉山庵冲嘗游鼓山題詩大頂峰詩曰野徑斜連石澗傍草根呢呢語寒螿郊原經雨多秋意庭院無人自夕陽風捲暮雲歸碧嶂葉隨野水入寒塘數家籬落楓林外枳殼垂青菊綻黃識云淳祐辛酉立秋後三日刻於石

- 習禪篇第三之六(正傳七人 附見六人)
 - 金上京大儲慶寺沙門釋海慧傳(清慧)
 - 濟南靈巖寺沙門釋道詢傳(淨如)
 - 燕都慶壽寺沙門釋教亨傳(普照寶)
 - 燕都潭柘山寺沙門釋政言傳(慈照)
 - 薊州盤山雙峰寺沙門釋廣溫傳(圓新)
 - 鄭州普照寺沙門釋道悟傳(白雲海)
 - 燕都潭柘山寺沙門釋相了傳

金上京大儲慶寺沙門釋海慧傳(清慧)

釋海慧金國人也幼而英敏學不由師魯簡竺冊過目成誦初遊講肆如入龍宮性相玄途無不得其精粹所以法喜禪悅飫義懷真潛蹤五臺刀耕火種就巖傳屋一榻蕭然如是者十有五稊一日歎曰具大願力者當以眾生為急溺是胡為遂攜錫燕都徧歷禪寺隨緣演化七眾雲屯於是聲播寰宇望重都闈金皇統三年六月英悼太子創造大儲慶寺於上京宮右工初告成極世精巧幻若天宮慕慧道價請為開山說法賜牒普度境內童行有籍於官者百萬為僧尼次年詔迎栴檀瑞像供養於寺之積慶閣皇統五年海慧入寂火浴獲舍利五色無算光明徹於空表異香彌旬金主偕后太子親王百官設供五日奉分五處建塔諡曰佛覺祐國大師明年正月詔清慧禪師住持儲慶賜號佛智護國大師特賜金縷僧伽梨衣並賜異瓶罇寶器金主后妃太子頂禮雙足奉服法衣其敬禮兼致古所未有也

金濟南靈巖寺沙門釋道詢傳(淨如)

釋道詢出周氏義城人也世席豐富財雄一鄉詢幼孤事祖母以孝聞但性豪邁喜馳逐獵較日縱鷹犬鄉里多憚之嘗過故人家見讀方冊者直前取視曰是豈汝所能知耶詢氣懾終讀之乃智望禪師十二時誦也讀未竟汗下沾巾乃歎曰報應若斯可奈何即謝歸放黜鷹犬杜門飯脫粟布衣芒屨已萌出世念家人以為狂或加訶禁而志益堅竟投縣之興教寺禮德安落髮旋進具戒力持頭陀行德安以求學勉之發志行腳初參建隆因入室叩請頗領玄妙復至龜山見慈禪師聞靜版有省以頌投慈深蒙印可遂入舒州謁甘露卓卓謂之曰法華言禪師為一時郢匠盍往歸之詢忻然荷擔一見契合淹留四稊偶因小參舉二祖覓心了不可得馬祖即心是佛機緣於

是徹證傳心之旨太湖真乘虛席郡委縣令齎牒勸請詢固辭令請益堅詢碎牒投地峻拒之令駭曰此罪也奈法何眾以詢厲志純一本無慢心祈令得不白州聽舉自代因得遁去詢以名迹為眾指日乃歸義城距舊居數十里得佳泉石處曰冶山構精舍號定光庵將終老焉鄉里子弟執侍瓶錫求度者五十餘人建炎二年大軍渡淮尋據天長詢處倉卒無撓色太尉薛公異之入白統軍迎置軍中及旋軍至沂詢乃辭退於泗水靈光山卜築自晦阜昌六年府帥劉益請主濟南普照猶守前誓專使頻來勢不獲已乃為一出希蹤百丈恪爾清規其於誨導尤示慈航學子仰之奉為指南殿宇圯毀者改建完葺侈不逾舊儉而中禮道力所攝人自樂施皇統元年住靈巖妙空淨如示寂淨如一號方山老拙嗣法薦福英出大宗師門下居山數十載示徒貴機用唯棒喝可語言其自題像讚云眉不脩踈頭突兀鼻磬垂兮顴無骨長憐百醜兼且訥慈禪慈禪不我拙名兮邈兮水裏月咄道聞昭著頗難其繼府帥都運謂一時尊宿德行純備無如詢者命士夫僧正綱維詣寺禮請詢猶謙讓府帥再懇久乃應命以九月五日開堂演法漸欲樹立具牒於府謂供僧歲費無慮三千萬撥賜田畝播種所得時形不足乞依舊例原免科役庶獲飯僧福田上報國恩實久遠利賴府可其請明年春至府求退援引至理詞義切當乃強留結制因日為眾普說入室勤劬不替者彌月眾亦莫測俄有野蜂集於寢堂鴉鵲百數悲鳴上下眾咸怪之夏六月二十三日粥罷即令撾鼓集眾入座垂語詞旨哀切異於曩日翌明示疾右脇而化暑氣蒸蔚停居六日始從荼毘而顏色不變火餘得五色舍利百餘粒瘞靈骨於當山後興塔之右閱歲五十七坐夏三十二有示眾廣語游方勘辯頌古偈贊諸篇詢先在淮甸嘗膺椹服之賜及更名禪定泊北來絕口不言唯號定光庵主詢居心慈恤待人以誠動推惻隱數於道路解衣以遺寒者噤凍而歸又好儲良藥拯救患難見有疾苦如出諸己於是感懷恩誼與參問要法者所至交口稱譽出於自然聞者歡喜願居門下可謂道重一時名高四遠者矣萃堵既成弟子智月哀其行實乞濮陽李魯為之銘立石山阿昭垂來許

金燕都慶壽寺沙門釋教亨傳(普照寶)

釋教亨字虛明任城王氏子也先有汴京慈濟寺僧福安居任城有年精修白業緇素仰重一日托鉢於芒山村乃倚樹化去是夕示夢於女弟馮自彭村見其乘白馬而下曰我生於西陳村王光道家馮覺語母及其子三人夢皆同詰旦至光道家詢之其母劉氏先夕亦夢安公求寄宿焉是日果誕亨乃拳右拇指似不能申但瞬而未笑次日有同業僧福廣福堅聞而來謁見即呼云安兄無恙耶亨熟視舉手伸指而笑其母嘗臥兒於室中若有人誦摩訶般若之聲及晬或以佛經酒杯試之竟取經卷素不茹葷血見僧喜從之遊人皆呼為安山主故芒山村乃以亨事勒諸石記其異年七歲出家依

州之崇覺寺圓公薙染十三受大戒遇苦瓜先生相之曰此兒他日坐道場必領僧萬指年十五遊方聞鄭州普照寶法席之盛於是荷錫自汴發足寶公夜夢慶雲如金芙蓉繽紛亂墜因語眾曰吾十年無夢矣今有此是何祥也翌日亨至寶獨異之朝夕參叩寶亦痛割之一日徑睢陽忽馬上憶擊竹因緣凝情不散如入禪定將抵河津渾無知覺同行德滿呼曰此河津也亨驚遂下馬悲喜交集及歸涕以語寶公寶曰此僵人耳切須更甦轉動始得曾看日面佛公案否曰兒時已念得寶公笑曰我只教汝參諸方掉下底禪但再參去自有得力處一日亨於雲堂靜坐忽聞板聲霍然證入遂呈偈曰日面月面流星閃電若更遲疑面門著箭咄寶公曰我謾汝不得也亨後出世乃五坐道場若嵩山之戒壇韶山之雲門鄭州之普照林溪之大覺嵩山之法王復因金丞相夾谷清臣請主中都潭柘遷濟州普照未幾忽方丈後叢樹中有一株亭亭高丈餘而群鴉以次來巢狀若浮圖上下十二級眾賀曰佛法將大振乎不十日詔住慶壽寺眾常萬人三年繼主少林法席大盛無何引去乃徜徉於嵩少之間時或放歌長嘯如是數年忽杜門堅坐謝絕賓客金興定己卯七月十日誡眾曰汝輩各自勤修索浴說偈端坐而逝年七十坐夏五十有八闍維燄如蓮華開合牙齒目睛不壞舍利無算亨自兒時額有圓珠涌現於皮間至是爆然飛去弟子分設利羅以建塔焉

金燕都潭柘山寺沙門釋政言傳(慈照)

釋政言姓王氏長社人九歲詣資福院淨良祝髮受具戒後參香山慈照嘗入丈室請益慈照曰諸法如意即諸如來政於言下有省即說偈諸緣不壞了性無滅雲散長空碧天皎月照可之後至中都參竹林廣慧通理既而梁園大長公主暨東京留守曹王請住潭柘龍泉寺遂繼惠公法席三歲製頌古拈古各百篇注禪說金剛歌又著金臺錄真心真說脩行十法門皆行於世後大定間說偈而化

金薊州盤山雙峰寺沙門釋廣溫傳(圓新)

釋廣溫姓韓氏高安人幼童超卓不甘俗處卯角雙落受經於習法師禪院幽清夜深盜入溫有所聞堅臥不動黎明習責之曰物為他人所盜寧無侮耶溫曰我人也盜亦人也物有所歸又何憾焉習奇之後參同昌英公英弗納廬於巖谷間三年草衣木食英異之乃許問道又參雲門晦堂及竹林廣慧慧曰從來明暗兩岐依他作解須當棄卻我者裏有箇鐵酸賺從頭一一齧嚼溫舉手謝曰既往不咎乃取篋筥中秘文火之一日頓悟如桶底脫法性圓通無不了然慧印許之出住盤山雙峰寺大定戊子夏示疾而化圓新者范陽六城邨人得法於龍泉英公大定壬午住盤山報國寺次住天城又次住法興後示疾感化謂遠侍者曰吾翌日當行腳去索浴淨髮至夜分復

謂遠曰黎明西北有聲須當報吾至時果符其語聲類鐘磬方趨報新新已脫去茶毘後舌齒不灰

金鄭州普照寺沙門釋道悟傳(白雲海)

釋道悟字佛光蘭州冠氏子也生即齒髮俱長年十六力求出家父母不聽乃絕食幾死遂捨入里中寺祝髮閱二年偶宿臨洮灣子店夢梵僧振聲喚覺忽聞馬嘶豁然大悟喜不自勝說偈曰見也羅見也羅徧虛空只這箇遂歸告父母曰兒於途中拾一物母問何物曰無始來不見了的母掌之曰何喜之有遂辭欲參方去母問汝將何之答曰水流須到海鶴出白雲頭先是熊耳山有白雲海禪師雖住古剎不蓄一徒人或問之海曰芝蘭秀發獨出西秦曰幾時至海曰行腳了也及悟將至海命待者鳴鐘集眾曰我關西弟子來也然此寺原是郭子儀所建今渠自來住持汝當迎之悟方入門海遙見便云相公來何暮也悟進前曰諾海大笑竟授與衣法令繼其席海即退居寺傍先有羣盜盤踞劫掠民受其害或請海捕之海曰非老僧所能也不久郭公至必自捕也民弗解其說後悟居寺方三日乃率眾往擒盡縛之破其穴將欲盡誅賊哀乞命悟從容謂曰汝劫財物傷人命分當死矣今汝乞命獨不念彼命乎賊叩首流血願從三寶戒誓不為非悟為說偈鬚髮釋之自是路不拾遺數十年人始信悟為郭令公再來也金大定二十四年海公歿悟方出主鄭州普照又遷三鄉竹閣庵身著白衣跨黃犢吹短笛遊於洛中嘗曰道我凡耶曾向聖位中來道我聖耶又向凡位中去道我非聖非凡耶卻向毗盧頂上別有行處泰和五年於臨洮大勢寺結夏闡圓覺經謂眾曰此席將半吾當行矣五月十二日晚小參為眾談第一義晨興呼侍僧曰我病覓藥去侍僧將出門悟已蛻矣上有五色祥雲盤結似蓋紅光如日彌塞四維三日不散世壽五十五僧臘三十九弟子舉全身建塔焉

金燕都潭柘寺沙門釋相了傳

釋相了原名行錄姓宋氏義州弘政里人生性質直舉止端重行必正視坐即跏趺髻年聞祖父誦賦至秦皇漢武不死何歸相了便問死歸何處祖異之語其父曰此子非塵俗中人令依郡之大嘉福寺祚師落髮九歲得度習華嚴圓覺諸經神機穎悟發於幼齡歷諸講肆同學相欽咸平石城繼請講授開誘不倦一日忽念經云脩多羅教如標月指經既為標月何所在尋聞遼陽禪剎有大導師單傳佛心不立文字乃罷講席徑往清安訪月公不契遂造咸平見定公復往錦州大明參誘公命掌記室久之亦無所得誘曰汝緣不在此懿州崇福超老人明州嫡嗣也可往依之必為子發其奧耳乃拜辭遽謁超公一見曰叢林主來何暮命掌維那一日問俱胝一指頭禪受用不盡未審和上有多少超應聲一吹相了忽然有省如披雲見月欣躍無量

呈頌曰窺破浮雲月色寒狂心頓歇觸體乾通身光透威音外普應羣機作
大緣超印可乃更名相了自是機峰超逸緇素傾仰因更遁去隱雲峰間禪
悅自樂然令名振飛德芬遠播懿州連帥敦請開法崇福北京留司具疏遷
住松林龍象雲歸人天感慕東京留守曹王嚮其道風請居大惠安六稔規
範肅清但性樂閑寂倦於應對遂夜遁閭山寧國寺枕石眠雲作終焉之計
金明昌時會潭柘虛席功德主岐國大長公主恭請住持四年又晦迹天王
小刹冀國公抑居竹林相了嘗愧名為道累息影無計未經歲退居城隈古
寺龍泉聞知復迎頤老乃欣然從之曰吾將終老此山泰和三年十月終忽
示疾至期索筆書偈曰三十餘年說法弄巧成拙臨岐更為諸人重重漏洩
本來無法與人依舊清風明月偈畢右脇而寂壽七十臘五十二荼毘日有
百千蝴蝶自烈焰中出祥雲五色徧見空中牙齒不毀門人收靈骨樹石塔
焉相了稟性純淨加之慈恕心不忤物一生未嘗略起瞋恚縱遇呵毀容色
不易蓋心如大地八風不能動也嗣法者三人道積相崇善惠各行道一方
云

- 習禪篇第三之七(正傳二十人 附見九人)
 - 元慶元育王山沙門釋如**珙**傳
 - 餘杭徑山寺沙門釋行端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妙恩傳(契祖 真首座 杰道者)
 - 燕都西劉村寺沙門釋行秀傳
 - 餘杭淨慈寺沙門釋原妙傳
 - 保定興聖寺沙門釋德富傳
 - 明州佛巖寺沙門釋天倫傳
 - 吳興霞霧山沙門釋清**珙**傳
 - 錢塘靈隱寺沙門釋法林傳
 - 義烏雲黃山寶林寺沙門釋紹大傳
 - 徑山興聖萬壽寺沙門釋正源傳
 - 金華天龍寺沙門釋守貴傳(大道平 千巖長)
 - 錢塘妙果寺沙門釋水盛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普就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智慧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如照傳(道符 廣遊)
 - 鄒縣大明禪院沙門釋海印傳
 - 餘杭鳳皇山聖果寺沙門釋珠明傳
 - 餘杭吳山聖水寺沙門釋明本傳(惟則)
 - 兗州布金山大雲寺沙門釋行全傳(德友)

元慶元育王山沙門釋如**珙**傳

釋如**珙**字橫川姓林氏永嘉人也生有特性不嘗肉食叔父正則乃為之落髮初見石田於靈隱時國清斷橋延典藏鑰及遷淨慈命為首座元至元十年有旨授**珙**育王懋暢宗風行修精實指示法門深入玄妙數人行履自明去來一日忽自謂曰今年六十六死日將至火之乎土之乎西堂唯庵貫云古鄮山中有一片地荒草**淒**然足安舍利因疊石為塔而自銘焉詞曰天生一穴藏我枯骨骨朽成土土能生物結箇葫蘆挂趙州壁永脫輪迴起三世佛將歿書訣而化時至元二十六年三月十八日也

元餘杭徑山寺沙門釋行端傳

釋行端字原叟姓何氏臨海人也年十二從叔父得度於餘杭化城苦求大法至忘寢食而生有夙慧文字不由師授自能通曉初參藏叟珍珍問何處人答云台州珍便喝端展坐具珍又喝乃於言下豁然有省珍既寂復依淨慈石林鞏為記室與虛谷東嶼晦機為莫逆交大德庚子主湖之資福遂以瓣香歸藏叟居五載學人奔湊名聞京國賜號慧文正辯復遷中竺靈隱徑山諸剎屢承恩寵三錫金襴延祐丙辰有旨設水陸大會於金山命端主其事訖入覲於便殿從容奏對深契聖衷更賜普照之號拂衣南旋止於良渚西庵二十年足不越閩慕其道者鱗萃幾無所容至正辛巳八月四日坐書偈云本無生死焉有去來冰河發燄鐵樹花開投筆垂一足而化壽八十八臘七十六留龕七日顏貌如生塔於徑塢曰寂照分爪髮別建塔於化城

元泉州開元寺沙門釋妙恩傳(契祖 真首座 杰道者)

釋妙恩者全州倪氏子去家人桑門清苦自勵始終無斃脅不沾席者四十二年恩初事游參歷謁宗匠旋入雪峰湘室湘器之至使分坐退歸善見居深自晦匿元至元二十二年泉州僧錄劉鑑義建言行省合開元百二十院為一禪剎明年秋以恩為弟一世上堂云是法非思量分別之所能解三家村裏十字街頭穢語誼囂惡言漫罵總是面門放光助佛揚化其奈學此道者如人畫龍真龍見時卻又驚怕何以如此識真者寡恩履行純實語言無華而人服之叢林法敝以之具興有作人必式之曰是開山剎也嘗夢五百僧求依止黎明傳武林南山羅漢以災燬乃構殿於寺其雕塑瓌偉閩中無出其右者二十九年春應詔入京錫紫伽黎進號帝師三十年春三月望日辭眾以弟子契祖補其處越三日而寂偈曰不須翦剃不用澡浴一堆紅燄千足萬足既火而雨設利斂其骨藏西山諡廣明通慧普濟禪師著有上生經解及語錄行世契祖者出泉之同安嘉禾張氏宋寶祐中侍元智法師智奇其材以龍象期之元至元二十九年恩始以西禪淨淑致之上坐嘗寢疾恩餽藥資卻之以偈曰正坐虛消人信捨生身受此鐵圍殃冶金熱炭都吞盡那更教人入鑊湯恩由是益愛其為人及授以席凜凜自持蓋開元以六百載同門異爨之宅集百有二十院之眾一旦合之恩既褒然首舉造大僧堂闡此願力聿弘制作極盛之後殊難為繼乃祖受茲重託矢以肫誠將以敬恪朝夕懃懇二十有八年達官貴人蒞斯寺者瞻其儀範尊禮有加謂為福慧人也彙其事跡以聞詔賜佛心正悟之號祖善說法語渾然天成時真首座亦能詞頌有聲叢林間偶以隱頌要祖作之祖口占曰自斷胸中更莫疑行藏那許鬼神知直饒天下藏天下未是羚羊挂角時真歎服有杰道者頗清狂出言無度恒掃除巷市所至羣釋相與譁[口*笑]之杰簪而走人或尊養之終必以褻語絕其人去所服衣常垢甚忽取而澣之曰明日行矣明日求僧粥不予曰幸予我不再至還置粥於几危坐而化祖為闍維曰一生杰十打硬參禪街頭巷角如風似顛若無末上一解不直半文錢杰道

者誰信寒灰有煖煙泉人至今誦之延祐六年秋八月二十二日無疾卒壽九十塔於西山寺

元燕都西劉村沙門釋行秀傳

釋行秀字萬松姓蔡氏河內解人也父真才氣俊爽好善多能雅信因果皇統初宦游洛水喜永年風物之盛因而家焉秀年十五即求出家父母不能奪其志禮邢州淨贇業五大部試於有司在選者二百人與老僧靖恩皆為眾所屬望恩自以為不如不能出其右秀聞而讓之試之日獨獻律賦而歸考官孫椿年讀其文乃大歎服請冠其髮而妻之以子秀拒之曰與其挂名吏曹曷若取牒祠部明年受具足戒遂遊燕歷潭柘慶壽諸剎晚歸西劉村寺西劉村者今廣濟寺也秀初出家時參萬壽勝默光禪師半載無所入復於元沙未徹語有疑行腳至磁州大明請益雪巖滿禪師力參二十七日於滿言豁然大悟滿以衣偈付之旋還中都居萬壽金章宗景其道行請入內廷敷座說法宮嬪羅拜建普度會香花闐咽萬眾雲屯復奉詔命住大都仰山更移錫報恩洪濟元太宗庚寅迺奉勅主萬壽已而退居從容庵幽室獨處冥然入定心相俱清生平勵行苦志勤修弗倦數典名藍發揚洞旨宗風蕩蕩動人神髓至是疲於津梁蓋將終焉至元元年丙午後四月四日示疾七日書偈別眾悠然坦化世壽八十有一僧臘六十建塔於西劉村寺前今乾石橋北磚塔是也

元餘杭淨慈寺沙門釋原妙傳

釋原妙字高峰吳江人出家淨慈參斷橋倫倫示以生從何來死從何去窮究未契立死限三年脅不至席口體俱忘或提單遺巾發篋置鏹終歲砻砻若無見聞時雪巖欽寓南屏北磻夙夜孳孳以剖決此心見父母未生以前本來面目一旦冰消豁然迥露無依無欲得大解脫境界扣之靈隱石田天童癡絕徑山無準莫不印證原妙聞之欣然懷香往謁方問訊即推出閉門再往稍得就近欽忽罵曰阿誰與你拖箇死屍來聲未絕繼之以掌如是者三而原妙叩禮逾虔一日忽覩五祖演像讚云百年三萬六千朝返覆原來是此身驀然驚破死屍之疑明日詣欽又問阿誰話頭舉杖方下原妙喝住曰今日卻不得如此拂袖便出自此機鋒不讓遂辭入天目立死關於師子巖三十餘載影不出山弘悟普度名冠元世所著有高峰語錄

元保定興聖寺沙門釋德富傳

釋德富姓謝氏易人也年七歲力求出家父母感異夢遂捨入興聖寺依真空薙髮受具戒力究大法一日經行次忽大悟自是名播叢林宋皇慶初萬

山壽方大興水陸齋會請富開堂說法七眾咸集富方升座說偈忽於座上放大光明徧照空際現諸瑞相良久方隱事聞於朝賜通辯大師之號並金僧伽黎衣及後示滅有白光從頂出照耀四達荼毗得舍利數十顆建塔焉

元明州佛巖寺沙門釋天倫傳

釋天倫字仲方姓張氏象山人也幼而岐嶷投廣德天寧竺源蕪落源曰汝志宏遠堪任大法無為我滯時晦機在淨慈倫遂往見之纔入門機云湖山靄靄湖水洋洋浸爛鼻孔塞破眼睛因甚不知倫云通身無影像步步絕行蹤機令更道拂袖便出機俾居侍司復掌藏鑰憚其繁雜聞吳興桃花塢尤僻遂乃縛茅焉一日灌園忽四山雲暝驟雨疾風摧折林木霹靂一聲胸中疑礙頓釋乃曰大奇大奇攝轉空虛顛倒騎螭螟吞卻五須彌曩於南屏室中屢叩終不為我道使當時說破安有今日邪元泰定丁卯出主慶德東泉遷明之佛巖將終謂淨覺曇曰今日何日曰小盡曰不宜明日五月朔吾即行矣應期而化

元吳興霞霧山沙門釋清珙傳

釋清珙字石屋受具後與淨慈平山林同得法於道場及庵遂隱居吳興霞霧山以清苦自守不干檀越偶至絕食飲水而已為人慈祥恤物作為祇陀多警法語元至正初道問流聞洽於朝野敕降香幣以旌異之皇后亦賜金襴法衣珙殊不為意至正壬辰秋與眾訣書偈而逝偈曰青山不着臭屍骸死後何須掘土埋顧我也無三昧火光前絕後一堆柴闍維舍利五色高麗國王仰其道行表達於朝詔諡佛慈慧照更命有司移文江浙命淨慈林取珙舍利予館伴歸國所著有石屋語錄詩不多見瘦松集載其山居詩云僧因產業致差科官吏句追恥辱多我有山田三畝半盡行發付與檀那其高致可概見矣

元錢塘靈隱寺沙門釋法林傳

釋法林字竹泉別號了幻姓黃氏寧海人也依法庵太虛出家因看睦州語有省白太虛曰從生至死祇是者箇不由別人也時東嶼海在淨慈招分半座居蒙堂不出戶者九年行省左丞相脫歡請主萬壽還中竺元至元間復遷靈隱宗風大振順帝聞之賜以金襴法衣時龍翔虛席累召不赴遂避會稽山中至正十五年二月二日索筆書偈云七十二年虛空打擲末後一句不說不說遂奄然而逝

元義烏雲黃山寶林寺沙門釋紹大傳

釋紹大字桐江姓吳氏世居嚴之桐江因以為號父善母李氏紹神觀孤潔不樂塵壒一觸世氛唯恐澆之乃入里中鳳山寺為沙彌稍長祝髮升壇納滿分戒私自忖曰化龍之魚豈伏蹠涔耶即日杖策而出上雙徑山謁大辯陵授以達摩單傳心印相與詰難者久之復自忖曰如來大法天地所不能覆載其止如斯而已乎遽辭去歷三吳之墟宿留建業經匡廬泝大江之西還止湖湘漢沔間名藍所在必往參焉諸尊宿亦多以深入遠到期之已而歎曰吾今而後知法之無異味也乃歸見陵陵使給侍左右益加奮勵脇不沾席者數載朝叩夕咨所以悟疑辨惑者無一髮遺憾遂得自在無畏法陵喜傳授有人每形之於言時東嶼海以天目真派唱道淨慈為法擇人如沙中淘金鮮有慊其意者獨於紹別見推許邀主藏室居久之又自忖曰心法既明而世出世智不可不竟手繙貝葉寒暑俱忘每夜敷席於地映佛前長明燈讀一大藏教凡六千二百二十九卷往復三過皆通其旨趣紹猶以為未達乃取儒家及老氏諸子之書擇其菁華而擣齏之自是內外之學粹然無滓元至順壬申廣教都總管府新立未久采諸輿論命出世嚴之烏龍山景德禪寺興廢補壞善譽流行至正辛巳行宣政院遷主金華山智者廣福禪寺寺當孔道且近郡城持節往來多朝中華貴及文學之士恒入山問道故持法者頗難其人自紹蒞此無貴無賤靡不嚮風悅服四方學子翕然坌集至無所容一時法會號為極盛戊戌秋院中復徇群請移住義烏雲黃山寶林禪寺堅不欲行使者三返然後承命明年己亥八月朔覺體不自適至七日日將沒鳴鼓集眾告以永訣即斂目危坐或請書偈擲筆歎曰縱書到彌勒下生寧復離此耶倏然而化服沙門衣五十八春秋享年七十有四越五日獲舍利羅如紺珠齒牙貫珠不壞弟子永明戒茂建塔藏焉紹廣額高眉正容悟物使人妄意自消生平以弘法為務敲喝兼施未嘗少懈有求文者操筆立書貫穿經論而歸之弟一義諦間游泳性情發為詩詞和冲簡遠有唐人遺風至於有所建造甃石運甓躬任其勞以為眾倡手未嘗握金帛瓶鉢外無長物所服布袍十餘年不易臨寂維那發遺篋欲行唱衣故事唯紙衾一具而已大息而去三會語有錄與金華宋文憲濂相友善嘗共閱蠅頭小字雖年耄眼明如月濂為驚異又錄近作詩一卷寄之故其終也濂為銘其塔歷序苦行及證悟之由以昭來者具芝園續集

元徑山興聖萬壽寺沙門釋正源傳

釋正源字竺遠姓歐陽氏世居南康蓋歐陽文忠之苗裔也生之夕母感梵僧入夢知非凡俗稍長即歸禪院魚鐘清徹心性俱馴年二十七始受具戒大辯虛谷陵以道德名冠東南源往參之皆得其法而去初見陵時以龍潭滅紙炬語問之源應之曰焦石可破層冰曰破後奚為復應之曰探索乃知陵詰曰所知者何事方思屬對陵遽舉杖擊之悚然默喻由是智開識融外內無礙雄談慧辯動靜皆空叩之者無窮歸之者有容近者化而信遠者慕

而宗又能飾之以文持之以勤位尊而不以為榮德盛而守之以謙所居道場培修增飾佛殿僧寮悉臻完備主徑山時亂兵所至遺骸暴露盡焉閔之盡為焚燼其在靈隱屢經兵燹樓閣煨燼唯居室獨存若有神相其建功動物可見如此元帝聞其賢錫以佛慧慈照普應禪師之號五主名藍皆方鎮大臣遣使邀致蓋法之孚於人者深也元至正二十一年六月二十六日預告期至書偈而化壽七十有二得法弟子廣化圓伊等分爪髮於道場舍利叢生靈異顯著越明年奉遺骨藏徑山而徵宋文憲濂為之銘云

元金華天龍寺沙門釋守貴傳(大道平 千巖長)

釋守貴字無用別字水庵姓甄氏浦江人也父力農業日事耕樵嘗使貴行饁田間志頗不樂乃同里中童子入鄉塾讀書元至治癸亥年十八矣趨邑中康侯山習浮圖法羣僧各分檀越家值其齋會輒持鼓螺應之貴又弗樂也泰定乙丑乃翩然往浙水西日以問道為事適千巖長縛禪於龍華山寺貴往叩之授以向上一機冥參默究時有所契龍華與天龍院鄰天龍沙門大道平方務起廢力挽千巖主之丁卯春正月笑隱訢言千巖行業於行宣政院將俾出世住大禪坊千巖竟遁逃不見使者久之夜渡濤江東走烏傷伏龍山貴復與之俱山有廢刹千巖為一新之遂命貴領其徒至正丙戌復還天龍往參中峰本斷巖義梁山寬反覆叩答不異千巖退而太息曰千江雖殊明月則一吾今後無疑矣戊子之夏退居嘉興建庵為佚老庚寅秋七月十日夢大道來別曰吾已棄人間世矣貴大驚急棹舟往視之大道果告寂因名所居庵為應夢黃文獻公為記其事云自是復住持天龍其寺素無恒產募齋民二千家每臨食輒取一小甌聚之養四眾大道既建大殿三門兩序及造佛菩薩阿羅漢諸像貴繼其後殫志畢慮增設僧室及演法堂堂上為閣以安吳越錢氏所造大悲尊象又購寺側地以為蔬畦而寺制所有者大小咸備鐘魚響應經唄兼舉隱然如大伽藍辛丑八月二十日作偈一首副以高麗淨瓶寄別江浙行省丞相達識帖穆爾明日命浴索筆書曰一蝸臭殼內外穢惡撒手便行虛空振鐸天龍一指今猶昨擲筆而化丞相聞之大加歎異弟子善法為造慈濟塔院於天龍西岡奉靈骨藏焉貴平生不蓄長物寒暑唯一布衣戒行甚峻嘗落一齒其左右櫝藏中生舍利羅五色燁然日見增長世壽七十有二僧臘五十又四貴與宋文憲濂同鄉里濂與千巖交最密故於貴之行業知之甚悉因銘其塔其詞曰伏龍之山懸巖千尺誰陟其巔奮身一擲軀命既絕萬緣頓息絕後復生真體軒兀如摩尼珠其光五色照耀東南不落名迹天龍一指斯為獨得無用之用動而常寂化為樓閣莊嚴淨域苟以為是涉乎相執以空為楮以無為筆焯德示後用垂千億

元錢塘妙果寺沙門釋水盛傳

釋水盛字竺源自號無住翁姓范氏樂平人也母氏徐生盛時祥光照室及成童以嬉戲為佛事年十七依羅山院僧常初就塾師講習文義而盛每從靜坐習禪定且刺指濡血書金剛經常呵之曰汝不先明文理顧能深入禪關耶盛曰學佛了明生死豈若儒者拘守章句乎及受度謁月庭忠於蔣山而孤舟濟方居首庭以皖山誨蒙山者誨之盛撫几歎曰吾已見二老矣乃端坐一室以三百六十骨節八萬四千豪竅及河山大地咸攝入一念始覺變易繼凝定雙眸與念為一汗從背出亦不知所楚後三四日見色聞聲漸撼搖不動乃自信法決可證因取所携帙以火焚之且發願云吾生非深入佛海當入無間獄也聞者驚歎俄過匡廬止東林聞有僧所見不異雲門盛往叩焉僧以無誠心讓之盛復自厲曰今夕必就蒲茵上死爾即正襟趺坐加精進力如臨萬人敵如操灘上舟不遑他接夜半參至極切孤危之際捐命一躍不覺如出荊棘所履之地忽爾平沈而秋空素月娟娟獨照返觀自身湛湛澄澄唯一念之不忘猶以墜於斷滅益進弗懈或靜或動未嘗間斷泊歸羅山方全體頓見十方世界舉皆現前參之諸祖契證如鏡照鏡坦然明白自以為開悟及掌藏鑰東林偶閱妙喜明心見性非桑門事之辭又復致疑不能釋者數日或謂之曰法離唇吻道絕言詮子何太滯也於是胸中又蕩然如洗然不敢謂已至也越五年重晤濟於蔣山濟曰蒙山嘗言栽松道者不具二緣而生達摩葬熊耳後隻履西歸果神通耶抑法如是也盛云此形神俱妙而已濟云不然子他日當知之復往無為見無能教以濟所舉之言質之無能云為汝弗解故也盛忽大省盡脫去玄妙知解歷觀從前所悟如通宵一夢夢時非無及至覺後絕無所得矣無能撫其背而祝之曰爾後當大弘吾宗也盛復辭去游四明天童已而歸息浮梁之鳳游山時海印如方長薦福請分座說法久之往隱於南巢巢民柳氏割山地建蘭若延盛居之地當五峰之下舊有龍潭五及盛至悉乘風雷徙去元天曆己巳起主西湖之妙果寺弘闡宗旨震憾四方學侶雲蒸有不遠數千里而來者郡守戍將虛己求道日不暇給時軍書[一/ (句- 口+方)]午令僧充役盛請於郡守劉公特免其科繇未幾返南巢故隱而嚮慕者愈眾宗藩宣讓王累遣使者欲邀致之以老病固辭至正丁亥夏四月二十四日黎明召四眾戒勗之且云世尊有言我今背痛將入涅槃吾其時矣引紙書偈端坐而逝初盛嘗自營葬塔於山下是夜有光如匹練交燭通貫頃之散布峰頂復合於塔中彌三夕乃止巢之居民數十里聚觀駭之弟子慧月慧觀等奉遺骨瘞焉壽七十三臘五十三盛制行峻絕有壁立萬仞之意每垂三關語以示人多有不契其機者然其淬礪學徒必使洞明諸佛心宗行解相應以正悟之境自照久之如透水月華萬浪千波觸之不散方不被生死陰魔所惑此蓋一生實證實悟故以之誨人真切如此所著語錄虞公邵菴既為之序而行之宋文憲公濂復拊其事而銘其塔

元泰安靈巖寺沙門釋普就傳

釋普就字古巖姓劉氏真定人幼不茹葷年十有五即厭俗境獨慕空門徑往封龍山禪房禮讚公落髮親災道範博通經律登壇受具歷謁林棠寶積雲峰禪伯體妙窮元南詢之典日益加矣又於鵲里崇孝清安老宿一叩大事因緣為汝槌拂之下發明此事後依靈巖足庵肅棲止八載及肅主萬壽亦不憚馳驅遠道追隨鍛鍊日精了無窒礙遂付衣頌且謂之曰質性樸真純有古風將來足振吾宗因還寶積閉關十載出詣靈巖便充首座大德六年月庵海告退寺眾即請繼席大德丁未受旨護持山門產業前後一新總統褒賜號曰妙巖宏法大禪師匡扶七載退隱靈棲庵復歸封龍山禪房再易春秋皇慶元年仲冬更還靈棲時祖庭少林闕席寺中僧侶不遠千里持疏而來請接主座續佛慧命蓋自達摩西來密付單傳青州之下四傳萬松就為雪庭足庵嫡派正令全提付託得人末後一著心月孤圓延祐元年覺達為之銘云

元泰安靈巖寺沙門釋智慧傳

釋智慧字涌泉姓李氏袁人也善緣夙具年十六禮長清方山足庵肅落髮受具為大比丘隨眾習五大部經告香請益禪宗奧典雜勘公案微有省悟至元二十年侍安山月泉執持巾瓶依止三載參寶峰順於信心銘言語道斷非去來今處豁然穎脫成一偈曰言詞盡淨絕機關凡聖情忘造者難木馬穿雲消息斷依前綠水對青山寶峯欣然以衣頌付之自是諸方名宿無不參叩皆蒙許可始出世於泗水安山至大元年主鵲里崇孝數載接踵靈巖以名山事煩退居雲臺至順元年復主肥城空杏五處名藍皆著勤勞壽七十餘僧臘五十五至順二年嵩山法王覺亮為之壽塔銘云

元泉州開元寺沙門釋如照傳(道符 廣游)

釋如照字元明一號寂室出晉江蔡氏初從袒膊院道符出家符業白良苦照化之更嘗世難不一變志元至元二十年祝髮受具再踰年而合剎議定開元袒膊並為一家延妙恩開山照實左右之已而辭去負簦游方咨訪甚力天慧內發深有所悟嘗典客雪峰刺血書法華經及歸故業復血書華嚴楞嚴恩益禮之及恩遷化契祖繼席命之知藏未幾出主安溪泰山巖不數月歸者如市百廢具興大德延祐八年祖命還山已有付屬意及祖寂宣政命照補其處照不宿怨無親疏卑尊一遇以誠而延接四方嚶嚶若不及其說明白嚴正大厭服人佛成道日上堂曰雪滿於山星回於天一見便見更待六年瞿曇瞿曇無端引得眾生起顛倒東土望西天又曰雪窖生理幸可憐六年曾不動機緘眼皮爆綻三更後明破星兒即不堪道譽上聞錫佛果弘覺之號至順二年四月十七日無疾溘化年七十有四臘四十有九闍維藏靈骨於故塔弟子廣游字空海晉江蘇氏子性不肉食幼而聰慧初從照

受楞巖匝月悉能誦照奇之度為僧益致力禪奧心光炯炯達旦不寐爾後雖宿衲無能當其辯者嘗游方以試真珠華頌見知雪峰甫之龍華尋知藏鑰所為頌多驚策語其詠鼠有云尋光來佛後竊食犯僧殘後還寺遷首座一夕濡筆大書曰百年大夢今方醒遂隱几而化其弟子大圭著紫雲開士傳者別有傳

元鄒縣大明禪院沙門釋海印傳

釋海印泰安人居鄒縣大明禪院幼有異徵常夢梵僧指示經中奧旨一見瞭然年長進具偶事游訪便悟真如一日呼弟子曰吾幻身非久住世書偈畢端坐而化三日其貌如生院上紫霧光明貫天際邑人見之稱為真佛

元餘杭鳳凰山聖果寺沙門釋珠明傳

釋珠明杭人也幼投聖果出家嘗問石屋參狗子無佛性語後每入室石屋曰汝不如狗子珠纔擬問石屋搖手曰須似狗子去珠體究有年一日至廚下見狗子盆中食頓省不如狗子語即以手招狗笑語曰得似爾又何如遂作偈曰擺尾垂頭咳嗶聲餘多餽飯飽喉嚨從今識得家無客一任人來不管門以所得謁石屋再相詰難機鋒銛利後歸聖果涵養自適意無他願惟以補路栽松是為活計有留三偈以記所願人作千年計吾為一路松半生心在此老大小橋封興廢隨他去難為自在心山靈知我意勿使有枯根自愧人緣少相交盡凍冰客來學得避答話恐無能一日對徒眾云汝等隨侍總不知我心事徒云師有心事何不指示珠曰與汝說得豈是我心事即微笑而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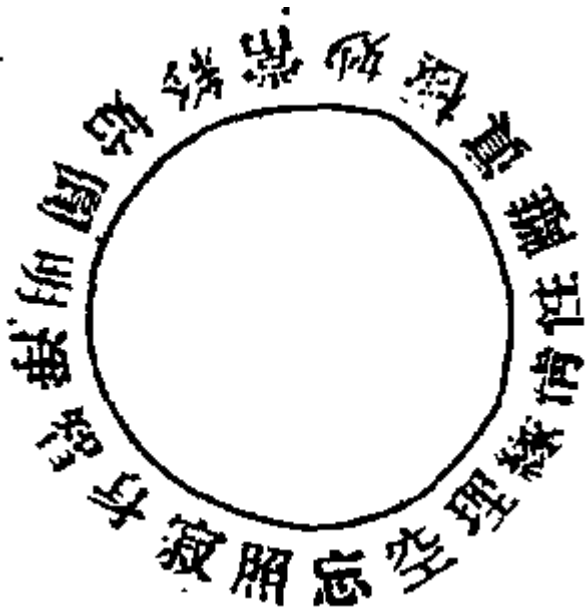
元餘杭吳山聖水寺沙門釋明本傳(惟則)

釋明本字幻住晚號中峰姓孫氏錢塘人幼好梵唄長乃出家初依吳山聖水聞高峰原妙居天目山師子巖立死關以待參學明本往叩之原妙欣許知為大器久之明本誦金剛經恍有開解者謂識量依通雖於義趣通解終非悟也已而雜染時原妙閉關獨居誓不接納獨見本授以語頭由是給侍死關晝服力役夜事禪定十年而學成豁然超脫宗旨別傳九流諸子罔不淹貫激揚提唱機鋒翕霍圓轉不窮時稱大辯焉元貞間高峰將遷化以大覺禪寺相屬辭之登皖山游廬阜至金陵結庵廬州弁山及平江鴈蕩已而還山領師子院宰相大臣以五山主席交聘俱力辭因日避走南北間朝廷聞其名特賜金襴伽梨進號佛慈圓照廣慧禪師元統二年並詔明本所著廣錄三十卷收入佛藏揭傒斯為之序至治三年八月安坐而逝壽六十一臘三十七文宗敕詞臣製碑諡曰智覺塔曰法雲明本身履長大倍於時人

所遺麻履二尚藏寺中寂時茶毘於天目虞集銘其塔趙孟頫書其淨土詩初松雪極致敬禮馮海粟意殊不然及示梅花詩六十首明本和之復成百詠及九言一首馮由是歎服加禮焉今有爪髮舍利塔在聖水寺弟子惟則字天如廬陵人髫年出家初參海印後得法中峰有語錄四卷

元兗州布金山大雲寺沙門釋行全傳(德友)

釋行全姓房氏清河人也生有宿慧既長受具戒於州之廣教院歷游講肆通曉律義創刻宗門碧巖經律文字往來奉高山中結茅晏坐於天勝寨上默究玄理兗州節度左副元帥張進遂興葺布金山之大雲寺請主席焉全至扇厥清風法化大行落髮弟子二十有五人中有德友者兗州雙村王氏子也元時盜起避地泰山聞全駐錫天勝即往炷香既蒙示及去師不遠因於師子峰下抱節育道或三日一滄五日一飯若此者三稔忽聞鴉鳴而悟入曰從今後更疑著天下老和尚鼻孔也全以德友機緣契證載其道資付託有人晚歲辭退復還鄉井時稱其來如著衫去如脫屣云



明金陵鍾山寺沙門釋班的答傳

釋班的答者亦作版的達中印度迦維羅衛國人姓刹帝利氏原名薩曷梭室里此云具生吉祥幼性恬靜長乃出家於迦濕彌羅國蘇囉薩寺初習通教明經律論辯析精詳雖老師宿德多遜謝不及然以言論非究竟法乃篤修禪定不出山者十數年嘗慕東方有五臺清涼山為文殊應見之所當往瞻禮遂發足從信度河歷突厥屈支高昌諸國東行數萬里所涉國土其王及臣庶多請受戒法越四寒暑始達甘肅當元至正時帝后王公頗崇佛旨仰其高躅不憚重譯而來遣人迎至京師居吉祥法雲寺一時衲子翕然從化而智光亦得投禮受業焉元主問詢以事或對或否禮接雖隆而機語不契因往清涼遂爾初志明室龍興奄有區夏杖錫來朝太祖嘉其遠至召見奉天門奏對稱旨錫以善世禪師之號特頒銀章使總天下釋教命於鍾山剎庵居之復諭禮部有願從受戒法者勿禁車駕每幸鍾山必過其室諮論道要往往移晷時賜詩篇勞問甚至丙辰秋具啟願遊名山弘敷法旨遂遊寶陀羅伽山登天目師子巖滄彭蠡躋匡廬渡長淮禮四祖五祖塔而還謁太祖於華蓋殿天語溫接寵賚彌厚每舉其懿德碩行宣諭僧眾使效法焉於時從受法者八萬餘人施金幣不可數計悉以散布囊無寸儲一日召弟子智光孤麻囉室里等曰五臺清涼是吾初願今因緣已畢無他念矣可將此梵書一帙與吾遺骸分至彼處以足吾志汝其善護吾法勿少懈怠以辛酉夏五月二十四日示寂事聞賜祭閣維獲五色舍利無算塔於聚寶門外並建廟宇車駕臨視賜名西天寺表所自來也後數十年至宣德乙卯大學士楊榮始為之銘文詞斐然具見別集

明宜興龍池寺沙門釋永寧傳

釋永寧字一源別號幻虛子姓朱氏淮東通州人世為宦族母隴西李氏寧生而黠慧舅氏吉安郡守愛之欲以為嗣年六歲入鄉校始習經籍即能暗記了明大意然非所樂聞人誦佛號心嚮往之注耳以聽九歲有離俗之思請於二親初弗之許後見其志堅乃使依模上人於利和廣慧寺利和州之望刹宋有淮海肇禪師說法度人聲聞當世前一夕寺眾夢迎禪師旦而寧至寺眾異之謂肇禪師乘願再來者也年十二游揚之雍熙寺會主僧來峰泰編禪林類聚成寧覽之笑曰此古人糟粕檢點何為河南王童童奇其幼而器之屬僧錄司給牒雜度為沙彌尋受具足戒自是厥後蓬累出游浙河東西見諸宿老下語無所契中峰海方柄法蘇之萬壽留之經年乃入穹窿山謁克翁紹紹察其志不凡俾掌藏室時年已十九既而欲歸鄉省覲至毗陵約明極袒於焦子山精脩禪定稍涉睡昏則戴沙運甃懸版坐空如是者五年明極曰藏主見解且至宜往參人遂至淮西大湖山求印可於無用無用門庭巖峻方入戶厲聲叱之合爪立於門外久之乃許入見詰其居處知在通州便問淮海近日虛盈若何寧曰沃日滔天不存涓滴無用未之許退就禪室徹夜不寐一日聞無用舉雲門一念不起語聲未絕而有省急趨入堂無用便欣然知其領悟令造偈拈趙州寧立就曰趙州狗子無佛性萬家森羅齊乞命無底藍兒盛死蛇多添少減無餘賸無用嗒然一笑復舉證道偈問之曰閃飛電來全身不顧擬議之間聖凡無路寧曰火迸星飛有何擬議覲面當機不是不是無用喝曰東瓜山前吞匾擔捉將清風剝去皮寧不覺汗下曰今日方知用處無用閉着口自是侍左右者三年因以斷厓義所贊己像親署一書授寧曰汝緣在浙逢龍即住逢池便居寧遂還浙時虛谷陵元叟端瀨翁慶幻住本天如則各據名山遞展化機寧往叩擊皆相脗合而幻住尤譽之弗置元祐庚申延至廣德縛茅於大洞中洞左有實相寺馬祖弟子澄公道場也寧為重新之同時有無一全遯迹於石溪石溪與大洞相望人稱廣德二甘露門云至治癸亥宜興之龍池請寧建立禪居寧以名符懸記欣然赴之作室百堵命曰禹門興化庵先是山顛有龍池其深亘測龍出每大水居民苦之寧乃呪龜受三歸依戒不復為害久之復厭凡近思涉幽邃乃窮絕巘構室以居至壁立如削處斲木為棧鉤環連鎖棲版空中足不越戶限者二年學侶聞風遐邇奔赴帝師大寶法王稔其道行降號曰弘教普濟禪師泰定乙丑州西九里有地曰青山僧副延寧主之為創寺一區以九里名之至順庚午出世李山禪寺瓣香酬恩歸之無用俄有詔集桑門千七百人閱毗盧大藏經一七日寧升座敷正法天降甘露壬申退歸龍池時元叟主雙徑月江印主雲峰皆虛首座招之並辭不赴元統甲戌浙西江東道廣教總管具疏請主常之天寧萬壽州守戍將敦勸尤力左右亦謂大法火冷灰寒不可自安暇逸乃蹶然起赴而寺嘗被災方議經營至則為新釋迦佛殿造菩薩天神諸像雄冠諸刹踰八年有司以聞詔錫本覺妙明真淨之號至正壬午江南行宣政院命主大華藏寺寧舉龍門膺代之明年復命補天童景德堅以疾辭退歸龍池宜興銅官山舊有北嶽菩提院燬於

火會昌士人潘敬之重構焉寧以九里寺助建法堂丈室之屬戊子有旨趣入覲說法於龍光殿賜金襴法衣紐以玉環加號曰佛心了悟大禪師帝師亦有絳袍毳帽之贈無何奉旨函香至五臺山曼殊大士為見祥光應之明年陞辭南還道過維揚鎮南王波羅普化率妃嬪迎之入宮稟受大戒賜以白金盃及僧伽黎衣遣司馬護還龍池庚子出領善卷寺故廢壞寧為修葺塗墍丹牖且甃其寶坊明年募善士萬人為萬善會及瘞兵後枯骨無萬數壬寅退歸龍池癸卯大旱詢鄉民之請結界誦咒作法將終大雨如瀉歲乃有秋眾愈知敬堅留不捨強住麻蕪慈慧未幾成大叢林有明洪武初元復歸龍池將不復出明年己酉夏六月示微疾屬弟子宗珣裁紙為衣曰吾將逝矣自興化庵移龕至絕巘所居一日味爽起沐浴更紙衣索筆書偈曰七十八年守拙明明一場敗闕泥牛海底翻身六月炎炎飛雪擲筆而化黑白戀慕執紼之人盈萬茶毗有五色光舍利無算弟子志舜志思等分餘骨就龍池太平齊山紫雲麻蕪五處建塔藏焉壽七十八臘六十五寧氣貌雄偉身長七尺有餘吐音鴻亮其接物也不以貴賤異心所至無不傾向右丞相呆兒只左丞相別不花趙文敏孟頫尤所賓禮者也所為文偈了不經意引紙行墨空義自彰有四會語行世寂後七年弟子仁性親撰行業記徵宋文憲濂銘其塔云

明處州福林禪院沙門釋智度傳

釋智度字白雲姓吳氏麗水人也父德大母葉氏具有善願度生而靈穎迥異凡近年十五灑然有出塵之趣欲就浮屠學父母方珍愛峻辭拒之因不火食者累日若將滅性父母知不可奪使歸禪智寺禮空中假雜髮受具戒習禪定於楞伽庵每趺坐達旦如是者數年已而歎曰六合之大如此積然滯一室可乎遂出游七閩徧歷諸山無有契其意著復還郡之白雲山因澄禪師道場遺址築福林院為憩息之所日取楞嚴圓覺二經鈔疏讀之既熟不假師授章旨自通久居此山遂以為號已而復歎曰拘泥文字如油入麥粉了無出期德山所謂窮諸玄義若一豪置於大虛者信不誣也乃去之出游浙河之西見靈石芝於淨慈未幾又上天目山參斷崖義譚鋒銛利莫之敢撻時無見睹說法天台華頂峰大振圓悟之道更踰濤江叩之曰西來密意何如無見曰待娑羅峰點頭乃與汝言度擬答無見遽喝度曰娑羅峰頂白浪滔天花開芒種後葉落立秋前無見頷之服勤數載乃翩然辭還無見囑之曰昔南嶽十五歲出家受大鑿記荊後得馬祖授之以心法鍼芥相投豈在多言勿掉三寸舌誑人須真正見解著於行履方為報佛深恩度佩服之弗敢忘然既有所證入儼然如白雲在天卷舒無礙又走長沙見無方普入雲居見小隱大當機問答無異華頂元至正甲申縣令長徇緇素之請迎還福林與毒種曇成山欽互相策勵如恐失之甲午復隱楞伽庵壬寅王府參軍胡公深安復請至福林甲辰御史中丞章公溢招致龍泉之普慈徒侶

景從雲輪川委至八千餘指而檀施日集食用無缺乙巳移茅山丙午遷武峰元季亂擾復隱岑樓明室龍興首崇正教洪武己酉始建法會於蔣山有詔起天下名僧敷宣大法而度與焉初猶力辭戊將疆起之度曰心境雙忘隨緣去住復何拘礙遂行將至而會散乃還杭杭人奉居虎跑歷夏及秋便趨華頂明年春二月示微疾浩然有歸志四眾堅留之度曰落葉歸根吾所願也遂旋福林五日忽沐浴易衣索筆書偈曰無世可辭有眾可別大虛空中何必釘撇擲筆而逝時洪武庚戌三月一日也壽六十七臘五十二闍維之夕送者千餘人火餘得五色舍利及齒牙數珠弟子仁喆瘞骨院西善女子唐淨德為建塔其上度靜謐寡言機用莫測臨眾無切督之威嚴厲之色唯以實相示人所至人皆欽慕如見古德或持香華供養或繪像事之不可數計蓋信心為一切功德之母苟能信奚道之不造法之不明自圓悟八傳至於無見究其所得所證何莫不由於此度自幼齡即能信道決可脫離死生一息不少怠所以卒能徹究心源縱橫自在平昔教人隨機開導無懈容無蔓辭有問則言否則終日澄坐而已金華宋濂為之銘曰華頂之峰有道所居隨時演法大音鏗如當機一喝見者驚愕言出霆奔無墊不作振錫而歸我亦何心舉首睇之白雲在岑乘運而游或出或處落葉歸根古今一軌塵緣既盡翛然而化擲筆坐蛻如人赴家世相有滅其性常在誰謂師亾青山不改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及傳(廣智)

釋智及字以中別號西麓自題所居曰愚菴姓顧氏吳人也謁廣智於龍翔微露文采廣智大驚有聚上人者呵之曰子才俊爽若此不思負荷大法甘作詩騷奴僕乎無盡證偈所謂黃葉飄飄者何謂也智及噤不能答即歸海雲胸中如礙巨石日不交睫者踰月忽見秋葉吹墜於庭豁然有省雖喜不自勝不取證明眼恐涉偏執乃走見徑山山勘之智及應機不滯遂命執侍久之乃掌藏室元至正壬午行院欽其道譽推主昌國隆教轉普慈未幾行省左丞相達識公延主淨慈復請遷徑山一日達識帖睦爾翩然來游直趨方丈便問淨名丈室容三萬二千獅子座淨慈丈室容多少智及云一塵不立丞相云與麼觀體相違智及揭簾云請丞相鑑乃笑謝曰作家宗師不勞再勘明洪武癸丑詔有道碩僧十餘人集天界寺褒然居首以病不能一對賜還穹窿山即海雲所在也戊午八月忽示疾至九月四日索筆書偈而逝茶毗火燄化成五色有氣襲人如沈香遺骨紺澤類青琉璃色設利羅交輟於其上其徒奉以藏海雲山陰又分爪髮歸徑山瘞焉

明四明寶陀寺沙門釋慧照傳

釋慧照字大千姓麻氏永嘉人也父均母黃氏家有積慶照生寶之勝摩尼珠童年聰俊雅慕超凡聞人誦習經偈便合爪諦采年十五往依沙門了定於縣之瑞光院了定者族從兄也長老良公知為法器即剃落為弟子明年稟持犯於處之天甯蟬蛻萬緣誓究大乘不思議事首謁晦機熙於杭之淨慈未契圓證一日閱真淨語至頭陀石擲筆峰處默識懸解流汗浹背時東嶼海以石林鞏正派提倡於蘇之薦嚴杖錫從之反覆勘辯靈機響應遂留執侍照以為心法既通不閱脩多羅藏無以闡揚正教聳天人之聽乃主藏室於郡之萬壽及東嶼遷淨慈邀照分坐表儀四眾元大歷戊辰始主樂清之明慶嘗集諸僧伽而誨之曰佛法欲得現前莫存知解縛禪看教未免皆為障礙何如一物不立而起居自在乎所以德山之棒臨濟之喝亦有甚不得已爾聞者說懌至正乙未遷四明之寶院先是寺以構訟廢照謂訟興在乎辨難太迫一處之以寬慈絕弗與較且曰我佛得無諍三昧所以超出群品我為佛子可不遵其教眾服其化未幾行宣政院署照住阿育王山由是雲侶景附不遠千里照亦善誘孳孳不遺餘力因垂三關語以驗學者其一曰猛虎伺殺為性何以不食其子其二曰虛空無向背何緣有南北東西其三曰飲乳等四海水積骨如毗富羅山何者是汝最初父母語皆峻切惜未有契其機者居九年退於妙喜泉上築室曰夢庵因自號為夢世叟掩關獨處凝塵滿席澹然無慮明洪武癸丑十月朔詔門弟子曰吾將西歸越七日沐浴更衣索紙書記恬然化滅壽八十五歷夏七十經三日茶毗牙齒數珠不壞餘成舍利羅五色爛然是年十二月九日葬靈骨於夢庵之後有語錄若干卷宋文憲濂為之碑文詞甚清朗載在私集曰護法錄

明溫州雁蕩山羅漢寺沙門釋正智傳(大觀)

釋正智字臥雲姓陳氏福寧人也初出家時受剃度於泰順之南峯寺後得法於大觀慧實傳月亭中興台教之學蓋佛法自梁以前無宗教之別大通中達摩西來始崇教外別傳之旨而智者大師獨宏止觀於天台學者宗之斯台教之名立焉永嘉佛法肇於無相大師實因止觀發明大事印證曹溪號一宿覺是則宗教旨歸初無有異也厥後青原南嶽宗風大鬯永嘉之學薪盡不傳而天台亦漸微弱不復演揚止觀專以講義為台教矣蓋千餘年然後得月亭大師振中興之烈正智則月亭之正傳也智嗣大觀慧實嗣晦谷珂初大觀雖習教典而實研精止觀常立庵天台絕頂覃思冥契又崇別教之旨徧歷諸方叢席斟酌印可始歸嗣晦谷有從來心印本無文之囑既登祖位乃思出大鑪錘合宗教為一於是著宗教不二之說略云宗者悟佛之心教者明佛之理復訂法系正派以世其傳就雁山能仁寺宣揚法要一時龍象雲集然入室者為正智一人而已正智姿儀魁壘外示冲和崇重毘尼律身峻絕雖宏解經義而託根止觀行解雙圓既得法於大觀了悟宗乘屢登法席李尚書誌曹學士學佺張大令文光俱延之講堂躬親聽受最後

講楞嚴於永嘉之宏濟寺時大參石公萬程備兵東甌欽師道範懷香謁之因即講次從容問難殊未了悟馳書請益因命筆答之曰覲面相逢猶遭鈍置若更商確筆端當令師子脫頤後聞木魚聲又以相叩智舉敲空有響擊木無聲語復之乃贊歎而去智以雁蕩古剎湮沒殆盡而羅漢寺有應真飛蹟且密邇能仁望大觀作道場處鑪煙可接乃重營蘭若遊客衲子棲息得所而道風馥郁被於遐邇矣講觀之餘雅好登臨搜奇剔異樵牧所不到悉能及晚歲道譽益隆諸方參學緇素禮謁每食踰千指更營雁湖絕巘以居天光雲影置身漢表每一憑眺心跡俱清歲乙酉魯藩建邸臨海仰其風範致書勞問內史顧公超因奏請即雁湖建立禪院復肅啟禮請再四智不報明年大兵尋至追討逋伏而雁蕩悉罹兵燹人始服其先見云丁亥九月示微疾至二十九日謂門人曰吾歸矣沐浴更衣然後順化世壽七十有四僧臘四十有九三日荼毗得舍利皆五色以癸巳八月十九日塔於羅漢寺側與大觀塔合方大觀欲合宗教為一也門戶競爭教以宗為掠虛宗以教為摭實其實宗為口頭之宗教亦紙上之教使果悟佛之心明佛之理則原自無分又何從擬合故開口亂道蛇入竹筒論不自大觀起也惟大觀欲融而一之耳惜乎大觀滅而智亦西歸永嘉之焰誰續哉李象坤菴庵為作塔銘寄慨深遠有以夫銘曰千潭一月千月一攝閉門造車出門合轍彼宗與教胡為中裂峩峩觀公建大鑪爇砂屑並融不假搏捏或鼎或彝任其鑄出臥公親承宏揚煜爍法座屢登弘辯罄折國王敬禮宰臣欽懾講觀不二頓漸豈別蓉峯巍峩雁湖澄澈與虛為鄰孤操嶄絕昔棲其巔今瘞其嶠無縫塔中寂光不滅

明五臺山靈鷲菴沙門釋寶金傳

釋寶金字璧峯姓石氏永壽人也父通甫宅心從厚人號長者母張氏嗜善弗怠有沙門授觀音像曰謹事之生智慧兒未幾兒生白光貫屋幼多疾因歸釋氏依雲寂溫剝落受具後窮性相學言辭落落若貫珠聞者動容已而歎曰三藏玄言皆標月指如來心法果如是乎遂棄所學更習禪觀謁如海真於縉雲海問曰萬法歸一一歸何處所答不契遂疑之三年一日擷蔬於囿忽凝坐久之海問曰子定耶金曰定動不關海曰定動不關是何景象金示之以筐海非之金撲筐於地拱而立海又非之金低頭不語海把其臂曰速道速道金翻手觸海仆地海起徐曰未在此塵勞暫息耳必使心路絕祖關透然後大法可明爾後工夫益切遁峨嵋山下柏葉為食脇不至席者三年一念不生前後際斷照體獨立物我相如自是入定或累日乃起一日聞伐木聲忽悟汗下如雨乃曰妙喜謂大悟十八豈欺我哉後歸白之海海方可之無用云坐下出三虎一彪爾其彪耶爾緣在北當詣朔方必弘吾道金乃北遊至五臺棲靈鷲菴檀信爭湊會歲儉恐其饑所施益多金慮饑民乏食勸施者分粟賑之元至正間歲旱帝詔祈雨金入城大雨千里帝贈千金

不受益敬禮之賜號寂照圓明大師金每聞已過必稽首感懷嘗曰生我者父母教我者師友生而無聞幾如牛馬生而有聞可至聖賢父母生其身師友能成其德也世有喜佞而惡諫者下愚人也有明肇興崇尚佛旨洪武戊申金應詔入都奏對奉天殿道揚法典簡在帝心命居天界日接龍顏譬曉法義賜以紫衣金鉢及御製詩有玄關悟盡成正覺之語一日示疾著衣危坐唱別弟子智信請留一語金曰三藏法寶尚為故紙吾言何為怡然而逝茶毗得舍利五色燦爛齒舌舍利皆不壞門人收之建塔文岫山普光寺嘗製華嚴字母佛事梵音清雅四十二奏盛行於世

明五臺山壽安禪林沙門釋具生傳

釋具生者本名具生吉祥中天竺迦維衛國人行二字略也剎地利種三藏五明無不徹究自謂言語非究竟法乃入雪山習定十有二年得奢摩他求證於迦羅室利尊者尊者可之元末明初浮海東來求禮五頂所經信度高昌諸域國王而下莫不敬畏緇白承風遠道相從四越寒暑始達甘肅有明洪武二年乃底臺山卓錫壽安禪林恒山之民翕然向化七年帝嘉其行詔住蔣山開化石城法侶雲蒸雖狼戾之夫仰其慈相善心油然而生四方檀施填門塞路祥視之漠然悉舉所有以濟饑寒八年春帝賜以詩有笑談般若生紅蓮之句十四年有足疾不良於行敕御醫療之乃附奏欲歸五臺莫解其意一日又白眾曰今將為五臺之行有能從我者乎弟子中有一人願從因舉病足示之曰汝無此一足安能從我至午命沐跣跌而坐弟子請最後垂訓乃舉念珠示之弟子曰教我念佛耶因擲珠於地長呼而化茶毗煙焰所及皆薰成舍利綴於松枝若貫珠然門人建塔於西林菴所著有示眾法語三卷並譯七枝戒本傳於世蒲菴釋見心復為之碑銘

明杭州天目山沙門釋印原傳(智曜)

釋印原字古先姓藤氏日本國人也世居相州為國貴族生有異徵垂髫時輒刻木為佛陀像持以印空父奇之曰是兒於菩提有緣宜使之離俗學究竟法甫八歲歸桃溪悟公執童子役年十三即鬚髮受具足戒自時厥後徧歷諸師戶庭無所證入乃慨然曰中夏為佛法淵藪盍往求之於是浮海南游飄然西渡初至天台參無見覩於華頂峰覩語之曰爾緣不在斯中峯本以高峰上足說法杭之天目山鑪火正赤往來學徒無不受其鍛鍊此真汝導師也原遂往謁中峰一見遽命給侍左右屢呈見解中峰呵之曰根塵不斷如纏縛何原退而悲泣飲食皆廢中峰憐其誠懇乃謂之曰人惟此身包羅萬象迷則生死悟則涅槃生死之迷固是未易驅斥涅槃之悟猶是入眼金塵當知般若如大火聚近之則焦首爛額唯存不退轉一念生與同生死與同死自然與道相符若當未悟之際千釋迦萬慈氏傾四海大水入汝耳

根總是虛妄塵勞皆非究竟原聞之不覺通身汗下無晝無夜未嘗暫捨積之又久一夕忽有所省見前境界一白無際急趨丈室告中峰曰原已撞入銀山鐵壁去也中峰曰既入銀山鐵壁來此何為由是矚機生悟超然領解十二時中觸物圓融無纖豪滯礙未幾辭去往謁虛谷靈古林茂東嶼海月江印此四公者道譽隆隆各據高座展化一方見其證悟親切機鋒穎利莫不以叢林師子兒稱之會清拙澄將入日本建立法幢原送至四明澄曰子能同歸以輔我乎原曰雲水之蹤無住無心何不可之有即攝衣升舟其後澄之行化遐邇皆原之力也已而出世甲州慧林瓣香酬恩卒歸之中峰黑白來依猶萬水赴壑古山源議革城州等持教寺為禪物論非原無以厭伏眾心竟迎原主之俄住州之真如又遷萬壽又遷相之淨智及謝去更行化於奧州原之族兄藤君新建普應寺延原為開闢住持方起而應之關東連帥源公建長壽院於相州復請開山兼主圓覺原又赴之未幾遷建長其說法度人孜孜弗懈無異慧林時後退歸長壽有終焉之志歲在甲寅春正月忽示疾至二十三日夜參半召門人曰吾今日逝矣爾等恪守常訓使法輪弗替可也黎朋賓明候問起居應接如平昔及午呼侍者曰時至矣可持觚翰來及至復曰吾塔已成唯未書額爾乃手書心印二字入室端坐泊然入滅世壽八十僧臘六十又八弟子奉全身瘞焉初原以流通大法建立梵宮為事若丹州之勝願津州之保壽江州之普門信州之盛興房州之天寧皆蔚然成大蘭若而建長之西復創廣德庵命其徒守之故先後所度比丘一千餘人平生端嚴若神雖燕坐之時儼若臨眾目光炯炯射人見者若未易親炙及聆其誨語溫若陽春莫不心悅誠服有求法語偈頌者濡毫之間洋洋數百言曾不經意皆契合真如猶不自以為是取語錄並外集投於火中曰吾祖不立文字但傳心印留此糟粕何為門人欲為畫像且索贊語原乃自作一圓相題其上曰妙相圓明如如不動觸處相逢是何面孔其方便為人皆類此同時有智曜者亦日本國人勢州源氏宇多天王九世孫其母禱於大士夢吞金色光而孕生時祥光盈室九歲出家依平鹽教院授之書一覽輒能記誦稍長繪死屍九變之相獨坐觀想知色身不異空華慨然有求道之志年十八為大僧禮慈觀律師受具足戒尋學顯密二教垂三年恐執滯名相建修期道場以求玄應滿百日夢遊中國疏山石頭二剎一龐眉僧持達摩像授之曰爾善事之既寤拊髀歎曰洞明吾本心者其唯禪觀乎遂更名疏石字夢窗謁無隱範於建仁寺繼至相州巨福山山之名剎曰建長緇錫之所萃止時一山寧主之一山見曜甚相器重令為侍者朝夕便於咨決俄游奧州聞有講天台止觀者往聽之曰斯亦何礙實相乎自是融攝諸部昭揭一乘之旨雖辯才無礙然終以心地未明俛俛然若無所歸存修懺摩法期至七日感神人見空中益加振拔時一山自建長遷主圓覺寺曜復蓬累而往備陳求法之故至於泣涕一山曰我宗無語言亦無一法與人曜曰願慈悲方便開示一山曰本來廓然清淨雖慈悲方便亦無如是者三返曜疑悶不自聊結跏澄坐視夜如晝日絕不交睫久之往萬壽禪寺見佛國

高峰日扣請如前高峰曰一山云何曠述其問答語甚悉高峰厲聲曰汝何不云和上漏逗不少曠於言下有省辭歸舊隱常牧山唯分陰是競誓不見道不止嘉元三年夏五月一夕坐久偶作倚壁勢身忽仆去豁然大悟平生礙膺之物冰解雪融心眼爛然如月佛祖玄機一時爛破乃作偈自慶有等閒擊碎虛室骨之句亟見高峰求印高峰喜曰西來密意汝今已得之善自護持以書卷付之退接甲州龍山庵高峰招住上野州之長樂寺力辭不赴卓庵濃州古溪都元帥平公之母覺海夫人慕曠道行欲一見之竟遁入五臺山縛吸江庵已而潛入海嶼夫人遣使跡之使出世雲巖寺曠復辭構泊船庵於臥龍山退耕庵於總州有終焉之意正中二年國主後醍醐天王命宮使起曠領南禪禪寺入見王賜坐因自陳志在煙霞出非所願王曰吾心非有他欲朝夕向道耳不得已應命王時幸臨之相與談論或竟日乃去將及期王遜位曠亦引退道經勢州會新建善應寺成延之開山未幾棄去抵相州樞府郡公迫主淨智寺尋歸錦屏山營瑞泉蘭若元德元年圓覺四眾必欲致曠為勉強一出又復棄去二年羽州守藤道蘊初創慧林寺延曠泣之元宏元年達官貴人有以見長請者曠復辭二年瑞光寺又求為弟一代主三年王既復辟召曠入見以介子都督親王之邸更為靈龜山臨川禪院命曠為之長賜以國師之號建武元年秋王妃薨王留曠宮中十餘日罷政而講法因請宣說大戒執弟子之禮彌謹及還強之再入南禪王親率羣臣至山見羣僧入定靜不聞聲次第行食秩然有序王甚嘉之曠每登席提唱音聲閱朗詞意警策王益喜賜田若干畝以飯僧先是近臣有毀斥禪宗者王以問曠曠曰自性三寶何必強生分別王以為然至是益知禪學為貴謗言無自而入已而退處兜率內院而建仁禪寺又欲起之曠笑而不答歷應二年攝州守革西芳教寺為禪僉謂非曠無以厭眾望遂振錫而往舉揚達摩氏之道聽者改容為建無縫閣以水晶寶塔安置舍利萬顆其中他若奇勝之地多冠以亭榭以憇四方游士規制燦然可觀嘗夢王作沙門相乘寶車往靈龜山已而即世征夷大將軍源公造天龍資聖禪寺以助冥福聘曠住持遂與前夢協阿州守源公新立補陀院曠亦徇其意為之說法即還天龍康永元年春太倉天王親往受戒願為弟子三年建八幡菩薩靈廟於寺側貞和元年王復帥群臣來聽法敷宣之際有二星降於庭光如白日賜以金襴紫衣二年春令弟子志元補其處退歸雲居庵冬復召之入宮加以正覺之號觀應元年春兩宮國母請曠於仙洞受五戒二年春曠謂左右曰天龍宮室幸皆就緒唯僧堂猶闕當力為之及堂成可容七百人廷議重曠名德復強入天龍為行百丈清規聲振朝野王復加以心宗普濟之號且遺之手書略曰道振三朝名飛四海主天龍席再轉法輪乘佛祖權數摧魔壘人以為榮曠年已高又復引退兜率內院九月朔召門弟子曰吾世壽七十又七僧臘亦六十矣旦夕將西歸凡有所疑可商討焉於是集座下者如雲曠隨機開示皆充然有得而退越七日示疾兩宮游臨問起居曠為陳攝心正因精神不少衰作偈別大將軍源公復書辭世頌一首至晦日鳴鼓集眾脩

然而逝塔於內院之後所度弟子萬有五千餘人其嗣法者天龍則志元妙葩建長則慈永南禪則通徹周澤囉儀觀高朗慧學淵深舉揚正教如密雲廣布甘雨頻澍凡具生性者隨其根器小大皆獲成就上自國王宰臣下至士庶莫不頂禮敬信如見七佛出世香華供養唯恐或後夫佛法之流於日本者台衡秘密為最盛禪宗雖僅有之將寥寥中絕矣千光院榮西禪師以黃龍九世孫握佛祖正印唱最上一乘颯馳霆鉤逢者膽落達摩氏之道藉以中興其示寂之時且曰吾滅後五十年禪宗當大興今印原承天目之正傳見道分明契悟精深則其懸記之言已有可徵而智囉又以高峰之胤上纂無學元公以繼佛鑑範之傳禪學勃興若合符節斯亦驗矣然而自天目泝而上之至楊岐十有二世楊岐黃龍則同宗慈明者也其道固同矣道同則凡嗣其學者先後奮發殆有不言而喻者乎明金華宋濂既為印原銘其塔又於明洪武八年秋七月因日本使臣之請奉勅撰智囉碑文俱見鑾坡別集

明虎邱雲巖寺沙門釋文琇傳(無盡慧 滅宗起)

釋文琇字南石姓李氏崑山人出家邑之紹隆庵參法要於行中仁居虎邱得言外旨有續傳燈錄四會語行世慧無盡者不知何許人洪武間為虎邱藏主文琇稱其戒簡冰清禪誦勤勇刺血書大乘經攻苦行澹備行三寶中事孜孜弗懈學教觀於古庭聽楞嚴於融室又從行中究別傳之旨及示身火聚灰燼出舍利如粟其行德之顯驗如此又僧起字滅宗初住天台華頂山來主虎邱專力宗門不省俗事臨終盡出平生文字火之

- 習禪篇第三之九(正傳十二人 附見十三人)
 - 明金陵靈谷寺沙門釋道謙傳(居頂 淨戒)
 - 金陵靈谷寺沙門釋能義傳
 - 金陵靈谷寺沙門釋三峰傳
 - 燕京潭柘山龍泉寺沙門釋德始傳
 - 五臺山顯通寺沙門釋迦也失傳
 - 衡山南嶽寺沙門釋開緣傳(寶珠 圓昂)
 - 泉州開元寺沙門釋道超傳(秋鑑 祖淵 絕塵 無際 月溪 澤忠)
 - 五臺山普濟寺沙門釋淨澄傳
 - 衡山南臺寺沙門釋無礙傳
 - 雲南歸化寺沙門釋善堅傳(鐵封)
 - 金陵大報恩寺沙門釋永寧傳
 - 雲南雞足山聖峰寺沙門釋德住傳(興徹 祖復)

明金陵靈谷寺沙門釋道謙傳(居頂 淨戒)

釋道謙字巽中一號牧庵南昌人生質明敏幼離塵溷學通內外妙徹真如元季住杭之報國寺明初詔至京師泐公方主天界分座演法尋授左闡教住靈谷洪武二十九年十一月示微疾端坐而逝又居頂字元極黃巖人幼學出世法聰慧過人得西邱之正傳性相雙融行解兼至初住四明翠山次遷婺之雙林所至振興洪武間選赴京師召對稱旨授僧錄住靈谷說法傳經其道大行成祖亦屢加恩賚永樂間無疾而化又淨戒定巖者亦字幻居吳興人年十一出家後至金陵值覺源曇住天界命居維那齋不暖席一日曇舉桶箍語問之擬議未即荅曇厲聲曰早遲八刻了也言下大悟復游東南名流加敬洪武丙子授左覺義兼住雞鳴永樂初敕居靈谷遷右闡教永樂戊戌六月二日亭午起坐索筆書偈而逝火後有頂骨牙齒數珠不壞事聞遣官致祭宣德四年追諡惠濟禪師

明金陵靈谷寺沙門釋能義傳

釋能義字無言四明人本世家子素志清苦不事華麗旁無長物以一鉢自隨居鍾山閒房非行誼高潔者不與之接日惟禪定為事暇則與學侶演說經藏要義成祖雅重之召對無虛月每入大內即命講說楞嚴大義居靈谷授僧錄以奉詔北來卒於慶壽僧舍

明金陵靈谷寺沙門釋三峯傳

釋三峯字於密亦號漢月梁溪蘇氏子也年十五出家越十年受具戒於靈谷古心時古心參禪說戒遶座數百人見峯來大喜曰此子乃法中王豈但我座前子乎居一年辭去古心親送之曰靈谷有靈汝當再至峯回顧者三乃往三峰後參天童為首座年四十受天童衣拂法弟子遍江淞自此靈谷宗派皆承三峯矣

明燕京潭柘山龍泉寺沙門釋德始傳

釋德始字無初日木國信州神氏子幼性端靜見羣兒嬉戲輒引去遇僧過門則色喜父母知其志遣從近寺一公祝髮稍長詣天寧探索羣籍荏苒三冬悉通大意已而歎曰文字之學不能洞了人之性源遂捨所學附海舶抵中土謁靈隱慧禪師深悟單傳之旨及東歸國人景仰尊為禪祖聞古幽州山川之勝結侶來游因憇慶壽時獨庵衍治寺事與德有舊延致丈室與激揚臨濟宗旨識者稱之衍欲以寺事付德德殊謙讓未遑乃禮峨嵋時獻王咨問法要禮遇勤厚始出世無為道望彌崇明永樂初獨庵進階大子少師邀之論道六年春應董平坡之請居再歲即謝事十年壬辰將闢靜室為佚老計而帝眷方隆詔畀龍泉寺事德既欽承明旨早夜孜孜以繕修為務凡棟宇蠹敝者易之階圯頽壞治之丹堊剝落者新之比舊有加焉先是獻王致鍊金百鎰為造西方三聖像金彩莊嚴曲盡其妙德平昔尤喜卹貧賑乏薄於奉己厚於待人以故四坐道場囊無餘蓄褚衾瓦鉢蕭然自怡臨終端坐而逝荼毘時獲舍利百餘顆晶瑩圓潔觀者歎異

明五臺山顯通寺沙門釋迦也失傳

釋迦也失者天竺迦維衛國人世尊之族也道行非凡神通難測仰曼殊之蹤來遊清涼明永樂十二年至顯通寺冬十一月明帝遣太監侯顯詔至京師入大內免拜賜坐於大善殿奏對稱旨勅主能仁方丈制書慰勞賜予甚厚明年頒賜金印寶誥號曰妙覺圓通慧慈普應輔國顯教灌頂弘善西天佛子大國師無何辭還五臺一定七日乃起至於宣廟尤加欽崇禮逾常格後於宣德六年辭歸西域

明衡山南嶽寺沙門釋開緣傳(寶珠 圓昂)

釋開緣字無盡順天人明嘉靖間與僧寶珠同遊南嶽初棲明月峯又得花藥僧元章山莊於水參峰之麓居四十餘年草衣木食悟佛心印年七十坐化弟子圓昂字遜庵衡陽人祝髮花藥寺參南嶽無盡遂嚴戒律習教明宗

妙通玄悟曾在南嶽建雲龍寺以萬曆壬辰入寂葬小松山武陵龍德孚銘其塔曰南嶽胡來西天胡去丕振宗風洪沾法雨五葉有傳一葦可渡無生無滅何去何住勗哉後人永修禪土

明泉州開元寺沙門釋道超傳(秋鑑 祖淵 月溪 絕塵 無

際 澤忠)

釋道超字雲外姓李氏安平人也生有夙根幼懷高志當辭親入山日家人為具牲醴餞別超蹙然曰既欲出塵當除腥穢如此俗習尚不能遠何論他耶或為譬解強之竟不食禮開元秋鑑為師年二十入京師依大功德寺祖淵職藏三載心迹皎然後游東浦參無際月溪二老授以無字公案染疾還山狀甚沈瘵禱於觀世音夜夢白衣授赤丸使吞之驚寤而嘻是日果有老人負囊至療之而愈一日看黃蘗語錄殊有會心憾無明眼提撕莫由省覺復又自念如來六年苦行方得成道迺思辟穀唯飲水樂饑一意參窮歷十八日而身心輕瑩如有悟入時太守熊公以開元日壞命超掌院事竄匿山谷求之再四始為一出及熊卒乃復辭去參絕塵於秀林塵問佛祖關要超即事酬答辯若瀉流塵印可之猶自以為未也乃謁澤忠於棲真機緣符契方得無疑自爾歸來息影山阿獨處兀坐千日為期明天順壬午開元缺席推選未當久懸不決聞於郡丞孔公孔命使持簡請超蒞止超益深遯至成化甲午翻然歸院為眾說戒已而度夏天立巖中忽焉示疾臨終書偈曰天地之數五十有五邈焉中立超佛越祖本無生滅何用指注擊碎虛空何處不遇要行便行著甚分付擲筆坐化時成化十一年五月十八日也茶毗窆靈骨舊塔有雲外語錄一卷

明五臺山普濟寺沙門釋淨澄傳

釋淨澄字孤月姓張氏宛平人也始生時有二僧踵門而至厥父喜告以舉子且請名焉僧曰此兒非常可名清正無何父母相繼謝零丁孤寂因有絕塵志偶至雙城路逢老僧相與問訊為道所願求之落髮及詳詰來緣具明夙因知此所遭者乃初立名僧也嗟歎久之於是就金河寺剃度初習經業未愜心性示以念佛法門則拳拳服膺奉持不爽未幾其師竟寂更參知識得五臺壽寧寺僧清善為易其名曰淨澄隨之詣臺執業甚勤自覺工候未純即走古華巖日夜磨鍊幾及一載一日凝滯頓開如去重負乃還燕京求證於廣恩月溪陳其所悟溪詰數語汗下不能對溪曰汝得信念爾令參狗子無佛性語疑情頓發數日忽有省久之溪可其悟即付以卷拂南游渡黃河舟沒所有俱失手觸浮木攀之不沈隨波漂流遇救得出自此勘破生死發願拯溺苦海茫茫欲登覺岸何異此境於是入蜀川飛雪山獨居三年深心究參嘗於造飯中得定既覺來時飯生白醭一日方坐聞聲曰祖順踏破

腳了三日後人到印對前言無差在百里之外蓋靜極徹聽也澄好敷坐地上寒濕傷足不良於行荷至後山安養久之漸差又一日敷坐木牀正爾湛寂忽聞爆竹聲豁然心空自是方得一切時中洞然明妙乃辭眾詣圓覺法鑑處陳其所悟覺曰子向後更當何如澄曰隨分覺曰若然則饑飡渴飲去也澄曰終不作如是見解覺頷之後參廣福雲谷谷見其一向孤迥乃問如何是無字意澄曰風行草偃水到渠成又問大地陸沈虛空粉碎向何處安身立命澄曰雲消山嶽露日出海天清谷可之遂付衣鉢明天順初元言返清涼道聲遠震代王請詣內掖問道感白光襲室之異為捨資建剎五臺山華嚴谷額曰普濟事之唯謹後坐化斯寺著有清涼錄及山居詩為世傳誦詩云寰中獨許五臺高無位真人伴寂寥一任諸方風浩浩常空兩眼視雲霄甘貧林下思悠悠竹榻橫眠枕石頭格外生涯隨分足都緣胸次為無求自住丹崖綠水旁了無榮辱與閒忙老僧不會還源旨一任山青葉又黃

明衡山南臺寺沙門釋無礙傳

釋無礙者信陽人也而遺其姓字一衲百結如粟穗明宏治初來衡嶽坐天柱峰下獅子巖日啖苦菜不穀食者三十年堅苦動眾為建寺居之明劉陽有無礙山房記略云南臺者荒址也因無礙而再闢乃今開閣依崖壁穹林幽舍為南山一勝矣南軒晦庵二先生嘗倡和雪中其詩曰相望幾蘭若勝處是南臺斯南臺之勝宋乾道間見之矣無礙持一鉢至天柱峰下獅子巖巖中僅容木榻無礙坐木榻啖野菜不穀食者七年邑中人苦之乃謀所以居之者宏治間大崖李世卿遊衡山記所稱有僧巖居食生菜見人嘿者即無礙也野雲孤鶴飄飄然無與於斯世者似其人也昔臥山房千崖冰雪雪芝挂崖石乃無礙赤腳踏懸崖取之饜余余為賦雪芝以答之倏三十年冰雪如昨也茲與諸君對牀上方乃於斯人至激余衷彼其所求何堅苦刻勵也其徒明通欲傳無礙堅苦之行謂余三度寒臘於茲山房當有留於山房者茲漫識之

明雲南歸化寺沙門釋善堅傳(鐵封)

釋善堅字古庭姓丁氏滇城南廓人也誕生之夜紅光盈室異香彌戶鄰里驚歎甫及齠齡便乞出家年當就傳入五華寺禮慈宗為師命名善賢初習禪觀坐持不輟慈甚異之勉誦聖號年十六走金陵謁無際示萬法歸一語參究精誠兀兀達旦脅不至席一日看圓覺經至身心俱幻處善然自釋因太息曰離此身心誰當其幻年十九復禮柏巖更名善堅逾年受具足於古杭戒壇明正統十年始造金臺乃恍然曰目前境界非我所留死去生來安可息也遂爾心地豁明尋復參無際證明大事一見喜曰吾法自子大行於世賜號古庭付之法服為臨濟二十三世且命之曰先師慧命勿令斷絕堅

聆其言如怖驚雷兩手掩耳頰首而退後住錫皖桐浮渡山華嚴寺大興法會道望日崇已而返滇建歸化寺滇南禪風由此復振嘗移母柩就葬拈香遙咒冀得超登俄而祥雲彌空冉冉西向久之方息見者驚愕歎為誠感以明弘治六年癸丑七月二十日集眾說偈瞑然而逝年八十餘臘七十立塔寺南滇人敬禮至今不衰明季諡曰梅檀尊者今更名法幢寺所著有語錄名山雲水諸集鐵封慧固者昆明石氏子釋年出家壯歲受具曉夜精勤戒行冰潔恆持金剛經久而不怠因之發明晚參古庭遂得印證時有異人兼善幻術試之累驗欲以授鐵鐵婉卻之謂佛法真諦不生不滅身心俱幻何有於術年七十餘述偈坐化

明金陵大報恩寺沙門釋永寧傳

釋永寧字西林姓郭氏六合人也幼出家禮報恩無瑕玉為師生性耿介獨自持重言動不妄眾所推服年二十即持金剛經至老不輟明武宗駕幸南都駐蹕斯寺大宗伯慮寺僧無可承旨者遴選皆不稱先是寧與東林惠遠素稱莫逆兩人狀貌魁偉喬白巖為大司馬久與寧善宗伯大喜即以遠為僧錄右覺義以寧為報恩寺提點及駕臨寺登殿禮佛百官朝罷諭作誦經佛事命呈疏草宗伯議須翰林寧曰佛疏別有體制須僧當行可耳因舉遠具疏草呈武宗覽之喜曰朕家有此僧耶宗伯即以僧錄印付遠寧隨侍游覽應對稱旨自建道場至起蹕陪讌七日竟無一失宗伯由是益重之嘉靖十年眾舉為住持綜理寺事二十年遷僧錄右覺義又五年轉左覺義先是江南佛法未大行寧居僧秩切以法門為憂每謂僧侶見輕於士林者以其無學故取辱名教玷污法門耳乃請雲谷法師住三藏殿教諸習禪者始知有禪宗數年雲谷去隱棲霞適守愚師南來寧復延致選僧眾數十人日開講席親領聽受從此始知向佛法掌僧錄印二十五年諸山奉法惟謹嘉靖四十四年正月十六日示寂先數日持僧錄印謁禮部大宗伯請以老辭大宗伯慰留不允寧歸即封其印明日示疾竟不藥但誦金剛經不絕十五夜舉眾圍繞號佛遂悠然而化壽八十有三臘七十有奇弟子奉葬於智安寺憨山釋德清再傳徒子也嘗撫清囑眾曰我身後寺事無大小聽此兒主張人服其知人

明雲南雞足山聖峰寺沙門釋德住傳(興徽 祖復)

釋德住字寶山姓張氏劍川人也童行超然不為俗染明嘉靖癸亥入雞足山受度初居聖峯究心宗學忽一笠飄然行腳中州至伏牛山主僧北人格於語音閉門不納山因立一足亭亭門外寂然一定經七晝夜立處不偏不倚不移尺寸寺僧嘗布灰驗其左右眾始歎異後額其處曰雲南鐵足羅漢云及還滇隱幻住庵值聖峰災與妙峰分道叩募復恢舊基重構新宇年至

耄耄始化興徹者字大空洱海人依定堂祝髮誓習立禪終日不坐終夜不寢後往孤鳥寺參天竺復掩關蕩山學楞嚴於印光一定三日光訊曰得法喜乎曰如是如是翹一足示之而無欹斜光首呵之既而入獅子山一日報眾違別香煙起處聞空中梵聲漸向西去又祖復字野山姓朱氏其先出自晉藩遠承國蔭復雖生於華胤而厭棄俗榮明萬曆初遊匡廬茅山周覽名勝尋稅髮至滇會楚雄歲旱復為祈雨甘霖立霈士民德之乃建紫頂禪林未幾入永昌臺山更剎金光梵宇赴京請藏以鎮此山嘗爇香指上焚禱佛前十之八九平生不設臥具翹然達旦故人號為立禪足不蹈戶者數年及聞明社傾覆清兵入關遂絕粒但飲清水儻焉三七說偈而化遺言貯身香桶有桶箍三裂吾當再來之識後其箍二裂寺僧竟封其塔

- 習禪篇第三之十(正傳十人 附見三人)
 - 明攝山棲霞寺沙門釋法會傳
 - 燕京吉祥院沙門釋明信傳
 - 新城壽昌寺沙門釋慧經傳
 - 青陽九華山沙門釋性蓮傳
 - 會稽華嚴寺沙門釋志若傳
 - 廬山雲中寺沙門釋法忠傳
 - 燕京大慈壽寺沙門釋覺淳傳
 - 杭州東天目昭明寺沙門釋如雲傳(曉本 性沖)
 - 金臺龍華寺沙門釋廣禎傳
 - 會城斗光寺沙門釋洪上傳(不語僧)

明攝山棲霞寺沙門釋法會傳

釋法會字雲谷姓懷氏嘉善胥山人也幼有逸志頗厭塵囂投邑大雲寺出家初習瑜珈會每歎曰欲了生死乃碌碌衣食邪年十九決志操方乃登壇受具聞天台小止觀法門專精修習時法舟濟禪師續徑山之道掩觀於郡之天寧會往參扣呈其所修舟曰止觀之要不依身心氣息內外脫然子之所修流於下乘豈西來意耶學道必以悟心為主會悲仰請益舟授以念佛審實話頭直令重下疑情會依所教日夜參究寢食俱廢一日就食食盡亦不自知碗忽墮地猛然有省恍如夢覺復請益舟乃印可閱宗鏡錄大悟唯心之旨從此一切經教及諸祖公案了然如覩故物於是韜晦叢林陸沈賤役偶讀鐔津集見明教大師護法深心初禮觀世音尊日夜稱名十萬聲會願效其行遂載觀世音像徹宵不寐禮拜經行終身不懈時江南佛法禪道絕然無聞會初至金陵寓天界毘盧閣下行道見者稱異魏王聞之乃請於西園叢桂庵供養會住此入定三日夜居無何西林永寧請住報恩寺之三藏殿會危坐一龕絕無將迎足不越閫者三年人無知者偶有權貴人遊至寺見會端坐以為無禮謾辱之會拽杖之攝山棲霞棲霞者本梁時開山武帝鑿千佛嶺累朝賜供贍田地但道場荒廢殿堂為虎狼所穴會愛其幽深遂誅茅於千佛嶺下塊然獨處影不出山時有盜侵之竊去所有夜行至天明未能離庵左右人獲之送至會食以飲食盡其所有持去由是聞者感化太宰五臺陸公初仕祠部主政訪古道場偶遊棲霞見會氣宇不凡雅重之信宿山中欲重興其寺以會為住持會堅辭舉嵩山善以應命善盡復寺故業建禪堂開講席江南叢林實肇於此會之力也道場既開往來者眾會乃

移居於山之最深處曰天開巖弔影如初一時士大夫聞風造謁會日無貴賤不問道俗入室必擲蒲團於地令其端坐反觀本來甚至終日竟夜無一語臨別必叮嚀曰無空過日再見必問別後用心難易若何非深造有得則茫無以應蓋慈念愈切繩糾益嚴雖無門庭設施見者望崖不寒而慄了凡袁公未第時參謁山中相對默默坐三日夜但示以唯心立命之旨奉教唯謹事詳省身錄丙寅冬愍禪道絕響乃集五十三人結坐禪期於天界力拔愍山入眾同參指示向上一路會垂老悲心益切雖最小沙彌一以慈眼視之遇之以禮凡動靜威儀無不耳提面命循循善誘見者人人以為親已尋常示人特揭唯心淨土法門居恆安重寡言定力攝持孤山清修四十餘年終身禮誦未嘗一夕輟居鄉三載所蒙化者以千萬計一夜四鄉之人見庵中火發及明趨視會已寂然矣時萬曆三年乙亥正月五日也壽七十有五臘五十茶毗葬於寺右愍山感其發跡入道因緣親蒙開示禮塔於棲真因募建塔亭述其見聞而為之傳推為中興禪道之祖惜機語失錄無以發揚秘妙云

明燕京吉祥院沙門釋明信傳

釋明信字無極姓宋氏沙河人也垂髫毳毳即捨塵凡禮順德天寧深為師稍長以生死為憂年十三即請本師以行腳事往牛山入大火聚精勤刻苦日夜煅煉者二十餘年塵勞雖覺暫謝然未有所悟入因覲歸順德至西山上棧坪迴絕人跡潛居六載一食朝昏諸念頓息頃之即參諸方北走京師登壇受具復隱銀山之中峰避影三載日以橡栗為食專注禪觀時忽心境皆空根塵頓脫豁然開悟自覺當體無依時翠峰據臨濟正宗令開法於都門因求印證機緣契合尋即謝去隱於京西金山吉祥院以長養為懷堅持孤硬澹然若無所寓衲衣穀食二十餘年內府太監張暹南聞而謁之捐金重新梵宇諸方學者日益景從居無何念家山寥落有歸與之歎杖策西遊祖塔以謝度脫未幾尋歸吉祥滅影人世而水雲四來道風益振一日無恙召眾說偈危坐而逝明萬曆二年二月七日也壽六十有三臘三十有奇弟子奉茶毗禮收靈骨葬於西嶺之隱寂石洞愍山為之碑記

明新城壽昌寺沙門釋慧經傳

釋慧經字無明姓裴氏崇仁人也初生時母產難祖父誦金剛經遂得婉因名經經生而聰穎儀形蒼古若逸鶴凌空天性澹然無他嗜好九歲入鄉校便問浩然之氣何如塾師異之年十七棄帖括慨然有向道之志及冠偶入居士舍見案頭金剛經閱之輒終卷欣然若獲故物即與居士言其意居士奇之由是不茹葷酒決志出世父母亦聽之蘊空中禪師說法於廩山往依之執侍三載凡聞所教不違如愚獨於金剛經四句偈頗疑之他日偶見傳

大士頌云若論四句偈應當不離身不覺灑然因述偈有遍界放光明之句以是知為夙習般若重發也時年二十有四又嘗閱大藏至宗眼品始知有教外別傳之旨至於五宗差別竊疑之迷悶數月若無聞見時以為癡久之有省由是切志參究遂辭廩山欲隱遁乃訪峩峰見其林壑幽邃誅茅以居不明大事誓不空返居三歲人無知者因閱傳證見僧問興善如何是道善曰大好山經罔措疑情頓發日夜提撕至忘寢食一日因移石堅不可舉極力推之豁然大悟即述偈曰欲參無上菩提道急急疏通大好山知道始知山不好翻身跳出祖師關因呈廩山山亦知為法器經軀體孱弱若不勝衣及住山極力砥礪躬自耕作鑿石墾田不憚勤苦每聞空山叩叫若物憑之乃夜獨山行居不閉戶誦讀如恒年二十有七猶未薙髮人或勸之曰待具僧相乃爾至是始染剃受具自是以往影不出山者二十有四年邑之寶方乃宋寶禪師故剎也請經重興始應命先之廩山掃師塔而後往有倏然三十載忘卻來時道之句時年五十有一萬曆戊戌歲也既住寶方益增精進凡作務必以身先形枯骨立不厭其勞不數年百堵維新四方衲子聞風而至然久住山中未得行腳終隘見聞乃荷錫遠遊過南海訪雲棲復之中原入少林禮初祖塔問西來單傳之旨尋往京都謁達觀深器重之入五臺參端峰峰門庭孤峻一見而契乃請益數則乞其指示若臨濟道佛法無多子玄沙謂靈雲未徹趙州云臺山為汝看破之類遂相印許峰返詰之經答以頌語詳別錄最後趙州頌云暗藏春色明露秋光有眼莫鑑縱智難量到家不上長安路一任風花雪月揚峰為首肯觀經語忌十成機貴回互知洞上宗由此必振而經亦倦遊矣乃返錫寶山開堂說法以博山來為首座師資雅合激揚宗旨遐邇嚮風來者益眾戊申邑之壽昌為西竺禪師所創久頽眾請經居之舊傳有讖經與竺同鄉同姓以經為竺再來云經住壽昌不攀外援隨緣任用數年之間所費萬計道場莊嚴煥然鉅麗叢林所宜纖悉畢具雖千指圍繞而隨機善誘各得其宜每遇病僧親調藥餌不澤淨穢必盡心力而為之胸次浩然耳目若無睹聞年已七旬猶溷跡勞侶耕鑿不息嘗先出後歸以身作則故三剎歲入可供三百眾四十餘年曾無一息自安雖臨廣眾未嘗以師道自居至於應酬偈誦法語川流雲湧誠所謂般若光明如摩尼圓照無思而應益王欽其道德深加褒美嘗歎曰去聖時遙幸遺此老其見重若此以萬曆戊午正月十七日示寂壽七十有一臘四十餘先是丁巳臘月七日自田中歸語大眾曰吾自此不復砌石矣眾愕然除夕上堂云今年只有此時在試問諸人知也無至戊午正月三日示微恙遂不食云老僧非病會當行矣大眾環侍驩若平生七日以偈示博山次第寫寶方壽昌遺規并遺書遠近道俗自作舉火偈至期乃索筆大書今日分明指示擲筆端坐而逝荼毘火光五色心燄如蓮花其細瓣如竹葉頂骨諸牙不壞餘者其白如玉重如金文成五色愍山為之塔銘稱其昭然生死實踐可知洵不虛矣

明青陽九華山沙門釋性蓮傳

釋性蓮字無垢姓王氏僊源人生而不凡幼時嬉翫效作佛事有明中葉政教龐雜象法浸微外道羣聚宣揚其說蓮每往觀聽輒謂眾曰此夢語也其如生死何年二十二遂散家財棄妻子之金陵攝山棲霞寺從素庵節蕪染受具依棲講席習諸經論義置卷歎曰吾為生死大事出家此豈能了大事乎復棄去得故鄉之牛頭山誅茆以休刀耕火種專以己躬事下念久之未有所入又棄去至清河謁法堂授以念佛三昧乃深信入尋參遍融於都下一見器之因留入室久之妙峯開法於蘆芽蓮特往見多所陶冶復歸故鄉之大山四方緇白聞風而至歎曰吾輩出家當盡歷名山遍參知識豈拘墟近見障此生乎乃復棄去多方行腳備嘗辛苦如是者七年偶冬日涉河冰裂作聲墮水寒徹忽然有省生平之疑泮然自釋即卓錫於池陽之杉山十方衲子日益麇集遂開梵剎以接待為事至者無他技但精潔粥飯茶湯了無禪道佛法觀者諦信不疑九華道場迎為叢林主蓮治已精苦忘身為眾凡化惡性必委曲周旋俟其大信而後已行之廿年遠近傾心凡有所須應時如響足跡所至一食一宿之地皆為道場若池陽之杉山九華之金剛峰觀音山之金堂大山之草庵蓮嶺之靜室金陵之花山餘若秦頭峯娑婆壠岑峰洞白沙山吉祥諸天隨地各建蘭若數十所以修隱靜者居之咸以其徒主其業丙申仲春應眾請來皖山不數月百廢具舉三祖道場燦然復盛遐邇風動乃復歸九華越明年皖山四眾固請重蒞蓮首肯曰去即去矣尚須三日明日偶過九龍訪一庵主四顧欣然乃謂眾曰吾至此山大事畢矣眾不喻其意二日示微疾竟終此塔於蘭若之右時萬曆丁酉九月三日也年五十有四臘二十有五其弟子查汝定持其行實乞憇山為之銘云

明會稽華嚴寺沙門釋志若傳

釋志若字耶溪姓姚氏山陰人也母晏氏嘗禱於白衣觀音祈生佳兒夢跣足頭陀謂之曰吾與汝作獅子兒覺而舉若性機穎幼喜念佛合掌趺坐貌如老僧父早喪母孀居七歲母病日夜悲泣母臨終囑曰汝宿僧也無負本願言訖而逝若以遺命尋禮會稽華嚴賢出家年十七始蕪染居常切念生死即之牛頭山矢志參究未幾從荆山法師聽法華經於天台即隱山中憤求向上單棲六載偶觸境有省年二十六聞雪浪恩開法於南都乃瓢笠而往先從棲霞素菴受具遂依雪浪座下執業十有二載研窮諸經論深造玄奧明萬曆己丑攜李剡慧華庵沈司馬岳水部延若居之庚寅陸太宰五臺管僉憲東溟劉柱史子威請講楞嚴於吳門壬辰講法華於杭之靈隱明年講楞伽於淨慈壬寅棲息武林飛來峯北有永福寺故址廢人民間潘太常贖建佛閣禪堂既成以若居之三吳兩浙皆宗若教化隨在列剎開演諸經論者三十餘處坐禪五十餘期稱一代師匠云寂於萬曆丁巳某月九日壽

六十有四臘四十有七先一日示微疾手書遺憨山囑弟子曰我留最後供必為獻之明日索浴自起更衣端坐而逝生平清節自守應世嶮然三衣之外無長物臨化脫然無罣礙蓋乘夙慧般若根深人未易察也憨山為擷其芳菲以詔後來

明廬山雲中寺沙門釋法忠傳

釋法忠字敬堂姓曹氏歙人也母程氏生而穎異幼好端坐不隨兒戲稍長頗厭塵苦不治家人生產年十九遊錢塘靈隱寺遇雲水僧大機即求出家為染剃執侍三載未幾登壇受具即依講肆久之多所參承然未自信遂行腳至少林依大千潤禪師扣單傳之旨已而走長安謁徧融月心指示心要尋歸五臺時憨山妙峰同居北臺龍門忠訪之於冰雪中一見心相印契留居期年萬曆壬午妙峰之蘆芽與忠同往遂開叢林諸所創立忠有力焉居三載棄去入伏牛火場調煉三業南還登匡廬愛其幽勝誅茅於講經臺居三載復還五老峰匿彩四年一日登仰天坪乃匡廬絕頂喜其高勝遂居之零丁數椽漸緝屋宇久之衲子漸集忠手植松十餘萬本冀成叢林忠恒坦夷無緣飾御眾不立規矩凡細務必以身先至老不倦隨緣自守一衲之外無長物粒米莖菜必與共之視眾如一平等行慈無論智愚浸久默化而不自知故來者如歸凡所言論慨切痛至無不心領神會寂於萬曆庚申秋七月二十一日先示微疾臨化端坐謂其徒曰吾見紅日當空金蓮遍地吾其行矣言訖默然壽八十臘六十荼毗收靈骨塔於桃花峰下憨山為之銘

明燕京大慈壽寺沙門釋覺涇傳

釋覺涇字古風姓宋氏新城人也父欽母張氏生性恬澹不茹葷酒兒時好趺坐頗厭嬉逐及長不治生產即善觀空修離欲行天然穎悟每集諸善男子作般若圓覺法會涇為之長年二十七棄家遠遊如京師登堂受白衣戒寶藏成師開法於王城涇往參謁有所感契即從披剃執弟子業居最下版雖執爨負薪未嘗不以身先堅苦三載始受具足從守心無礙聽華嚴圓覺楞嚴諸經於四大分離妄身何處之語有所領契自爾隨處建立華嚴圓覺道場歲無虛日王城感化若迦維改觀洋洋中外如此者十餘年明嘉靖辛酉司禮監黃錦錦衣焦重修普安寺迎涇居之幾二十載涇唯據丈室不事干請延一江大千止庵諸法師弘天台賢首兩宗隆慶壬申宮中始崇佛道就普安建吉祥道場涇主壇筵精誠感格恩渥頒隆齋饋盡從中出神宗初元兩宮聖母為社稷祈福凡建齋堂多就涇所嘗賜千佛錦袈裟萬曆丙子建大慈壽寺成即遷涇為住持命度沙彌一人為弟子及敕校續入大藏涇首領之凡所弘闡無不稱旨居常接納四眾但舉圓覺知幻即離不作方便離幻即覺亦無漸次之偈及楞嚴如幻三昧或拈提古人向上公案以警發

之暇則行住坐臥每咄咄作私語見聞即之改容舉莫識其為密行者生平所行不離當處而大播宗風竟莫究其涯涘一夕召諸弟子告以微疾端坐三日熙然集眾念佛隨聲寂然而逝時萬曆九年辛巳四月十有七日也壽七十有一臘四十有奇得度弟子十五人本在為欽依僧錄善世領大慈壽住持奉葬於寺後聖母悼之賜金建塔而愍山為之銘焉

明臨安東天目昭明寺沙門釋如空傳(曉本 性冲)

釋如空字無趣姓施氏秀水人幼性端凝長企清潔自號靜齋留心內典博覽經論志慕禪學同友法舟參訪八年乃至東山謁野翁曉本授以一歸何處語夜聞雞鳴有省復叩決之曉本印可如空始落髮受戒便付衣法偈曰非法非非法非性非非性非心非非心付汝心法竟曉本浙人初習教觀後登東峰於念佛是誰體究有得恍然於西來大意乃歎曰有水皆含月無山不帶雲禪者宗之如空得法後即住敬長萬曆庚辰八月六日辭世有偈生來死去空華死去生來一夢皮囊付與丙丁白骨斷橋隨眾呵呵明月清風今弄壽九十歲弟子性冲字無幻為編語錄行世後住徑山亦自有語錄

明金臺龍華寺沙門釋廣禎傳

釋廣禎字瑞菴姓孫氏金臺人也生性奇譎不齒羣兒見者異之心喜念佛時喃喃作諷經語龍華榮菴茂居僧錄左闡教有重行偶過從孫氏禎甫七歲見而奇之因乞為沙彌遂命與上足璽為弟子少長即喜以聲音為佛事調練三業精修六時年三十登壇受具大通法師教化昌隆禎事之多聞法要隆慶改元大宗伯舉為龍華住持禎大開法社延禪講宗師集四方學侶披閱大藏闡少室天台兩宗後來諸方師匠中興曹洞若大千潤者多發跡於斯妙峯登微時以大藏因緣謁禎禎為引重公卿問道風大著妙峯為法門推崇亦藉資焉神宗登極尤尚法化海內名藍知識多出其門丁丑春妙峯與愍山隱居清涼禎傾心慕之遊五頂搜訪於冰雪中居無何杖錫南遊禮普陀入天台隱於通玄峯頂鳥棲穀食於焉三載專精一行三昧有所發悟尋謝去回策東吳禮長干舍利泝長江陟九華登匡廬馴黃龍白鹿揖五老而望香爐遶文殊經臺三匝滌除玄覽以休過黃梅求印證焉復遊天目武當抵南嶽求悟法華三昧處回入伏牛練磨眾中居三月乃歸萬曆九年辛巳春妙峰與愍山建大會於清涼禎與雙林平無遮允齊入法社壬午春會罷復與愍山結隱太行冬初始還故居甲申奉慈聖命同妙峰飯僧秦晉伊洛諸名山因出關走蘆芽渡河登華嶽覽長安閱雁塔留影尋草堂羅什翻經處結夏圭峰望太白太乙略嶠函而東再入伏牛訪嵩少參鼻祖單傳哭潤公扣白馬以歸居頃之復奉慈旨賚大藏往天台廬嶽復之清涼還報禎喟然歎曰一介微僧數叨慈命撫心顧德愧何以當乃引疾獨居屏絕人

跡居常自足無意於世生平後已先人不以物為事戒珠心月秋露空寒貌古神清長松孤鶴曖然可親凜然可敬達觀嘗稱之曰吾門之龍華猶如秦鏡真能照人肝膽其賞鑒如此禎抱疾期年一日召諸弟子曰吾賴為佛子愧無補法門但耿耿此心不敢辜負佛恩耳生謂我不足死當我有餘爾其勉之予行矣言訖而逝時萬曆十有七年五月二十三日也壽六十有二臘三十有奇葬於京西北海之隆禧寺左憨山為之銘

明會城斗光寺沙門釋洪上傳(不語僧)

釋洪上字梵庵姓趙氏普安人也家世儒素洪生之夕其母夢白鶴飛翔集於屋瓦寤而婉子以為祥也未幾失怙孑然孤幼殷殷奉母長歷世變遠避入滇漸達騰越依毘盧寺大藏祝髮時明天啟六年也欲窮我空之理離生死之苦闡心勤求食寢俱廢因讀楞嚴有省虔禮觀音一夕定中見金身菩薩千眼所視千手所指森然叢集方驚愕問菩薩乃分一手眼授之出定獨覺異香滿室自是心地清涼精進倍蓰復參妙峰野愚指示理諦皆得證明遊尋甸鍾靈見山巒環拱林壑幽秀乃刈草為庵獨處數載始回黔改宅為寺名曰慈雲以飯游侶及再至滇會城薦紳延主斗光大弘法席已亥春遷錫易隆即示微疾留偈示眾偈曰十方三世總無明會徹無明無不明隨緣應物無他事只在當人善用心寂年六十三荼毘骨瑩白有光又不語僧者不知何許人亦無由得其名字姓系常居盤山峰頂石巖中灰頭土面兀坐如枯人有謁者略不一顧或叩之再三終不語因以不語名之憨山德清游盤山時入巖禮請屹不為動問之不語清知非常人相與對坐直視默然寂寂無聲久之僧從定起煮茶唯取一甌自飲清亦取一甌自酌而飲飲後斂茶具枯坐如故清亦端坐又久之起炊飯飯[(鼻- 卅+羊)*(虱- (乏- 之+虫)+?)]取一盃一匙自食清亦取具同食食後復坐如故清亦如之夜中僧出巖外經行清亦隨之足音或東西相應明日清知飲時飲食時食僧同飲啜如故入夜經行亦復如是忽焉七日終未一語然已契其懇至相喻言外居久之僧起問清曰仁者何來清曰南方來曰來此何為曰訪隱者僧曰隱者面目不過爾爾清曰入門早已勘破欲得一語以窺其究竟僧乃笑曰余住此三十年今日始遇一道侶願小留清亦安之不復言去清一夜經行忽然頂門一聲轟如乍雷山河大地身心世界豁然頓空其境非尋常日前可喻約五寸香許漸覺有身心漸覺腳下實地漸見山河大地一切境相還復如故身心輕快不可言喻舉足如風迅歸巖中僧乃問曰今夜經行何其久耶清舉所得境相相告僧曰此色陰境耳非是本有我住此三十餘年非陰雨風雪夜夜經行此境但不著則不被他昧卻本有清深河其說即禮謝就坐同居月餘妙峰登遣使尋至巖中始興辭而去歸以語其所知猶自歎曰此路邊境界蓋不語僧猶不語也今無可傳已

- 習禪篇第三之十一(正傳九人 附見三人)
 - 明徑山化城寺沙門釋法鎧傳
 - 四明天童寺沙門釋圓悟傳
 - 雲南竹林寺沙門釋密行傳
 - 荊南普仰寺沙門釋正誨傳(了凡峇)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洪如傳
 - 湖州上柏山報恩禪院沙門釋天隱傳
 - 寧鄉大瀉山同慶寺沙門釋如學傳(圓上座)
 - 漳州南山報敬禪院沙門釋亘信傳
 - 夾山沙門釋本豫傳(方來)

明徑山化城寺沙門釋法鎧傳

釋法鎧字忍之亦號澹居姓趙氏江陰人也世稱巨族母夢僧趺坐於堂上而生鎧故幼性穎悟知有夙慧長習舉子業才名奕奕乃塵視世榮志性命之學父母方為聘室鎧愀然不樂父卒乃杖策孤遊登太和山遇羽士授長生之術過武昌遇講良知學者皆掉頭棄去一日入僧舍見金剛經讀至如來說諸心皆為非心忽有省乃曰是吾所歸也還過浮山坐三曲洞瀝血寫孝經癸巳遊皖城達觀禪師過江上鎧往參再謁乃見求度未許達登馬祖庵鎧偕阮自華至達夜夢披白鎧人侍其側及見鎧著白衣懇求剃度達許之因命今名雜髮受具時年三十有三未幾入天目誅茅於分經臺弔影藏修單提向上蔬食不糝敝衣露肘每降妄心燃香熱臂如是者三載大有開發石帆岳公入山見鎧蓬首垢面腰鎌采薪因太息曰真道人也久之下天目復過宣城掩關於西樂乃習荷重負肩試經行以苦筋骨調昏睡其道益進後出關行腳至匡廬每過叢林坐廊下忽焉達旦辛丑至都門省達於慈壽初入室便問生死大事願師指示達即痛棒如是者再一日又問永嘉云了得業障本來空只如師子尊者二祖肇公等是了得也未聲未絕達連捧之鎧猛省但點首而已自是見地隱密壬寅秋南還入浮山會聖巖乃宋遠錄公與歐陽六一因碁說法處久為俗業皖城澹宇阮公謀復之請鎧以居重新遠公塔瀝血書梵網經日課金剛般若為母壽戊申應太史觀我吳公請住持浮山大華嚴寺居常以本分為念四方衲子至者唯示直捷處乃集諸祖入道緣梓之初達刻大藏以雙徑寂照為刻場後靈龕亦歸之鎧欲滿其願遂往庚戌至山見霧濕濃濃宜求爽塏下有化城故址為宋佛日宣禪師道場太史具區馮公議修復為藏版處鎧簡得手札示左方伯本如吳公

為按址畫界奪諸豪右仍為佛地又贖臨安太平寺田百畝以資供贍於是藏事有歸甲寅吳公開府於蜀鎧以刻藏因緣往議之遂登峩嵒禮普賢乙卯春同直指若谷徐公出蜀是年秋還徑山頗疲於津梁辛酉秋七月遍辭諸檀越過白門以藏事託本如吳公冬十月歸雙徑一日倚杖立堂下顧謂眾曰羚羊挂角不出十二眾罔測至晚爇香禮佛沐浴更衣趺坐默然至旦忽脫去天啟辛酉十二月十三日也壽六十有一臘二十有八弟子元亮具狀走匡山乞愍山為之塔銘

明四明天童寺沙門釋圓悟傳

釋圓悟字覺初亦號密雲姓蔣氏宜興人也父曦母潘氏家世田作悟生而淵穆不逐塵戲八歲便知佛號稍長樵耕給養歸則獨處頗切世相無常之想既冠誦經惺然默記嘗負薪入市釋肩橫陳積柴面前側立竟日若不見人壯歲置妻孥從龍池山禹門寺幻有傳祝髮數載勤勞多所未徹一日過銅官山頂秋爽天高豁焉開朗凝膺渙釋時傳已入都北來觀之二禩而歸禮天台探禹穴海門周公汝登唱道東南以宗傳證聖學與悟深相契結祭酒陶公望齡司空王公舜鼎交參扣擊悟之道法徧於東海自茲始也傳歸龍池且老以衣付悟由是六坐道場龍池通玄金粟黃檗育王天童臨濟之傳稱中興焉初之金粟也夢旂亭下有大井可飲千人一丈者指曰是師住處蓋金粟故千人井悟居六年食指盈萬果符斯兆天童古剎歲久荒蕪悟為完飾高簷觸雲連閣四周金田香界隨地湧出又壤接海宇輪舶交至南詔北貊重譯炷香近古以來所未有也崇禎癸巳天步方艱物多疵癘國戚田弘遇奉御香祈福普陀隨齋紫衣賜悟又以南都大報恩寺屬悟住持以老病辭逾年寂於天台通玄還塔天童南山下清室龍興嗣法弟子道忞於順治乙亥應召入京奏悟道行天語咨嗟有生不同時之歎又進曾鯨所繪遺像呈入御覽復命供奉王國材臨摹二幀世祖雅善丹青親為著墨賜藏天童諭所編語錄採入大藏其眷慕如是康熙四十四年賜諡曰慧定禪師

明雲南竹林寺沙門釋密行傳

釋密行字寂忍姓谷氏宜良人也父思節母時氏均有善念寂行年十四即捨入竹子山竹林寺從順語剃度隨侍三年漸通經論乃辭往雲臺拜讀楞嚴年十九忽感念無常欲離生死有僧自雞足來為道最上乘禪聆之心喜懇乞開示因導以趙州狗子語歷究五載了無着處後遇濟凡謂之曰參禪到無可奈何處方是得力處如戰士失卻寶刀赤手徒搏奮鬥直前奪取敵人手中器械方能殺出去也即於言下有省往參破山一日砌下偶見蜈蚣以石擊斷破山見兩截齊動因問曰他性命在那頭密行曰一舉兩得破山曰否否即呈偈曰者個蜈蚣大煞奇戰場不怕斷頭皮攔腰一擊重開眼正

是當場施毒時山河之乃付以源流嗣曹溪正派且書偈曰蚊子喁喁上鐵牛無容下嘴處難酬紛紛一夏歸山後遇虎逢龍且出頭後駐錫衡州南雲寺更弘法於雲南會城妙音慈雲諸刹寂年五十八有語錄數卷

明荊南普仰寺沙門釋正誨傳(了凡峇)

釋正誨字無跡初祝髮時名永燈姓劉氏當陽人也母李氏幼從外祖之宜都十歲捨入石寶山有塾師館於寺與眾課讀多解文義以未了梵呪為憾年十六西遊憩聖水寺見習瑜伽者喟然歎曰法固如是耶去之復歸石寶讀書益力年二十見僧持緇門警訓者誦之泣下作偈曰善財與我原同性不證菩提誓不休遂詣荊南訪天柱於普仰寺柱器之為更名正誨留居三年遍閱大藏柱寂乃遊伏牛尋其遺跡因之兩都重登講席慈聖太后聞其清譽賜以千金修葺玉泉復請三藏存之寺中初當陽舊有度門寺荒廢已久人多不知誨在普仰時天柱曾口授北宗五十六字云在度門秀國師碑後誨自都歸便訪度門去玉泉七里見古寺破落有石黝然曰大通秀國師之碑在榛莽中撫之悽然集工修治因於塔前興復度門寺曰吾將老此為北宗之裔自是養晦此中專志淨土崇禎元年正月先期告逝端坐說偈曰人間去住是尋常處處名山古道場一念不生三世佛誰能直下可承當有僧問曰究竟若何誨以手撫案曰究竟到彼岸遂寂塔於楞伽峰麓秀國師之傍尋陵王憲使維章為之記誨所著有識略莊子注及詩文諸稿弟子了凡當陽靳氏子總角時依報恩寺廣通出家長習經論策杖南詢遇誨機教相叩言中見諦付與大法更名乘峇遂續北宗正派著有楞嚴講錄傳世

明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洪如傳

釋洪如字無住姓鄧氏定遠人也志行孤絜頗契幽邃家居自課恆持金剛經嘗入白雲崖折茶枝插地咒曰吾道有成則榮無成則萎後乃日見秀發漸至合抱洪如曉夕窮研亦有心得乃禮大千受染復參徹庸命居福城飯眾一夕忽聞鐘聲條爾灑落了明大事即成偈曰通身是遍界是處處逢何曾避後侍庸走金陵請藏歷叩諸方更謁天童六雪及還滇荆寶華寺於水目山弘施法化宗風凜然道價之盛冠絕一時寂年七十三臘四十塔於水目山所著有蒼山集空明集苦海慈航集及宗門語錄南鐙續燄諸編

明湖州上柏山報恩禪院沙門釋天隱傳

釋天隱荊溪閔氏子早歲失怙奉母居貧不能力學種圃以養年二十始自檢束蔬食盟心然未識三寶歸向唯對神立誓若邪念忽起則默誦小人間居為不善章頓然念息一日聽講楞嚴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

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因自警惕欲圖解脫適幻有禪宿來自清涼山唐凝庵太常吳安節通政延居龍池山道風遠邇乃往歸之雖處塵寰無心世味母知其志堅遂允出家萬歷戊戌初從芟染看趙州無字語無有人處更參未生前本來面目工候急切晝三夜三及百餘日偶展楞嚴見佛咄阿難云此非汝心於是如善財入彌勒樓閣頓空豁境界疑情放下明年春隨幻有人城至顯親禪堂問永嘉大師道忽然如托空時如何幻有一喝復顧隱曰我代爾修行去隱禮拜便會得賓主照用之句復入石城天界寺謁松雲貌古臘高精勤定課寒暑不移親炙久之獲益良多又訪文齋於能仁寺敏而能文出語新奇令人心暢辛丑還山掩關兩載終日蒲團正在忘絕境界之際忽聞驢鳴恍然而悟頓釋前疑有偈曰忽聞驢子叫驚起當人笑萬別與千差非聲非色鬧自是見解圓通了無滯礙偶聞風拂松梢雨打窗紙口占云風聲與水聲不必論疏親一耳聞為快何曾有二音甲辰四月八日解關趨觀幻有於燕都普照時已殘冬命呈所見偈曰人說北地寒我道南方暖寒暖不知人窮人知寒暖異日復徵云祇如四料簡汝如何會隱以四法界荅之幻有首句時古輝老宿博通三藏講經於白塔寺因思古德云通宗不通教開口便胡道通教不通宗如蛇入竹筒宗教兩俱通如日處虛空宗教俱不通如犬吠茅叢於是更歷教海會慈聖太后建無遮大會於臺山靜淵主法席隱亦與焉更與妙峰居塔院數月每當請益忻羨真誠苦行建樹德業浩然無窮後回京復與密雲南游浙中謁幻也於天童高風逸韻世所罕及丁未還龍池明年命隱秉拂隱辭之癸丑命理院事復辭因假嶺南靜室掩關幻有以偈寄之云老衲於今不坐關既無住也幸無間何曾進又何曾出只在尋常天地間及聞幻有寂破關匍匐歸詣龕前已而曳杖入關居久之為凝庵居士強之始出遂歸龍池庚申欲編歷諸方偶得山南幽處名磬山荊溪極深谷也誅茆為庵自冬泊春大雪綿綿積五十餘日人跡罕到徘徊四顧唯饑禽野獸而已儲盡糧空煙爨欲絕因卓杖語侍曰若老僧數盡即埋此山他日自然成就伽藍地也後果藉檀信經營十二載竟成叢席崇禎七年秋八月移主湖州上柏山報恩禪院示眾云老僧多病不能提持佛法賴土木瓦石為諸人轉大法輪發諸人大機大用切不可當面錯過若錯過只知事從眼前過不覺老從頭上來蓋隱年已六十矣當掩關嶺南時顧九疇大史問如何是奪人不奪境曰白雲封我圓光戶恰似無人坐室中如何是奪境不奪人曰風送白雲歸洞去祇留一箇野僧間如何是人境兩俱奪曰了知四大原非我白雲聚散本無蹤如何是人境俱不奪曰幾度白雲來伴我就裏和衣帶月眠得法弟子通問箬庵入室呈頌云千玄萬妙隔重重個裏無私總不容一種沒絃琴上曲寒崖吹落五更風隱曰玄妙即不問如何是不隔底句通問擬議隱便捧之復示頌曰千波萬浪隔重重識得源頭處處通根境脫然全體用拈來物物始從容

明寧鄉大瀉山同慶寺沙門釋如學傳(圓上座)

釋如學字無為晚號五峰姓任氏臨潼人降生之辰白光滿室與佛生同日故蓮胎含素鶴骨出塵有自來也年二十恃怙并失薙髮五臺從天齊師觀修淨業晝夕思維向上以了生死斯心未安決志行訪始謁熊耳無言即往圓戒於澄律師依止律堂勤披藏卷復徧游金剛臺虎跑伏牛終南行力艱深境界疊更自得解釋歷抵黃檗匡廬雲門徑山還至龍池參密雲悟深契法旨及從入天台通玄親承煅煉屢臨血捧機不放過久之入室請辭悟握拂云喚作拂子則觸不喚作拂子則背不得拈起不得放下不得下語不得無語不得錯舉若不錯舉即分付汝學即躍起云不要不要悟云猶是亂叫亂跳更試舉看乃轉身云學今去也悟即付之承受記別去後省悟於金粟崇禎辛未來主大瀉同慶斬石誅茅僅蔽風雪從侶朋興宗緒丕振癸酉出山將行化於五臺至金陵為余集生中丞請說法祇陀林吼聲弘亮四眾驚服東南望為大法幢無何自期厭世是秋七月二十二日示寂先以手書入山屬法於養拙明使主瀉山示眾偈云痛舉鉗鎚為阿誰可憐漆桶自狐疑為伊結下來生債五夜霜花開玉墀依法闍維塔於大瀉羊城陶汝鼎為之銘先是崇禎戊辰有圓上座者騎犢披榛把茆晏坐覘枯杏復芽之異明年大宗伯李公騰芳來訪白牛尋源黃木與圓公一宿樹下而去屬同遊者陶子汝鼎作記胡子懋選造庵得前令周公瑞豹所請復官田三十餘畝供香積咸欽聚石之風頗憶畫灰之語俄而學至纔舉南宗遽還中印時有金銅瑞像宮繡幢幡齋自行僧出於大內諸方聞者莫不謂大瀉之山興復有日也

明漳州南山報劬禪院沙門釋亘信傳

釋亘信字行彌姓蔡氏浯人也父惟和母李氏夢大星入懷及誕亘小字福星年十二聞梅山止安九族生天語欣然慕之欲報劬勞白於母母不聽後病熱極危許捨出家即愈年十七從止安薙髮嘗見雪山書壽昌塔銘知有宗門事尋居漳之長泰石獅巖偶值中秋止安到巖方設餅煮茶忽舉德山棒臨濟喝雲門餅趙州茶是同是別竟日思惟欲云同機用各別若云別道豈有二終未能決一日負米登山忽忘身世成一偈曰行住原非我棒喝不是他一箇雲門餅好下趙州茶方知古人真參實悟語不我欺乃發足游參首造鼓山叩博山無異令看父母未生前語頓起疑情值獅林師出因詢林曰適來所問是何意旨林曰一塊石一塊磚兩相撞乃從結茅於芙蓉山居頃之復回鼓山受具時年二十四八月解制乃還溫陵掩關於葵山牛眠室晝夜提撕二七不眠亦不依倚後聞密雲晤開堂於黃檗以書乞示即取來書轉語作復云但見橫尸遍野即便知恩有地亘已爽然若失已而復掩關於南安圭峰報親寺之東庵曾憶僧傳晤以薰風自南來語勘驗學者思之未得值六月掃地關中汗下沾衣忽爾清風徐來舉體慶快乃怕掌曰好箇出身處時人不知時人一知汗透滿衣適金粟費隱繼席黃檗乃馳書陳其

所見答云未見有本分語而通本分消息遂啟關直詣黃檗問費曰昔臨濟會下兩堂首座相見同時下一喝僧問臨濟還有賓主也無濟云賓主歷然祇如兩堂首座未下一喝時還有賓主也無費云兩眼對兩眼禮之而退費問如何是汝本分句巨曰今日晴費云我不問晴再道昨日雨費云汝自己親切上何不道一句巨舉拳費云離卻此手別道一句巨曰鼻孔大頭垂費呵之巨擬再進語費連捧揮出立於侍寮如卓地露柱生平所得所悟前後際斷及結冬費先垂語舉古人云欲識佛性義當觀時節因緣時節若至如迷忽悟如忘忽憶試向此處作一偈看巨呈偈曰數載覓心不見心承師捧下且翻身一生伎倆從斯喪贏得條條一個人自是機緣峻峭當仁不讓乙亥臘月八日始付拂子時年三十二崇禎九年溫陵檀越請住南安大羅山棲隱禪院戊寅春往金粟省費復回黃檗助隱元建興大殿壬午冬費遣專使齎源流祖衣付之舉示眾云此是小僧生平直不藏曲須知當敗闕處正是得力處湊泊不上處正是立地處久立其自敘艱幸如此有語錄三卷

明夾山沙門釋本豫傳(方來)

釋本豫字林臯一號晦夫姓陳氏崑山人年十九脫白誦金剛經有省得法於磬山修棲黃山指象處三年偶偕普門觀瀑布普云此泉在心內在心外豫云內外且置試道此泉從何處來普云原來此中人也兩人從此心契豫後踞夾山法席其道大顯嘗取唐宋尊宿語錄各加品評為宗門誠範歲在丙戌豫計日期至說偈委衣順化方來字曉宗沁水人佐普門開闢黃山頗著勤勞後嗣其法繼主慈光來梵行精嚴初依伏牛山得鍊藝語法與普門契合普門素精等韻韻口唯來獨得其秘丙戌秋一日告眾將別無疾化去

- 習禪篇第三之十二(正傳十二人 附見九人)
 - 清峨眉毘盧院沙門釋克誠傳(貫之 性藏 實如)
 - 寧鄉大瀉密印寺沙門釋正明傳(慧山海)
 - 四明天童寺沙門釋通賢傳
 - 四明天童寺沙門釋通容傳
 - 四明天童寺沙門釋道忞傳
 - 錢塘淨慈寺沙門釋正岳傳(方孝)
 - 孤嶼江心寺沙門釋本瑩傳
 - 瑞安仙巖寺沙門釋超志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本畫傳
 - 荊南東山天齊禪院沙門釋明智傳(實妙)
 - 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普行傳(學蘊)
 - 富民九峯山西華寺沙門釋慧宗傳(心安 道瑞)

清峨眉毘盧院沙門釋克誠傳(貫之 性藏 實如)

釋克誠南涪人順治時明經也年四十棄家為僧居峨眉山毘盧院與伏虎寺貫之相親善居山三十年一瓶一鉢他無長物貫之犍為人少出家從三濟得法講經於伏虎寺重築堂廡廓廣寺基臨終偈云年經七十六自愧無長處私誓深如海道心高似佛生生任我行世世人天路萬物常圍繞那些隨分足性藏字紫芝渝城人年十五祝髮主白水寺三十年九開禪祇有語錄數卷康熙癸丑撫軍延至江左乙卯寂於楊州上方寺其別眾偈云年光五十七世緣今已畢東海石頭枯大峩如鐵壁實如峩眉人居伏虎寺貫之四傳弟子也受法於可聞著有雜集若干卷

清寧鄉大瀉密印寺沙門釋正明傳(慧山海)

釋正明字養拙姓常氏蒲版人生秉異姿澹懷世網年踰志學獨懷幽趣初夏日沒仰見青天忽焉歎曰世界許闊如何拘此壞我善因誓心捨去年二十落髮於南海普陀參學金粟黃檗不事文學唯以苦行磨礪性靈一日見僧讀萬峰錄語以萬法歸一恍然大悟後嗣法五峯每當入室如破桶底如滅燭光種種密印皆悟後事嘗云迷因悟有悟以迷生迷悟兩忘聖凡路絕又曰入得三界混於常流識得箇事無處停留又曰有耳不聞有口不說歷代祖師亾鋒結舌五峯偕之西來付以瀉山結茅為廬藪粟以食揮塵論道

宗風漸開四方之士雲集響應主為十餘載嘗與百人俱頓成叢林每藉草參禪就鑷說法靈祐之統賴以不墜順治己丑春知世緣將盡留僧伽黎屬門人慧山栩然入化塔於為山前阜慧山海既承其積力抗彼前修而隨眾作務不礙悲流故槌槌之筵嘗圍四眾毘尼所攝歲授千徒螟蟻不災其界魔軍自摧於境以是因緣重修勝境順治乙未紺殿琳宮妙相嵯峨矣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賢傳

釋通賢字浮石姓趙氏當湖人也生有奇稟性厭薰腥稍長志學便懷出世年十九潛越南海禮紹宗薙染因歸省父母以獨子苦留稍自蓄髮貌為慰解後投武原普淨菴乘白重相剃度受沙彌戒於雲棲蓮圓具於海寧湛然澄隨侍嘉禾東塔聞同堂舉七賢女尸陀林語有省歸葬二親復參證於雲門及聞金粟密道風崇峻決志歸依明崇禎幸未密遷天童隨入侍寮未幾思出掩關武原請辭密語之日汝三年關後可隨處開堂厚自保重去經二載密過嘉禾破關執侍一日集眾以拂子屬賢日付汝為眾去自是當湖青蓮請賢開法甲申冬主席遯邨報昌順治戊子遷海門廣慧甲午牧雲謝事天童延賢主持丁酉遷嘉禾棲真己亥遷宜興善權庚子住虞山福城退老西山支公之白馬澗丁未七月二十五日入滅世壽七十有五塔於徑山之鵬搏峰下著有語錄行世

清四明天童寺沙門釋通容傳

釋通容字費隱姓何氏福清人幼孤叔父送之鎮東衛依慧山出家年已十四矣初參壽昌經有省後參博山來顯聖澄俱以法器目之依澄最久常命代座說法自謂吾斯未信痛念大事因緣不覺流涕閱密雲禪師語錄傾心嚮慕往謁於越之吼山寓次橫機不讓密唯痛棒頭腦幾裂一時知見猛然頓釋自是隨侍通玄黃檗益入闈奧受屬後隨住黃檗旋之金粟未幾又遷天童清理南山塢院恢復東谷贖還侵田三百餘畝方容之初入院也徧謁祖塔扶杖過東谷見塔宇刊落影堂淪墟荒碑殘碣偃臥階阨間皆先師銘詞香積田數紀載詳盡文旨斐然嘗有居民擬操巨斧擊仆宋周益公碑銘不中反中其首因病創死容盡然傷之未幾得孫觀察子秀張大將軍杰吳參戎岱為之計匡復闢荆榛摧井竈草薙而禽獮之並按碑問諸侵蝕法產者於是太白之陰寶藏之林興璿之英七十二祖之靈無復卷婁之垢藏甌婁之曼聲至今論繼述功於容稱最後主徑山投老石門之福嚴清順治辛丑二月十九日示寂逾數載始化獲舍利無算分供諸方著有語錄二十卷弟子徹綱從石劍常分得舍利子一大如菽歸蜀昭覺起翠堵波於圓悟之左破山之右今猶鼎峙云

清四明天童寺沙門釋道忞傳

釋道忞字木陳號夢隱潮陽林氏子也。薙染於匡廬。開先若昧。明受戒具於憨山。清順治時。賜號弘覺禪師。更寺名曰弘法。錫以勅印。賚予甚盛。勅曰：朕惟佛會拈華妙心。傳於迦葉禪行。面壁宗旨。付於神光六葉。既敷千華。競秀蔭法。雲於真際。火宅晨涼。耀慧日於康衢。重昏夜曉。以至昀日。揚眉擎拳。舉指皆合宗門之妙諦。得教外之靈機。誠非他學可知。亦豈意生所度。眷言道行。冀覲高蹤。實悟真如。必先玄覺。咨爾禪僧。道忞嗣法。天童傳宗。臨濟克證無生之旨。機自玄明。允通向上之關。悟稱真諦。嘗稽載籍。祈會性真。間覽玄文。深嘉妙義。故時於聽政之暇。詢爾以法道之微。乃名言之不彘。克隨機而得解。玄關幽鍵。感即能通。遙源濬波。酌之不竭。傳一鑑於種智。了萬法於真空。廣量出於凡心。元明踰於宿學。引之於有。高謝四流。推之於無。俯弘六度。信乎凡之可以證聖。惟覺足以悟迷。非同測海。窺天固已。登堂入室。堪主法門之席。允稱禪眾之尊。是用封爾為弘覺禪師。錫之勅印。於戲。慈周萬有。大身徧於十方。利濟四生。本覺超乎三世。俾舉代咸登仁壽之域。在隨方而啟般若之門。其益懋爾勤修。庶弘開夫正梵。式承嘉命。丕闡宗風。欽哉。以康熙甲寅六月。示寂。壽七十又九。荼毘頂骨五采。齒無損痕。塔於平陽黃龍峰下。所著有紀年專譜、語錄、詩文集及北遊錄。

清錢塘淨慈寺沙門釋正岳傳(方孝)

釋正岳字豁堂。亦號隨山。姓郭氏。仁和人。夙秉異姿。不近著膩。長無俗緣。息絕塵念。落髮稟戒。三德同具。絜己親師。積功劬學。博通世典。綜貫三乘。匯眾派以同流。悟大化之無盡。力崇正法。見推耆宿。參三峰於淨慈。略呈所見。三峰曰：依識解為超生死根。猶北適南。轅我無此。逐日長進之禪。自是頂伽脫盡睛翳。消除自甘澹泊。智刊情亡。一生蕭散。不接權貴。蘆花泛月。響震魚龍。屐齒登山。春歸奚錦。迨廢宗之誑誤。致法席之零丁。運屬明夷。咎來元妄。從容就逮。振錫闔門。勸化無方。感悟羈囚。道幽益顯。化火宅之凶燄。來徒役之皈依。鬼神呵護。頓見吉祥。天龍迴翔。永圍法座。紳衿崇仰。檀越追蹤。頻來問訊。之書更滿。入山之履。岳迺睹白雲。以高臥。侶浮鷗。而賦詩。一任蘧廬之化。永矢物外之情。方擇地以終休意。泊然而委順。以康熙庚戌七月二十日。示寂。壽七十四。臘五十五。所著語錄、拈頌、啟疏、詩偈、雜著若干卷。得法弟子十有五人。建塔於慧日峰左。名曰宏濟。越明年。其徒戒青為之行狀。乞馮溥銘焉。文詞華麗。見於寺志。方孝字舜瞿。姓王氏。江都人也。投白雲院。雪石薙染。受具於天寧。永禮參豁堂。得悟。遂受記荊。康熙十一年。繼席淨慈。住寺三十年。建堂築室。以拾跣而升。一望山半。無闕焉。寂於康熙三十九年九月二十六日。壽七十六。臘五十四。毛奇齡為之塔誌。並見寺志。

清孤嶼江心寺沙門釋本瑩傳

釋本瑩字大雲姓王氏重慶人幼清警絕俗年十九依蓮城鎮國師剃度已受具戒於德山嵩踰年往參破山隨命給侍值山遷化門徒散處瑩慕江南之勝乃出三峽度瀟湘歷金陵滸錢塘所至叢林耆宿靡不參請康熙初海宇載寧佛法復興宏覺國師提唱平陽庚戌春瑩走謁之一見契合執役五載遂授衣拂已而聞雁山奇秀欲住誅茅偶因失道迴憇江心顧瞻釋迦古像恍若再來私謂此地為真歇了祖道場荒蕪五百餘載儻再立刹竿吾願畢矣寺有住持曰元奇一見契若水乳走懇當道請主院事時變亂初平物力維艱堂廡傾圮從事修飾所費實緜但把茅覆頂道以人傳徒事鋪張亦為物礙乃塗泥編竹斗室蕭然敗衲破罽吟咏自得客至清談竟日夜則焚香趺坐而已癸巳冬返杭之東園東園者瑩舊隱處也居園三年忽告眾曰我西歸矣眾驚問故瑩莞爾曰緣盡則行何常之有說偈而逝偈曰五十一年惺惺寂寂日面月面山青水碧乙丑正月二十六日也年五十有一臘三十有二荼毘收舍利無算弟子元日迎靈骨塔於永嘉蓮花峰下周天錫為之銘文具山志

清瑞安仙巖寺沙門釋超志傳

釋超志字天目姓李氏青浦人也父文所母許氏夙懷道念秉性祥柔及生超志異香滿室鄰里慶之方在髫年夜夢祖墓幻成樓閣離離輝映有老人指曰中紫金上座者爾祖也自此知有仙佛境想又夏夜乘涼露坐忽見天裂中如浮舟霞光燦爛閃爍奪目驚為異瑞明崇禎甲申天下改革海內多故喟然曰吾無濟世才青紫非吾願乃別其親飄然作水雲游戊子從亮融剃度冬於棲真林野受具足戒時年二十三己丑參羅漢自閒一見相契充為侍司庚寅執巾瓶隨至崇明慈濟寺尋登堂集眾付以大法嗣住天台崇法寺甲午夏訪雁蕩玉甌名勝遂抵永嘉禮無相師塔謁密印法幢過仙巖徘徊林麓若不能去久之挂笠漁潭天王寺萬兵憲代尚讀其語錄稱歎不已因贈以詩詩云花香鳥語小窻南灌頂醍醐我自酣長怪東南兩天目精靈幻出老瞿曇遂與尚總鎮好仁潭瑞令希閔李中丞光春合詞請住仙巖時荒垣壞壁草沒人脛僅左屋數椽乃提柳栗一枝入山選勝戊戌浴佛日有以腥酒亂清規者超志誠之弗聽突有虎從叢薄中躍出眾始驚潰志以禪律兼化烏藤白拂玉律金科隨機接引而道風四鬯靈應響臻三十年來佛盧禪肆復閣紆寮輝生林壑晨鐘暮鼓軌則清嚴與東南諸名藍相伯仲矣寺後偃巖嵌石狀若龍虎森列乃鑿壁剝山入地數級甃砌其下以為靜室寂後其弟子奉靈骨藏焉王錫琯為之銘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畫傳

釋本畫字天嶽別號寒泉子姓蕭氏蘄春人幼性聰慧年方四周聽塾師誦書隨聲呬唔曰我亦能誦試之果然因令從讀日數百言穎異邁儔稍長隨父避寇匡廬恍若舊遊白父出家就大林慧荆染銳志苦學偶爾嬰疾乃禮誦習禪以資靜攝因閱鐙錄藏身處滅蹤迹沒蹤迹處莫藏身懷疑不已一日曉起宿鳥飛鳴有省時往參雪嶠信於開先問某也墜地二十年未知墜地事機語契合從茲服膺後依山翁恣於布木臺會天童密雲示寂相隨過四明迺於龕前受具足戒明年恣繼席畫嘗於侍立次問大慧謂參禪貴得命根斷若命根未斷時如何恣喝曰汝識何為命根乃豁然而悟後再參信於雲門書雲門大樹授之又參箬菴問於夾山玉林琇於大雄皆器重之恣住台州廣潤時招畫至恣即升座告眾授以衣拂後結茅於黃石岳三年移牧石菴首開法於龍門遷海會歷杭之佛曰清流越之平陽嘗再至焉為日最久康熙丙子延居天童年已七十六矣聖祖南巡賜宸翰石硯諸物至山畫對使賦詩恭謝盛典癸未冬營壽藏於東谷乙酉春構歸來菴退休命弟子偉載乘主院事是冬書偈云辭世向誰辭西方太遠哉不如遺蛻葬山阿日聽長松響天籟伏枕數日吉祥而逝壽八十五臘七十三有六會語錄及牧石吟詩卷直木堂晚雲樓諸集

清荆南東山天齊禪院沙門釋明智傳(實妙)

釋明智字息為姓李氏江陵人父曰明恒母氏齊方在孕時夢一籙冠道人假屋修鍊期以游南嶽復來及智將生之夕其母復夢道人頂笠負囊入室知有夙因生而三月母病絕乳智雖在襁褓而有殊性不乳他人食以米汁年十一寄學觀音寺秋時患痢三月病幾不起家人始許捨身乃從剃度師命禮大士號昕夕無間久之夢白衣神賜淨水一盞飲之頓覺身心清涼醒而告師因勉以精進勿自放逸康熙十二年癸丑三藩告變吳三桂屯兵衡陽建號稱帝騷亂湖湘王師南下會於荆漢兩壁相望但隔一江智年才舞刁與師困守刀林鎗雨無所恐怖二十年滇南平息民氣方蘇法會漸啟始從天皇寺蓮月受具足戒每欲參游以師衰老見阻未幾枕石自常德過寺與語而善開示參悟法門侍至更深但以仔細磋磨為切實工夫二十八年大博厂夫來寺度冬朝夕請益與厂閱密祖錄至三峰所論一淨瓶內貯毒蛇蜈蚣蠍子三種試拈出善者來厂命下語不契正逼問問智忽猛省當胸一掌跳出厂隨擊一篋智曰也非善的晚復開示看青州布衫坐香三日如身在空中瀰漫無路正恐怖間被厂一篋擊來渾身醒豁即作禮致謝由是機悟敏捷應答無爽一日聞童子誦經至無眼耳鼻舌身意處恍如脫桶因說偈曰學道參禪須要急磨穿鐵硯始稱奇明明歷歷非他物識得方知性不疑遂懷香謁天鐘大扣大鳴應聲如響即承印可四十二年沙市檀越請居東山因思此地既非法席絕少叢林且屬通衢往來遊侶無從棲止乃事叩化一盞之食聚集千家竟得瞻足南北衲子始以東山為憩息之所是冬

天鐘示疾以法付之四十六年冬至公安華嚴寺參軼山留堂習坐五日夜半如重病加身百骸俱散但見黑雲覆蓋如處暗室俄而天開一綫四面漸朗皓月當空置身太虛不覺世界身心合成一片喜不自禁自呈所悟山曰此乃工用邊事正好著力自此方信禪有深淺機有大小更於康熙己丑跪誦法華華嚴楞嚴諸經一字一扣十餘年間魚聲遠應香雲彩結人天感動施信景從復建大悲閣重葺寮廡鑄鐘刻像莊嚴備飾每歲結制放戒齋供不絕著有語錄三卷弟子實妙字語微生而穎異初依極樂寺明郢後參智盡得東山之法智寂褒其遺語乞陳進士文燦為之序實妙繼席東山多循舊規禪風不墜機薪既盡應火斯傳又得徒悅賢亦能嗣響

清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普行傳(學蘊)

釋普行字非相姓孫氏景東長摩人也父尚志母章氏夜夢老僧投寄寤而誕生知為再來五歲而孤隨母往田遙望水目山脊白雲垂覆綠樹參天因指問此何處母告之曰佛寺也若觸所感即請偕往其母難之然聆其語意已符夙兆年十五母沒乃投雞足從德周削髮戒德日進後謁無住示以參究即有悟入年五十五始受具無住繼席寶華既弘戒法復鬯宗乘道聲所施緇白皈依宰官敬護其最著者降毒龍於洱海導幽魄於楸榆感通所及非常情可測康熙庚午秋預知期至拈香沐浴竟自入龕一偈寂然壽八十七臘七十三學蘊知空者亦參無住而受法於開峰密行者也蘊本洱海王氏子年十四入寂光寺剃度初從大力野愚徹庸及西蜀了凡諸宿參究雖並承其教而於萬法歸一之旨四五年間疑情不釋後聽亮如講法華諸經參不是心語又十餘年苦無入處建玉霖軒閉關習靜禮萬佛名經至三卷南無二字忽心身脫落內外圓明如一輪皎月即說偈曰虛空是佛身我本世間人我性與空合非佛亦非人隨參無住即首肯之欲付以法俄而辭去明桂藩之至滇也命晉王李定國平楚雄永昌叛軍凱旋時學蘊遇於道中因止晉王至雞山請免山中徭役晉王允之復隨至昆明表貢山果明帝嘉之賜勅寂光為護國興明之寺鼎革後入九臺把茅三載而大方廣法席巍然起於萬山密箐中開峰老人神契百城之外忽命僧持卷至山蘊欣受之由是開法領眾常數百人忽一日屬諸門人曰三日後我當滅度天降微雨即其時也至期果雨眾集有侍僧問曰和尚向來說禪說教呵佛呵祖正恁麼時作麼生蘊震威一喝捋須於口繞殿三匝復座翹一足而寂壽七十七僧行六十五著有語錄及草堂集

清富民九峯山西華寺沙門釋慧宗傳(心安 道瑞)

釋慧宗字靈藥姓趙氏澧人也幼孤依叔撫立年十八禮龍潭智弘祝髮聞密雲開法金粟乃從之圓具授以萬法歸一語參之期月服膺拳拳既而密

遷天童慧居小北河鋤園種蔬每於青煙數點綠菜一畦舉鍤芸芸別有會心一日扶鋤矗立矍然定去寮侶尋至喚曰如此作麼生慧舉鋤喝曰非汝境界即說偈呈密云我生真面目處處不曾藏塞滿虛空界隨緣自主張密曰所主張者何慧曰棒下無生忍當仁不讓師密連棒之退而有省偶值修築眾多疾病慧主藥寮凡經治無不立愈遂號靈藥一日密拈梅一枝與慧慧擲之曰莫惑人密喝之因作偈曰東南嶺下一枝梅葉落枝枯切莫推九九逢春寒豔發也應令汝摘花魁慧禮謝之已而負笈遠遊徧跡名勝及返滇主席五華復開石屏之天寧寧州之海鏡且重修靈照康熙壬寅更剏富民九峯山之西華寺法席逾盛道聲益弘至庚戌四月二十八日示寂先三日上堂垂語云人世無常終當有盡吾道從虛體寂為真又別眾偈云東倒西歪世人難猜了無一法何必安排語方竟侍僧報曰侍者心安已坐化矣慧曰何太忙擲杖而逝得年六十六臘四十塔於九峯之陽有語錄數卷又知止道瑞者廣安王氏子亦參密雲而有悟者也年十六時依邑中奉聖寺惟遠得度嘗赴講席聞楞嚴七處微心之旨頓起疑情發志參方數禮名德謁語風於徑山叩密雲於天童時密年已七十矣龍象威儀棒喝如雨一日於眾中出問曰如何是木人看花鳥密云但自無心於萬物何妨萬物常圍遶因之有省退而遊普陀諸勝復歸奉聖掩關三年時聞象崖演法五龍乃出而往叩象曰聞道汝南方去來道瑞曰江山雖有別古鏡甚分明象曰帶得何物來道瑞展兩手相示象諾之後付法源有一鐙分點百千鐙之囑遂於諸方開導弘布宗乘順治癸巳至滇居曲靖東山報恩寺禪聲懋鬯道骨凜然後於迤東及會城重興古剎十餘所至康熙壬戌六月十日乃舉拂說偈曰臨末稍頭一句子十方諸佛口難宣老僧露箇真消息凡聖從茲識本源語畢擲拂泊然而化昇歸交水龍華寺茶毘陰雲四合雨似傾盆俄而八表開霽送者數千人悅澤而歸塔於寺右其上火光夜明旬日方息

- 習禪篇第三之十三(正傳十四人 附見六人)
 - 清燕京柏林寺沙門釋超方傳
 - 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通荷傳
 - 永豐禪院沙門釋本實傳(洪中 海航)
 - 燕京西域寺沙門釋僧廣傳
 - 漢陽棲賢寺沙門澤行敬傳
 - 枝江玉安山六合寺沙門釋行洪傳
 - 公安觀音寺沙門釋超乘傳(雲錫)
 - 虎邱雲巖寺沙門釋弘儲傳(本琇)
 - 昆明勝因寺沙門釋德潤傳
 - 蜀北給孤寺沙門釋本襄傳(懶石 福慧)
 - 燕京海會寺沙門釋超古傳
 - 怡山棲雲寺沙門釋超定傳
 - 青林龍安寺沙門釋超況傳
 - 漳州馴虎巖沙門釋超頂傳

清燕京柏林寺沙門釋超方傳

釋超方字獨超姓沈氏武進人母氏徐懷素履絜義訓惟謹故超方生而岐凝舉止端詳居恆趺坐不異老僧年二十從大蓮克閑芟染圓具華山見月後入資福參靈機憤志大事胸次了然猶以未盡闡奧繼往徑山坐枯木禪三年時天笠在鎮江竹林以書招之笠有大名慎許可獨見超方如合水乳便受付屬為臨濟三十三世出主金壇東禪武陵南潤臨安東天目山陰寶壽康熙三十八年詔住京都柏林逾年辭歸賜金經衣鉢世宗方在藩邸分府城東企其清妙嘗與往還譚論法要甚相契合歸後六年以康熙庚寅嘉平月八日示寂壽六十八臘四十八憲廟聞之不勝嗟悼明年辛卯遣官建塔且鐫銘焉篆額書丹皆出宸翰文具山志靈骨藏於山陰寶壽山超方高穎深目虎視鶴行平居寡言笑鉗錘森嚴不以辭色假人諸方老宿見者莫不悚慄歷數大刹四方衲子雲蒸輻輳所著語錄一卷憲廟為之序其略曰原夫道昉鷲山法開鹿野伽林書貝義學於是敷條師座拈花禪宗為之發穎然而自周及漢大乘僅顯夫新頭由魏迄梁妙諦未傳於震旦自海州遙泊嵩室弘開揭淨體之光明示無心之元寂於是智鐙續耀朗月連輝法信六傳至臨濟而門庭益廣派流千別惟滹沱之瓶鉢堪珍自唐以來於今轉盛獨超方禪師者幼鍾福慧長涉文華厭世網之沈迷慷慨別父緣夙因之

深厚勇決尋師珠毓難生席設何嘗著脇牆遮慧可雪來都至埋腰恒因苦以悟空遂離塵而證道高提祖印明湖之草木增榮遠振宗風赤縣之人天引領共迎桑宿來主柏林暮鼓朝鐘數百眾之軍持翕集擊拳豎拂三千界之道信爭來變定水於迷津回岐途為覺路積成公案錄自支那現教外之圓通脫人間之撰述精求弁簡顧屬制文余忝列藩維沃叨宸眷拱薇坦以北陌適蘭若為南鄰數以詩禮之餘間來與菩提之勝會恒河比貌警語頻承吾岫聞經梵音罕譜潛符冥冥頗量測以靡涯崇委殷殷欲遷言而不得憚箇中之賓主贅門外之言詮玉帶鎮山何妨一笑金棲在望佇喻三禪又著淨土格言一卷並行於世

清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通荷傳

釋通荷字擔當原名普荷自題櫬庵草云前名普荷從戒師無住遵戒而不嗣法今名通荷從先師雲門嗣法而遵正眼荷本諸生姓唐名泰字大來雲南晉寧人以明經謁選不赴避遊吳越環觀山水寄心空寂故歸滇禮無住祝髮復參雲門湛然多所啟悟竟授傳衣復往來雞足點蒼水目寶臺間隨地吟賞發諸禪悅視斤斤自喜者殊不為意康熙癸丑冬示疾趺坐書偈曰天也破地也破認著擔當便錯過舌頭已斷誰敢坐以示二眾寂然順化壽八十有一所著有脩園櫬庵草二集及拈花頌百韻

清永豐禪院沙門釋本實傳(洪中 海航)

釋本實字性空姓戴氏尋甸人也生而岐嶷穎異過人幼孤依母撫育少習詩書志軼塵躋及長禮古林薙髮誓持法華跪誦十載乃從和雅受具嘗閱楞嚴而疑之因參鐘靈梵公示以萬法歸一語力究數載一夕夢為虎吞覺而五內清涼殊勝曩日偶以習定問梵梵曰性本至空何定可習言下有省因以為字乃作偈曰絕心絕境絕情識絕到無時更有誰雙手拓開波底月大光明藏本如如後掩關刺血書華嚴二部時定北王艾公企其高德延主永豐名公巨子嚮往日眾常趺坐山石林麓幽勝自酣禪悅忽有巨蛇蟠踞石上實至熟視之曰汝踞吾石吾坐汝身遂就蛇坐之蛇頰首委蛇徐徐循去傍僧問曰具何神通蛇不敢縛實曰若有神通早被他縛卻矣因注目直視問傍僧曰會麼僧不能荅實曰神通也不識僧禮而退康熙壬子冬忽謂眾曰吾明日去矣書偈默然而逝壽六十九臘五十塔於永豐之陽又洪中字惟敬黔普安趙氏子避亂遊滇入騰越依大藏祝髮亦嚴持法華生死為念居數載忽行腳至鐘靈誅茅構庵晨夕提究一日聞磬聲大悟乃曰始知今日通身是佛不假修持漸感檀施成大法場康熙戊申夏微疾召眾付授端坐而化闍維有異香海航濟舟者曲靖孔氏子幼惡蕞羶二十得度戒行

高潔宗律兼弘住覺照庵遐邇欽之康熙十五年丙辰八月四日集眾示偈云虛空非大我身非小要知面目明月皎皎

清燕京西城雲居寺沙門釋僧廣傳

釋僧廣字圓通姓高氏雄人也父性果母孟氏夜夢一鐙入懷覺而有孕故生有夙根不類凡童雖在髫年頗慕清淨常以家居俗累不如修行超出塵濁為言母聞之知不可奪欲乞卜者推定卜者曰此子之命出家極當年十八父母相繼沒亡因辭親里至白溝河觀音庵乞義天祝髮義尚苦行時勤作務廣每求參生死以決疑情會溟波禪師就庵結制廣便昕夕密究未生已前本來面目復充行者隨赴京師命往愍忠寺受具戒時年二十五始習坐三日纔定身心俱空便見旁列羅漢中坐古佛四炷香時所見境界消滅心正結疑忽聞溟波語曰凡所有相皆是虛妄廣頓豁朗自是精修無一妄念康熙辛亥溟波住西域廣更進七纔至三日如息重負身心俱快徹底灑脫四日五更胸中豁然便呈頌曰三世諸佛坐底牢一條鼻孔透九霄從今看破本來面普天匝地任逍遙溟波見其經行坐禪與前迥異及落堂便問如何是最初句廣喝之又問如何是末後句廣又喝之及問如何是函蓋乾坤如何是截斷眾流廣連喝之溟波迎擊一棒廣云棒打石人頭樸樸論實事溟波笑曰而今始得一人矣自是機鋒迅疾當仁不讓嘗臥病八晝夜不進飲食如在夢中忽從平地起昇須彌山四天王至忉利天又昇夜摩兜率他化自在從六欲諸天乃至梵眾梵輔大梵天以及四空天方覺時聞人言曰廣維那八日不食矣湯水在茲曷飲諸廣仰視曰學道之人禪悅為食復沈沈睡去夢至十八獄中見重重善惡果報因白獄中人云汝等何不念佛眾乃齊聲一舉忽一吏藍袍烏巾近前云長老有病我能除之乃以手入腹中取出脂膏一片忽覺大痛一呼而醒時早課方畢同來問訊自是胸次清爽方知前境俱是夢幻癸丑溟波命住中江廣辭之即上五臺觀山勢如兜羅綿倏忽有光橫飛如弓影剎那而沒循至河南登少林過首山執爨厨下或遺火燒破道袍殊無所覺已而辭去結夏香巖曉聞報鐘口占一偈有云驚醒夢中人宵夜渡關津禪者知其有悟乙卯歸省溟波充首坐三年壬戌出住慈愍十有一載壬申溟波示寂繼席西域廣賦性剛直誨人不倦接物有方夏演毗尼冬則結制發機者固多沾戒者亦復不尠春秋行頭陀事利生三十餘載不立文字孤硬直截罔容湊泊著有語錄二卷

清漢陽棲賢寺沙門釋行敬傳

釋行敬字獨冠姓楊氏雲夢人也生有靜性不樂塵囂年十三從縣中空如落紺一夕夢大士持刀剖解為之換骨至齒牙間負痛而覺爾後唯耽禪寂杜絕外緣偶檢天奇語錄讀之有得荷笠南游首謁密雲於大白山中以不

著佛求不著法求不著僧求大事不明當何所求為問密雲軒然一棒還叩所求因自惟曰可教直下承當乃懇懇懃懃看斯一棒三秋靡間殊鮮真際忽動他山之想遂過雲門雖得輕安終未洞明再上天童復見密雲追隨數載偕上天台方冀通玄發明此事未幾雲寂放聲大哭以為從此失望無復了時會金粟費隱聞喪而至隱固得天童髓者敬嘗造請乞其指示即指其掌竟爾豁然日臻闔奧隱後歷超果福巖而至徑山敬皆荷橐相從有清順治癸巳隱以信拂授之傳臨濟法焉乙未主席吳興靈山丁酉漢陽棲賢更隆禮聘敬念鄉關久別雲樹依依欣然就道至則弘鑪大冶躍金同範俄而興陽使符來迎慨祖席荒頽黽勉效命而破屋殘僧蒼涼滿目適嚴公玉環提督豫章假道漢上晤於棲賢宛如夙好敬以興復事從容言之提督竟爾檀施由是殿宇摩雲樓閣礙日片言之契萬金無愆信有自也未幾雲杜之纂峰沔陽之廣長鄂渚之巖頭相繼以請敬為居纂匝月止廣長期而巖頭則往來至焉荆門玉泉澧浦夾山且卻而不應乃詣衡山一展祖塔敬主棲賢二十餘年六坐道場津梁不倦康熙壬子八月晦日示疾書偈有釣竿砍盡重栽竹不脫荷衣歸去來之語壽六十僧夏四十五塔於興陽東麓門人如水鑑佛頂皆唱道諸方

清枝江玉安山六合寺沙門釋行洪傳

釋行洪字雲錫姓尹氏公安人也生有瑞徵兒時珍重過於掌珠性獨排愍見宰家畜號泣趨避人疑其怯八載失怙隨母作苦明季兵燹四起母子離散為寇所獲乙酉隨至當陽潛身遁去隱匿佛寺得師穎秀遂從剃落未幾棲於熊口精舍更肄經說庚寅冬詣普護禪林聽遍雲講授法華復從受戒數年盡得其傳便躋講座嘗於壽聖法雲敷演弘旨辯如湧泉其從如水偶憇枝江曇華寺夜聞鐘聲有省說偈曰何人一擊定更鐘破我疑團千萬重徹底掀翻都罄盡從今永不落頑空已而設講於公安慧慶松滋龍華舟車碌碌頗不暇給忽自忖曰既為佛子當究佛乘何得高坐自恣徒逞雄辯耶庚子冬散眾雲遊謁常熟新塔浮石訊問之餘機緣相契授以書記隨侍九載夙夜罔懈偕至吳江漈村報恩寺一日入室浮云馬祖一喝因甚百丈耳聾三日曰不許夜行剛把火投明始到走盤珠浮云是何意旨曰杲日當空新宇宙山河大地一時明又問世尊不說迦葉不聞是何境界曰春色滿園關不住一枝紅杏出牆來浮曰老僧所問汝還聞否曰若將耳聽終難會眼裏聞聲便是奇浮為首肯授以衣拂丙午浮寂尋歸楚省穎秀於荊州雲華丁未延主千華山毘盧寺癸丑受荊城祇園請無何三藩告變甲寅冬避於玉安山有長者熊玉亭勸建六合叢林三縣翕然合詞禮聘丁巳大貝勒遣官持諭衛護備至貝勒嘗讀洪卷子有不可眼裏無筋之語而疑之後遇於常德舉以相難洪笑謝曰難逃聖鑒遂相視莫逆丁卯春遊南嶽道出新店龍周兩居士留之度夏乃開築竺雲精舍戊辰夏龍灣人士請居三鴉庚午

六月轉草市西來寺尋還三鴉康熙三十年辛未正月三日示疾留偈而別
壬申十月迎骨歸塔枝江六合寺旁洪七坐道場有語錄十卷

清公安觀音寺沙門釋超乘傳

釋起乘字天鐘姓繆氏南陽人也父曰以政明崇禎庚辰進士母冉氏信心佛果檀施無恡夢遊香巖寺有老僧乞屋許之方驚而誕乘清順治丁亥隨宦來楚甲午失怙以蔭入國學丁酉選定海縣蒞任一載因海寇猖獗失地而歸迴翔燕都鬱抑無聊時上西山一縱心目因與叢社知識辯析儒佛頗窮玄理已有離世之感以母老子幼復還鄉里終苦塵躡更攜二僕遊南嶽過紫荊峰至大隱龍山慈雲謁杲日杲曰君子樂游山耶水耶乘曰二途俱不涉杲云截斷兩頭向父母未生前道將一句乘乃嘿然數日即哀懇薙髮隨眾習勤朝夕無倦杲以法門柱石期之迺詔參學遠方於是徑至湘潭泛舟江漢庚戌謁蔣山介庵一日晚參大雨介曰好雨滴滴不落在別處且道落在何處乘曰一點也瞞學人不得因呈偈曰自歎從前錯用心東飄西逐作遊人今朝勘破間家具雲散長空月色清介呵之已而入浙至南潤謁天竺竺見便問是聖是凡乘舉拳示之竺云是何面目乘云一鼻兩眼乃留度夏遂歷覽靈隱顯聖雲門天台諸勝至平陽天箬留居一載微示付屬之意乘乃辭之入都還踐五臺汾陽少林風穴習靜於石門見諸方付授淆濫不再言禪前所留稿投之一炬但持念誦為自了計康熙二十三年聞杲寂回山奠之踰年至荊州龍山遙望松枝兩處雲巒秀聳心焉嚮之丙辰秋渡江覓憩居之地過西來寺禮雲錫會雲與眾論楞嚴每以言挑之不露一詞一夕雲舉楞嚴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有僧舉問古德擎拳云還見麼乘不覺答云頭上安頭雲曰似則似是則未是乘云疑則再參復頌曰春至園林花自開幾人識得解拈來堪笑瞿曇藏不住機前繞弄嘴頭乖雲首呵之付以偈云四七二三歷代傳重興臨濟遍山川老僧付汝全擔荷大闡洪宗鼻祖禪又囑云識汝天鐘圓音最洪透徹三界剎海盡融龍象聞聲雲集聖凡逐響皈崇亦任興揚祖道處處流通丁卯春同遊南嶽過天龍山拓基開作叢林曰竺雲精舍庚午夏主報恩寺壬申辭歸雙林靜室時雲錫已寂甲戌乘為雲徧刻語錄入藏以康熙四十三年正月六日示寂塔於沙市寶塔觀音寺著有語錄三卷

清虎邱雲巖寺沙門釋弘儲傳(本琇)

釋弘儲字繼起亦號退翁姓李氏通人也母高氏夢梵僧授金環而生小字金四歲撫於祖母孫氏終日兀坐私語語不可解剃染後行腳參方得法於三峯藏博通內外心地光明提正法印十坐道場息影靈巖有終焉之志吳人以虎邱虛席強起應之升坐說法四眾圍繞有虎邱語錄一卷錢公謙益

為之序具文集居半載謝去後寂於堯峰康熙壬子九月二十七日也茶毘龕頂生光漸變五色光中有聲大如雷頓成妙景若琉璃世界弟子南潛撰化琉璃記本琇字節巖西蜀人天性機敏幼達宗理契天童法九遷大剎道播江淞著有全會法錄康熙癸未住虎邱聖祖臨幸垂詢道要深邀獎許御製詩賜之

清昆明勝因寺沙門釋德潤傳

釋德潤字香谷姓俞氏新添人也以明萬曆己未正月二十一日生時有僧到門口唱偈云元正三七眉橫鼻直日月同明川流不息其父問之不答而去因記之以占其異稍長習文藝頗不後人獨喜近僧侶譚內典嘗與寶華上人相契後其父宦滇隨之任所每歎世路崎嶇超然名利丁酉抵騰越入雲峯山從心安剃度精勤罔懈後謁阿山示以無蹤跡三字研窮晨夕因行頭陀行建剎接眾聚食千指常坐門外誦咒祈求香供依蒲連翩而集眾賴以瞻經行四十餘日夜聞鐘聲靜中一驚汗流浹背覺無蹤跡三字悠悠昏昏渾然無間身心俱空矣庚子歲荒斗米數金加以大疫潤惻然憫之更募賑饑率徒掩骼不可億計郡縣欽崇為額其寺曰普濟由是道風遠邇復叩諸方親承妙諦後謁半生老人於昆明五華寺機緣有契授以拂偈庚子春初率眾為破老人拈香祝壽亦正月二十一日與己生辰月日相同忽悟前僧遺偈日月同明者信有因也壬子冬崔方伯之英延主常樂歲久荒廢張公國忠何公拱極感潤精誠施拾鉅資重修殿宇新建廊廡壬戌冬主昆明勝因癸亥九月鎮安將軍馬公遣使相迓謂常樂重經修飾大功告成畢乃願力率眾歸來當所欣許即翩然還止然潤已先期走東謝諸檀樾及遠近二眾故復院一日即示疾湓化口吐白氣悠然而逝壽六十五

清蜀北給孤寺沙門釋本襄傳(懶石 福慧)

釋本襄字半生姓張氏閬人也幼而孱弱長復多病父母許度為僧其病尋瘥年十二捨入給孤寺一夕聞人言今日已過再無今日不覺悲感交集悟世無常年十九從應時法師受具聽講般若心經至無眼耳鼻舌身意處疑不能明夜分入室請問其旨應曰既無眼耳鼻舌身意還有口麼要汝自信自悟始得由是舉步忘形胸中如結會明季喪亂寇讎蜀境避入秦中因至徽州訪素尋玄偶聞漢中丈雪門庭孤峻歲在己丑逕往參之夜行護法堂前撞倒磬架碎磬作聲疑情廓然乃呈偈曰驀直行將去虛空撞腳跟磬破原是鐵冤家聚頭生丈可之因授杖拂付以偈曰龜毛拂有騰龍勢兔角杖支南斗雲山水悉歸布袋裏昆明池上日方昕康熙甲辰復自蜀入滇庚戌重修青門大弘佛法四月九日示疾乃集眾曰我有一偈當問汝等生亦何苦寂亦何樂苦樂兩忘是甚活潑眾無語襄一喝垂手而逝茶毘得堅固子

為人分供頂骨復見五彩塔於筇竹之巔襄凡九坐道場五剎結制壽五十九僧臘四十懶石聆禪者姓張氏蜀人亦得法於丈雪者也母趙氏夜夢吞月覺而生子幼歲剃染受戒於象崖復參破山後於丈雪道旨契合遂授記前康熙初至滇主商山斗光寺闡法數年復歸蜀授法自覺云福慧野竹者亦蜀之長壽人得法磚鏡本天童正派康熙初至滇閱法於昆明嵩山寺眾數千指土庶皈依恐後諸方宗仰極一時法會之盛

清燕京海會寺沙門釋超古傳

釋超古字溟波姓郭氏武清人也父曰文選曾披緇於邑中天仙廟家人以繼嗣故迫令還俗聚王氏先子七超古最幼時文選患病昏迷見冥王責以為僧不終減算一紀左右曰子可代父遂檢籍惟幼子有宿根宜令出家可代汝文選唯唯始甦對親戚具說其事咸相嗟異而王氏不從謂此兒才三歲未免予懷不忍捨也俄而文選復昏去王氏不得已虔禱許之故超古七歲即捨入天仙廟禮智庵得度廟僧雜居無異俗人超古頗厭惡之年十八痛念生死莫可咨決乃發願跪誦華嚴足不踰閬者三載年二十有五偶與同侶抱璞參訪要妙勉以遊方因於北京愍忠寺圓具時大博結制天津如來庵水雲環集超古往從之刻苦參研嘗問本來面目如何博舉拳示之超古曰舍此還有否博即以拳擊之從茲疑情頓發隨至楊村報成寺上堂云堂中有一病漢當出一身白汗超古聞之工夫彌切頓忘人我相目不交睫者四晝夜因託履有省往白博博問如何是你本來面目超古云六六三十六博云不是更道超古云九九八十一博擊一掌云此是九九八十一還是六六三十六超古一喝便出自是當機不讓復侍博三載得大休息始蒙即可遂於燕都西山雲居寺靜修十年清多羅惠王與李德雲居士請開法於海會後更開建西域寺著有語錄數卷

清怡山棲雲寺沙門釋超定傳

釋超定字體真姓林氏南安人其母娠時常依外家外祖晚見一僧求借宿俄失所在而內室舉子呱呱有聲家人駭異知有自來襁褓而孤育於鄭氏年十六翁媪並逝悲幻質之無常歎深恩之罔極伶俜哀慕屢叩空門時本寂尊宿方住龍潯旋駕雲棲道望甚高定乃直造丈室一言開導即便皈依雜染服勤志期證悟及承寂命繼主青黎禪室慧風廣扇雲水奔趨因以物色高賢虛懷諸益而龍象駢臻精廬窄隘乃於附郭平山大興禪剎四事益給至者如歸雖接待綦繁而研經彌切刺血書華嚴大部至現相品發明心地又聞客僧舉天地同根萬物一體語從此豁然前後際繼會雪峰巨從黃檗解夏直造平山加意勘驗舉古德法語往復推尋皆箭鋒的的函蓋相承巨深為助喜及雪峯居漳之南山始受屬主西平禪院明季流寇蠱起中原

鼎沸乃策杖孤征隨緣放曠竭至劍浦栖託法雲主僧匯谷一睹光儀如瞻相好因請駐錫施以鉗鎚正擊旁敲一期方便眾多省發檀護四眾復請開堂曇花瑞現大地春迴毒鼓聲轟群魔膽裂於是玄風彌播道譽光昭永安之西華大科大田及廣湖諸刹企慕殷勤咸垂慈顧主其法席逮及晚年沙中耆舊請住棲雲乃携節翩翩來作怡山主人毳衲瞻風苾芻倒屣莫不飫以法喜慰所懷來以殿宇荒涼僅蔽風雨乃發誠懇搏節餘資從事建築十載之間寶坊輪奐百具鼎新而報緣已盡示疾遷化跡其生平入道精猛見地超卓慈忱弘願實罕其儔弟子奉其全龕塔於怡山壽七十有九為臨濟三十三世自撰行述信為實錄如幻更摭懿美作為碑記勒石山左昭示來者

清青林龍安寺沙門釋超况傳

釋超况字重眉姓蔡氏同安用里人也夙根神穎髫齡就塾雖抱儒經已具佛性因投龍池巖禮惟雲為師勤習淨行弗憚寒暑年二十一始從披剃掩關三載拜誦華嚴致誠百萬又閱藏教中有云能三日不食七日不食者俱力行之但日夜思諦終非究竟有禪客自金粟至具道費隱棒喝接人最直捷法門况聞之喜曰吾固疑有是可効春蠶作繭徒自縛乎即破關而出日夕咨參未有人處適雪峰亘從羅山至龍池與之盤桓一日問曰如何是第一義况擬議峰便掌云這鈍置阿師况云請師道峰纔啟脣况遽以手掩之峰乃笑云向汝道了也况亦爽然有省然胸臆猶滯偶過戲場於人叢中見其舉首向上鼻孔一一俱見脣上覺礙滯之胸渙爾解釋遂作偈曰二十年來被孰瞞剛纔放下便平安早知鼻孔在脣上總不者中覓易難乃詣黃檗隱元處隨眾參請不露鋒鋦明年出嶺叩金粟費隱亦默契之時值嚴冬潛穎眾中自居樵汲手足凍[唆-口+芻]亦不暇恤嘗有偈曰牯牛無貫四方周放去收來得自由蹠角雖然未顯露分明觸處便昂頭時年二十八始受具明年春還閩途中作偈有今朝踏破芒屨底赤腳迢迢入閩山之句歸則仍就龍池鍵關三稔後值雪峯出主芙蓉一日問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汝作麼生况但云仲夏酷煩幸自珍重雪峯默許之未幾受峯付屬即旋泉南居清溪貴湖龍安寺為唐清豁禪師退隱舊址編茅為屋翛然自得雪峯至泉昭慶况充首座立僧秉拂發揮宗乘旨趣響響傾動四來繼席南山千指圍繞三冬學足啟迪尤多閩司馬子奇請住隆壽兵燹之餘寺宇凋殘而近寺兵眾雜處尤難調攝况躬率行道接以等慈莫不傾服叢席改觀歷十數載忽爾辭退請還舊山留之不得無何世局變更郡城內外幾頻危殆人始知其先見云以康熙十四年乙卯三月二十六日示寂壽六十有六臘三十有四塔於青林之麓釋超弘為之誌銘稱其知鑒瑩朗而器量舍弘人莫窺其涯際時以為知言

清漳州馴虎巖沙門釋超頂傳

釋超頂字逸然姓謝氏晉江人也幼而清慧知慕佛法垂髫時有清質禪德住泉中小庵頂從之遊昕夕隨其焚修崇禎甲申始落髮於馴虎巖年二十尋棲仙亭辛勤力作暇則禮誦訖無虛晷經數歲歎曰出家為生死豈宜繫此時雪峰巨住南山報劬卷袂從之一見相契潛鞭默練靡間朝昏一夕誦次嗒然若失前後際斷自覺愉快入陳所見巨頷之自是酬對無爽玄旨巨嘗與客譚問無須鎖子誰人開得客茫然因傳令堂眾下語或云不費纖毫力或云開也頂則曰用開作麼巨深喜其語因謂客曰非超頂不能為此語訊之果然乃益加策勵期臻閩奧巨主泉之昭慶延福福之雪峯慶城頂皆隨侍左右助揚法化精勤不懈屢欲屬累每遜謝不逮順治己亥秋巨居慶城將滅度遺命付頂衣拂時隱仙遊東山巖耕鋤自給茹草飲泉怡然樂之馴虎衍如老宿頂師祖也以亂後零落命為住持頂率先勞役行古德規範三載之間頹綱漸振丙午秋與南山怡石偕往雪峰為巨師築塔勞頓灰土感疾數日遽爾奄化時康熙五年也頂神穎通慧梵行精白獨處巖谷堅苦枯澹而道望蔚然弟子明經如修以丁未年冬奉遺骸窆於東山後岡釋超弘作銘云

- 習禪篇第三之十四(正傳十人 附見十一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昱傳
 - 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印水傳
 - 杭州理安寺沙門釋行悅傳(行洸)
 - 湘陰神鼎山沙門釋行澤傳(懋功 修木 玄劍)
 - 杭州理安寺沙門釋行珍傳(斯瑞)
 - 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智檀傳(操雪筠)
 - 衡陽萬壽寺沙門釋行泰傳
 - 成都昭覺寺沙門釋通醉傳(溪聲圓 佛晃綱)
 - 杭州理安寺沙門釋超格傳(超徹)
 - 杭州雲林寺沙門釋原志傳(慧輅 智廣)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昱傳

釋行昱字曉庵號曰無隱姓葉氏龍游人寄跡吳門三歲失怙母程氏訓養成立自幼純篤情殷報母力持蔬食偶見殺生閉目馳去一日讀六祖壇經知有宗門事遂參密雲於金粟及冠將昏遯入磬山求天隱剃度開示[諒-小+日]切而親屬追尋忍淚別去遠走天台至蓮花峰禮肇心老宿苒染即圓具於天童聞通問開法南澗投誠參考每入室痛棒厲喝不假詞色身心自覺純一嘗因激發立五大誓以大事未明不出山不語不臥不加衣不看書自夏徂秋力行不倦一夕月下獨坐忽內外洞徹皎如冰盤向所疑處澄淨無滓遂出山省母又勸還俗復潛渡江參石奇於昭陽未幾以母老復返吳門持鉢奉養母終更上南澗研究古今差別得大自在尋付衣拂無何通問遷竹林分座說法萬指鏗鏘屢以南澗院事屬付苦辭不已己丑夏將命攝方丈昱即宵遁涉桐廬訪陳尊宿遺蹟過疎山謁影堂因回瀏陽叩爾瞻於石霜旋應武功山靈溪之請遂開法焉甲午夏領眾東還繼席南澗提綱絜要規令森然通喜得人致書金少保稱曉蒼首坐侍衲二十年悟境不異高峯斷崖而德業深厚其推許如此明年通寂翠堵告成拂衣竟去復入瀏陽結茅山中作投老計江楚衲侶聞風趨附不踰年遂成叢席苒苒廿載影不出山唯不忘所自梓其師手輯續燈集貲鏤版舁之入藏康熙乙丑夏四月二十九日奄忽坐化壽七十有九臘五十所著有三會錄黃曇拈頌若干卷皆編刻盛行於世

清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印水傳

釋印水字雲橋姓趙氏化城人夙稟靈根生而穎異幼罹災患特然自立成童薙髮應緣尋師而性峻不群然每見遊僧輒起敬心甲申之變中原鼎沸寇盜蠱生被驅入營逐流漂泊一十三載戊子隨營之楚寓[女*尢]歸山受具於常樂律主時年二十三矣辛卯返蜀謁破山明於開中鳳城問訊之餘舉拳擊掌頓發疑情甲午坐夏七日寢食俱廢偶承瓦盞墮地有聲觸碎疑團身心愉快欲求印證而峽道未通思明至切辛丑秋川亂初平疾趨雙桂一日入室明問行不出戶坐不當堂水云明月堂前掛松竹引清風明日未是水再擬議即驀然一棒水一喝而退他日為水更號雲橋書偈於扇賜之云欲向高梁未得來而今夢明醒難開急將一句活頭語痛為吾賢莫亂猜是冬拔充教授甲辰春重示偈云曾聞古德輔叢林逆順機緣無二心自此任教肝膽碎終身相繼意深深命監院事未幾即付法卷丙午明寂為校刻語錄全稿三十一卷己酉春繼主雙桂設千日禪期請於官吏給寺四界印照蠲免雜征刊石立碑垂之來世乙卯夏書退院語一篇卜居香水庵削牘啟諸同門承茲仔肩卒鮮應者癸亥為臺諫黃公所請復理院事衲子如歸時雙桂舊棟悉為蟻蛀風雨搖撼其勢甚危乃鳩工庀材次第興革四載落成而水亦老矣以康熙三十二年癸酉五月十七日示寂壽六十八臘四十六塔於雙桂山左有語錄十卷雜詩三卷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悅傳(行光)

釋行悅字梅谷亦號呆翁晚稱蒲衣尊者姓曹氏婁東人年十八披剃於普陀海岸禪林受具後擔簋詣磴峒參瑞白知向上事復參天童密問掣電之機還許湊泊也無密方詰難即拂袖云鷓子過新羅密連棒趁出悅當時會得賓主句年二十二再參報恩已而入夾山參南澗箬菴問隔江招手便乃橫趨上座還具者箇眼否悅云不入虎穴焉得虎子南澗卓杖云能有幾人知悅云果然作家南澗便喝悅即禮拜明年隨侍金山即承付屬後居廬嶽忽焉數載時在茂年居多暇日乃簡古公案數十百則皆為頌之丁酉繼席南澗乙巳主粵東龍樹院丁未主蔣山天華辛亥秋復入粵住大隱禪院癸丑至南安居西華山龍光寺己未赴江寧蔣山金陵寺請王戎擬之臺山先入京師憩錫城西甲子秋客城東彌勒庵臘月朔夜索水沐浴焚香禮佛辭眾端坐垂誠懇至眾皆感泣請末後句乃說偈曰使符多謝遠相迎撩起袈裟請共行一曲浩歌歸去樂從來老將不談兵三日茶毘舍利瑩瑩靈骨片片作金玉聲塔於南澗北蓮花峰壽六十六臘四十八悅凡七坐道場五會說法一語一機有照有用學者宗之弟子數十人所著正宗語錄列祖提綱增集禪宗雜毒海歷代帝王宏教錄各若干卷又三會語錄夢冰東臯拈莊放鉢北遊諸集皆梓行於世行光字濟水上虞顧氏子亦嗣箬庵法宗教兼通在僧中最高傑出主理安三年寂於康熙乙亥著有正法錄諸書

清湘陰神鼎山沙門釋行澤傳(懋功 修木 玄劍)

釋行澤字雲外姓汪氏婺源人父南棲居士曠達不群有高世志母氏王誕澤之夕夢麟舞於庭覺而告居士居士曰吾所夢亦然因名應麟八歲入鄉塾授以千字文語便問天是何物造成到何處止塾師曰爾且讀將自知澤曰不識得何用讀居士聞之曰兒殆道學者流非功名中人也年十一失恃又八載亡怙貧苦艱辛鬱勞心病嘔血幾昏禱佛求救若有神詔歸心三寶病當自愈覺而自誓其病漸瘳遍遊僧舍從讀佛經決志出家癸酉投黃山雲谷院無易守師脫白易久參雲棲受念佛三昧命澤依行日念佛三萬句誦華嚴一卷禮佛百拜如是一年而神觀精明志氣軒朗甲戌冬受具戒於姑蘇茂林遂過雲棲禮蓮池塔山中耆舊留居二載忽聞唱僧名僧應阿彌陀佛有省遂上天童叩密老人時有啟迪而土音難曉後舉薰風自南來諳占頌曰薰風自南來殿閣生微涼今朝寒冷甚向火恰相當密笑而誡之曰須勤學老僧不孤負汝也無何病因為同侶僧不易邀往杭州及赴陽山召不易復彊之偕行陽山者即通授澤初見山問萬峰頭上日視雲霄作麼生山一笑日之即呈偈云聞說陽山選佛場一條拄杖絕商量誰知別有真消息笑裏藏刀人未防自是與山日愜再踰年山主磬山澤隨侍一日舉鐵牛過牕[打-丁+霽]諳澤下語數十轉皆不契山曰只是桶底未全脫澤憤而再參沈坐終日忽風揭門簾撲落作聲將從前知解窠臼一齊打落透到通身無念無依處不勝快活入方丈密啟其意山手書法語並衣拂付之且云子將來有超越之見但世故未諳早出恐鮮福耳澤曰願終身巖谷乃入匡山借居五乳峯破庵囊鉢蕭然日采野蔬和米作瓔珞粥食之偶攜籃澗邊尋摘苦菜失足跌下驚起山禽飛叫一聲[王*旦]然休歇如雲開日朗因作頌曰鐘殘漏盡一聲鷄脫盡從前悟裏迷大用縱橫施巨闕汪汪洗土不成泥旋遷雷光庵澤隱匡廬八載嚴操切究光穎漸露大江南北頗傳其機緣語句咸思親災而禪者負米往來苦於崎嶇澤憫之且將為法求人戊子春舟溯潯陽而上至大江之北止於蘄之大泉山蘄黃本大醫故里數百年來不聞正法禪德過寓亦罕澤始至創法席聚眾棒喝轟犇州守聞而怪之過候澤澤質直不克盡賓主禮州守怒己丑春假他事持兵馬來竟火大泉山寺澤對火說法曳杖下山棲於蘄北菩提寺庚寅春過黃梅掃醫祖塔於雙峰至馮茂返道經紫雲寺寺本千歲寶掌遺址代有高人聞澤至山眾遮迎以休夏諾之山最高處其路僻絕去人煙甚遠澤甚安之幽居數載學侶千指語句布流諸方贊賞如廬山木陳寶華朝宗與玉林國師皆歲時款密屢通書問辛卯赴高山寺說戒壬辰歲旱蘄黃尤甚禪眾數百皇皇待食乃欲散眾下山移人就粟會湖南道素敦請遂之神鼎蓋宋洪諲所開山也癸巳為山慧山修禮相迎澤許之以神鼎初興未即往也甲午季冬朔日示疾自書屬累千餘言三日作偈曰是非海內展全機多少時師盡皺眉此日一言無可付江南江北大家知又云神鼎龕無人封自作偈自封之三十年前

平貼地三十年後大神奇驅眾出戶端坐而逝澤悟門既正重自刻厲掃除枝葉直透末後牢關有語錄拈頌若干卷玄劍英禪師者亦湘人也康熙戊辰還湘造神鼎訪一揆時龍牙法席久虛一揆強英住之開法三載不欲久居乃拽杖歸神鼎三十三年長沙易啟萃迎主福嵩寺蓋易子新建以報劬勞者也英有三玄頌云第一玄聖凡罔措擬何宣羈縲有眼猶能視枯木龍吟識未乾第二玄石女停機尚未然拈起龜毛斷貫索千七百則一齊穿第三玄法界都盧在目前野色更無山隔斷天光直與水相連英所著語錄頌偈易子請授梓而為之序又修木林禪師者亦曾主神鼎嘗問僧云盡大地是火坑得何三昧不被燒卻僧云正是放身命處林便喝又舉埋牛語僧問牛已埋了此後何所牧林云一個閒人天地間著有語錄頌古數卷惜多殘佚懋功勗禪師者得法於南嶽山田寺松濤照傳曹洞三十二世康熙壬戌主江西袁州南泉慈化寺示眾舉圓悟勤云參到無參始徹頭當言參到無參未徹頭以向上更有事在戊辰移住曹山禪寺庚午還潭州主席華林其退院別眾云慈化六載曹山兩秋幾度欲歸今始得煙波江上意悠悠蓋勗本湘人也辛未至山田省松後以院讓操雪著有語錄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珍傳(斯瑞)

釋行珍號天竺姓陳氏上海人少聰穎多能嘗從人貿遷舟行遇盜投之水中為漁者所救得甦因求出世脫離塵擾禮無海學雜染時年十八參箬庵於南澗示以未生前話長跏請益箬庵拊掌者三珍纔起立即喝出愕焉失措疑不去心年二十圓具於瑞光侍古南掃塔天童因阻兵不能歸寄跡顯聖坐不語禪念大事未明憤鬱致疾一夕氣絕眾僧諷經有一僧撫其胸曰速往西方去珍忽甦瞿然顧視曰此身是何所在眾皆驚悚病愈還澗箬庵隨命侍香夾山於趙州勘臺山婆子語下頓徹古今公案源委呈偈機緣載在語錄箬庵印以偈云吹毛不犯當頭令出窟金猊果俊哉又稱於眾曰珍雖年少悟處確實法門令器珍聞之痛自鞭策箬庵命掌書記始垂記荊復詰高峰六問珍一一著語箬庵解頤自題其像授之已而結茅畫眉泉及箬庵寂奔喪建塔更棲蘄州大潛戊戌冬出主菩提寺三載遷德章丁未夏應洸禪之請繼席南澗宏覺禪師為法派尊宿每以古德應庵相擬而念湖州道場為最初祖庭宜興之龍池為天童磬山兩宗所自出郵書勸駕皆以為非珍不克勝任珍既至重飭舊規徹夜禪堂策勵勇猛宗風一振善權龍池伊邇甲寅之難樂安禪師塔燬於火珍從灰燼中負靈骨歸迄難定復造翠堵擬於舊制無何鑾輅南巡駐蹕夾山珍雍容晉接庭柏奏對天顏大悅寵賚有加將寂之日法雨泉巖石崩裂林竹枯瘁生平九坐道場說法十二會開堂三十七年前後四住理安道風孤邁學子非謀道真切痛念生死者不敢登其堂所至隨機接引辨才無礙自奉甚薄一衲補綴終身至若南澗則殿宇寮舍煥然一新得法弟子三十人南北稱大宗師者強半出其門壽七

十一臘五十三祥符令遂安毛際可為撰塔銘又斯瑞者雲間瞿氏子亦嗣法箬庵繼席理安傳臨濟三十二世有語錄行世

清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智檀傳(操雪筠)

釋智檀字香木晚號肺山姓馮氏漢中人本儒家子生有殊姿方九齡即有志棄家學道頂有黑子大如芡高於粒有相者曰此子松頂一珠必高僧也檀聞之益自決時寇盜充斥父母繼亾避兵深山從熱病中感觀世音見相膜拜而愈年二十往明珠院禮無量薙髮聞兩僧對語欲了生死必須參學乃矢志行腳至終南讀楞嚴有感入長安徧投講席所至或代座演論群相推許已而歎曰行腳事止於是耶因遊湖廣與人論圓覺至普眼章根根塵塵周徧法界無壞無雜處忽聞孩提擊鐘聲不覺失笑曰原來又複雜其語竟下座覺通體舒泰不可言喻自是不復事義學抵九江參竺庵成復謁龍池微皆有機緣及造佛日叩具德禮結制靜坐三日舉頭見桂樹豁然如井中躍出從前所見皆冰釋矣更隨普明照問學三載順治甲午年三十五始過寶壽參白巖位中符遂受印可尋至湖湘覓隱深山谷長沙嶽麓寺久廢為虎狼所居人莫敢近檀杖錫深入就樹結茅唯一行者自隨夜則經行林麓間虎皆馴伏不踰月禪侶聞風漸至歲大旱檀為誦佛禱雨所至甘霖立沛鄉人感之方謀建寺而張少師秉節鎮湖湘蠲訾倡建大雄殿督撫鉅公佈金建法堂丈室門廡庖湏無不備矣竟成叢席中丞三韓周公召南來撫湘未至長沙先夢僧於沅芷署中求見後至山寺宛如舊識遂議建藏經閣後與召南譚論有心靜自涼一語不合欲羅致其罪不得或勸檀避之檀曰禍患之來亦時節因緣山僧得力處正在於處禍患處禍患即所以了生死也械繫至獄答辱隨之檀在獄中每得食必施囚徒之饑者有逋贖緩代募金償之常勸念佛以消夙業久之得釋乃誅茅天岳雲騰寺未幾遊南嶽住馬祖傳法院康熙庚子春中夜月朗二虎怒號若山崩石裂直至草廬檀策杖坐門前厲聲喝之曰爾業根未斷一虎俯伏久之鐘鳴二虎一躍而去檀戒侍者慎勿言恐謂我惑眾後往山谷者多見虎虎不傷人人皆知虎為檀所馴辛丑道出衡陽訪郡守張公聞城外殺傷二虎檀太息曰莫是我護山虎也惋惜不已次日回寺有虎于說法堂前大吼數聲檀聞之喜曰吾護山虎固無恙也然虎若善解人意每於寺眾聚集新建柱梁吼聲相應不約而然屢驗無爽嘗有句云玲瓏茅屋無關設虎鹿終朝伴作鄰即其事也及檀寂虎亦去著有便麓居翦蔓篇滇游集嶽麓衡書埋雲草及文集語錄若干卷又操雪筠禪師者得法於衡嶽雙峰松濤照傳曹洞卅二世者也康熙壬申秋九月為懋灑延居長沙華林寺嘗因雨晚參滂沛淫霖不歇滴碎髑髏骨節鐙籠鼻孔浸爛露柱眼裏流血拈杖云唯此木尊者雨打不濕風吹不折卓一卓曰向者裏劈開紅日寸土皆金繫繫晴光天人歡悅芒鞋踏幽徑之清香柱杖撥煙嵐之秀色須是純鋼打就方纔道得土山焦而無熱性海

枯而無竭門庭戶口見煙見角而不別壬午季冬松濤示寂筠上供有云昔年侍巾瓶於六處春秋不計強將螳背謬繼芳繩深恩似海粉骨難酬知其得力於棒喝者深也著有語錄拈頌若干卷

清衡陽萬壽寺沙門釋行泰傳

釋行泰字杏堂初出家依止南嶽優曇林得法於衡陽萬壽寺若劍司亦傳曹洞三十二世者也康熙己未春萬壽老人命居潭州谷山寶林禪寺且應長沙諸孝廉之請二月八日入院上堂示眾以三玄三要復指西來意云但道澗上櫻桃少婦面徑邊櫻樹夜叉頭與先谷山是同是別眾憚其鋒莫敢究詰泰禪機超妙而文義斐然有破院歌初住谷山作也其詞曰破落僧破落院破破落落真風見生涯只在嶺頭雲活計從來山一片聽猿嘯聞虎嘯正是山家真個妙半邊砂罐煮清泉野客同滄歡共笑松逸清范湖渺人情淡若秋雲皎舜蹠雞鳴總一心英雄幾識春光老楊岐屋懶殘巖今古無人得共排惟有杏堂風味別松根盤石獨安懷也無煩也無惱萬事拈來都靠倒狼煙消盡任遨遊子房韻入青霄嶂丹已成火已到跨鶴凌雲無影向我自生來性逸舒一間破屋幽情放因此復得檀助重葺寶寧後圭峰以木鐸於嶽麓說戒請泰羯磨主僧阿諾延之上堂謂以水合水以鏡照鏡猶是兒孫邊事更有向上一著且道如何是向上以杖一卓曰一堂風冷澹千古意分明壬申冬開法長沙興化上續弁山雪為五世次紹雲巖瑩為四傳著有語錄頌偈八卷

清成都昭覺寺沙門釋通醉傳(溪聲圓 佛冕綱)

釋通醉字丈雪姓李氏內江人生性冲澹意氣灑然幼時母攜入寺見金像巍煥慨焉興感顧謂母曰他日我亦如此父母知非凡物禮古字山清然落髮嘗讀法華經乃至舉一手或復小低頭皆以成佛道因默付曰成佛若是其易耶乃上峩湄欲得證悟聞金粟密雲門庭孤峻卓有古風復舉僧問雲門如何是佛門云乾矢橛聆之如石礙胸直入西山參鑑隨而隨不重機鋒轉語一味平實因圓戒法癸酉冬仍歸古字掩關山阿讀諸家語錄鎮日如癡會靈筏來自江南言破山明荷金粟衣鉢入蜀負笈從之謁明於萬峰入室叩請明曰老僧不參禪祇愛伸腳眠正疑悶問一夜方下榻到著鞵不上以手納之忽然猛省遂呈所見與明遊白兔亭觀瀑布以丈雪字之書偈曰畫斷蒼崖倒碧岑紛紛珠玉為誰傾擬將鉢袋橫欄住只恐蟠龍丈雪冰迺入記室丙子秋造天童見密夜聞版鳴聲震山谷忽大徹悟更回萬峰見而印可復受之偈曰現身惡世可深藏莫逐周胡巖李張只待兔冰蛇吐火始拈柏子祝吾香由是力振頹綱於烽煙浩莽中往來秦蜀康熙癸卯還集昭覺兵燹之後荒涼滿目而故址依然意圖恢復作詩目見詩曰廿年偶爾見

華陽屢跋荒榛覆古梁小徑淡分煙影石幽巖初醒月華香驚人野鳥間歌
嘯科首殘黎牧大荒極目天涯無點翳慙拋汗雨灑危疆至乙巳殿宇落成
果符蛇火之語復有詩云俄乘願海到蠶叢瓦爍翻成釋梵宮祇為聚沙作
佛塔常伸隻手撮虛空長帚掃地山河動短杖支雲日月紅工成正擬垂簾
臥何期外有扣門翁當康熙甲辰時秉鈞者以湯若望聖眷方隆煽其左道
有沙沃之變聞玉林國師密楮達部欲保全大雄報恩通醉遺書責之云既
應一國之寵當此魔強法弱之時正宜挺身利濟寧謐諸山焉得重己剎而
輕他寺乎其嚴正類是晚歲休息於佚老關癸酉七月沐浴趺坐作真歸告
示寂有語錄十卷里中行一卷青松詩集一卷雜著文二卷壽八十四臘七
十八荼毘得舍利無數塔於寺西得法弟子佛冤綱溪聲圓其最著者圓於
兵火流離之際鶉衣垢面意欲建寺不果遂作破衲歌以自警歌曰看這破
衲箇破得大絡索斤兩剛七斤多少人不覺泥豬癩狗耍且嫌跛鼈盲龜被
伊縛雨也打不濕風也吹不著披白塵沙浩劫前綻則千補與百綴無貴賤
與人拈弄有剪尺與人裁度從來不曬晾東擲西拋一向不洗浣汗污氣濁
東土衲子禮三拜寒溫入髓西天尊者立微笑擺他不脫分明蓋覆赤肉團
無位真人盡包裹山野一生多快活全憑此領破衲個後徙武平寂於壬寅
冬塔昭覺佛果之左徹綱內江李氏子卅齡削染世味邈然巾瓶廿載兩下
吳越謁堯峰費圓具及辭去費以偈送之云佛是冤家汝自知威風凜凜孰
能窺因思昔日韶陽老白棒拈來要打伊後侍醉歸靜明擊破頂額血流踣
地半晌方蘇即呈偈云生死關頭俱截斷絲毫那許著情塵一回擊著頭顱
裂雪擁紅罇未是冰醉笑云未是未是頃之復呈偈云碧潭深處龍難隱峻
嶺高松鶴自鳴撥動天關珠苑轉日用如何不現成醉深可之即付拂子命
主昭覺上堂通方上士鑿在機先靈機密運情量超然星回漢地月落楚天
所以目前消息非口耳之所傳看他從上諸聖千種喻萬般言用盡機輪徒
枉然若要深深海底立直須打破上頭關且道用何打破挨落須彌如鞞芥
鞞來不礙剎那間後回里重關古字山

清杭州理安寺沙門釋超格傳(超徹)

釋超格字夢庵姓丁氏蕪湖人生性穎異九歲能吟詠長攻帖括有聲庠序
閒然非其志也獨好內典喜趺坐初謁梅生聞萬法歸一語有省欲出家以
親在不果年二十八始投金陵清涼寺劍門落髮秉戒於寶華山見月歷諸
名勝偶登廬山五老峰豁然悟徹有踏破虛空作兩邊之語時天竺主禹門
往參次便言破夏遠來請師一接笠云未入門時喫棒了也遂作禮云謝師
指示笠一擊云知恩者少格遂一喝拂袖便出笠門風孤峻學者憚之格橫
機不讓一眾側目甫三月遂受屬笠示有微笑爭看第一枝之偈後笠往南
澗夾山東禪格充首座四方來者服其機用之敏咸親依之推之開化歷主
嘉善東禪與慈雲及武林南澗清波最後主京都柏林類能以道示人所化

殊廣戊子春感微疾然參請酬應如常時雖中夜危坐猶屹然不動六月二日忽索浴更衣眾知不可留因求偈格瞪目叱之請不已乃曰南來北往也尋常竿木隨身作戲場今日風前舒一笑滿輪明月湛清光說畢瞑日時康熙戊子六月二日也壽七十臘四十有二得法弟子十人迦陵音調梅鼎皆別有傳格應世以誠稱性說法眼藏甚高而辨論精當著有五會錄寶倫集諸方莫不推重塔於靈巖左麓雍正九年明鼎主柏林時始乞和碩莊親王為之銘立石山陞餘芬未沫超徹字越鑑紹興全氏子亦得法天竺繼格主理安康熙四十八年杭城大饑沿門託鉢辛勤劬瘁竟寂於萬安橋側時年五十時迦陵音主柏林以其事達於朝世宗為發帑重建寺宇崇樓傑閣妙相莊嚴與溪山相輝映皆呈態騁奇於几席之下是豈山川清淑之氣盤礴鬱積之既久而後洩其菁英與蓋超徹之苦行精誠有以致之也及遣來造寺者僧名越宗置田者僧名成鑑與越鑑之字合噫異矣著有語錄二卷

清杭州雲林寺沙門釋原志傳(慧輅 智廣)

釋原志字碩揆姓孫氏鹽城人也七歲聞塾師講大學致知格物義乃曰此曾子教人誠意方法不明則疑疑則誠意去疑得明非誠意不能塾師大驚順治丁亥其父玉庭為人所害卒手刃父仇告祭於墓庚寅至通州佛陀寺祝髮師事元璽未幾投靈隱得戒於具公嘗參萬法歸一無夢無想語七日聞具答傍僧問威音王劫前如何是學人自己有初三十一中秋賞月之言豁然有省因呈偈曰夜來消息枕中傳報道火燒水底天喪盡毒龍哮石虎爪牙突在萬人前具深河之已亥命居座首倡明三峰之學勘辨方來電激雷奔當者震慄康熙壬寅具手書付屬謂首提三峰為滄沱正宗別開生面楊岐正脈斯得人矣是歲主揚州上方癸卯移泰興慶雲所至香花傾城萬指環繞一時興隆起廢不假思議過山水為妙聲化竹樹為寶網東南法席莫與比盛丁未具寂為造塔徑山王子遷三峰以重興為己任至則責負如山催征似火牆不歲苦庫無宿積乃不數月遐邇嚮風羸糧輸輓寺眾既贍更以其羨為興造資雖規模草創而氣象一新己未赴鎮江五州之請庚申居揚州善慶辛酉更主靈隱院宇嚴飾革其頽壞丁卯和碩康親王奉衣鉢請志說戒徒眾累千撫軍聽法焚香塞路具公五千衲子下揚州志足方之是時志年已六十矣己巳聖祖南巡二月既望幸靈隱御書雲林二字賜之因易寺額更錫金百鎰志以為法門慶幸未敢自炫也居靈隱十二年始辭去緇素攀留而三峰之眾已迎之境上癸卯再主三峰蓋其去此已十四年昔所修葺令已圯壞乃告於介眾背負杵杵夏雨冬霜剝膚灌頂皆所不避於是舊者新之闕者補之卒底於成以康熙丁丑七月十五日示寂臨終偈曰昨欲行時月不圓今遲一日月嬋娟從今要見三峰面劈破乾坤作兩邊壽七十臘四十九塔靈隱有八會語錄雜著尺牘詩偈若干卷皆梓行詩日借巢集自吐胸臆論者謂在寒山栴堂間慧輅字諦暉金田沈氏子也六歲

而孤家毀於役母沒出家遊學至靈隱禮具德於直指堂下見題額憬然曰彼以直指我以直會忽聞戶外鳥鳴聲頓覺大千一時俱直具德弟子五千人惟輅年最少而機鋒奮迅超越流輩真定特立常住不遷卒嗣其法歷主興福妙濟師林天竺龍井諸寺終於靈隱初聖祖南巡錫額雲林翠華重臨復賜輅御書禪門法紀四字及黃金佛像白金等物而輅三身八勝六時一真露地白牛無得無捨嘗造竺西草堂行梅花下花千餘樹如曉霞映雪香動心魂輅來去自若未一仰視年九十後不酬不對枯坐終日了無言動雍正三年三月二十日示寂壽九十有九臘七十有四斂以佛法塔於飛來峰頂輅秀眉大耳儀觀偉然所至學侶雲集弟子智廣乞雲門張彙為之銘廣字敏巖秀水馬氏子主雲林六載修葺頽壞奏免山稅為叢林倚重有訥庵語錄

- 習禪篇第三之十五(正傳十三人 附見九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性音傳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實徹傳(際雲)
 - 杭州理安寺沙門釋明鼎傳
 - 燕京西山普覺寺沙門釋元日傳
 - 杭州雲林寺沙門釋德元傳(德琳)
 - 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真旻傳
 - 杭州理安寺沙門釋明羲傳
 - 烏程陽山梵音院沙門釋通授傳
 - 成都昭覺寺沙門釋了元傳(際定)
 - 杭州理安寺沙門釋實月傳(實道)
 - 西蜀廣行寺沙門釋白光傳
 - 揚州高旻寺沙門釋際聖傳(天慧徹 了貞)
 - 天台國清寺沙門釋道宗傳(妙祥瑞 淨鑒 文定靜)

清杭州理安寺沙門釋性音傳

釋性音字迦陵別號吹餘姓李氏瀋陽人母氏許夢日輪墮懷感而生音面如圓月童時就學初受章句於性命之說即能詰問及長不樂世緣長懷高行禁於父兄不伸厥志年二十四始投高陽毘盧真一求薙髮尋受具戒真一示以本來面目諳默參有省辭一南遊時濟洞尊宿法席相望音皆謁叩多未能契及見夢菴於理安便入記室安每有垂問橫機不讓竟授衣拂已而辭去道經六安愛雪峯山水之勝頗欲棲止康熙丁亥夢菴主柏林寓書招之入京分座臨眾勘驗真切簡要莫不推服戊子夏夢庵寂諸山耆舊請音繼席乃遯之西山緇素復以大千佛寺敦逼出世據座提唱廣眾翹仰為法為人勦知刊見於是方來英俊奔趨恐後座前環繞三千餘指禪風斯邇殷勤六載得益如林未幾攜錫補處柏林纔及三稔而杭之理安虛席以待又往應之方欲避酬答憩山阿江右許方伯兆麟以廬山歸宗請為棲息之地忻然赴之未逾年而有京都大覺之命雍正元春忽謝院事飄然而南一瓢一笠山棲水宿居無定止四方徵書交至卻之弗顧四年秋復還歸宗獨居靜室涼風九月偶示微疾舉疏山造塔事遂段作頌有此處埋老僧不得羊腸鳥道自庚辛之語為後來遷塔燕都西山大覺先兆以雍正四年九月二十九日示寂禮親王彙其事蹟奏聞敕贈圓通妙智大覺禪師著有十會

語錄二十卷語要指要各一卷外集宗鑑法林七十二卷是名正句八卷宗
統一絲十二卷雜毒海八卷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實徹傳(際雲)

釋實徹字大曉姓黃氏崇明人也參學諸方自以為此大事因往臨安徑
山忽染大病覺前所得胥歸無用病愈復荷擔出行重參知識無有能發疑
情者乃入鐘山石洞誓不復出獨處崖中屢有悟處適游侶相訪歎其精進
謂古人悟後必當見人力勸之出乃往鐘山親炙香林月潭一日灑掃舉簞
應機問答契合付以南礪源流嘗入終南住石洞二年一夕立洞外天無星
月雲霧晦冥忽見電光一爍豁然開悟後主金山席復移常州天寧乾隆二
十二年重幸江南賜紫是歲四月卒年七十三弟子際雲序其語錄刊之際
雲字天濤嘉定王氏子母唐氏善病娠雲乃瘡荆染後參扣宗匠發明宗乘
雲以邇來禪學尠求真際不惜腕力提命周至遇知見纏縛者必廣引佛祖
言教斷之不至釋然不止乾隆三十五年臘後十日示寂建塔於丹徒七里
甸南

清杭州理安寺沙門釋明鼎傳

釋明鼎字調梅號粟庵晚歲自稱恬退翁姓馮氏黃梅人幼讀書輒嗜禪味
企慕空門父憐而成其志髫齡入雁源禮石白落髮年二十秉戒於萬杉大
楚深究本分遍參宗匠若金粟碧若包山柯皆有啟迪復走淞之理安參夢
菴格格問黃鶴樓公案未及答遽棒之曰打破黃鶴樓當下大悟於時客塵
觀盡妙氣來宅康熙丙戌遂承記荊明年夢菴方主京師柏林專使持書至
隨之入燕無何夢菴入滅鼎載柩南還卜葬於吳之石林廬塔五載壬辰婁
江士庶請主永寧明年入京師集雲堂較刻宗鑑法林錄憲廟在藩邸時自
拈佛祖公案相諮詢機緣深契留內久之夏禮臺山回登白塔峰頂跏趺而
坐時方陰霾雲漏日光斜射殿頂鼎舉頭一見身世頓空自此證到宗旨徹
通甲午主磬山席殫精七年多所造就庚子移居理安歉歲辛卯支持八載
世宗即位宣取來京住柏林寺嘗召見便殿問答皆稱旨賜紫衣如意轉輪
藏等物且諭之曰天然如意常轉法輪寵遇之隆歎為希有癸丑柏林告退
翛然南邁還守石林若將終焉乙卯刊修大藏奉詔來京命董厥事校讎稽
攷不辭勞勩乾隆三年藏經告成莊親王為奏請卓錫萬壽並掌僧錄辛未
閏五月示疾命坐告眾說偈曰海上橫撐沒底船神頭鬼面已多年而今捩
轉娘生鼻一任諸方取次傳安跌而化時乾隆十六年七月朔日也壽七十
二臘五十四塔於磬山著有四會語錄十四卷及詩偈別錄得法弟子二十
餘人實瑄述其行狀莊親王為撰塔銘

清燕京西山普覺寺沙門釋元日傳

釋元日字青巖姓丁氏鹽城人幼從永寧寺嚴深忍得度年十九受具於金陵寶華定庵基己卯參虎邱節巖琇琇曰并卻咽喉道一句日日學人沒氣力復詰問擬議間即棒出日因有省庚辰叩天童天岳晝以一念不生是如何晝曰何處得此消息日喝晝棒之癸未春游天台養道臥雲庵飛怪石折腳鐺邊悟心境一如之旨然終不自芻乙酉夏復參靈隱諦暉輅亦有啟發壬辰冬參松江雲峰薪傳瀾師資深契洞徹法源遂以衣鉢付之康熙五十四年始出主山陽之東林五十八年己亥冬復唱道於天長毘尼雍正十二年召見賜紫及寶盃玉如意命至天童乾隆元年建報恩道場命日監理遂開法於西山普覺寺單提向上以本色鉗鎚為事一時僧侶雲集禪規律範事理彰然而和碩怡親王寧郡王信嚮誠篤執禮甚恭日處盈恒虛在豐崇儉深得古尊宿應緣之道年六十餘著有語錄數卷

清杭州雲林寺沙門釋德元傳(德琳)

釋德元字在瞻號耐亭姓丁氏吳興人生而端靜風采不凡總角即禮龐山妙智寺西嵐禪宿為驅烏入塾肄藝傲書屬句恆度越餘子一時名流為之刮目年二十受具於覺海寺歸而嚴淨毘尼暇則游神典籍杜門宴寂即有叩戶者樞不為轉也既而憬悟文字非究竟法大事不可不明乃杖笠出遊參巨濤於雲林一見器之留侍巾瓶妙密鉗椎精求累載將有所得及聞萬法歸一語恍然契悟遂獲印可乾隆庚午出主華亭船子道場學徒輻湊檀護歸崇乃於隨機化物之餘復營土木鼎新殿宇西林舊面忽焉改觀唱導三載幾欲化成會巨濤浸倦寄聲[言*乎]助遄返鷺峰過雁流雲曾無繫戀乾隆十八年繼主法席純廟南巡翩然戾止德元仰承天問答語雍容上協皇情寵錫紫衣及香金諸方榮之無何維摩善病欲息勞肩因謝院事唯以泉聲林影時助吟詠以永禪悅雖有詩稿語錄多未付梓寂於乾隆庚辰九月十五日塔天聖院左蓮峰下德琳字玉山吳江人亦受法於巨濤乾隆二十八年雲林虛席為浙撫熊學鵬所延引入室據座大唱道聲力挽頽綱三十年車駕重臨太后鑾輿亦復隨至累承渥賞時琳兼主法喜寺香金石佛亦得分賜已而辭退掩關習靜沈沈閨室寂寂蒲團若將終焉三十七年夏為兩眾要請更住雲林上堂云絲綸收拾未多時今日無端一竿持應向煙波深處裏金鱗衝出莫來遲有玉山語錄壽六十餘塔於雲林山麓

清四川雙桂福國院沙門釋真旻傳

釋真旻字透月姓蕭氏湘鄉人生質孱弱幼多病苦十齡就傳略通大義家貧廢學然見僧心喜年十八始有出家之念乙巳隨兄貿遷入蜀無意經營

及聞父喪感世無常歸真益切丁未侍母至寶藏歸依幻師命名依寓戊申乃從剃落一日請益幻言問者是誰獨自默誦分明是我又道是誰沈吟久之頗有人處時幻初建寶藏以為坐靜親依者十餘輩皆猛勇精進行持禮拜中夜方息因自策勵大法未明身不貼席嘗靜中忽然渾身不見惟覺一空境界頃之便失疑礙益甚舉白幻幻曰此乃塵勞歇息返本還源將近好處勿喜勿懼由是工力益加無敢怠逸念茲在茲渾忘人我每逢出汲往往逾井遇人問故始覺轉步偶聽曉鐘警醒倉卒起身頭撞殿柱覺眉際上火星迸裂方悟得問者是誰胸臆暢達復看一歸何處及本來面目皆釋然無疑及再勘證幻復示曰本分一著大抵如斯還有向上之關因舉僧問趙州曰蠢動含靈狗子何無佛性答以有業識故其僧即於此悟去且道所悟安在旻不能對仍前憤究王子仲秋行持中夜出至丹墀見天河竟端無限慶快始信天地同根萬物一體不我欺也古德為人無不切直乃自生紆曲耳黎明白幻幻為之助喜是冬進具聞示苦行法欣然欲效之及然香略無所苦因自翦燭然頂初若冰清頃之忍痛惟覺無頭有老僧誚之曰可惜然錯了所在然著心就好了旻疑其言必有由來後讀經知藥王焚身世尊因地捨頭目髓腦欲成菩提方憶前覺無頭亦捨頭故自信發心苟誠雖小苦行必有勝益方知老僧語亦廓達空之類也甲寅春幻寂後充職西堂戊午建方丈并西廊旻有力焉庚申編橋雲語錄成欲附嘉禾南藏旻任其事道過石南銀杏士人方議重修銀杏羈遲久之九月舟至漢陽就歸元度冬辛酉春下江浙至嘉禾楞嚴詢附藏之事見經版多蠹意不謂然遂下杭至靈隱王_戌春謁天臺更觀華頂勝跡遊寧紹諸名剎遂至大梅梅以三問乞下轉語一一契合贈以訾物卻之而去浮海禮普陀復至楞嚴橋雲語錄印出分送江浙名藍十月還蜀達銀杏四眾具啟延主丈席乙丑修造殿宇又為紳衿召赴寶藏丙子復應銀杏戊寅主雙桂訂修藏經兼葺殿閣早作宵息不忘寧處廿餘年中四處法位所有語錄雜偈都二十卷弟子了深為之編刻今有傳本

清杭州理安寺沙門釋明義傳(實勝)

釋明義字佛日號煦園姓陳氏洪都人幼禮繩金塔寺普照堂毓明為師年十九依翠巖鞭雷受戒承示機要參究兩載殊無所得聞江浙宗風甚盛棹舟南下徧訪知識始抵餘杭值越鑑唱道之初命充紀錄一日上堂僧問元沙不可靈雲意旨如何鑑曰君子千里同風義聞之如貧得寶竊歎發明古人用處如揭日也相依數月竟書南澗流源并衣拂授之無何毓與鑑相繼謝去義念正法陵遲典型凋喪不有振起後學何從鑽仰弘法之志自是而堅遊五臺抵燕山遭際憲廟培隆祖道愛月居士訪尋高詣以備顧問柏林調梅以義名入告留止歲餘出主江右雲居五載及調梅移錫萬壽招之入京舉為座元時修檀柘山志幾成而理安之啟至義居祖席兢兢十載謹守

舊規不敢失墜而性復嚴潔有黃龍真淨之風人或望崖而退乾隆辛未春翠華臨幸應對稱旨賜額曰樹最勝幢御書心經塔及采帛數種是歲饑寺眾匱食憂以成疾乾隆十七年壬申八月十七日示寂壽七十臘五十一塔於蓮花峯之陽著有語錄八卷外集八卷並見刊本又實勝字法南號竹菴益陽鄧氏子幼入鄉塾善病禮同縣華嚴悟宗雜染侍學六載苦無所入并力農田年二十四詣德山半瞿受具明年參石塘吼天示萬法歸一語猛力精究復走江浙再上湘南叩衡嶽祝聖曉堂已而詣吉安龍鬚山陶谷庚子三月至博山四月至杭遊淨慈靈隱至理安為退翁所賞凡遇勞苦身任不辭壬寅隨至京比還受記前未幾開法東安瑞徵庚戌修建堂殿像飾鐘鼓靡不具新癸丑召見天機契合命主理安甲寅受虞山普仁之請乙卯入京命住慧福乾隆元年詔主竹林七年壬戌移主磬山丁卯復歸益陽趨拜親墓叩悟宗相違三十年俱不相識唯挽手泣下而已以乾隆十七年壬申二月十七日示寂偈云南北支離三十年七花八裂得人嫌今朝自唱還鄉曲珍重時人莫浪傳壽六十三臘三十九塔於退翁之右

清烏程陽山梵音院沙門釋通授傳

釋通授字印中號松際姓嚴氏烏程人年十二喪母稍長閱孟蘭盆經因慨曰先慈雖無重業奈泉路茫茫何痛念者久之後見雲棲一筆句詞瞿然曰吾志決矣是夜即投道場山慧如慈脫白慈修苦行久一方敬信然所訓誨授頗不合偶徘徊巖石間有老僧至自天臺藉草而坐與授語大器之謂曰子英年高志幸忽向醋甕中淹殺授承激發遂起參尋之志望庵作禮遙謝慈公而去至武塘謁一關主令看誰字一日途中正疑此事忽聞牧童相調曰騎牛去覓牛授聆之覺有入處因念行腳終歲塵征徒形勞痛嘗聞弁山有黃龍洞徐探得之日坐其中久之跡漸露遠近競觀棄去之武林受具於龍門秀峰峰令見抱璞乃往叩之璞曰汝但休得一分心便是學得一分佛法授云古人道莫執忘形與死心此個難醫病轉深又作麼生璞曰休去授返烏程擬尋靜室夜夢至一山茂林修竹青嶂四圍有人招之曰陽山也可居盍居諸明日以問人有居士曰此去五十餘里有陽山然虎狼出沒之地耳授曰盍往觀之居士欣狀與之偕行及登山四顧宛如夢境喜曰吾得活埋地矣就樹趺坐值雨雪連綿經旬斷火鄉人以為此僧凍餒死矣雪霽攜餼往視見授怡然枯坐大奇之相與捨貲具材構庵以居後得法於神鼎雲外除夕上堂云年窮月窮日窮時窮山窮水窮寺僧窮窮堂頭說窮法窮學者解窮義直得事窮理窮旨亦窮一窮窮到無窮處萬象回春瑞氣濃所以道窮則變變則通明明再向枝頭看新歲梅花舊歲同著有語錄若干卷

清成都昭覺寺沙門釋了元傳(際定)

釋了元字道魁姓童氏黃陂人齠齡失恃幼不耐學略習技勇氣豪志毅情似傲物然性愛僧道喜覽名山乾隆丙寅至漢臯十方庵禮明禪師薙染聞成都昭覺宗風遠振徑上川西就昭覺守仁稟具足戒一日入室問丹霞掩耳高沙彌拂袖意旨如何仁曰非汝境界且向父母未生前速道一句元方佇思仁一喝忽爾如夢驚覺拂袖便出明年癸酉正月上元乃受付屬仁名際定應城陳氏子年三十六始出塵濁便勤參叩嘗謁馬祖寺翠庵晝夜提撕終無入處偶因入林采薪有樹橫臥草中絆之而仆倏焉豁悟身世皆空遂說偈曰仆地忽然忘所曉從今再不尋他討一交跌落一肩柴萬象森羅都笑倒已而辭回丹景山掩關持誦法華三年己未至昭覺參潛修機緣契合俄而繼席乾隆戊寅仁寂了元盡禮闍維入塔復檢潛修語錄稿逐一編較輯成卷袂刊入嘉興楞嚴藏室並收集破山明以下六代祖師語錄隨舟載至高旻寺入正源錄部後遊吳越諸名勝登天童禮密祖過育王觀舍利謁補陀覩潮音真相壬辰春返昭覺遂接席嘗作警策偈示眾云欲明出世法信力為根本本不從他得腳跟須把穩習氣盡蠲除靈光孤迥迥頂門開正眼方見吾無隱一喝分賓主離名無等等堪歎夢中人不悟無生忍參禪志不堅徒捉波中影工夫未現前念念成魔境著空守寂靈可悲復可憫自昧本來心云何得解脫依舊入輪迴遠離諸大覺孤負丈夫身借衣逃生活痛策諸禪侶莫隨風擺撥發奮自忘疲精修無漏學昏頭得力時萬境難搖奪撲落大虛空原來是者個其頌明星悟道云六年空抱死疑團此夜方知徹骨寒驀地舉眸開口笑從今返覆誑人天見見之時見非是見見猶離見見不能及葉落青山染翠容丹霞映水露金風九霄雲盡孤峰麗萬壑蒼蒼一點紅又頌庭前柏樹子云認得中時卻未中承虛接響意朦朧不因柏子庭前樹爭解金雞覩面風福康安之督川也陸舜時高宗面諭之曰四川昭覺僧了元者善知識也汝善護持之蓋潛德幽光聲聞于天及福至川宿新都明日晨發私念了元聖眷如此果有道否欲試之陽命騶從導自山門而陰乘便輿入於寺東門比至則僧眾集於東門鵠立以俟福心訝之初欲自諱及見了元問訊不覺折服相與攜手入寺訂交而去後往來無間云

清杭州理安寺沙門釋實月傳(實道)

釋實月字智朗號漁陸姓李氏白門人年十九投江寧觀音慧開誦習三年受具於六安大悲院曇瑞明年謁天目晦日磐山若水後依雲峰素蓮習天台賢首諸經論久而厭其枝蔓乃飛錫至理安見佛日以從上譎訛公案徵詰投機許之入室丙寅付以偈有十八磻邊一句子於今分付在江南之語且云稱宗師者須具自他眼方可為人若但明自己不明他人與學者酬酢終不能揀魔辨異子宜勉之月唯唯是歲遁跡臨江辨利有暉彩埋光之意竹村茅居士請居定香古剎至則百廢具舉座下食指已盈二千而香積乏粒出則分衛四衢入則宣揚三藏亦略無倦色癸酉奉命住理安正綱飭紀

大振石磬之音四方參叩殆無虛日激揚本分兼講阿含方等般若華嚴法華唯識諸經所依皆一時英俊乾隆丁丑以還訖於乙卯三次幸臨奉對無爽宸衷載懌錫予有加御書識安心竟四字予之其額猶存月平生一衲之外無餘物有贈衣者輒以予人幼時未嘗習文學晚忽貫通諸子百家武林詞客皆樂與之遊將示寂告眾偈曰金剛王寶劍一斷一切斷山雲與水漚誰斷誰至斷時乾隆三十六年八月十日也壽六十一臘四十二塔於蓮花峰之陽有語錄四卷及禪宗必要南磧吟草示眾偈諸卷實道字正宗號無隱岳陽人七歲薙染年十八參雪鑑遂秉戒後聞理安迦陵音道風藉甚相隨十有一載嘗以臨濟家舍途中公案詰之疑情頓發偶於香版下豁然開悟懷香入室為眾秉拂授以大法莊親王嚮其道範令主京都大千佛寺衲子歸之復振錫廬山歸宗已而繼席理安以癸酉十月二十日示寂亦塔於蓮花峰壽六十三臘四十五

清西蜀廣行寺沙門釋自光傳

釋自光字際月常寧人也幼性恬淡志在山水超然塵表年十八就縣中七佛庵得度時康熙己未歲也受具後參遊至蜀初憩蓉城復依昭覺潛潛示以晴空雲跡水曲風痕無中覓有虛裏尋空總括萬象為唯一之密機了性之玄猷光聞聲即悟獲授心印於是勵行祖道警發末學仰厥風徽莫不悅懌及年登大耋精勸神疲退隱彭縣廣行寺更錫化成院寂於乾隆四十五年庚子壽百有二歲先夕夜半晏坐丈室召諸弟子問曰今月何在曰在天心古月何在眾莫能對光莞爾命筆偈曰宇宙原無壞幻質本非堅夜沈星畔月依舊照山川擲管垂目而寂弟子道魁為銘其塔塔在化成院北

清揚州高旻寺沙門釋際聖傳(天慧徹 了貞)

釋際聖字了凡姓薛氏海寧人也父覺原母曰慈蔭老人後就養於寺修念佛三昧坐化者際聖初生不啼五歲始能言年十二讀戰國策云生王之頭不若死土之壟也即有觸發年二十四讀蘭峰語錄念生死事怦怦心動不覺流涕掩卷悽然惘惘出門至耀巖山徜徉半載始投中巖慧薙染復受具於圓妙乃事參求雍正五年謁怡然於杭州大雄山崇福寺入禪堂時天慧居首座令參萬法歸一一歸何處經數月無人處泫然久之一日方舉前話胸中若有物脫落了無一念可得天慧曰參禪須參活句問如何是活句曰瞻之在前忽焉在後殊未達徘徊庭間聞彈指聲忽有省左顧右盼無非自家受用處舉呈天慧乃詰之曰既知萬法歸一畢竟一歸何處又不能對天慧曰汝今得處與萌芽相似須更加精進乃兀坐枯寂七晝夜忘寢食聞人舉肇法師會萬法為自己語忽有會天慧問曰喚作竹篋則觸不喚作竹篋則背不觸不背當作何觀感際聖曰豁聲盡是廣長舌山色無非清淨身天

慧曰未也更道乃曰摩醯首羅三隻眼天慧曰孰是正眼際聖一偈天慧曰見處雖是生死岸頭猶未了得其警策如是明年居崇福依迅機得疾甚劇跌坐頃力不能支平日所得處俱不相應疾愈益自勵度夏江甯香林寺一日見金剛解云得之於心應之於手歡悅無量出隨眾工作上瓦於檐相次遞舉忽爾忘失從前三際俱斷瓦猶在手不知所以眾訶之際聖曰非爾境界自此一切不疑語人曰雖古佛現身說法不復參叩矣十一年憲廟念大法陵遲禪林凋喪思所振之詔訪玉林正派天慧應召入京進見詢向上事應機無滯憲廟殊未深許掩關拈華寺重加策發久之忽大徹進對契旨賜紫衣歸江東住磬山聖月寺乃招際聖入院警語重提勘發尤殷嘗於辯論時目際聖曰汝向中間說際聖曰說即不中天慧曰顛預佛性圖匳真如然由此服膺愈深精進更勇旋住揚州福緣寺禮佛次舉頭見露柱遂大徹了知情與無情悉皆成佛及還磬山天慧屢舉古德淆譌公案試之一一透脫無滯天慧既主高旻乃命分座說法已而去之天日復之天台華頂乾隆十年天慧將示寂疾甚遣使齎衣鉢遺書敦促繼席高旻道問傍流遐邇慕德自是歷主鎮江嘉山真州壽寧常州開利而終歸於高旻每結制衲子雲集開悟者歲得三五人二十年江東大饑諸山緇侶多赴高旻食指數千恒虞不給親出叩募劬勞備至明年春大疫寺僧多病徧候寒熱視食與藥夜以繼晝夏五月朔患心疾以席傳弟子了貞病七日安坐而逝以乾隆二十一年五月七日寂後十二年建塔於鎮江九華山麓了貞字昭月余氏沛人也幼多疾父母捨於銅山曹都依潔生薙染嘗誦法華至止止不須說我法妙難思掩卷長思頓發參方之願年二十投皇藏峪弘濟律師受具依止學律孜孜三載偶聞講金剛經舉古頌曰本來無名字權立號金剛頓明深旨尋來揚州棲息高旻際聖命參不是心不是佛不是物年餘無人處一夕放香次偶舉話頭身心忽空直至天曉諦觀內外了無一物舉呈際聖際聖曰懸崖撒手自可承當絕後再甦欺君不得言下灑然當結制時晝夜苦參脅不霑席及解制了凡升座舉云一鐙光現百千鐙忽如善財入彌勒樓閣身心世界融成一片貞隨述偈曰一鐙化作百千鐙彌勒樓閣幾萬層雀噪鴉鳴干甚事昂頭天際自青青際聖可之為記別時年二十八矣明年竟紹厥席高旻自天慧來鉗錘猛厲為諸方冠學子非忘身為法者往往望風裹足一傳至了凡揚鐙續燄日新不已及貞以少年英特駕諸耆宿上咸憂高旻宗風將不振乃貞純提向上不少假借每結制入堂開示淋漓激切聞者淚下或自陳所得證辯津津輒一言斬截使人沮喪愧恨重加策發終獲契證者不尠故三十年來海內叢林知有生死大事者必以高旻為歸總督高公夙與貞契三十六年勅修浮圖高有助焉已而欲以洲田五千畝施寺貞辭曰幸有薄田可共饘鬻不願益之以滋累人問其故貞曰利者爭之府也往時諸寺院以洲田致訟者累數十年禍不得息可無懲乎且高烏能久居此耶其後受田者果訐訟反覆人以是服其明寺南故有漕渠五百丈後改渠北行舊渠為漁捕所集貞過而憫之請於官截渠為放生池植柳檜培隄構梵

宮其上以僧守之丹陽萬壽杭州崇福延貞主席或一至焉規模聿新輒復捨去而歸老於高旻以乾隆五十年十月七日示寂手書偈云四十九年無一字我今縱說也徒然離相離名離自性輸他古廟舊臺邊年五十七僧臘三十七

清天台國清寺沙門釋道宗傳(妙祥瑞 淨鑒 文定靜)

釋道宗字耀冶姓胥氏寶應人也幼失怙恃惴惴無告復多痰疾癩憂以痒聞村庵梵唄圓音遙觸心性俱清遂思軼俗年十九依寶蓮庵恒鑑雜染泥室三載爇香兩臂持誦法華昕夕無間已而出侍高旻寶林隨入天台誅茅華頂乾隆四十九年繼席國清十有三稔退居吳江橫塘之東諸方禪子叩關不已乃剏建陽山重敷講筵四眾景仰樂道不倦嘉慶十三年春中歸自天台偶示微瘡語其徒曰吾於甲子日子時去矣因書偈曰三喚三應卻似渠是文殊兮非文殊從今省識本來面始覺塵埃半點無有語錄數卷同時有妙祥瑞者臨海金氏子亦參寶林有悟首眾國清三載乾隆四十七年春三月示疾返妙峰庵長坐不臥與眾含笑作別端坐而化有語錄一卷附刊寶林集後宗弟子通靜字文定別號葦渡寧海韓氏子少依治平寺染削年二十始進具遂造維揚高旻謁寶林有所證入後參宗授玄旨為入室真子遂付衣拂主席國清三載退隱四明掩關十年再住國清閱歲十六門庭殿宇煥然改觀道光五年秋示疾冬十一月朔集眾訓勉乃示偈曰來無所來去無所去東土不留西方不住只在此山中雲深不知處安坐而逝又淨鑒號月舟年二十受具參訪名山勤行禪觀精持密語世緣所入隨取隨捨時值國清中興百度待理劬勞尤甚道光十九年九月朔示疾預自諷吉曰吾於四日寅時入龕巳時入壙至期香沐肅衣端坐說偈而化年七十有九時無用禪師以偈讚之猶能首肯而氣息微矣

- 習禪篇第三之十六(正傳八人 附見十二人)
 - 清什邠羅漢寺沙門釋達澈傳(月容)
 - 雲南水日山寶華寺沙門釋祖真傳(續果)
 - 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大定傳
 - 金陵天寧寺沙門釋不二傳(焦山長老)
 - 安陸西來寺沙門釋秀野傳(裕如 純備)
 - 九華山百歲宮沙門釋寶悟傳(寶初 寶月 寶印)
 - 荊州如來庵沙門釋朗明傳(月明 永明 妙明)
 - 衡陽岐山仁瑞寺沙門釋無來傳(懶放)

清什邠羅漢寺沙門釋達澈傳(月容)

釋達澈字禮汀出潘氏丹徒人也幼孱弱善病驚風父母憂之寄投小九華山海師為徒每歲隨親至廟見山水幽勝留連不捨因繫念空門願以養親責在不得遂志乾隆丁亥父母相繼謝世欲見超昇比方古德己丑溯舟入蜀躡峨眉達嘉陽登凌雲逾東山憑臨丘壑遠眺岷源頓忘身世辛卯夏乃禮東山淨碧薙髮接入凌雲丁酉受具於新都寶光月容初事參求開示[諒-小+日]切令看未生前本來面目經冬歷夏疑情勃發誓究高深乃回凌雲獨棲靜室杜門三載足不履閭歷盡魔苦始放光明嘗自念云假使熱鐵頂上旋終不退此菩提心從前心識痛自勦絕放身捨命不起豪末覺察如是坐才一時萬籟俱清槁木死灰了無知觸熱香寸餘窗外風動樹搖瓦落有聲鏘然一驚而蘇渾身灑說恍如五里霧中鐙光燦燦一切景物從新發生迥非舊况前日疑障如推門落臼不待擬議略無隔閡慶幸無已始信佛祖言教真心決志久苦不退以悟為期者為不虛也秋初晉省謁月容於什邠羅漢寺便訊所得因云何不將汝平素行持道將一句然言外契合已超然塵表三日月容付以衣鉢邑令任侯寶光善度及薦紳衲子敦勸不已容復集眾詞旨悲切愴然有感敬謹承命黽勉經紀十有餘載督課工程應持苦心足為後規別詳碑記嘉慶七年壬戌七月朔日自言將入涅槃弟子聞之有悲哀者澈曰止止曷聽吾偈因唱偈曰大道無去來皆因妄分別因此分別心與道相懸隔萬法由一心一心是一切一動一切動一靜一切滅諸學二乘者執定生滅說如然鐙謂生如吹鐙謂滅鐙自本非動由汝心妄決若人欲了此唯一是妙訣了卻生滅心自然生死絕欲識佛性義熟誦吾斯偈又謂一念悟即佛一念迷即眾生即今急切不能開悟者皆因無明結習煩惱暗蔽以致觸事窒塞須當掃除是非人我一切不善之心奮發猛勇

精進不怠久之又久自能斷卻切莫因循自誤未得謂得未證謂證後顧茫然悔之晚矣好自修持慎勿放逸明日為我六泉母難之日有一段特地公案難得饒舌眾莫之測次日眾方相邀齊詣丈室為澈祝壽則已跏跏化矣澈以己巳七月三日生以壬戌七月三日滅生滅一日殆所謂無去來與

清雲南水目山寶華寺沙門釋祖真傳(續果)

釋祖真字容光系出尹氏其母夢白蓮入口寤而生五歲隨母入圓通寺見佛像森嚴問何因而得母告以為僧修行可成正覺真即請曰兒願作僧成佛母甚異之年十九入水目山落髮徧參廣印禪師懸岩頭陀金山長老淮峰和尚得其法要歸居水目會歲大旱真築九龍臺禱雨誦咒方始甘霖立霈田禾萎者復起枯者復榮民賴以生道光丙午春忽告其徒曰吾將歸矣如期坐化塔於水目續果者鶴慶北山丁氏子五歲出家祝髮興福寺乘戒俱圓咸豐丙辰歲示寂年已九十三矣先夕謂其徒曰大難將至吾寺為賊踞且為賊毀矣宜先避之寂未踰月杜文秀陷大理滇西俱郡縣鶴慶亦為所佔

清潤州金山江天寺沙門釋大定傳

釋大定字密源姓鄧氏黃陂人也父學浩母蔡氏雷雨中見寶塔湧見其前感而有身故生有自來幼而素食有志遺塵及嚴慈見背詣隨州仁聖寺禮本分剃度同參大千知為道器時善誘之定為沙彌即精進猛勇脇不沾席咸豐五年定年三十二從襄陽淨信寺映川圓具遭逢寇亂三為賊虜皆因緣得脫避兵年餘居徙無常入蜀至寶光寺參妙香不契乃徧歷終南五臺九華普陀維揚之高旻毘陵之天寧皆定問道處最後至金山見觀心慧令參念佛是誰有省定本名大頂觀問名時聆音未悉誤為大定乃曰一定多少時對曰不墮諸數觀笑曰可謂大定矣自是始更名大定久之命為領袖同治甲戌觀示寂時定已還鄂居歸元寺迎之還山初不言住持事既至丈室首座惟請繼席堅辭不允惟偕眾僧環跪不起定不得已許之然性枯淡居二年即退仍禪誦不倦雖老不假給侍躬自縫浣或略失威儀即跪佛前痛自責勵學者為之感泣室中惟一禪床常坐一日如彈指頃尚言恐有走漏愧古人多矣其真詣如此光緒癸卯年己八十眾請開期弘法登壇乞戒者五百餘人極一時法會之盛丙午七月偶患疾延醫視之定笑曰我本無病奚用藥為猶兀坐自若高居士者本五戒弟子辭之他往定曰勿去恐汝回時不及見或以為戲言至八月三日有請益者初不之答哀懇再三乃厲聲曰汝真欲參禪祇須到底毋懈若中道而退前功盡棄言詞痛切聞者墮淚明日五鼓呼侍者扶起端坐至日午頭稍低側或呼曰老宿平時脊梁如鐵今何乃爾定聞即舉頭泊然而寂明光緒三十二年八月日也壽八十三

臘五十有五坐五十二夏茶毘火滅遠見其面目如常儼然入定近視則薪盡無餘獲舍利無數塔於五峰山之陽生平教人真參實悟不貴口頭利滑偶拈古人論說皆得其要嘗遊普陀與一座主論二六時中安身立命之處喟然歎曰真妄相待縱饒證真亦是對待邊事豈究竟耶聞者感服弟子慈本狀其行事乞釋敬安為之銘

清金陵天寧寺沙門釋不二傳(焦山長老)

釋不二者不詳所出或曰鄂渚人天寧西堂僧也出家後得戒於歸元寺參金山天寧發明心地職居班首提獎後進不遺餘力多所成就咸豐間年逾七十獨處靜室專習禪定兼究大乘一日閱經見樓上司香往來頻數招而問之曰碌碌者何為也曰今日大寒略事灑掃將迎新春不二聞之若有所思忽笑謂之曰明年大寒我將去矣爾為我記之司香應諾因書其語於樓上壁間久亦忘之踰年大寒節至司香者登樓見壁上字隱隱可辨遂憶前事逕造西堂見不二方檢華嚴曰師自看經今日大寒節矣不二曰幸去歲有約非爾來幾忘之乃沐浴更衣曰幸為我白眾吾不待矣及眾至已跌坐而寂火化得舍利如菽又焦山長老者歸元真一之師也嘗遊終南荏苒十載言旋江南道出漢水偶示微恙止於夏口遣召真一曰吾命在旦夕末後大事煩汝結束昇至歸元即從脫化返葬焦山

清安陸西來寺沙門釋秀野傳(裕如 純備)

釋秀野未知何許人初出家時受具於天童後參百丈得衣拂於智老為奇然正派蓋傳臨濟者也躡屩名藍熠燿佛鐙上至王公下逮士庶悉聽道聲罔不崇仰江庵淨土皆譚玄之地普門廣濟亦說法之場主安陸西來二十餘年提闡上乘入室者多嘗東遊江浙大小百餘城每啟講筵環而聽者水赴雲從堂除充塞幾不能容年登七十安禪而化門人最正錄遺語十卷武昌太守劉餘霖為之序又裕如禪師道履孤危戒香馥郁傳德山衣鉢棲公安報本寺數十年壽近古稀無疾而化天鐘有偈讚之曰霜葉飄飄萬木枯哲人云逝至堪吁含生智眼方昏濁業海誰携出險途又黃牛峽孚濟寺純備德者得法於天圓亦傳臨濟煅煉向上著有語錄博達道隆為之序

清九華山百歲宮沙門釋寶悟傳(寶初 寶月 寶印)

釋寶悟者嘉興人出家百歲宮具足後精進毘尼嚴行頭陀行兼修定慧參金山天寧高旻崇福諸宗師皆獲印可咸豐時推居金山首座演唱要妙被所薰發者不可勝計同治十年退處宜興銅官山專事禪觀不涉外緣生平耿介自持不蓄徒子有歸依者婉辭謝之至於遠來請益則循循善誨至老

不倦光緒初元大定主金山迎悟至寺振播宗風衲子聞而至室不能容時年逾七十不倦津梁每對眾說必爇香為度一日講筵方罷向眾禮退偃息片刻即驚坐化時光緒元年二月六日也留偈甚多舉其略云春華錦繡翠玲瓏雪嶺高撐映碧空靈山一別重相晤歸來猶住九華峯一點靈丹萬物通六根應用去無蹤八面玲瓏空皎潔覺來何處不相逢密密無蹤切要親識神停處冷冰冰孤明徹隱無分曉纔有纖毫即是塵清風明月徧恒沙七寶山河共一家照見五蘊皆空相分明却是鏡中花青山疊翠只數重綠竹黃花鳥語風眼前盡是西來意點頭白冴道無窮淨覺精嚴最上乘何須探索苦追尋徧滿虛空真實際個裏無私徹底清殿閣清幽古樹深巧鳥常啼雪裏春頓入玄機談妙趣寰宇長留清勝因洞裏宗風古寺家煙雲老鶴散天花般若光中談秘密相邀同喫趙州茶時江南有寶初寶月寶印與悟齊名皆以向上接人為一時宗匠號為四寶同時楚北有四明曰朗明永明月明妙明皆弘演化道輝映南北咸同間佛法衰而復振賴此數子

清荊州如來庵沙門釋朗明傳(月明 永明 妙明)

釋朗明者沔陽人早歲離俗超然塵表具戒於歸元寺真一既窮律論更求奧旨參金山天童甯常亦歷年所值粵寇蜂起竊據金陵乃子身南旋沔陽有廣長社舊為叢林時漸廢弛朗明還里毅然興之遊侶復至後居荊州如來庵與戒凡輩激揚向上勤修罔懈光緒初年踰八十集眾諷佛合掌而化朗律身甚嚴言行不苟道俗敬憚月明永明亦倡道於沔與朗明同門又偕至荊州宏宣法化後皆歸寂沔陽妙明亦沔陽人少習舉子業妻以縊死乃感無常懺悔求度受戒於荊州水月林亦至金山發明心性以文學瞻優名人達士多相往還結社論禪聲譽遠播然不樂見官長常州觀察三謁三拒觀察佛然直斥其名妙殊不為意時人以是高之晚歲還鄉居廣長社方丈復棲荊州如來庵更受龍山之請光緒中與眾言別安禪而化藏於龍山人稱楚北四明與江南四寶皆禪中之錚錚者

清衡陽歧山仁瑞寺沙門釋無來傳(懶放)

釋無來字恒志姓譚氏衡山人也父安祥母陳氏來性純孝得父母歡雖在童年而好善之心過於成人往往誘勸鄉里小兒母作惡劇及居喪哀毀斷食以家貧耕牧自給力作逾眾祁寒溽暑無少怠而不索值與則受之忘則置之人或侮辱處之怡然誑之亦即信若不知世間有人我愛憎事見人一德一善稱道不衰聞訾人過或走或不語如犯尊長然從不矢口道人惡鄰里有鬥者見其至輒釋然曰休休毋使譚善人知每於中途為人負物負至則行不取一錢人咸異之又嘗為僧寺傭耕種三載晝事田作夜則禮佛達旦身無長物惟一衣一裳浣時蹲樹下俟以晞一日裁舊被布為袴僧疑其

竊遍以語人其徒知者不平勸之他往來曰止汝不合言師之過吾作衣時未及白致師疑而得謗人之名皆吾過也語畢泣下其僧及眾人聞之皆感歎里人至今傳其事時法空成中興衡陽羅漢寺衲子多歸之來往見成驚為再來人親為剃染從培元寺無漏律師受具聞彬州法雲耀本分接人往請益秘不說因長跪痛哭言詞哀懇耀憫之謂曰無上妙道非積劫勤苦不能得汝且澄神寂照收其放心再為爾說來聞如獲至寶日夕研究目不交睫者數年忽於定中聞破竹聲有省歎曰覓心尚不可得寧有收放心乎久之與其弟恒忍徧參江浙名宿皆蒙印可旋於海上病瘡甚厲日夕寒熱飲食不進猶禪誦自若有南嶽僧同病呻吟不已來憐之自四明負之歸沿途乞食每行運衣具置前店復還負病僧如此者日往返數十次行不過十餘里年餘始抵衡來亦病劇養病祝聖寺專業禪定坐數日如彈指頃適惟一自懷安圓明寺歸頗得文靜老人心法見來耽味禪悅恐未能宏法利生因謂之曰佛法廣大如太虛洪納若巨海須博識多聞徹濬法源豈枯坐能了昔有比丘自過去迦葉佛時入定至梁普通時出定尚未了證况子也耶始留心宗教福嚴自成演教外別傳之旨一日誘之論義奉衣鉢示曰此是大庾嶺頭提不起的來曰既提不起如何在汝手中成曰若不在我手中又烏知提不起來於言下大悟自是機鋒神捷如迅雷掣電不可觸犯然韜晦不炫前後掩關羅漢寺六載室置一龕依之行道欲睡以首觸柱因失明而慧光灼灼不疲津梁衡陽紫雲衡山萬壽並立禪關延來主講多所策發距紫雲三十里有歧山壁立萬仞俯瞰湘衡上有仁瑞寺為清初懶放禪師開闢放固明末進士不屈為僧與定南王孔有德有舊王高其節檄於此建招提終其隱寺田千餘畝土豪覬覦之咸豐間粵寇起託充軍饟遂占其業寺以頽廢紫雲定禪師傷之葺茆守其基有默庵法師闡化經此喜其幽夤人迹罕至迎來居之學者裹糧相從不一年清風遠灑雲奔水赴乃伐木開林依巖結宇鑿石而飲耕雲而飯來說法其中靈山一會儼然未散惟法幢復樹波旬震懾流言四散來屹立不動一以慈心向之山故多虎樵牧寡近自是遠伏鄉人相率入山伐木聲丁丁不絕院僧憂之約眾互巡一日獲斧樹者數人將要山鄰諭之來悉縱歸僧眾皆曰村野非慈心能化不禁寧保異日之不至乎已復有數十人大肆樵採縛巡山僧於樹負薪以行突一虎咆哮而出響應山谷眾驚仆若死乃不敢復至鄉人語曰歧山寺虎巡山歧山僧常閉關山富蘭蕙有僧采之來見呵曰汝為釋子不以戒定薰心而以草木供玩好從我何為轉眼異世能無懼乎聞者泣下嘗剝棗紅顆滿地百餘人無私啖一枚者其嚴肅如此一日沙彌以大蛇搏樹上雛鳥眾隨來往觀揮以長竿蛇怒目而視來急止其竿叱曰汝由嗔受惡形猶不知悔而以強凌弱抑知更有強於汝能弱汝者乎蛇即下來為說法蛇引頸似聽法狀久之乃去眾驚問故來曰吾聞至人無心入禽鳥不亂其群近虎狼能馴其威吾無他彼時不見有蛇不見有鳥亦不見吾不見之處湘陰易太史堂俊贈之詩云聽講蛇無毒巡山虎有威蓋紀實也時法侶雲從日食千指而資生艱

難或饑鬻不繼乃分衛乞食僕僕風雪中常顛蹶足破血流猶裹扶前導自忘其疲卒能隨機誘勸皆獲法喜所至香花盈路眾賴以瞻同治甲戌穆宗哀詔至衡來哭之痛或問之曰世外人非有君臣之誼何傷感如是來曰洪逆倡亂十餘年生民塗炭自大行皇帝登極化紅巾為赤子吾輩得優游林下一旦天崩地坼山川草木莫不兩血况有情者乎是時已有順寂意以殿宇未成為念厥後嘗徧求繼者且告眾曰三眾火宅早求出離勿使此生空無所得吾不惜他日死於道路但恨般若智燈無人續焰吾身如秋葉枯藤不久住也眾大驚曰師豈不垂憐眾生而獨得解脫耶來曰吾視菩提涅槃如夢幻豈厭生死諸佛聖人為調伏眾生示現滅度法皆如是吾當乘願再來汝且無留戀光緒元年正月乃謂首座鐙曰暫以大法累師吾有前因在朗州當往了之眾堅留不可臨行遍禮佛像若永訣者八月由長沙抵朗禮者盈門頃之病痢醫來不嘗藥曰眾生病吾亦病眾生無病吾無病語畢吉祥而逝時元年乙亥九月十六日也壽六十有三臘二十有七寂後七日入龕顏色不變異香滿室有一初受優婆夷戒者疑曰既得道胡病死偶步庭際見來現金色身於空中俄頃而隱乃大慟詣龕前懺禮朗人神之欲留龕眾以遺命當歸不許乃奉龕歸衡陽經過寺院前一夕皆夢來至還山之日林壑昏昧猿鳥悲鳴弟子得心法者二十餘人得度皈戒者又數十人合詞同念為起塔於岐山懶放塔下葬後十有七年釋敬安述其狀云

- 明律篇第四之一(正傳十人 附見九人)
 - 宋餘杭昭慶寺沙門釋允堪傳
 - 錢塘靈芝寺沙門釋元照傳
 - 台州赤城寺沙門釋有巖傳(妙生)
 - 遼劍州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非覺傳(等偉)
 - 金燕京左街淨垢寺沙門釋法律傳
 - 南宋四明湖心寺沙門釋元肇傳(道言 思敏)
 - 新城碧沼寺沙門釋宗利傳
 - 桃源厲氏庵沙門釋晞顏傳(惟月)
 - 錢塘七寶院沙門釋用欽傳(行詵 慧亨)
 - 元餘姚極樂寺沙門釋戒度傳(旨公 智印)

宋餘杭昭慶寺沙門釋允堪傳

釋允堪錢塘人也未詳其姓氏年九歲客指小桂令賦詠曰始生巖谷畔早有月中香客奇之從天台崇教慧公祝髮學無不通專精律部續南山宗仁宗慶曆二年建戒臺於杭之昭慶寺自茲以後復依律建壇蘇之開元秀之精嚴竝宏法會傳戒度僧晚歲退居西湖菩提寺撰會正記以釋南山律鈔辯論精詳更著十二部經解法門贊序諸文弟子元照祖述師法纂著益鱗照別有傳堪邃學窮理老而彌篤啟迪後秀津津不倦以宋嘉祐六年十一月二十六日寂於昭慶建壇於菩提仁宗時賜號曰真悟大師徽宗崇寧元年更諡智圓大師釋元復贊曰三無漏學以戒為先至人一生宗其誰傳援筆作記宏範人天寥寥千古寶月空懸

宋錢塘靈芝寺沙門釋元照傳

釋元照字湛然餘杭唐氏子也少依祥符東藏慧鑑年十八通法華試經得度專學毘尼及見神悟謙師講天台教觀博究群宗以律為本迺從廣慈授菩薩戒慧定珠圓威儀中度綱領條貫罔不兼備後嗣法允堪南山一宗蔚然大振常披伽黎杖錫持盂乞食於市苦行清修遐邇感應重造明州五臺戒壇壇成有一老人神氣超邁眉須皓白進而啟曰願獻三珠用賀新壇叩其姓氏笑而不答飄然竟去因置珠壇心屢有光異其後壇主嘗會十師開大法戒夜分有一僧登壇忽覩圓光外徹中見善財童子僧乃驚[言*乎]眾起視之悉皆環禮自是益昭虔懇而珠光所見神異非一世所罕聞元豐

間繼真悟主昭慶晚居靈芝三十年攝齋講授眾逾五百每言生宏律範死歸安養平生所得惟此法門有義天遠來求法為授菩薩戒登壇六十餘會度者幾及萬人所至伽藍必為結界政和六年丙申九月一日集眾諷行願品趺坐而化葬寺之西北諡大智律師塏曰戒光著有資持記以釋南山行事鈔濟緣記以釋羯磨疏行宗記以釋戒疏住法記以釋遺教疏報恩記以釋孟蘭盆疏觀無量壽佛經彌陀經諸義疏及定尼戒本凡百餘卷嘗謂其徒曰欲化當世無如講說若垂來茲必資著述故口誦手書孜孜不輟累歲積學老而忘疲其精詣所至福應斯閎珠光祥善有自來矣照有題白雲庵詩曰道人倦逢迎結庵就巖穴靜愛山頭雲空濛如積雪隨風亦卷舒觸石更明滅卻憶古人詩祇可自怡悅照嘗持鉢乞食無為居士楊傑頌之曰持鉢出持鉢歸佛言常在四威儀初時入廛人不識虛空自有鬼神知又釋元復贊云毘尼秘藏終南著稱中微誰振大智崛興儀合萬行論集諸乘芝園西邁天樂來迎

宋台州赤城寺沙門釋有嚴傳(妙生)

釋有嚴字檀菴姓胡氏臨海人六歲依靈鷲從師年十四進具往東山學於神照契一心三觀之旨修法華三昧尋主赤城寺紹聖中隱故山東峯廬於檀木之旁因以為號有嚴嚴護戒律一鉢之外不蓄分寸所修三昧每見瑞應專事淨業其所論述多激勸往生建中靖國元年孟夏一日入定若天神降空中曰師戒珠圓淨業成矣又夢池中大蓮華天樂圍繞乃作自餞詩示眾後七日跏趺而化妙生者會稽人習律學勤修淨土之業與大通善本居杭之象塢共明此道一夕會門人誦彌陀經就榻端坐焚香合掌嗒然而寂

遼薊州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非覺傳(等偉)

釋非覺姓劉氏良鄉人律行高卓早有大名會車駕幸燕重其道德詔入大內說法特賜紫衣授右街僧錄判官並錫號曰儀範大師年七十二示化大昊天寺歸葬甘泉僧臘四十有七太康三年癸亥七月十七日弟子等偉為立塔等偉者姓李氏析津人太康元年從覺剃落居慧濟寺未幾受戒肄習經律學者交推大安中主福田寺及薊之香林蘭若壽昌三年宣毘尼諸部於慧濟寺京師義學群以律主許之明年三學寺奉命慎擇主者偉以勤謹應選尋授善濟大德偉力整頽弊居多弘益三載儉持供費之外有錢五千餘貫乾統初以課最聞朝旨嘉之賜紫加號慈辯三年宣充三學殿主易號嚴慧乾統七年夏四月旬又七日示寂後二日荼毘舌根不燼如青蓮色其徒敬諡以甍灰分葬歸骨於盤山甘泉附於先塋年五十七臘三十南抃為之記並繫以銘亦具山志

金燕京左街淨垢寺沙門釋法律傳

釋法律姓張氏安固人幼出家於甘泉普濟寺禮均上人為師年十七試經得度時天慶七年也專志聽習以律為宗天眷三年主燕京左街淨垢寺遂授善慶大德牒皇統二年奉宣開建普度壇度僧尼十萬餘人八年又奉宣越本宗上試十顯所答無不中理選定充平州三學律主改授精正大德牒官講滿特賜紫嚴肅大師牒本寺大眾共議署狀請為提點供濟僧眾不避寒暑六時行道未嘗或闕孜孜十載令聞四溢請住寺者五中都駐蹕福田福勝香河勝福當山香水大定二年復充都下煥湯院提點設濟饑民以大定六年六月十五日告寂壽六十八臘五十二荼毘送者千餘人烈燄之際有五色雲圍繞於上齒舌不壞塔於寺西門人宗律比丘善隆敘其始末乞沙成之為之銘曰性資上智宗律為風清高厲行紫牒庇躬傳戒十萬僧尼溥蒙宣顯奉試理無不通化辦濟眾久而愈恭熾之祥見齒舌弗鎔勒銘幽石聊記芳蹤時大定七年三月也

南宋四明湖心寺沙門釋元肇傳(道言 思敏)

釋元肇姓陸氏明州人蚤歲習律閱大藏誦蓮經萬過刺血書蓮經一部寫律宗諸疏三部操行謹嚴精進無懈建炎四年金兵破明州肇時住湖心寺金虜強之北行行至南徐謂左右曰吾將西歸矣即聞笙歌聲西望念佛而化道言會稽人靈芝元照弟子也照詳律儀著述頗富言從之究心毘尼盡獲所學晚修淨業臨滅前數日見二神長丈餘謂言何不繫念於是大集道俗稱佛名三晝夜忽升座說法為眾懺悔至曉即座而化又思敏者亦依靈芝照增受戒法既嚴操行兼志淨修如是者二十年偶疾約眾諷觀經十餘日見佛光滿室臨終唱佛聲出眾表酷暑留龕七日異香郁然

南宋新城碧沼寺沙門釋宗利傳

釋宗利會稽高氏子方在齠歲受業於天華既具戒游姑蘇就神悟學經論即入普賢懺室要期三載感亡母示兆得生善處又見普賢從空而過益矢精誠朝夕罔懈已而復往靈芝謁大智律師增受戒法既闡律學更究淨修照言生平所得唯此二法門者利依而行之皆有所獲嘗於定中神遊西方見寶池蓮華祇林境界因而自喜愈堅所志尋詣新城碧沼寺專修念佛三昧閱十年復遊天台雁蕩天封皆建淨土道場晚歸天華造無量壽佛閣建炎末入味道山題所居曰一相庵紹興十四年正月謂弟子曰我見白蓮華徧滿空中越三日復曰佛來矣即書偈曰吾年九十頭雪白世上應無百歲客一相道人歸去來金臺坐斷乾坤窄端坐而寂是日近山人見異僧滿山不知所自云

南宋桃原厲氏庵沙門釋晞顏傳(惟月)

釋晞顏字聖徒奉化人幼齡出家試經得度從久法受觀法文藻高妙後進愛慕晚歲自省餘習未淨乃住桃源厲氏專心念佛十餘年謂人曰淨土之道豈有一法可得但於修中不見一法則寂光上品無證而證題所居小軒曰憶佛平生於戒律尤兢兢自持嘗步菜畦見諸蟲甚微嚙蝕痕跡隱隱可辨恐擇之不精懼傷物命逐不茹蔬但啖海苔以供朝夕寂時預別道俗沐浴焚香西向作觀忽稱佛來合掌而化惟月者不詳所出居諸暨化城明律學修淨業一日有異僧來迎後二日微疾急[言*乎]同侶道寧曰吾見彌陀佛高八丈駐空中可以行矣言訖而化

南宋錢塘七寶院沙門釋用欽傳(行誥 慧亨)

釋用欽不詳所出初依大智學律操持獨謹聞智示眾曰生弘毘尼死歸安養出家學道能事斯畢始標心淨土一志不退後居錢塘七寶院日課佛三萬聲嘗遊神淨域見種種異相謂侍者曰吾明日西行即集眾唱佛黎明跏趺坐而化行誥亦學律於大智者也初受具時誦四分戒本三日而通徹後依智講求儀範住明慶寺且二十年偶寢疾設西方佛像向之念叩而暝慧亨字清照亦依靈芝習律已而住杭州延壽寺專修淨業垂六十年建寶閣繪神像最稱殊特有江居士自任者欽亨戒範信仰尤至夢寶座從空而下一人曰亨律師當升此座未幾孫居士預啟別亨如期而化亨往炷香問訊歸而謂其徒曰孫君已去吾亦行矣說偈坐脫

元餘姚極樂寺沙門釋戒度傳(旨公 智印)

釋戒度者不詳所出初脫白時投棲心寺學四分律操持謹嚴兢兢罔懈晚居餘姚極樂寺一意西歸嘗和陶淵明歸去來辭以見志病中作書別士大夫命眾誦觀經至法身觀厲聲號佛凝然坐暝旨公者字別宗餘杭人戒德甚嚴嘗創觀室於龍山之陽修念佛三昧雖經離亂曾不少廢臨終無疾沐浴端坐而寂智印者居雪川祇園初學毘尼止作兼持語言無妄常修淨觀罔間晨昏病中集眾諷彌陀經合掌端坐一卷方終奄然而化

- 明律篇第四之二(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明華亭興聖寺沙門釋原真傳(紹宗)
 - 杭州昭慶寺沙門釋樸原傳(廣霽 成玉)
 - 燕都普慶寺沙門釋法聞傳
 - 燕都西山戒臺寺沙門釋道孚傳
 - 金陵天隆寺沙門釋如馨傳
 - 五臺山清涼寺沙門釋承芳傳
 - 金陵極樂寺沙門釋性相傳
 - 燕都古愍忠寺沙門釋永海傳
 - 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寂光傳
 - 太原永明寺沙門釋遠清傳
 - 姑蘇報國寺沙門釋性祇傳
 - 廣陵福田律院沙門釋性福傳
 - 潭州三角山沙門釋如幻傳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真利傳(明鑑)

明華亭興聖寺沙門釋原真傳(紹宗)

釋原真字用藏姓朱氏上海人也得度於華亭興聖寺戒行高潔明洪武十八年微疾浴已書偈曰四十二年無作無修有生有滅大海一漚真歸無歸心空淨遊趺坐而寂紹宗字一原號遂初姓陳氏亦上海人也年十三依里中安國寺受具戒行精嚴明洪武中應召有事廬山奏對稱旨賜金縷僧伽黎擢右講經遷右善世後端坐而化敕遣中使致祭會者數千人其徒奉舍利遺骨塔於安國舊院

明杭州昭慶寺沙門釋樸原傳(廣霽 成玉)

釋樸原字智涓菩提節庵守弟子也正統間請主昭慶奉詔開壇說法為天下傳戒宗師後主靈芝己亥辭於朝眾沐浴而逝時正統十一年丙寅秋七月也英宗遣禮部郎中趙勗賜祭其文曰爾宿悟善緣堅持梵行邇膺寵命為釋宗師方闡法音導人為善倏云示寂良可悼嗟靈其如存服此諭祭越百年有廣霽者字日庵嘉靖三十四年興復昭慶奉部割開壇說戒僧眾如歸不減慶歷之盛後二十餘年有成玉者字藍田掩關數載眾稱關主萬曆

丙子丁亥之間皇太后疊賜畫像於昭慶且賜經建閣因得放戒十六年登壇開闡一時龍象若雲棲淨妙真修蓮池諸大德均於是得戒

明燕都普慶寺沙門釋法聞傳

釋法聞姓嚴氏陝西人號曰實相圓明光教律師初西安王奉藩秦隴逃聽高風延至西安城南義善寺於是邠岐涇渭緇侶雲集自春徂冬講筵不絕負笈從學者蓋千數焉玄德上聞徵詣闕廷詔居太原教寺賜遼世金書戒本求戒者皆從之若歸一時王公大臣莫不瞻仰丰裁思接光采比之景星鳳皇見瑞明時傾慕之沈於斯可觀

明燕都西山戒臺寺沙門釋道孚傳

釋道孚字知幻姓蔣氏江浦人也初依金陵靈谷寺雅慕清絜不和情俗年三十薙染受具發願參方展程之日即自誓曰此行不踏曹溪路不敢回頭見故鄉卒踐其言明正統間孚方北遊睿宗崇尚內典尤重清修聞聲嘉賞有詔賜紫敕建戒臺每歲四月一日至十日閱敷壇席深契帝心又以僧眾既多隆污莫辨勅建淨染二門於此山中以驗涇渭其篤信者則受淨戒不篤信者則觸染法但眾生愚昧多著染法因奏毀之一歸淨流孚儀表雄特頂題隆起帝見奇之稱為鳳頭祖師孚應聲曰亦鵝頭耳敢附鳳耶帝歎其謙德彌近藹光嘗召入大內詳詢佛法試以凡情不動聲色由是欽崇戒德益加敬仰賜號萬壽祖師春秋八十有五法臘五十有五寂後建塋茲山雲封猶在

明金陵天隆寺沙門釋如馨傳

釋如馨字古心姓楊氏漂水人也年少家居篤信釋氏及近不惑乃厭塵俗初投攝山棲霞寺禮素菴法師從事薙染遂受沙彌戒復欲近圓本師示以須得清淨十僧方能得戒由是叩諸宗匠輒究戒緣因讀華嚴識菩薩住處忻然有得謂文殊所在常住清涼抗心希蹤步禮五臺當見文殊為我授戒因辭法侶躬親跋沙三遭寒暑方眺寶峰漸至靈境夙夜虔勤懇求切至一日景值餘暉客途闐寂恍惚之間見一老嫗形枯髮白捧敝伽黎出自林中適前問曰汝來何求曰求見文殊媪曰此衣亾兒所遺爾來求戒便應爾贈言訖竟去衣遂著身頃復呼曰比丘比丘文殊在茲馨方驚愕已失所在如寢初覺頓悟五篇三聚心地法門視大小乘律如胸中自在流注歡幸之忱無可為喻爾後南旋中興法戒專持梵律皎若冰霜明萬曆間金陵幽棲寺洪恩雪琅敕修長干塔諸務嚴備唯頂屢舉舉不能正深用為憂蜀僧巨川求匠架木倍工益力終未能成唯日夜翹企冀佛慈應一夕寢感神諭云優

波離尊者至始克如願翼日馨露頂跣足杖錫持鉢偏袒而入洪恩一見乃悟夙因召眾摠迎傾誠請助馨纔舉喝翔然升去塔頂便合乃以寢警向眾宣明群情忻躍大加敬禮咸指馨為優波離再世由是法會雲興遂開戒於棲霞甘露靈隱天寧諸刹自元季以來律學荒蕪馨嘗慨然謂佛法住世功在毘尼訪求梵網徧參律法至是坐道場三十餘所徒眾累萬聲聞於天明神宗嘉茲譽問延至五臺賜紫衣錫杖為開皇壇說戒敷座之日五色瑞雲結蓋盤空亭午方散帝心悅豫題額萬壽戒壇賜號慧雲律師緇素歸依稟戒躋壇者不可勝計三壇既畢復錫千佛珠衣拜表辭謝而聖眷隆渥宏獎未已以萬曆四十三年乙卯十一月十四日示寂壽七十有五臘二十又七染道三十有四瘞於天隆玉環山帝聞遷化思慕清輝乃詔燕都愍忠寺圖其遺像供於大內濡染宸翰為題贊曰瞻其貌知其人入三昧絕六塵昔波離今古心其見欽崇如此馨風規簡夷神觀凝肅坐室中如在定者雖左右近侍不敢妄啟至訓誨提獎機用妙密迥超情臆故白四授具三聚妙圓皆弘於斯世稱中興律祖云

明五臺山清涼寺沙門釋承芳傳

釋承芳者與古心比肩法門不相先後及在昭慶聞古心弘戒靈隱芳以弟子禮謁之求戒先夕古心感異兆若有神人告之文殊化身南來受戒古心意不謂芳當之也三壇既畢芳以疾未至古心忽憶前夢來昭慶問疾即於榻上說沙彌十戒為摩頂已戒得威力身不由己勇猛精進扶疾而起盥漱更衣下榻求具更為集僧具儀傳授菩薩大戒疾亦隨愈尋還五臺慈聖太后又夢感神言文殊菩薩肉身還山物色及芳遂詔主五臺傳戒芳辭曰纔登戒品行持未全有本師在不敢妄承乃移命古心期以三年古心告退付屬於芳使繼法席

明金陵極樂寺沙門釋性相傳

釋性相字蓮宗姓高氏江寧人也父貧樵薪自給無以為家嘗採荻江渚昏夜莫依棲蘆林中席地獨臥蟲蚋交集不以為苦蓋形同土木亾懷自適雖未染道跡已別具忍力矣稍長遂厭樊籠就攝山棲霞寺禮素庵法師薙染為僧復稟具足於慧雲律師雖同參法侶共出一門而聞道早晚更相尊師有可為無實亦若虛下問不恥況在高明由是以律嚴己以謙下人處卑彌光聲聞自遠慧雲遷化相乃焚修塲院禮誦華嚴寒暑不輟四眾推許請宏法牒臨壇演戒疊疊忘疲晚主金陵極樂寺示寂寢寮世壽僧臘均未詳建塔玉環山右與慧雲相次本相志也

明燕都古愍忠寺沙門釋永海傳

釋永海字大會丹徒人也生有異稟不慕世榮壯志益邈雅超塵想因於郡平等寺落髮披緇時慧雲精求毘尼躡屣清涼契念文殊中興律法海竊慕之遂從受具既納戒已專務律學唯崇本相德範深淳道俗欽仰迺接芳躅步禮五臺誓心見佛誠意默通終契靈秘明萬曆初海自五臺赴京慈聖太后素崇佛法夜寢神人告曰鳥巢禪師從五臺山來也明旦遣內監訪之果得海如神所詔因請卓錫愍忠寺帝聞賜紫充講經大德先是僧相瑢於正統間重修斯寺已奉勅改額崇福至是欲復愍忠舊稱別行法派然相瑢再傳弟子明玉方修葺院宇延接名流碩德耆年眾望所歸海既欽其道範深相契合而玉之仰海高風如景星慶雲傾慕無已况以宮闈之符兆帝廷之寵錫乎於是兩派分傳萃之一寺然崇福自玉後不再振海則闡化既久綿演尤眾卒復舊號遂為古愍忠一代祖云世壽僧臘均不得詳唯茶毘靈塔年號猶存蓋示寂於崇禎初元而萬曆至崇禎已五十餘載其春秋亦高矣所著五百問戒經釋盛行於世

明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寂光傳

釋寂光字三昧姓錢氏廣陵人也母感異夢而生年二十一禮淨源始出塵俗初從雪浪習賢首教觀既徹宗乘徧參名宿紫柏雲棲皆相器重具戒於慧雲益精毘尼及邀帝眷弘戒五臺遂升副座助其教授蓋其行解軼倫詞旨玄邕律學中興光有力焉尋以道貴潛修功深有密乃閉關於小天台面壁治心妙觀有得調理窮虛悟學歸實踐因發腳歷衡嶽登廬阜江州眾信延住東林池中白蓮不種自生符遠公再來之讖又於塔龕中得晉太尉陶侃所奉文殊金像愍山目驗為之作記刻石復徇眾請移錫衡山雉潭相傳潭下有龍時見怪形光為說戒竟自馴伏晉藩聞之遣使迎迓戾止清涼為建龍華大會宏敷戒席藩妃齋肅供紫伽黎回駐維揚興石塔寺掘地得舍利小金塔及斷碣有坡公石塔得三昧之語名號符合驚為夙記嘗演戒於金陵大報恩寺浮屠放光者二十餘夜都人請興寶華寺山舊為寶師道場妙峰立銅殿於山巔光至開千華大社學侶雲集院宇重新崇禎壬午荆王請興為仰道場癸未奉詔主修報恩宏光改元金陵設壇讖薦特賜紫衣白金勅文武百官迎謁於寺稱國師焉以乙酉六月四日寂於山寺先三日命侍者進曆指示化期曰吾為大明律師說法利生垂四十年吾願畢矣當與眾別屆期命具湯浴更衣跏趺誠眾號佛端坐而逝光道相清粹丰骨凜然慈藹接物孜孜不倦慨世末道污輕蔑毘尼乃服膺師傳專宏律法足跡徧海內臨壇演戒百有餘所最後魯王請宏戒於越之大能仁寺又主嘉興三塔寺壇路王請登昭慶古佛戒壇尤為勤瘁修建梵宇凡十數處所至感應皆不可思議出於意念之表壽六十有六坐夏四十有一立塔華山千華社龍山額曰光明金剛諡淨智律師所著梵網直解四卷及十六觀經懺法清乾隆時釋福聚奏請以梵網直解編入大藏從之

明太原永明寺沙門釋遠清傳

釋遠清字澄芳新安人也夙具畸姿雅懷高素既謝塵俗徧遊名勝初習賢首精通教觀負簋南來至止越邦時慧雲律師方說戒於武林靈隱夜寢有人語云明日有文殊化身來乞戒可方便為彼授之翌旦清率眾趨壇執弟子禮慧雲驚異問所從來云自北五臺向雖宏法尚未近圓久慕道風今欲歸依慧欣然應許興辭而退及法期已屆大眾登壇清獨未至慧復憶前寢方便攝授因遣人探詢清果有恙不可以風慧雲感彼神語不吝慈悲統眾就之一時三壇方便授受清既得戒懷寶而歸徑造五臺精研律部善達意旨開遮無礙尤善屬文嘗謂古有戒壇自明以來歲久封錮欲興此舉非叩帝闈其道末由乃具文疏略述梗槩因內宦奏之時神宗御極雅重佛法覽疏大悅遂奉旨南下詔慧雲赴五臺振茲法雷弘爾象教並敕兩街及內使御馬監張然齋衣益錫杖賜之說戒三年勅建聖光永明寺更賜紫衣金帛恩榮重渥莫與比數迺值寇盜戎馬騷動慧雲講演一期竟爾南歸命清繼席遂終三載無違聖諭法戒大興果符神兆世壽僧臘均無可攷唯靈塔一區長峙五臺

明姑蘇報國寺沙門釋性祇傳

釋性祇字茂林姓沈氏長興人也方生之夕母寢異僧託宿驚而臨蓐呱呱在抱骨相不凡甫能言效誦佛號琅琅可辨性好清絜不茹腥羶常欲出家父母愛而不許未幾二親相繼謝世祇年才十七聞里中有彌陀古院慨然自決徑往投之薙髮披緇及踰弱冠抗志苦行遠參耆宿初從雲棲首入淨土次依天台聞谷老人更習禪觀明萬曆時慧雲法師建壇於金陵靈谷祇杖錫歸之既受圓具攻討律文徧探群書由是清標三聚[諒-小+日]誨五篇遂開化四眾於吳越之間學者聞風趨向負笈景從祇量識淺深循循啟導故宏律三十餘載稟戒歸依者不可稱數吳中士夫欽其戒德每請利濟幽孤其甘露瓶中水嘗自溢人以為功德之應祇深自韜晦若弗敢承其真實無妄如此法緣既終西邁方始壽六十有八臘四十有八建塔吳門西園所著四分摭略及五百問解學者珍之

明廣陵福田律院沙門釋性福傳

釋性福字東滄姓趙氏通江人也生有奇稟默感通神初從二峩山法空長老剃染自訪知識南尋煙水遂受具足於金陵慧雲既得戒體益精律行常持穢跡金剛經神咒日夜不輟先是福謁南海躡跡普陀棲止圓通殿三載一日散步林間見白鴉銜片紙墮地拾而視之乃斯經也因翻藏攷覈一心受持日誦萬回以為恒課至是虔禮如故一夕慧雲靜夜起行見殿宇微光

閃爍近前視之唯聞咒聲迺叩所從福具以告慧雲嗟歎久之乃曰汝自後可號金剛大德福每於壇內持咒時則金剛杵飛舞空中盃盂中水無火自沸金剛輪亦自旋轉不已及持咒畢其杵方墜盃水自平輪轉亦止嘗咒盃中水和泥為丸可療疾病有求之者莫不效應其靈感如是一日有人為畫金剛杵畫竟其人遂失所在相傳為神由是名動江左道俗驚歎明萬曆時傳戒於荆楚淮揚諸郡緇素受化者不可勝計舊住蜀江長龍山曇華寺繼徙廣陵福田律院金剛輪杵具供院中壽六十有九臘四十有一造塔寺旁覆全體焉明社既屋清兵南下進軍江寧道出廣陵昏夜塔中有光見者疑為寶藏啟而視之端坐如生乃移供院內塔右過者莫不駭異膜拜而去

明潭州三角山沙門釋如幻傳

釋如幻字勉庵姓林氏蒲田人也父環家世儒術望崇鄉里幻生而倜儻負奇氣幼習帖括善屬文詞年十四即列諸生有聲庠序里有夏生治時者通內典幻與遊從最善一日謂幻曰君脣掀齒露非壽者相幻驚問何為而可生曰聞之誦觀音大士禱無不應持其號久自當驗幻遂依持勤懇三載而容貌改觀威儀簡重未幾倭夷寇閩父母俱喪於兵幻大泣曰人命固如是乎何戀戀鄉井為遂拂衣遨遊江湖間二載入廬山參徧融融問曰大德何處人來欲何為幻曰小子閩人為求長生融曰有長必有短何不學無生曰何為無生曰汝試剃除鬚髮屏息諸緣咬嚼一句無義味話久久自得下落乃可為爾道無生幻即染剃因名如幻相與依棲時年已逾冠矣頃之乃之蘄水馬牙山參無為藏主居三載退而隱處斗方山中五易寒暑遂荷策北遊上都依暹理兩宿聽諸經奧義皆深器之已而有田將軍者蘄人也見其雅量因漫之以世諦幻笑謝曰海龍可入溝渠遂拽杖歸九峰衲子駢集每以楞嚴為眾發明心要翰林郭公正域以居母憂謁幻於九峰甚相得因進而請曰竊見當世譚禪者動以棒喝機鋒為向上自多及察其操存則猶有未盡者又不若守教乘精戒律離欲苦行以慈利物之為得耳幻曰然非禪之過乃學禪之過也奈何去聖愈遠法門日衰誠若公言可為流涕幻律身清苦生平無嗜好人有所施輒以施人每有所往唯一鉢三衣楚藩沈君與幻交最密弟子欲置香火地以券白沈公幻聞乃大斥之曰方寸福田不力耨區區安向沈官人乞請耶乃拽杖去九峰走武曲憇吉陽寺閉關誦華嚴經三載往潭州三角山為馬祖門人總印所闢不數年煥然一新法席大振一日謂眾曰趙州八十尚行腳我豈乏草屨一具邪遂拂袖之匡廬入黃龍寺留講楞嚴至二卷終幻謂眾曰姑舍是無論且有末後與大眾商量即示恙六日告終眾請留偈幻曰辭世本無偈痴人覓夢蹤虛空無面目問虛空弟子又問靈骨可更之蘄乎幻曰愛重娑婆苦無情極樂天何須懷舊影寂照滿三千言訖遂逝壽五十有九臘三十門人火浴以骨瘞於黃龍山釋德清為之銘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真利傳(明鑑)

釋真利字和雅姓石氏昆明人幼棄錦襦改從僧服始侍徹明漸通經論及長有志參方遂底金陵得戒於古心研窮儀範便識津梁復受教於三槐蘊璞諸師神智煥發辯如泉湧所至名山屢主講席聿開法會得律徒數千人楚岷王奉以為師及還滇駐錫雞足更創律堂滇之法戒弘於真利壽八十餘無疾坐化有陶公寄懷詩云吳楚煙波幾萬重金鱗掉尾許誰同歸來罷釣雞山窟高唱漁歌捲碧筒又明鑑無臺大理李氏子年十八禮聖峯寺白齋出家後隱波羅崖草衣木食戒行冰清七日忘餐亦無饑色復事游參究明宗旨李中溪贈詩云貝葉翻三藏曇花作一鐙又云袖雲一旦別羅月幾時圓萬歷十五年九月九日沐浴端坐誦準提咒而逝荼毘之日室有異香

- 明律篇第四之三(正傳十五人 附見一人)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性璞傳(隱微理)
 - 燕京廣濟寺沙門釋海祿傳
 - 廣陵五臺律院沙門釋書禎傳
 - 江甯寶華山隆昌寺沙門釋讀體傳
 - 晉陵天寧寺沙門釋戒潤傳
 - 江寧寶華山隆昌寺沙門釋德基傳
 - 宿遷極樂庵沙門釋性澄傳
 - 杭州昭慶寺沙門釋書玉傳
 - 姑蘇師林寺沙門釋書秀傳
 - 淮安聞思寺沙門釋真賢傳
 - 姑蘇真諦寺沙門釋書淨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照福傳
 - 金陵寶華山慧居寺沙門釋真義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超越傳
 - 金陵慈應院沙門釋通明傳

清江寧古林寺沙門釋性璞傳(隱微理)

釋性璞字印含姓王氏吳人也與隱微理為同母兄弟友愛天成志趣不歧兄性好佛遇有道場嘗切觀摩璞必相隨及肩恐後由是研心經咒參訪名宿互為探討動則與偕居恒相謂曰安得名師而歸依之明萬曆四十三年乙卯古馨至蘇應香餘說戒之請夜夢二蠹率小蠹無數飛投於懷詰旦見璞兄弟懷香求具適符其兆古祖感念因留意焉遂同至古林終日與兄暝息對坐各有會心理依古祖智慧聿啟德性堅定命代說般若頗開覺悟因以紫衣法物著述諸書付之及理示疾以席遜璞辭之再四理曰祁奚舉午不避親趙祖讓弟不私子我觀四眾誰可與言且既出世志在弘法更無他望又何所嫌汝其勿辭崇禎十年召見賜紫清室初興入主中夏定鼎燕京世祖萬機之暇尋味釋典雅慕高僧企璞道望詔入京師參訪要妙時契帝心賜紫還山際遇兩朝恩禮有加人或榮之璞獨傷焉以清順治三年十一月十二日示寂壽七十有八臘四十有四塔於天隆玉環山後當古祖香餘說法之時年已垂暮而璞年最少嘗語人曰孔門學者聰明才辯不為不多而一貫之傳乃在後進曾子吾道其在璞乎後接席十年恪守祖訓大弘律學四方景仰卒如其言

清燕京廣濟寺沙門釋海祿傳

釋海祿字萬中大興人也髫年祝髮興隆庵順治五年玉光律師宏戒廣濟祿與同侶相誡曰我輩新徒戒力未堅當先登律堂深求造詣坐作進退悉合規矩非可微涉經訓徒資譚論也况近來沙門佻撻日甚不守毗尼何稱佛子時玉光總持律部操德精嚴見祿衣敝履穿坐無越席行無越思經歲不聞笑語步行綏綏塵不為動有誼於側者則凝坐寂然視若無覩因其純篤拔為教授闡心誘道孳孳不倦有好學者則與之究解貫徹終始忻然說懌偶有桀黠薰其德馨潛化默運不覺自新日遷於善玉光益敬愛之每有問答未嘗妄下一語出見大眾澹然寡言而胸中空洞不著一物人我俱亾清順治八年玉光既滅恒明老人乃迎之升座攝爾舊衲行止如故主席六載說戒磴磴眾有不和但責執事由是兩序翕然不嚴而畏嘗作持戒簡要頌明白易曉以訓後學幽燕弟子多遵守之薰修之餘徧檢三藏因著正法經五卷其他撰作多在別集每乘月獨步裴回階間聞誦讀聲輒即其門佇立不去久之乃叩戶啟扉復與研味迎機而道多所造就遊其門者幾二千人其最上弟子則有天孚湛祐以康熙十年寂於廣濟寺寮茶毘歸靈骨於二聖庵塔院駕水何元英為之贊云

清廣陵五臺律院沙門釋書禎傳

釋書禎字靜觀姓王氏祿豐人也父曰之麟母高氏家世儒素少習帖括頗瞻文思忽絕塵想欲求出世法遂從翠峰西林寺心田祝髮晨鐘暮鼓梵唄靈文無寒暑間內典既徹志在參學滇俗士子多之聖水三潮若見金蟾便喜形於色以為科甲之兆靈應不爽禎亦往觀曾不移晷蟾即浮出三足躍躍金色有光因自忖曰吾志禪那今覩此豈非法門有望遂南循黔楚道漢黃豫章而之金陵時明崇禎甲申禎年二十六三昧寂光方開壇於長干報恩寺禎與戒焉長干舊有浮圖聳拔霄漢禎嘗經其下復覩頂上紫燄飛騰光映雲霞心竊異之因問一僧僧曰奇哉希有此世尊舍利最勝頂光也人所罕覩子今覩此得非精誠感格乎即約同戒五百餘人共禮之已而繇白下詣中峯歷抵講肆兼叩禪宗雖一時禪教諸匠許為法器而闡精窮年終以律學為歸及三昧滅度忽焉三周思法乳之恩申掃塔之念飛錫虞山托鉢錢門豈知構異隙於防弁中奇殃於宿對然處之坦如日持普門品大悲咒而羅網渙釋由是異蹟著於一邑聲聞播於三吳說此橫逆依止寶華嚴淨毘尼纂修律部見月弘戒每屆臨壇或任教授或司羯摩左之右之輔翼有年而僧伽黎之付蓋有自矣後卓錫楚州湖心寺求戒者接踵因慨然曰曲成後學實乃紹隆佛種何卻為於是首傳戒於睢寧普濟繼說戒於淮陰準提復弘戒於山陽大悲院無何見月書迎還山淮郡淨土禪林本禎躬為律堂丁巳冬逝主丈席遂弘法化時大中丞帥公佩服高風深心愛護麾下

軍民莫不尊親依若慈母戊午春京口諸山請說戒於避風館後因見月示寂歸山省視蒲坐未暖復有真州薦紳迎主五臺春冬傳戒夏則安居學者從之如水赴壑得戒者千餘復建五楹大殿鳥革翬飛新立三聖法像圓滿莊嚴由是道風丕播遐邇均瞻王公卿相聘自都門太守邑令親為促駕人所羨忻禎反卻之視名利網虛空粉碎矣雖年登古稀而閱闡法海衣被後來終不辭勞著有隨機羯摩疏鈔六卷毘尼甘露擇要十卷律學日雲要本教益軌式歷代律祖略傳各一卷方纂輯羯摩疏鈔將成日夢禮宣祖塔以為積誠感應云

清江甯寶華山隆昌寺沙門釋讀體傳

釋讀體字見月姓許氏楚雄人也舊籍江南句容遠祖某明洪武時從軍開滇黔以功世襲指揮遂家焉父醕昌母吳氏懿言淑行雅慕因果寢梵僧入室寤而生體質稟欽奇幼而神敏好遊覽善繪事所至山水佳處多留墨妙尤工大士像人爭寶之父母早世伯父無子嘉其聰秀欲使襲職為指揮體不屑也而慕赤松子遊嘗至金沙江甸尾山寓浪穹遷赤宕崑矢志修真為黃冠三載一日偶行松下遇茅庵老僧與語甚契授以華嚴經讀至世主妙嚴品翻然有省遂詣寶洪山亮如剃度聞江南有三昧律師宏戒慨然慕之一瓢一笠重繭而行時當明季流賊繁牙烽火相望饑荒徧野土寇肆劫所過崇岡危磴盤江險狀蠻雨瘴煙猿嗥虎嘯之區荒祠古墓深菁蔓草晝則風餐宵則露宿體一意孤行不為物擾先入南嶽演楞嚴四依解繼登破額馮茂上高禮諸祖道場進九華朝五臺再度大江始遇三昧於海潮庵往復二萬餘里行腳六年不知疲也既圓戒充上座講梵網經析義敷文四座稱善體猶欲然不自足乃於藏中檢四分並律藏讀之殫思研討間遇壅滯禱佛求解默坐移時渙然冰釋由是毘尼大暢嘗從三昧傳戒金陵報恩寺座下千人體臨壇教授忽憶初為黃冠時寢至一大寺金碧交輝苾芻雲集門闕甚高躍身而入自顧已成僧相一瞿曇丹衣高座招之使上授經命講眾皆跪聽汗流而覺及是所見髣然前寢距金陵七十里有寶華山為誌公道場年遠頽廢郡人迎三昧主之體筦院務庀材鳩工樓殿寮閣雕飾莊嚴大江南北罕與倫比乙酉三昧示寂即受衣鉢總持三學以十事誓眾人頗難之久而悅服蓋憫時習便安止作真教久成絕響故結界立規率先躬行是制必遵非法必革尋復安居之法門人日進清室初興山寇時發入寺橫強體誘致渠魁十人設食供畢忽厲聲以大義責之且曉示利害大眾圍繞賊相顧歛歔逡巡遁去有譖於大將軍者謂華山通賊緹騎麇集執至軍前劔戟如林眾僧惴惴莫敢仰視體獨整威儀緩步升階合掌而立具陳華山為江南孔道不能禁賊往來並前日留食解散之故三問三答詞氣從容顏色不變巴厥二將軍與陳中丞異之悉解眾僧之縛又欲殺監院孫內監房頭克修三人體爭之曰罪在寺主願伏斧鑕勿累他人將軍益奇之並釋不殺

還其田里給帖護持寺乃復安王子江南荐饑導輸賑粥五十餘日全活無算每振錫出山四方風動遐邇緇素奔禮恐後戒徒千四百人堂食三萬指法席之盛世所希有戊午歲除示微疾己未春正月既望力疾起視誠弟子曰勿進湯藥更七日行矣至期端趺而化壽七十有九臘四十八荼毘得五色舍利所著大乘玄義止持會集作持續釋黑白布薩傳戒正範及僧行軌則諸書其毗尼止持十六卷毗尼作持十五卷清乾隆時釋福聚奏請入藏

清晉陵天寧寺沙門釋戒潤傳

釋戒潤字香雪姓陳氏夷陵人也家世珪璋心慕空門深知情幻妙達真常乃棄俗榮蕪髮披緇近圓於三昧稟具清修遂歷講肆就正名宿精通經律致功淨土尤善文詞揮豪成韻見重時賢輔化千華頗淹年載繼復卓錫毘陵天寧律院四眾禮請臨壇演戒時有祥雲五色覆其法座緇素咸瞻以為奇瑞大清受命頗崇釋典潤遭際景運敷化江南受法弟子不可稱計道緣既終建塔寺院春秋五十有七臘二十餘著有楞嚴貫珠集

清江寧寶華山隆昌寺沙門釋德基傳

釋德基字定庵姓林氏休寧人也父之泰母姜氏誕生之辰瑞雲滿室吉祥止止稍長性見慈善雅信佛旨芳潔自喜不近酒肉讀書穎悟數過不忘嘗聞老衲讀金剛經至如露如電頓發出世之心以親老弟幼不忍遽違力事生理承歡菽水及父沒弟長能委家計乃拜辭慈幃徑下姑蘇訪吳中有道知識得寶林寺竹懷往求鬚度給侍左右將及一期聞金陵華山見月演戒因緣啟白得受具足然陸沈下版未露圭角專志研精諸大律部俱臻玄奧凡十五年得闍黎成拙稱許拔居教授整飭規約上下敬服見月化後即受傳衣履席二載聲譽旁流甲寅秋江南苦旱入冬山下饑民就食山頭為設粥賑之恐糧少不濟率眾渡江由儀真至維揚沿塗託鉢郡邑善信素仰德望樂施不絕山上荒黎卒賴周濟至麥熟始散癸亥冬徇兩浙紳耆所請至武林昭慶說戒一期香花塞路道俗嗟歎善因福果世所希有所著毘尼關要十六卷羯磨會釋十四卷比丘尼律本會義十二卷摭其菁華發抒底蘊誠便後學庚辰季冬朔示微疾集大眾誡之曰凡我出家止為生死不可不真實修行既知修行必當嚴持戒律若不持戒而欲超脫生死如緣木求魚捨舟渡海豈可得哉吾早晚行矣願共勉之至八日沐浴更衣號佛而逝塔於龍山之陽壽六十有七臘四十八坐夏四十四弟子三十八人一時錚錚足嗣法響其毗尼關要十六卷清乾隆二年釋福聚奏請入藏

清宿遷極樂庵沙門釋性澄傳

釋性澄字湛一姓胡氏裳邑人也幼事章句頗厭繇文抗志高邁願從淨息年近弱冠就本邑普照寺了塵落髮挾錫南遊參學淮安受具戒於嵩乳復從正觀法主習賢首教棲止袁浦慈雲庵中澹茹數年刺血書華嚴報恩經嗣參玉林諸耆宿最後登千華覲見月精習戒律忽焉三載止作二持服膺罔懈甲午受宿遷智恒請主極樂院事以法度人歷歲傳牒遠侶雲集道流景附檀施日富鳩工庀材從事修建大淮以北千里之內極樂遂為一大叢林辛丑歲淮陰紳耆敦求宏法澄至重興圓明古寺勝會無遮復徇邳徐兩淮名刹請修大悲懺法每感瑞異深息恬退還山後雖年衰猶精進不輟行般舟三昧不坐不臥三月而息又念四方行腳去極樂北無息肩處乃於峒嶠五花頂建全潮庵山下道旁並設茶座以利來者康熙甲子得腹疾至十一月朔日呼湯沐浴更衣命侍者集眾曰吾今日當與眾別端坐號佛悠然而逝春秋六十九坐夏三十二塔於全潮庵院所著大悲淨土懺法瑜伽燄口作觀節次儀文若干卷先後演戒三十餘壇感應奇異恐涉驚疑不復筆之簡冊云

清杭州昭慶寺沙門釋書玉傳

釋書玉字宜潔姓唐氏武進人也母癯月入懷感之而生幼時嬉戲便陳孟益長習舉業頗通儒術一日聽鄰寺僧誦大乘行願品經質問義趣豁然領解遂發願辭家詣京江嘉山從自謙剃度服勤既久赴金陵華山受具於見月供侍巾瓶兼究律部康熙癸亥與定庵偕赴昭慶臨壇演戒定庵還山玉遂駐錫茲刹昭慶寺者唐道宣之所創立也寺有戒壇宋允堪之所開始也屢遭兵燹遺址猶存明季三昧自華山來倡道新徒四眾景從既而嗣音寞落壇久塵封玉至而法輪重扶躬履誠慤寒必露頂午不加餐每歲春冬兩期弘戒四方緇白聞風翕集主持三十八載戒具者萬餘人庚辰之歲寺燼於火次第建造輪奐更新然自壬辰訖於己亥八年之中不遣一僧募化而鶴俸清分鳳釵蠲助紛紜輻湊曾無匱竭願力所致卒竟斯業殿宇門垣山寮園房塔院神像靡不光輝成功之日廷頒龍藏供諸名勝照耀湖山福祝神庥交驩備致以康熙辛丑十一月十四日示疾說偈坐定而化壽七十七臘五十六著有梵網初津羯磨儀式沙彌述義香乳記二部僧授戒蘭盆合釋懺悔文解發願文解賓主序解諸書門人為之建塔寺院南屏隆樹贊曰儒之所貴明德中庸釋之所重三學為宗世邈人遙孰執厥中乃有人焉玉器雪融萬行圓修三寶兼宏善德光明高逾玄穹垂教千古罔知其終昊天不弔頽厥天峯瞻仰道跡浩淼難窮令我懷想碧水蒼松

清姑蘇獅林寺沙門釋書秀傳

釋書秀字慧宗直隸通州人也幼悟幻泡即厭樊籠因仰空門便依精舍習止教觀若溫舊讀時金陵寶華山見月四分妙解一時宗匠向導後進指破迷津秀摳齋趨承遂隸門下久之知為法器乃授記別銜命主蘇州鳳凰山獅林寺攝衣升座講木又律容止端嚴詞辯清暢瞻仰日眾信受益堅大司寇翁公鐵庵亦歸依受戒請講楞嚴敷衍微言闡揚秘蹟七處徵心一語指掌妙旨新辭使人意領曲鬯旁達足曉未悟既掃支離之習亦無汗漫之譚故聞恡心通如開茅塞見理精審若披雲霧見月嘗題額示之曰徵心律院蓋紀實也曾駐錫於楓江慈泰寺西園戒幢律院崑山放生玉泉諸刹皆不久處還守本山以康熙三十八年己卯九月三日示寂春秋五十有六僧臘三十有五塔於寺右穹窿山下其徒有靈躍淳樸皆律門領袖云

清淮安聞思寺沙門釋真賢傳

釋真賢字獨愚泗州人寶華見月弟子也賦性簡約敦崇實行外內典籍靡不博覽尤精於教觀深得楞嚴之旨自稟具千華究心三學凡所傳集貫澈精微故分座演法稱為律匠有行僧藍孟者建齋僧館於楚州古枚里謀之漕督帥中丞擴張舊址聿宏戒法請賢住持帥公欣然允許改僧齋為大悲院仍施饒僧田地豁免差役賢既戾止初闡教乘遂建戒幢大淮南北律學昌明自賢始也然經營伊始不過數楹饑饉之餘艱窘莫支賢殫心造築精誠感發檀護頻來施捨相繼卒立叢林殿堂廊廡罔不完備又念止作二持末法津梁律門向導必入大歲庶不負著述苦心並晰鏡磚疑議因發憤往京師留居待時將達所志而積勞成病終不服藥謂幻化空體聚散不常何勞人事唯棲心淨土超然善化弟子徧知正奉靈骨歸世壽僧臘殊無可攷

清姑蘇真諦寺沙門釋書淨傳

釋書淨字碧天姓陸氏江陰人也生有異質藐焉始孩便厭羶腥近之則啼稍長能誦佛號見僧輒拜不待教使十三喪父矢願出塵禮藥雨為師沉靜好學詣見月受具隨侍巾拂服勤有年精研律藏兼究經論造詣日深遂付信衣陟居要職吳門程勉卿者善士也病垂死寢華山僧飲之藥而愈因偕其友陸德敷入山訪之遇淨視之儼然寢中僧也請於見月分化吳下以年少辭後堅請之始至居城西之積善庵時敗壁頽垣壘粥不繼淨處之恬如曾不芥帶唯精持律儀嚴攝一眾羯磨布薩規條肅然人知信仰檀護寢多由是經之營之剏造戒壇殿閣廊廡數年之間遂成巨刹淨廣穎深目大頤方口目光炯炯音如弘鐘望之有威而性情和易處事必誠接物以慈新徒稟戒知愚同誨雖累千指肅然一室威儀有則不敢苟簡學子一涉其庭依依不忍去其感人深如此大清之初佛法昌明聖祖御極頗重名僧嘉淨清德頒賜御書金經建閣藏焉康熙四十二年大駕南巡面承褒語復賜心

經三冊御書衍真諦三字錫之因改寺名額以真諦用昭異數以康熙四十四年乙酉秋九月示疾書偈別眾瞑然坐化壽六十臘四十有二弟子湛中奉塔供焉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照福傳

釋照福字振寰姓孟氏大興人也生有殊性獨坐寡言方在齠齡便親法乳初依延禧寺名馳剃染受具於廣濟寺萬鍾精進潛修足不踰閫者十有五年究求律學儕輩欽止爭師事之萬鍾寂後寺眾同詞請福繼席獨懷恬退譽望日高從學益眾康熙二十五年丙寅春聖祖恩命住持潭柘山岫雲寺大駕幸臨復奉溫語獎許有加自是法侶景從雲合霧集檀施湊輻不可億算遂興建造擴廣殿庭一時輪奐崖壑交輝為西山諸刹之冠戊寅秋示微疾聖祖聞之命內務府選醫護視以己卯五月六日索湯沐浴返席而化春秋六十六臘三十二塔於寺前營葬之日特賜內帑并龍旗御杖以示殊異康熙四十一年四月聖駕重游眷念舊情命取繪像以進嗟惜久之遂邀睿題有若非明鏡當前語笑指真圖是戒壇之句其道範嶽峻深契帝心於此可見而榮終之錫追慕之隆曠代希有又何惡乎

清金陵寶華山慧居寺沙門釋真義傳

釋真義字松隱姓曹氏江都人也母戴氏感異兆有白衣授青蓮一枝垂花合跗驚而舉子故生有夙慧幼而聰穎稍長就傳知求大義不屑章句塾師驚異焉年近弱冠頗厭世俗父母愛憐不忍捨去因念前寢當證蓮臺遂爾聽許送投子寺禮靜生祝髮一見教典如溫故簡每謂佛法不出三學慧由定生定從戒始乃渡江登華山乞具足於定庵一期之中威儀動靜謹肅端嚴精究律門終歲靡懈定庵深相契許知非凡器拔為序首董率後進善誘多方莫不感佩嘗言天台荆教其預設律宗制度悉與西方未來之經印合教非律不能精嚴也舍戒律而譚宗教如匠氏之廢繩墨安能善其事乎聞者歎服每欲兼靈鷲三宗擴充心境遂下吳門渡錢塘登天台徧參有道多相契重旋入京師王公天寶仰其聲譽延居延壽蘭若正席方丈乃願行頭陀行一時歸禮者傾國而來明年宏法給孤寺鱗附蟻聚室無所容未幾定庵速之還山竟付衣鉢戒壇累啟四方雲集抗席敷陳花雨繽紛圓音遠邇上達天聰康熙癸未仲春聖駕南巡徵赴行在勅賜慧居寺額御書心經金剛經祇受而歸關閣珍儲丁亥春翠華南巡幸臨斯山垂詢創建始末應對詳盡天顏有喜為書蓮界雲香精持梵戒二額賜之又書湧香林三字於方丈以示優異說者謂蓮香天語與母兆暗合斯為驗矣初夏回鑾渡江迎候復賜金篋彩筆淵鑿法帖諸物寵錫優隆遐邇嗟咨一日示微疾集眾曰七日後吾當別矣至期沐浴更衣危坐而逝春秋四十九臘三十八坐夏二十

五塔於龍山一葉庵左義道貌魁梧法音清遠頂如霽月髮若旋螺不厲而嚴語無輕發接物以誠涓涇弗爽人多敬之云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超越傳

釋超越字止安姓王氏大興人也夙抱清懷雅欲離俗年逾三十始越塵躡勝福寺海雲為之祝髮受圓具於戒臺寺道光動靜尊嚴德性堅定日有恒課不牽外緣入夜焚香趺坐淨修自攝其心康熙三十三年寺燬於火賜帑重修將建棟時有一木初擬置左眾欲右之舁不能升超祝之曰我右汝也不數人舁之以去住持照福見其誠感木石知有自來嘗於聖祖游幸時從容奏對稱超品度比之仙露明珠帝亦為之嘉賞己卯照福寂後奉命繼席明年與諸山長老赴暢春園將覲天顏適虎圈有虎怒唬威勢凜凜眾莫敢近超突前曰汝由性暴故墮虎身今猶不改性必終迷汝伏吾為汝說三皈可得解脫耳虎遂馴服說畢帖然曳尾而去生平奇跡此類甚多恐涉怪誕不以語人寂於康熙四十一年八月三日春秋六十有一僧臘二十七塔於寺左超精行戒律日益嚴密有北方律虎之目

清金陵慈應院沙門釋通明傳

釋通明字眼聞姓李氏滁州人也生有異性方在襁褓偶哺肉羹即便吐棄更以蔬食接受如常家人怪之年甫弱冠泊然自處有志離塵康熙庚申從牛首山宏覺寺以忠祝落湛心內典力求徹悟遂登華山稟戒於定庵彌復精勤始受律義隨乞便講辨析文理折衷指歸勲勲苦學多歷年所一日讀雲棲法彙至凡心未盡聖果未圓處即痛念生死更自磨礪行般舟行三易寒暑其志不墜定庵嘉其誠懇閱斯願力命主慈應法席明稟祜居醑含章縱哲篋虵能翦心猿久制譬圓珠之朗潔若春雲之靄和是以風徽遠邕緇素歸心愛畏兼深尊為律虎寂於康熙五十九年壽六十臘三十有九塔於慈應山前

- 明律篇第四之四(正傳十四人 附見八人)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實[王*永]傳(心開)
 - 鳳山龍興寺沙門釋溥[璫-山]傳
 - 維揚石墘寺沙門釋學倫傳(瑞亭)
 - 燕京瑞應寺沙門釋性證傳
 - 宿遷極樂庵沙門釋興祥傳(不器)
 - 淮安普應寺沙門釋溥範傳
 - 毘陵永寧寺沙門釋學潛傳
 - 淮陰聞思寺沙門釋溥訓傳
 - 徽州韻松山寺沙門釋寂融傳(心空)
 - 江甯古林寺沙門釋海華傳(心融 隆野 印合)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澄林傳
 - 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常松傳
 - 儀徵隆覺寺沙門釋洪建傳(佛定)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明壽傳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實[王*永]傳(心開)

釋實[王*永]字珍輝姓陳氏霍邱人父玉林母汪氏幼負嶽奇不偕俗戲聞僧誦經宛如宿習塾師授學過目不忘觀其行止歎非凡品乃自請於親願超塵網父母知其志堅終不可奪許詣近邑大悲庵心開祝髮初演華嚴涅槃諸法悉通大義年二十五慕華山儀範辭開南下旬有五日始渡大江底龍潭院負笈登山林中一徑晨光掩映周回顧盼髣如舊遊乃自驚愕俄而歎曰轉地凡夫以何因緣頓臨斯地及受具足精求律意早夜孜孜不遑寧息遮制軌範取次領悟其最深者莫如智圓律師所著會真記當時讀者謂其菁粹超出六十家釋義之外[王*永]綜其旨趣為之貫徹非夙抱慧姿殫志研慮能如斯乎主僧閱緣闕其學識擢之教授開迪新知道歸正的心力既竭色相俱空時閱緣告謝遜以法席三辭不獲始敢拜受謹慎操行惟恐失墜每逢聖壽建設道場延釐介福制府將軍以下文武百僚來山瞻禮晝夜齋宿間與酬答開示要旨莫不敬信歸誠悅懌康熙六十一年壬寅春仲方示微疾知世緣將盡付衣文海注念淨域號佛百聲奄然順化春秋四十有八僧臘二十一荼毘時火光如五色雲霞散布山陬三日收遺灰藏之一葉庵左

清鳳山龍興寺沙門釋溥[璫-山]傳

釋溥[璫-山]字雋雯別號借堂姓王氏昆陵人也齠齏嬉游效誦佛號懽心作禮出自天然長涉詩書頗通大義父母既沒聽僧誦經至無智無得慨然有志超脫塵凡時年十四投邑崇聖院瑞可剃落專事禮誦不涉外緣淨修十載思得圓具乃登寶華山受戒定庵安居學律並侍書翰己卯冬遂受記荊委較尼戒道譽宣鬯遠方乞請遂宏法於虹州廣慈寺及釋迦寺乙未秋復為鳳山士大夫所請入主大龍興寺寺殿傾圮荒榛滿目鳳地僻小值明季兵燹之餘井邑蕭條檀施殊尠[璫-山]胼手胝足苦心勞力卒能修葺院宇培養林木使灌莽叢薄之地蔚成招提勝境且以餘力建僧寮廚庫視吳越都會商富聚集布金祇園者難易迥別[璫-山]矢志純一堅固不回駐錫茲山十有三載成斯盛業信非偶然寂於雍正五年丁未十一月二十五日壽六十有一臘三十又七塔於本山之陽

清維揚石墪寺沙門釋學倫傳(瑞亭)

釋學倫字撫生別號幻堂姓梁氏海昌人也賦性明敏穎異絕人童年入學授以經史輒能了徹及既成立頗志事功嘗授江西吉安永豐守備寢感神語因棄官去削氏為僧初依清河西來庵瑞亭研精大藏已而聞人言離戒修行猶無足欲立無翼欲飛乃爽然自矢渡江禮寶華定庵持四分律復參上乘遠遊天台瞻仰阿育王舍利墪赤耀如丸采騰虛際心竊自異未幾還山即受記荊持律精進已越五臘自以立誓書經願力未畢孑身至維揚準提庵閉戶禁足刺血寫華嚴經既成始徇紳耆之請主席西城石墪寺舊為三昧宏戒之所遭歲荒凶鞠為茂草矢願重興天人共應復修般舟三昧闡發戒光勝緣會集癸巳之春重修大悲閣布薩堂落成苾芻麤至丁未冬復建白石戒壇置飯僧田數百畝樓殿寮廡秩秩有序視昔之藜莽塞路瓦礫礙行者煥然改觀矣倫嘗說戒於泰州之朝海時州人婦有怪疾知為宿愆十年祈神弗能解一日自言非撫生法師不能救因為懺悔豁然如失甲辰春應鹽城永寧之請時愆暘不雨屢禱不應倫虔懇祈佛甘霖大注是秋海潮泛溢溺者無算倫持大悲懺百日幽濟慈航凡造請所至四眾改觀臨眾應機老而無倦追隨請益者日填堂宇以雍正戊申夏四月示寂世壽七十有三僧臘二十八坐夏二十三墪於揚州城北建龍寺西

清燕京瑞應寺沙門釋性證傳

釋性證字檀波姓熊氏為南昌右族父時英母陳氏並崇佛旨雅甘澹素誕生之夕母寢幢幡飄搖自天而降雖在襁褓即異凡童幼習詩書略通大義父母並逝年逾有室讀禮將終更賦悼亡乃遊京師聊寫憂思寓龍華寺見

藏經閣日尋內典遂大感悟慨然有出塵之志就德潤薙染詣寶華定庵圓戒退而結茆保定三臺村修杜多行康熙壬辰歲左都揆公招主龍華明年聖壽諷經祝釐揆公捐俸重新梵宇事聞賜名瑞應并書法雲真際四字以顯異之先是寺中舊植文光果樹至是始實雙果並蒂馳獻行在天顏大悅為製文光果詩從臣屬和傳為盛事寺遂因此得名證進道堅勇頂禮達旦過午不食冬必露頂夏必重衣每春傳戒歲以為常寂於康熙六十年正月二十五日壽六十有三臘二十有七塔於都城鷹房南

清宿遷極樂庵沙門釋興祥傳(不器)

釋興祥字桂昌姓熊氏吉安人也母癯老僧投錫驚寤而生幼好靜坐性根不凡年近富強父母並逝遂北游淮郡剃度於菩提社隱名受具於寶華山見月尋依極樂湛一荏苒十載忽焉辭去南參報恩大覺國師凡名山大川流覽幾遍或謂風塵奔走與匿迹潛修兩相懸殊不知道無不在感無不通動即靜機事為心印其中真諦非可泛測祥胸無蘊宰故自去來而不方物後還山力般舟行百日豁然超曠會委逢源不可埃岸適有不器禪士來自都門謂念佛不離參禪參禪不礙持戒百千三昧不出心地一法祥即恍然曰戒體圓明德性空寂反觀本源空性亦滅了無持犯是即心地法門若存一念見開知覺便名破戒況餘念耶器與湛一聞言首肯默印心許遂居首座自是嚴究毘尼精研廣律服勤十載甲子冬湛一寂後繼主法席四方緇流喁然嚮化日盈千指祥克己以廉接物以寬務持大體至於殿閣輪奐田園增廣猶其餘也以康熙六十年辛丑十一月八日示寂壽八十四坐夏四十七傳戒二十七期塔於縣北五華頂

清淮安普應寺沙門釋溥範傳

釋溥範字友曇姓王氏嶧人也家本仕族少通儒術年甫及冠聞僧說戒是心作佛是佛是心頓悟玄旨遂薙染於三皇寺復登寶華得戒於定庵精究毘尼依止五夏出參名宿宿遷極樂寺湛一見而器之留為輔教侍錫講筵隨之還山繼席極樂高建法幢力行律制嘗與四眾結社修懺講演教觀勉敦苦行遐邇歸從更徇眾請移錫普應至則重新梵宇嚴謚寺規行解相應功修無間寂後弟子徹洞奉為普應初祖壽八十七臘六十七闍維建窆塔於喜見塔北雙標相望湖山之間自饒幽勝

清毘陵永寧寺沙門釋學潛傳

釋學潛字靈躍平湖人也幼習章句資稟穎悟獨於貝葉上乘一覽弗遺深嗜篤好若有寂根每譚禪理時參妙解年十九祝髮於姑蘇真諦寺因受具

焉操行嚴密寒暑無間[歷-止+心]覽名山尋求佛祖證度之地餐風味道披雪傳空徹悟本來歸於自在遂於獅林得法開永寧律宗焉毘陵舊有興寧律寺創自李唐宋元而後疊遭兵燹敗堵數椽傾圮將盡前人勝蹟蕩然無餘潛遊笠過此惻然閱之宏願振興思續前業昕夕劬勤持守律法潔修精進遠邇翕然僧眾歸依規模式擴高薨廣座堂殿鼎新巍樓重宇上薄霄漢就其下作波羅提木叉之壇圍以文石甃以古甃閱敞瑰麗卓然大觀為常郡諸蘭若所未有始於康熙庚寅迄於乾隆己未經營締構三十餘年未嘗稍懈故能興廢柘荒追隆往哲乾隆十二年戊辰潛年八十有二設龕召眾講法說偈欣然入龕跏坐而寂

清淮陰聞思寺沙門釋溥訓傳

釋溥訓字宏範姓彭氏射陵人也性質敏穎不類凡童幼依近邑延壽寺為僧略習經典頗解吟咏出語天成人多異之年二十聞獨愚宏法楚州詣壇圓具精研律部博綜梵文嘗謂律學雖嚴心宗不可不究乃出參名宿識碧巖於吳門性緣契合遂畀首座驗龍蛇於棒下辨龜兔於鏡中大事既明翛然自了因於天平山之陽縛茆為龕乃占偈曰井上枯藤鼠嚙多爭榮豈若住山阿臨溪短屋留雲處香吐松華映碧羅又手握吹毛劍一橫誅茆那惜路重重深黃淺碧從茲盡顯出當陽個裏人語能見道音亦入古由是詞人傳誦聲播兩淮及聖祖南巡雅好吟賞有司引訓至袁浦承恩召見奏對應機宸衷大悅隨扈廣陵茱萸灣仍命和韻御書聞思寺額及金剛經賜之拜受還山意殊坦然是歲首夏略示微疾五月朔旦辭眾而逝迨鑾衛北旋再過楚州猶繫聖懷指名垂詢芳芬未沫塵響不存人事有終勝因難再俗眾惜之方外何榮

清徽州韻松山寺沙門釋寂融傳(心空)

釋寂融字蓮城姓張氏宛陵人也家本望族生具福相幼性敏悟夙好詩書長甘澹泊歸志清淨從益念剃落殫心教典靡不通貫年二十登華山受具足於見月隨侍巾拂數易寒暑亦見器重出參名宿得禮心空於翠微師資道合兩相印許遂傳以毘尼授之法衣於是刻苦自持勉勵行修乃於韻松嶺頭別築一亭冬湯夏茗利濟行者遠道流傳譽問宣昭邑宰陳公聞而敬之請主韻松西鄉檀越又乞駐錫翠微道化覃延勝會無遮兩地戒法一時振興往歲太邑祭祀皆用鹿羞獵火焚炎響窮山谷飛毛雨血惻焉傷之融為請於陳公卒得免焉里人深感之暮年仍還韻松多與士林賦詩往還每於贈答隨機誘迪故文學之士多願皈依後邑宰王公又創辦香禪室以供養之融年逾八十鶴髮童顏望之起敬其修誦操行老而彌篤示期垣化日月不爽建塔山左程繩武為撰銘

清江甯古林寺沙門釋海華傳(心融 隆野 印含)

釋海華字藏林姓鄧氏宿人也將娩之夕母夢眾僧受食中有老衲眷盼久之遲回不去覺而舉子知有宿因宜祈佛果遂求法名於里南大聖寺心融心曰俗子投佛意期蔭怙若華藏林無畏風霜因名字焉華生而岐嶷幼有雅趣性不嬉狎獨懷靜絜嘗隨母入寺見僧威儀戀戀不還親嘉其志又感前兆命依心融祝髮一切經典受授不再時有隆野弘法夏邑偕從與席期畢復之彭城值雲崖老宿譚莊老於塢山眾多與之華獨調學無內外內外在人欲大其心志妙其有無此二學可表裏而不可偏尚吾道大成如海納百川同一鹽味眾莫能易自是周遊瀛宇循覽天中達哲邵英悉皆訪謁凡住處案頭唯寶舊訓熟讀精討志在力行聞祇峰法主闡楞嚴於古徐功德林不憚千里研窮數月不能無疑負笈南下直指金陵參月潭於圓覺再繹楞嚴前疑洞釋明崇禎十年丁丑冬請戒於古林印含喜其敏達命司記錄書翰文詞代之裁治靡不雅鍊時心融南詢欲華偕行印謂華曰律是慧基非智不奉學未彌臘豈宜他事猥以心命不敢重違同造天童密雲禪師令看父母未生前語數月未徹無何心融印含相繼寂滅華還古林除職維那偶提前說頓破羣疑大清順治三年西竺老人居碧峰新舊數千指獨識華於言論之表稱其戒行嚴密學德俱深壬辰春榘椎集眾繼席古林是秋歲旱乏食眾以大豆雜充午鉢有私市麥食以供方丈者華斥之曰大眾忍饑我獨果腹是陷我於不義侍者感悚復躬親勞作實導平等眾益親附學徒雲臻以康熙十八年己未入滅壽七十二臘四十九塔於古林後山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澄林傳

釋澄林字洞初姓張氏武清人也賦性慈祥不傷生物初投京師觀音閣薙染復從潭柘振寰受具足徧[歷-止+心]講肆討論性相兼叩禪宗參究心要雖出入宗教而律身端嚴語不妄發衣鉢自隨過午不食時瞿骨妙偉皆深器之謂有優波離之風復歸潭柘輔導止安為尊證者四十一年規範後進不威而嚴儀度汪汪大眾化之廊寮接語莫敢傾側一日靜坐聞棚上羣鼠窸窣少焉益甚尋復寂然林心怪之命侍者破棚十數死鼠累累墜下口有餘粒知中毒藥乃至米庫復見羣鼠往來馳逐林作色曰何不治之而飽鼠腹耶司庫對曰已和毒餌彼東西跳梁者將自斃也林乃痛加訶責以違律傷慈擯之然後知棚頂鼠聲猶呼籲見告其德行感物如此康熙六十一年壬寅繼席岫雲建楞嚴壇成宣講梵網明辯以晰開人心意雍正六年戊申十一月五示疾誠其弟子曰末路比丘乞食維艱叢林接眾恆產為要比歲負貸二千餘金撙節苦辛幸償夙逋欲增飯僧田愧未及耳事在得人我無他願言訖無聲溘然坐化春秋六十有二坐夏三十有八塔於寺左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常松傳

釋常松字閔緣姓陳氏金壇人也性厭鯨鼉頗耽幽僻幼入塾學宛自成人塾師異之謂宜養其靜志儕之士林然家世農耕務勤稼穡松雅甘苦辛不慕浮榮年及弱冠懇請離塵父母許之遂造九華甘露庵從因實剃度聞華山見月中興毘尼即登寶華受具足戒立德辨道心樹益高松隱老人欲深闢法器試以鉗錘迺愈自磨礪歷掌維那一堂之內分別三根上者喻以純旨深思自得中材導以正途循序而進又其次者曲垂教言引之漸入三者不同成功則一故化有程式人無棄材新舊學子榮出其門松隱謝世命傳祖衣康熙五十二年春值聖祖萬壽上京祝釐駕幸道場獎其儀範日賜御饌并錫紫依玉器數事奉之還山時浙督赫公將軍鄂公皆相引重敬禮有加九華田產亦為之勒石警眾用垂久遠寂於康熙五十七年戊戌八月九日春秋五十有五僧臘二十有三坐夏二十有二

清儀徵隆覺寺沙門釋洪建傳(佛定)

釋洪建字冶牧姓馮氏夏邑人也母方孕時即厭腥羶見人肉食便作歐逆誕降三日母夢兒言曰誤入汝家意欲舍去母因急留倉皇驚覺晨起視兒果病不乳其母禱於大士願寄為僧弗藥有喜遂禮近鄉洪福寺慶庵為師七歲入寺剃染初習經典漸能領悟十有餘載勤修不懈年已及冠始具三壇於白雲佛定入室造請叩求經義研習切韻威儀中度文質彬彬既而南遊躬踐寶華學律於定庵五易寒暑既通律部欲透禪關扣諸宗匠杭之理安紹之顯聖寧之祖印吳越知識次第參訪康熙戊子重上華山供職羯磨三年復徇維揚士紳之請主席隆覺盡心訓導大宏法戒三十餘年孜孜無倦是以道俗歸崇檀施恐後維揚交如汪公施金三千創建戒壇於寺之左使數畝古剎易色改觀望之如祇園精舍其勝緣所結豈偶然哉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明壽傳

釋明壽字本然姓杜氏宛平人也幼依普濟寺休如落髮初尋經緒漸明宗教康熙四十年得戒於潭柘山止安五篇七聚并窮研討精修銳進罕有及者遂躋首座闡心教授十有六年位列尊證凡式範後學規模叢林靡不詳盡時和碩康親王避暑山寺一見契合夜坐清潭深入玄理退後語人稱為純品嘗因事出山歸不過時主僧責訶之重加屈辱恬然受之略不芥蒂知為入室真子乃付重任授以衣鉢及居丈室不立侍者巾瓶鑪碗躬親拂拭一日無恙勿集眾曰我時至矣汝輩當念光陰迅速人命無常趁此努力無遺後悔合掌而逝時乾隆丙辰三月十九日也壽六十有七坐夏三十有五塔於錦屏山南

- 明律篇第四之五(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清燕京瑞應寺沙門釋祥暉傳
 - 徽州常樂庵沙門釋照宏傳
 - 杭州昭慶寺沙門釋隨道傳(福溶)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福傳
 - 杭州昭慶寺沙門釋果證傳
 - 宿遷壽聖寺沙門釋福住傳
 - 淮安觀音寺沙門釋源長傳
 - 金陵慈應寺沙門釋心觀傳
 - 維揚石塢寺沙門釋通和傳(實森)
 - 宿遷極樂庵沙門釋來照傳(德明)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圓瑞傳
 - 宿遷壽聖寺沙門釋祥珠傳
 - 江陰圓覺庵沙門釋宗深傳
 - 揚州慧因寺沙門釋實長傳(冶牧)

清燕京瑞應寺沙門釋祥暉傳

釋祥暉字瑞林姓孫氏天津人也方在娠時母感異徵私禱彌勒院得舉子六歲隨祖母王氏詣院禮佛雖在齟齬觸事通曉近聽梵音輒形喜躍祖母知有宿根不墮塵勞久之入里之無量院禮濟舟雜染教習經論髣如記憶年二十詣寶華受具於定庵三載安居專精律部研究止持壬午春辭定南下兼慕禪學曆普陀天童育王顯聖諸刹凡浙中名匠莫不參謁聞濟舟病招之北還明年過柏林遇獨超痛領鉗錘方得了悟壬辰春從檀波來瑞應命掌監院律法大弘寺聲復振皆暉唱導之力也丙申將登五臺口偈有云摩尼寶積光輝滿定向無人覓處逢蓋文理通徹自成妙旨非徒眈吟咏可以企及辛丑檀波寂滅繼主瑞應十載精勤以律持躬內外肅然康熙庚戌京師地震殿宇傾頽乃竭資修葺如故復構法雲金湯二字壬子夏五月二十五日辛巳示微疾集眾誡曰塵勞幻影推窮莫測稍涉安排即成大錯隨緣所遇莫生節目謹持斯語莫或怠息言訖坐化春秋五十有二臘二十有六塔於都城德勝門外古塔之右

清徽州常樂庵釋照宏傳

釋照宏字緣鶴姓李氏仙源人也將誕之夕母夢一童子跨鶴翩躚飛入其家覺而身動呱呱在地圓頂廣額眉目清奇知有夙果不入塵俗稍長拜常樂如心字曰緣鶴以符其兆由是委懷內典細繹梵音雖貝葉靈文過目能了後得戒於寶華嘗松心契波羅木叉之旨力任行持及遇韻松蓮城挾其素蘊憮然曰超六塵通三昧者是子也乃付以紫衣戒本為律學真傳時諸檀越請主寺席弘演毘尼繼風太原三學既勤七眾來歸每當講論剖析精微聞其片偈如證道果戊申以波離法脈傳之黃石普開端坐遷化

清杭州昭慶寺沙門釋隨道傳(福溶)

釋隨道字德先姓沈氏石門人幼投餘杭龍泉寺履初受度得戒於宜潔久居昭慶常為羯磨持身端肅學人依止者多為仰企高風稟問毘尼皆綜原委示以大法如瓶瀉水康熙六十年說冬戒一期所得新徒一時翹楚後多為弘律宗師乾隆時昭慶主席懷德亦其弟子也寂於雍正甲辰十一月二十八日世壽六十有二福溶字澄如仁和薛氏子投西湖瑞雲庵鏡傳受度亦從昭慶宜潔受戒執侍巾瓶有年常為傳戒綱維遂受付屬雍正三年繼主寺席當興復未備之處力為補益崇壇高閣巍然巨觀無少間缺者溶之功也以乾隆丁巳年十月十九日示寂壽八十有四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福傳

釋源福字毓安姓王氏新河人也稟性澹定不念世華幼依邑中地藏庵護生剃度康熙四十二年從岫雲德彰受具來棲佛地初入律門矢志操持務去嗔貪引禮四期進位尊證守護禪堂復作監司事無大小必協眾心二時粥飯前後齊同偶逢游客施捨覓資積得五兩即入香廚造食供眾調檀越布金意在隨緣職司出納敢昧因果是以上下翕然共仰清操雍正三年推舉教授避地讓賢遂朝南海明年春歸京都廣濟律院專啟相祈屈作教授再辭不獲乃應其請圓音既演咸尊所聞未幾還山進居羯磨乾隆元年始繼丈席益自恭謹不懈初志遠地游僧造止寺寮多方周濟務求得所故遐邇歸心道望日崇巳未歲賜龍藏一部建閣儲之用鎮山靈辛酉春設龍華道場法財兩施緇白雲集大起三會聚食千眾如此勝緣曠世希有五月訖事頗形勞瘁冬十二月示期謝眾身為苦本幸自努力默默三日安詳而逝壽六十有三臘三十有九塔於山左

清杭州昭慶寺沙門釋果證傳

釋果證字懷德姓俞氏歸安人也將誕之夕鄰媪見衣袈裟僧入其室頗怪之俄聞俞婦生子矣由是異焉故稟性殊眾別有夙根年十六投杭之吉祥

寺淨明受度授經論於曰唯康熙辛丑受具於昭慶德先後為如澄所器傳以衣偈乾隆戊午繼席昭慶自嚴戒行真樸無華聿興慈濟廣播法聲公卿元戎皆相器重互隆蔭護遂得檀施輻輳殿閣益光建堂築塔拓地開基肇興水陸道場莊嚴最勝其徒曉蒼清瑩輩咸助其成斯寺鼎新以來康乾之際於斯為盛

清宿遷壽聖寺沙門釋福住傳

釋福住字靈峰姓盧氏世居嶧陽其父始徙於宿遷遂為宿人生有靈兆幼而穎異靜幽成性寡於言笑然體羸質弱病纏彌載其父禱於佛而疾少瘳七歲遂依護國庵瑞貞受染稍長誦經習禮殷勤不懈炬步度式過於老宿年近不惑欲得名師指其覺路環視區宇殊難其選深居獨處幾四十年雍正甲寅春憲廟詔文海入都改建法源寺勅開戒壇受法者千九百人住始與焉既卒事訪萬壽寺調梅西方寺不二俱相深契期以遠大因留京邑荏苒四載嘗值秋初登玉泉山俯臨湖水滌洄曲抱幾十數里其中蒲荷菱芰與沙禽水鳥隱映於煙靄樓閣間覺胸襟壅積豁然開朗因念江浙名勝盡為禪藪當更有異乾隆戊午暮春南還自淮之廣陵謁福緣寺濟生連牀話舊夜鐙忘疲復渡江抵金山大曉老人為江天寺主一見如故相留彌月偶於山樓靜坐更深月落天氣昏黑忽見江心火光星散照耀林木棲鳥皆驚曉曰此木華海賦所謂陰火潛然者住聞之爽然自失別有所悟又數日辭去由昆陵泛舟平渚訪生公說法臺於虎邱下然後次餘杭過六橋出西湖尋濟顛舊蹟凡石甌虎林栖霞飛來峰諸勝靡不窮探幽索證所聞知獨至鳥窠立法之處惟存古木扶疎頽垣破院悵望久之乃歷東陽而南越蒿壩渡關嶺涉檣溪步石梁得寒山拾得隱居巖穴與智者大師拜經臺故址遂悠然神往折方竹為杖陟天台最高頂以望赤城蒼洞天姥諸峯蓋徘徊不能去云侍者曰自此入天童阿育王寺有古舍利在焉迺復攀崖捫蘿趨拜其下見白光昱然顯於塔中厥後禮普陀見海霧明滅列嶂聳秀高出雲表陰晴變幻其狀不一山下波濤洶湧雷砰電激海岸孤絕信非慈航不能飛渡庚申秋返宿居極樂庵檢閱龍藏兩易寒暑時慧朗尊宿方修壽聖古剎延住主席更擴二樓翬其式廓至戊寅年七十有一傳席其徒雲浦退處東林石門深處板橋隱隱禪房花木時有清香戶外松陰池邊竹韻雨霽煙消蒼翠欲滴怡然自適忽焉一紀惟掃地焚香終日兀坐神光圓湛迴出塵世庚寅春示疾二月六日淹然而化壽八十有三臘三十有七塔於五華山頂

清淮安觀音寺沙門釋源長傳

釋源長字涵空別號性水姓張氏郟城人也性甘淡泊不逐塵末幼投安東地藏庵受染依老宿朗徹誦經習禮儀容有則諷讚無譌雍正甲寅春世宗

弘暢佛法詔文海入都敕改法源寺俶開壇場得千八百九人長亦與焉既而南旋參聞思聚用老人精持律範無間寒暑相印以心遂付衣偈乾隆乙丑聚主觀音三載勤劬頗倦津梁命長繼席甄陶後進莫敢怠荒重修殿宇擴增舊制歲在丙子兩淮大饑寺無餘糧率眾上堂惟飲白水三日不食人無去志而禪房絜淨雍雍如初德積有素感物者深故道風所被欣然樂附戊寅歲示寂春秋五十有一長姿稟明敏穎異過人尤善丹青常寫雪中梅花疎枝冷豔古幹橫絕人謂於畫禪中別得三昧者諒哉

清金陵慈應寺沙門釋心觀傳

釋心觀字璇璋亦號雪堂姓何氏嘉善人也少從郡中大勝寺淵浹蕪染一日見華嚴經頓發弘誓竭誠禮誦又翫淨行一品以戒為本遂褰裳遠涉子焉孤邁康熙丙寅受具於寶華定庵復自姑蘇渡錢塘遊赤城參宗門瞿仙默契心宗獨念禪是佛心戒為佛行縱明佛心不行佛行更何所濟於是復之寶華重學毘尼開遮持犯深有所得蓋道無二門宗律一理何可歧視自分畛域緇素聞風偏私悉化句曲士庶請主寶山時殿宇荒涼牆垣傾圮慨然以興復自任翦除荆棘辛勤畚築次第經營復稱勝境秣陵張君又傾企仰延主報恩三藏禪林既閱律範兼修淨土嗣以慈應一席寶華分座復請繼位兢兢業業二十餘年持己以廉待人以厚利賴甚眾閱濟尤多寂於乾隆壬戌歲六月十三日壽七十有六臘五十有一

清維揚石塔寺沙門釋通和傳(實森)

釋通和字朗清蘭陵人也九齡得染於大林弱冠受具於寶華研幾戒典參究宗乘發明大義遂受撫生記剃首眾持律一時龍象靡不奉為軌範撫生謝代乃繼其席扇馥律門畢其遺願四眾雲臻戒光圓徧既而示疾因付衣鉢於品木實森寂於雍正十年十月十五日春秋五十五僧臘三十五坐夏二十四塔於維揚城北建隆寺西十三年世宗命集三宗義學沙門校刊龍藏律宗品木躬際盛會選充校雠時有糾正足匡舛繆乾隆三年工始告竣乃述通和行狀而乞尚書張照為之銘

清宿遷極樂庵沙門釋來照傳(德明)

釋來照字大初姓樊氏鳳山人也其父禱於雪山寺而生靈根夙種幼性聰悟初就外傳卓異凡兒年及舞勺遊雪山寺見佛國威儀輒生感慕知昔緣有在辭親投喚生為師昏顯持念終歲不倦年二十四具戒於桂昌窮研藏典北請南參圓足三學後歸極樂慧徹深器之拔置首席雍正戊申慧因日疾付衣於照遵守繩墨十有四載弗敢隕越嘗應邳宿士大夫請主名藍弘

敷戒法每謂叢林授受最宜精審必其識能出類德可表眾庶得暢厥素懷若非察見本原輕率放行如麻蒸竹葦何埠法系故門下千指而為印可者殊無一二間有見其親炙最久當在記荊及默叩之乃曰皆不得吾真脈於是人益異之莫敢闕其涯涘乾隆七年五月十三日忽書座右曰我七月十九日且去矣及期眾以極樂法系為請則曰今且付院事於德明竟如期坦化明既履席兢兢自飭上述祖風下開來學辛卯三載秩然有紀乾隆十年五月二十日示疾集眾告曰吾住無心去亦無口向下文長大眾出手說已端坐而逝知照不輕授受無負正傳於斯可見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圓瑞傳

釋圓瑞字靜觀歷城人也幼依近邑福慧寺還一雜染受具於潭柘山洞初棲遲三載精味律旨嘗聽講法華日課不足則於佛前琉璃燈下補習之其勤苦如此清雍正時世宗留意內典延訪名僧重修龍藏瑞以清譽被選入館三易寒暑始克葺事復徧遊京邑諸刹甲寅還山始掌教授學侶莘莘群瞻煦育乾隆乙酉和碩莊親王奏請主席岫雲一院翕然欽其道範及登猊座益矢勤慎矩矱先入遵守弗越春冬法戒常期不爽新眾景從信施日至歲在辛丑恭逢高宗萬壽會啟龍華用祝聖釐香雲繚繞四眾霧合座擁萬指讚揚雷動雖年踰古稀精力猶健乃不久示疾正衣坐化壽七十有六臘五十有五初感微寒眾欲延醫瑞止之曰幻化空體聚散不常何勞人事終不服藥知能自了

清宿遷壽聖寺沙門釋祥珠傳

釋祥珠字雲浦姓曹氏滁州人父必達母石氏年十四依近邑護國靈峰剃度討習經論孜孜十載乾隆癸酉年二十四偕善學赴潭柘求戒於恒實依正律宗研究二持甲戌夏與善學同為引禮各司一堂丙子春聞嘉興達天講說法華樞齋趨座與聆玄旨又參恢慈禪師於拈花方欲結冬正待決疑而岫雲琮璋招之還山任以舊職初岫雲以戒為法恒實闕其氣度澹逸迥出塵表特為記別戊寅秋壽聖靈師年逾七十倦於院事遣招祥珠遂一瓶一鉢飄然南下齶運高公佇聞遠譽久企芳躅擁篲清塵迎之入院就正法席但寺古年湮荊棘滿砌荒穢塞途環堵蕭然勢難復振乃竭精誠歷三寒暑鳩工庇材金碧一煥道場之盛遂甲淮北嘗渡南海禮普陀過江浙諸名山偶爾駐錫緇素景從所在隨緣與眾俱化最後至阿育王寺觀塔中舍利以證道果及歸維揚慧因度夏念前日拈花舊疑久思請益甲申冬再至廣陵晤高旻昭月時昭欲北上偕之同行舟至五臺阻風不進登岸數步憩於上方寺竹西亭下有池水空明可愛昭折竹枝點水謂祥珠曰識此否語未畢枝上飛流灑及其面當下有省遂留偈別去己丑春重修大殿廣募萬緣

三載告竣殿後左右并建二樓以廣其制初恒實慨律門寢衰欲修燈譜以永其傳久之未就祥珠獨善繼述躬任勞瘁殫心校雠卒成律宗燈譜十卷

清江陰圓覺庵沙門釋宗深傳

釋宗深字慧海姓程氏江陰人也秉性質樸語簡意遲外貌如愚菁英內蘊幼好潛靜依圓覺庵出塵為之雜染初習誦持偶致推研多所未徹惟朝夕薰修遂漸開悟得大智慧閱諸經論髣如夙習年既壯受具於十方庵未幾繼席圓覺默守梵網董正儀範率眾焚修三十餘年後移錫十方傳受毘尼多所成就

清揚州慧因寺沙門釋實長傳(冶牧)

釋實長字曉聞姓錢氏丹徒人也母潘氏初產乏乳乞他母乳長輒不就飲以米汁又未能食舉家憂之七日乳至始接懷哺蓋生有殊稟知覺獨靈呱呱在抱即辨血氣及能食言便惡辛膩發言應機過於成人幼時隨父渡江暴風忽作波浪洶湧一舟振盪莫不驚恐長微笑曰祇是心不定耳風浪何懼乎父曰此時心如何得定曰定在平日由是異之年踰志學溯江至金陵永濟寺聞僧誦彌陀經偶焉悵蠲遂決然舍去投和州福興寺密嚴雜染棲遲三載稍涉經論禮寶華文海圓具未幾下山欲求禪習道遇老宿問所從來因言所志老宿慨然曰了明心理為戒悟徹本心為禪名雖有二理則一致今之秉佛制飭僧綱者已不多覲汝後生新戒當精進持律弗墜初基於是涉江而北依廣陵石塔撫生研討毘尼撫於淮南有律虎之目見長操持謹篤迥出庸流昕夕切磋將欲記荊長方游山未歸撫遽遷化時城北舍利律院冶牧少與同參素契清修請為輔導既任仔肩不辭勞瘁久之冶牧謝世緇眾固請就履主席婉辭卻之以待賢者會郡守景萊高公與紳耆汪君鶴崖闢廣初地一新梵宇勉長住持乃不獲辭自是艱苦較甚於前而春冬弘戒十方新眾尤多於昔平山堂之左有惠照寺為古木蘭院唐王播題詩處也地頗幽邃主者荒蕪士紳惜之邑令徐公慕長譽望率眾造請特令兼攝未及期月已復舊觀乾隆辛未春高宗南巡御舟經過長出迎候奏對雍容請錫寺名聖意俞允九月嵯運吉公恭賚御書慧因寺額至寺時顧萬峯鮑步江張冠村陳道潛俱有詩紀勝非道行高卓聲華茂美未足臻此以乾隆甲戌九月一日示寂年五十一臘三十一坐夏十有四奉龕於惠照之西偏當長四十初度隆覺冶牧以文壽之序中推許真實以為後來之秀屈指無二冶為海內律學宗綱持論最嚴獨於長稱道如此况十年精進其律學洵可一世也

- 明律篇第四之六(正傳五人 附見三人)
 -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福聚傳
 - 儀徵隆覺寺沙門釋普悅傳
 - 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諒傳
 - 燕京法源寺沙門釋性實傳
 - 燕京法源寺沙門釋昌濤傳(信修 普照 海祥)

清金陵寶華山隆昌寺沙門釋福聚傳

釋福聚字文海號二愚姓駱氏義烏人也父林母載氏夙契淨根並修善果嘗夢月華流輝著身皆白感而有孕誕育之夕神光下燭暗室生明閭里驚異方及髫齡獨自度橋駭墜水中不能游泳頃之似聞人語曰紹隆之業其在斯乎少焉浮出因得拯救由是永念慈航歸心普濟年近志學依溧水上方寺靜生剃染初習講誦漸通義趣日禮佛號自課清修苦行十年志慮湛定乃詣寶華得戒於閔緣外檢律表內激圓光尋事游參經歷八載嘗叩天童天目默印深契咸以肩承正法遠相期許然機鋒捷悟終屬言筌波提木叉乃照寶相復上華山閔已遷化珍輝主席方以真如正覺丕倡宗風既承洽契遂令入室未幾珍輝示疾親付祖衣彌扇戒芬龍象景從鳴鶴九皋聲聞於天時世宗耄勤深求梵典延攬高僧研味弘旨雖秦徵童壽漢請摩騰道契冥符蔑以加茲雍正十二年春福聚奉詔入都卓錫愍忠寺屢承聖眷寵幸時臨討窮藏法實悅帝心愍忠主席法藏律師同出南山方敷講座仰福宿德瞻此帝徽如爝火見日光耀自息私維遠引以避賢智未幾遷化而世宗傾慕益切恩渥載隆復新厥廟更稱法源御製碑文立石廡下垂茲宸翰播揚弘獎特開戒壇命和碩莊親王及內府官從董理壇事普給衣鉢傳授法戒期中弟子千八百九人吁亦盛矣在昔世尊常隨聽法才千二百五十人茲乃過之家國休祥德人爰降上下孚應有感斯通是以宏戒之日天朗氣清慶雲微蔭倏焉龍見圍繞中庭四眾嗟異傳為奇瑞乃臨壇講畢逡巡靜退堅請還山蓋澹定之懷本無留戀欲得三昧永離十纏於是愍忠繼席慧寬別創寺宇名曰定慧而法源嗣位更傳弟子性實由茲得徒遂辭帝里言旋華山復蒙賜紫贈施有加重發內帑修飾寶華殿宇寮舍百美具臻榮光絢赫一時無比四方緇白皈向彌殷敷筵舉拂日不暇給嘗以世宗所示心要誘掖初機參考推尋老而彌篤課餘所輯有瑜伽補註施食儀觀南山宗統寶華志餘諸編寂於乾隆乙酉八月二日壽八十臘七十坐夏五十有四依法闍維金光燭天燼餘獲舍利數十粒瑩如珠弟子八十二人建窆

都於龍山之巔性實於乾隆癸亥為建壽塔於京都彰儀門外柳巷村和碩顯親王為之銘云

清儀徵隆覺寺沙門釋普悅傳

釋普悅字敷和姓趙氏江寧人也幼習儒術頗擅文詞應童子試已錚錚有聲乃志切超塵自行薙染得戒後即依隆覺冶牧精研律部操行篤謹不踰矩矱每當春雷冬雪馥馥戒香調護苾芻為引禮導師之冠冶牧遷化乃就主席願力彌宏躬行愈勵嘗謂毘尼一門為入道之始非踵其形迹奉其圓具即詡南山正宗也必於教授導引之旨悉心研求夙夜罔懈精實猛進乃能討覈律義庶幾不悞否則扞格難通無有是處是以規儀嚴肅不教而成十方學子羣仰陶鑄大江南北聲譽流聞與千歲戒法兩相輝映得法弟子若岫雯清者號為一時龍象以乾隆三十一年九月十日示寂壽七十有三臘五十三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源諒傳

釋源諒字恒實姓侯氏東光人也六歲依吳橋三元庵鈞一薙染康熙六十年受具於岫雲德彭提挈梵網專求律範雍正元年癸卯初為引禮指導新學多方誘進昕夕罔怠六年戊申勿遭痺疾四體不仁息心靜養尋就瘥可負杖出遊歷諸禪講所如不合徑還舊土因念病苦多緣宿業遂自設壇晨昏禮懺默求垂護孳孳三載身始健強乃梯五臺覲禮文殊復來潭柘會啟龍華留為引禮乾隆元年始理教授更進羯磨辛酉冬得主法席益勵精修研味梵典開建閱藏道場甲子中春高宗幸臨寺眾整肅品物明潔天顏有喜賜白金二百額聯詩章多出宸翰其他賞賜又復稱是甲申冬聖駕重游驩情勝昔所賜有銅佛金經塔圖并白金三百御書四額皇太后加賜鏤金器品數十事皆前所未有諒為人寬厚寡言不矜不忌雖遇路人愛之如親新學之徒尤殷啟迪專教務化不躬瑣細故四眾悅豫福應備臻以乾隆三十七年四月二十日示寂壽六十有八臘四十有五塔於蓮花峰右

清燕京法源寺沙門釋性實傳

釋性實字天月號澄庵姓劉氏山陽人也父國棟樂善不倦虔誦佛號每見異徵嘗寢菩薩垂光覺而內室舉子時方中宵曇花隱見知有自來故生而穎悟性根不凡甫及弱冠志存遺俗祝髮後聞金陵寶華山文海為一代尊宿遂入山膜拜從之學律夙夜精修不間寒暑親承密諦妙悟環生攝齋經壇職司都講娑娑雙樹龍象俱馴既而文海紫衣內召趨廷有喜改建法源說戒無遮於是情殷輔導因為教授四禪風靡勝流總至金碧煙凝同生悲

悟未幾道場圓滿文海請旨還山承恩召對垂詢法源繼席時新更寺名未敢自私故不舉其徒而薦諸寺長老復奉欽命南山法嗣同舉引見特詔性實繼主法源方丈遂履斯任然庫藏屢空人莫之識惟率眾靜修澹然無營久之四眾歸仰十方施助於是殿宇寮垣塗茨丹雘鳩工以時莊嚴宏麗煥然改觀生平誓願居不安逸厨無香積春冬說戒結夏安禪宵夜精勤脇不著席一鉢一盂身先率眾布衲一襲不敝不更數十載如一日故年登大耄視聽不衰王公卿相往來參契接其幽旨皆相悅懌不兢於心不眩於目澹然無欲若遇道俗雖至愚下必與均禮大眾平等斯為近之乾隆丁丑歲已傳席圓林退院間居恬靜自得時皇四子學山頗好游獵嘗憇寺門車馬闐喧乃定中初起扶杖款扉草履迎候皇子挹其謙光皓首龐眉物我胥蠲赧然心折投弓珥筆貽之篇章傳為遺寶以乾隆三十九年春正月八日示寂壽八十有二臘六十有三弟子圓升別起靈塔不附愍忠仰其芬菲昭茲來哲

清燕京法源寺沙門釋昌濤傳(信修 普照 海祥)

釋昌濤字靜涵晚別葉汀道人銅山劉氏子也父道遠母曹氏皆蘇之望族曾夢入大寺八寶華嚴天童鹿女散花蓮沼髣髴神光鼓浪池中葩葉浮動感而誕子故濤生稟夙慧幼好典籍妙解聲韻尤善鼓琴高山流水時有出塵之思每寄情於詩畫一幅丹青半江風雨望之翛然顧性獨信佛究心律論始披剃時禮銅山吉祥庵達中長老授大品維摩堅持欽聽六時無倦道光十年始來京邑法源寺依止信修律師信乃釋學津梁幽燕冠冕服勤左右順時請業受具之後志在博聞寺有普照法師者本信弟子義府道宗禪林雄伯高據首座說經經濤乃從學四稜著地負袈淹留專功九載窮竟端源統解玄微宿齒晚秀咸推翹楚會西闔廣濟寺年久殘破葺飾非易欲得清望以振法雷乃舉濤繼席丙午歲入主其寺以苦行嚴律感諸檀那相國潘祖蔭尚書喬松年皆首自施捨助盈補虧寒暑六易功始告成輝生金碧人有羨心咸豐二年院事羸具群逆來觸至不堪忍濤乃反心自照頓悟煩惱菩提兩大俱空因作偈曰不求好不學壞東倒西傾皆自在無牽纏無罣礙何須著意逃禪外我心虛兮心常泰一粒粟中見世界且謂華嚴五十三參忽見我佛如來遍滿十方清香異常若非回向堅固則負佛矣十年庚申粵寇未平外夷乘隙抵瑕陳兵大沽京都震撼四眾惶擾紛紛逃匿濤獨晏然薰修焚楮默為國祝終獲安謐同治六年醅親王展謁西陵暮還過寺與鍾王孚王偕訪止宿夜鐙寒[山*宵]對榻聯吟濤口占三章獻之王俱能詩即韻和歌並見刻石話盡宵分忽焉驚顧若有所戚因言將為諸王修福禳禍王亦唯唯殊未介意俄而鍾王暴薨方悟濤言有為互相駭歎詔濤入邸梵誦乃設七日方等懺法邸中侍從咸夢王來致謝信仰尤篤八年己巳十月奉命主席法源入院之辰王公將迎車騎塵囂闐咽門巷濤益自下

受寵若驚於時禍亂初平瘡痍未息愚氓貪勇罔識義方法藉人弘因欲傳化新侶僦望風景附光緒四年戊寅授僧錄司副印五年己卯三月德宗方在髫齡思瞻佛海車駕幸臨賁然戾止濤方出定率眾趨迓望塵合掌天顏有喜十年甲申轉僧錄司正印時宇內大寧京邑學僧來自荒遠投誠請授即為敷弘三十年中傳戒者八濟度千百餘人濤每躬處座端橫經陳說莫不娓娓聽受自是傳鐙不絕於今多矣又念更歷艱苦仗境起法恐道猶未明深滋愧悚因發願啟篋盡閱三藏用是兢業持以自強就緣講繹儀軌華約無不翹心故二時法會必香汁灑地熏鑪引前去穢務嚴欽若戒律每震鈴鼓動盈萬指屯赴供捨為儔罕匹是以善氣感通成大功德武聖文昌並啟祠宇清瑞文端公文文忠公貲助尤多輪奐既闋僧綱就緒頗厭煩塵思契禪寂光緒九年癸未乃付院事於徒海祥淨室悠然專事貝藏手披日送貌瘁神怡嘗自作虛心圖記述其生平名公巨卿紛相題贈百數十家並刻諸石以光緒十九年癸巳卒於寺寮壽七十有七臘六十有三起塔柳村表其清德海祥字體本號覺華道人宛平邢氏子也性質頗懋幼好潛默不逐兒戲終日獨處或以為癡顧解信仰聞人說佛則津津有味樂得其詳惟恐不盡窮究端委因此感悟遂棄凡俗剃染後從濤受毘尼志逾沈毅語無妄發蓋以淨法清凈本資攝念聖果堅實必固定想泛論經說徒弊唇舌是用更崇前觀額上鼻端唯所存息月寮煙閣為其棲止由是光明內蘊色相外空形同藁木心若死灰精進六行貫暢三乘及攝院事迺宏法戒宣期講演於是五眾數千餘指依崇習禮聲馳京國化滿燕雲接踵追風遠道不遺闔戶塞門坐誨無倦念彼新學弘斯正則濤寂始專寺務寬和柔慈與物無競寺產萬畝租戶百家每屆收斂先飭司事勿過取盈寧儉勿奢何用多金量入為出即可自存然農人思惠以為易與則請求過分又慮後來繼主艱於履行乞予立券以此為準不再增租永不更佃有不如約則寺僧出米三十石以為示罰同寮侶儔覩此來詞皆有難色祥獨欣然允許付卷以去或告之曰既不加租復不變佃已難持久况出罰米無此事理祥喟然歎曰佛以捨身度世化除煩惱汰淨利慾無人見無我見四大俱空身且無有何問租賦且寺為律門律重戒貪若不之許是長貪也可乎言者太息而退其以德服人頗復類是然舊額半稅坐是又損比之俗人田賦才及四分之一加以水潦凶旱又復蠲除於是歲用不瞻徒眾日削棟宇剝落淒荒滿目祥乃澹然無慮漠不動心慧鐙熒熒一榻獨處以光緒三十二年丙午六月八日寂於丈室春秋六十有一瘞骨祖塔祥主席法源二十三載更事既多弭患無形庚子之亂拳徒洶洶強劫富室寺以貧聞農氓暗護卒賴以免及聯師入京兩宮西狩都人震恐逃徙一空而德意志軍將率兵入寺言搜拳徒僧眾避匿祥獨出迎握手相告德將大感遂同進止出誥保護懸旗而去後來夷酋相顧起敬寺無毀壞祥之功也廟舊猶新風徽未沫

- 護法篇第五之一(正傳六人 附傳三十六人)
 - 宋錢塘靈隱寺沙門釋契嵩傳
 - 餘杭淨慈寺沙門釋妙堪傳
 - 餘杭白雲庵沙門釋清覺傳
 -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妙高傳
 - 磬山甘泉普濟寺沙門釋祥邁傳(辯的 達拔合思八 福裕 從超 德亨 從倫 圓胤 至溫 明津 本璉 道雲 了詢 慶規 行育 道壽 相觀 善朗 祖珪 元一 貴吉祥 倫吉祥)
 - 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鑄傳(止嚴 寶淵 惠溥 自智 福明 自善 明見 至悟 宗元 至福 至榮 紹中 虛谷 福資 廣鎔 福祐)

宋錢塘靈隱寺沙門釋契嵩傳

釋契嵩字仲靈亦號潛子姓李氏鐔津人年十三落髮受具弱冠出游往還江湘衡嶽間首常戴觀世音像而誦其洪號日十萬聲由是澄心妙想理謏文言慧悟俱徹世間典籍一覽便通初參洞山聰豁爾省朗當是時有慕韓昌黎排佛者其言寢熾嵩深憂之作原教論明儒釋一貫以抗其說聞者驚服法會復昌嵩復著禪宗定祖圖傳法正宗記諸篇以閱厥愷觀察李公謹以其名聞詔賜紫衣府尹王仲儀復以所著圖記上之仁宗嘉歎宣付傳法院編次入藏仍賜明教之號當世名公巨子如韓忠獻琦歐陽文忠修莫不欽企交相延譽聲望日隆嵩居南屏最久有游南屏記及題詠諸什後為蔡君謨請主佛日未幾遂謝去隱於靈隱大桐塢永安精舍宋熙寧五年六月四日書偈而化偈曰此夜月初明吾今喜獨行不學大梅老貪聞鼯鼠聲茶毗得不壞者五淨慈北磧居簡以五不壞讚之所著有輔教編定祖論正宗記及鐔津集三十卷

宋餘杭淨慈寺沙門釋妙堪傳

釋妙堪字笑翁姓毛氏四明人也廣顙平頂骨清氣寒從野庵道欽受釋學依息庵觀於金山參松源岳於靈隱皆無所契時無用居天童徑造其室用問之曰行腳耶遊山耶曰行腳耳乃使參堂室中當示狗子無佛性語一日擬議間用以竹篋劈之堪應聲呈偈曰大荼毒鼓轟天震地轉腦回頭橫尸萬里無用領之即命侍香已而報恩約公禮之分座太守程公請主妙勝遷金文移光孝尋以衛王堂牒除台之報恩天台舊無律宗堪與大卿齊公議

合十寺為大刹築壇場命負毘尼學者倡開遮持犯之法風勵新學閩帥王公請居雪峯未幾詔住靈隱嫌偏近屠沽撤其廬揭關飛來峰外避之衛王以大慈完美力請開山允之及王薨乃庵居上柏台州使君陳公以瑞巖邀堪無何江心牒至監丞使公強之乃起淨慈詔下固辭不獲大參余公書來言不可重違君命明年荊湖總臣奏令天下僧眾入訾請紫衣封號者許之堪獨憂焉慨然謂所知曰朝廷果如是則千金之子皆得主法吾道殆矣乃奏疏論之其事遂寢終宋之世法之不壞堪之力也詔徙天童辭而東歸翠巖育王虛席有旨起堪再辭不允天童書至大參趙公請主淨慈謝之以疾俄書遺表艸啟與張公請主後事通守永嘉曹公來問疾猶從容敘世次頃之書偈曰業鏡高懸七十二年一槌擊碎大道坦然擲筆而寂

宋餘杭白雲庵沙門釋清覺傳

釋清覺字本然姓孔氏曲阜人少穎異別羣常有逸志偶讀法華經因之有省竟爾出家元祐八年至靈隱後建白雲庵以居開闡玄化自立一宗曰白雲宗大觀時毀教風熾清覺著證宗論多所辨正指斥當時為忌者發之編管廣南思州後放歸作偈投太守游公指日為別至期而化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妙高傳

釋妙高字雲峰長溪人母夢池上嬰兒合掌坐蓮花中兩手承之舉抱入懷覺而生子因名夢池出家見無準於徑山準器之擬以侍職辭曰一事未明不徧參諸方不止遂之育王見偃溪聞即請入侍掌藏一日溪舉如水牛過窗櫺頭角四蹠過去如何尾不得過高有省答曰鯨吞海水盡露出珊瑚枝溪可之會蔣山虛席直指僉議無以易高朝旨從之歷十有三年眾逾五百德祐乙亥亂兵入境焚毀廬舍寺幾不保有軍卒數人迫高求金高曰此荒寺貧僧佈施久絕何從得金卒怒以刃臨之試摩其頂乃延頸曰欲殺即殺非汝礪石辭氣雍容了無怖畏軍卒斂鋒而退伯顏丞相見之加敬舍牛頭齋糧五百石寺賴以濟伯顏且誡諸將曰此老僧非常人宜異待之以故寺得無恙

元磐山甘泉普濟寺沙門釋祥邁傳(辯的達拔合思八 福裕 從

超 德亨 從倫 圓胤 至溫 明津 本璉 道雲 了詢 慶規 行育 道壽 相叡 善朗 祖珪 元一 貴吉祥 倫吉祥)

釋祥邁字如意姓延氏太原人系出延讚累世纓冕播遷代郡因家焉九歲落紺隨師請業棲隱磐山怡性林泉博通內外尤善屬文凡所撰述辯才無

礙衛道功多至元中全真道士丘處機李志常史志經令狐璋等竝為鄙詞排毀正法時蜀賓大師蘭麻總統少林福裕以其事聞憲宗英敏召集僧道二家互相辯析以勝負為斷而帝師辯的達拔合思八與燕京圓福寺從超奉福寺德亨藥師院從倫法寶寺圓胤資聖寺至溫大明府明津薊州甘泉山本璉上方道雲北京傳教寺了詢大名法華寺慶規龍門行育大都延壽寺道壽仰山寺相叡資福寺善朗絳州祖珪蜀川元一十餘人抗聲高論義理堅卓機辯警敏卒使道者屈伏如約行罰樊志應等十有七人詣龍光寺削髮為僧焚偽經四十五部天下佛寺為道流所據者二百三十七區至是悉命歸之蓋道家經文傳訛踵謬有言入火不焚入水不溺者乃於廷對時令道者張宗演祁志誠李德和杜福春四人佩符入火自試其術四人皆惶恐自陳妄誕入火必為灰燼實不敢試但乞焚去道藏於是始就大都憫忠寺焚化偽經報恩寺林泉倫吉祥奉勅下火翰林學士王磐等為書其事之始末刻之碑石祥邁證悟超羣推勘入細躬與廷爭持論淵妙因奉勅撰辯偽錄五卷其自敘略云嘉聖主之神聰美少林之雅對聊憑正典斥破狂譚塞妄說之根源倒邪山之林藪且條數件舉一例餘俾金鑰別色涇渭分流為暗室之夜光作幽衢之曉鏡如彼所說良不誣也同侶貴吉祥亦為之序稱其所著文賦注解四經序韓文別傳性海賦諸篇在世已傳茲論五卷二百餘紙窮釋老之淵源分邪正之優拙尤為造理深奧剖解精詳云今其書當清順治間重刻于嘉興楞嚴寺般若堂主其事者徑山徹微印開也

元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鑄傳(止嚴 寶淵 惠溥 自智 福

明 自善 明見 至悟 宗元 至福 至榮 紹中 虛谷 福資 廣銘 福祐)

釋廣鑄字鍾山未詳所出族里元至大中敕主玉泉禪藻蘊藉翔聲士林會好事者欲毀唐賢題碣鑄請于有司移之寺傍自撰跋語其略云玉泉覆船蓋神龍宅也自智者大師開山二神護法高僧碩德繼續提倡遂為楚漢叢林之首殿堂樓閣歲時增修方丈而上懸崖峭然亭觀相望曰楞伽峰曰慈雲曰山月曰松風曰惺惺曰彼岸曰翠寒亭危徑曲折迴隔塵凡巨棟飛甍修篁古木參差于煙雲杳藹間得唐代名公曲江諸賢題詠而覆船之名增重於昔逮宋真宗景德初元頒賜田莊二所越四十餘載至慶曆八年荊門太守謝侯與悟空禪師撰錄唐賢題詠八篇大理評事張公為之序鑱石于郡亭至大辛亥又歷二百六十餘年矣近歲泉上碑刻率皆散失而此碣亦為好事者取去深慮璣珠錦繡久即漫滅負前人之盛心因請于郡侯杜公迎載而歸蕩拭塵垢表而出之以補山中之缺文云爾皇慶元年入都朝覲親聆天語錫號佛光慧日普照永福大師並賜紫衣金盃甘露有勅護歸都城法侶思議功德止嚴首倡賦詩祖餞碩德名儒依韵賡和累軸盈篇荊門太守杜公州判李公邑令達魯花赤那懷勸之立石以彰寵惠首座寶淵字古源道行高卓詞翰清超為之作記詳具別集是秋復命惠溥取寺中田土

四至遺蹟碑文彙奏呈覽特蒙俞允照勘明白給付搭牒勒碣于寺溥好清修而勇於護法極其苦心與淵同志宣之出世皆屢詔不行淵後坐化于寺溥則隱于翠寒絕頂以終鑄住山五十餘年事理雙融性修一貫嘗與自智福明白善明見輩舉揚向上不落言詮而維持像教則使至悟宗元至福至禁諸子各闡厥力一時宗門鼎盛海內賢宿聞風戾止有若能仁寺寶淵由建康而至南源寺紹中由江西而至徑山寺虛谷由浙江而至而僧錄司福資又來自徽州相與講肄經論研晰秋豪居常千僧環繞四眾傾心法會之盛遠追梁隋近接唐宋故能作衛道之干城泯無形之外侮以至正元年八月望日中夜而寂壽九十四臘七十二塔于羅漢山麓鑄示疾時奏請廣銘繼領院事先是延祐間黃門伏氏妙善捨宅為寺賜額永福命銘主之及至玉泉學徒日眾銘造大鑊三以營日膳會元季荒亂寺眾散逸銘攜幼弟廣鎮匿于深山艸衣木食卒老于是又鑄弟子福祐者生而穎悟迥出凡輩少慕鍾山之道不遠數千里步至當陽從鑄薙染長乃受具專精毘尼兼習經論嘗為侍司服執勤勞會鑄入都朝獻祐與隨至燕山見幻堂講主大邕佛旨心竊慕之因請於鑄得與幻堂研窮講席徧說諸經獲其法要已而辭歸有翰林侍講揭傒斯者賦詩餞之其詞曰學道玉泉寺從師天子都流年春事半歸路客帆孤山勢遙連蜀江聲不入吳故園如可到種芋有餘區當時文士縉流屬而和者頗復不尠然其詩多佚而不傳祐至玉泉大弘講肆力振三學成就新進利物為心於寺中舊文保護尤至以順帝至正十年八月朔旦集眾號佛趺坐而化塔于鍾山之側

- 護法篇第五之二(正傳六人 附見四人)
 -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慧曇傳
 - 金臺永壽寺沙門釋思敏傳(邃庵)
 - 杭州靈隱寺沙門釋德明傳(真祥)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心傳
 - 燕都普濟寺沙門釋自成傳(覺滄 本在)
 - 杭州淨慈寺沙門釋道富傳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慧曇傳

釋慧曇字覺原姓楊氏天台人也母賈氏夢明月自天而墮取而吞之遂有娠及生容貌嶷如不與羣童狎每入塔廟輒對法王瞻禮父母察其有方外緣使依越之法果寺誦經論年十六為大僧受具戒已而學律於明慶杲公習教於高麗教公精進力久忽自歎曰毗尼之嚴科文之繁固吾佛祖方便示人若欲截斷眾流一超直入非禪波羅密曷能致之時廣智笑隱訢方敷揚大法於中天竺海內仰之如景星慶雲曇往造焉備陳求道之切廣智曰從外人者決非家珍道在己耳奚向人求耶曇退凝神獨坐一室久之未有所入廣智一日舉百丈野狐語乃大悟曰佛法入我手矣只為分明極翻成所得遲廣智曰爾何所見敢大言邪曇展兩手以示廣智頷之乃命侍香天曆二年己巳龍翔新建文宗命廣智為開山住持曇實從之為掌藏鑰明年庚午廣智如燕都見文宗於奎章閣同行者皆股栗不能前曇獨神氣恬然廣智歎曰真吾家師子兒也及歸寺新鑄銅鐘成廣智曰非福慧兼美莫先鳴鐘乃命曇首擊之至順二年辛未出主牛頭山祖堂寺曇畚剔穢荒為之起廢使殿閣一新且改其號為祖山寺至正三年癸未遷清涼廣惠禪寺曇復自擲節使有餘貲興葺頽廢帝師嘉之授以淨覺妙辯之號尋遷保寧十六年丙申明兵取建業曇謁太祖於營門見其氣貌異常歎曰此福德僧也命主蔣山太平興國寺時當儉歲香積之供恃有檀施眾無匱乏山下田夫多隸軍籍曇懼寺田蕪廢請而歸之山中林木為樵者翦伐又請而禁之踰年丁酉詔改龍翔為大天界寺命曇主之每設法會曇必升座舉宣秘要車駕親臨恩數優洽遠邇學徒聞風奔赴堂筵至無所容先是僧堂寮庫有司權以貯戎器久而不歸復請於朝太祖乃命相國李韓公出之且御書天下第一禪林縣之寺門洪武元年戊申春三月開善世院秩視從二品特授曇演梵善世利國崇教大禪師住持大天界寺統諸山釋教頒之誥命賜以紫方袍時章逢之士以釋為世蠹請滅除之疏再上太祖以其章示曇曇曰孔

子以佛為西方聖人以此知真儒必不非釋非釋必非真儒太祖亦以佛教陰翊王度又善曇言毀釋之議遂寢又聞寺僧多行非法命曇嚴馭之曇但誘以善言諸部沙門污染習俗者咸思蕩滌不悖教範二年己酉冬得瘖疾始罷院事三年庚戌春三月疾良已夏六月奉使西域四年辛亥秋七月至省合刺國宣布威德其國王感慕館於佛山寺待以師禮九月庚午示疾甲戌見王自陳欲歸之意王令名僧咸來相慰乙亥浴沐更衣呼左右曰余不能復命矣趺坐夜半問日出否侍者曰未也已而復問至於三四曰日出矣恬然而寂明洪武四年辛亥秋九月丙子也踰五日貌如生國王大敬歎聚香代薪築壇而焚之王率百僚至壇下命比丘千餘旋繞誦諸陀羅尼呪至火滅方已拾靈骨祔葬其國舍利塔中七年甲寅秋九月丙寅天界住持宗泐始奉遺衣藏於金陵聚寶山兩華臺傍曇廣頽豐頤平頂大耳顏作紅玉色耳如白珂目光炯炯射人學者見之不威而懾及即之也盎然而溫若有所叩隨機而應未嘗務為奇巧聞者自然有所悟入其毗翊宗教無一息或忘廣廈細旃之間從容召對據經持論每罄其蘊蓄松園之復釋氏私租之免皆曇所請也弟子法印淨戒輯其行事乞金華宋濂為之銘具文憲集

明金臺永壽寺沙門釋思敏傳(邃庵)

釋思敏字徹空姓張氏睢人也早歲就讀有志超塵禮師永壽落髮金臺割愛棲真緣理明要參煙霞於南山求印可於西蜀利濟居心大法自在嘗于荆南挂錫普仰徧探三藏深究一乘披覽玄文見起世因本經再四玩味研窮奧旨斟酌頗多以是經為世尊于舍婆城迦利羅石室中從禪定起因諸比丘疑世界成立散壞安住諸事而問世尊以四量心觀根受法而答也謂一切世界各隨業力而起成就考其大略謂三界之中總有三十八種眾生十虛之中多譚百億千端苦樂憑十善則世界成住造十惡則劫數壞空三界彌綸水火風壞而復成三劫周徧刀疫饑極而復善明晦相推寒暑更遞轉一氣而坤乾圓融見一心而法界齊彰故經云三界無別法唯是一心作揭其秘鑰的示於人誠足統攝萬彙同歸一源思敏既經研討慨竭悃忱重鉞諸梓以廣其傳乃屬邃庵而序之邃庵者自號泉石野人未詳所出博通梵典善于詞翰乃曰猥承嘉命難克固辭以一豪之滴露添性海之微波希俊舊執庶改前非同躡先聖之遺蹤共仰覺皇之慈敕塞邪徑而闢正塗堅信根而拔疑刺越三宥之苦津入普賢之願海聊述弘綱敢逃諂讓厥唯佛眼證茲微誠云云文義斐然詳具別集時明正德五年也

明杭州靈隱寺沙門釋德明傳(真祥)

釋德明字前溪姓林氏黃巖人嘉靖間主靈隱值海寇肆虐焚蕩湖墅山後西溪男婦紛紛遷徙踰嶺避亂寺僧皆以寇必至議棄寺散竄各圖自免德

明獨倡合眾結臺阻絕大道聲勢相援力主其說百折不撓寇亦不至又為粥以食貧餓於是人有固志寺賴以全年八十有一而寂當海寇時督府欲取寺鐘以為兵器僧苦不能守有僧真祥者獻以詩云百八鯨音吼地鳴篁溪檀越鑄還成曾聞兵器為農器豈忍慈聲作惡聲一統版圖何及此千年舊物敢云爭山僧最苦多遺譴宦游從今失送迎鐘由是得存又督府胡公方治舟師嚴防海盜工師四出以求大木故家邱隴多不能免獨靈隱九里松得全僧亦有詩云不為栽松待茯苓只圖山色四時青老僧終不將歸去留與錢塘作畫屏蓋松為唐時古蹟得請於胡督禁止斬伐皆真祥之力也又山中有寺基久圯勢家將侵為葬地僧感之以詩曰一帶空山已有年不須惆悵起頽顛道傍多少麒麟塚轉眼無人挂紙錢勢家聞之遂止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心傳

釋寂心字精齋性果敢負氣不屈必直之而後已與人語常自斂退訥訥如不能言眾皆異之師事少峰為中峰法派也嘉靖庚申邑有太史某者父喪擇葬地形家妄指雲居為吉壤乃嗾當事毀寺宇驅僧眾眾俱畏宿匿不敢抗往往自散去存者無幾寂心獨謂少峰曰師主僧也亦棄地他徙乎如祖德何少峰辭以弱且方外無助不能與勢豪敵寂心大慟曰吾寧死誓不令此寺作丘壟日夕禱于土地神忽見一老人曰土神泥偶耳禱之何益寂心長號不顧祈請益力老人撫其背曰雲居山有王者氣太史謀之是何意回視之已失所在遂書此二語揭之通衢且訴于中丞太史聞之驚急語中丞欲得寂心而甘心焉中丞者固太史門下士也授意有司立拘寂心于堂下杖斃之被拘之時寂心謂少峰曰此行必死死則寺可無虞是死賢於生也大笑出門臨杖乃大[言*乎]曰願中丞為朝廷保禦封疆如僧足矣暴其尸數日顏色不變太史慚阻寺賴以全遠近壯其義烈祭弔者以萬數至今寺僧崇祀之與中峰埒後數十年明給事戴鳳翔紀其事都綱良縉里人諸應麟住持性哲為之立石縣令胡作柄復為之傳云

明燕都普濟寺沙門釋自成傳(覺滄 本在)

釋自成字寶藏姓劉氏德人也幼習鑪工在鉗鎚間即知以念佛從事父早喪事母以孝年三十有出世志從歷下鐘樓寺潭師薙染即立禪習止觀門成將行腳慮母老無以為養乃以具稱其母荷擔之遠遊四方每乞食奉母於樹下菽水為歡不減鼎俎後至燕都往來西山百花中峪棲遲數載相狎已久人多重之其養日益瞻然一瓢之外無餘糝以此終母天年母卒以茶毗法葬之眾為建窰堵波以表其孝義土人稱之至今成既葬母專志清修乃結庵於大峪岳家坡傳中貴欽其高行請主都城普安寺未幾白衣張居士造普濟庵於阜城闔外四里園以待水雲延成居之會大虜犯京師都城

三面受敵率多奔潰唯西郭一面將合圍虜酋引數千騎馳至庵前酋趣入庵眾擁其後成望見之頽然憨笑曰毋動我物毋折我木毋毀我屋時在八月秋果方熟柿燦如火羅列階前虜爭取之成曰此不可食酋以為誑強食之甚苦澀成乃奪其柿更進以蘋梨虜噉而甘之驩呼以為不欺己因誡眾曰有人於此毋妄殺也為下令旗而去俄而一虜逐王氏子入庵奔潛佛座下虜窺得之刃將及肩成以手挈虜奪刀擲地其人竟賴以免居頃之虜亦稍引去然成每以一身當眾虜指麾譚笑間所全活者無算云事在嘉靖庚戎秋也餘杭韶善士者感神示兆為成供養傾心歸依建彌勒庵以延成成居常清潔不事蓄藏衲衣敝帚一鉢無餘苟得施捨復傾囊以濟貧人若遇乏絕更不乞請唯以坯堵門面壁忍餓而坐久之有知者饋以米麥食盡則堵如故習焉安之率以為常後修普安寺乃復歸院弟子日益進有覺溘者執業甚勤成更多方苦之祁寒溽暑陸沈賤役百不一可無人識其意者及將終顧謂眾曰吾之有溘猶樹之有幹至若枝葉繁茂扶疏而庇蔭者多矣汝知之乎未幾無疾而化時嘉靖三十九年二月朔日也壽八十有九僧臘五十有奇成滅後溘大興普安寺神宗改元時聖母建慈壽寺使溘主之成再傳弟子本在繼其席以疾告退慈聖太后為築別院曰慈恩以休老焉其枝葉蓂茂一如成言

明杭州淨慈寺沙門釋道富傳

釋道富字了然錢塘人也妙歲離塵始習經論朗然明徹不滯於懷長事游參名山耆宿多所印契聲譽攸暢嘉靖時奉剗付來主淨慈至則修葺山門整理頽廢羸有端緒而海氛不靖倭寇日熾遂圍杭城巡撫李天寵將廢樓鐘以為兵器且欲焚寺恐屯倭寇富聞之抱寺勅泣於轅門以求庇護巡撫卒為感動因之獲免先是昭慶寺已罹災燹折毀之命勢將及淨慈非富之精誠泣懇不同付劫灰者幾希當哭請時人多危之咸謂兵戎大事况禦外寇國土不存鐘於何有撫軍生殺在手不幸而犯其怒責以貽誤戎機罪且不赦可奈何乃富振勵直前以為無鐘是無寺無寺是無僧無佛也吾寧捨身以餌虎口耳雖白刃可蹈百折不回也矧哀而求之者未必即罪罪亦未必即死乎及請之而得人又感稱富具大願力真勇智非庶幾微倖者所能企及也

- 護法篇第五之三(正傳十一人 附見十一人)
 - 清燕都廣濟寺沙門釋寬壽傳
 - 四川昭覺寺沙門釋離指傳
 - 雲南雞足山蘭陀寺沙門釋道足傳
 - 江寧古林寺沙門釋本修傳(續悟)
 - 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了然傳(悟春 凡滌 超塵 一滅 智林 明道 凡超 了因 淨因 木森 舉聖)
 - 丹徒焦山自然庵沙門釋修敏傳
 - 長沙麓山寺沙門釋芳圃傳
 - 樂清白鶴寺沙門釋華山傳
 - 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復餘傳
 - 金陵毘盧寺沙門釋顯文傳
 - 常州天寧寺沙門釋清鎔傳

清燕都廣濟寺沙門釋寬壽傳

釋寬壽字玉光洪同人也少從廣濟洗元參究會明季寇亂京國殘破乃潛跡南下隱遁名山翛然自遠清順治五年河朔救平民慶更始步禮五臺回翔都邑時恒明方閱法會欲以慈悲福果化誘諸藩勝其殘殺欽壽道矩迎入方丈杜門卻軌與人坐對終日無一言夜則焚香秉燭兀首躬躬危坐達旦寮侶見之罔測高深及夫履席說戒辨言侃侃條理清晰一歲三期昕夕無倦主斯講席十有三載出其門者數千人世祖龍興肇有諸夏萬機之餘雅慕禪悅十三年冬幸臨廣濟住持德光入報曰皇上駕至奈何壽方瞑然入定聞德光語啟視曰親近老僧耶何不入德光曰疾趣迎駕且至矣可奈何壽不欲出眾皆惶遽而龍輦已駐山門侍衛傳呼甚急壽猶不行眾強扶之下殿望見鑾儀眾僧皆蛇行匍匐伏壽獨屹立世祖見之勃然作色壽緘默屏息容貌舒泰邈若無睹頃之天顏微霽始如正殿德光指導隨侍壽瞠之以目已而趨歸方丈及回鑾將發世祖指謂德光曰老宿崛強如此德光惶恐謝罪車駕還宮終日不憚復遣侍衛至寺問曰不接駕出何經典壽抗聲曰出梵網經菩薩戒中因檢經與侍衛曰可呈皇帝鑒侍衛馳去寺眾惶然相顧失色而壽徜徉自若世祖展經歎賞久之越日召入椒園壽不欲往眾勸之曰師獨不保障此山乎乃步入西華門至萬善殿眾善知識皆在壽迺南向趺坐俄而傳呼駕至眾皆驚起趨階長跪壽獨默坐略不為動世祖前席曰和尚好否則對曰好無他語賜食畢即曳杖出世祖指示眾僧曰為佛

護法不當如是邪由是重之賚予有差王公卿士聞風嚮慕禮謁不絕十六年冬傳旨闕法賜衣鉢者七百五十人十八年世祖崩壽率眾哭臨歸而太息曰大行升遐我亦無意人世矣以是年十二月二十四日示寂茶毗得舍利六十餘粒壽八十僧臘五十有八

清四川昭覺寺沙門釋離指傳

釋離指壁山陳氏子生有奇氣傲骨孤高既改僧服本分鍵鎚誘掖方來人或難之及受破山明記翦見諸方汎汎莫為砥柱作濫觴集以糾之明季妖教流行浸及川蜀離指著論辯之斥為邪說而教徒慚沮亦自引退嘗以偈示眾云今朝又十五前後卻慵舉爾我非等閒歲月如狂弩大家團圞頭集賢山共處老屋三五層間雲百千朵謾支折腳鐺拈起爛柯斧饑將脫粟炊衣裁荷葉補佛法不須學一一超今古珍重諸禪人抖擻試甘苦又散淡歌雨瀝雲凝幾度秋而今潦倒任風流可憐不遇知音者默默徒勞雪粲頭大丈夫應自健當斷不斷招其亂吹毛匣裏冷光生順逆縱橫靡不見言非清行非律動人齒頰頻瞋目可似尋常新婦兒閨閣停針倦出沒不重真不惡俗鎮日如斯試甄別蕭蕭且學一陶朱謾鑿腴田消歲月每自笑還自哭啞舌吻脣甚麼物大抵還他作者知重疊三三即六六以康熙二年癸卯十二月十一日示寂遺言閣維粉骨為餅葬之江中離指初居昭覺寺闡化有年學者歸之每有論說直指人心啟迪者多晚歲徙居新繁西河寺遂終於斯壽六十夏臘三十有五

清雲南雞足山蘭陀寺沙門釋道足傳

釋道足字大藏姓韓氏昆明人也年十六投雞足祝髮師事蘭宗受具於野愚愚導之參學時江淮間法席之盛無如金粟博山乃首謁金粟頗邀獎勸繼歸博山勤研數載遂獲證許但博山道範崇高法門嚴峻不輕付授而身後留六偈傳六弟子道足其一也明季中原荒亂避地百粵闡化蠻服時尚書熊文燦聆其清問迎之東粵主七星巖已而歸滇復棲雞足癸巳蜀王入山訪求高行或貿然應召王問達摩面壁作麼生僧答不稱將毀其寺後聞寺有道足我法雙空欲相證明召之不赴枉駕就之復舉前問道足應聲曰待個英雄來觸機王即下拜曰是吾師也法以不滅清康熙初主昆明白衣庵庚戌七月二日示微疾與諸弟子訣別申言明心見性之旨甚悉雞既鳴端坐索茗再飲而終龍眠方咸亨為之序錄方孝標銘其塔

清江寧古林寺沙門釋本修傳(續悟)

釋本修字明空姓翁氏無錫人初出家於溧水道光時始來古林受具足戒為續悟所知賞遂付以法悟本儒學文理優贍沈滯名場忽感身世乃超塵網竟從荆落既窮梵典深入佛海然於人少許可獨見修知為法器道光四年春悟寂後修遂繼席主持十五載律已以儉馭眾以寬生平無疾言厲色氣度溫恭舉止爛雅出自天然制府將軍以下莫不交游一接以誠聞其妙要多與之化寺後山崖峭壁層列徧植花艸有曰秋海棠者每當玉露霄下金風晨颺此花鮮豔掩映秋光一佳景也省中官吏歲有讌集竟夕方散又有白鷺千百成羣夕陽西下之時人影在山白雲無際翔集樹梢蒼松翠竹春鳥秋花飛鳴應候點綴成趣誠足鬯發玄機助我禪悅乃海禁既開商舶互市波斯酋長素好鷺羽以為冠飾中土獵者希得厚利日負彈丸伺寺左右修惻焉閱之白於長官謂選佛勝地端賴護持飛鳥游鱗各任造化飲啄自天何害於人若聽彼所為不加制止既戕生命有愴慈懷且殺風景殊乖雅教於是官吏感動訓諭惶惶東至鼓樓西至城隍南起清涼山北抵妙耳嶺皆為禁地而將軍每歲正月更出新示如換桃符乃推廣厥惠設養生所放生池自爾以後古林之中魚樂於水鳥安其巢悲閔之念洽於庶物法旨弘施不可言喻矣以道光二十一年十二月十八日示寂壽七十有一臘四十有六塔於新院

清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了然傳(悟春 凡滌 超塵 一誠

智林 明道 凡超 了因 淨因 木森 聖舉)

釋了然字月輝姓雷氏寶應人也賦性堅忍不慕浮榮少遊盱眙入一蘭若林木幽靜耽憩忘歸遂爾捨身研求梵典精進無已既受具足持律尤嚴發腳行方遐邇企止道光丁未來主焦山時定慧寺殿宇傾敝欲事修葺歲在己酉江水暴漲漂沒無算民力窮困物食維艱勢難興舉會大府陸公立夫雅契名山崇修福果彭都轉玉雯養疴庵中從容告語曲為陳說終如所請因訪匠求木計日程工隆隆大雄更超前槩乃歲不一周粵寇東下鎮江失守居民惶恐紛紛遷避山中舊侶各謀遠徙咸相怵曰賊已登金山矣此必不免盍去諸了然獨毅然曰若吾屬皆去如此山何吾將往說之因與其徒悟春諸人議曰怯者弗留強志堅決死守弗去者得同志十二人曰悟春凡滌超塵一誠智林明道凡超了因淨因木森聖舉皆矢誓居守悟春字流長姓金氏監利人幼為江陵莊王寺僧得具萬善寺長游洛伽峩湄皆窮其勝不以艱阻見止後歸焦山徧讀三藏經論律儀皆通大義咸豐三年春二月粵寇東下陷金陵鎮江維揚所過殘滅讐視二教梵宇道觀焚蕩無遺焦山環向三郡中江而立扼長江之隘用兵者所必爭三郡既陷知寇當來乃議一往探之了然悟春遂相攜入城見寇酋羅大剛陳說利害大剛故鄂人悟春操鄂音感以鄉誼然大剛貌絕羸惡徧體黑毛常裸身入陣被髮覆面以口銜刀人莫敢近及覩兩僧清辯哀顏愍懷戚戚亦為之動竟允其請書紙

懸寺門禁止踐踏而金山北固已相繼燬滅煙燄霄舉火光徹夜照江中人聲叩呼水波若沸了然但與諸弟子默念佛號禱求護佑而已凡滌者字漱波丹徒王氏子依松寥閣秋巖出家首發守山之議有日記紀事甚詳性節儉能儲所入以資興復盡改舊觀凡超為海神庵主木森為別峯主聖舉為香林主了因淨因同居水晶庵淨因後至金山規復江天寺終於副寺超塵一誠智林明道皆隨侍了然分司執事山中彝鼎法物尤為寇所欣羨嘗擁眾入山即詢周鼎漢鑪伏波銅鼓安在幸寺僧蕤藏卒保無恙了然亦終于此寺

清丹徒焦山自然庵沙門釋修敏傳

釋修敏字定峯一字耐庵姓任氏丹徒人也方九齡祝髮於自然庵禮玉衡平心為師地擅江山之勝游客登臨日不暇給積累既鉅幾無可支及敏繼席清檢舊逋虧金三千遂一意撙節卒償所負更以餘貲重新宇舍臨江右岸建觀音閣為文人燕息之所又以定慧殿棟年久荒殘金像露坐慨然以中興為己任道光庚戌夏南州彭都轉玉雯避地養疴假居寺寮敏偶從譚論得申其請兩江制府陸公立夫輸三千金踰月而輪奐蔚然更廓舊式咸豐庚申英吉利至天津議和開五口商岸於鎮江設領事稅務時潤城猶因髮寇戒嚴不得設關建署乃移焦山稅務司者已踞松寥閣麾其主僧出領事至自然庵麾敏曰去去敏若不聞也者因復語之曰爾不解邪敏曰解則解矣屬有所思耳吾意中西雖別國禮無異今日可奪吾庵者他日亦為人奪何必自君始邪領事默然後欲去佛像亦為敏所折服領事知不可奪立約租為賓主焉然西人性樂山水尤喜高曠自海門溯江而上焦山屹立中流形若砥柱南屏象阜北帶沙州波譎雲詭旦夕數變屢欲購地築室以為游息終以敏一言而寢其事故西人雖久寓山中不得置一椽者敏之力也平昔虔心焚修寺規整肅中外欽之以同治甲子四月二十七日示寂塔於城東萬壽寺雲山陳任賜為之傳楊葆光竝記其與英人問答詳具山志

清長沙麓山寺沙門釋芳圃傳

釋芳圃字笠雲江寧陳氏子幼即披薙於長沙黎仙庵性聰穎過人讀書妙解義理尤工書法喜賦詩以暢禪機復有志名山負擔跋涉雖歷險阻亦無懼怯光緒初元繼席虎岑與山長徐樹鈞相往還結麓山蓮社唱和無虛夕由是聲稱嘖嘖公卿間已而復主上林杲山會曾太傅祠成召僧居之僉曰非笠雲不可既處省垣文譙日盛湘中名宿若王湘綺郭筠仙皆與酬答詞翰舛然庚申更游上杭姑蘇歷覽名勝弔古遣懷間有述作仁和徐太史花農素欽高望雅企芳躅甫聞其至走簡迎之相見甚驩為卜西湖孤山修復寶成寺以處之乃工作方興而笠雲還湘太史因[片*(一/(句-口+方))]

其室曰留雲以寄意焉笠雲亦感念己丑重至江南頗尋舊約扶筇緩步拾級登臨名藍勝蹟多有題詠具見詩集壬辰夏始還故居發篋遙吟檢拾餘藁藉愉晚歲及戊戌政變事言龐雜新說盛行競立學堂強侵寺院摧殘教宗以奪僧產將無所不至笠雲甚憂之值倭僧水野梅曉尋法南嶽道出長沙久慕道聲逕來參叩諮詢之餘為述日本佛乘隨潮流之轉移與國運以俱新種種業力不外興學欲謀保護教綱暢弘佛旨無出此者笠雲頗為之動明年遂假開福寺剏立僧學并設佛會推笠雲董之而奪攘之風稍息乙巳春又以水野之言興浮海之歎率門人筏喻道香航瀛東渡著有東游記凡所經見東西兩京佛寺僧學及扶桑風景政教習俗莫不言之甚悉而與倭人題跋詩篇甚富索書者紙素滿前日不暇給方訊歸期而倭僧百十相留不捨及將別時請其敝履存為遺蹟景慕之殷于斯可見既歸了知教之隆替在乎繼起有人于是培植後生宏獎新進以為己任而麓峰蔭禪諸子扇其餘風聯翩東渡為僧侶游倭之漸云笠雲以光緒戊申年示寂壽七十有二戒臘六十所著有聽香禪室詩集若干卷

清樂清白鶴寺沙門釋華山傳

釋華山字雲泉姓陳氏樂清人也生有奇資氣宇清峻十歲出家於雙獅山淨濟寺禮允參度為沙彌初習教乘敏慧天鍾光緒十一年聽大海講彌陀疏鈔輒能依所聞義對眾敷演時年近志學人多驚歎後得戒于明因寺寶祥遂游學明州廣利寺從曉柔妙智二師習天台於弘綱要旨了然解悟梵唄之暇兼嗜文學吟詠山水自適性情尤善繪事中歲徧游名勝歷躡講筵所至之域靡然從風道譽日隆顧操行刻厲不欲以辯慧自見嘗閉關於淨濟寺忽焉三載又結茅天台深處不入塵市者幾易寒暑三十二年春講妙法華經於臺南五峯流慶寺已而言旋東甌復奄關於法華寺會世變方棘學風日壞僧綱不振州縣競立新學往往假佛寺為校提僧產充之而緇林騷然始謀自保山方厭棄牙慧研窮玄理博極中外哲學羣書宗教典籍天文格致唯物唯心諸學說靡弗貫通會彼萬殊融入佛乘故發論錚錚羣相折服始得請於學部行省自設僧學立佛教會前所侵借率多歸返山啟之也宣統二年春講經于靈隱未幾為諦閑要任佛學編輯而浙西當湖寶塔寺本山提倡淨宗者又請講彌陀疏鈔法雨繽紛席不暇暖後因興復鄉寺重修白鶴改為叢林不數年果於荒煙中化為寶坊佛光道聲與東南諸名剎相暉映而山竟超然善去功修俱圓蓋寂於戊午九月二十日也著有卮雲詩稿一卷為當代詞家所稱賞云

清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復餘傳

釋復餘字本忠號道南姓羅氏南平人也父紹德母氏朱家世耕讀力崇儉素餘生性穎異頗軼凡童九歲隨母省舅舅奉佛唯謹餘因問曰佛何人也舅乃以出家成道了明生死雅意[諒-小+日][諒-小+日]為餘說之由是有謝俗心年二十五始禮鼓山湧泉寺徹悟落髮初聆淨土法門即夙夜禮誦無倦容逾年從妙蓮受具益加精進妙窮玄旨嘗答張寶池問金經四句偈曰金經以蕩相為宗不外遮照兩用遮則除執而顯真空照即成用而顯妙有蓋相盡則體現而妙用隨此經中密意也又復依真故則一相無相而不壞假名依俗故則萬法齊彰而體原空寂不壞假名故即不變隨緣所謂無所住而生心彌陀所以不捨眾生也體原空寂故即隨緣不變所謂住即非住是以感應道交也此空有亦空亦有非空非有即經中四句偈義也又云禮佛不可有我有我則慢生念佛不可無我無我則無佛凡所論說身心體驗多成妙諦當妙蓮初極樂寺時邀餘佐助猶以理未達而涉事恐從迷積迷為弊固請乃行至則為之董飭工役擘畫材用蚤夜孳孳罔言勞瘁及院宇落成率爾謝去庚子主鼓山戒壇逾年住建之光孝寺未幾引退南遊緬甸遂歷印度禮諸勝蹟參叩哲匠多所啟悟但道塗深阻跋涉艱辛還至緬郊已亟勞痛夢一老人授藥三丸吞之而瘥晨視淨水盂中鏗然有聲瑩瑩三舍利其二且緣登盂上忽而墜下至今照耀佛前其靈感如此歸而重葺光孝而妙蓮復敦迫南行方屬以極樂主席會國事多故中外騷然侵奪僧產強假佛寺別立私會所在見告怡山鼓山幾且不保餘乃內渡滬濱要約諸山長老謀以自存因偕寄禪入京請開佛會俄而寄禪寂於都門羣相氣沮餘獨慷慨自奮悲涕陳詞為寄禪追悼且言外人覬我教產日以強鄰代保相誘聒僧侶無知多為所煽政府何不一援坐使暴夫為淵毆魚盡入其網於是弔者麇至名公巨子多據樞要羣相感動而總會規條得邀允許保護寺產之命隨之而下餘始還閩組南洋支部而駭浪驚濤漸告寧息餘專修淨業垂數十年雖在奔走而其誦禮未嘗少輟檳嶼士女沐其風化歸心蓮社數逾千人著有淨土法語一卷

清金陵毘盧寺沙門釋顯文傳

釋顯文字魁印姓楊氏易人也幼有慈性與羣兒嬉戲見草蟲躍躍相誡勿傷父知其有自年十一送之永陽高明寺投覺實祝髮弱冠得戒於西域山慈霞自是識深力果每念出家將求聞道何敢自逸迺遊溫陽紅螺山晝夜精勤誦楞嚴法華諸經研窮六載洞悉奧旨然自以為囿於一隅見聞憾寡欲徧名山以廓知識遂造九華翠峯日趨講座頓悟性海受持華嚴如來出現品遊江乘赤山依法忍參向上一宗偶逢石子擊足忽驚呼有省由是深窺堂奧結習盡除壬寅春結茅廬山旦暮勤修翫不著席幾出死生劉觀察思訓耳其道譽請主金陵毘盧斯時新學方行倡毀偶像多假僧堂改為校舍毘盧殿宇蚤已佔去神像遷移蒙諸污穢顯文至此怒焉傷之思所以救

護未得其端會江南官吏公讌至寺或詢法要或契禪機顯文為具道學徒
鷗張佛地弗寧慘雨淒風日不忍覩非賴大德莫由保持諸公皆為動容合
詞以請制府魏公光燾竟如其議別建學堂寺復舊觀佛龕神貌更極尊嚴
羣侶慶幸歎其遭逢而顯文但感善緣愧無酬答唯是大闡宗風春夏演講
秋冬勤參發明心地時或弘戒一期食眾數百人而寺無蓋藏前後制府若
周公馥端公方皆分鹽餘助之故無竭乏宣統初元臘將終示微疾與天台
諦閑論慧命當體無生俄而復曰色相雖圓闡揚華嚴心猶未已因問後事
如何乃曰心顯身中主意隱兩家賓火後一堆骨且休認為真即說偈曰參
透人間世事禪半如雲影半如煙有時得遇東風便直向山頭駕鐵船言訖
而寂年五十有三有法語一卷弟子清池為之記錄且刊行焉

清常州天寧寺沙門釋清鎔傳

釋清鎔字冶開姓許氏江都人生含素性不食葷羶年十一出家初習經偈
了明詞義氣宇灑落其師祖蓮庵知非凡器遇之獨厚鎔亦感其恩德情誼
懇至後結茅終南一夕定中若有告者曰爾蓮祖德矣驚[言*乎]而省貿
然下山行四十八日始達維揚入寺其舊侶謂之曰汝歸耶師祖疾亟日夜
呼汝名也其時有先開行者後開三日乃至問何行之速中途胡不遇開亦
惘然莫識所以但覺聞神語即發腳專志覲蓮念念不捨雖行四十餘日猶
旦暮耳蓮見鎔還甚喜而病尋愈鎔少時詣常之天寧信宿而去踰歲再至
入禪堂有悟庵留五載欲切參究不滯聲聞飄然遠舉汎覽名山年三十八
復來天寧再易寒暑遂繼主席自是造殿修塔應念而成勤劬九秋因病告
退而皈依日眾隨意宣示一切平等終日無倦後住杭之靈隱特起大殿使
人敬仰復於上海玉佛寺創念佛堂以弘蓮化會時事改革學風披靡屢攘
寺產以闢校舍常州天寧昔號完富尤為人所窺伺乃善意所孚鴉聲丕變
卒保無事神之佑也鎔之誠也已未北方苦潦開沿塗託盃籌訾濟賑全活
無算明年苦旱開復募金一再濟之勞不告疲人或勞之則曰此本分事何
足道以壬戌十一月二十日示寂年七十一臘六十弟子顯澈哀其事實年
譜莊蘊寬為之傳文誼斐然見重當世

- 靈感篇第六之一(正傳十一人 附見二人)
 - 宋汴京景德寺沙門釋志言傳
 - 福州聖泉寺沙門釋紹鐙傳
 - 上海靜安寺沙門釋智儼傳
 - 溫州沙門釋了興傳
 - 天台常寧寺沙門釋處謙傳
 - 四明雪竇棲雲寺沙門釋知和傳
 - 金燕都潭柘寺沙門釋開性傳
 - 元邢州開元寺沙門釋廣恩傳
 - 潭州天臺山沙門釋彭彭傳
 - 大理沙門釋左黎傳(連精)
 - 晉寧東山盤龍寺沙門釋宗照傳(空庵)

宋汴京景德寺沙門釋志言傳

釋志言姓許氏壽春人落髮京東景德寺七俱胝院事清璲為師璲尚苦行諷誦尤勤言忽造前跪請願為弟子璲見其狀貌奇古直視不瞬心異之為授具戒然動止無常笑語失度或袒裼裹裋旁若無人或書空咄咄佇立不去時行市廛從屠酷遊飲啗無所擇眾以為狂璲獨曰此異人也人有入寺捨施者輒先知其至不俟款扉指名取供溫州人林仲芳自其家以衲衣來獻舟始及岸遽來取去仁宗嘗延入禁中徑登坐結趺賜之食食終而未嘗揖也王公士庶欲與接者召即赴然莫與交一言或陰卜休咎乞書數字則揮翰落紙洒若雲煙初不可曉其後往往多驗仁宗春秋漸高皇儲未定默遣內侍至言所索書言手書付之中有十三郎字人莫測所謂後英宗以濮王第十三子入繼大統眾始驚服大宗正守節持紙求言書言不顧固請得潤州字未幾守節薨贈丹陽郡王見寺童義懷撫其背曰德山臨濟懷既落髮住天衣說法大為學者所宗其前知類此普淨院施浴夜漏初盡門未啟方迎佛而浴室有人聲往視則言在焉有具饌薦鱠者並食之臨流而吐化為小鮮群泳而去海客遇風且沒見僧操紼引舶而濟客至都下遇言忽謂之曰非我汝奈何客熟視之真引舟僧也與曹州居士趙棠善後棠棄官隱居番禺人傳棠與言數以偈頌相寄往還萬里數日即達棠死亦盛夏身不壞言將死作頌不可曉已而曰我從古始成就逃多國土今南國矣仁宗聞之遣內侍就真身安置寺中榜曰顯化禪師後有善厚者禮之見額上熒然有光審諦之得舍利

宋福州聖泉寺沙門釋紹鑑傳

釋紹鑑姓陳氏古田人生時異香滿室紫胞覆首幼不茹腥七歲入塾聰穎絕倫授以經書如覩舊物十年辭親出家禮潭州開福璉為師精通法華試經得度受具之後瓶錫遊方造當陽玉泉芳禪師法席一見針芥相投頓忘荃蹄及還鄉里深自蹈晦郡守嚮道延主陀嶺塔院緇素歸敬一日示疾索浴更衣鳴鐘集眾乃說頌曰吾年五十三去住本無貪臨行事若何不用口喃喃儼然示寂瞑目無聲已踰兩宵偶聞鐘音忽然而甦自是身心澈瑩超然生死元豐中福州大旱太守孫公仰其靈跡延之禱雨經筵既啟甘霖立沛孫公欣慕遷居文殊爾後每逢旱魃郡中官吏輒相祈求府主許公察院王公左司葉公皆先後致敬恭請諷經燈一詣壇誠心持咒雖晴烘烈日曾不崇朝遠眎天色已油然作雲俄而霈然三農霑足人民忭舞年復大有故自燈禱雨十數年間甘澤所降從不愆期遐邇欽企視若神僧後移主聖泉凡三坐道場提撕後學警策尤多上堂僧問如何是聖泉境燈曰目前無異草曰如何是境中人燈曰往來無罣礙曰人境已承指向上宗乘事若何燈曰驢足未去馬足又來因言般若門中縱說百千妙義不增一豪直饒結舌亾鋒豈減少分若論玄之又玄終非沙門鳥道魚蹤早傷塗轍何也蓋為出此人彼去者不至其方來者不得其所舉一明三莫窮厥趣更不用續覺截鶴夷岳盈壑霄壤相望去道轉遠正當與爾時衲僧門下作何觀感良久乃曰昨夜三更月到窗

宋上海靜安寺沙門釋智儼傳

釋智儼者忘其姓字俗稱鰕子和尚居靜安寺舊俗七月望日為中元節村郭設會寺僧赴請殆盡唯儼在寺有胥村人來寺因請偕之會所舟行見捕鰕者儼從買一斗索水啖之謂漁者曰返乃予汝錢諾之及詣齋家但席地一飯而已無翫施還時漁者索錢儼赧然徐云還汝鰕何如復索水飲隨吐活鰕盈斗人始異之將示寂斂蒲草為萬餘繩懸諸廊廡曰吾將作大緣事即坐蛻人競施錢懸之繩繩皆滿遂建佛閣或曰寺地近海弄潮者多儼得錢輒買魚鰕活之人益以此相敬仰施捨不絕而放生日盛今靜安寺猶稱鰕子道場云

宋溫州沙門釋了興傳

釋了興姓宋氏平陽人參歷諸方得法於荊溪尋公嘗夜誦經有虎伏於寺側若有聽受久之不去鄉人經此者見其目光炯炯乃不敢近然虎不傷人里中神之會官築垂楊埭祭用牛牛受刀奔至庵前喘息求救而逐者踵至興詰所由來乃解袈裟付之曰但條折此衣散置其下則埭址可固勿用牛

也果如所言其埭遂成放牛山中時將建塔興謂牛曰汝能為我鍊泥乎牛俛首受役塔成七日而牛死興曰此牛已生善道矣宋天禧改元興竟坐化迺作偈曰不願生天及淨國祇明心地本圓常毘盧妙性非來去耀古騰今遍十方經七日日光不滅

宋天台常甯寺沙門釋處謙傳

釋處謙姓潘氏永嘉人也母感異兆見瑞雲入懷娠三年而生九歲依常甯契能出家能得教旨於昱法師講道不倦天台自智者以來以鑪拂傳授為信至能已四十世乃慨然曰得法在心豈在器乎乃藏之天台道場遂不復傳宋大中祥符元年封泰山詔天下寺觀得度一人謙遭際覃恩乃得度牒往學於天竺慈雲復謁神照大明圓頓之旨然三指供佛用祈妙悟未幾擢居首座神照以止觀一裘授之已而言歸鄉邑卒繼契能之席道不在器斯言乃驗後遷慈雲妙果赤城講道益振少師李端慤請主白蓮北海郡王奏謙高行詔錫號為神悟禪師王丞相安石與朝賢競為詩以贊其德郡大旱謙至龍湫祈雨俄而大風黑雲從湫起驟雨如注後十餘年將歸永嘉郡守士庶固留乃於巾子山慧林精舍講小般若時趙內翰陳舍人與杭之無擇禪師以寶閣淨住南屏天竺諸勝前後相乞請者不絕遂十坐道場歷四十年講演無間登其門者三千人宋熙甯乙卯四月丙晨興沐浴更衣集眾諷普賢行法阿彌陀經乃曰吾得無生日久矣今以無生而生淨土即入定寂然塔於南屏之右無為揚傑為之銘詞甚清絜見於別集

宋四明雪竇栖雲庵沙門釋知和傳

釋知和姓張氏崑山人從南嶽辨遊叢林以為飽參元符間住雪竇中峰栖雪兩庵山之前曰妙高臺有石突出下臨無地其旁古藤一枝覃施而葉莫莫和攀厥柔條盤屈成龕常偃坐其中名曰藤龕獨處二十年初與普交同參泐潭盟曰他日吾二人當踞孤峰絕頂目視霄漢為世外人不可若今時藉名官府屈節自汙及交開法天童訪舊至山和竟不接和雖絕物然有志於道者多往見之主雪竇者嫉其名出己上郡守嘗詢和於主者主者曰常僧耳和遂題偈於壁徙居伏錫山偈曰竹筧兩三升野水窗前五七片間雲老僧浩計只如此留與人間作見聞其二曰十方世界眼前寬拋卻雲庵過別山三事衲衣穿處補一條藜杖伴清閒其三曰自從南嶽來雪竇二十餘年不下山兩處住庵身已老更尋幽谷養衰殘其四曰黃皮裹骨一常僧壞衲蒙頭百慮澄年老懶能頻對客攀蘿又上一峻嶒後又遷二靈傳鐙錄稱和住二靈三十年恐非蓋其去雪竇時已年近衰殘讀題偈可知宣和七年四月十二日示寂聞和棲藤龕時常有二虎擾側元大德間栖雲庵毀虎為人患至元二年復建庵祀和其患頓息或謂妙高臺有伏虎洞為虎在雪竇

之證而傳鐙錄謂在二靈但以為知和故事不必辨其何山其言似是豈知虎為和馴自有神異和能往虎亦能往二靈之有馴虎又何足疑

金燕都潭柘山寺沙門釋開性傳

釋開性姓侯氏懷柔人也九歲依都城嘉福寺戒振為沙彌年十五受具戒天眷初參佛日於汴梁未幾豁悟心法作頌呈日日首冑之付以法乃潛南行歷齊魯時昭禪師居越峰將造之是夕有神人冠服甚偉語昭曰廣慧大士明日來當掃館宇以待詰旦開性至眾咸異之後主大刹金大定間僧善誨十餘輩請主潭柘開念古祖道場禪學掃地二百餘年吾將起廢遂往經畫眾以規模弘大懼難遽集開曰患誠不至耳誠至奚患無成方鑿石間忽有大石崩墜眾悉駭避開恬不顧石飛落去開才尺尺眾皆異之以為志願精慤致神祐也十有一年工始告止大定十五年六月晦日沐浴易衣說偈而化壽七十二臘五十七荼毘後建塔於潭柘虎首之陽著有語錄三編手訂寺中規則至今遵守無敢遺焉

元邢州開元寺沙門釋廣恩傳

釋廣恩字萬安姓賈氏洺水人生有佛性年且冠求出家從經城法雲壑祝髮又從暉公受具戒學禪臨城山閱數載游歷諸方還至棗疆與大姓霍氏契因結庵於其所居自謂行不堅潔誠負佛恩乃辟穀持大悲章句不出戶庭者五年一日霍氏兒供鮮桃二枚隆冬食之遂多靈異其鄰火自卻攘暴自禁鷄啄香而蕪牛受戒而馴至於愈奇疾扶危困復冽泉於涸井溢浙米於眾供皆前世所希見嘗誦經傳古義妙理超然領悟飯僧以億萬計持犯不間齋敬等視甘陵有塔基欲為治之發土得石記恩名焉且獲舍利即其地建大道場會開元虛席郡僚率闔屬緇素請恩住持蓋自貞祐癸酉中州板蕩所在蕭條說綱罟而保郡縣者無幾人逮戊寅己卯以來大兵頻歲南出而邢為衝駟使絡繹穹帳遷卓郡或不能容以故九流流寓行客往返逆旅無所投恩皆為之館穀他郡則父逋逃於前子窺隙於後獨此一方以恩之故晏如也玄風所扇遐邇懷芳元勳懿戚豪門貴族不愛金寶重幣以圓照塔因故基而崇起之眾不靳力工不秘巧輦饜不憚數千里艱險萬狀皆得平達隨度施用靡不如意曾未十稔屹然峯嶺突地矗空雖瑤光永寧之盛未易過此癸卯仲冬十有八日示寂春秋四十有九臘三十著有密蓮集度具戒僧千餘寺眾恒不啻萬指紀律如一弟子萬松述其行狀乞房山劉百熙為之碑銘御弟忽必列以旨諭五路兵馬史萬戶天澤立石

元潭州天臺山沙門釋彭彭傳

釋彭彭不知何許人自言姓彭或叩其名亦曰彭因呼為彭彭志乘亦稱為彭祖師者是也相傳初來湘西時年才七歲為人牧牛異於凡童嘗牽牛至一處指其山曰此似天臺後遂名其山曰天臺山偶於山阿手植一松上出九枝旁敷庵藹遂居其下牛亦馴伏隨宿山中復以杖插一穴牛入穴中但見其尾主家以牧牛不歸方疑為盜跡之至山阿見彭彭酣臥其下牛入穴拽之出責之彭彭殊不為意臥自若主者牽牛歸牛望天臺而吼俄而牛死主者深惡之彭彭遂乞食鄉里求依僧寺長老為之剃度每於諷誦聲入心通大有悟入然不樂寺居仍寄松下歲旱彭彭語鄉人曰以案供我當得水鄉人與之粟彭彭振錫山麓泉隨湧出村田水滿鄉人神之呼為振錫泉亦稱龍湫會螟蟲為災田禾盡稿鄉人復求彭彭作法禳除乃命向暮田畔然火一炬[言*乎]我名號其害當已行之果驗人皆信仰奉為尊者鄉人每有急難災殃輒往祈請嘗有一孕婦產難七日家人來求彭彭因告之曰使產婦聞我名號持清淨戒故多生以來不殺眾生今婦聞之生信慕心孩當生下如言而行須臾兒生舉家驚喜其他靈異不可盡述曾手持折枝插地祝曰若成正覺枝當復生後生楓樹二株上合下分迄今存焉元大德丙午彭彭忽焉蛻化後人為建雙楓寺奉肉身寺中三百餘年至明隆慶丁卯不戒於火棟宇俱燼而尊者遺身如故後寺重修至今香火不絕

元大理沙門釋左黎傳(連精)

釋左黎者姓王氏滇西人出家後執行精苦多有異迹常持秘咒咒諸怪物及惡病無不立驗元室龍興綏定六詔黎隨段氏入覲上京會成宗手疽醫莫能治黎乃咒水洗之患即瘥可欲再試之預屈一窟可容八人人持一鼓擊於地中偽言有怪使黎治之黎應命而至細察其聲果在此間端坐其上持咒喃喃少頃鼓聲俱寂開窟視之八人已死由是敬服封為國師後歸大理謂段氏王曰點蒼玉局峯上每月望夜常聞天樂之音王曰安得致此黎曰能取之耳至期當候其地天樂果至雞鳴時但見群鶴翔空而下有玉琵琶箏琴竹笛之器人不得其音遂秘之云又連精定遠人通密教元至正間滇中大旱梁王迎之祈請乃於淨瓶中出一小蛇兩隨大降王贈以金帛卻之歸日役鬼荷擔步如行空不知所往連所隱處即今雲山

元晉寧東山盤龍寺沙門釋宗照傳(空庵)

釋宗照字蓮峯晉寧段氏子也生有異性天資絕倫年十八禮雲峰薙染每以七日斷絕思想參究一日聞伐木丁丁瞿然朗悟杖錫操方徧覽名山歷抵巨匠初謁空庵許為法器後叩中峯乃邀證印了達宗源發明祖義元至正間還滇間游晉寧東山喜其深秀謂似曹溪風景乃建盤龍寺山舊有龍池建寺後龍乃他徙黑井有毒龍興水暴溢每壞鹽竈損民居照為書咒沈

水其害遂息又寧州有虎噬人照為嘜水咒符驅虎速去次日居人果見虎去一方無患自是兩地感德納貢畊牛為寺引鹽歲以為常以元至正二十一年八月望日沐浴書偈趺坐而逝身體溫柔七日如生有彩雲覆蒼虹氣貫天者三日門人立塔於寺後照以八月望日寂至今居民每至中秋咸致敬禮香花繽紛林巒若市明季更諡曰大慧禪師

- 靈感篇第六之二(正傳十四人 附見十人)
 - 明四明阿育王山廣利寺沙門釋崇裕傳
 - 台州國清寺沙門釋曇噩傳(榮枯木)
 - 四明瑞雲山清涼寺沙門釋僧茂傳(啟原)
 - 襄陽承恩寺沙門釋覺成傳
 - 昆明大德寺沙門釋道源傳
 - 金陵法藏寺沙門釋杜聖傳(大千 董伽 法光)
 - 曲靖真峰山沙門釋鏡中傳(匾屯 志登)
 - 杭州佛慧寺沙門釋圓果傳
 - 四川峨眉山沙門釋萬世傳(牟羅漢)
 - 雲南雞足山西來寺沙門釋如唐傳(大智)
 - 雲南筇竹寺沙門釋圓旭傳(陝西僧)
 - 九江廬山寺沙門釋法禪傳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周理傳
 - 薊州淨業寺沙門釋至明傳

明四明阿育王山廣利寺沙門釋崇裕傳

釋崇裕字約之姓陳氏毗陵人也母夢龐眉異僧乘輿而入直叩寢門覺而生子四歲始能學步七歲入小學資識明敏迥超群童年十六解通儒家言然體素尪羸十日九疾父母以其兆應冀邀靈釋氏命從壽昌院東林曉為沙彌院有大梨三十年不花及裕來花開滿枝結實大如罌東林知為祥徵度為大僧受具足戒俄而出登雙徑山謁寂照端鞠明究曠唯以觀心為務越二年未有證入偶游東坡池操觚成偈寂照見之喜云此龍象器也命為侍者使便於咨叩乃未幾復走天目山見佛慧義佛慧授以萬法歸一語裕淬礪益力佛慧亦期其有立所以警發者甚至又二年急於求證復步中天竺山參廣智訖一造戶庭如膠投漆合即決以超脫死生廣智為舉臨濟無位真人之言且詰之云爾還知否裕不覺下拜廣智云爾何所見而作禮裕曰拜者非是他人廣智云從門入者豈家珍耶裕曰慎[母-(、/、)+]欺人廣智首肯者久之越五年元文宗詔建大龍翔集慶於金陵召廣智開山裕復往依焉選主藏室留左右者十餘年盡傳其法張御史中丞起巖嘗問廣智曰選佛場中僧伽如此眾多其有弗悖般若者乎廣智云戒律精嚴言行不相背唯崇裕一人自受度以來脅不沾席者三十載矣張公深加贊歎自是聲施爛然日起叢林中朵兒只國王時以浙江行省右丞相領行宣

政院事遴選諸方住持命裕出主太平南禪報恩光孝禪寺瓣香之祝蓋嗣廣智云裕既履主席接物以誠緇素翕然一日令圻人塗壁壁中隆然如有物抉之獲悉達多太子像為佛骨刻成因召工傅以黃金金忽迸裂設利從中涌出以小香殿奉之風聲所播檀施雲集日新月異數載之間百廢具舉帝師大寶法王聞之錫以扶宗弘辯禪師之號尋遷九江圓通崇勝禪寺寺在宋初有神僧道濟德公將示寂繫青石為塔語其徒曰此塔若紅即吾再來暨圓機旻公來鎮法席塔色果紅人多異之旻公號為古佛及其臨終復爾懸記有三百年後大興佛事之讖裕入院之夕眾僧夢旻公至而其塔燁然有光者彌月人尤異之先是寺之師子巖大樹皆枯澗泉亦渴至是樹則重榮泉則再湧識者謂自旻公至是正符三百年之數其能感物蓋非偶然寺當災毀後唯佛殿法堂尚存餘皆瓦礫裕會歲入節其浮資庀材鳩工創僧寮旃壇林以居學子新梵音閣造大士像他若鯨音樓經藏寶閣及塔院莫不竭力經營輪奐並美時榮國公火爾赤以重臣總戎江西慕其慈行洵請敷演大法申弟子禮受持五戒而退有明初興崇尚佛旨洪武元年開善世院統攝釋教選大浮屠主諸名藍移裕住四明阿育王山寺居五山之一繼席頗難其人聞裕至香華接踵天樂遠聞萬口稱頌及其接引未悟單提向上之功棒唱縱橫逢者膽落兩序之眾自慶獲所憑依相與勦力振廢起衰備臻完美五年春太祖飭儀曹建廣薦法會於鍾山遣使者徵裕已年七十餘矣至則召見便殿咨以佛法裕以偈獻覽之大悅命書天界寺額賜賚有加後數年弟子師秀乞宋文憲濂銘其塔文具芝園前集

明台州國清寺沙門釋曇噩傳(榮枯木)

釋曇噩字無夢亦號夢堂晚題所居曰西庵姓王氏慈溪人也依淨慈雪庭傳雜髮受具台衡賢首慈恩諸文晝夜研磨不知有饑渴寒暑及雪庭遷靈隱仍侍左右雪庭寂後元叟端來補其處風規嚴峻非宿學莫敢闖其門噩直前諮叩自一轉至於六七轉語機鋒交觸無畏端頷之命掌內記與羣侶辯論莫不推敬元至元初出主慶元寶聖遷鄞之開壽台之國清後居瑞龍一日颶風驟雨殿宇俱仆噩所居亦就壓人意其齏粉矣掘覆索之一巨木橫支榻上噩危坐其下若有神物為之呵護者噩凡四坐道場不久即退嘗游越中詩人劉夢熙唐處敬輩集曹娥祠噩敝衣坐船尾眾方分韻賦詩殊不相顧俄而作禮曰有剩韻乞布施一字拈蕉字與之噩即應聲賦詩云平明飯罷促高梢撐出五雲門外橋離越王城一百里到曹娥渡十分潮白翻晴雪花舞綠弄晚風蒲葉搖西北陰沈天欲雨臥聽篷韻學芭蕉眾驚曰公非噩夢堂乎遂邀入社明洪武三年詔徵奏封閔其年耄勅令還山日本國王慕其道行屢發疏請欲迎致之噩堅不往凡遇噩手寫經論必重購之而去且詫其放異光云越四年謂其徒曰吾有一物無頭無面要得分明涅槃後看言訖斂目趺坐而終同時有榮枯木者鄞人也幼甘蔬食持誦法華

父母不許出家強為婚娶將醮之夕逃臥雪中幾死外兄陸甲遇之解衣以衣扶歸溫以湯火乃甦初事海會梅峰壽復謁淨慈東嶼海祝髮受具澄神禪觀昕夕無間若中峰斷崖布衲大梁無方古林諸老宿皆恭禮之受其策發雪窗住育王時重其戒行精嚴招居副座元至正丁酉勉徇眾請開法海會道俗信向寺賴以興明洪武四年預鍾山法會明年東遷又明年示寂龕留七日顏貌不變

明四明瑞雲山清涼寺沙門釋僧茂傳(啟原)

釋僧茂字實庵別號松隱姓鄭氏奉化人也父孝母胡氏世業儒術頗崇道誼茂生有異稟嘗在幼齡中夜跣趺習為禪觀母殊不悅推之使仆輒達旦不暝年十六依餘杭傳法寺希顏鬚落受大戒於昭慶惠律師歸杭希顏使司食物瑣務乃歎曰離家為求道耳奈何羈絏於此耶遂潛行大江西見南澗泉於雲居泉命入堂夙夜操持無少間缺一夕松月下照起步簷隙間巖泉泠泠然微有覺觸遽叩之泉泉曰此間尋常設施不足發子大機大用古林茂禪師為橫川正宗見道最真今住饒之永福子盍往依之即擔簏啟行既至古林問曰爾來欲何為茂曰正為生死大事求出離爾古林曰子明知四大五蘊是死生本根何緣入此革囊方擬議間古林以杖叩之豁然而省從此悟入機辯峻絕縱橫自如古林器其為人命居首座未幾古林遷建康保寧挾茂與俱踰年回浙會月江印涖湖之道場法席之盛震於東南請茂分座一音演唱四眾悅服元至正壬午行宣政院命長明之瑞雲山清涼寺學侶奔奏機鋒敏妙兔走鶻落瞬目即逝有沙門至問對未竟以手拍地而笑茂曰鈍根何煩拈出沙門一噓茂厲聲喝之竟相視莫逆釋然而去其應機接物皆刊落支流直造根源故所證如是茂居清涼一十五載始退東堂影不出山塊然獨處時元明良方主天童迎歸此軒舉揚法要一日示微疾左右具觚翰請書偈乃以手指心曰我此中廓然也何偈之有端坐憑几右手握拳以額枕而逝時甲辰八月二十七日也壽八十五臘七十經七昏旦容貌明潤其頂猶溫以香華旛幢導引靈龕於太白山陽茶毘火方舉有物飄灑晴空似雪非雪如雨非雨視之非無即之非有霏微繽紛離地即隱盤旋列焰之上至火滅乃已蓋天花云其弟子獲舍利如機珠建塔瑞雲之西藏焉著有語錄一編宋文憲濂為之銘曰我聞如來演說般若天雨寶花繽紛而下巖巖普照諸佛之子依佛倣佛乃亦有此豈非天龍及護法者欲警有情使之四灑感應之機非由外鑠風動籟鳴實自中作曷以明之法因心悟表彼空華以無著故何有四大何有五蘊一空之餘諸法銷燬如大寶鏡罔不含攝隨物賦形了無餘跡晏坐雲峯學侶川赴孰不清涼如飲甘露有翠堵波中藏設利佛光煒然羣昏咸賴又安固沓石山山交寺比丘尼啟原者字太初姓張氏日本人也九歲祝髮學禪吳元年航海入中國歷游海內禪林明洪武丙辰入安固抵沓石山梅公洞見四山浮翠兩石相沓遂住錫

焉先是巨蟒虎狼怪異甚多原至禪誦其中忽一夜山下居民見峰頂火炬人馬南飛而去其怪遂息民因巖洞築庵師事之復建山交寺徒眾四百人時明師討叛啟原與徒為亂軍所獲總兵富爵異之相與譚空結聚乃獲免永樂丙戌其徒為立塔於寺旁以為退修之所丁亥三月朔日入塔端坐而逝年七十有五著有語錄三卷相傳正德間有人開塔見頭髮披垂指甲長曲聞風雷震乃閉之

明襄陽承恩禪寺沙門釋覺成傳

釋覺成襄陽僧也少懷幽隱決志棄俗超然高蹈寄跡桑門泛讀經論妙解天成發語驚人若有神悟每執事辨理刊斷禍福矚於機先事後按之莫不符驗然獨處茅茨蕭條物外不輕許諾湘藩仰其風徽更番迎迓底於荆郡又復偕至京師覺成請別止上方山敷坐講說平易可親雖玄機密運晦匿自深而弘旨提挈宣譚曲盡由是海內聞風四部雲集萬指堵環已而言返舊里興復承恩寺更於別墅自造壽塔中有藏石不令人知後無疾化去門人即就其塔瘞焉後三十年襄王薨卜壤於此欲毀其塔為兆域舉鍤發土掘起一碑視其文曰地本襄王地住我三十年襄王來葬此移吾向東邊觀者驚異歎為神僧於是依遷靈骨奠址東方更造新塔規制嚴廓勝於舊矣事載襄陽縣志

明昆明大德寺沙門釋道源傳

釋道源字福裕昆明人明永樂初居大德寺研窮全藏間習文藝尤工書法嘗以金銀泥粉寫華嚴經一部貯以銅匣供之五華寺明末兵燹寺僧懼其殘毀以銅匣沈之昆明湖中每於夕月宵露數見異光浮生水面清總督范承勳聞之疑有寶物令人汨取乃得銅匣而失其蓋口有蝸螺數萬盤繞護持經卷故有浸潤而無漂沒至嘉慶辛酉漁人網得其蓋獻之巡撫其上鐫有道源篆文乃歎其精慤彌綸感通靈妙書經功德之不可思議如此復藏大德寺清之末葉新說盛行大德寺改為學校銅匣入圖書館其經猶存二卷餘則不知遺自何時可歎也

明金陵法藏寺沙門釋杜聖傳(董伽 法光 大千)

釋杜聖趙人師事董伽雅致幽間密行深異伽亦趙人生於鶴巢董氏撫之遂蒙其姓既改僧服猶以為號示不忘也幼慕禪宗感觀世音法施得省面日常持大悲咒明洪武間遊南都太祖召對賜藏并敕建法藏寺聖既相依盡傳其咒時有虎傷人乞聖咒之虎果潛去民乃安居後遊燕都成祖召對復賜大藏南歸又法光者為定堂弟子賦性孤高不染世緣獨處深山遇白

虎掉尾而來見之輒伏年八十餘無疾坐化又大千者大同人七歲出家明中葉來滇駐錫曲靖玉龍庵年五十矣夜誦經虎嘗守戶後壽百齡與淨蓮號大千者同名異籍或以為一謬矣

明曲靖真峯山沙門釋鏡中傳(志登 匾囿)

釋鏡中明正統間棲止曲精真峯山下苦行四十餘年夜以念珠撒地一一探之仍纒然成貫竟夜不寐以此為恆無一夕間侍者怪之叩其所以但言不苦不真吾以伏魔耳一夕有盜入室攫取衣盆鏡中欣然與以飲食遣之使去乃盜挾所竊出戶而走如墮雲霧腰纏背負且行且探長夜漫漫不勝其苦比曉猶旋遶廊廡相顧愕然自還其物羅拜以去後建寺卜地得一龍湫以法咒之龍果他去遂成平地今泉出山巔一道瀑布流於樹杪或云即龍所徙處也又有志登者永昌馬氏子童年剃染戒行孤潔常修禪定構葺龍泉門外時有盜十二人夜入寢室志登定中兀然不動盜周視之見案上蔬食羅列皆自出新炊所設盂箸亦如人數正驚異問志登徐起云昨已預知諸君至故命徒略備草具用慰飢渴耳乃為開示因緣果報及諸妙義群盜聞之皆悔泣願求自懺後有匾囿和上者不知何許人常居雞足百節橋土龕中日唯種圃夜則跌坐每以草席為囿跏趺其中故人呼為匾囿或云持緊那羅王咒嘗有劫盜相擾殊不為意及擾之甚乃瞿然曰何乃如是遂默持咒是夜劫客數人旋迴囿旁若夢若癡遵循不能去及明羣盜跪請歸誠囿以指揮之始散去又鼓山有妖魅夜出迷人行路相戒囿以咒制之其患遂息今有降妖坊立於法華庵旁

明杭州佛慧寺沙門釋圓果傳

釋圓果字祇園一字幻空少為鳳陽衛守陵指揮使已而棄官捨身入五臺山淹貫經論頓悟直指東遊至姑蘇登座說法天華晝下繽紛如雨嘉靖三十四年倭寇犯浙剽掠至北新關果時居杭之佛慧寺巡撫胡宗憲聞果道高延之出山問退寇之策果曰三日後賊當自退後三日軍士見雲中有神兵數千擊倭倭卒退竄人以為果之力也臨化之日屬弟子十年後荼毘至期昇棺至野忽自出火灰燼無遺道俗觀者千人咸見雲中樓閣宮殿並是金銀瑠璃之色白鶴孔雀鸚鵡舍利迦陵頻伽種種奇妙與經所說無有差別俄而天樂振空移時方滅

明四川峨眉山沙門釋萬世傳(牟羅漢)

釋萬世者不知何許人一笠一鉢游跡無定嘗居峨眉山晝夜跌坐恆數日不食兀然不動不可方物明巴陵進士楊一鵬初授成都府推官登覽太峩

摳衣直上興致勃然見尊者高踞佛床殊不為禮忽睨而笑曰汝猶記下地時行路遠啼哭數日夜吾摩其頂而止邪一鵬追憶兒時語遂大驚禮拜晤語達旦臨別屬曰三十年後見汝於淮上後一鵬開府汝安一日向暮有野僧擊鼓稱峩湄山僧萬世尊者寄書發函得詩七章索寄書僧已失所在俄而流賊焚鳳陽列祖陵一鵬坐失救論死西市及臨刑無他語但稱好師傅數聲而已由是世尊名大著後不知所終樵夫牧豎往往於峩山頂上見之其寄一鵬詩後二章秘不傳傳者五章其詞曰謫向人間僅一周而今限滿恐難留清虛有約無相負好覓當年范蠡舟業風吹破進賢冠生死關頭住腳難六百年來今一遇莫將大事等閒看浪游生死豈男兒教外直傳別有師富貴神仙君兩得尚牽韁鎖戀狂癡難將蟒玉拒無常勳業終歸土一方欲問後來神妙處碧天齊擁紫金光頒來法令不容違仙律森嚴敢洩機楚水吳山相共聚與君同跨片霞飛又牟羅漢者名安亦眉山人也初為兵隸倅廳行役岷山陟上清坡苦飢忽遇髯者笑指曰汝飢盍不食柏子因摘柏子投其口顧髯者不復見矣自是不火食易僧服往來峩眉岷江道上疾行如飛奔馬不及人呼為牟羅漢一日江水暴漲舟不可引或戲指其笠曰乘此以渡可乎牟遂置笠水面趺坐其上浮江以濟觀者異之

明雲南雞足山西來寺沙門釋如唐傳(大智)

釋如唐者關中人初至滇棲雞足山羅漢崖下日諷法華久之泉自崖根迸出眾多歎異乃為造寺曰西來寺本所自也如唐性本慈祥善心化物每於食後以手承盃立向階前念佛一聲則林中羣鳥翩翩隨至集肩而食殊行甚多後不測所終有大智者燕人也行腳至白崖每見雞輒與食常以布囊成米肘後纍纍如斗大人戲之曰老僧何為飼人雞欲其肥邪不然於爾何與大智喟然曰人家畜雞而不飼以米者欲其多食蟲蟻乃肥耳吾以米易之正為諸蟲度厄也一日徧謝市中所相識者曰吾往矣眾叩所之曰不遠眾隨之去至一蟻垤傍閉目端坐口吐白氣如虹向西而逝

明雲南筇竹寺沙門釋圓旭傳(陝西僧)

釋圓旭字萬松通海人少機敏負奇氣既捨俗務修持宗乘教觀靡不博通周覽名山行蹤所至勝境殆遍嘗慨然慕濟顛之為人故任性飄忽倜儻怪特久亦自得明崇禎間還滇憩於筇竹起居不常飲食無節狀類瘋狂時入酒樓高歌起舞旁若無人人或戲之則發人隱私語多奇中嘗衣婦女襦裙遨遊市廛亦不知所自來市人環觀所著裙服頃忽不見莫測所以每一入定即危坐道旁數日不移風雨卒至亦不知避暝息如故一日徧辭所識還山沐浴焚香禮佛告眾作別眾未之信唱偈坐化陝西僧者其名字不詳明萬曆間遊雞足入迦葉殿取土主神負之而走寺僧大駭逐而奪之僧曰尊

者道場何可容此牲酒污我清淨我已牒官府明斥此神下山矣寺僧以其誕妄爭持不已乃委像而去寺僧欲昇之歸重不能舉是夕夢神謝曰我已被逐下山復何面目久居此乎今 他所幸勿相留明晨忽聞山下居民鼓樂來山詢之曰是夜土主神示夢欲來山下 居故村老相約迎之耳蓋陝西僧先具詞於大理巡道告神酒醴牲牢污辱名山乞法治之巡道曰彼神也我何能禁僧曰但乞允我詞我自能治遂批移下山故僧來負之神亦從命吁異矣

明九江廬山寺沙門釋治禪傳

釋法禪者楚中僧也少有異趣獨懷幽致夙聞廬山林谷絕勝欲於其間拓地數畝覆茅以居而苦乏貲託鉢九江市中有西城王西溪者方欲延僧諷誦金經期以三年奉資三百聞法禪初來有建庵志與之相約兩情欣許法禪從此朝夕無懈心維口誦寒暑苒荏忽焉三易而王已拮据才與百金法禪高邁略不與校金少願宏不稱所懷亦既已矣法禪性復好施所得幾何強半捨去仍持空鉢往還江干會分封藩王行抵九江湖浪風激舟不得前起夫牽纜役者逃匿強僧應募法禪與焉時眾舫齊發風逆水急進寸退尺獨僧纜挽之若駛足行如飛王見驚駭進詢其故法禪茫然不知所對再四徵詰良久方悟乃曰貧僧素無他術唯諷金剛經三年因述前事王喟然歎曰金剛靈應乃如是哉賜銀三百使終其願天啟辛酉歲遂隱於廬山云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周理傳

釋周理出杜氏薈甸人初字徹融後講華嚴於青蓮寺釋理微妙與中庸義多所發明陶公不退乃請易融為庸理生時白氣出屋鄉人異之然啼聲輟作三日不止忽有二僧聞聲登門為之摩頂因請賜名命曰慧九是夕啼止家人相慶九歲而孤集於茶蓼年十一入雞足山禮大覺徧周為師先夕徧夢大蓮花生於殿庭日中理至適符其兆徧乃忻然為之落髮然語音蹇澀期期不明因禮誦觀音三年一夕夢白衣入室授藥三丸命吞之自是發言略無滯塞後至姚城參密藏大師遂有省發屢躋講座為眾欽仰延主妙峰山有龍湫人莫敢犯歲時宰牲投之以祀明崇禎辛未夏日方亭午忽雷雨暴興山林撼動大眾驚駭侍者持杖立前欲導之行理曰將何為曰龍作孽須避耳理叱之俄而水溢階庭浸及几案理不為動端坐持誦若無所見須臾雨止天霽前後林巒五十餘里壞山拔木不可勝紀惟寺宇靜室略無損傷遐邇嗟異知有神護是夕定中見一王者乘空而至告語求書乃書善德祠予之又見老嫗引一女子形容妖冶理呵之曰汝前生作孽今尚如此當截汝首即劍光閃爍飛射而出嫗與女郎哀伏於前因為說戒遣之而去自是境物安寧明崇禎甲戌遊叩諸方請藏南都時密雲說法天童入室請益

相視莫逆欲留不可辭歸滇南弘法妙峰古庭而後二百餘年祖鏡再續實賴斯人著有曹溪一滴谷響集夢語摘要及語錄若干卷寂年五十七僧行四十六

明薊州淨業寺沙門釋至明傳

釋至明字無暗姓袁氏介休人出家千佛庵稟具五臺顯通寺參徧融憨山達觀於言下各有所得居盤山五盆溝者十有五年苦心堅忍了然生死嘗絕糧五日掩關獨坐王孝廉邦均者夙懷善念雅好施與夜夢神人告之曰盤山五盆溝有修行人絕糧是汝師也質明孝廉問之薪者蹤跡之境幽路險寂無人聲扣門見之曰師絕糧耶曰何以知之以夢告因請為弟子再拜乞一言明曰平常心是道由是相知後應孝廉請出住靜業闡毘尼演修多羅教會歲饑人多求度明見輒許之老釋剃度者幾千人雖寺無儲蓄而廚中供具無缺學侶請益者譬引曲喻必解悟而後已崇禎末示寂留偈曰幻身本無實真如本自然崑崙成粉碎生死不相關塔於菴左智朴為之銘具山志德意頌以詩曰白雲深處結精藍無限幽情祇自耽魔懾真風消幻障龍欽高蹈徒澄潭清操不讓巖松古妙義猶如水月涵我欲詢師師已邈臨風空對薜蘿龕舊傳五盆多魔魅故云

- 靈感篇第六之三(正傳十六人 附見七人)
 - 清燕都玉泉山二聖庵沙門釋僧清傳
 - 雲龍龍蟠寺沙門釋法鐙傳(廣術)
 - 衡陽法輪寺沙門釋石隱傳
 - 燕都廣濟寺沙門釋性美傳
 - 龍溪圓照寺沙門釋行森傳
 - 江寧古林寺沙門釋寂鼎傳(能高)
 - 天台國清寺沙門釋達珍傳(宗海 素庵 昭月)
 - 甯鄉大瀉山密印寺沙門釋濬明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廣福傳
 - 荊州二神寺沙門釋悟誠傳(洒肆浮屠)
 - 衡陽培元寺沙門釋無漏傳
 - 維揚沙門釋澍菴傳
 - 潤州焦山寺沙門釋悟信傳
 - 五臺山清涼寺沙門釋源修傳(釋柱)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常順傳
 - 燕京法源寺沙門釋護德傳

清燕京玉泉山二聖庵釋僧清傳

釋僧清字滿月姓杜氏山左人不詳其邑里少讀書習舉子業博通經史百家之學其於正心誠意尤所闡究不樂仕進棄之出家後參禪於京都臥佛寺岫禪師聽講諸經不違如愚岫問之曰汝識字乎曰未也願學之岫曰既不識字可司樓上鐘然心知為大器欲歷試之也於是晨昏是職應期無爽是時法會盛行講席眾多都中若慈慧慈憫千佛臥佛諸寺皆名僧據坐善信如雲清於鴻烏間代竊往觀聽方過慈慧又趣慈憫旋至千佛三番聽受復還本寺鼓鼓鐘鐘日夕奔奏自忘其疲如是者六年及岫示疾眾詢繼者岫瞿然四顧曰撞鐘者安在乃命侍者以衣鉢持付鐘樓清遂主臥佛講席明崇禎二年恒明方居玉泉山徒侶麇集眾至六千思敷講座以資化導乃迎清入二聖庵講華嚴疏鈔涅槃諸經間以左史莊騷秦漢六朝唐宋詩文十餘載未嘗少倦嘗遭饑饉絕糧數月日食糠粃莘莘學子猶不舍去其相得如此所居之地恆感奇瑞皆不告人曉起盥沐盛水銅盤每至冬初春餘天寒欲冰其中輒結異花或蓮或梅及桃杏之屬逐日更易形狀不一大內聞之遣使索觀侍僧持銅盤獻自玉泉山二十餘里始達宮禁而冰花不釋

皇后傳觀侍嬪皆呼萬歲因賜供物賚予甚厚都中傳為神異清但笑曰此偶然耳何足怪也由是四眾感慕襄城伯李國禎司禮監王之臣曹化淳咸相皈依大清龍興入據燕都既殄流賊遂黜明命然崇尚佛法終召天和平定區宇時恆明已入廣濟復迎清講護國仁王經八王無不敬事順治二年一日從容語恆明日吾將返二聖庵作西歸計矣初至玉泉山時臨水登山瞻顧裴回指示人曰此地峰青聳秀流東曲繞頗饒幽勝吾將老焉至是果寂此山中弟子環侍以膝示之曰昔在臥佛時跪諷華嚴於瓦礫中不施蒲團今年已七十餘膝上肉癩猶在也汝曹勉之端襟就化所遺銅盤後雖遇冰不復結花

清雲龍龍蟠寺沙門釋法鐙傳(廣術)

釋法鐙字續傳不知何許人亦不詳其氏族清康熙時泚江水漲泛濫而下東有別沱又復橫溢兩岸俱沒寺在水中波聲澎湃樓閣震撼幾將傾圮法鐙以麵作環其大如盞置於頂上灌膏然火登樓跪誦經卷祈神救護俄而水勢消殺寺竟無恙由是道譽旁流叩謁日眾頗厭煩囂別建靜室於江之西山曰雙清庵獨居之闢地引渠藝花種竹翛然無礙常以飯置袖中趺坐樹下羣鳥集而食之如是者屢年自知日至入龕坐化廣術者竹山定水庵僧也日禮千佛久之通悟山有黑龍湫舊在山腰原上田多苦旱水不能及術虔禱之三年水源忽自山顛石洞湧出四時澄清自是諸山田禾皆得水利不慮枯槁視前日龍湫幾高百尺云

清衡陽法輪寺沙門釋石隱傳

釋石隱者不詳其氏族蓋明故臣也桂藩南遷遯竄荒遠事不可為乃改僧服康熙時始來衡陽居法輪寺重修精舍戒律嚴苦法化弘深初至時野獸殘其園蔬盜竊其財皆自還伏至今多傳其靈異縣中諸生王仁綱性質直勇於為義自明季國用方亟田稅增加每糧一石增三升六合名曰加秋康熙時削平三藩兵亂初定牧令爭以墾荒為功復報墾荒六百餘頃科糧千四百餘石實無所出更計見田增稅之號曰倍額糧追[言*乎]逋逃民吏交困然莫敢陳訴仁綱獨訟之司院請荒熟並丈計畝徵稅娓娓數千言巡撫興公驚歎嘉獎之以為下車以來獨聞此讜言而切責府道檄令依實詳覆官吏大怪則怒仁綱欲以生員言事律置之死按察使亦忽善也拘仁綱省獄將加嚴刑令自伏誣仁綱在獄夢異僧謂已曰明日司訊汝將不免然為民請命義士也事急時但可條辨不直汝者呼天當有應明日果盛陳刑具威脅之仁綱不屈方付重拷急呼天稱枉俄而大聲若雷震几案盡碎羣官愕然得請通丈趙甲喬魚鱗冊發自仁綱也既釋歸尋夢中僧得石隱曰

是吾師也願留為弟子石隱不可遣其徒與居西山石隱棲法輪寺二十餘年所著論錄多至數十百卷尚有傳本云

清燕京廣濟寺沙門釋性美傳

釋性美字恆明姓王氏順天人也生而敦厚資稟聰穎而氣力雄健刻厲有為髫齡喪母美泣曰慈親長逝我願入山其父允之送入廣濟寺剃度時主席洗元道風藉甚美執弟子禮不少怠周旋進退悉中機宜洗元大奇之及長有志焚修京市輻湊頗厭諠雜乃退隱玉泉山二聖庵閉戶禁足草衣木食并日而餐時明崇禎元年也清室方興用兵攻取進逼燕京掠玉泉山而過所獲男女少者衣以彩繪美亦在虜中因使之監守兵行與諸婦處日夜誦經不絕人皆敬服兵退悉全節歸崇禎十五年清兵復從牆嶺下守將逆戰半日擒殺數千人陳尸遍野及清人還師戰場外血肉糜爛腥穢薰蒸過客觸之輒病美惻然憫之荷長鍬率弟子掘土深五尺舉尸埋焉或見類有泚掩其鼻及託故不行者美因說法感以至誠發其善念用是不復憎惡辛劬月餘乃畢其事然天陰夜黑時聞哭聲往往白晝見形人有逢之無不死者美復建水陸大會四十九日自茲以後災戾消滅人慶安居初美之被虜也軍士以手指之曰瓦迷瓦迷者華言殺主者以其方外頭陀令勿殺美因於萬眾奔竄中仍還故居低徊不忍去明使來略地亦不之疑蓋真實無欺取信遠人人亦望而知為長者美住二聖庵時地甚逼隘四方禪客歸之達六千眾乃迎滿月講華嚴疏鈔眾聞之皆有省悟美以一人飯六千眾人皆果腹而已獨半飡飯而不菜咸以白齋稱之嘗刺血書華嚴經足不履城市而名嘖嘖禁庭時兵吏兩曹以至御史內院訪謁不絕馬蹏車轍時交於門司禮監太監王永祚尤加敬禮為置蔬圃十畝附益寺基流賊李自成犯闕荼毒生靈清兵入關掃除寇亂定鼎燕都而八旗所處皆故明宅第戎馬從橫多散處寺院有樂山僧為廣濟耆宿恐力不支因馬化龍捨柳林地十二頃迎美於二聖庵乃復入廣濟寺初樂山之來請也眾以京邑荒殘之後車騎蹂躪旦夕數驚皆不欲行滿月亦拘守二聖庵中峙蹠不前美獨毅然以護法自任飛錫而至於於是從百餘人相隨入院諸藩府聞之皆仰其清德追述舊事言及保全婦節掩埋戰骨尤津津不置檀那慕之來者闐塞其門如市更請滿月敷講席於廣濟演護國仁王經八王隨喜見美有加禮方中原鼎革京國洶洶草創未定而法會不衰象教復起者美之力也五年春王師南下用兵淮江京衛物價騰湧穀食尤甚寺無恆產仰食檀施而僧侶日眾相依不去時有在陳之歎一日忍饑鍵戶瞑目禪牀忽有叩戶聲啟扉視之則米車五兩粲粲盈門問所從來則馮居士顯功夜夢中有人告曰廣濟絕糧胡不將去如是者三故相餽耳其靈感如此玉光律師者寺中老宿也因朝五臺回翔京闕美即迎居方丈執弟子禮甚恭事詳本傳廣濟為都門律席實美倡之嘗南渡江覽雨花牛首諸勝東至靈隱考槃三月後過金陵印

藏經五千四十八卷十六年秋自江南歸玉光把手甚歡康熙二年始建藏經閣度之沈宮簷葑為題額焉寂於康熙六年正月十三日將示疾時呼弟子德光復初天孚告曰吾大願已足從此逝矣汝輩好為之眾愕然乃起沐浴更衣趺坐疊掌而逝塔於玉泉山

清龍溪圓照寺沙門釋行森傳

釋行森字筇溪別號慈翁姓黎氏博羅人生質清穎器宇神俊年及壯遊偶感疲困倚枕間忽聞鼓吹聲頓省根源不從他有遂決志出家依雪嶠信信寂後乃參大覺普濟能仁國師玉林琇洞明心要琇令分座說法四眾參承機辯敏捷解說入妙一時目為大鵬劈海且稱為森鐵棒云及開化龍溪緇侶雲集清室龍興世祖入關奠鼎燕京崇禮佛乘詔集高僧時順治戊戌玉林琇應召入都因令森主報恩己亥玉林還山森奉詔留京師世祖恩眷禮遇優渥屢降諭旨欲加封號森以師弟不敢并受辭之甚力既而請謁五臺宿顯通寺寺前遇一老嫗手持竹籃口嚼石子與語深明宗旨呼森為大通佛自五臺還京乞歸龍溪世祖名所居寺曰圓照御書題賜以寵異之森持律精純導眾嚴整雅有百丈風受世祖知遇甚深及其歸里如日邊雲影既離絳霄即隨意孤飛斷崖荒水間不挂一絲康熙十六年遊華巖曰此中修篁奇石可以臥數江帆吾老此矣乃自刻化期手書封龕偈而寂春秋六十有四僧臘三十有六至雍正十一年追封明道正覺禪師御題贊曰一人首出八表昇平爰有龍象僧中之英十虛融攝正眼洞明日光月華水綠山青

清江甯古林寺沙門釋寂鼎傳(能高)

釋寂鼎字合吉姓王氏上元人專志淨修時感靈應不使人知居恆杜絕外緣獨坐一室于無盡藏中人莫測其崖岸而臨事若有先覺康熙甲子春寺將火先三日有聲熳熳熳熳自南來者鼎異之夜見白衣神人入室誡曰師當精進無懼三稱而去鼎又異之三日而灾生光燄中若見白衣人往來指揮寺燬殆盡唯戒臺丈室猶存鼎曰神詔我精進無懼意者或將興復與遂堅立誓願三易寒暑辛苦備嘗前後殿宇輪奐並美康熙二十四年又置來安縣田租以供香積皆苦行所致以康熙三十四年正月十日示寂壽六十七臘三十八主席十有一載興修寺宇多賴其力後百餘年而有東山能高者東臺周氏子也寂于清光緒二十六年庚子七月二十五日奄缸西廳方擇日舉葬無何雷電交作營中火起藥庫被焚寺宇相連殿寮樓閣轟然一空石裂磚飛僧眾傷亡金像破損而東山靈缸竟爾無恙此庚子九月八日事也相距才四旬其靈爽不昧為天神呵護如此東山生而羸弱賦性和緩同治季年受具于慧居寺嚴守律儀而予人以寬凡有求請必曲徇之施財散賑見善勇為主席六載築戒臺造廳室山門大寮具見經畫及營庫延灾

火藥橫射勢極猛烈陵谷變遷千棟百梁化為煨燼而靈骨一缸乃存於敗瓦斷木中完固無損先夕示兆于其弟子輔仁友獨立門外以手後指若將告之者噫異哉

清天台國清寺沙門釋達珍傳(宗海 素庵)

釋達珍字寶林別號師崖姓劉氏撫州人幼好靜居若習禪觀年二十棄家人括蒼山石門洞依宗海染剃因於洞口慶雲峰上飛瀑源頭結茅為庵進院之夕山中神燈滿放光明圓大如斗照曜林谷升降流轉遠映城市官吏驚怪遣員察驗典史姚君銜命而往溫州普明寺素庵法師聞風問訊遇於山中是夜庵前大樹上懸空數十圓光燦如白日素庵因謂姚君曰般若記云佛子出世有大因緣或機前顯跡自見神光此子因緣非小必為佛門津梁以偈記曰今此光明照燭身菩薩信有宿生因他年定是靈山客撥轉如來正法輪珍禮謝素庵曰當期遠大毋久淹此珍以三年為請爾後安處亦無他異後往普明聽講金剛彌陀諸經即以頭陀行修般舟三昧飲水食澹齋不至席觀方至高旻受記於昭月遂嗣法焉乾隆二十六年主當陽萬善三十二年主大雄山崇福三十八年主獅崖彌陀四十年主高旻四十二年主北嵩岩法輪已而退入台山憩於華頂妙峰庵四十五年縣令張公與紳耆合詞請住國清就庵延攬勢不獲卻其時國清年久廢朽荒敗不堪珍至整飭頽綱紹隆先軌廟貌佛乘屹然有紀五十一年主大田白蓮五十二年主黃岩慶善廿餘年間八坐道場所至興起學侶景從得法十餘人皆一時柱石以乾隆五十五年四月八日示寂先是弟子道宗請至國清傳戒歸庵坐說偈曰世尊下降老僧涅槃指天指地一等捏瞞披衣詣龕泊然而化壽六十臘四十塔於東塢有語錄數卷

清甯鄉大瀉山密印寺沙門釋濬明傳

釋濬明湘鄉縣志作俊明塔銘稱哲公蓋名哲也睿哲文明取旨甚洽江甯徐氏世居金陵明生而端謹孝友天成嘗為母祈請航海而南步朝補陀得晤至公辭意契合竟徹空有及慈親見背衰經斯除便赴京城佛會寺落髮至公知有道根遂授記荊或云濬明少時夢一老僧教之持誦一日遊寺中聞僧誦經皆夢中語問之乃般若波羅密多心經也明頓悟棄妻子受戒然則誦經僧殆即至與康熙時湘鄉白雲山僧募經江甯未集而沒託於明為畢斯願慨然許諾竟致全藏來褒忠山人彭青選仰其高誼建閣藏之遂留寺中後往荆紫大瀉諸山屢主法席歲旱禱雨甘霖立沛郡守牧伯為勒至誠如神額以頌之一夕大雪青選夢明言寺僧饑甚晨興令僕致米時雪深沒蹠山徑自開積凍微釋異之至寺見韋馱像杵沾雪泥水尚涔涔下也有龍盤繞閣楹昂首欲吞明戒之曰毋壞寺毋傷生靈毋淹禾稼龍果蜿蟺

行石間可半里許風雲四起擘石飛去山舊有虎歎聲怖行人及明住山久之不復知虎所在乾隆丙寅強應大瀉之請甫膺丈席四方奔奏食指近千錘鍊所施莫不獲益乾隆十三年戊辰春偶示微疾匝月間說偈而化經日如生蓋終於荊紫峯西甯潭大昇為銘其塔云有自述行狀今不可見志稱其言曰龍翔虎去老僧亦從此逝矣其自述者非邪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廣福傳

釋廣福字永壽阜城人也生性質魯習俗難移獨厭塵濁懷出家志因禮天齊廟明天祝髮日持半偈復事田疇勤苦自甘異於惰食乾隆四十八年稟尸羅於潭柘靜海復願習勞執役爨下朝汲夕薪忻然無倦供佛養僧必精必潔寺眾翕然然不懈真修雖當浙粒淘砂運斤採樵而六時念佛在心在口故十方嘖嘖謂之菩薩再來一日行禮五臺中途遇一老僧扶杖翛然向之詰所自來福具以答老僧曰天色將暝荒庵一宿何如福欣然從之底一山寺茅屋數椽亦甚清潔相對讌語老僧因謂之曰觀師福相光明溫潤當有大因緣至為期不遠即在中山莫外求徒費草屨也宜急返錫瞬息別去重尋舊路行不數武寺僧皆失所在福驚歎不已及復還寺執役如故未幾住持日朗寂依次應闍黎繼席以目疾未痊遜之教授又以才德未備莫振祖風彼此相讓一寺無主傍有一僧挺然出曰二師不居此宜位選賢者儻權宜不達固執成規則提倡無人焚修奚賴廚典作再來人也才雖未裕德實有餘足以仰繼前型俯開後學何不請證尊位以為山門主眾從其論於是備香花鳴鐘鼓齊集竈下請之繼位福方驚愕不知所以眾以情告福默念老僧所言因緣至矣乃允所請蓋行門之下內秘外顯不至其時則人不知故曹溪負春雪峰司飯為山典食徑山洗籌百丈不作不食壽昌終身力耕往哲遺徽傳鐙備載學者習焉不察遂以執役服勞為分外事豈不悖哉福蒞寺事佛心為心不以善知識自居居恆日中一食戒行清淨皎若冰雪依期弘戒隨時念佛引誘諸子蓋二十餘年如一日忽染微疴自知時至端坐握珠默然而化闍維後取舍利多粒弟子奉靈骨塔於茲山

清荊州二神寺沙門釋悟誠傳(酒肆浮屠)

釋悟誠少時行貿遠方及歸而母病沒邊墓悲啼數日不絕行路感泣因剃為僧歸心佛法冀感母靈藉得超登自是狀類瘋癡迹行不恆而言事微中人莫之測嘗數日不食或予以飯過數升不辭飽住南城外二神寺城中人留至夜門已扃及旦伺之乃高臥寺中邑有巨室林園幽勝頗饒花木以瓦缸貯水蓄文魚數十頭缸深數尺水草交橫金鱗游泳五色燦爛兒童多聚觀之以為嬉樂一日悟誠入其間手拳石礙其缸大[言*乎]曰擊破好家人出而阻之扶悟誠去不一日有童休死缸中主人聞之互相嗟異嘗倉卒

至一相識家急索斧升屋須臾旗營火起飛燄逼牆檐悟誠持斧迎燄擊之四鄰俱焦此宅巋然獨存偶貿貿行道中遇一旗員告曰公明日救我是夕獨行城中值尉出巡責以犯夜繫之獄旗員聞而救之得出卒後數月有見於燕市者道光十九年三月沙市火晝夜不熄延燒數百家眾倉皇呼救獨一浮屠飲酒肆自若主人曰火光不遠可奈何曰無妨但取酒來久之主人延企曰火真不遠矣可奈何則又曰無妨斟飲如故俄而燄接比鄰主人告急且促之去浮屠乃徐說破衲令覆屋上笑謂曰畢竟無妨須臾火燄飛越鄰巷洒肆獨存指顧之間遂失浮屠所在

清衡陽培元寺沙門釋無漏傳

釋無漏者清泉陳氏子名伯藩以居積致富後乃披染舍資建寺及修路造橋工費鉅萬無所吝惜以郡城距南嶽百里游僧往還中途憇止苦無叢席以接水雲因擇迎水南二里許驛道傍以巖為屋題曰培元寺通澗承檐頗有幽致而寺中香積亦足自贍道侶朝嶽便塗休息尤所欣願寺蓋創建於道光中而李星沅過寺詩云盤髻上巉巖微茫夕照銜冷黃垂橘柚濕翠落松杉瀑布竹間瀉修樓山半嵌寺名建何代吾欲叩琅函然詢之寺僧無不知者不待檢琅函也無漏道行清潔悲願尤宏嘗立四十八願此其一也城北青草橋跨承水立基^圮者再三無漏持咒祝之橋基不壞今百年矣土人相傳無漏以寶物置其下蓋神之也

清維揚沙門釋澍菴傳

釋澍菴者不知氏族所出或云江南甘泉人或曰儀徵莫能詳也幼性羸獷長而游惰無賴及出家時復放縱不持戒律嘗居揚州禪寺入厨爭食惡語慢罵主僧惡其無禮對眾訶譴之且言不知懺悔當逐之出院澍憤恨思所以報之潛入厨操刀置諸枕中夜忽自悔曰若此所為於復讎則得矣如鬼神何已而念湔恥之術惟在自修而學道之方自顧蔑如展轉無寐天且曙復自念曰吾聞至心持大悲神咒者無不徹法源證上果吾雖無知猶能誦此奈何以無術自阻邪明日謁主僧禮謝自陳願閉關三年專持神呪乞假靜室且助衣食主僧許諾遂移居藏經閣朝夕持誦不懈削竹為片題曰禁語懸諸胸前有登閣者欲與語輒指以示如是者三年乃出及出則神采頓殊抑抑自下見者皆敬異之而莫測其所證云何揚州士俗喜入茶社雖文人學子列坐其間僧道亦與焉時海內方尚考證湯盤禹鼎名物象數各專一經以求淹博號曰漢學儀徵阮文達校勘十三經海內宗之一時執經問難爭辯不休舉國風靡客有析經籍疑義於茶社者相詰難甚苦澍適在其傍笑而不言客察其狀有異起而問之澍曰卿曹所譚皆有佚脫何相難為因為各誦所論書且誦且解娓娓不已客相顧駭服由是以通博聞於時士

子從問經史者無虛日久之乃知其於內外方策九流百家及說部雜記不待研求無不暗合者輕薄少年或戲詰以綺語諸書亦應聲誦之以是競傳神異而阮文達方予告家居聞其名試與語澍亦矚對不倦文達歎異之謂其所證超然於天人之表非佔畢者所能測云咸豐初元澍已老矣猶時出應客見少年遨戲無節者輒歎曰後生不軌於正惟事嬉逐老僧且死不得見矣不日災害將至不知何以自存也或反詰之復黯然神傷而已越二年粵寇陷揚州澍寂已逾年其言乃驗澍晚歲獨處日以寫經自課所書華嚴諸經嘗為徒侶分去故所見多殘帙或云所書全經亦不少揚州叢林往往有藏之者江都釋祥開每謂人曰少時見澍輒不敢仰視故無由霑法乳自求解脫至以為恨可想見其威嚴或謂澍以凡夫驟登聖域迹其所獲非見思惑盡圓證聲聞極果者不能臻此蓋澍所持大悲陀羅尼威神赫奕包舉法界無所不統其所證為究竟三昧即實慧也固已超然於分段生死之外視禪宗之徹悟復乎遠矣

清潤州焦山寺沙門釋悟信傳

釋悟信字照空丹徒人幼孤寒出家後往來鶴林五州間粵匪亂平始居焦山西堂性質樸不事矜飾居恒禮誦寒暑不輟精誠所至頗多感通一日有夫婦兩人來自安慶指訪照空或問其故含涕語之曰有兒數歲今忽暴亡亡後三日同感異兆非得照空誦經不獲超生與有宿緣云信出相見詢兒生年月日沈吟久之曰前曾蓄一貓貓死之日即兒生之辰也與有宿緣其以此乎遂許為禮懺及設瑜伽餞口頗見感應泣謝而去六道升沈因緣果報誠有不可思議者以光緒壬午歲寂於焦山年七十有七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源修傳(釋柱)

釋源修姓周氏寶應人年四十一棄家為僧冬夏一衲日中一食清咸豐間約同侶數輩取道西藏往參佛國偕伴數人不堪其苦皆中途而返修一意孤行孑然獨邁越懸渡逾雪山經歷寒暑直達印度心欲見佛無從問訊憩坐道旁忽聞[言*乎]江南源修者三且云佛召汝見遂飄然隨去至則殿宇光明目不能視志誠頂禮佛坐蓮臺摩頂慰勞賜名阿王因問來此何為修以但願常觀如來對佛云此間緣分尚未具足汝可往清涼山造石室五使參禮者有所安息斯可已遂遵道而返刻志興築獲茲靈感冀得神助果遇蜀僧釋柱相與為理數年間五臺五室並峙林際修後端坐誦號無疾而化釋柱者未詳其姓氏生平靜默寡言人莫測其蘊奧既與源修同築五臺石窟既成遂隱於棲霞山光緒初元示微疾屬將事者於闍毗後粉骨為丸施之江中並以錢二百酒一尊花果飴餅少許眾如其言時值隆冬泛舟江

上捨茲丸骨所攜錢物恰應舟子所需散後回棹訊所由來知亡者遺言乃爾舟子歎曰此人當生安養矣轉瞬失舟所在

清燕京潭柘山岫雲寺沙門釋常順傳

釋常順字智成姓王氏俗呼王三涉人也父母早世少依邑中松爾寺同興祝髮蔬食苦行幽闇獨坐不與眾處常自言笑若與人晤及就察之塊然一室人莫測所由清同治十三年詣京西潭柘山從慈雲受具戒既得度牒便造寺北高峰極顛置焉歸謂其侶曰吾牒俾虎守之人笑其妄然自是居無常所髣髴若狂寺東山旁有蝎子洞六月寒風襲人或不敢近順獨居之無恙人始異焉嘗為人治病無方藥鍼灸偶拾木葉草莖雜以牛溲馬勃飲之輒愈人以是奇之競相傳說求醫者日益多則息於樹梢崖巔以避之有尋得者輒謾罵已而復隨拾與之使去時值瘟疫流行順至津沽為人驅疫所至就差人多信仰為造像奉之今河東橋畔人家猶時相膜拜順往來津京飄忽無定時見時隱或向人作禽言獸舞多不可解以魔佛號之光緒十六年春順赤體跣足手持白灰粉石於山樹崖壁圖畫龜鼉魚鼈人或怪之但云到時便知至秋七月山洪暴發寺門外石橋溝深十丈至是水高於橋數丈蕩析林屋漂流數百里寺中銅鼎重萬兩為水衝至羅灘村南後運還寺新房村東首廟前古槐大十圍乘水浮去自佛門溝至房山縣地四五十里因根石盤結樹隨水行不偏不倚卒止於溝口亭亭若張蓋至今存焉當水發時居人登高見有獸而角者湧浪澎湃狀若怒濤或云此蛟也順獨預知其兆人始服其神異庚子之變肇於拳民聯軍入京兩宮西狩六部長官先後奔赴行在達宦富室紛紛遷徙都城一空先數月順不著衣履遊行市間袒露胸膊指示人曰上半截一掃光且行且唱多不解其故及拳禍作紅燈教出名曰一掃光其言乃驗當水災後寺宇傾廢方欲興修正待募集適恭忠王出遊將至山寺順懸兩鐵鉤於頤獨坐石橋候之王至奇其狀貌又習聞山有異僧因戲之曰汝坐此何為曰化緣王曰化誰曰誰可捨吾化誰王曰吾聞汝有道行能食椒四兩不死吾助此緣順果食之卒無恙恭王前後捨施鉅萬規模閎廓金紫灼赫殊勝於前順之力也然鳩工估直出入經營順不過問敝衣行囊放浪自若嘗游京市走入倡門直軀臥闌踞牀高坐兩手金錢盈握伎女環觀復指肘後一囊白光粲粲若數千銀餅笑謂之曰若愛我即予若然伎寮素聞魔佛敬之若神俱莫敢近順出以金錢擲地鏗然有聲迫而視之若流入地中都忽不見行疾如飛走馬逐之不及宣統元年正月元日示微疾作偈別眾曰始來終去五旬五狀瘋類禽與獸舞人贈別號稱魔佛願眾醒迷說三塗寂於水雲堂清御史徐花農者感厥神異執弟子禮是夕夢順至其家伎樂前道天花繽紛與之別曰吾今他去老虎洞裏煩君護持醒而異之明日探視則順於子時入滅徐於西山洞中塑像奉之至今乞藥者靈感尤甚順生時嘗作偈云將來羅侯嶺上平片野荒涼行路

希獨自吟詠人莫得其故及洪憲改元袁總統將即帝位使人至西山削平羅侯嶺頂以通車路殆所謂嶺上平與尚未至行路希也

清燕京法源寺沙門釋護德傳

釋護德字明覺姓李氏首陽人也父曰得仁母施氏世有隱德同抱慈心故護德生秉懿質賦性恬安幼而沈重恒寡言笑時或怪之乃道機潛伏歛默世煩就昭化寺衛生落髮蔬食苦行專持神咒屢感異徵秘不示人或知者即而訊之則相視默然光緒戊子始來燕都止於法源寺深闕禪房略無表見己丑受具戒於靜涵律師寺中老宿也既習毘尼因歷名山東踐補陀西指峨眉南極衡嶺北履臺山行腳六載精究一乘以佛法玄旨淨心為本財利炫俗頗乖教化欲以積苦動其觀感甲午之秋復來法源屈職鐘寮鴻昏烏顯應時無爽寒暑不易幾三十年寺為唐太宗所創舊號愍忠前院古柏參天清陰夏寒游侶避熱多憩其下護德鬻茗陳几不憚煩辱人或施予必辭謝受之則盡以市香燭爇諸佛前朝夕膜拜禪悅之餘喜種花草階前數弓環植玉簪鳳仙紫菊紅藥春秋相代而林中故有榆梅銀杏丁香海棠花時羣屐蹠躑掩映其間一見護德面顰神隳儀觀秩秩如親古佛莫不心折神曠敬仰彌殷嘗植牡丹一株初開白花逾年變為綠萼主僧靜涵異之移諸內院然知護德非凡夫也未幾靜涵寂主席數易護德遂終於鐘寮首陽諸弟子歲時覲省欲迎居昭化以怡老壽護德殊不謂然終曰兀兀守此追蠡響答海潮韻以神超百年旦暮與鐘俱迴者也甲寅八月秋一日侵曉鐘聲初竭方起掃院見烏鵲千百成羣飛鳴樹頂如有所俟別有三鵲從西而來爪連翅交共銜一物集於鐘樓前小樹群鵲譟鳴護德知有異趨[言*乎]門寮寓客湘中兩生俄而鏗然墜地有聲驚視則阿難銅像一軀高才五寸許重三十兩兩生迎入寮廳頃之戶外蛛網萬絲結成羅幔兩生不敢近護德灑以香水禮拜而去蛛網自散無何兩生還湘竟攜以歸寺主道階欲置護德於理使訟兩生護德默然桂陽夏內史壽田與書道階謂三鳥銜來於師何親兩人持去又於師何怨佛若有靈以世界為傳舍佛若無靈直與人爭銅耳願息心無悶以參大道且作歌以廣其意歌曰寺中老鴉梳翎忽然如有人使令飛入何王宮殿裏銜出宮中銅佛子眾雛鳴遶誦貝多欲依雲樹作禪窠挂鉢人出鳥驚散捨得潛將置空殿殿古苔深香火無唯有蠨蛸守戶樞夜吐天經為布施珠網四垂雲覆地端嚴螺髻坐中央徧與蟲天作道場老僧一見驚突兀靈異從來無此物諸天涕淚傾海潮萬人膜拜法壇高誓傾寶藏為瓔珞不惜精金鑄鵲巢行腳住持爭供養各求勝地安龍象一朝唄罷失雲蹤香花猶在佛牀空道俗人天莫惆悵去來總在靈山上世人結念向真如豈識真如一相無禪堂自宿蟲檀越戒樹還棲鳥苾芻苾芻檀越無煩惱人生那得如蟲鳥湘潭楊京卿度以歌和之曰城中烏鴉銜佛像墜在城南寺階上寺僧供養空殿中一宵蛛網覆千重我聞靈異

來瞻拜僧告前宵失所在即今城野方尋取我語諸僧無復爾人天蟲鳥幻
中緣去住無心只偶然即隨鳥喙原游戲縱惹蛛絲不挂牽來處來去處去
緣盡還空無覓處復有恩施樊方伯增祥作息訟詞多方譬曉其禍始寢文
具寺志而護德不問也蓋佛之來為護德來而人不知故佛之去亦為護德
去而人復不知幸寺主一怒以守舍責護德使訴兩生而夏楊諸賢乃歌詠
其事反為護德證明靈異感召吁亦神矣然自是護德益灑然凡有物故必
先知之寺前西南院曰萬壽宮舊有井嘉慶時甘泉湧出號為龍王靈井災
旱請雨輒有應今宮毀井荒且二十年矣榛莽蕪穢人跡罕到而地接鼓樓
護德於定中見物自井出逐一僧審其狀似衡山游僧寺主弟子也護德以
身蔽之而與物鬪明日誠游僧勿妄出無何竟以微故忿其師自投於井死
焉有夏生者蕭縣人求友京師不遇然工刀筆故律師也寺主方以增租與
田者訟得夏生喜延之丈室寢食與俱會天寒風冽單衣楚楚忍凍以待又
自以積勞當酬寺主必不恕視竟以寒病死先是夏生方寢疾護德夜提一
鐙自前院追入及內廊而止一寺皆驚或曰夏生曾為軍事執法殺人累千
仇家跡之乃逃於禪以自懺護德所見殆宿冤也有問之者但默然頷之而
已人由是知護德能見鬼物衡陽程肅政崇信生有夙慧不昧因果嘗叩以
定中所見景象及神鬼形狀護德初亦默默不言久之往還頻數請益再四
始述所見鬼神出入皆至天王殿前禮拜以次進退雖達官貴人亦然及叩
以有識者乎復默然已而為程長娣誦金剛經一部祓除畏惡事有應驗深
相歎服遂歸依佛法長持戒珠優入淨域如斯感化者亦復不尠然護德不
欲人知多秘而不傳王_戊秋七月十六日寂於法源鐘寮年六十有七臘三
十有四茶毘有舍利紅如赤小豆

- 遺身篇第七之一(正傳九人 附見四人)
 -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德輝傳
 - 華亭青龍庵沙門釋妙普傳
 - 元上海柘澤寺沙門釋德林傳
 - 明長沙柏林寺沙門釋明星傳(曼荼羅尊者 參靈)
 - 上海施水庵沙門釋善信傳
 - 金陵寶華寺沙門釋普照傳
 - 荊州沙門釋明秀傳(明富)
 - 富陽栗塢山沙門釋康齋傳(歸化比丘尼)
 - 薊州林亭庵沙門釋朗然傳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德輝傳

釋德輝者不詳何許人宋嘉泰初住淨慈四年寺燬德輝亦隨火化去其辭世偈云一生無利亦無名圓頂方袍自在行道念只從心上起禪機偶向舌根生百千萬劫假非假六十三年真不真今向無明叢裏去不留一物在南屏預書壁間按淨慈寺於宋建炎初燬於火鞠為荆榛高宗巡幸詔佛智道容住持欲重修之殿宇輝煌金彩絢麗為一時之冠

南宋華亭青龍庵沙門釋妙普傳

釋妙普號性空漢州人久依黃龍死心密受心印品格高古氣宇宏邁因慕船子遺風抵秀水結庵於青龍之野別無長物唯吹鐵笛以自娛好吟咏嘗賦山居詩云心法雙忘猶隔妄色塵不二尚餘塵百鳥不來春又過不知誰是住庵人示眾偈云學道猶如守禁城晝防六賊夜惶惶中軍主將能行令不動干戈治太平宋建炎初賊徐明叛道經烏鎮肆意殺戮民懼逃亡普聞歎曰眾生塗炭吾盍救之乃荷策而行直詣賊所賊見其偉異疑必奸詭詢其來處答曰禪者問何所之云往密印寺也賊怒欲斬之普曰生死易了奚以怒為吾死必矣願得一飯以為送終賊奉肉羹普供佛出生如常儀曰孰當為我文以祭賊笑不答普索紙筆大書曰嗚呼惟靈勞我以生則大塊之過役我以壽則陰陽之失乏我以貧則五行不正困我以命則時日不吉吁哉至哉出塵之道悟我之性與其妙心則其妙心孰與為鄰上同諸佛之真化下合凡夫之無明纖塵不動本自圓成妙矣哉妙矣哉日月未足以為明乾坤未足以為大磊磊落落無罣無礙六十餘年和光混俗四十二臘逍遙

自在逢人則喜見佛不拜笑矣乎笑矣乎可惜少年郎風流太光彩坦然歸去付春風體似虛空終不壞尚饗遂舉筋飴肉賊徒大笑食已曰劫數既遭離亂我是快活烈漢如今正好棄時便請一刀兩段乃大呼斬斬賊駭異稽首謝過令衛而出於是民之廬舍少長無恙者普之惠也紹興冬自造大盆鑿穴塞之修書寄雪竇持曰吾將水葬矣王_戎持至見普自若乃作偈嘲之曰咄哉老性空剛欲饒魚鱉胡不索性去祇管向人說普笑曰遲兄證明耳徧告遐邇示以法要乃說偈曰坐脫立亡不如水葬一省柴燒二免開礦撒手便行不妨快暢是誰知音船子和尚高風難繼百千年一曲漁歌少人唱遂跌坐盆中口吹鐵笛順潮而下眾皆隨至海濱普始去其塞其水洄漩眾擁觀水涓涓侵入乃乘流而往歌曰六十餘年返故鄉沒蹤跡處妙難量真風徧寄知音者鐵笛橫吹作散場人望日斷尚聞笛聲_{嗚咽}於蒼茫之間遙見以笛擲空而沒眾號泣競圖像事之後三日見於沙上跏趺如生道俗迎歸留五日闍維舍利大如菽有二鶴徘徊空際火盡始去塔於青龍庵

元上海柘澤寺沙門釋德林傳

釋德林東甌人元至正十三年獨來上海居柘澤寺寺因兵火歲久荒廢林禪坐其中饑寒絕不嬰心一笠一瓢偃然自足越歲夏五月忽語人曰疇能施我一龕九月一日將此身焚却人未之信至期市薪繞龕跌坐於內合掌說偈竟火自身起觀者始瞿然咨嗟而去

明長沙柏林寺沙門釋明星傳(曼荼羅尊者 參靈)

釋明星長沙人也幼有異骨性慈惠好施與出家為柏林寺沙彌時嘗飯一乞者主僧甚吝惡其所為斥逐出寺乞者知之招明星入山授以異術祈晴禱雨屢著靈應明隆慶二年戊辰歲大旱三月不雨人心皇皇大吏憂之明星以祈禱請且言三日不雨當火其身乃築壇置薪其上令登之明星虔誠作法終三日日更烈大吏怒其妄命舉火火作離壇咫尺忽大風揚塵雨隨風至傾注平疇歲大熟踰年火化年九十餘故世稱明星長老後人為建寺祀焉每遇旱災輿蓋止寺雖烈日必有片雲覆之又曼荼羅尊者長沙周氏子名福因為僧號故志乘直稱周福俗呼周仙亦號周公真人其實密宗龍象也初具戒時精持律儀行頭陀行當是時禪風盛興多剽竊語錄貌為解悟故野狐禪為世詬病福殊不屑也研讀大乘方等陀羅尼密部初無定所後於黑麋峰下縛竹為庵四威儀中專精密學嚴淨壇場名曼荼羅靜隱深山修持數十年不與人道世人亦鮮知者一日謂其徒曰化緣將盡當遵佛制合就火浴使入山取柴積高丈許浴沐更衣端坐其上命徒舉火皆畏憚莫敢近福持木魚誦咒朗朗火忽自然逆烈復告徒曰若歲逢旱魃可呼我名當降霖雨自明萬曆以來鄉人禱雨但稱周仙或呼周爺事多靈應相傳

雨至時恍於風雨中雜木魚誦咒聲如火化時同時有參靈者姓瞿氏長沙東鄉人也俗呼瞿和尚志或作餐苓目為神仙者非也明萬曆間出家古華山寺年七歲相傳為沙彌時喜聞奇異事一日聞人拜誦觀音號忽合掌曰大慈大悲救苦救難為僧伽者應發如是心也及壯遠遊西蜀得傳密印受持瑜伽大教王經遂獲總持三昧復回長沙隱集龍山中四十餘年長爪披髮見者疑為仙也清順治初始出山集薪白沙河畔沐浴舉火坐誦瑜伽經如曩日忽風雷大作須臾身化四眾感慕是年八月建寺集龍山中造像供奉每有旱潦疫癘士庶祈求莫不應驗至今香火甚盛至同治丁卯鄉紳念託神佑列具事蹟以請乃敕封溥護真人蓋沿志書餐苓而誤或又以為佛門仙子謬矣

明上海施水庵沙門釋善信傳

釋善信字無疑姓吳氏嘉定人也年二十九出家上海施水庵依智德為師初不識字唯特佛號久之教以經論便能了悟一日索浴入龕歛然火起自焚其身寺僧為起塔繪像

明金陵寶華山寺沙門釋普照傳

釋普照未知何許人亦不祥其姓氏初梁武帝時有釋寶誌者屢見神異卓錫斯山故舊有誌公庵明嘉靖時圯廢已久荆榛叢雜狼虎窟之人不敢近照乃審跡尋址燔其林莽構廬而居纂修其緒虎猶羣聚高據洞穴照斷臂祭之虎乃散去人謂誠心所感自是游跡復通誌公之業賴以弗湮至萬曆間其徒明律復張拓之後妙峯液銅為殿、吉山中明律以菴基山場田畝悉獻之而寶華山之名始著

明荊門沙門釋明秀傳(明富)

釋明秀字碧天川人也自蜀入楚止於荊門四十餘年一日沐浴禮佛謂其徒曰吾西去矣趺坐禪榻合掌喃喃火自內出焚及胸際猶號佛不絕須臾而化蓋平日止一敝榻橫陳牆下不與窗壁相連其下常積薪蒸便於取爨故與其徒話別時未見伏火不虞其自焚也及燄迸烽烈始相駭異知其積誠有素信非偶然又居士張富明者荊門人萬曆中治龕象山呼佛自焚明富不習文義臨化作打破虛空一偈觀者比於碧天云

明富陽栗塢山沙門釋康齋傳(歸化比丘尼)

釋康齋亦忘其姓字蜀人也明崇禎間至富陽栗塢山枯坐石洞中一日忽語里人曰貧僧欲去願乞薪一束里中爭捨之遂厝薪空地及期跌坐其上以油布帽覆首吐三昧火自焚觀者如堵火已發忽舉帽向人呼曰大眾信女中有生氣相沖火不得化請各退避眾詢之果有孕婦雜人叢中既被指斥赧然辟去復以帽自覆火遂大舉須臾而盡其徒收骨入洞中又歸化薪傳庵比丘尼者昆明人亦未詳其名氏明崇禎季年欲募薪自焚眾未之信及佛誕日詣歸化東積薪為臺自登其上跌坐念佛乃命秉炬移時而化當日見者感歎讚揚交於巷塗後人仰之為之建庵名曰薪傳復為立塔以示崇向一時名士騷人聞其苦行多相題詠今所傳者有四絕云今日優曇花茂發淨梵王宮生悉達只從者裏便承當性火真空阿刺刺瘡冷沈寒骨一束十方普見光明燭靈龜託殼已多時無位真人火中浴萬仞祥光匝地飄漫空枝葉一肩挑今朝匾擔兩頭折千日擔柴一日燒剎剎塵塵懸寶鑑鑑中燦爛飛急電三千世界盡遭焚九品蓮花開爛熳

明薊州林亭庵沙門釋朗然傳

釋朗然寶坻人住林亭口小庵中性質魯鈍行止甚端里人頗重之一日入盤山遇老僧授以念佛法門歸而行之三年不懈感內火自焚其身不壞狀若古銅鏗然有聲今供庵中智朴有詩示諸禪者詩曰禪者分衛歸備言邨中事有僧曰朗然根性乏聰利聲聲憶佛名只提六箇字誓願見彌陀晝夜無遷次堅行三載周果滿從前志智火自內燔六根光明熾頃之煙燄消端嚴良可視是非堅密身畢竟難思議末世精進幢小子勉而識腳跟下未明光陰莫虛棄須自檢點看生死非兒戲

- 遺身篇第七之二(正傳十一人 附見九人)
 -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杲傳(侍者)
 - 江甯華山沙門釋海潤傳(長涇僧 羅墅僧)
 - 荊門沙門釋無名傳
 - 衡陽法輪寺沙門釋淡遠傳(香英)
 - 杭州雲林寺沙門釋止安傳(定世)
 - 南嶽祝聖寺沙門釋齋子傳(慧明)
 - 江南金山寺沙門釋了庵傳(絡絲僧)
 - 房山上方黃龍庵沙門釋成淵傳
 - 宜昌慈雲寺沙門釋惺參傳(顯遠)
 - 荊州資聖寺沙門釋性空傳
 - 常州天寧寺沙門釋常慧傳(香火道人)
 - 清燕京隆安寺沙門釋真源傳

清杭州理安寺沙門釋行杲傳(侍者)

釋行杲字汝風姓張氏吳門人初依蒼雪博習經論後參箬庵問於夾山舉風穴見南院因緣命杲頌之乃頌曰師資合處芥投鍼嶽未為高海未深看去作家鑪鞴在能消躍冶不祥金箬庵見之喜曰此則機緣三十年來罕有契其旨者今日始愜吾意遂承記荊繼席南澗三載退居潤州靜室康熙戊午正月三日往鶴林與天樹植訣別植曰新年頭何得說末後語杲曰實非戲言朽骨火後祈颺大江無違我願由是相別至廿四日鄰庵火起杲但整衣侍者曰火猛且近奈何盍速出杲曰吾時節至矣侍者曰師如是弟子敢離左右遂同證火光三昧門人依命葬之大江龍門有語錄一卷

清江甯華山沙門釋海潤傳(長涇僧 羅墅僧)

釋海潤字西一山陽人不詳姓氏康熙二十九年春三月始來江甯棲於華山或問作何行業曰念佛問來茲何為曰為生死事故四月朔日卓午當去問去何之曰至日自見耳及期眾忽見山頂火光燭天亟趨視見潤跏趺貴人峯火從眼耳口鼻中迸出照其軀良久其身端直火盡不傾時無錫長涇有一庵僧椎魯無他長唯念佛而已一日告眾曰吾明日當去至明日問其徒曰日中否徒曰未曰姑遲之少頃復問徒曰中矣乃踞座跏趺口中出火焚其身又武進羅墅庵僧姓周氏專修淨土一意念佛自知時至託鉢出募

但乞薪一束眾多與之數日積如山至期來觀者千餘人口中出火自焚鄉人即其處建庵立塔名化身庵

清荊門沙門釋無名傳

釋無名者自言姓秦不知其名遂以無名名之往來荊蜀間隱見無常年八十餘語未來事多奇中鄉人異之然心懷利濟喜造橋梁每入市叩募因果分明所作有萬善橋遠近德之康熙十三年甲寅九月積薪荊門城南手執木魚登柴趺坐命僧舉火觀者如堵乃舉首向眾曰萬善橋基址未堅四十年後當有重修語未終火已及身猶叩魚聲聲朗誦化後一日有自北道來者見僧飄飄山中至城聞人談瘋僧自焚事乃相驚異後四十年康熙甲午宋思聖來宰是州見萬善橋微傾捐廉修之其工始堅然思聖初不知前事也瘋僧所言正驗斯亦奇矣

清衡陽法輪寺沙門釋淡遠傳(香英)

釋淡遠者石隱弟子也衡陽附生王仁綱因訟田稅倍額入獄感神僧靈異得出歸直詣寺訪之羣僧迎勞愈驚禮為弟子石隱不可事具石隱傳乃命淡遠偕仁綱居鹽菜山一日促仁綱歸家期日訪之仁綱歸而死將斂淡遠緇衣振錫誦咒柩前而去以是傳其慧通縣大疫求治於淡遠曰非律也求之益堅乃命疫家各然香禱佛香起室中病者皆見神僧環室走俄而盡愈麀兔殘寺中園蔬淡遠祝之曰此寺居山僻乞食艱難賴藝蔬以供眾山主檀越何弗護視乎明日麀兔數十伏死籬外淡遠蹙然曰母犯園蔬足矣罰之太過即見麀兔蹶然皆起預示死日積薪自焚既化得舍利斗許死之日或遇之朱石渡且寄語寺中云香英者居燕山庵持戒行不營田圃寺外隙地可十餘畝其徒請種巨勝取油以供佛燈止之不可及實告之及穫又告筭油又告皆不應已儲油甕中繡斷盡傾香英哂曰何如徒請其故曰有求則有妄自是寺旁居人多化其教安分守素不事強求一日集眾趺坐披衣持鉢以香然趾已而燄起燭於室自朝至日昃然及腹誦咒如故及胸投鉢而化火掣如電其日或遇之集福寺問其行曰西鄉寄聲其徒如言往則將入塔矣詢其死時正道中共語時也

清杭州雲林寺沙門釋止安傳(定世)

釋止安宜興人久居雲林恆服勤務作操劬苦不言勞勩而性真樸拙與物無欺常見寺庫空乏資糧無辦主僧終年託[友/皿]奔走四方不足供眾且棟宇傾朽無緣重興安獨憂之每當食而歎或未之喻乃慨然自誓捨身明法因斂薪高積危坐其上與眾訣曰止安去後願天人感應使雲構增輝

香厨充滿遂擲炬自焚朗聲誦佛怡然無恐觀者如堵莫不讚歎驚為尠見昔元漳州開元寺釋定世因峒賊之攻祝城不陷生焚以答僧恆白為詩以美之若止安者欲振興佛寺發茲弘願後先相視誠無愧色時乾隆五年閏六月三日也

清南嶽祝聖寺沙門釋齋子傳(慧明)

釋齋子姓王氏江西人削髮祝聖寺執行苦役日持布囊乞一盞飯終日沿門不語不笑但叩鈴音表其悲願一日往鐵佛寺門拾柴為蓬刺牽住因舉火燒蓬火然端坐蓬中手敲木魚佛聲不絕火近腹魚響甚厲又慧明結茨南坪日啖苦菜曾參曉堂話無生理忽一日移龕攢柴浴身入龕火化

清江南金山寺沙門釋了庵傳(絡絲僧)

釋了庵者不知何許人為誠慤不事浮華出家後歷訪名山參究甚切別有人處深自退藏莫闕其際晚遊漢臯居士嚴君買園奉之彌專淨志居久之忽得疾謂嚴君曰可歸我江南乃為具舟送之金山禪房清寂頗資調攝復來江寧棲於城寺一日積薪庭前危坐其上連稱佛號召眾舉火眾莫之應厲聲促之或授以炷香取向鼻間吹之火從鼻端出然至面及衣而下薪烈火熾唱佛不絕隱隱聞聲向西而邁頃之化為煙燼先是了庵自漢歸有遺身志每與徒眾言吾寂後當磨骨為粉捨之江中以結蟲魚語甚懇至其徒諾之然猶不虞其如此也至是乃益驚歎不敢有違竟如其言蓋在乾隆時云又絡絲僧者遺其名字蓋杭人也幼事絡絲棄而為僧人稱絡絲僧云嘗獨居破庵晝夜誦佛不絕口顧無以自存乃謂其舊主人曰但飯我仍為主絡絲主人從之既得食則手軋軋而口喃喃他無所事如是者數年一日携零紙滿筐向吳居士西泠欲易錢百餘文西泠固高士與僧有夙契慨然曰需錢何為予自可供之而顧以此相易耶予又何需此僧徐答曰居士前我弗敢隱今日我將西歸擬市柴一擔耳西泠曰果爾予即供之僧合掌謝因將柴歸並期西泠屆時一臨為作證明西泠諾之至時西泠至庵前則僧已積柴為座趺坐其上四面火燄俱熾僧於火光中舉手向西泠作別狀忽以手拭面頓見黃金色俄焉化盡西泠喟然歎曰善哉古賢奇蹤再見於今日矣觀者數百人咸感嗟不已

清房山上方黃龍庵沙門釋成淵傳

釋成淵字水月姓胡氏龍南人也母氏董素懷善念淵生而開悟幼即捨身東華山依慧敬為師復畢規律於白圭座下即行脚江南循海而東游學十餘年參叩不疲至浙江天台山得法於廣潤寺鏡堂長老沈契深悟於楞伽

精義多有啟發推為後秀翹楚因繼法席十有三載一日謂其徒曰叢宇接續正待來賢吾將卸肩汝曹善護之乾隆元年翩然北上息止都闔宣武城南松柏庵僧流羽客時相叩訪振振有聲達官長者車跡盈門復厭去之投足上方結茅峯下文殊達公親其丰采心竊慕之請主黃龍淵時年已七十而精神康勝涵養亦醕居山七年幽室闇居莫測所以乾隆十一年秋八月望日節屈中秋人看明月而淵忽不見罔識所向闔戶視之一瓢一笠而外復遺一偈曰秋月圓明歸元消息踏破虛空不留形跡云云羣相嗟異越明年丁卯春有薪采沈氏子於山北翠微峯上見之危然端坐蓋淵去時至是已六越月矣聞薪者語咸趨峯下邈不得徑攀藤以升環繞法體焚香頂禮雖經霜雪面目宛然山中居民聞風麇集莫不歡喜讚歎驚為希有翠微去黃龍五里餘素多虎狼樵跡罕到非結伴不敢近淵超然而來嘿然而化所謂遺身向道自了生死者非與乃積柴峰頂舉火以浴而頂門汗出異香飄蕩斂其骨藏焉建塔以表之真州方嶠為之記文具山志

清宜昌慈雲寺沙門釋惺參傳(顯遠)

釋惺參字心恒姓劉氏監利人也性純篤好施與事親孝能曲盡其道年四十父母並謝痛念無常專心求度乃薙染於當陽玉泉禮靜然為師靜然名顯遠少穎悟讀書數行俱下清辯入神而持詣精苦不避艱辛晨汲晚樵視為妙用處之怡然惺承其教澤服膺已深既稟具戒並荷衣法嘗游荊州以苦行導化開如來延慶水月三寺為叢社復往宜昌創慈雲寺弘我法旨四眾歸之主持數年退居萬年寺平昔嚴持戒德虔誦金剛經一日詔其徒曰汝侍吾有年能知金剛經之功德不可思議果報亦不可思議乎經云一切諸佛及諸阿耨多羅三藐三菩提皆從此經出吾行住坐臥不離此經者蓋念人生難得樂土難生吾今年七十有六不願久溷塵濁行將西歸與汝別矣因命徒眾積柴於寺壘漸高乃從容就之向薪東西拜登之說偈曰當初不來於今何去慧燈不滅靈臺一炬風掃枝頭月映潭底眾善護法生死何異須臾火自內發香煙結蓋上入霄漢觀者千數百人莫不讚歎收靈骨獲舍利子七塔於慈雲寺前時嘉慶戊寅秋七月既望也又清慧者在重慶遇之詰其何往曰欲禮峨嵋因謂僧曰汝至荊州憩宜昌否僧曰正往宜昌然則可相煩耳吾有念珠芒屨二事乞投慈雲方丈及僧至寺而惺已涅槃方驚神異回睹二物固無恙也此僧於惺亦曾相契云

清荊州資聖寺沙門釋性空傳

釋性空者遺其姓氏住資聖寺寺建自唐天寶間於邑中為最古性空虔誦華嚴經晨昏不間數十年如一日清嘉慶丁卯積薪自焚烈燄中見阿羅漢相異香三日不散

清常州天寧寺沙門釋常慧傳(香火道人)

釋常慧字朗照霍山人少從池州青陽九華山淨度寺出家光緒初元受具戒於甘露十七年四月九日始來常州天寧歸心淨土專誠念佛刻苦精勤閱十五載無一息稍懈後遷普同院仍持苦行至老不衰寺內有閉關僧慧每為護關亦經多期日誦法華見藥王焚身因弘茲願捨身救世宣統三年時事改革天下多故道德日喪欲實行其志昌明佛法挽回人心化爭競為慈祥弭貪嗔於未發天地殺機庶有止息耿耿此懷久不得遂甲寅四月十七日夜半於院牆東畔積薪如小座端趺於上舉火自化時年六十有九慧有一徒為鄉寺主數日前屬之曰余欲焚身煩爾舉燎徒漫應之終不果來當火起時往觀者眾見其合掌端坐於火光中蓋焚已過半矣乃袈裟成灰而銅鉤猶懸於肩下的然不墜蓋其道心堅決視死如歸故能周身火發節節然燒痛苦俱忘分寸不移非具真解脫得大自在詎能端凝不動從容以去如此乎樹旁設香案壚火未燼想見虔誠禮佛然後就化當時見者莫不敬仰嗟歎發起信心羣競施捨於焚身處建塔其上狄葆賢為記其事又香火道人丹陽朱氏子為縣中昌國寺司香虔心念佛人咸敬信之忽一日於城市中告相識者曰我當化去助我一束薪或笑之曰汝示滅耶若不自焚我為汝舉火道人欣然諾之至期四眾咸集道人中坐徐起坐積薪上命眾舉火眾不忍乃自焚焉昌國主僧奔赴其前道人心忽飛出主僧突而前滅其火納其心身皆不壞乃加金其上當火時人皆見道人在雲中鳴魚西去地方有警或預見道人坐雲中若擊木魚狀者

清燕京隆安寺沙門釋真源傳

釋真源字崇壽姓王氏大興人也賦質孱弱幼而多病因許捨身祈佛福佑遂爾霍然初依廣渠城闔隆安寺隆起祝髮同治四年受具於都城南法源寺寶珠既爛律度止作兼持儀容秩秩晚歲專志淨修翹首西方禮誦不輟自期安養會庚子之變九國聯軍進逼都城兩官西狩海內騷然初拳徒倡亂讎視祆教多假佛寺以處黨侶故聯軍入京擒斬拳民焚毀寺宇而隆安與焉當火起時寺眾紛紛避去源獨慨然曰忘身為教代有高人不尚苦行誰明弘旨且學佛所以了生死澈心性此而不決生復何為不如壹念西方與佛俱盡竟證火光於毘盧殿中時年五十有四

- 淨讀篇第八之一(正傳十五人 附見七人)
 -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有基傳
 - 四明延慶寺沙門釋知禮傳(省常)
 - 樂清政洪寺沙門釋覺秀傳
 - 池陽松山庵沙門釋義懷傳
 - 東山承天寺沙門釋本如傳
 - 華亭超果寺沙門釋靈照傳
 - 餘杭天竺寺沙門釋思義傳(可久)
 - 餘杭祥符寺沙門釋擇瑛傳(從雅)
 - 汴京慧林寺沙門釋宗本傳(善本)
 - 泰山靈巖寺沙門釋延珣傳
 - 餘杭法慧寺沙門釋慧才傳
 - 餘杭天竺寺沙門釋曇異傳(宗坦)
 - 甬東棲心寺沙門釋中立傳
 - 嘉禾崇福西寺沙門釋智深傳(智仙)
 - 餘杭法慧寺沙門釋法宗傳(思照)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有基傳

釋有基字及賢姓汪氏錢塘人五歲出家從天台壽昌法超授諸經論稍長聞四明寶雲傳智者教往事之受法華止觀隨言解義曲盡其妙端拱元年郡人請演教於太平興國寺學者數百人每白黑月必集眾誦菩薩戒法勸人念佛如是四十年數達萬眾遇歲歉則持鉢乞請分食徒侶祥符八年六月示疾弟子令祥請留訓基乃廣演圓音逾時光見西方音發空中如聆鼓吹基曰西方三聖人來也即右脇向西而化法智聞而歎曰扶病譚禪臨滅見佛信希有事哉茶毘出舍利無算爾後僧眾具有定力深心信仰者每於定光中見基具威儀西邁或坐青蓮華對佛說法又若阿彌陀佛為基授記者種種異徵皆不可思議云

宋四明延慶寺沙門釋知禮傳(省常)

釋知禮字約言明州金氏子其父母夢神僧携一童畀之曰此佛子羅睺羅也未幾生禮七歲喪母號哭不絕白父求出家依太平興國寺洪選得度及長詣寶雲寺義通法師學教觀圓頓之旨一受即了淳化中主乾符寺尋徙

保恩院敷揚教觀學徒踵至會明州旱禮與慈雲式同修光明懺約三日不雨當自焚一手如期果大雨大中祥符三年重建保恩寺賜名延慶六年建念佛施戒會自茲以降每歲二月望以為常舉嘗集十僧修法華懺三年更集十僧修大悲懺三年積精竭誠千日無倦人以為難自禮視之乃若固然復於佛前並焚三指真心妙諦超然生死天禧四年賜號法智大師勅令住世演教禮以從上諸祖闡揚淨土者多譚事相空示觀門暫被時機未窮圓頓因取天台觀無量壽經疏研極理奧曲暢玄風成妙宗鈔數萬言時方詔天生立放生池禮捨鉢資集諸善緣結放生會每歲佛誕日縱諸魚鳥有可以聞勅樞密劉筠撰文立碑院內天聖六年正月元日將示寂建光明懺七日至五日結跏趺坐召眾說法稱佛數百聲奄然而逝年六十九露龕二七日爪髮加長闍維時舌根不壞若蓮華然又省常字造微姓顏氏錢塘人七歲出家宋淳化中住南昭慶慕廬山之風謀結蓮社刻無量壽佛像刺血書華嚴淨行品於是易蓮社為淨行社士夫與會者一百二十人皆稱淨行弟子王文正公且為之首七眾且千人焉天禧正月十二日端坐念佛有頃大[言*乎]曰佛來也泊然而化眾見地皆金色移時方隱年六十二

宋樂清政洪寺沙門釋覺秀傳

釋覺秀姓陳氏曹田人也依政洪寺剃度參慧公看十不二門至一切諸法無非心性一性無性三千宛然忽焉大悟嘗以布袋盛經律卷往來浙閩諸山或問此中所盛何物秀曰十界十如權實之法都在裏許或自誦或示人人問其故秀曰為汝植菩提種以是人皆呼為秀布袋後開法京師十坐道場洪覺範一見推服贈以詩云夢澤於菟三日視丹山雛鳳九苞文還鄉妙曲誰能聽一笛清風兩岸聞

宋池陽松山庵沙門釋義懷傳

釋義懷姓陳氏樂清人遊汴京投景德寺為行童天聖中試經得度依明覺禪師於翠峯偶汲水折擔忽大悟作偈呈覺覺稱善其後五坐道場化導甚廣懷既了悟法原密修淨行嘗問學者云若言捨穢取淨厭此欣彼則取舍之情乃是眾生妄想若言無淨土則又違佛語畢竟如何復自答云生則決定生去則實不去晚以疾居池陽松山庵弟子智才住臨平佛日寺迎歸奉養才往蘇州懷促之歸別眾而逝年七十二

宋東山承天寺沙門釋本如傳

釋本如句章人而佚其姓字少依法智善詞翰嘗請益經義法智曰為我作知事三年卻向汝道三年復請法智厲聲一喝復呼曰本如如豁然有省以

頌呈法智可之祥符四年主東山承天寺大振法道歷三十年講法華涅槃光明觀無量壽等經及天台教觀至再至三終日不厭嘗集百僧修法懺一年瑞應屢見不可自承寶歷二年賜號神照法師與丞相章得象諸賢結白蓮社仁宗欽其道賜名白蓮寺皇祐三年五月十八日微疾升堂說法與眾訣別遂逝年七十時江上漁人見雲端有僧西向去天氣甚暑異香非常明年門人啟鑰貌如生有大蓮華產於塔前

宋華亭超果寺沙門釋靈照傳

釋靈照姓盧氏蘭溪人出家寶慧寺未期月通法華光明二經因往錢塘依香巖湛學教觀久之復之吳興謁淨覺仁岳台宗戶牖莫不通曉元豐中主吳山解空寺熙寧中遷華亭超果寺每歲春首開淨業社與者幾萬人恒多獲驗嘗於定中見西方聖相因跏而請曰願畢生誦大乘經期生安養乞示要道一神指曰淨土在心有願即生何遠之有又深夜誦經感普賢示兆遂造普賢像誦經萬部以嚴淨業元祐五年冬臥疾謂侍者曰吾安養之期已至遂面西累足而化闍維異香襲人舍利流迸

宋餘杭天竺寺沙門釋思義傳(可久)

釋思義字和甫姓凌氏武康人也試法華經第一得度悟解過人攝齋講席風發泉湧冷然動聽顧以苦行自勵勤修三昧嘗生肉瘻纍纍項下如是行持夜夢功德天食之以桃其疾良已熙寧四年賜紫衣錫號淨慧丞相蘇頌帥杭請居天竺大弘法化元祐三年二月十八日中夜趺坐別眾而寂久之忽甦曰適隨大士行見金甲神長身垂臂謂我曰汝報緣未盡過七日當來迎至期後坐化瘞龕之日有赤雲垂布如引導狀向西而沒可久者不詳所出居明州常誦法華願生淨土人號為久法華元祐八年年八十有一一日坐脫三日而蘇謂人曰吾遊淨土見諸勝境與經符契且言此間修淨業者蓮華臺上皆已標名歷舉所知言訖復化去後五年所舉徐道姑孫十二郎標金銀臺名者相繼沒沒時異香滿室天樂盈空久言多驗

宋餘杭祥符寺沙門釋擇瑛傳(從雅)

釋擇瑛姓俞氏桐江人出家餘杭寧壽寺熙寧中參神悟法師深悟止觀之道閱不二門金錁不寢者數月當湖魯氏創一院以迎瑛大弘法施嘗作往生淨土十願文曰永離三惡道速斷貪嗔癡常聞佛法僧勤修戒定慧恒隨諸佛學不退菩提心速見阿彌陀決定生安養分身徧塵刹廣度諸眾生在心在口日以自警元符二年春寂於祥符寺疾時西向凭几誦彌陀經卷終而逝從雅者錢塘人始從海月辯學止觀後入南山天王院勤誦法華金剛

彌陀諸經計以十數藏禮釋迦彌陀舍利塔累百千萬拜如是誠懇期生淨土故坐不背西無為楊傑述安樂國讚三十首以贈雅欲起發信心於淨住寺圖九品三輩刻傑讚於石或奏雅道行賜號法寶一日無疾趺坐而寂

宋汴京慧林寺沙門釋宗本傳(善本)

釋宗本字無詰姓管氏無錫人既受度參天衣懷禪師念佛有省後居杭州淨慈寺歲大旱湖井皆竭寺西隅忽湧甘泉得金鰻魚浚為井寺僧千餘賴以汲飲張氏有女死母夢女為蛇既覺得蛇棺下持詣本為說法俄有黑蟬翔棺上而蛇失所在母祝曰若吾女者可入籠中當再持詣淨慈如其祝本復為說法是夕女復見夢曰二報已解脫矣其母因問生死輪迴是信有之何以得免女曰六道四生如井上轆轤無一人可免唯修出世法當得脫耳盍問淨慈法主乎其顯化類如此本嘗奉詔入東京慧林寺賜號圓照禪師生平密修淨業雷峯才法師神遊淨土見一殿殊麗問之旁一人曰以待淨慈本禪師耳又資福曦公至慧林禮足施金而去人詰其故曰吾定中見金蓮華有神人言以俟慧林本公其他蓮華無數云以待受度者或有萎者云是退墮人也晚居姑蘇靈巖寺元符間將示寂沐浴而臥弟子環擁請偈本曰我向無偈今復何為尋常猶臥今日何須坐遂吉祥而暝若熟睡然弟子善本姓董氏開封人母禱佛而生及長試華嚴經得度師事圓照時稱大本小本詔住上都法雲寺賜號大通後歸杭州象塢寺杜門卻掃專修淨業有僧定中見方丈彌陀佛示金色身大觀三年十二月甲子屈三指告門人曰止有三日耳及期趺坐西面而去

宋泰山靈巖寺沙門釋延珣傳

釋延珣姓張氏生於歷下幼而迥異長更英特意捨浮華情眈定慧依靈巖山寺主僧志雅以為親教方袍圓頂稟戒持心已而遷入郡城別居蓮宇侶徒仰德士庶欽風常持念珠壹志諷禮一周之間誦維摩經一千卷課金剛經五萬卷由是廣神慶讚大集人天勝善克敷良緣是植以咸平二年歲在己亥九月庚辰朔旦示疾奄化弟子瓊因義重法乳深念訓誨建塔刻石使靈骨有歸嘉猷不墜今碑銘猶存具泰山志

宋餘杭法慧寺沙門釋慧才傳

釋慧才姓王氏樂清人也髫齡離俗師事白鶴山怡芳宋章聖御極封於泰山覃恩得度時年十三進受具戒從學四明性質愚鈍常持大悲咒願學通祖道忽於夢中見梵僧長數丈脫袈裟披之呼曰慧才盡心記取明日臨講豁然開悟前後所聞一時洞曉未幾首眾四座推服復謁慈雲北面服勤旦

夜不替宋治平初杭守沈公請住法慧寶閣二十年始終如一太尉盧公奏賜廣慈之號淨石來請勉徇眾意敷暢未久翕然從化已而退居雷峯塔下每翹足誦大悲咒必百八遍為課元豐元年春三月為靈芝元照及道俗千人受菩薩大戒於雪峯方羯磨時觀音像頂忽放光輝初貫寶輶漸散講堂鐙炬日色皆為映奪淨慈禪師守一為作戒光記米南宮芾為之書焉六年五月二十一日更衣就座書偈讚佛泊然而化塔於庵右壽八十六臘七十三繼其業者法宗戒珠十人才貌古性恬少言寡欲時教徒異論誼動江浙才獨循循誘誨未嘗有所藏否趙清獻公交契最密及鎮越猶寄以詩有浙江莫謂音書隔一日潮聲兩度來之句深情如揭

宋餘杭天竺寺沙門釋曇異傳(宗坦)

釋曇異姓杜氏餘姚人皇祐間得度習教觀於天竺明智後入雷峯廣慈之室孜孜叩擊二十年無倦志學成歸里誦法華至五千部崇寧元年秋示疾集眾告曰吾生淨土時至當乘金臺隨佛西邁即澡身端坐結印而逝火餘舌根舍利如貫珠然宗坦姓申黎城人年十六落髮受具少通義學長訪名師垂五十年名播講林晚講淨土觀經勸人念佛求生安養聽者如雲皆稟淨業後於唐州青臺鎮誓求安養持名作觀未嘗暫忘政和四年四月二十七日定中見佛告曰汝說法止六日當生淨土出而白眾次日講唱不輟至五月四日自知時至鳴鐘集眾告曰因緣聚散固當有時淨土勝緣豈容錯過願眾念佛助我往生又曰享年七十六四大分離處淨土禮彌陀永超三界苦言已坐脫滿室雷鳴白雲覆地從西而來久之方歇

宋甬東棲心寺沙門釋中立傳

釋中立姓陳氏鄞人也髫齡出家於棲心受諸經卷過目不忘治平中試經得度初依廣智學教觀及神智繼主南湖復依之座下二百人無出其右者神智謝事立繼其席常以淨業誘人命其徒介然創十六觀堂以延淨土已而謝去未幾重興寶雲寺又退居白雲庵日宣止觀法門著述頗眾後重主南湖升席說法開牖無盡前後誦法華逾萬部為人祈禱輒驗政和五年四月辛亥夕忽謂門人曰聞異香否即集眾含笑言曰吾往生期至西向而逝

宋嘉禾崇福西寺沙門釋智深傳(智仙)

釋智深姓沈氏嘉禾人初出家依海月辯學教觀既成歸嘉禾崇福西寺建光明懺會二十年如一日行業上聞賜號慈行平居專志淨土勸人誦佛從其教者往往得顯驗政和五年六月示疾客至談論如常客方出已坐脫矣共見紫雲向西而沒茶毘異香襲人舍利無算又智仙姓李氏仙居人不樂

世俗出家遊學至天竺得三觀之旨於明義還鄉依白蓮惠聽講止觀大有發明竟嗣其席常時繫念唯在淨土講道十三年西向念佛未常少廢示微疾易牀西向乞人誦彌陀經卷未終而化比鄰能仁寺僧聞佛聲沸天仙樂盈耳心甚異之

宋餘杭法慧寺沙門釋法宗傳(思照)

釋法宗姓顏氏錢塘人年方就傅捨身桑門初依廣慈慧才專研教觀年十九從廣慧初法師听夕諮叩服勤十載復歸侍廣慈依止觀修大悲三昧繇歷九秋凡有禱祈悉獲靈應嘗與天竺光明懺期至五日禪觀中忽見慈雲式侍僧數十宗作禮曰自昔同修者皆得生淨土否慈雲曰元照已得往生擇瑛尚欲宏經惡道汝宜勤修以成本願宗歸建淨土道場刻西方三聖像月集四十八人同修淨業名卿賢士多與其會政和七年春寂時自言彌陀授手接引而去思照錢唐陽氏子年十四依淨住從雅聽法華於南屏復往東掖參神晤大有契入刺血書法華經禮誦誠虔部卷千百寒暑迭更志願弗懈晚修念佛三昧築小庵曰德雲夜起唱佛鄰寺惰僧聞聲悚愧每於下弦二十三率眾持念常及千人幾三十年一日語其徒曰吾夜見佛金身丈六此往生之兆也日以七僧諷經七日厲聲號佛趺跏而化時宣和元年春也闔維牙齒明瑩如玉石然

- 淨讀篇第八之二(正傳二十一人 附見二十二人)
 - 南宋仙潭無量壽佛閣沙門釋若愚傳(則章)
 - 溫州車溪壽聖寺沙門釋如湛傳
 - 餘杭天竺寺沙門釋齊玉傳
 - 臨安禪符寺沙門釋思淨傳
 - 潤州焦山寺沙門釋師體傳
 - 澱山湖白蓮寺沙門釋子元傳
 - 松江延慶寺沙門釋道因傳(法因)
 - 永嘉資福院沙門釋道琛傳
 - 南湖禪寺沙門釋妙雲傳(有朋)
 - 上虞化度寺沙門釋智廉傳(惟渥 冲益)
 - 菁山常照寺沙門釋慧明傳(祖南 晞湛)
 - 洪州黃檗山寺沙門釋了義傳(法持 曇懿)
 - 錢塘法安寺沙門釋思聰傳(太微)
 - 烏鎮嘉會寺沙門釋若觀傳(師安 顯超)
 - 霽川千步寺沙門釋有開傳(如寶 瑩珂)
 - 遼萬寧上方山寺沙門釋守常傳(禪悅)
 - 金燕都香林寺沙門釋祖朗傳(淨觀 利先)
 - 元薊州雲泉寺沙門釋妙文傳(善住 文慧)
 - 嘉定西隱寺沙門釋悅可傳(祖輝 如鑑)
 - 泰山沙門釋大行傳(叩頭僧)
 - 餘杭淨慈寺沙門釋蒙潤傳

南宋仙潭無量壽佛閣沙門釋若愚傳(則章)

釋若愚海鹽馬氏子學教於辨才淨法師居龍井久之後於湖之仙潭欲營室以接游侶建無量壽佛閣誘人誦佛來者嘗數百人三十年中與會諸賢沒時多有瑞應有奏愚道行者賜號法鑑又則章與愚友善同修淨行章既沒愚夢神人告曰汝同學則章得普賢行願三昧已生淨土彼方待汝覺而呼浴更衣命眾諷佛誦經端坐默聽忽云淨土見前吾其往矣書偈而化偈曰本自無家可得歸雲邊有路許誰知溪光搖落西山月正是仙潭夢斷時又曰空裏千花羅網夢中七寶蓮池踏得西歸路穩更無一點狐疑時靖康元年九月也年七十二闍維得舍利無數

南宋溫州車溪壽聖寺沙門釋如湛傳

釋如湛姓焦氏永嘉人也母夢寶塔轟雲驚而舉子幼年試經得度首謁東靈欽師及普慈暉師所學未就乃與空相融之車溪依卿師時眾已多無所容唯小室如斗不以為隘盛暑埋大甕實以寒泉與四友背甕環坐以挹其爽後參慧覺於橫山晝夜潛心盡得教觀之妙初主車溪壽聖講餘課法華一部佛號二萬聲平時少睡夏月坐草莽中口誦法華袒身露臂任蟲聚集略不拂搔或謂年高宜息苦行湛曰飛蟲之類安得妙乘所冀啖我血聞我經以此為緣耳後人因表其處為饜蟲臺晚歲謝事間居小庵日薰淨業宋紹興庚申七月端坐念佛而逝闍維得五色舍利著靜業記釋觀經疏護國記釋光明疏又述金剛會解假名集建炎初述聲聞會異其末題云匈奴去杭入秀兵火沿塘劫掠蜂起命在不測聊書此為記時事人以為與章安當寇盜縱橫而著涅槃玄義其事相類

南宋餘杭天竺寺沙門釋齊玉傳

釋齊玉號覺慧姓莫氏霅川人家世顯宦獨棄俗榮蚤親釋學日記數千言始參祥符神智後依慧辨一日赴僧次有施予者辭遜之或問故答曰誠不欲以五千之利而喪一日之功慈辨得通相三關之旨秘不授人齊玉屢叩之不已乃於密室跪鑪以授初出居苕溪寶藏每於歲終大興淨社遷橫山立丈六像率眾薰修中夜告眾曰我輩未念佛時心隨塵境作諸不善犯一吉羅尚受九百千歲地獄之苦况犯篇聚重罪乎今若念佛則可一念能減八十億劫生死之罪况又父母生我令我出家理當度脫以報重恩今若破戒墜陷父母有知豈不失望大眾聞之無不傾誠懺悔舉身自撲至損額失聲者宣和六年遷居上竺先是慈辨之去繼之者或不振學徒謀曰得玉公乃興郡守翁彥國聞之乃具禮以迎講道敷化不異慈辨嘗中夜頂像行道一僧失規責之曰汝無知乃畜生耳已而悔曰彼雖不肖詆為畜生有玷三寶自是三年對佛悔過建炎元年秋謂弟子修慧密印曰吾牀前夕寶塔現慧曰流通法華之瑞證也玉曰所願見阿彌陀佛耳即集眾念佛頃之舉首加敬曰佛已來接也端坐合掌而化葬於山西草堂之側諡妙辨塔曰慧寂所著普賢行法經疏及自釋祖源記無量經疏雜諸記安般守尊法門尊勝懺法諸集

南宋臨安祥符寺沙門釋思淨傳

釋思淨姓喻氏錢塘人受法華於德藏瑛法師復潛心淨觀專志念佛日課觀經大觀初於郡北關創精舍飯僧三百萬因擴舍為寺以待徒侶宣和初遇亂經造賊壘願以身代一城之命賊悚然為之少戢素善畫佛每畫先於

淨室爇香念佛注想久之乃下筆一日畫丈六像忽見佛光良久乃滅眾皆瞻禮世因[言*乎]為喻彌陀或問淨何不參禪答曰平生只解念彌陀不解參禪可奈何但得五湖風月在太平不用起干戈紹興七年冬端坐想佛經七日忽起然香於鑪歸坐加足而化頂上經七日猶暖異香不散

南宋潤州焦山寺沙門釋師體傳

釋師體字或庵姓羅氏台人也賦性醜樸不隨塵俗初在天台丞相錢公象先請主天封師體即宵遁去宋乾道中訪瞎堂遠於虎邱吳人請主報覺師體欣然從之曰先師教我逢老壽止今信矣蓋報覺舊名老壽庵也既悟夙因聿修淨德芳聲遠邇契結時賢侍郎曾公相就問道及曾公守潤請主焦山飛錫戾止緇侶翕然淳熙六年己亥八月四日示微疾手書並硯一別曾公逮中夜書偈辭眾擲筆而寂年七十有二

南宋澱山湖白蓮寺沙門釋子元傳

釋子元崑山茅氏子母氏柴夜夢佛入門詰旦生元因小字佛來蚤歲出家投延祥寺習止觀定中聞鴉聲大悟自後棲心安養自號萬事休逆順境中未嘗動念慕廬山遠公蓮社遺風恒以歸依三寶受持五戒誘人謂念彌陀五聲足證五戒結普淨緣欲令世人淨五根得五力出五濁也乃集大藏要言編懺儀為法界眾生禮佛求度後於澱山湖創立白蓮懺堂同修淨業述圓融四土三觀選佛圖開示蓮宗眼目乾道二年詔至德壽殿演說淨土法門賜號慈照宗主三月二十三日於鐸城倪普建宅告諸徒曰吾化緣已盡時當行矣合掌辭眾奄然而寂茶毘舍利無數集有彌陀節要一卷

南宋松江延慶寺沙門釋道因傳(法因)

釋道因字草庵姓薛氏明州人年十七受具戒徧歷講壇屢參禪室讀四明十不二門指要鈔有省歷主永明寶雲廣受治平延慶乾道三年四月十七日別徒眾曰華嚴世界洞徹湛明甚適我懷今將行矣乃令舉所述彌陀讚諷觀經至上品上生即斂念坐寂三日手足猶暖弟子法因字剗心慈溪顧氏子學於草庵盡其旨要時稱為小因主廣壽寺三十年冥心淨業晝夜講演未嘗少懈偶以檀施捨金為贈至不得卻始受少分或勸新所室何患無用法因曰此軀尚無常何事外物為紹熙四年八月示疾於定中見淨土二菩薩謂左右曰吾覩法華道場與平時所見異甚吾將行矣乃書偈曰我與彌陀本無二二與不二並皆離我今如此見彌陀感應道交難思議挺然端坐而滅

南宋永嘉資福院沙門釋道琛傳

釋道琛賜號圓辯姓彭氏樂清人也母夢紫氣縈身而生年十八具戒初學律儀未幾去從息庵於法明微言妙旨一聞便領後至南湖依圓照既歸鄉出主廣濟十二年遷廣慈宋建炎三年車駕幸永嘉有旨以林靈素故居為資福院丞相呂頤浩以琛應詔嘗以僧伽黎質米於市夜見流光煜煜旦即奉還山居無水指工鑿井得古磚有天康字泉涌其下嘗專修念佛三昧忽感悟曰唯心淨土一而已矣良以彌陀悟我心之寶刹我心具彌陀之樂邦雖遠而近不逾一念雖近而遠過十萬億譬如青天皓月影臨萬水水不上升月不下降水月一際自然照映偶於定中是一老宿顧謂之曰吾四明也便驚喜作禮曰琛於一家習氣法相未能通達乞垂指教尊者首肯之及覺心地豁然自是言教觀者皆稟為正則宋紹興十二年圓照退老舉琛以代寺經虜寇焚蕩之餘琛誠心感格施者自歸歲月之間棟宇悉備因行法華三昧感生異光慧辯益弘郡大旱請禱雨琛以時政苛猛為言守大感寤出囚徒數百人是夕大雨有久病為說法施食病多愈與雪竇大圓禪師道交最深嘗為說經王義及六即義聯翩三日一語不重紹興三十三年十二月十六日集眾諷經晝夜不絕眾聞異香盈室乃沐浴更衣書偈曰唯心淨土本無迷悟一念不生即入初住令諷安樂行未終嗒然坐亡留龕彌月顏體如生葬於崇法塔側

南宋南湖禪寺沙門釋妙雲傳(有朋)

釋妙雲字慈室姓楊氏明州人從學於清修久法師通達教觀紹興十九年繼主清修歷慈溪南湖尋退居溪口吳氏庵一日往別吳君歸而沐浴跌坐謂侍人曰吾有瓣香藏之三十年今吾將行其可焚矣及香煙正熾起而白佛求生安養合掌就化有朋字牧庵金華人性強記謁車溪卿法師晝夜叩謁盡得其道主仙潭講止觀時天衣持法師分衛至境入寺就聽竦然曰我所未聞設禮而去湖人薛氏婦早死時見怪於室其家為齋千僧誦金剛般若請朋演說經旨婦憑語曰謝翁姑一卷經今乃解脫矣翁曰千僧同誦何言一卷曰朋法師所誦者是乾道四年十二月三日坐青玉軒請行人諷觀經至真法身觀令大眾唱佛名留偈坐逝

南宋上虞化度寺沙門釋智廉傳(惟渥 冲益)

釋智廉不詳所出居化度寺稟性質樸是非不挂脣齒初徧參宗門晚乃一意西方慶元元年秋八月無病忽別眾曰我定中見阿彌陀佛身長七八尺紫金相好見白豪光大眾圍繞而說法復白佛言諸善人等當起大信心修諸善法來生我國說已即隱復曰我既見佛往生必矣乃書偈曰雁過長空

影沈寒水無滅無生蓮華國裏回身西向而逝年八十二惟渥錢塘人杜門不出閱大藏三過誦華嚴法華至二萬卷晚但誦彌陀無疾而化冲益錢塘淨光寺僧也刺血書淨土七經復金書法華依止觀坐禪法念彌陀佛無稍懈一日感疾不服藥拈香對佛奄然而寂

南宋菁山常照寺沙門釋慧明傳(祖南 晞湛)

釋慧明字無晦鹽官人出家祥符寺了一心三觀之旨晚居常照寺日誦法華以為常課楞嚴圓覺諸經亦循環諷讀持彌陀號日數萬聲慶元五年春示疾召徒屬曰吾學大乘求生淨土今必遂矣或清留頌曰我臨終猶謎語乎無已但書骨頭只煨過即累足而逝茶毘得五色舍利無數祖南居南岳刺血書彌陀經五百卷金剛一百卷法華經一部歷二十有七年孳孳不捨至血枯骨立號佛之聲不絕一日至丈室升座而體中舍利迸出晞湛山陰人少為儒生忽厭世榮出家與瑩行人建無量壽佛殿於淨社持誦甚虔坐不背西久之常見異相一夕誦經未已正坐而化

南宋洪州黃檗山沙門釋了義傳(法持 曇懿)

釋了義字木訥鍾離少師之曾孫也年十五舉進士過金陵見保寧璣公聞法開悟即從剃染隨所至處扁曰昨夢念念西方未嘗間斷後偕同參至黃檗居久之誦持愈勤一夕別其侶吾西歸矣復見佛菩薩授以金臺越三日爇香宴坐含笑而化法持居化度寺修彌陀懺三年誦觀經彌陀如意輪咒日禱佛前願垂接引唱佛之聲聞於百步忽見佛身立於池上即自言曰我已得生中品矣悠然而逝曇懿居錢塘淨住寺初以醫為業晚年禮法華修念佛三昧出平日所蓄供佛飯僧造像設浴如是者二十年後微疾屏藥石延僧唱佛以助往生明日見蓮華大如屋又一日見梵僧臨榻問訊夜半眾聞佛聲漸微視之泊然

南宋錢塘法安寺沙門釋思聰傳(太微)

釋思聰者錢塘法安寺僧也少喜作文及讀大乘諸經有會遂息心淨土日誦蓮經二部兼持佛名未嘗語及世事一日忽謂弟子曰夜見佛來當不久居此也弟子曰夢境何憑或恐魔來相戲奈何曰吾去後但視吾胸前可驗也越二夕命聲磬唱佛名喜曰佛來矣奄然而化視胸前一掌許有文紅潤如蓮華太微者兒時亦出家法安寺者也初授彌陀經便能背誦及受具發願局門念佛為不退僧嘗縱步後山忽聞笛聲豁然開悟因蓄一笛以自怡有凌監簿者亦修淨業稱微為淨土鄉長一日叩門曰淨土鄉弟相見微曰

可相見於淨土今日誦佛正忙耳詰朝人怪其不赴粥往視之見笛鉢禪椅先經火燼趺坐於地而化

南宋烏鎮嘉會寺沙門釋若觀傳(師安 顯超)

釋若觀居烏鎮嘉會寺結十萬人同唱佛號期先得生安養者相次汲引同入蓮界晚誦法華光明經數十萬部偶爾示疾索筆書偈而滅師安者受業烏鎮普淨寺通華嚴宗旨修彌陀懺觀想淨土二十年昕夕不廢居恒多病臨終忽精爽異常時謂弟子曰佛菩薩已降吾將行矣即端坐而化顯超博州人受金總持三藏持穢迹金剛咒法濟病解冤計所得施五萬緡盡入永壽寺產後病中見佛菩薩前迎蓮華徧滿伎樂雜奏弟子哀懇願留住世救苦眾生俄而病已復居十五年行咒救人一日忽聞天樂異香並見空中即面西跏趺悠然順寂

南宋霽川千步寺沙門釋有開傳(如寶 瑩珂)

釋有開居霽川千步寺專修淨業旦暮不忘嘗於歲旦請眾唱佛諷經至西方世界即瞑目長逝如寶亦霽川僧也棲止覺華寺肄習經論具有會心聞古德有以浴僧功德回向淨土者遂治浴室以供眾僧閱二十年建西方佛像誓求往生年八十一與眾言別聞鐘鳴眾方驚異即向西合掌凝望而化瑩珂者嘗受業霽川瑤山酒炙無所擇一日忽自念梵行虧缺且墮惡道向同侶取戒珠禪師所編往生傳讀之大有感發揮一室面西設坐絕食念佛越三日夢佛及大士告曰汝壽尚有十年且當自勉珂白佛閻浮濁惡易失正念所願早生安養承事眾聖佛言汝志如是後三日當迎汝至期命眾誦彌陀經曰佛及聖眾俱至寂然無聲

遼萬寧上方山寺沙門釋守常傳(禪悅)

釋守常號懺悔上人明所志也姓曹氏新安人幼攻外典學逐年進文采煥發有聲閭里而性耽恬靜不慕浮榮因詣六聘山以鐵頭陀為師年十九受具就學無方經明行修譽流自遠學侶數十人相從講說顧以力行誦持為倡導主席上方幾四十年日課大悲無所間斷弘法傳戒已十餘輩新徒累千津梁後學孳孳不倦以咸雍六年遷化茲山春秋六十一夏臘四十二其年三月望日塔於上方山院大安六年三月弟子王海溫述其遺蹟乞乾文閣直學士王虛中為之誌文具山志又禪悅字天空昌平鄭氏子童年依安樂寺道首上人祝髮日夕課誦年學漸富始於靈峰淨老人受具太宗癸卯初來上方居臥雲庵息影林阿二十餘載蔬食苦行常修百舟三昧久之玄德昭聞上達帝聰徵召入京悅辭以衰朽而詔書三至未敢恣然扶掖就道

既底都闈便承恩渥欽企戒行就宮奉養迺闡諷護國仁王般若經九旬不怠帝用勞止賜號曰遐齡益壽禪師及辭歸太宗御製讚云古人修隱尚游訪涉水登山步林莽禪衣露濕煙霞明拄杖橫施風月爽滄霞服氣度春秋白雲秋水空悠悠有時危坐入禪定不關名利輕王侯湯湯逝水盡流東塵寰萬慮皆為空識得浮生若漚幻百般憂恨自消融頓息塵緣坐來靜劈破鴻濛見真性常生不死度流年萬古高風起人敬以海陵王正隆丙辰九月甲子示寂偈曰名利光如水月慧辯恰似鏡痕今朝消除夢幻法界出入天門春秋九十有七法臘六十有二弟子超賢奏聞賜白鏹三百兩為之建塔文華殿大學士馮國相為文樹碣紀之亦具山志

金燕都香林寺沙門釋祖朗傳(淨觀 利先)

釋祖朗姓李氏蔚人也蚤歲出家清操自矢金大定中歷主崇壽香林諸寺真祐間賜號圓通大師日誦彌陀幾萬聲年七十有四將示寂告其徒曰吾緣盡矣其徒訝之踰七日口占偈曰咄者皮袋常為患害繼祖無能念佛何賴來亦無來去亦無礙四大五陰一時敗壞且道猶有不敗者乎良久云浮雲散盡月昇空極樂光中常自在遂跏趺而卒淨觀住嘉興寂光庵修淨土懺法十餘年謂弟子曰我後二十七日行矣至期見紅蓮華復見黃華滿空有童子坐於華上招之而去三日入龕端坐視之若生利先居新城法慧寺日誦法華兼持佛號每至中夜其聲哀切願早脫去往生極樂晚歲屢感祥兆偶示疾命眾唱佛凝眸西向而望若有所覩輒然而逝

元蔚州雲泉寺沙門釋妙文傳(善住 文慧)

釋妙文姓孫氏蔚人也年方九齡捨身佛寺既冠始抵燕京依大德明公學圓頓之道後居蔚之雲泉寺操行精勤力崇儉樸廩有餘粟歲荒以賑饑民蔚人德之累主講席大宏方等高唱圓宗晚年退居逸老專修念佛三昧元延祐六年示疾令弟子諷佛名遽起趺坐聲息泊然年八十三又善住字雲屋姑蘇人掩關一室六時念佛病久不易終時異香滿室著有安養傳谷響集行世文慧者嘉禾青龍寺僧也善作詩已而專志淨業至老益勵一日示疾聞空中有聲云中品生遂逝

元嘉定西隱寺沙門釋悅可傳(祖輝 如鑑)

釋悅可字中庭主嘉定西隱寺築十六觀堂以修淨業緇白多歸之聲光爛然徹於九重延祐間賜號廣慧大師至正中無疾坐逝茶毘齒舌不壞祖輝者居明州城中佛閣逢人但云阿彌陀佛鄞縣尉王用享敬事之一日詣其家告別云我明日行矣明日送者俱會即入龕端坐乞甘瓜一枚啖盡怡然

含笑而暝如鑑亦居明州止於塔山嘗讀大藏兩度翻閱頗窮研索時人難之長誦蓮經專誠諷佛晝夜不懈晚歲庵居持誦尤虔及示疾乞鄰庵諸僧同聲唱讚面西跏趺而逝

元泰山沙門釋大行傳(叩頭僧)

釋大行齊州人入泰山草衣木食行法華三昧感普賢見身遂覺心眼洞明見十方諸佛猶如明鏡中象至元間詔入宮闕賜號開國法師常精進菩薩後數十年有叩頭僧者不知何許人嘗棲泰安靈派侯祠夜則跏趺達旦不寐晝則周遊城市叩頭勸人為善人以是呼之嘗語人曰我參方五十年矣蓋載內胎生卵生濕生化生唯人為貴具此靈性便可立地成佛莫使寶山歷盡虛過一生後遊清源預告寂期而化

元餘杭淨慈寺沙門釋蒙潤傳

釋蒙潤字玉岡姓顧氏海鹽人也年十四棄家依古源於白蓮嘗禮護伽藍神土偶輒仆若答拜然左右皆驚源授以經應口成誦命禮一祥祝髮尋進具從源受天台家金剛錘十不二門諸書會源入滅遂師事竹堂傳以卒其業因苦學嬰奇疾修觀音懺既獲靈應疾愈而心倍明南天竺之演福湛堂澄命居首席凡所闡揚詞旨顯匆匆老宿咸推服焉出主當湖德藏講法華經聽者日千餘人遷主演福宗風益振居六載退歸白蓮誓不出山修念佛三昧依之者益眾行宣政院強起主下天竺時寺新燬惟普賢殿巋然荆棘瓦礫中因慨然曰茲寺成於慈雲一殿尚存則祖師願力有在乃首加葺治次第構諸堂舍然不以經度程督之勞廢教事晝夜演說無倦色率同志修法華三昧感見瑞光居三年復遷主淨慈以涉世將迎乖其素志復歸白蓮老焉臨終之夕呼弟子榮示止觀之法且告之曰吾生緣殆盡茲惟其時驟稱阿彌陀佛數百聲泊然而逝至正二年十二月六日也壽六十八臘五十四荼毘得舍利無數塔於風篁嶺下

- 淨讀篇第八之三(正傳八人 附見十人)
 - 明餘杭淨慈寺沙門釋可授傳
 - 黔中永祥寺沙門釋興宗傳(周續 慧鑑 儒施 真懷 真全)
 - 通州靜嘉寺沙門釋本明傳(性專 祖香)
 - 嘉興天寧寺沙門釋僧秀傳(月潭)
 - 會稽沙門釋明證傳(靜明尊者)
 - 梵村雲棲寺沙門釋袞宏傳
 - 懷慶龍岡寺沙門釋如遷傳
 - 杭州資福院沙門釋廣徹傳(體寬)

明餘杭淨慈寺沙門釋可授傳

釋可授字無旨號休庵姓李氏臨海人也年十九從九巖萬壑觀受具後參普覺明於靈隱有省命充堂司四眾悅服尋還石門白巖真主真如延居上座元至元六年出主大雄山之安聖授凡四坐道場皆以淨土法門為佛事且曰此即禪定之功也惡可強分同異哉明洪武六年杭之中天竺以府侯之命請主寺事行至錢塘江濱淨慈諸舊相與謀曰此大善知識胡可失也天竺尚可致吾屬獨不能耶帥眾邀於道擁居其位授屢卻不聽強應之時當歲儉問道如雲糗糧方患不繼而施者踵至居二載遂退臥竹院忽示微疾端坐西向爪合連稱佛號至聲漸微而寂茶毘齒牙貫珠不壞設利羅光色精瑩如金銀水徧瀉於地宋景濂銘其塔

明黔中永祥寺沙門釋興宗傳(周續 慧鑑 儒施 真懷 真

全)

釋興宗者大理人忘其族姓童年出家明成化間始遊黔中止永祥寺日誦法華經一字一拜無一夕間持此四十年膝所著處木版為穿人呼拜經師年七十克期鳴鼓告眾而逝後有周續字傳鐙葉偷人幼依雞足山大覺寺徧周出家壯遊名勝參叩耆宿既而還山專修淨業晨夕諷號念念不輟忽一日聞牆角西有語聲云當得中品往生遂集眾告語合掌立化手扶竹杖指握數珠操持不墜及茶毘時珠亦不燬視之乃木質也慧鑑鎮南州白土城人初住雞足念佛三年後遊獅子林契其幽闡遂止息焉晝夜跏趺三十載不設牀席然鐙頂上計三千餘蓋髮盡淨而頂骨絜白瑩然似玉後終於石鐘世壽八十餘云又有儒施字大力宜良人也本所庵弟子初入雞足

四林密茂人跡罕到乃闢地結茅山中初無習靜者建立靜室自儒施始性素樸直行止敦厚有古人風本修苦行更習禪那晚年兼以淨土導人孳孳不勸將示寂日自云見西方一池生大蓮花水清藻碧花葉無數一花一人端坐其中已亦與焉歡欣無既因合掌向西而逝真懷字冲虛昆明黃氏子初投盤龍寺後遊峩眉五臺棲臺九載學諸經論參蘊璞愍山翻然省悟知所從入及還雞足建不二軒以居晚住傳衣十五年專修淨業將寂七日預邀山中耆宿告別忽焉遷化又真全者燕人也明萬歷間至雞足留大覺寺篤志清修嘗造一木缸日夜趺坐其中二十餘年無稍懈至崇禎丁丑冬夜坐缸中大聲號佛黎明寂然同侶視之始知已化去矣

明通州靜嘉寺沙門釋本明傳(性專 祖香)

釋本明者姓字里居未詳所出少時寄跡空門梵行清潔勤於講誦晚歲輟講居通州靜嘉寺專心淨業六時精虔歷年弗替偶示微恙自知時至與眾告別安然順化異香七日性專字守庵姓張氏崑山人早歲薙髮遍訪知識謁妙峯受戒預法華講席聞聲領悟誓行頭陀行十二時中唯誦法華深入禪定嘗於空中見西方寶池成琉璃色深廣無際以白妙峯妙曰此觀行初成之相不生取著是善境界專遂深秘不言石城有百尺彌勒像嘉靖間經兵燹金蝕專為新之又構石殿與像稱感見瑞光夜明如日二十三年秋延傳燈法師講小本彌阿經有請易彌勒上生經者專曰不然吾聞彌陀與彌勒一身一智慧力無畏亦然將使眾同悟本性彌陀即本性彌勒先遊蓮華淨土然後預龍華勝會耳嘉靖二十五年仲冬示寂前數日衣褶中生靈芝一本大於拳色紅白祖香者新喻人居山東龍潭寺精修淨業有居士王傑者築庵延之香語傑云吾當歸去眾留之曰歸安養鄉耳及期坐化舉龕入山火出自焚

明嘉興天寧寺沙門釋僧秀傳(月潭)

釋僧秀字碧峯誠樸無華極有戒行每聞雞鳴即起誦經禮佛無間寒暑嘉靖時居嘉興天寧寺法化流行道侶綦綦壬寅秋臥病月餘終日酣睡自言甚適忽一日起沐浴衣新衣跣趺端坐誦佛數十聲已而止[言*乎]佛字又數十聲顧與徒眾言別而寂三日神色不變左手捻中指作字右手仰展指節尚柔而頸骨挺然月潭者楊氏子出家五臺山受具足戒隆慶辛未始來婁弇州居士築庵處之萬歷丙戌示疾水飲五日絕水二日使人誦無量壽佛經聽已坐化僧臘九十八壽百一十三歲

明會稽沙門釋明證傳(靜明尊者)

釋明證字無塵會稽魏氏子性醇厚簡默望之若愚少不食腥羶常欲出家偶過鄰寺遇五臺老僧如舊相識便求皈依僧曰汝三年後始可薙髮當先苦行學諸經典乃往叢林勤力作務嘗學楞嚴咒日讀一字偶誤摩作磨經三日改正自旦至暮僅守一言夜禮佛號徹曉不寐三年咒成大喜狂嘯登樹言往西方墮地幾絕良久方甦臥病七日周身痛楚病愈宛如隔世動靜言語頓殊平昔及期五臺僧果至為明祝髮受具戒焉且屬明終身誦法華明初未嘗學問展經朗誦無滯已而華嚴涅槃諸經悉得成誦乃謂老僧曰吾欲乞食以供養報是夜忽失老僧所在後明日誦法華一部途中嘗負小冊樹下道旁誦不輟日唯二餐更不雜食三經衣鉢之外一無所畜人有施予隨得隨捨每諷人出家不擇賢愚人或訕之明乃歎曰賢者應度代佛揚化愚者應度輪迴免墮所度弟子凡二十餘輩或入其門儼如客僧不致一言誦經危坐拂衣便去或留之則曰疏乃益親人問法但微笑不多言晝夜持念脇不至席如是者三十年自知期至往謁雲棲還至澗中謂侍者曰汝往報眾徒我明日當去明日亭午諸徒咸集但聞異香馥馥空中誦聲朗朗合掌而逝雲棲大師聞之欣然率眾為之舉火時萬曆癸巳年也靜明尊者名真定姓諸氏越人少孤貧無所依為人質直寡言語過錢塘傭於戴居士交吾家積貲十五年交吾謂之曰汝物足以昏配成家業矣真定不答謂人曰戴翁勸吾成家何為吾意欲出家但不遇明師耳一日見無塵欣然自慶曰是吾師矣瓣香歸禮無塵示以一切捐捨苦行念佛求生淨土嘗慕華嚴法華諸經不能展誦無塵云不能口誦當以身誦精勤禮拜能所性空即身心誦經也因空所有造像齋僧施薑茗以利行者躬親樵汲二十餘年已而入山結茆一心禮念日夜無間恒伐薪易米供諸靜室時雲棲創築值大雪真定負米送之往還百餘里旦去暮歸不霑粒水蓮師歎曰大菩薩來送供眾中恐難消受真定曰富貴贈百斛此一粥之需何足言蓮師曰苦行得米衝雪擔來勝富貴百斛多矣開荒種蔬不問僧俗悉施與之有盜其樹者引避不及倉卒墜樹真定反撫慰之負所伐樹至其家且曰欲用薪木可告我當為致之萬曆戊子大飢疫民死載道真定痛如骨肉有過其門者推食與之嘗拾金五兩坐守十日無問者乃益己金為之誦經施食以祐失金者生平所蓄盡助善緣隱德密行人所罕知身無完布伏臘一衲弟子或慮其寒則曰吾晝寒掘地夜寒拜經唯苦汗出寧畏冷邪年七十二忽有微疾延至澗中有客送夾纈不可受苦勸乃披之已而笑曰可見世人喜穿綿比衲衣之暖不同病愈問眾曰今日何日曰十二月四日曰明日午時我將行至夜半喚人扶起面西而坐問何時日子時五日也我去矣眾徒曰師既言午時何不如期曰我龕與柴俱在江干轉回三四十里天寒雨雪往返不及未得人龕恐累汝耳俄而高聲誦佛佛聲漸微而化真定積薪三載遺命荼毘經十日火滅牙齒頂骨手足指節悉皆不壞色如車渠塔於庵前山頂弟子如嵩為理安重開山祖自有傳

明梵村雲棲寺沙門釋袞宏傳

釋袞宏字佛慧號蓮池姓沈氏古杭仁和人世為名族父德鑑躬躬宿儒人稱明齋先生母周氏淑性善容慈惠愛物宏生而穎異幼習帖括年十七入縣學屢試冠諸生學行文藝鳴於一時顧澹於世味視科第蔑如也與從遊講論必折歸佛理棲心淨土家戒殺生瓜蔬必祭居常太息曰光陰過隙人壽幾何吾年三十而後當超然長往與世無求無何婦張氏生一子殤婦亦亡已勘破世緣不欲續娶母強之為議婚湯氏年二十七居父喪三年服闋又丁母憂因涕泣曰親恩罔極正吾答報時也明嘉靖乙丑除夕命湯點茶捧至案盞裂乃笑曰因緣無不散之理明年訣湯曰恩愛不常生死莫代吾往矣汝自為計湯亦灑然曰君請先吾自至耳宏乃作一筆句詞竟投西山無門洞性天理祝髮乞昭慶寺無塵玉律師就壇受具居頃之一瓢一杖遍遊諸方嘗北詣五臺夜禮文殊感見異光至伏牛隨眾煉磨入京師參徧融笑巖皆有開發過東昌忽有悟作偈曰二十年前事可疑三千里外遇何奇焚香擲戟渾如夢魔佛空爭是與非以母服未闋乃懷木主以遊每食必供哀慕無已至金陵瓦官寺病幾絕時即欲就茶毘因念曰吾一息尚存耳乃止病間歸越中多禪期宏與會者五終不知鄰座名字隆慶辛未乞食梵村見雲棲山水幽寂有終焉之志山故伏虎禪師刹也楊國柱陳如玉為結茅三楹以居之宏弔影寒巖絕粒七日倚壁危坐村多虎環山四十里歲傷數十人居民苦之因發悲願為諷經施食虎患遂止歲亢旱村民乞禱兩宏笑謝曰吾但知念佛無他術也眾堅請不已乃擊木魚循田念佛時雨隨注如足所及民感異之相與庀材木荷鋤鑿競發其地得柱礎而指之曰此雲棲寺故物也師福吾土吾儕願鼎新之以永其福不日成蘭若外無崇門中無大殿惟禪堂安僧法堂奉經像餘取蔽風雨耳自此法道大振海內衲子歸心遂成叢林時教綱滅裂禪道不明往往掠影宗門撥無淨土有若狂象宏大懼之又因思念佛一門橫截生死普攝三根於是單提淨土著阿彌陀經疏鈔十餘萬言總持圓頓諸經融會事理指歸一心一時緇素歸心淨土若水赴壑謂佛設三學以化羣生戒為基本基本不立定慧何依思行利導必固根本乃令眾誦梵網戒經及比丘諸戒品因著沙彌要略具戒便蒙梵網經疏發隱以發明之初宏發跡參方又憶昔見高峰語錄謂自來參究此事最極精銳無逾此者向懷之行腳欲併匡山永明而一之更錄古德機緣中語編之曰禪關策進合刊之以示參究之訣蓋禪淨雙修不出一心萬歷戊子歲大疫日斃千人太守余良樞請宏詣靈芝寺禳之疫遂止梵村舊有朱橋潮汐衝塌行者病涉宏議倡造無論貧富貴賤人施銀八分而止或慮工大施微不易集事乃不日累千金鳩工築基每下一椿持咒百遍潮汐不至者數日橋竟成嘗著放生文傳誦海內慈聖皇太后見之嗟歎不已遣內侍賚紫伽黎咨問法要宏書偈進曰尊榮豪貴者由宿植善因因勝果必隆今成大福聚深達罪福相果中更植因喻如錦上華重重美無盡如是修福已

復應慎觀察修福不修慧終非解脫因福慧二俱修世出第一義眾生真慧性皆以雜念昏修慧之要門但一心念佛念極心清淨心淨土亦淨蓮臺最上品於中而受生見佛悟無生究竟成佛道三界無倫匹是名大尊貴慈聖善之嘗講圓覺經於淨慈聽者日數萬指因贖寺前萬工池為放生池復增拓之歲費百餘金山中設放生所救贖飛鳥禽蟲充牣其中歲費粟二百石以養之亦有警語使守者依期對禽畜宣白即羽族善鳴噪者聞讚喞聲寂然而聽宣罷乃鼓翅飛鳴其感應如此道風日播一時賢士卿若大司馬宋公應昌太宰陸公光祖宮諭張公元汴司成馮公夢禎陶公望齡及門問道者以百計皆扣關擊節靡不心折監司守相下車伏謁胥忘形屈勢空其所有非精誠感物何能至是以萬曆四十三年七月四日示寂世壽八十有一僧臘五十塔於寺左嶺下宏天性樸實無緣飾虛懷應物貌溫粹弱不勝衣而聲若洪鐘胸無崖岸而守若嚴城善藏其用文理密察經濟洪纖不遺鍼芥即畫叢林日用量施利酌厚薄覈因果明福罪養老病條理井然其自律甚嚴嘗以三十二條自警垂老躬澆濯服瑣細不勞侍者終身衣布縷一麻幃乃五十年前物猶不忍棄他可知已平等大悲攝化一切非佛言不言非佛行不行佛屬末世護持正法者依四安樂行宏實以之愍山為作墓銘且尊為法門周孔推崇至矣將終時前數日入城別諸弟子及故舊但曰吾將他往還山具茶湯與眾話別中元設盂蘭盆為薦先宗乃告人曰今歲我不與會有簿記密題云雲棲寺直院僧代為堂上蓮池追薦沈氏宗親始知其懸記也其了明去來如是繼妻湯氏後宏祝髮建孝義庵為女叢林主先一載而化亦塔於寺右所著經疏外有雜錄竹窗三筆等二十餘種行於世

明懷慶龍岡寺沙門釋如遷傳

釋如遷字大方別號松谷姓李氏岐山人父鐸母張氏生遷於落星里幼誦佛號戔戔自喜每至佛寺則如舊居愛戀忘歸蚤入社學肄儒業頗不樂每對父母呈出世志年十七禮郡無蹤本為師剃染居三載發念遊方遠訪知識決擇已躬下事首參悅菴喜授具指示向上一路尋入青峰山弔影獨棲有所開悟聞大章宗師開法少林往求印證明嘉靖辛酉謁章於立雪庭遂留依止朝夕入室陶鎔機緣乃承記荊有鍼頭玉線海底鐵牛日夜辛勤記伊保守之囑由此知洞上宗風五位正偏之旨至是猶未泯也遷得法已復歷徧海內名山還至京師參諸講席深窮性相宗旨後至懷慶鄭世子讓國潛修白業聞遷至致禮參請深相印契乃建精舍於龍岡延遷宴息四方學子聞風遠至萬曆丁亥應大都慈雲菴請舉揚宗旨戊子千佛寺請講諸經日遶萬指庚寅奉慈聖懿旨於慈壽寺開淨土法門在會者千二百眾欽造鍍金大佛像賜大藏經御書大法寶藏四字甲午春請回龍岡履閣供置以萬曆戊戌秋八月十有一日示微疾端然而逝世壽六十有一僧臘四十有奇塔於寺西原後二十二年萬曆己未其弟子海雲走匡廬謁愍山始為之

志銘稱其孤標凜凜如立雪長松衲子參請拈提宗教不假辭色應機接物純一至誠有先德典型諒哉言乎

明杭州資福院沙門釋廣徹傳(體寬)

釋廣徹字通天未詳何許人遊方至餘杭與金省吾中丞有一日之雅向之乞靜宇數楹為清梵地時張元洲尚書家廟傍有資福院者綠蔭沈沈人足罕至聞中丞有高僧慨然許之廣徹居焉日諷金經夜則籠燭繞巷誦佛達旦省吾一夕夜歸遇之塗為書其籠紗曰沙門廣徹念佛通天如是數年萬歷中卒於所居又體寬者初為燕都拈花寺禪堂司水日不暇給中夜拜誦歷二十年所履之地履磚為破豁然大悟呈白方丈為之印可未幾即付以法席大弘淨化

- 淨讀篇第八之四(正傳十二人 附見十五人)
 - 明南嶽上封寺沙門釋法祥傳
 - 燕都慈惠寺沙門釋明玉傳(真貴)
 - 錢塘龍井寺沙門釋如清傳(傳記)
 - 幽溪高明寺沙門釋傳燈傳
 - 京口淨業禪林沙門釋古松傳(了然)
 - 青陽九華山東巖寺沙門釋海玉傳(傳鑑)
 - 新安黃山擲鉢庵沙門釋廣寄傳(寶相 墨浪 大守 毒鼓)
 - 餘杭徑山寺沙門釋圓信傳(照御)
 - 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圓彩傳(如然 雲峯)
 - 會城大德寺沙門釋如意傳(向和尚)
 - 常州天寧寺沙門釋海寶傳(無名僧)
 - 仁和吉祥寺沙門釋大雲傳(居溟 金童僧)

明南嶽上封寺沙門釋法祥傳

釋法祥字瑞光別號隱南姓周氏嵯人也生而超曠長事儒術屢試不第慨然有出世志從其叔遊京師往參嘯巖老人巖示以向上且謂念佛法門最為捷要祥慮專服膺慎擬書紳頃之南還決然舍去禮邑中喜庵愷薙髮時年三十有二矣謁棲霞素菴受具相依講肆忽焉三載乃遊北都得參遍融因問念佛法門是第一義諦否融曰更不容念佛外別求第一義諦祥深領之時慈聖太后建淨業期請居首座三年期罷遊五臺之伏牛有松柏者牛山耆舊也與語心契留住石室弔影絕跡木食三秋一日跌坐雪積滿牀火絕衣濕侍者往見驚走報松柏趨視之猶未出定乃擊磬警覺問曰煙寒灰冷作何境會祥曰山原是石冰原是水雪飛滿崖不知所以松曰此暫息塵勞得輕安耳若耽此境即墜偏空勿滯於此宜行脚去授以鉢袋遂造峨嵋禮普賢住大峨石數月苦切參究心地未安因之南嶽登祝融峯望古大明崇嶺茂林即往卜居未幾祝融峯僧楚然請主閱藏祥至一宿夜半恍惚寤中告語此非所居不如速去詰朝將他徙適僧大覺來留住崩劣峰祥許之行三日藏經殿燬祥以嘯巖所示欲終身念佛專精不懈以豆為數放下身心影不出山一聲一豆淨念相繼積豆至四十八石人稱豆兒佛云廣西劉方伯謁廟遺書請一見辭不往衡州盧郡丞祀廟點失期者罰粟三十石送祥祥曰老僧豈以一鉢飯斂眾怨乎竟不納長沙吉王遣內使往請祥曰山僧行脚倦遊息肩於此願效遠公跡不入俗不敢奉命王遣前使賚送華嚴

經二部大疏鈔一部齋資百兩祥以銀散眾用廣王惠掃閣藏經長護山靈王益重焉荊襄大盜曰賈二唐九者事急來歸發露懺悔哀乞活命祥憐其誠納之冠以道巾令隨作苦捕騎至見祥慈心藹然且聞念佛聲有感乃解腰纏三金薦齋而去盜亦感化為苦行僧祥居崩峯勤脩淨業三十餘年未嘗少輟筭無長物滅之日唯胡椒一瓶舊布數片而已以明萬曆庚戌二月六日示寂世壽七十有九法臘四十有三其徒同融建窣堵波於峰右釋德清為之銘焉

明燕都慈慧寺沙門釋明玉傳(真貴)

釋明玉字無瑕姓劉氏西蜀龍居人也生性倔強少與俗合不治主人產業長娶汪氏舉三男長兒聰慧篤孝玉雖心愛之不為兒女家計居常以佛為念每供養二親蔬食必絜親亦以此安之及雙暉並謝即判然棄妻子從方外遊時年四十六長兒年十二躑躅相隨至播州樓頭山東洋海菴父子俱薙髮為沙彌授具戒明隆慶三年五月五日也自爾攜兒行腳即督課業為弟子父子相從雲遊萬里遍歷名山參叩知識苦行絕倫每日中一食糠菜不糝樹下塚間隨遇順適自是終身脇不至席萬曆初謁普陀過金陵至都下遊履五臺寓三塔寺禮華嚴經經六十萬字一字一拜每晝夜必稽首三千如是者經三匝至十二年復至京師碧峰寺禮法華經六萬餘字一字一拜如前者十二匝終而復始夙夜罔懈長兒為沙彌者年德日益長多親講肄聽習華嚴法華楞嚴圓覺唯識諸經論善開曉發蒙而事父日益謹一時稱異謂有弟子如此者誠所罕觀十七年內監王太監欲開精舍延其弟子為弘法且為玉休老地乃外阜城門外二里許捐貲創寺寺成請額聖母嘉之賜曰慈慧大宗伯棠軒李公記其事一日謂弟子曰吾以業繫娑婆七十二年侵尋老病久住何益吾將歸矣爾當以法為懷勿生愛戀遂不食念佛不絕者旬日聲響如鐘顏色不衰弟子問生死大事玉但曰嘻嘻呵呵呵呵嘻嘻不是妄念不是真知良久云你說是如何大通橋上交糧客原是南方送米人臨化索浴更衣端坐持珠念佛益哀促連聲大[言*乎]佛佛聲絕而逝時萬曆乙未春正月十九日也世壽七十有二僧臘二十有六弟子真貴即玉長兒為慈慧法師者奉塔於黃村乞憇山為之銘

明錢塘龍井寺沙門釋如清傳(傳記)

釋如清字法原姓阮氏上虞人初出家於西湖龍井後入雲棲壹志禮佛誦法華經六時不倦萬曆十一年示疾沈縣者數月既革聞堂中念佛聲忽矍然起坐兀兀中宵注視金容翹仰而寂傳記者鄞人也性好獨居日以法華為課數及九千七百餘部世稱為傳法華萬曆十四年司勛虞淳熙舉法華三昧懺傳記禁足修長期者三九歷寒暑屢獲瑞應後憇杭州西溪道上肩

水負薪行諸苦事或曰佛法廣運乃猶作此有為功德耶傳記折之曰無為豈在有為外乎萬曆四十一年七月辭諸弟子稱佛三千聲唱妙法蓮華經題者數四西面坐化越日頂猶暖異香不絕

明幽溪高明寺沙門釋傳燈傳

釋傳燈姓葉氏衢人少從進賢映庵禪師薙髮隨謁百松法師聞講法華恍有神會次問楞嚴大定之旨百松瞪目周視燈即契入百松以金雲紫袈裟授之生平修法華大悲光明彌陀楞嚴等懺無虛日卜居幽溪高明寺先有土人葉祺葬親寺後夢神云此聖者道場地將有高人大作佛法可速遷祺不之信俄而舉家病始懼乃徙焉明日燈至即地立天台祖庭學侶僉僉嘗於新昌大佛前登座豎義眾聞石室中天樂鏗鏘講畢乃寂所著生無生論融會三觀闡揚淨土法門又有法語一篇最為切要其註楞嚴維摩等經凡染翰必被戒衲前後應講席七十餘期年七十五預知時至手書妙法蓮華經五字復高倡經題者再泊然順化

明京口淨業禪林沙門釋古松傳(了然)

釋古松平陽人幼出家於五臺山羅睺寺得念佛三昧山多虎松為說戒命以名虎不復傷人[言*乎]之輒至萬曆十三年至京口建淨業禪林時潛深谷坐樹下入定居三十九年一日舉手別眾而逝入龕未建塔也崇禎四年四月八日龕中忽見五色光啟之見松凝坐貌如生清順治十五年十月二日再見祥光異香三日不散了然者合肥西門外三里庵僧也目不識字口不譚經但日誦佛號年七十九一日跌坐說偈曰我今去我今去不向幽泉一直路直上西方見如來好認來時真面目垂首奄然與聲俱渺

明青陽九華山東巖寺沙門釋海玉傳(傳鐙)

釋海玉字無瑕宛平人歷遊五臺四至峨眉明萬曆間來棲九華東巖摘星亭自知時至拈偈而逝授命於徒三年啟缸可復相見至天啟丙寅正月其徒率眾如期發視見其顏色如生檀眾聞風踵至遂為塑金供養廷樞何使君為捐資建塔玉生正德八年癸酉寂於天啟三年癸亥已百有二歲今稱百歲庵云後百餘年有傳鐙者衡州人當清乾隆時來棲伏虎巖下獨居虎洞不出山者二十年後得檀施為之結茅於望江亭下定心石邊顏曰甘露庵開闢殿堂林竹輝映晨鐘夕梵與漱石泉聲清籟相答幽處靜習又十餘年行年八十矣而倡導提持了無倦色郡伯喻使君成龍矜其苦行為作碑記勒於巖中用昭來許

明新安黃山擲鉢菴沙門釋廣寄傳(寶相 墨浪 大守 毒鼓)

釋廣寄字寓安姓余氏開化人也生而聰慧年幼失恃父聽無為法公言舍令出家父故石工攜與工作主人食以魚馘不受曰爺已許出家豈可復食此父不覺淚下及為沙彌好學多能博雅游藝往來於休婺之間一時士大夫無不器重樂與為忘年交居嘗歎曰人生駒過隙耳泛泛若此何以出家為年二十四始決志參訪屢行為親知羈留不果乃宵遁單瓢隻杖徑造雲棲大師見而器之為授具戒開示念佛法門曰念佛無他專在一心不亂寄服膺久之迺司維那居恒刻意精修單持一念謹束三業嚴整威儀調和內外眾心悅懌雲棲一日臨眾曰梵語維那此云悅眾若寄維那可謂稱職矣由是眾咸推重居斯職也八易寒暑以省師歸故山閉關三年明萬曆庚戌入黃山丞相原誅茅藏修精進自策一念不移若忘人世久之一方緇白歸信者眾圖南汪公為結菴以居之歲逾一紀偶嬰疾竟不言動止如常人莫之知久之疾篤鄉人請醫診視之寄曰生死如客耳當行即行又何為乎服劣藥唯安然端坐如不有身一日召弟子曰吾行矣末後一事汝等識之言訖跏趺而逝天啟元年辛酉二月二日也初弟子不意其遽化未理龕室乃置坐於几上且恐形變急積薪茶毘值天大雪不能行事如是七日遠近緇素聞而破雪奔弔見寄顏色如生喜容可掬唇紅不改手柔如緜咸曰此生人安忍火固止乃借佛龕收斂供於丈室雪乃止弟子相謂曰此豈末後一事耶於是亦不敢火經夏秋炎熱形氣不變明年壬戌三月弟子大守走匡山具白其事於憨山清且請為銘清聞而歎曰吾沙門之行貴真修實證不在銜名聞立門庭為得也且謂寄於生死神往形留化臭腐為神奇非戒定熏修精心融貫豈能然乎即佛祖之金剛不壞常住不朽亦由是而致此可證寄之道行精能矣弟子寶相一心念佛以餘力助寄開闢叢林數十年往來諸檀越家托鉢持金四眾信仰因果不昧時山豪嘯聚山中稱為念佛和尚相戒勿犯遇之禮拜而去又墨浪少從趙宦光學工草篆書後為寄記室結庵白龍潭得念佛三昧每勸人從止觀著力皆為寄所薰染者也又大守字無易婺源張氏子亦得法於寄專事淨業繼主擲鉢院多所創作緇規清肅晨昏鐘鼓課誦不間登壇施平等法食尤多格冥之驗順治辛卯坐化毒鼓者常參天台博山諸宿愛蓮化峰奇勝遂棲止焉每夜下浴湯池沿路號佛聲震山谷歸時達旦率以為常高郵故人寂毒鼓往視之炷香後跌坐龕左而瞑

明餘杭徑山寺沙門釋圓信傳(照御)

釋圓信字雪嶠姓朱氏鄞人也年二十九始為僧進具欲往天台訪尋知識印證忽舉頭見古雲門三字豁然大悟遂返縛茅雙髻峰復以偈謁雲栖更參龍池室中機契萬曆間遷徑山復住廬山嘗作淨土詩自敘云甲子秋游

黃山直上危峰絕頂若昇忉利忽空中人語比丘久隱時當弘法眾生差異善調伏之知淨土百詠成於黃海光明頂也崇禎八年中丞余大成司理黃端伯訪信徑山即請開法丁亥八月二十六日示疾書偈端坐索茶飲半盞而寂照御字參哲小容范氏子幼具佛性中夜拜大士像額墳起不休年十八歸依松石後受具於巨德禪誦而後腰鐮負薪與眾作苦經樓茶舍位置楚楚於深松文椽中戶牖澄碧六時梵課猿啼鳥語靜中響答極巖棲之致坐臘四十二壽六十四預知歸期晏坐而逝

明雲南雞足山大覺寺沙門釋圓彩傳(如然 雲峯)

釋圓彩字白雲姓劉氏昆明人也年十歲禮筇竹十方得度日事苦行後從所庵受具持律森嚴專修念佛三昧有皈依者唯示以淨土法門嘗遊雞足止息念佛堂時寺井枯竭汲道苦遙圓彩誓禮華嚴三載以祈水泉未幾果有靈源湧出一日三潮當時藩王巨公慕其德望入山修敬後於定中見紅輪墜懷因告眾曰吾今夕有難可酬宿殃是夜果寂年七十三如然字本實昆明尹氏子落染後將田宅入寺重修正覺禪林既受具戒益堅苦行每見田園枯渴願祈靈澤以蘇農困虔禮華嚴殷勤三歲忽紺沼清澄滌洄左右不泛不竭一方稼穡至今是賴直指姜公題曰華嚴甘露寂於明崇禎乙亥年七十五雲峰者不詳姓氏常與大千友善崇禎甲戌早六月不雨直指姜公乞僧祈禱雲峯與焉峯曰吾無他術惟知念佛耳遂趺坐於海源寺龍池磐石上已而果雨三農徧渥土人感德建庵以答靈庥

明會城大德寺沙門釋如意傳(向和尚)

釋如意字寶峯蜀人也入滇以五利起家已而改服為僧依止會城大德寺禮佛三十餘年足所跪處石為之穿時直指李柄慕其精勤親叩法要遐邇謁者幾無虛日如意勸於津梁攜徒無候退隱伏牛年八十餘說偈謝去向和尚者湖廣人初為營卒不茹酒肉守安寧西城門早晚必至鼓樓念佛久而不倦後削髮龍應寺結廬以居每數日一入城乞米米一粒跪誦佛一聲粒粒計之盈握始炊如是者十二年一日遍辭州人云明日貧僧去矣至期果端坐而逝面貌如生

明常州天寧寺沙門釋海寶傳(無名僧)

釋海寶狀甚純樸不表飾言人與語或不之答但微笑而已居常州天寧寺破衲一領寒暑衣之蟣蝨緣裾隨手捫得殊不為意春煦日暖席階而坐對佛拈蝨聚於掌上纒若貫珠已復納之袖中翻然而起客或與之錢則市豆蔬供寺僧施金多則乞眾諷經已則號佛如是者歷有年所崇禎間翰林鄭

昨長約寶禮南海已而卻之發掉行時常見寶在岸前追之不及及登山人殿寶又在焉遣使邀之偕還復不得鄭既歸即詣寺候寶弟子云師沈臥月餘昨方起耳因述其神異郡人由此欽信一日跌坐念佛而化又無名僧者居黃州持彌陀佛晝夜不輟崇禎十六年總兵黃鼎守黃州方出巡僧大聲唱佛衝其卒伍執之已而得釋會張獻忠攻黃州僧坐城上夜中高聲唱佛軍士不得睡惡之縛投城下俄而復在城上唱佛如故每東城下西城上南城下北城上總兵聞之始敬禮焉歲饑人相食僧至城外饑民持刀乞僧捨身僧云俟我誦佛千聲即捨爾稱至三百聲眾見兵至皆驚散而僧已在城中山中獵者生得一虎僧見欲贖放之獵者索三十金僧止得四金獵者云汝能執虎耳三匝則與汝虎僧授記虎執虎耳三匝遂縱之虎依僧不去僧與虎同住黃麻山金剛洞中巡撫盧象昇督兵過黃州詣山訪之欲見虎僧語虎探頭窗外盧欲見全虎虎乃大哮躍出盧竟納贖稱弟子而去一日行市中見一雞僧高聲念佛雞亦隨聲而應市人皆驚嘗之武林出白門見秦淮河遊船中有錢生者其弟子也呼錢登岸放聲大哭曰眾生以苦為樂乃如是耶錢生哀求懺悔示以念佛後不知所終

明仁和吉祥寺沙門釋大雲傳(居溟 金童僧)

釋大雲字萬安姓郭氏仁和人出家永慶寺受具於雲棲居北郊篤修淨業相依者眾因剏吉祥寺寮宇燦然竟成叢席寺中規制秉諸雲棲專以誦讀為課及示微疾即絕飲食唯稱佛號有往省之者則曰彌陀不念念我何為臨化語弟子智經曰為我灑掃佛來迎矣居溟字去息姑蘇徐氏子披緇鄧尉修靈巖儲禪師受荊記機悟敏捷後繼其席二年退居錫山讀宗鏡錄謂宗門淨土本無異旨吾亦當西遊耳庚戌三月示疾有請說偈者不應而寂金童廟僧者遺其名廟在常熟城北日持一版擊於巷衢高聲誦曰無常迅速一心念佛眾不甚異之崇禎十三年三月徧辭諸鄰舍曰好念佛老僧去矣明日爇香佛前合掌稱佛端坐而逝

- 淨讀篇第八之五(正傳十二人 附見十七人)
 - 清諸暨大雄寺沙門釋大勅傳(如會)
 - 常熟南洙靜室沙門釋崇文傳(大真 道樞 具宗)
 - 台州大慈寺沙門釋靈睿傳(恒轉)
 - 江寧天界半峯寺沙門釋成時傳(林谷 萬緣)
 - 虞山普仁院沙門釋行策傳(指南)
 - 金陵大報恩寺沙門釋普見傳
 - 雲南鹿溪淨樂庵沙門釋性香傳(寂舜)
 - 大理雨珠庵沙門釋弘宗傳(性遇 洪舒 德曙 法華尊者)
 - 燕都廣濟寺沙門釋正會傳(振寰)
 - 鄆山阿育王寺沙門釋實賢傳(明宏 明德)
 - 淮安聞思寺沙門釋常智傳
 - 長沙泐潭寺沙門釋衍義傳(三尹)

清諸暨大雄寺沙門釋大勅傳(如會)

釋大勅字仲符姓邊氏紹興人髫年出家於諸暨大雄寺及長聞雲棲道聲因渡江禮焉深相契合傾心淨業晚歲憇錫大善禪堂雅好華嚴日誦一函順治六年十一月示疾親書封龕記語屬諸後事至期起坐着衣西向稱佛而寂如會字妙圓姓譚氏順天人少有奇志便鄙肉食年廿九始出家誓行頭陀脇不沾席初至南方唯事苦行後為道侶所感發壹意念佛遂得豁忘身世見人不作寒溫語必猛厲狠切誨誠澗澗孤志獨行不蓄長物順治五年秋過淮安清江浦眾共留之未幾以一衲贈萬德庵主人且囑之曰吾不久將去特一事相託主人曰比來未久何遽言去曰西方去耳可以遺身付江流中施諸魚蟲主人辭不敢曰然則茶毘後以骨和粉投之大江何如主人曰諾臨化之日先命購香燭眾莫測其意至夜四鼓大呼主人曰速啟門為我熱香然燭主人為然香燭竟視之寂然矣年七十一

清常熟南洙靜室沙門釋崇文傳(大真 道樞 具宗)

釋崇文受業雲棲之門住常熟南洙邨靜室因目喪明專心諷佛夜每登座施瑜伽食三年不輟以順治十五年三月望日示寂先夕遣其徒報城中舊友曰明日將西歸可來話別如期集者三十餘人文坐於牀命徒眾誦彌陀經一卷誦畢而瞑室中香氣三日不散大真字新伊武陵周氏子亦從雲棲

受具戒後繼紹覺主蓮居著唯識合響建大悲壇修事理二懺年七十一示微疾集居士弟子屬以護持正法更衣趺坐持珠與眾同稱佛號頃之聲息俱寂鼻垂玉筋過尺許踰時頂猶熱云道樞仁和人通天台教篤志靜業不親世緣嘗夢神僧偕登玉屏峯頂順治十三年六月微疾語眾曰吾夜夢神僧趨而來豈昔之登玉屏峯者耶人靜時忽見幡蓋盈空蓮花布地即誦經諷佛安詳而逝顏色不變異香郁然具宗無錫人講天台止觀修念佛三昧誨人不倦順治十六年示疾具湯沐浴著一履誦彌陀經復唱佛書廓落虛靈無往來處二語擲筆而逝

清台州大慈寺沙門釋靈睿傳(恒轉)

釋靈睿字攝庵姓鍾氏臨海人年二十四迎女之夕猛然棄家往天台路逢一僧指示曰此往大慈續智者一鐙俄失所在心異之遂入大慈寺落髮受具後至東甌修大悲懺有老僧手持古木香鑪自稱宋懺主慈雲大師以木鑪遺睿亦不知所往由是虔期六期心地發明若有神助睿性至孝其父母墓在西郊外晚築度親臺於大固山之麓朝夕望壟而拜康熙己未四月將示疾作書示友人期以五月朔日將歸去至時誠侍僧曰人命將終當擊鐘誦佛增其正念口占偈曰百年聚首剎那時分手從教任所之仰藉普門三昧力願持精爽向蓮地端居順化恒轉者靖江人住鎮山苦志清修誦經號佛無他事康熙二十年七月將入滅先十日豫知時至戒諸徒侶屬以正法至二十九日沐浴更衣入龕端坐合掌而逝時年六十有八

清江寧天界半峯寺沙門釋成時傳(林谷 萬緣)

釋成時字堅密姓吳氏歙人也少為諸生年二十八忽軼塵網投跡空門兼綜禪教參訪略徧及見蕩益法師遂終身依止卒傳其道歙人延居仰山山中猛獸為時所馴伏不復為害自撰齋天法儀感應天神人多見者後居江甯天界半峯弘靈峯之遺教勤修淨業日有恒課雖甚寒暑不少懈以康熙十七年十月十五日寂於半峯三日異香繞室林谷者紹興人住羅山之西南破衲麻鞋翛然無悶唯勸人念佛一日見白雲中有佛來迎遂化去土人名其庵曰白雲萬緣者長興喬氏子為人愚鈍人呵之弗嗔也譽之弗喜也專持佛號數十年康熙二年秋七月忽自縛草龕有殷任之者與緣善將之蘇謂緣曰既縛龕俟我歸當為置茵褥緣曰恐不及待耳至九月果示疾但飲白水六日日方午自入草龕趺坐而化

清虞山普仁院沙門釋仁策傳(指南)

釋行策字截流姓蔣氏宜興人父曰全昌躬躬老儒頗耽內典與憨山清相友善清已寂三年昌復夢其杖錫而來入室听然俄而生子小字夢憨策既長父母相繼逝始有志出世年二十三投武林理安寺依箬庵問五載脅不至席頓徹法源住報恩寺遇息庵瑛勸修淨業又遇錢塘樵石法師引閱台教乃同人淨室修法華三昧宿慧淹通窮究教義康熙二年結庵於杭州法華山西溪河渚間專修淨業因名所居曰蓮村庵九年住虞山普仁院倡興蓮社學者翕然宗之寂於康熙二十一年七月十九日時有孫翰者病死一晝夜忽蘇語人曰吾見閻羅伏迎西歸大師問之為截流吾以光明所燭遂得放還同日有吳氏子者亦病死復活具白所見並如翰言又指南者常熟人居東塔吳王庵終日默坐念佛人予之錢即轉施捨性坦率於一切處無少繫戀有芝塘里善士數人素歸心焉康熙三十年六月入城謁南因謂之曰來月五日與諸檀施別矣眾如期往南無他語唯勸以念佛坐語頓寂

清金陵大報恩寺沙門釋普見傳

釋普見字一微姓李氏黑井人也年十四依徹庸祝髮習誦毘尼殷勤十載會師請藏江南隨侍金陵時大報恩寺方丈缺席法徒頗眾殊難其繼僉謂枚卜之法始於虞廷詢為至公曷昉行之唯普見三拈三得眾皆歎異遂繼厥席時年二十四居院三歲歸妙峯山篤志精修及開別峯庵日誦金剛經一十五卷如是者五十餘年一日微疾謂侍僧曰可傳知內外執事三日後吾將逝矣至期鳴鼓集眾禮佛踞座云當日馬祖道離四句絕百非是有是無諸人速道一語眾無對普曰老僧自道去也昔趙州左跏趺而逝今老右跏趺而逝乃左足垂下寂然而終壽八十一臘五十八

清雲南鹿溪淨樂庵沙門釋性香傳(寂舜)

釋性香字飄然尋甸人薙髮於鹿溪淨樂庵後從五雲法師聽講專習唯識相宗著有圖相兼究梵網心地法晚歲精修篤尚淨業清康熙辛酉避兵西去為賊所傷跌坐儼然人至撫之方知化去丁卯冬庵災洪鐘巨棟鎔毀灰燼礎石亦裂而香所存一盃一爐及石章三事竟於赤礫中掘出鏗鏗有聲宛然無恙以為異感今宜興益廣宣爐田石章猶為僧徒寶重云又寂舜字無語洱海陳氏子年十四依雞足徹庸薙染侍讀五載後行腳富民居慈勝後山隱靜四十餘年足不下山履止端嚴志尚淨潔神龍潛伏水患不興雄雉馴化棲止座席康熙庚申無疾安祥拈偈而逝

清大理雨珠庵沙門釋弘宗傳(性遇 洪舒 德曙 法華尊者)

釋弘宗字曉了姓戴氏昆明人年少舉於鄉及成進士仕至翰林侍讀後棄官隱雞山碧雲寺改僧服歷參知識旦暮精修嘗游大理海東魯川見有崖泉滴珠如雨剏庵以居名曰雨珠息影山阿二十餘年專修靜業一日焚香禮佛忽命沙彌致別諸山師友及舊知檀越持珠嚴坐念佛而逝壽七十餘僧行二十九有雨珠饒舌集行世又性遇字賢宗昆明李氏子幼而慧悟卓爾不羣父見其行止孤僻捨依正覺既從染剃勤修道業受具於野愚及正覺本公示寂性遇感念法乳廬墓三載時司馬傅公嚮其德行延主慧光恆以淨土化人諸山仰慕聞名起敬誦禮之暇尤工書法寺中聯額多其筆跡清康熙甲辰歲示微疾合掌而逝年六十四僧行五十洪舒字印文楚雄楊氏子年十八投法光剃度住雞足石鐘後閣禁足篤誦彌陀七十餘年未嘗一日間重建教義閣從者數百人年九十而化德曙字敬止太和孫氏子世業儒素性契幽間且工吟詠善繪事每遊名藍累夕留連不忍捨去及年近知命乃禮雲峯心安祝髮受戒盡棄前業專志淨修後示微疾吉祥而化著有詩文偈頌并和宗本山居百韻法華尊者不知何許人清康熙間至滇居無定所日背持法華以為恆業寒暑無間因以名之寂於辛酉及闈維時有貝子見煙氣上騰若見人形遣使馳騎致訊人以為感召神速羣相歎息

清燕京廣濟寺沙門釋正會傳(振寰)

釋正會字道光姓劉氏永寧人母李氏慈心愛物勤苦自持會生而性質剛直樸實持重志趣高超有不可一世之意年十二便爾離塵為安國寺果從所撫及長披度從能隱法師聽講楞嚴經聽未竟忽焉開敏識力慧心自異羣侶清順治七年玉光老人說戒廣濟會拜受焉爾時緇眾雲集日給浩繁會因辭去歸至汾上見田廬榛莽耆舊凋零斷井頽垣離離禾黍低個久之蓋兵燹之餘流冠蠡聚燕趙衛晉殘破尤甚乃思南遊從事參究於是泛長江浮震澤往來金陵鐵甕間徘徊於玉峯鑑湖之上登高四望滿目烽煙憑弔歎愀悵然自失由是復折而北歷齊宋魯魏遂造五臺時順治十八年也其在臺山退然自處不異於人人亦尠知者嘗獨尋幽勝自為禪悅時逢暮春澗豁草綠徐步梵園荒蔓四圍路徑皆沒方舉袖拂草藉茵為坐忽見空中金光數丈瑞雲掩映間若文殊寶相半隱半露頃之屹然前立會驚愕下拜俄而一片紫霞從東飛來與之西去金光遂滅因以白眾眾多疑之然會生平無戲言知不誣也既感瑞應益自憤發行般舟三昧百日持誦精進勇猛無前回向西方直欲與佛齊肩康熙元年復入廣濟為西堂首座十年說戒信安又應宗師府萬壽戒壇兩期無少暇十五年雲光遊盤山不返廣濟虛席幾一載監院乃迎會入主方丈以振寰為閣黎振寰者燕臺華胄恬澹性成而虔於禮誦爛於詞令辛酉歲聖祖幸臨迎至藏經閣下便問何處法臘幾何會但對曰晉人年七十聖祖熟視之曰殊健在及入丈室顧問般若經卷數會未及應閣黎代對之甚悉蓋聖祖萬機餘暇頗究心內典知此經

本八百卷乃試問之闍黎初對以六百卷及再詰問乃曰二百卷實相般若亦在此中由是嘉歎知為積學

清鄧山阿育王寺沙門釋實賢傳(明宏 明德)

釋實賢字思齊號省庵姓時氏常熟人少甘蔬食出家後參念佛是誰有省曰吾夢覺矣掩關真寂寺三年晝覽藏文晚課佛號詣鄧山禮阿育王塔大合緇白廣修供養發四十八願卒感舍利生輝作勸發菩提心文激厲四眾誦者多為涕下雍正十一年臘月八日告弟子曰明年四月吾其去矣獨閉一室日課佛名十萬聲至期書偈辭眾斷食斂目危坐五鼓具浴更衣面西寂然送者麤至忽張目曰吾去即來生死事大各淨乃心連聲誦佛少焉即瞑雍正十二年四月十四日也明宏字梅芳杭人弱冠家人將為取女逃去薙髮於紹興柯橋彌陀庵尋事參訪習天台教觀坐禪有省後閱藏於天台萬年寺久之兩目勞損乃專志誦佛寒暑無間嘗曰我因失明得大利益平時一鉢一杖居無常處人所施與輒濟貧乏實賢與之交稱其得真解脫決生淨生雍正五年九月實賢於梵天寺結妙蓮法會招宏入社時宏雖病而持名不少衰移住無錫齋僧館病轉劇一日徧告檀樾以明日將行眾如期往即起坐號佛而化明德字聖眼海寧馬氏子四歲出家梵天寺性孤僻不好世務偶得喘疾日甚猶延僧開淨業堂實賢亦與焉德聞眾唱佛聲恒默隨之已而自知時至乞賢開示賢曰當淨捨萬緣了脫生死在此一時宜急著力德遂偕眾持佛名復發四宏誓願語極懇切至夜半佛聲方竭即轉身垂目而逝時雍正七年十二月二十六日也

清淮安聞思寺釋常智傳

釋常智字聞思流陽人幼而安重喜聆梵唱見大士像心瞿然起敬既長披緇即入聞思寺秉具一日課誦至心經無罣礙胸中凝結渙然若釋因矢志渡江徧游名剎參諸知識久之無所契慨然謂其侶曰禪以戒行為基淨土為本吾何事跋涉而不務實行乎遂還聞思專修淨業及履主席宣弘戒法真誠不懈凡人有過必循循開迪其有不遜亦委曲譬曉終無愠色故學子依依不忍捨去嘗結社修懺預知時至別諸同社集眾傳衣命湯沐浴跏趺而化至茶毘時有隱隱紫色狀如蓮花自龕前火光中燦然湧出其精誠所結戒光圓滿信不誣也

清長沙泐潭寺沙門釋衍義傳(三尹)

釋衍義字湛修姓董氏秦人也初出家居長安薦福寺聞麓山檀祖名振錫來湘而檀已滅因訪泐潭遺址結茅星垣晝夜靜坐恆持誦大悲觀世音咒

不輟有問之者曰欲祛虎患故持此耳是時湘中鄉僻白額晝行直入人家受禍者眾士民苦之莫能驅逐及聞義言多相效法大悲呪聲徧於山陬虎竟潛蹤其害遂已四方檀護不期而至清康熙癸亥胡副將景雲協助資力恢復舊基更啟新宇義復作泐潭八景詩序立之碑石以紀名勝八景之中唯蓮沼最廣長逾三里曲岸灣環寬亦里許額曰海會蓮池今呼荷花池是也義晚歲息此專修淨業故王潞贈句云六字消長晝千秋老上人學者至今傳誦雍正甲寅夏義年已八十矣以念佛參禪原本不二乃示眾曰六十年前學講禪好箇木人能豎拂六十年後學念佛切實只能七八句直到臨終十念成念念無生念念佛說有談空兩俱非清淨界中無一物有禪有淨帶角虎壽祖非是欺人語肉眼能觀大海眾親見彌陀來接汝是日六月六日為義生辰復謂眾曰今日乃予末後真誕期有會者麼眾默然義曰是真送別也遂坐化時當炎暑坐龕七日面如生塔於寺後平岡著有泐潭剩語四卷留影文集四卷禪餘詩草十卷清季寺廢改建校舍及軍藥局遺跡泯滅不可復覩思古者為浩歎同時有三尹者世稱護國禪師平江李氏子從軍數載幾經戰場見橫尸徧野不覺失聲曰人生如是何苦自殘因辭歸祝髮為僧游參南北名山十餘年還長沙丁吳藩之變官軍雲集閭里騷然三尹請於安親王又入穆將軍幕府哀懇陳述禁止暴掠人民安堵故世以護國稱之晚歲結茅星岳山檀樾為剎梵宇曰棲賢林年逾七十無疾而化

- 淨讀篇第八之六(正傳十二人 附見七人)
 - 清淮安誕登寺沙門釋萬清傳
 - 潤州焦山寺沙門釋福毅傳
 - 杭州文殊庵沙門釋道徹傳
 - 吳山接引接庵沙門釋廣志傳(實圓)
 - 姑蘇龍興寺沙門釋明悟傳(德峻)
 - 杭州大椿禪院沙門釋道證傳(梅松)
 - 錢塘祇園庵沙門釋聞言傳(法真)
 - 天目山禪原寺沙門釋實定傳(際會 佛安)
 - 江寧靈谷寺沙門釋緒守傳
 - 海寧護國禪院沙門釋千一傳(徹迷)
 - 杭州孤舟庵沙門釋實裕傳
 - 海寧延恩寺沙門釋諦勇傳

清淮安誕登寺沙門釋萬清傳

釋萬清字侶石晚號山夫姓唐氏楚人也將誕母夢老僧戴笠執杖入其室明發生兒髻年聞持大悲咒者數過即成誦比從塾師學輒慧根潛發嘗從菩提靈祖乞開示歸而研於私室昏夜危坐倦則面牆年二十求出家投洪福寺禮應知雜染授以楞嚴讀之至波斯匿王章觀河驗見處有省尋詣寶華定庵圓具既而曰持犯束身而已心地發明非大匠曷由啟迪遂南下參碩揆志於靈隱謁天嶽晝於天童叩湘翁法於顯聖皆有引入庚午秋仲歸洪福應知舉趙州無字語勘之清應聲頌云趙州一無字古今難辨別縱使能辨別稱錘是生鐵又舉古宿云者一片田地分付來多少時我立地代汝購去汝作麼生清復頌云大業不因謀乾坤鐵鑿秋卻妨有欺作無意割鴻溝應知但瞑目危坐無言蓋心可之遂付衣拂應知寂後眾請繼席有廢必興頓改舊觀因閱天台止觀誓行般舟三昧凡九十日至庚辰冬復閉處一室倏焉三載偶乘昏倦就榻假寐遽躍然擲其衾褥於外曰古人秉睿哲之資尚脅不至席矧在推魯若不倍進道業何日而辨人皆歎服乙酉春聖祖南幸清迓候漕河奏對明敏御書誕登寺額賜之辛酉永寧虛席勉狗眾請住院三載即辭退丙申沐陽官耆延之清涼禪院結制弘戒法會之盛一時稱最仍返誕登丁酉嘉平朔復閉戶獨居專修淨土有終焉之志己亥歲大歉僧眾絕糧以頭碎扉強而出之是歲稍稔因竭餘財建大雄殿及藏樓禪堂方丈廚院次第落成更置西莊土田二千餘畝雍正庚戌傳席門人掩關

幽室精進淨修癸丑冬世宗崇獎佛旨召赴闕下與論洞宗應語響捷次日復詢之曰傳燈錄所說汝宗至太陽警元幾絕得投子義青出而振之今隆替若何清以被毀之故據實奏之為之駭異乃諭之曰朕為汝重建投子汝可中興其道為開山祖乎尋賜紫衣孟杖恩數優渥字而不名明年奉命主靈谷乾隆元年投子廟告成題曰慈濟二百年久廢祖庭一日興復出於一言使洞鐙再朗泉石增輝非有夙因曷由致此明年夏初殿脊傾倒有聲若雷又夢見英端瑞首四字謂其徒曰吾勿起矣吾老矣安得英且瑞乎開其端而剗其首耳後當有興者因書偈曰虛度七十三年宛如雲過大千雲既歸壑太虛朗然浴餘易衣坐化時乾隆二年八月二十三日移時頂熱如焚壽七十三臘五十三塔於丈人峯下清氣貌雄偉廣頰豐頤垂老面如滿月鬚髮如銀日炯炯有光人見而敬之五坐道場皆有語錄所著詩文偈頌或勸刻之清曰佛祖教書何止汗牛今多置之矧吾言乎徒禍棗栗性好放生所活尤眾

清潤州焦山寺沙門釋福毅傳

釋福毅字敏修姓李氏武昌人年十五祝髮抵漢陽歸元寺受具志慕宗乘至焦山參碩庵行載載命看無字語十餘年無所入病幾死忽猛省遂印可後主焦山五州山及揚州平山金陵圓覺荊州承天湖州弁山所至均沾法利乾隆二年復主焦山會鎮江大旱福毅託鉢維揚募米二萬四千餘石以賑之儲大文為之記詳山志後居瓜洲報本庵年八十五無疾而化塔於潤州黃山之南

清杭州文殊庵沙門釋道徹傳

釋道徹錢塘人出家於半山嶺安隱寺初參崇福高旻諸老宿發明本有已而專修淨業居杭之文殊庵中結期閉處室無長物入關數日得疾困甚忽自奮曰念佛正為了生死奈何以病輟邪持名號益切俄而金光照室見佛摩頂病霍然已遂得念佛三昧行住坐臥了無異念如是三年以三月望出關升坐說法謂眾曰吾將西歸其在鶉火之中乎及盂蘭會時眾理前語徹曰可少待明日延崇福僧屬以住持又明日方午別眾入龕瞑坐寂然頃之復蘇謂眾曰與諸君遠別可無一言娑婆之苦不可說不可說極樂之樂不可說不可說儻勞記念但念彌陀不久當相見錯過此生輪轉長夜痛哉痛哉語訖而逝時乾隆十九年也

清吳山接引庵沙門釋廣志傳(實圓)

釋廣志字爾立會稽人結茅天台黃金洞專修淨業姑蘇殷天成延主吳山接引庵三十餘年隨機化導指歸淨土嘗結期念佛晝夜不絕聲其弟子造之見其經之地大書阿彌陀佛放金色光訝之以問志志曰汝自本光發見耳乾隆二十六年四月望要弟子四人詣庵供佛臨別謂曰明日當來送我及期眾至焚香誦經稱佛千聲端坐而寂實圓松江人少有逸志年十八父母為迎取有日矣夜走一寺求主僧為剃髮其父母求得之閉之一室日常跣坐不食不寢無已乃聽出家松江城有僧設關拜華嚴經未竟化去為終事焉已而至金山行般舟三昧久之居常州天甯寺入念佛堂晝夜唱佛不絕乾隆二十八年三月示微疾集眾諷佛盡捨橐中金三日沐浴具威儀隨眾入堂跣坐唱佛而寂

清姑蘇龍興寺沙門釋明悟傳(德峻)

釋明悟字丙元黃岡人早歲出家仁壽庵徧參諸方了悟心法歷主吳江長慶蘇州珠明石門崇慶臯亭佛日諸寺晚居龍興精修淨業晝夜無間乾隆十七年正月九日語眾曰吾當去矣不及觀上元鐙也果於十四日作偈有自入涅槃門不露真消息之語因取湯沐浴易衣稱佛至午而寂德峻字廣聞一字蒼巖姑蘇人出家於城中妙隱庵參訪既徧歸而閉守盤溪小靈隱精勤數年專課淨業定中兩度見佛遂造丈六彌陀像刻淨土或問導人念佛時赴眾請演瑜珈法屢有徵應所得施金未嘗啟封每出所藏作諸善勝乾隆二十八年九月微示喘疾召諸學徒環稱佛名者七日臨化命眾焚香端坐不倚垂手瞑目年八十有五

清杭州大椿禪院沙門釋道證傳(梅松)

釋道證杭人住郡東大椿禪院稟性真實專修淨土每日三時爇香為度長跪佛前虔持名號年至八十獨自精勤信往之願毫而彌至一日謂眾曰來年二月十二日我將西歸為我識之至期無恙或戲言曰今日是師所識日也何尚未舉錫證驚曰今果花朝耶即命弟子取水沐沿更衣焚香邀集四眾齊聲誦佛有頃跣坐竟化有同參曰梅松者亦修淨土住妙巖寺中夜聞有人呼曰道證已去何不一送梅松驚覺即趨視撫其背曰平日相知臨去何無消息雖然我亦不久於塵世矣歸三日亦坐化事在乾隆三十年

清錢塘祇園庵沙門釋聞言傳(法真)

釋聞言字超然姓費氏桐鄉人幼小之時不食腥羶好跣坐七歲入靈隱山祇園庵出家為人淳樸謹言力行受具於雲林碩揆志朝夕提策言曰言也鈍根不善參究唯知念佛耳志曰念佛亦可了生死言奉教唯謹尤精戒

律二六時中唯持名號不問他事乾隆二年六月二日忽召眾曰我行矣說偈而逝法真字朗如高安人得度於灌溪元文平時潛心淨修一日與禪者論及無字意蓄疑久之豁然有省詣海幢禮正月老人機語契合遂受記荊乾隆二十年主席海幢提倡宗乘兼宏淨願晚歲謝事掩關寺之東偏專課佛號寒暑不懈者八年以乾隆三十八年九月十二日示寂先夕召弟子屬身後事及日午自舉淨土文香盡二寸而沒

清天目山禪原寺沙門釋實定傳(際會 佛安)

釋實定字聞學姓張氏上海人也少喜趺坐長有出世志年二十餘父母俱喪入天台山薙髮萬年寺受戒於湖州萬壽寺初入堂見心空及第額不覺自失至夜聞引禮唱罪從心起將心懺一時念慮俱清期滿入侍寮見六祖壇經閱之如獲故物尋至餘杭聖因寺參澹如看一歸何處有省及考工次問一歸何處應聲曰南高峰頂浪滔天問如何是此境界定無語乃重加策發行住無間已而復入天台上騰空嶺雲霧四塞忽見日輪湧出身心廓然自此動靜二相截然不生回視古德差別機緣洞無隔礙及再見澹如遂為印可傳法為上首後澹如主天目禪原寺定隨侍數載澹如既寂乾隆十八年定乃繼主天目二十一年退居蒙堂已而歷主紹興之吉祥江陰之香山尋至姑蘇居靈巖山下華藏庵又時入城住文星閣居士彭際清從受菩薩優婆塞戒嘗言達本之人功未齊於諸聖得生淨土果行方圓故晚歲提倡念佛法門著淨土詩百八首言諸佛法身含裹十方世界居常稱心而談隨機赴感如泉原湧地高下平滿晴雲映空卷舒無迹聞其妙旨罔不鬯懌以乾隆四十三年正月三日說偈而寂有蓮華池上見彌陀之句示得所歸也定於有為佛事未嘗措意而治業資生具有條理眾頗訝之及聞末後脫去始知其生平密行不可測度然讀淨土詩誠足信矣中峰正令頻唱彌陀楚石宗風徧揚淨土顯唯心之妙諦證不退之真修以今視昔寧有異焉彼掠影宗門撥無因果者觀其去來可以自反矣所著語錄頌偈詩集共十卷世壽六十七僧臘四十四其徒際會字旅亭亦修念佛三昧臨化作偈別眾吉祥而逝佛安字誓願姑蘇人年三十餘見鄰家剖屍出其腑有文曰曹操瞿然發心投上津天坐庵為僧已而居北濠大王廟以念佛為課得錢輒買香花放諸魚鳥乾隆四十一年三月有疾召客為別自稱佛號其徒和之日午舉手曰行矣視之竟寂

清江甯靈谷寺沙門釋緒守傳

釋緒守初名法守字道揆號卑牧姓凌氏烏程人年十九出家投邑中寶雲寺受具於餘杭靈隱諦暉參淮安誕登侶石清復還寶雲忘身為道雍正甲寅清方開法靈谷憶緒前侍機契招之至則喟然歎曰今之一見非十年前

境界也其氣度行藏殊足令人敬羨因授之衣拂乾隆元年清復奉敕主慈濟緒遂繼席靈谷三十餘年不入城市唯事薰修辛未春恭迓鑾輅召對行座賜御書福字華藏圖垂詢三絕碑綸韻溫溫緒以實對並呈榻本重泐諸石丁丑春翠華復幸寺宇重光御書淨土指南四字刻之碑額緒復紀以詩云來日苦無多去日良可惜浮生六十年忽忽此一日飢餐倦即眠何者為佛力悟徹去來今即是波羅密兩度覲天顏幾世能修得一領破袈裟香氣御爐襲峩峩三賢碑刦灰幾經歷一朝煥彩光恩許重摹勒勝蹟豈常湮禪房留寶墨淨土指南字煌煌聖人筆鳳舞而龍飛銀鈎兼鐵畫長此大光明不寂亦不滅三十一年丙戌秋傳席於世璞退休靜室明年八月十一日示微疾留偈而化壽六十有七有語錄詩稿世璞字玉潛號茅庵烏程沈氏子四歲出家二十受具得法於緒既繼斯席不涉世緣專志持誦十年中蒙賜石刻梅花澗化閣帖以輝山寺寂於乾隆丁酉六月十七日年五十一亦有語錄詩稿數卷

清海寧護國禪院沙門釋千一傳(微迷)

釋千一字遠人姓王氏海寧人也素懷清絜雅慕禪修因投邑中護國禪院落髮受具於西湖昭慶寺謹持律儀誠心薰念志樂寂靜顏其室曰廬山僻處潛修其中乾隆戊戌秋自知時至適道侶過訪欣然相訝曰公來洽好正我西歸之期可一借證明也遂沐浴更衣焚香趺坐說偈而化是日瞻禮者眾塔於院左又同院僧微迷嘉禾人姓鍾氏性樸質語多戇直人多忽之不樂與近中年始投海寧護國院依定高染剃執侍數載但知念佛求生淨土後侍師至延恩方重修大殿專任勤敏無少懈愆然念佛不輟出入持珠雖日營指畫終日喃喃人亦未之奇也一日謂同寮曰我將與諸君別矣眾問何往曰西方去相與共笑之後數日復從外至又呼同寮曰我今日真去也眾亦不為意傾之披衣禮佛合掌端坐復高唱曰我去矣遂寂然無響眾連呼之不應趨而視之則已化矣時乾隆五十六年也

清杭州孤舟庵沙門釋實裕傳

釋實裕字谷聲廬江人也年六歲讀書苦不上口禱於大士前歸而展卷若宿習年十八怙恃俱失投師出家明年游學湖州龍華寺日中為眾收糧僕僕塵市夜則就佛燈前讀法華經久之成誦每下山輒誦一通還亦如之嘗與同寮僧偕行裕以誦經故行稍卻前行僧為虎所銜裕徐行且誦弗知也已而參龍華止谷晝夜策發身心頓空又依理安迦陵參趙州無字聞香版聲有省因舉示迦陵迦陵問趙州因甚道箇無裕曰一人傳虛萬人傳實後詣大雄山參靈鷲深相契許付以衣拂徧游名山始還餘杭上皋亭山頂居人馮氏為築孤舟庵以棲焉幽處深山息心禪誦日夕禮華嚴未嘗就枕席

者凡三十六年當兩足跪處深陷寸許繞室經行處亦履跡宛然有馬氏子負米蔬至山其徒他出從門外聞諷誦聲闕之裕方遶佛朗朗諷已便坐聲息俱無馬氏子念久立日且暮不如自外啟扃入又為浙米具炊治蔬與裕飯飯已馬氏子去其徒歸見餘食問所從來裕曰適為我治饌者非汝耶又誰邪既而其徒至馬氏家乃知昨所供食者馬氏子也其徒嘗採菌與裕共食中毒嘔逆裕竟無恙居常見人未嘗語寒暄詢以宗教無所不貫尤精宗鏡錄崇福寺延主方丈堅卻之年七十六示疾說偈曰生也如是死也如是死生去來如是如是趺坐而寂當七十初度遠近集者數百人就裕授五戒者三十餘人其善教及物如是

清海寧延恩寺沙門釋諦勇傳

釋諦勇字定高姓蔡氏海寧人也幼失怙恃靡所瞻依孤弱窮苦幾歷艱辛稍長感觸塵網便思超脫欲仗三寶藉報雙親遂於州中護國院出家精持律儀馥郁戒香嗣法福嚴啟建蓮社恒以誦禮苦心勸導緇白景仰從之如歸及移住延恩鼎新殿宇雖工作繇興執持不間嘉慶丙辰秋示微疾自知時至預請安國得法師封龕至期沐浴更衣微聲念佛泊然而逝

- 淨讀篇第八之七(正傳十一人 附見九人)
 - 清紅螺山資福寺沙門釋際醒傳
 - 嘉禾覺海寺沙門釋達純傳
 - 江寧靈谷寺沙門釋衍紹傳
 - 雲間西禪寺沙門釋悟虔傳
 - 潤州焦山寺沙門釋覺源傳(灑融緣)
 - 姑蘇南禪寺沙門釋佛度傳(絕相 孫東瓜)
 - 杭州東園德寧庵沙門釋律淨傳(戒乘)
 - 金陵鷲峰寺沙門釋正真傳
 - 天台山國清寺沙門釋小有傳(妙修 清靜 崇池)
 - 鎮江良篷寺沙門釋自明傳(如月)
 - 高郵觀音寺沙門釋松園傳(清法)

清紅螺山資福寺沙門釋際醒傳

釋際醒字徹悟一字訥堂別號夢東姓馬氏豐潤人也幼通經史雜染後徧歷講席博貫性相而於法華三觀十乘之旨尤為心得參廣通粹如純明向上事師資道合乃心印焉後粹如遷萬壽醒遂繼席廣通策勵後學每謂永明延壽禪門宗匠尚歸心淨土期生安養况今末代尤宜遵承於是專主蓮宗尋遷覺生寺未幾退居紅螺山資福寺衲子依戀追隨甚眾醒率性真實為法為人中心誠懇始終無厭平昔示眾一以淨土為教每當講演辨析兩土聖賢苦折樂攝之思或至淚隨聲落而聽受之者亦未嘗不涕泗沾襟也嘗云真為生死發菩提心以深行願持佛名號此十六字為念佛法門世間一切重苦無過生死生死不了難免墮落一念之差便入惡趣三途易入而難出地獄時長而苦重七佛以來猶為蟻子八萬劫後未脫鴿身畜道時長已極鬼獄時長尤倍久經長劫何了何休萬苦交煎無歸無救每一言之衣毛卓豎故當痛念生死發大菩提心也且示八事一真為生死發菩提心是學道通途二以深行願持佛名號是淨土正宗三攝心專注而念是下手方便四折伏現行煩惱是修心要務五堅持四重戒法是入道根本六種種苦行是修道助緣七一心不亂是淨行歸宿八種種靈瑞是往生驗證此八事修淨業者不可不知也心能造業心能轉業心不能轉業即為業縛業不隨心轉即能縛心心與道合心與佛合即能轉業心隨常分任運作受即為業縛一切現前境界一切當來果報皆唯業所感唯心所現唯業所感故前境來報皆有一定以業能縛心也唯心所現故前境來報皆無一定以心能轉

業也若前境未報一定之時忽發廣大心修其實行心與佛合心與道合則心能轉業前境未報定而不定又若前境來報不定之時而大心忽退實行有虧則業能縛心即前境未報不定而定蓋吾人生死關頭唯二種力一者心緒多端重處偏墜此心力也二者如人負債強者先牽此業力也業力最大心力尤大以業無自性全依於心故心重能使業強今以重心而修淨業故淨業強心重業強唯西方是趨則他日報盡命終定往西方不生餘處矣何為重心信深願切一切邪說莫能搖惑一切境緣莫能引轉如古德時臨命終六欲天童次第接引皆不去唯專心待佛後佛見乃曰佛來也遂合掌而逝夫時臨命終四大分張此何時也六欲天童次第接引此何境也苟素常信願不到十分堅固當此時此境而能強作主宰乎如古德可為修淨業之金鑑矣或謂一切諸法悉皆如夢同是一夢修之何益不知七地以前夢中修道無明大夢雖等覺猶眠唯佛一人始稱大覺當夢眠未開之時苦樂宛然但娑婆之夢從夢入夢夢之又夢展轉沈迷極樂之夢從夢入覺覺之又覺漸至於大覺所以永明云有禪無淨土十人九錯路無禪有淨土萬修萬人去此真實語也學者幸勿忽諸嘉慶十五年二月預知時至辭諸檀護曰幻緣不久虛生可惜各宜努力念佛他年淨土相見也臨寂前旬日示微疾命眾相助號佛見空中幢旛無數自西而來告眾曰淨土示相吾將西歸至期面西端坐合掌凝睇曰稱一聲洪名見一分好相手結彌陀安詳而逝眾聞異香浮空供奉七日面貌如生荼毘獲舍利甚多以嘉慶十五年十二月十七日示寂世壽七十拈花寺沙門體寬為之傳所著有念佛伽陀一卷語錄二卷中多開示念佛法門武林錢伊菴居士得之於其友陳復齋重刻於浙中其道遂南讀其書而起發其行願者不少蓋蓮池思齊後一人而已

清嘉禾覺海寺沙門釋達純傳

釋達純字粹修晚稱悉檀老人嘉禾桐鄉人也幼而薙染壯乃進具受雪舡衣拂為大覺七傳弟子住嘉禾覺海寺精修淨業十有六載建西方三聖殿春冬啟念佛期遠近觀感緇白雲集嘗行般舟三昧一夕夢中見蓮大如車蓋從空而降自此知見超卓辯才無礙姑蘇彭尺木居士逖聆道行請住流水居文星閣領眾念佛日課嚴密并講演雲棲彌陀疏鈔及天台教觀以策事行歷十載不倦後開法南禪寺百廢具興未幾退居殊勝庵專意精修長懷西土嘉慶甲戌二月十三日示寂其弟晤靈以事羈南禪乃於癸酉冬手書招之歸歸則曰佛涅槃日予將西歸故需汝一訣耳至期沐浴更衣跏趺說偈曰多生濁苦纏綿一旦逍遙變遷快覩彌陀影見廓然別有一天遂合掌號佛而逝

清江寧靈谷寺沙門釋衍紹傳

釋衍紹字祇園姓余氏銅陵人幼攻帖括少為名諸生省世無常誓願祝髮禮九華天臺山真如庵洪度得度受戒歙縣黃山雲谷寺介庵乾隆二十三年冬參靈谷玉潛得法助理院事十載接主祖席四十五年春翠華幸寺恩賞白金以崇優獎居靈谷十九載率眾勤修年逾六旬退休別室專修淨土閉關二十年嘉慶癸酉二月十日無疾而逝世壽八十有二有語錄詩草

清雲間西禪寺沙門釋悟虔傳

釋悟虔字投誠一字素愚鉛山人也初來雲間掩關西禪寺禮華嚴三年舊有萬佛殿藏經閣歲久荒殘金碧剝落慨然閱之矢志募修檀樾樂助不日更新性慷慨好義勇為急人之急嘗醵金葬施牧堂居士一家數喪又李居士衡堂家貧常分衣鉢之資助之沒復為購棺以葬虔通徹宗乘而專志淨土雖興崇利益不廢應接而六時繫念無少間缺晚移北門善應庵益勤修念嘉慶二十三年臨化先數日遍辭道友若將語別至期從容而逝丈室闍闍瓶鉢蕭然送者數十百人莫不讚歎禮拜而去

清潤州焦山寺沙門釋覺源傳(灑融緣)

釋覺源字性海姓張氏定遠人幼穎異九歲五經具成誦弱冠入縣學文名藉甚顧無心仕進每作出世想因親老未能遽捨為取妻生一子居常究心內典閱華嚴法華諸經多有契悟無何父母相繼逝始決志出家依金陵耆闍寺克靜祝髮禮封崇皓清受具足戒時年已四十矣自以學道遲暮樂行苦行堅持戒律口不妄語不非時食手不觸金銀寶物身不著獸毛蠶絲四者尤為今時所難嘗於閱藏行二時頭陀徧參知識聞焦山借庵禪師為洞下名德因往參叩機緣契合遂承印記復住山中藏蓋深入教海而於華嚴奧旨獨有會心乃自別其號曰一真法界以志慶幸由是覃精華嚴手披不暇數百過乃至背誦不遺一字嘗為四眾講演大義抉幽剔微聽者豁然重訂普門觀懺儀晝夜六時行法脇不著席十數年居心質直其正見知如永明雲棲以淨土為歸宿日誦彌陀名號十萬聲每禮懺畢必回向淨土從學弟子數十人皆一時之雋多主席名山而源乃虛懷若谷願居學地有雲棲風嘗南遊天臺四明西謁九華過舒州禮三祖塔登妙高峯所至道俗敬禮請求開示源隨機利導莫不得其益以去以是皈信者眾雖未曾主席一方而恒為諸方留止主人必為設普明觀壇場四事供養無闕其道德感人深矣晚年石谷成禪師延居高旻屏絕諸緣一意安養舊患足瘡至是增劇而六時禮拜無少間復於普明懺後加禮彌陀四十八願禮已即持名號不絕從學伺便請益更無他語唯以西方淨業諄諄勸勉而已源一生精力注於木叉淨業二事既以自為即以為人又理勝辭達令人一歷耳根頓獲解脫嘗輔戒焦山或問自性清淨名為戒體今師精究律部敢問和尚是戒耶阿

闍黎是戒耶白四羯磨是戒耶源答曰和尚非戒然非和尚亦不得自性淨戒闍黎非戒然非闍黎亦不得自性淨戒羯磨非戒然非羯磨亦不得自性淨戒譬如玉在石中必玉人雕琢而後成金在鑛中必金師煅煉而後淨佛性在煩惱中必淨戒遮止而後見一時以為名言武昌陳熙願傾必皈依信仰尤篤將歸乞其指示手書天悟淨土詩一首有句云普賢獨發願何事再相疑且言欲了生死不外禪淨二門然而豎出難而橫超易則今時修行切要唯在淨土一門耳石谷禪師嘗有禪淨百偈之刻源為之敘略云參禪時法法歸禪念佛時法法歸佛所以普門云生滅既滅寂滅現前勢至云總攝六根淨念相繼是知參禪要全身放下不放下則六根動被遮蔽念佛要念念提起不提起則種現乘間而出以念佛之心參禪則參禪即歸淨土以參禪之心念佛則念佛即是深禪其發明禪淨分合之義徹了無餘嘉興精嚴灝融緣禪師雖禪門宗匠亦持木叉而修淨業者與源為同參契友謂源以念佛為往生正因以持戒為決定往生正因以讀誦大乘解第一義為往生上品正因總成就一往生因緣其言諒哉源之居夔灣十餘載道俗欽慕奉為規法嘉慶二十四年八月二十六日示寂世壽六十有九是年夏即辭歸焦山石谷堅留不可歸逾月而示微疾自知期至晨起索浴浴畢端坐念佛安然化去茶毘時瑞雲盤空有光成五色從火際直透虛空獲舍利子三瑩淨如玉塔於潤州八公山其徒供其舍利於山寺書藏樓所著有普明觀法一卷宗鏡目錄二卷畢竟毘尼二卷出世上上禪一卷反約集一卷淨土詩百首寂後借庵搜其遺稿刻為拾遺集一卷

清姑蘇南禪寺沙門釋佛度傳(絕相 孫東瓜)

釋佛度歙人也初至姑蘇流水居復住南禪寺堅守律法過午不食夜坐不臥後於檀香觀音閣獨居數載專修淨業嘉慶戊寅春示微疾辭諸道友端坐念佛而化時有絕相禪師與度相友善及聞度化去乃曰渠去我亦去遂沐浴焚香面西趺坐合掌而寂絕相嘉禾人身體短小貌復不揚人多輕之絕相終日不言唯低頭念佛雖在操作不廢持誦晨禮四十八願及大悲懺畫課彌陀經數卷午後不食夜則西面危坐習以為常依南禪悉檀老人二十餘載老人時稱道之獨與佛度道誼甚洽故臨去相期聞聲應響知有自來矣又東瓜和尚姓孫氏餘杭人而忘其名字居恆素食性嗜東瓜人呼孫東瓜後出家華嚴庵償其夙志仍襲舊稱遂呼為東瓜和尚云為人不多言竟日遊行街市寒暑無間經十餘年人莫之測顧與鄰庵僧慧照相友善將寂之前月告照曰新正六日當相別汝合來送我至期因赴法慧庵返見慧照先在曰汝何來照因笑曰汝不嘗與我約耶特來相送耳乃首肯之曰汝真不負也遂沐盥更衣禮佛竟趺坐謂照曰既行不可無偈為我書之偈云終日走街坊心中念佛忙世人都不識別有一天堂既書後令誦朗誦畢曰吾去矣悠然而逝

清杭州東園德寧庵沙門釋律淨傳(戒乘)

釋律淨字明徹姓錢氏德清人也年四十始出家初投餘杭慈聖復移東園德寧虔誦法華日以為常二十餘年靡有間缺一日道侶戒乘謂之曰汝道心如此堅固若更以念佛回向淨土則圓成尤速即如智者大師得法華三昧尚求生淨土汝何不然因示以高僧傳及十疑論淨深信之由是誦經畢即念佛回向淨土又久之忽有開悟生死關念了然洞徹嘉慶丙寅秋初告其徒曰吾中秋前當行矣問何往曰西方八月二日復謂道侶戒乘增秀二人曰水到渠成時至理彰不可著意求知亦未有不知也又期二人偕往視之則已更衣趺坐時鄰僧多來候送欲齊聲諷佛接引相助淨止之曰用功全在平日臨渴掘井何益吾非卻此緣助要使諸君不疑耳乃更移坐龕中說偈曰吾年六十九真實不虛口放下者雙手直往西方走遂合掌化去

清金陵鷲峰寺沙門釋正真傳

釋正真字達宗別號西齋湘潭人也初出家時隨緣近邑上禮衡嶽下泛長沙既得具足遂事游參曾至高旻謁昭月貞師參究誰字甚力旋得法於國清寶林珍師又受金陵神木瑞林禪師教乘源流薦紳先生請主鷲峯古剎至則頽垣壞井老屋數椽人所不能堪而真處之晏然未幾檀施日至百廢具興次第建諸殿閣金塗丹雘一改昔觀復置良田數百頃率眾禮佛日有恆課凡有求請無不切示宰官臧獲一視平等久之皈依愈眾悉授以持名法門遐邇緇白藹然慕化姬傳姚太史淮樹章觀察信願方隆宏護尤切一日淮樹邀真對榻出其二妾令受以經真曰夫受經之法必須正几中庭熱香頂禮而後敬謹授誦恭嚴聽領蓋法不可慢心貴自虔觀察悅服方離榻致禮而梁墜榻碎由是畏之率二妾同稟法戒後舍二妾為尼持心淨土頗稱精進未幾厭絕塵囂耽志幽隱委院務於其徒脫凡屏棄諸緣專修淨業所著有淨土偈若干首道光元年正月九日晨起與徒清譚安養樂趣貌和神怡旋自諷誦命脫凡領眾食粥及復至則已更新衣雙趺逝矣

清天台山國清寺沙門釋小有傳(妙修 靜清 崇池)

釋小有不知何許人道光時天台國清改建塔院方興築時有一貧衲貿貿然來自請作苦且言當先入塔為主詢其名自稱小有寺僧許之乃荷鋤執畚隨眾勤勞而工力倍之塔院落成無疾而逝荼毘時煙結如蓋隆隆直上眾見小有趺坐煙中冉冉向西而去同時有妙修臨海人年方志學便解超塵後參名山時有證悟及至國清沈淪爨下四十餘年冬夏一破衲而濟人之急恤人之病視力所至唯恐弗及平昔寡言笑無事則手持貫珠佛號喃喃在心在口一日忽語人曰今後七日吾當去矣遂不飲不食長坐繩牀如

期而寂壽七十八又靜清太平人受具後首眾國清多所啟迪禪觀雖勤淨業尤專一日匆匆乞匠造龕人多訝之詢其所以乃謂之曰吾將逝矣當在今月望日申時遲恐不及寺中有存龕許以供之稱謝而去至日更衣告眾而別因留偈曰來既空時去亦空生生死死去來中而今解得真如意西天無路白雲通擲筆合掌瞑然遂寂寂後數月有族從女在楚門為尼聞訃而來輿將至寺見清方袍圓領彳亍道傍即之而窺蓋已近塔盡禮而去又有崇池者溫人也幼即披剃端習梵行壯遊名山專志淨念平昔寡歡絕少交游嘗至國清行堂三載辭遊天童告眾曰我去復來來而後去戊午夏果來秋九月示微恙絕醫藥至十九日語人曰吾當去矣起立披衣持具隨取牟尼二貫一執手中一挂胸前號佛而化

清鎮江良篷山寺沙門釋自明傳(如月)

釋自明忘其姓字武陵人也持戒習禪真誠無妄嘗事遊參道出鎮江至良篷山下見其四面幽寂冢墓纍纍訪之土人曰此官司決囚處左右孤墳皆死者斷屍也自明因慨然曰此間念佛正可利益幽明於是露地而坐三日三夜念佛不絕聲行道感歎競相施助不一年梵宇輝煌照耀林谷獨與如月常相往來自明告眾曰天地悠久尚有壞况人世無兵燹乎時天下承平人莫之測未幾明寂咸豐初元粵寇起事竄擾長江竊據金陵其言悉驗如月字妙明與自明同邑持律精嚴結茅終南三十餘載出訪名山小住鎮江蓮花庵日以念佛為事嘗至金山高旻天寧語未來事有應後復入終南合掌稱佛而逝事在道光二十六年十二月十六日春秋七十六云

清高郵觀音寺沙門釋松園傳(清法)

釋松園姓朱氏高郵人幼有疾久不瘳醫者視之皆輦蹙無方謂已入膏肓不可治將坐以待斃一夕夢神人語曰汝必出塵祈佛庇蔭病始能愈寤而發誓徧告親友而疾果痊乃依師普潤出家受具於八寶觀音寺後棲於城東蝗王祠勵志苦行勤修淨土率眾持名至忘寢食一日宵小踰垣入至禪席傍傾囊發篋搜索一空松園方注想華池若耳無聞目無見者侍者至前始覺有盜去已遠矣其精誠如此凡對人無他但云死心念佛緇白悉從化導同治戊辰仲冬示疾前數日謂眾曰吾將歸去汝等無憂戀助我念佛可也即於八日晡時端坐喃喃誦佛而化又比丘尼清法字寶月於昆明永樂庵披剃自幼精持戒律閉關拜華嚴經一部一字一拜晨昏扣鐘利濟幽冥五易寒暑中宵不輟晚歲專修淨土臨寂誦佛坐化咸豐元年也世壽七十三

- 淨讀篇第八之八(正傳十二人 附見十二人)
 - 清衡州中正禪林沙門釋離塵傳
 - 曲陽黃山寺沙門釋正通傳
 - 成都寶光寺沙門釋宗質傳
 - 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映冰傳(一心 心有 續乘)
 - 丹徒竹林寺沙門釋悟先傳
 - 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大須傳
 - 善化護國寺沙門釋慧圓傳(開慧 靈一)
 - 寶慶點石禪林沙門釋仁里傳(開蓮)
 - 樂清淨濟寺沙門釋機溥傳(彥恢勝 妙能 大海)
 - 上海玉佛寺沙門釋戒然傳
 - 衡州西禪寺沙門釋常析傳(唯澄)
 - 燕都南城觀音院沙門釋清苦傳(乘參 恒修)

清衡州中正禪林沙門釋離塵傳

釋離塵字鏡江姓萬氏衡陽人也幼性慧穎不好俗躡雖貧困失學而出語成韵若有夙因咸豐丁巳祝髮郡城韓公祠禮師禪機長老究心生死苦行二十年拜華嚴經六部勇猛精進一日始破本參有偈曰在塵都不染自樂性真天猶恐見道未明慨然舍去朝九華南海諸名勝豁爾了悟復呈偈云一朝打破萬緣空面壁達摩成正覺及歸於衡城中正樓剎立禪林一時名流如劉觀察晟齋楊廉訪賡雲皆樂為之助卒成厥志自是日持一卷朝夕朗誦以篤修淨業為務嘗有偈云煨成鑪火已純青內寶何須外索因性海圓融歸一片時時不昧本來人清泉盛炳崑為敘其事入宗錄云

清曲陽黃山寺沙門釋正通傳

釋正通者姓蘇氏曲陽石門邨人九歲於城南王固寺出家年三十始至京師受具於西域寺後住黃山八會寺平居專修淨土晨昏魚磬琅琅遠聞人多化之嘗居蔚州勸人念佛緇素士女相率歸[殷- 爻]度人無算所著有蓮宗寶鑑摘要三卷蔚之信善競相資助為之鋟版今其書流傳尤廣以其詞旨簡明易於誘導後寂於蔚縣老山寺云

清成都寶光寺沙門釋宗質傳

釋宗質字樸齋姓段氏洪洞人也初歲出家便爾精修及圓具姑射山興福寺戒律尤嚴欲參耆宿矢志遊方遂徧禮名山歷探聖跡嘗於成都寶光寺開筵講演綿延數夏復往紅螺山資福寺與亮首座相善亮示以念佛求生淨土法要質領其教語服膺拳拳持之三十年鴻昏鳥顯歷久無間以清光緒七年二月十日示寂世壽八十五先三日日方卓午忽覩白蓮一莖三花湧於室中自知淨業功深圓成不遠戒其徒招同參十人相助諷佛是日晨起猶發聲清朗所誦佛號歷歷分明久之響沈音寂面容光澤如笑欲語傍侍方啟叩呼之不應撫之已逝去矣

清長沙嶽麓萬壽寺沙門釋映冰傳(一心 心有 續乘)

釋映冰字南泉姓馮氏湘潭人年十六出家於長沙百隆寺具足於嶽麓萬壽寺後主杲山中興禪林道譽遠敷更歷寺院莫不革新化為叢席退居天井山四十餘年專修淨土光緒八年壬午冬十月十日示微疾呼其徒曰吾居此僅七日耳徒唯唯以冰從無大病未之深信至期五鼓沐浴更衣端坐偈曰六十餘年苦相連一句彌陀在眼前今日辭去娑婆界徑往西天合掌又曰真登般若船尋本得源踏破虛空白雲巔拈來須彌一輪月果滿功圓寂時年六十有五一心者湘鄉杜氏子投長沙龍象山剃度年二十五受具於寧鄉大瀉山主白霞丈席九載廟宇重新百廢俱起移龍潭山延攬水雲漸興叢舍復興杲山寺與映冰相先後其專志淨修亦同晚歲禮拜彌陀觀世音像一日百叩誦號萬聲如是者二十七年未嘗稍間主杲山時曾弘法戒得弟子三百餘人光緒二十一年乙未九月九日示寂先期召弟子曰吾西方淨土日近爾曹勉之重九午後焚香誦佛偶然雷震西見祥光端坐而瞑年七十矣續乘字妙寬宛平人依京西寶山師出家同治元年得戒於潭柘寺專壹持念始終無懈光緒三十一年五月二十二日示寂年七十八又心有字曇光亦燕山人進具於潭柘者也寂於光緒三十四年六月朔日年七十生平戒行芳潔生死同參尤以洗除塵垢為淨修法門故數十年勤持佛號念茲在茲無少間墜直至純熟圓明自見今同侶中多能道其精詣云

清丹徒竹林寺沙門釋悟先傳

釋悟先字省一姓高氏江都人世為農家故省一生而誠慤不染浮習年十二執母親哀毀不已念母死何歸人言佛法可冀超登因有出世志以父在當力養不果行及父沒始投天峰寺薙染復受具於揚州天甯嘗謂出家祈登上果今求修持之門乃無知者久之始聞淨土之學於焦山僧輒自立課程專志持名不輟又數年復有告以刻期求證念佛三昧者省一聞之喜曰必如此乃稱圓頓不然鬱鬱畢世奚為也遂發願閉關念佛百二十日期現證三昧已入關妄念紛乘波譎瀾翻屢澄不止期已滿無所得乃大憾規再

入誓必得乃已又數年復掩關於揚州初念時雜驚如故至五十日猶未已復大戚彌加懇摯如是者二十餘日返觀心境覺情識破壞妄心漸息又久之覺妄念之擾日不過三五至即見阿彌陀佛卓立空際金容炳然莊嚴微妙不可名狀歡忻禮拜私自忖度佛已在前涕唾欠伸皆不敬奈何已而灑然曰父母於子猶不以汙穢為嫌况佛乎由是猛勇精進持誦益虔又久之心境廓然皎如皓月凌空善惡胥蠲細微盡泯萬念澂清纖塵不染動靜如一心口之際惟有佛名至是神氣倍充不復臥寐亦忘饑渴食至則食略無所苦所居之室牆壁皆虛一望直達光明洞徹諸佛菩薩充滿大空金地蓮池七寶行樹宮室樓臺多不勝數所行坐處境界如一不別晝夜暉麗無間其超勝博富多淨土經所未及一日方持誦間見前有寶蓮花二花上天人貌與諸菩薩同而神似其父母才一注視其人已緩步至前諦視之果母也輒然語之曰汝以我故發心出家汝今證道我與汝父亦以汝故得生淨土今奉佛飭特來慰汝省一方起立母止之曰佛正在前不以我故擾汝定力汝志已慰他日淨土好相見也言已遂隱再視寶蓮則大地眾華披拂相似迷不知處矣自證三昧後心中淨境不變不退直至出關心境寂然渾忘久暫雖逾百日視若兼旬年才三十證道如斯然終日誦佛至老不倦故眉髮俱白而顏色溫潤狀貌嶷然有參謁者惟語以入道緣起及所證境界或以禪教為問則謝不知其誠實如此嘗主天甯法席未幾辭去光緒十一年四月初六日寂於丹徒竹林寺塔於夾山青龍麓世壽七十有四法臘五十有五

清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大須傳

釋大須字芥航晚號不不頭陀姓蔡氏鹽城人也幼秉至性超然塵表因父寢疾禱佛祈代神監其誠遂爾霍然乃捨身邑中三元宮年才十二曇徽詣道安之歲慧永居羅浮之時法身無暇學志彌篤未幾得戒於樊汊水陸寺徧遊名勝博訪勤參躡屨寶華便司職事駐錫焦山乃履主席時咸豐辛酉粵寇初平瘡痍滿目寺藏屢空為聯本山十二靜室蠲棄微嫌布以公德薙草開林崇基正表置藏經之室立禪誦之堂課以文字勉以焚修因人誘掖莘莘後進樂就範圍嘗謂說律論經宜兼宏淨土不為高遠以淺近示人從入之途使之深造自然有得故一音稱物化感頑石卅品探微溺拯惑水又謂佛法升坐後受眾供養未有後者不得升座以供養者必其子孫非異人任也今執出家無家一語死於句下大背佛旨故為其先人立後而戚族有急必竭瓶鉢量力為助以故士大夫多賢之光緒己丑五月四日示疾入寂塔於竹林寺夾山崩光典為之銘見焦山續志須生平澹泊為懷疾已以繩至於接物處以撝抑故賢者敬其善力俗眾感其丰稜禪修之餘兼工詩畫竹蘭入妙人得一紙珍同拱壁

清善化護國寺沙門釋慧圓傳(開慧 靈一)

釋慧圓姓徐氏湘陰人也出家時年二十四初兩目朦朧發心持戒依善化護國寺以清煩慮虔誠誦佛尋受具於南嶽祝聖已而反寺專志禮拜忽焉三載兩目復明由是化導數十百人同修淨土廟貌佛相一時更新同治九年臘月八日示疾召弟子殷殷以堅持道心為誡明日正午合掌告眾曰吾中品也舍笑而逝又開慧者長沙張氏子得度於善化長慶具足於長沙天王參謁覺清示以法要專修戒行年三十重興善化鹽廠庵後誦法華經四十年光緒丙午冬將寂時定中見文殊謂之曰爾誦法華功將圓滿喜而詔其徒曰吾得見文殊示我西方速掃佛殿助吾誦佛如是十餘日夜聲不絕果見祥光凝空異香飄然默默而化年七十有二靈一尼者長沙吳氏女也幼有善念不食腥血年二十一剃髮於縣中鐵鑪寺未幾受具於南嶽祝聖精持律行日誦金剛彌陀諸經晚禮佛百拜誦佛萬聲以為常課至光緒辛丑自知日至如期坐化末後一偈有直往西天九品蓮之句年五十餘

清寶慶點石禪林沙門釋仁里傳(開蓮)

釋仁里字尊美姓王氏邵陽人也生性淳樸幼失恃怙早歲祝髮青雲山年二十受具於岐山恒志志宗規嚴厲不稍寬假仁乘戒俱急冤親等慈杜多行成道譽漸著光緒初邵北緇素於白雲岩關荆毘盧寺迎仁主之此地林壑幽險風氣渾噩未幾禪侶蒸蒸竟成叢席邵城東有點石庵者自顯愚禪師開化後已百有餘年風雨剝落棟宇將傾庵眾乞仁主持再弘悲願不數稔殿閣巍巍照耀山谷丁未冬傳戒於毘盧得新學一百九十餘人誘掖孜孜不倦津梁獨以寺無大藏學子雖勤莫窺秘要庚戌夏詣闕請經遶道名山再經霜雪始達京都時寄禪敬安主天童邀之入山度夏及其行也并勗以詩多敘其平生懿行有可探者略云多生忍辱運悲深刀割香塗不動心蚤虱紛紛來乞食捨身為彼立叢林蓋仁嘗蚤蝨滿衣或為去之仁笑謝曰我已捨身為彼立叢林奈何遷去違我本願又錫杖繩牀手自將廣行方便作津梁欲知德被蝨蟲細看取隨身漉水囊仁恐水中有蟲先以紗囊漉之始飲故云又聞師行脚宿山庵飢喫拳頭味亦甘月出窺園猶拔草令人思念每生慚仁嘗行脚至一庵投宿拒而不納棒喝隨之仁竟怡然順受月出猶為之除草庵主感悟向之禮謝其居點石也每苦乏絕而仁四來不拒一粒同餐禪誦自若故詩又云點石庵中苦異常平居十日九無糧唯將一滴曹溪水散作醍醐上味嘗寄禪贈詩十四章多不備錄錄其紀實者仁雖專心持念而禪景清超亦時動吟興除夕云清間佳趣在林泉淡薄風光不世緣瓦竈通燒松火煖砂鑊爛煮菜根鮮從來處富爭濃豔自古居貧淡爨煙輸我山僧忘歲月不知明日又新年癸丑臘初偶有不適靜坐二十日沐浴更衣合掌西向一聲佛號遽辭塵世癸丑歲十有二月二十三日巳時也壽

七十有五臘五十有五塔於庵左仁堅忍精進形容枯寂口期期若不能言而筆下灑灑千言立就長坐不臥者五十餘年冬夏一衲不蓄私財參父母未生前句得悟後即翹心淨土四十年不二心力故說法示眾以念佛為指南云開蓮者善化潘氏子年十九捨身於長沙白龍山明年具足於白霞寺參叩名山歷有年所後還白龍禮華嚴經二十餘年光緒間示寂占偈云一別娑婆界西方歸淨土今夜月當空脫去臭囊走至子夜跌坐而瞑

清樂清淨濟寺沙門釋機溥傳(彥恢勝 妙能 大海)

釋機溥字誌西號月杲姓劉氏樂清人也母盧氏感白衣神授子於懷而孕既舉常默默如入定僧才及齠齡隨母禮佛見僧即拜年十二遊龍門寺聞鄰舍僧誦彌陀經能默記終篇不遺一字心有感發屢欲軼俗年二十始從式公薙度受具戒於大邑明因寺永智習演教乘漸得省解彥恢勝者永智弟子也見溥誠篤付以法衣及歸適龍門山寺妙能法師方開蓮社因與斯會專修淨業道風益著緇素皈[殷-爻]不勝指數光緒紀元初建淨濟寺於郭路雙獅山麓蓮會再啟魚梵之聲六時不絕內外肅然不減東林規度十一年春延大海法師入寺崇專講席提倡淨土宗旨丁亥三月應太邑紳耆之請主明因丈席頻歲宏戒傳經聲德遠施莘莘衲子望風而至溥性簡質貌度冲和言語率真誠心愛物生平戒律精嚴功行超卓雖事繁形疲必晚息早起禪誦不輟午則隨眾作苦載笠荷鋤從事蔬圃有棲賢百丈遺風晚歲體氣康強頂骨隆起色如渥赭狀類肉髻蓋年已七十矣童顏鶴鬢目光炯炯能覩小字藏經居恒持誦大悲神咒甚虔靈應甚著凡有祈禱俱獲痊安宣統二年壽已八十為弘戒法得尸羅弟子百廿三人洽符遠公蓮社之數故蓮有一百廿三人入社往生都在藕花中之句蓋由往昔倡導兩寺蓮社功深果熟故致此兆溥後五年果有往生淨土之徵寂前一夕自謂定中見白衣大士滿身瓔珞乘百寶船大如山凌空來迎遂得西向念佛而去塔於寺左鳳岡之陽

清上海玉佛寺沙門釋戒然傳

釋戒然字清泉別號妙泉宛平人也居在黃黑二寺間幼不識字聞喇嘛誦經似有所會心竊慕之家素貧為人傭嘗齎香入西山檀柘寺憇心幽寂萬慮俱清有志超凡請於父母未之許也年二十一父病因請隨僧朝普陀許之還遂禮天童天目天台諸山久之父沒年二十九得請於母始披剃於彌陀寺逾年受具於拈花寺然未明大事乃詣紅螺山資福寺研教念佛矢志薰染七易寒暑及聽講唯識不能領會乃自歎根鈍非苦行勤祈即靜坐念佛亦不能得力乃發願拜禮名山焚香誠禱手持口誦三步一拜時光緒二十四年正月元日發足資福履雪峩峩乘雲九華遂東朝普陀天童天目而

息止焉然草屨跋涉蜀道叢蠶昔人所艱况循蹬叩禮俯首屈躬於山巖峭壁之地祁寒暑雨略不知疲周迴萬里時逾二載非道心堅固能若是乎顧念母老思歸覲省一笠一鉢飄然北渡道出金山躋於臺頂瞻禮文殊又居年餘乃返燕山然不絕孝思終為情感既出世塵安能家處復遵原隰行迴齊魯泰岱之陽沂泗之畔蘭若勝境靈奧所宅遊方無定忽焉數秋時宣統辛亥武漢兵起天下騷然乃思避地循淮浮江更至金山日坐禪堂參究念佛是誰猛勇精進一日取藏經讀之聲琅琅然儼如宿習寮侶異之因留閱藏已過其半嘗謂唯識難虛究心理不如法華楞嚴詞義簡明便於誦讀尤利薰修故息棲五歲專持淨業嘗居高旻亦歷寒暑楚泉印光皆仰其名丁巳靜圓禪師初事參方未有所識與然遇於江天瞻仰道範肅然敬止每謂佛旨弘深必痛徐習氣乃得相應靜圓心折歎為名言戊午新春卓錫至滬蘇撫雲陽雪樓程公德全避處海上遁志玄妙偶於冬暄遊覽玉佛見躬躬老宿曝背寺簷與眾僧語娓娓動人程公訪之乃知為然遂相往還然每發論時含玄要程公一與周旋未嘗不悅懌而去由是道契綦密微間數日便爾尋索庚申二月程公有疾然問之程公徐曰其病甚苦然曰要去便去苦由他苦且自言邇來心境開朗覺數十年用功今乃豁然以庚申四月朔日示寂世壽六十僧臘三十一先數日自製新衣作別同儕午後入浴更衣晏然坐化儻所謂預知時至者非耶靜園為之傳贊詞有可採亦紀實云

清衡州西禪寺沙門釋常析傳(惟澄)

釋常析字五空姓劉氏衡陽人賦性誠慤本分自持取予之嚴甚於一介衡俗八月男女相率朝嶽三五七步手持香炷拜於道左勸孝歌詞高唱入雲響應山谷遠近化之析於光緒七年欲報敏勞積誠三載遇果月師贈以法寶壇經佛祖心要及淨土文讀之敬喜交并乃詣羅漢寺求靜田開示示以念佛法門拳拳服膺十四年始受具於南嶽祝聖精進毘尼兼窮性相誦金剛經凡所有相皆是虛妄若見諸相非相即見如來句知本來無物無相須自性妙明心中所見一切境即見自心如來看法華經知此中開權顯實深固幽遠無人能到讀地藏經至若能迴向法界其福不可為喻知住相布施有為功用凡所作一切功德迴施法界眾生不作所施不作所受不求果報三輪體空福無比量自是日涉諸經皆有啟悟居來陽金錢山一載究竟念佛不與人言坐禪左右不問名字十八年壬辰歸衡職西禪寺監院時主座普明方事興造除萊緝宇因基成殿自禪堂法堂至於廚庫一磚一瓦一木一石籌運所需絲豪無苟僉曰非析相助無以語此故昔年寺租才五十石既贍工食反增舊額至二百餘石此可概見也已而求靜退處小庵取藏中諸祖語錄切近日用者節其大要編入課本以為規式行住坐臥字字指心句句是佛清晨合掌名佛千聲迄於昏暮精神罔懈或禮淨土懺或誦楞嚴咒迴向三歸數十年中無或稍間庚申秋北至燕都居法源寺主僧道階舊

與同參仰其清操付以管鑰勤勞三載舉千日水陸開無遮大會功果圓成更弘戒法新徒四百聚食萬指庶務殷繁而析以積敏示恙至壬戌正月四日說偈別眾偈曰本來無有種無種亦無生不出亦不入當生生不生本來無有念無念亦無生不變亦不動當念念不生又曰念本無念彌陀全見圓圓明明不動不變闍維舍利瑩然大者如豆小者如粟將歸塔衡陽云同時有惟澄者湘鄉蕭氏子早歲離塵超然自潔常持淨念不昧本來初至燕京棲西城廣濟寺庚申冬欲從道階肄講論移入法源時方倡續高僧傳以澄習文耐勞屬之採訪且主文牘澄為廣印徵文啟以簡章分行東土使續傳者事半功倍澄之力也壬戌新春睹析寂喟然曰此老不待我乎何其速也人方訝其妄時澄無恙年才三十顧樂與析居寢處間一木壁聲息相聞志願無爽後數日澄果寂嘗貯銅幣數千枚病時悉付主僧以施眾不昧因果可知

清燕都南城觀音院沙門釋清苦傳(乘參 恒修)

釋清苦者不詳所自出光緒初來燕都止於城南觀音禪院持頭院行以清苦自甘因以名焉每歲春暖發腳游山嘗浮海詹補陀還溯江而上踐峨眉更逾洞庭南登衡霍復泛湘流攬江南名勝北旋至五臺足跡徧國中獨以臺山僻處寒荒道途修阻舟楫鮮通僕僕風塵或十數里不得水火因發悲願祈修石路計驛遠近設立葦亭庶游侶拔涉意煩力憊得所止息於是作為簡冊敘述懷悽附以紅牋隨緣題請苟書名數則揭牋拜領對之焚化或予以貲反辭不受謂事非偶然功難立竟但有移山之心本無斂金之意若勝因不爽福果熟成則浮屠湧見寶藏無盡不問假手之人同為畢願之日何事計較銖兩混我戒行識者高之以為非凡僧也晚歲乃於道旁樹下自覆一葦蕭然塊處有來者取鉢中食分而飯之我無求飽人不獨饑斯為兩得即是兩忘恩怨報施皆不足言桂陽夏內史壽田少時侍其父中丞公官部曹得見清苦飫聞先訓悉其行誼及入詞館掌內監頗復訪之不知所終因作獨樹庵飯僧歌以寄意焉歌曰獨樹庵中獨住僧獨行獨坐百無能長披一世無溫衲靜對千生不滅鐙平生擔破殘經裏是處名山乞香火偶得團瓢勝普陀京城人海安心坐烏至惟棲雨後枝人來不捨霜前果貧齋祇辦一人餐也似叢林任挂單自甘半食長饑慣未覺千僧供養難有人布施向禪林唯乞將心奉世尊長見定時雙履在曾無化後一衣存當時手種階前樹樹長陰成僧已去老樹空庵四十年獨憶孤僧飯僧處後有乘參者住北臺峯頂取茅為篷額曰廣濟蓋以便過客憇游侶意良殷也與恒修相友善同抱淨願期偕安養參臨化時招修至情話疊[一/晶/宜]中夜達旦握手而瞑未幾修亦坐脫

- 興福篇第九之一(正傳十一人 附見十二人)
 - 宋餘杭靈隱寺沙門釋幻旻傳
 - 南詔水目山寺沙門釋普濟傳(淨妙澄 皎淵 阿標頭陀)
 - 潤州金山寺沙門釋瑞新傳
 -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敦照傳(體瑛 祖機 法均 本一 善演 嗣祖)
 - 四明延慶寺沙門釋子親傳(文表)
 - 溫陵開元寺沙門釋了性傳(守靜)
 - 臨安靈隱寺沙門釋道昌傳
 - 臨安淨慈寺沙門釋可宣傳(妙崧)
 - 黃山雲嶺禪院沙門釋雲林傳
 - 明州天童寺沙門釋祖智傳
 - 福州雪峯寺沙門釋天錫傳

宋餘杭靈隱寺沙門釋幻旻傳

釋幻旻姓葉氏玉山人童時出俗入興教蘭若師僧省覃既納戒乃訪道四方來虎林見慧明於靈隱即服膺所說盡得其法久之命監寺而寺大火方究典守眾懼禍及或有遁去旻獨曰我總寺事罪盡在我爾曹不必懼也吏不窮詢止坐爨者人咸偉之及慧明告終旻帥眾白府請慧照聰鎮其寺仍以監寺輔之戮力和與復其寺不十年所葺屋廬嶷然千餘間蓋偉於舊慶厓中朝廷聞其名賜之紫衣其後又賜號普照及慧照謝世遺書舉旻自代官疑其事更命他僧主之旻事其僧愈恭無豪髮見於聲彩知府龍圖季公知之乃以上天竺精舍命旻以長老居之及觀文孫公蒞杭特遷主靈隱升席之日孫公重旻衣冠貴游不翅百人預會爇香聽其說法而道俗老少摩肩趨者萬計是日人聲馬跡溢滿山谷法席之盛罕有其倫旻天性寬平慈恕居寺六年規制整飭燦然大備嘉祐己亥仲冬忽感微疾先日招契嵩與語將授以寺語氣詳正無異平昔十三日鷄鳴問夜何其即起漱洗安坐而盡壽六十一僧臘四十一塔於呼猿澗直北寺垣之內契嵩為之銘

宋南詔水目山寺沙門釋普濟傳(淨妙澄 皎淵 阿標頭陀)

釋普濟者姓楊氏姚安人曾與淨妙澄同開水目山山舊無泉普濟以杖卓之泉隨湧出人呼卓錫泉云澄本滇池高氏子世輔大理段氏襲爵國公因

讀楞嚴至見猶離見見不能及處有省竟叩玄凝獲大解悟即從剃染後開水目山段氏為建刹乃贈淨妙之號皎淵字本月亦高氏子襲大理段氏國公而嗣法普濟者也嘗問濟云如何免得生死濟曰誰將生來淵擬議濟以扇擊几有聲遂悟及住水目弘化後進朝野尊仰寂示偈云諸法因緣生我說是因緣因緣盡故滅我作如是說擲筆而逝阿標頭陀者洱海人未知姓氏嘗以心經無智亦無得義問皎淵淵為開示法要昕夕勤究罔敢懈怠時段氏王為水目建寺阿標為工匠都養日則奔走勤勞夜則繫繩寺梁遂獲靈通常挈筐入市日行二三百里食頃便至人竊窺之但見閉戶默坐置筐于前諸物自盈見者喧傳阿標立化世稱水目四祖

宋潤州金山寺沙門釋瑞新傳

釋瑞新者不知何許人宋慶曆八年金山火明年瑞新來治寺事閔茲天災念彼靈境不忍荒廢抗心修復乃擇山陽亢爽之區勸州人士為水陸堂積錢百三十萬不日而堂成曾鞏為之記歎其穹堂奧殿瓌傑之觀非佛之法足以動天下蓋新之材且辨有以動人故成此不難也然則新之學行砥礪識慧明通發揚佛旨堅人信仰又可知矣新為青原九世福昌善禪師弟子嘗與同侶論父母未生以前身在何處因作偈曰曠大劫來無處所若論生滅盡成灰又曰猛虎不顧几上肉洪鑪豈鑄囊中錐皆徵玄悟宋皇祐初主金山席建水陸堂五年卒當慶曆時王荊公安石為鄞令與瑞新交有答十遠詩以寄意詩曰遠水悠悠碧遠山天際蒼中有山水人寄我十遠章我時在高樓徙倚觀八荒亦復有遠意千載不能忘及其經游宿寺也記云質明與其長老瑞新上石望玲瓏巖須猿吟者久之又有書瑞新道人壁者蓋新移主金山之龍游安石訪之而新已歿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敦照傳(體瑛 祖機 法均 本一 善

演 嗣祖)

釋敦照者不知何許人宋建炎二年來主泉之開元舊有戒壇形式卑陋不合古制照祥儀度檢南山圖經太息久之因與其徒體瑛祖機法均準彼故文重作新規凡五級輪廣高深之數尺度手量校雖律法必有依據既成恐來者不識矩矱疑出私意使崇灌為之敘表其法刻之石其略曰按圖經壇五級者五分法身也位北而嚮南者生善滅惡也第一級高一肘者制心一處也第二級一肘有半法輪王壇量者紹法王位也第三級高二指者真俗二諦也界方七尺者七覺意也下二級闊陬隨宜不表法也四階道者便陟降也中尊象者佛在臨其上也上三珠中天建壇釋梵所獻者戒珠瑩也佛後四位一樓至二豆田邪三馬蘭邪西土請五壇主四南山師此方弘律祖也東西相望十座者十師位也下級十金剛者不壞也四圍神象者護久住

也下列龕穴者準灌頂經護三歸者各十二神合之得三十六護五戒者各五神合之得二十五故六十有一龕也上級四王環十六神者並以本願在處護法也龕列二十八宿出沒照臨同護也欄柱金翅啖龍者制除業惑也其欄柱下多師子者出家稟具魔外無敢犯如彼威伏百獸也內有九龍擎珠效祇園鐘臺下龍水沐者灌頂相也中置法界輪者以法界境開悟受者萬法唯心無始倒迷翻惡成善也為屋而塗繪者俾登之生敬也照生平嚴守毗尼以身範物學者宗之嘗為僧正屢弘法戒其徒萬人極一時之盛甘露壇本宋真宗天禧三年普度僧眾例得為之照法圖經復明其義志慮深矣又本一者亦泉之開元清涼院主也才足達機勤能任事又以至誠感物故施者多歸之宋紹興二十五年開元寺災舊有象清涼山萬菩薩者與寺俱燼歷年未復及淳熙二年本一來主是院慨然以興修為己任始改為藏以康萬聖而疑象山為輪不合法制質諸李訖訖曰昔開福惟勁剏藏法切利天琢石象海與須彌山上建大輪運其宮闕後有尊者室利嚩囉自五天來是其作此其左驗明甚山而輪之又何害焉因奔走諸檀施者材匠悉擇其良指揮斲雕為八面面千象極其精妙紹熙二年春迺成糜金錢八千緡訖為之記其略曰造化機緘闔闢盒張顯其妙用不窮運而無息故天地之旋日月之行星辰雷風迴移鼓蕩陰消陽息暑作寒縮一氣循環周而復始旦夜夜旦生死死生古古今今相推相代而人與天地萬物一氣俱為無窮也必有道焉超越乎造化機緘之外不為彼轉而能轉彼則其妙用巨天巨地貫古貫今不可磨滅也是以諸佛菩薩於無住心建大法輪云云記未刻而本一卒慶元四年其門人善演刻之又嗣祖者泉之惠安黃氏子受業開元七佛宋嘉泰中苦志經營復修寺院祖性穎異初承徑山宗旻學派內外經籍皆深造有得出語驚人後居北山瑞象巖刻北山勝槩四字於霹靂石陳謙所題也嘉定十年真德秀知州事聞祖名致之出世承天嗣龍翔南雅法未幾示滅

南宋四明延慶寺沙門釋子親傳(文表)

釋子親姓潘氏樂成人也幼從西坡覺祝髮年二十聽妙經於七寶戩并圓大戒戩問無量義處定與法華三昧是同是異親曰說默雖異是同戩深器之辭歸故居未幾與其徒文表重興白巖壽聖嘗示眾云台宗三觀十乘乃治心法要至簡至精最近最易除我見去妄情莫尚乎空辨邪正曉偏圓莫尚乎假融事理明體德莫尚乎中惟在信之堅行之勿退他日必至佛祖之所澈證其或好異厭故悅新則徒勞其心苦其身何益於己何益於人宋淳熙初乃之鄞卓錫延慶重興講堂一日無疾說法而逝弟子奉靈骨歸葬白巖

南宋溫陵開元寺沙門釋了性傳(守淨)

釋了性出安溪黃氏賦性慷爽見義勇為凡所行事發於至性使物我了然明其無私因以了性自名及學佛尤以導人作福為念每見寺塔頽廢梁道傾圮必竭力成之而後已人感其真實無一毫私偽翕然響應故所謀必濟所造多就宋紹興中開元東西木塔災至淳熙初了性次第建之轟若雙標弟子守淨晉江翁氏子從性學禪時性方造鎮國塔來則訢訢左右不去紹熙間淨建資聖塔復新厥廟及巖堂庵橋凡十有七開禧末陳模作資聖塔記略及之然了性所造東西塔彌陀殿安溪龍津橋晉江安濟橋郡志具詳之矣而其構承天僧堂釋太初子愚為之記世所稱簡嚴有法者庶乎近之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道昌傳

釋道昌字月堂姓吳氏歸安人幼投鹿苑禮澄公為師年十三祝髮受具堅持淨節不異成人踰年行腳不禪寒暑尋訪耆宿究取上乘時妙湛佳湖州道場聲譽甚盛昌往謁之一日問妙湛曰不起一念時還有過也無妙湛曰須彌山爾作麼生會昌於言下領略自是機峰捷出有辯無礙罷參歸霅川土人莫倚施米麥豆六百斛懇之主何山左丞葉公寄棲下山與昌甚契每魚鼓相從伊蒲共饌為方外忘形之交繼主平江瑞光移穹窿又遷四明居育王山皆創成法席一新寺宇先是妙湛住淨慈有大通所傳雲門大師摩訶已八代相授至是妙湛對雪峰大眾以此衣授昌眾謂不失其宗人以為榮葉公帥建康時蔣山新經戒燼屋僅數椽葉公奏請昌住此山不數年樓閣化城若自天降寶祖規制盡復舊觀翠華駐臨安靈隱方丈虛席詔補其處時丞相湯公慕昌踐履篤實德臘俱高欲以激昂有眾為奏授佛行大師之號時年已七十餘矣乃以耄辭選林泉幽勝為出塵之所退居其間因以月堂號所居杜門謝客以娛晚景會淨慈闕主十方衲子懇府帥王公入山敦請昌不得已乃承命復出辛卯歲正月忽擊鼓辭眾遠近咸集無不泣留侍者宗本求語昌曰吾平生拈古頌古其語已多尚何言哉端然而化年八十有二僧臘六十九葬於寺之東隅松隱曹勳為之銘

南宋臨安淨慈寺沙門釋可宣傳(妙崧)

釋可宣字石橋姓許氏嘉定人也為橘州曇公之弟道行卓見海內欽企元寧宗雅聞其名賜號佛日嘉定丁亥丞相魯國公請居徑山宣謂學人重趼而來者窮其日力食息無所乃創室百間又自裒其囊合緡市田千畝接待於雙谿之上寧宗嘉其意御書化城寺額錫之眉山楊汝明有記及示寂建塔化城同時少林妙崧者建寧徐氏子首參育王佛照光有省元嘉定三年以尚書省牒四至出主淨慈未幾謝去後十二年辛巳復以淨慈虛席詔崧住持凡二十年前後建置閎勝甲於湖山都人駭歎謂出神力嘉定十四年

以千秋節召入內廷奏對稱旨賜號佛行并紫方袍後復被旨遷主徑山二月二十日奄然坐化

南宋黃山雲嶺禪院沙門釋雲林傳

釋雲林者不詳其里姓宋淳祐甲辰來游黃山結茅其間此地初名佛嶺唐大曆中志滿禪師露宿嶺上山蟲衛繞數日不知饑渴人以為佛也故名嶺為遊山者發足初地在郡城西北三十里自歙至太平亦多取道焉但經行十餘里無居人行者苦之及建禪院巋然林表四時薑茗取攜甚便遊侶德之時事變遷故院湮廢及雲林戾止知為龍象修真舊地乃造華嚴樓以居為開山始祖因以雲名其嶺林有歸山詩云滄海塵生望不還虛空粉碎步方艱時人欲識今行履一衲蕭然雲嶺間又答友云搔首何須更問天此心灰盡不重然休將瑣瑣塵寰事換我山中枕石眠味其旨趣高蹈遠引無慚禪德方遺民鳳寄林詩云竹杖芒屨去未能鞅塵十丈苦相仍去來今了三生事輸爾寒巖晏坐僧鳳為文信國客與謝臯羽結汐社林蓋方謝舊友云

南宋明州天童寺沙門釋祖智傳

釋祖智字別山姓楊氏順慶人也年十四得度初聞僧誦六巖語悅之時巖住蘇之穹窿亟往從焉因閱華嚴經彌勒樓閣人已還閉之語恍如夢覺越二年徧叩浙翁琰無際派高原泉滄菴淨妙峰善最後見無準範於雪竇知是法器待之彌峻時或棒喝交并語不少貸智欲擬答禁不能發由是知解都喪久之作而言曰吾生平皆守死法今始行活路既而範移徑山命智分座嘉熙戊戌洞庭天王虛迎智主之寶祐丙辰天童寺燬制相吳公潛判州事奏智道行被旨攜一鉢一囊至縛茅以居時州地久旱祈禱輒應人情奔湊不三載百廢具舉天童迺復舊觀庚辰九月朔旦忽示眾云雲淡月華新木脫山露骨有天有地來幾個眼睛活越十日夜分重別大眾叉手而逝世壽六十有一坐四十七夏塔於中峰密菴禪師之右玉局文復之為之銘云

南宋福州雪峯寺沙門釋天錫傳

釋天錫字樗拙姓尤氏晉江人幼而失怙羈孤坎壈有願空門年十五始裂縫掖從僧道本雉髮紹定己丑登具戒後忘寢廢食研窮經傳質難[月*翟]庵之門辨惑善堂之室盡獲圓頓秘奧梵音風發淨侶霧滃從聽無地多席門外布毳珠珍波流雲委嘗造鎮國塔頂極其精麗戒壇蠹朽更易一新開山真覺禪師有先塋一區於蘭若西徧地號柘林久委榛荆乃夷地剏廬構崇閣五楹上崇佛像下列法祖每歲香會期以五月至者如市又闢磔确為田以贍菴眾顏盤居為題句曰雲根琢盡構禪室石髓流來溉旱田蓋

紀實也會白松虛席眾迎主之坐未溫席在位移文括沒緇徒即拂衣而去從俗自戢柳楊橋毀顏公馳書勉完之迨尹京回馭靈隱以殿緣祈公公抵泉屈天錫一臨講席距千萬指殿既就事上國傳耀由是聲譽日新戶屨常滿結繫要迎無虛日得親炙者幸甚焉性介而敏貌溫而厲機鋒蹀躞其徒率多依之菴東臯千柏而下別無寺儲而香廚飽飫不告乏絕道範既隆信施自至也以景定癸亥十月九日示寂壽五十五臘三十五七日荼毗其徒維方捨舍利於煙燼殖歸承天永通塔咸淳二年丙寅維方更撫餘聞次為行傳比丘大全為立石以垂久遠文具寺志

- 興福篇第九之二(正傳十四人 附見十七人)
 - 金徂徠山法雲禪寺沙門釋福燈傳(善寧 法朗 智崇)
 - 上方山感化寺沙門釋澄方傳(圓覆 寶公)
 - 沂州普照寺沙門釋覺海傳
 - 元雲南大德寺沙門釋玄堅傳(節思杓 大雲)
 - 雲南真峯山正法寺沙門釋玄鑑傳(大休 宗興)
 - 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如山傳(道傑 崇祖)
 - 伏龍山聖壽寺沙門釋元長傳
 - 磐山北少林寺沙門釋雲威傳(圓悟)
 - 泉州開元寺沙門釋伯福傳(守慈 永寶)
 - 當陽玉泉山寺沙門釋慧珍傳(霞壁 寶光)
 - 泰安竹林寶峰寺沙門釋法海傳
 - 泰安靈巖寺沙門釋淨肅傳
 - 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守忠傳
 - 雲南崇寶山正覺寺沙門釋定山傳(悅顏)

金徂徠山法雲禪寺沙門釋福燈傳(善寧 法朗 智崇)

釋福燈者姓屈氏曲阜人也爰自妙齡慕善出家為童行時雲游濟南投開元寺普賢院安居日久禮真教大師善慧披剃循序受課起止自持罔不有恒一日語福燈曰人能弘道非道弘人佛道至妙苟非我輩孰能闡揚汝其念之當擇有緣之地以回勝事他日福燈飛錫北來道過徂徠山下羊欄村舊有四禪寺廢址石佛斷碑猶存摩挲可識蓋創於北齊河清二年福燈時與道侶法潤結菴上峪或迎送約束或求化僧儲往來維行斯地觀其古跡荒廢未嘗不惻然動懷屢見檀越高年碩德具說修建之意翕然喜從及建築方興周覽形勝僉曰此污下廢敗之地不可荐修寺宇當別善地乃去古基北數百步間選地數畝形勢爽塏宜建佛宮且闢荒榛起磐石新基既成乃鳩工遴材以經以營棟宇雄壯簷殿高揭窗牖疏明法堂丈室僧寮香積於焉具備復哀集錢三百貫依上畔經本軍軍資庫納訖錢數乞示寺額乃蒙特賜法雲禪寺大定十八年劉賢為之記後有善寧者遠涉荒梗首至谷山舊址破屋橫欹煙草間而山色蔥秀出沒起伏遠而益清善獨流連雅契宿心于是日趨山下勾菽粟攜火具結茅而休焉往來山坡無難色暇日畚築澗澗勤苦作勞略無怠意短褐芒屨從事如初自是澗隈山曲稍可種藝植栗數千株後且充歲用焉餽粥所須日益辦具居此三十餘年其徒法

朗繼之鋤理荒險不避寒暑又三十餘載經營不倦復有智崇者寺緣契合四眾歸向工役趨作日盈百數殿基琢石高踰數丈若是者三四焉彩塑圖飾不與也經畫作勞不後二祖興復之功於焉告成党懷英為之記文具泰山志時泰和元年也

金上方山感化寺沙門釋澄方傳(圓覆 寶公)

釋澄方姓孫氏香河人幼好靜默出家于隆安寺年十八登具徧歷講肆于諸經論無不了然聲華藉甚後參禪旨悟明心地尋有尊宿請住上方蘭若澄至開闢幽荒造感化寺又起絕頂浮圖嘗示眾曰涅槃經云避役出家無心志道我當罷令還俗為王策使慚恥之服是為上服不知慚愧非佛弟子後示疾而終門人士隆建塔上方寺東麓又圓覆者渤海李氏子初為校尉天會中予告歸嘗問道於翁同西院削髮衣褐隨緣化導乾統二年遇恩得度禮香林柔光為師後住西院重修上院府君祠及觀音殿金碧宏麗甲於幽薊一日有數僧不知何來手持佛牙二具鮮白如玉舉以授覆大定甲午四月九日謂門弟子曰白駒易過幻化非堅一切有為終歸寂滅又曰余夙珍藏佛牙及般若金經當於上寺之西誅蕪構塔以安其上置余骨于下且曰生死無常各自珍重語訖就枕奄然而逝春秋八十有五僧夏三十有三孫設為文記之時大定九年三月十五日也又寶公姓武氏磁州人慧性超絕大定初於滏陽造仰山寺殿宇華麗柱上作金龍蟠之忽有題句於柱上云人道斑鳩拙我道斑鳩巧一根兩根柴便是家緣了寶公見之大悟即入西山結茅以居後徧歷名山住[山*共]峪寶嚴寺一夕大風震地端坐而逝

金沂州普照寺沙門釋覺海傳

釋覺海西蜀人家饒富棄產萬金捨身桑門金皇統初行腳燕趙齊魯間未幾卓錫琅邪普照寺為東晉王右軍故宅因臺為基下臨闌闌棟宇徧迫法物經藏多缺未備不稱寶坊之制海深念之乃議改作眾懼難成請仍舊貫然海志已堅不為所撓適高昭和式守是邦出已貨力往給經費且示苦忍降伏偷惰畚鍤斤斧輒以身先於是郡人感之檀施遠來卒滿初願工成集諸山長老建龍華會以落之眾逾萬人海嘗有言謂實際理地不受一塵佛事門中不捨一法吾以如幻三昧遊戲世間雖化大千盡為佛刹其中寶供最勝第一種種具足吾之妙用未始有作也昔真際之住東院不聽大檀越動一草以廣其居是誠古佛用心然不可為叢林法吾懼末世比丘喜虛誕者競為大言以欺佛遂有假如來衣竊信施食視法宇成壞若行路之過逆旅曾不介意或問其故輒曰古之人固如是也及覆壓堪虞乃愀然舍去如諸方建化率由此轍則寶閣琳房鞠為茂草如來遺法其能久乎其嚴持律

操篤行實踐類如此後賜紫衣並號妙濟大師海善書法世所傳琅邪普照寺碑或云即海書署曰集唐柳公權書者猶臨摹耳

元雲南大德寺沙門釋玄堅傳(節思杓 大雲)

釋玄堅字雪庵姓王氏龜城人也幼而聰異日誦千言既及成童即善屬文因見雄辯所譯經論翻以梵語聲入心通便於俗學本所見聞解釋法旨依韻為歌獻之雄辯一覽奇之歎為神助由是延譽遐方竟以所作爭相傳誦元至元甲申乃禮雄辯為之披剃親承指授朝夕殷殷講演圓覺諸經摩訶衍四絕論分析幽微妙解天成復受宗教禪師衣鉢為講仁大德庚子歲雄辯倦勤畀以法席俾之繼承時梁王為雲南王有高僧節思杓為王師乃頒令與法旨命主玉案山癸巳雲南行中書省平章蒙古督魯彌實剏建大德寺奏延堅為寺主堅至大德廣演教乘弘宣法音諸方景企徒侶日繁庚戌南省大臣奏請大藏以新荒服有詔命古杭僧錄司管巴領琅甬三藏傳至善闡分供筇竹圓通報恩三寺俾僧眾轉覽乃命堅主教法門護持經藏蓋兼攝三刹總攬大綱雖及暮年不辭勤瘁延祐己未三月十七日雲隱四合雨雪霏霏乃詔眾曰人世幻軀如露電泡影一切生滅亦復如是禪教定慧汝曹免之道豈從吾往哉書偈而逝年六十五闍維有舍利五色瑩然與日下彩霞照映南岡豎塔筇竹寺後有大雲者不知何許人或云以義經登進士居長安邸中夢大士拊其背曰子於空門大有夙緣覺而白光滿室香氣襲人因棄官禮大覺祝髮遂遊天台習止觀教繼入滇錫三泊大雲山剏華嚴寺因號大雲時緇徒從者履滿庭階元元統間始還大都不知所終

元雲南真峯山正法寺沙門釋玄鑑傳(大休 宗嶼)

釋玄鑑字無照曲靖人生即不羣父仕安寧僚從見之莫不稱詡然性獨高邁頗厭宦塵稍長辭親出家往依虎丘寺雲岩淨剃落嘗與念菴為友初習教觀善說經論每登講席聽者麇至名著諸方然未窺別傳之旨因出蜀遊荊楚間參空菴一及高峯妙領悟真諦徧窮知識兩宗之門多所啟發後叩中峯本機緣契合遂為首座嗣法臨濟世次派別已達二十已而還滇本示以詩曰狂心未歇為禪忙萬八千程過遠方喪盡目前三頓棒揮開腦後一尋光陳年故紙渾無用今日新條亦漸忘見說雲南田地好異時歸去坐繩牀衲僧用處絕羅籠拶著渾身是脫空輾破一塵如有旨撥開萬象覓無蹤德山焚疏情先死良遂敲門路已窮積劫塵勞忽吹盡黑龍潭下五更風及至滇止於曲靖真峯山構庵以棲傍有龍湫墮葉觸波必遭風雨鑑安禪制之龍徙去遂建正法寺尋入會城梁王欽崇殊勝為剏佛嚴寺居之雲南行省平章達理麻等力贊其事當道權要遐邇緇素無不皈從教化盛行弟子數百得法者五人而已不久示寂闍維之日梁王車駕戾止親觀舉火獲舍

利纍纍太息而去門人瘞靈骨于寺左塔焉天目中峯本復為文誅之略曰佛祖之道未易墜兮吾無照遠逾一萬八千里江山以來茲佛祖之道失所望兮吾無照負三十七春秋而云歸生耶死耶果離合兮非智眼而莫窺祖意教意果同異兮惟神心其了知謂無照於吾道無所悟兮真機歷掌其誰敢欺謂無照於吾道有所悟兮大方極目云胡不迷笑德山之焚疏鈔兮何取舍之紛馳鄙良遂之歸罷講兮徒此是而彼非惟吾無照總不然兮即名言與實相互融交涉而無虧出入兩宗大匠之門兮孰不歎美而稱奇屈指八載之相從兮靡有間其毫釐我門人之既多兮求如無照者非唯今少於古亦稀我不哀無照之亾兮哀祖道之既墜而今而後孰與扶顛而持危對鑪熏於今夕兮與山川草木同懷絕世之悲同時有大休者不知何許人得法雪巖元至元十五年飛錫南來棲圓照山興祖寺時梁王也先欽崇道化弘專法筵御賜藏經并大休禪師之號又重建圓通普照諸剎延祐丁巳示寂又宗璵號商巖亦得法於玄鑑初住雞山後為土官高鳳請住姚安創活佛寺諸方嚮德集者七百餘人有送僧偈云正是叢林搖落時出門相送步遲遲明朝玉案山中寺逢著仙人莫看棋

元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如山傳(道傑 崇祖)

釋如山字海翁姓陳氏閩人也大德丙午禮在山道傑為師傑有慧辯入雪竇簡翁之室晚住當山十餘載山中頽廢悉皆修舉元統甲戌諸道廣立教府以統僧眾乃請如山居當山以兼之未幾遂專其席經營勤苦十有八稔寺宇一新詔賜紫衣兼正宗穎悟之號至正癸巳傳席弟子崇祖崇祖字不傳出林氏亦閩人也年二十剃落受具元統癸酉出主廣明至正十三年始主當山聞譽遠著卿相禮重由是聲徹禁中朝廷特賜璽書褒美護持更賜紫衣並號曰慧鐙普照故寺門有曲皆得理而直之白雲廨院為寇所焚崇祖重建之規模視昔有加一時盛稱之以至正癸卯年示寂入祖塔如山寂于至正乙未二月七日入南山仁壽寺塔蓋所自建者

元伏龍山聖壽寺沙門釋元長傳

釋元長字無明一號千巖姓董氏蕭山人也父九鼎母何氏晚歲生子鞠育為艱姒婦謝氏養為己子七歲即就外傳諸書經日成誦出入蹈規循獲有若成人其父喜曰吾家世詩書是子當以文行亢吾宗長有從父曰曇芳學佛於富陽法門院羨長聰穎欲乞為徒謝氏弗許未幾長邁疾甚革謝氏禱於大士曰佛幸我慈是子弗死令服灑埽役終身禱已汗下而愈遂使從曇芳遊時年十七益求良師友摩切九流百家之言已而曰此非出世法也復從授經師學法華經至藥王品問曰藥王既然二臂何為復見本身授經師異之年十九薙髮受戒具走武林習律於靈芝寺律師問曰八法往來片無

乖角何謂也長曰胡不聞第九法乎律師曰問律而答以禪真大乘法器也會行丞相府飯僧長隨眾入智覺本公亦在座遙見長呼而語之汝日用何如長曰惟念佛爾本曰佛今何在長方擬議本厲聲叱之長遂作禮求示法要本以狗子無佛性語授之既而縛禪靈隱山中雪庭召掌記室長下筆成章見者歎服俄歸法門隨順世緣殆將十載一旦忽喟然歎曰生平志氣充塞乾坤乃今作甕裏醢雞耶復造靈隱跣趺危坐脅不沾席者三年因往望亭聞鵲聲有省亟見本具陳悟因本復斥之長憤然而歸夜將寂忽聞鼠翻食貓器墮地有聲恍然開悟覺躍數丈如蟬蛻汗濁之中而浮游塵埃之外蒼蒼兩間一時清朗披衣待旦往質於本本問曰趙州何故云無曰鼠餐貓飯本曰未也曰飯器破矣曰破後云何長曰築碎方甕本乃微笑祝曰善自護持時節若至其理自彰蓋少林之道十傳至慧照而別為一宗設三玄門演暢宗乘權實兼行照用雙至四方從者雷動海湧逮乎宋季其道寢微惠朗欽公起而任之豎大法幢屹然為東南之望唯本公深造閩奧以大辯才通博無礙慈澤普滋徧一切處長既受付屬遂為人室弟子已而隱於天龍東庵耽悅禪味不與外緣時見二蛇環繞座下長為說三皈五戒蛇矯首低昂若拜伏狀相率而去自是聲光日顯笑隱訴方主中天竺力薦起之江浙行省丞相脫歡公時領宣政院事亦遣使迫之出世皆不聽居亾何名山爭相勸請長度不為時所容與弟子希昇杖錫踰濤江而東至烏傷之伏龍山見山形如青蓮花乃卓錫巖際誓曰山若有水吾將止焉俄而山泉溢出遂依大樹以居時元泰定丁卯冬十月也初伏龍山有禪寺曰聖壽其廢已久當長入山時鄉民間有異僧來遊相率造訪見其晏坐不動各持食飲之物獻之邑中大姓樓君如浚一得各為伐木構精廬延長居之遂因舊號建大伽藍重廈傑閣端門廣術輝映林谷由是聲稱翕然洋溢中外齊魯燕趙秦隴閩蜀之士與夫日本三韓八番羅甸交趾琉球之人莫不奔走臚拜咨決心學留者恆數千指至有求道之切斷臂於前以見志者長則隨其根性而為說法譬如時雨春風吹噓霏霖喬木細草各懷沾潤欣欣向榮王公大臣傾嚮之篤如仰日月朝廷三遣重臣降名香以寵異之江淮雄藩若宣讓王鎮南王或下令加護其教或親書寺額製僧伽黎衣奉以普應妙智弘辯之號帝都亦再降旨更號曰佛慧圓鑒大元普濟大禪師資政院又為啟於東朝更崇號曰佛慧圓明廣照無邊普利並金襴法衣賜焉至正丁酉夏六月十四日示微疾索浴更衣會眾書偈云平生饒舌今日敗闕一句轟天正法眼滅投筆而逝春秋七十四夏五十六弟子德亨德馨以陶器函其身瘞於青松庵長疏眉秀目豐頤美髯才思英發超越醜夷頃刻千偈包含無量妙義得其片言皆珍襲寶護唯謹著有語錄若干卷和智覺擬寒山詩若干首皆梓行於叢林宋文憲公濂與交垂三十年平昔激揚義諦無微不入感其道誼為述厥事跡銘其塔焉

元磐山北少林寺沙門釋雲威傳(圓悟)

釋雲威姓侯氏太谷人幼習儒術高才博識早有令譽方及壯歲舍業去浮下髮披褐參最上乘朋遊講肆慧辯出倫聞玉山博達公講席之盛走謁依之為入室之子久之遂承印證會磐山法興虛席使雲威接武明年新巢雲軒因以巢雲自號宣政院使脫公為請朝旨更法興為北少林寺嘗謂脫曰知人唯難人實難知其難者千中無一雲開法施教居止無怠檀門仰德寺規謹嚴至正戊子八月二十三日以疾告終圓讓為之記園悟賑禪師者不知何許人得法東山本無玄公孤藤隻鉢至磐山修報國寺延祐五年戊午聞於朝賜號契宗禪師

元泉州開元寺沙門釋伯福傳(守慈 永寶)

釋伯福字謙叟惠安周氏子年十三從積善長老守慈出家六年乃得度元初合剎議定隸入開元契祖察其能選知僧事至使總之皆稱職福性喜施予作事耐勞持大體不分畛域契祖以殿前大庭當甃石福任其事至與匠者同臥起工成復甃倉庭以石契祖作輪藏既成又以鐘闕告福不辭勞勩不伐功能若行所無事環泉之四鄉市廛鑿井數十泉人甘之至今承天之作龍藏也其經若室舉求福理之福副其求無德色其後承天以隄防水田求助福歸之金百南安之蒙溪其下可田福墾築之其田瀕海胼手胝足久之不憊今為寺正供以至順元年二月八日無疾而化既火藏其骨于西山後弟子永寶復為建塔于寶幢峰福為人沈毅寡言能清約以禪自娛或閉門繫日不食其徒走視之福笑曰子以為我為死矣人知其初叩天竺宗心法有得云

元當陽玉泉山寺沙門釋慧珍傳(霞壁 寶光)

釋慧珍字藏山江西人元初為荊門州僧正至元十四年來自江陵尋住當陽玉泉時當兵燹之餘滿目蓬蒿不勝荒涼珍重闢舊基式廓新宇廟貌宏敞丹雘增輝二十七年修築顯烈祠及關陵坊表蓋壯繆生為忠臣沒封王神廟食茲土世所觀瞻故珍籌及之珍妙解經說性理雙圓升座高譚四眾環聽世祖敬異錫號神應慈雲大師並襲紫衣晚付院事於霞壁老于斯寺霞壁字師瑄荊州人弱冠落髮隸玉泉元成宗時為僧正珍既告退乃繼其席以院中治飾完善唯舊鐘無聲命寶鏡叩募遠至湘州醴陵造就舟運而至其音清圓弘亮發人深省江西大仰山寺常陵為之銘具詳別集遠近緇素聞風興起聯翩而至酬唱宗乘激揚向上不遺餘力武宗敬仰賜以廣智靜慧之號兼賜紫衣至大中謝院事老于寺之山月堂

元泰安竹林寶峰寺沙門釋法海傳

釋法海姓于氏固陵人祖嘗任光化軍節度使昆季聯鑣門多貴顯家貲巨萬值兵燹離散時海才弱冠遁跡魏博間至館陶東北舍餘地得招提故基曰白佛堂榛莽蒙蔽芟而除之結茅以處得念佛三昧晝夜寒暑不為變易歲在甲辰二月遇師披剃如寶珠出泥光溢眾目於是緇俗聽信力宏是願相與住持踰六十晦中起演法之堂齋僧之室香廚庫廩以次俱新揭其額曰淨土院時中書右丞嚴公總管東平迺具書疏請詣郡之四禪寺徒眾雲聚亦復如是乃創為繪塑大雄薩埵護法神將百有餘軀華光燦顯丁未僧錄雲公同眾比丘請主開元自是法緣洪振眾悉歸依居無幾何東振齊魯北抵幽燕西踰趙魏南距大河莫不聞風趨赴其送施者朝暮不絕資賄衣物積如邱阜於是乃重修雷音堂文殊殿方丈寮舍鐘樓廊廡百有餘間四方下院三百餘處剃度小師千有餘人俗素豪士受持三歸者莫知其數前後齋僧幾千百萬給繒纈以賑單貧設糜粥以飼飢餒慈悲方便靡所不至國師法雲聞其道價特賜號曰明慧大師一日宴居語諸徒曰吾欲韜光宜何而處有近待曰泰山竹林古跡猶存山水佳麗人境幽僻可作終焉之計海聞之告密竊記異日弗辭隻影曳杖獨跨寶峰達斯古礎折草為廬苟避風雨宴坐習禪方遂雅懷於是巖花爭秀野鳥聲啾雲山以之變色幽谷為之生春未及旬日門徒緇素躡踵相覓願奉衣飡者繼日不輟奉高一郡莫不歸崇居之未久雲徒既眾欲廣其廈奄示維麻召諸弟子付以衣盂曰吾緣盡矣樹此蘭若功輸爾輩勿忘吾囑言訖移時而逝自茲以降五世相繼排肩戮力方始見成能仁有殿祖真有堂雲賓有舍香積有庖三門挾庫悉皆備矣復以餘力樹松塞戶植竹封窗又挾川流縈紆而通諸庭宇滄浪而貫諸階除漱石砌以便汲烹灌蔬圃而滋生長淀歸大壑復入湍流瀑作水簾崖懸百丈澮集龍池湛碧千尋逼之則毛寒過之則膽戰真所謂遁世之桃源棲心之福地矣歷歷勤苦後不乏人而乙乙萌蘊實自海始海春秋三十有九僧夏一十有七依法茶毗起塔靈臺翰林侍讀學士同修國史野齋李謙為之記具詳山志

元泰安靈巖寺沙門釋淨肅傳

釋淨肅字足庵姓孫氏永平人也世居滿城以農立家隴雲耕月遑言他務肅生而苕穎見異常兒頗有出塵之格其父攜之唐縣禮香山明公落髮給侍之餘令識梵文日擊千言娓娓成誦後聞雲峯亭公走依座右日復一日於搥拂之下發明大事雖秘傳密授不滿初心深自韜晦遍參名宿謁三陽廣仰山通報恩資皆蒙許可後雪庭掌天下僧權而主萬壽才學博瞻道德豐盈遐邇雲臻慨然輻輳肅亦懷香逕造其室一見心許緘芥之緣不差毫忽遂以衣法付之詰旦捲衣去依趙好乳峯禪伯稟受外典未及食新果造幽微復參東山微九峯信信欲使續東山掉臂去之入燕棲萬安寄傲南窗閉關卻掃杜絕人跡當是時嵩少闕人就命開法於萬壽之堂越明年宣授

河南府僧尼都提領居九載革故鼎新未嘗少息剏建方丈二十四楹古未之有也當修營之際輦土移石必先其力上下竦然莫不服從爭先恐後次主靈巖八載廣閣大廈椽栒差脫人多憂之肅為之一新其餘僧舍增修百有餘間自來締構無出其右會萬善虛席命補其處及至重新廊廡翕然稱善肅三居巨剏立叢林銳意興建不遺餘力後退居香山壽聖故剏年及耳順默焉而寂依制閣維收骨起塔弟子智錦以至元三十年癸巳重陽求林泉老衲從倫撰銘立石以永遺芬

元金陵鍾山太平興國寺沙門釋守忠傳

釋守忠者匡廬僧也為靈隱玉山禪師弟子至治辛酉應請來主太平興國寺禪學之士日滿其室泰定乙丑之歲寺燬於火忠方憂之會文宗潛邸金陵感忠精誠愍茲古蹟有意作新於是行御史臺與郡縣之吏皆爭出金幣以為民先一時風動遠近雲集富者輸財貧者效力一歲垣廡成再歲屋室具其可以名書者曰方丈曰北山閣曰經樓曰香積曰水陸堂曰白蓮堂曰伽藍祠曰大僧堂曰道林堂曰新蒼院曰耆宿之舍而大宏興鐘三門皆次第而成方忠之始治寺也舊有蒲盧之澤見奪於豪家前僧訟之累不決忠至讓而弗辯奪者愧而歸之及天曆改元更建宏祠於寺北曰大崇禧萬壽寺賜號宏海普印曇芳禪師命主新祠兼領舊寺未幾加授廣慈圓悟大禪師領寺如故至順元年秋御史守丞趙世安傳敕召守忠入朝九月九日吏部尚書王士宏以忠入見於奎章閣奏對稱旨命太禧宗禋院日給稟餼賜金襴伽黎衣與青鼠之裘十二月二日賜設於聖恩寺迺召學士虞集至榻前命為文以記俾忠歸刻諸石具詳靈谷寺志

元雲南崇寶山正覺寺沙門釋定山傳(悅顏)

釋定山者未知何許人元大德間卓錫崇寶山戒律彪炳緇素向德每見塵俗茫茫悍然不顧定喟然曰非以正法覺之無由化入於善因開正覺禪林盡心教導歸者日眾諸方慕之法筵盛興弟子悅顏者滇陽李氏子韶年出家服定訓言力求正覺於是慧香紛馘戒德冰霜內外典墳研究通洽梁王欽慕璽書旌之明洪武壬戌寺燬兵燹悅顏矢志重修恢復舊規備增新制後五年始寂壽七十有四臘五十八佛日圓照普覺大師者高昌人與大休弘覺普圓廣慧四子偕至中慶圓通寺元皇慶初元天子特賜璽書嘉其軌範高潔德業誠曠及延祐六年己未重興其寺時滇南宗風為之一振

- 興福篇第九之三(正傳十人 附見一人)
 - 明衢州西安福慧寺沙門釋世愚傳
 - 杭州靈隱寺沙門釋輔良 傳
 - 錢塘淨慈寺沙門釋智順傳
 - 四明天童寺沙門釋元良 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力金傳
 - 金陵靈谷寺沙門釋仲羲傳(古新)
 - 崇恩演福寺沙門釋顯示傳
 - 寧海報恩寺沙門釋白緣傳
 - 天台上雲峰證道寺沙門釋祖鐙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懷信傳

明衢州西安福慧寺沙門釋世愚傳

釋世愚字傑峰姓余氏西安人也家本儒素世守詩書母毛氏夢感神人授以青衣童子覺而生子故愚自幼好佛稍長投蘭溪顯教寺從孤嶽嵩供灑掃已而薙除須髮為大僧受具足戒晝夜奉薙鐙惟謹以鍼刺指端濡血書金剛般若經忽抵几歎曰縱能盡書一大藏教亦屬有為絕如夢幻不可控搏盍學無為以明心宗乎出謁古崖純石門剛誠心懇至相對於邑悲從中來泣涕沾衿祈示審端致力之要二公為之感動欣然語之愚佩受其言不間晨昏兀坐如枯株時年二十五矣復自念曰年日以增學日以退豈非見聞未充無以啟發知解乎渡濤江而西見諸善知識時布衲雍斷崖義中峰本三人大弘雪巖高峰之道愚並往咨叩語皆不契中心愁惑因止南屏山中三年不踰戶限聞止巖成倡道大慈山定慧禪寺門庭雖峻而獲證悟者眾亟往謁焉止巖曰南泉有云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何者愚聞而愈疑仍還南屏諸緣盡捨形類氣絕行坐寢食若無知覺唯一念歷然在太虛中如此者久之一夕坐至夜分聞鄰席唱證道歌至不除妄想不求真處豁然如釋重負舉目洞照不見一物留礙喜不自勝且曰佛法自在目前祇為太近故人自遠耳即操觚成偈有夜半忽然忘月指虛空迸出日輪紅之句乃走見止巖會止巖遊姑蘇走天池求證於元翁信信者止巖之師也問曰上士從何來曰大慈曰大慈鼻孔其深多少愚卓錫信曰拗折錫杖爾將何為愚作禮信曰爾可歸見止巖愚後見之備述所悟止巖曰何處見神見鬼愚曰今日捉了賊曰賊在何處愚便喝止巖曰開口合口都不是向上舉將一句來愚曰徧界明明不覆藏止巖豎起竹篋請指名愚便掀到禪牀止巖曰

爾欲來將虎鬚耶愚復作禮止巖擊之者三囑曰善自護持他日說法度人續佛慧命遂留執侍服勤三年又還南屏尋入大慈為上座元至順二年歸西安先是西安烏石山有福慧古剎歲久荒廢瓦礫堆除荆榛塞路愚獨結茅以居蛇蝎霄蟠虎狼夜哮了無恐怖鄉人信仰欽其道德裹糧遺之遂澄居攝念影不出山者十有六載聲光日振緇素麤集至三千指幾無所容縣中大姓陳嗣宗倡義施捨為造殿堂藏經樓閣規模弘大制如伽藍且置山田取其所入以供眾帝師大寶法王聞之為錫弘辯之號至正六年冬江南行宣政院亦錄其行業請主廣德石溪興龍禪寺祝香報恩歸之止巖表其自證也留居三夏將迎還烏石而郡中新建佛剎四曰古望曰龍眠曰寶蓋曰普潤皆延之為開山祖愚力起應之無不感慕明洪武三年冬十二月十日示微疾召門弟子勉以精進入道索筆書偈云生本不生滅本不滅撒手而行一天明月擲筆而逝越七日藏於烏石慈雲塔院春秋七十坐夏五十四方參學莫知其數得其法者則慧觀德隨十有五人所著二會語四卷已刊行叢林中愚道傾四眾高太尉納麟黃尚書德昭廉訪副使伯顏不花莫不函香致敬馳書問道得其片言稱為玄要其法施及人可謂博矣宋文憲濂為銘其塔

明杭州靈隱寺沙門釋輔良傳

釋輔良字用貞號介庵姓范氏吳人也為文正十世孫父伯和母鄭氏秉性慈祥素懷善願及誕良聰悟夙發妙意天成見浮圖書躍然朗誦若所故習有相者見之謂其父母曰是子骨格清聳非世間法可縛若使之學佛必能弘大宗乘父母方鍾愛未之信也里故多蘭若良稍長日與羣童遨遊其間徘徊愛慕終日不忍去父察其志與相者言合乃許之從同里迎福院僧壽彌薙落及受戒具慨然曰學佛將以明心心非師無以示可絜終日面牆可乎去從北禪澤法師習天台教觀所謂三乘十二分研其精華攝其密微充然若有所契時士瞻杓主天平山白雲寺寺蓋范氏所建以奉先者良數至其間士瞻謂之曰教乘固當學若沈溺不返如入海算沙徒自困耳何不更衣以事禪習乎良曰吾將焉適曰笑隱訢主龍翔集慶其道大被東南緇白信從如子歸母朝廷嘉之賜以廣智全悟之號汝何不往依之良於是往見訢即以全器法寶期之問答之間棒喝兼施弦發箭馳霆迅電掃剎那頃凡情頓喪雖未至清淨覺地而所入正途超然出於物表他日再有所問良應聲若響訢曰得則得矣終居第二義也良益弗懈久之遂契其心法雲空川流了無留礙尋掌藏鑰於四明阿育王山與石室瑛縱橫叩擊石室極推譽之元至正壬午行宣政院檄良出主嘉興資聖寺年才二十有六眾頗易之良殺衣黜食為修建計崇基廣構文甃雕甍金碧燁然前後相照往來觀者始皆信服居十三年遷越之天章閱四寒暑移杭之中天竺傾嚮者益多教且遠敷會海寇興亂兵燹相仍南北兩山名藍梵宇皆化於烈焰靈隱古稱

絕勝乃寒煙白草淒涼夕照之中過者為之慨然康里公為江浙行省丞相妙柬名僧能任起廢者莫良為宜命使居之既至翦剔荆叢葺茅為廬以棲學侶雖凋零之秋開示徒眾語尤激切嘗謂達摩一宗陵夷殆盡汝等用力如救頭然可也然百千法門無量妙義於一毫端可以周知如知之變大地為黃金受之當無所讓否則貽素餐之愧歲月流電汝等急自進修參學之士多有因其語而入者化緣既周手疏衣貲入公帑散交游及治喪斂之事顧謂左右曰明日巳時吾將逝矣及期澡身端坐書偈而滅明洪武四年六月十六日也報年五十又五僧夏四十龕留五日頂有暖氣闍維設利羅珠圓玉璣捧將盈升弟子等以餘骨入歸雲塔中于寺東偏廡焉同門天界善世宗泐輯其行事乞金華宋濂為之銘云良性簡直雖面折人過而胸中無留物與人交無少長一以誠相遇所造偈辭初不經意而語出渾成有若宿構舉揚大法不務緣飾而西來之旨自明復以淨土觀門苦海航舟時兼修之未嘗少怠四坐道場解結發覆如利刃之破冑索甘露之灑稠林蓋道行無跡妙極無象求而即之脗契本真未定之先則萬緣鼎沸發慧之後則一性洞虛所謂不用其力而無所不力則神器化於玄冥而忠信發乎天光而良和粹外形淵懿內朗造請之間因言懸解證不染不遷之域泯差別次第之門非上智宿植惡至此乎

明錢塘淨慈寺沙門釋智順傳

釋智順字逆川姓陳氏瑞安人也父道羨母婁氏生子輒殤屢哭失明其情不勝哀乃塑智者大師像事之一夕夢僧頂有圓光逆江流而上謂之曰吾當為汝子寤而有娠順既生美質夙成年五歲從季父學季父引生徒渡溪抵萃野順欲相隨季父麾之還俄而溪暴漲季父生徒皆溺然自少不喜蓄髮翛然有塵外趣七歲依仲父慧光於崇興精舍稍長受具戒於天甯禪院習法華經三月通其文出游永嘉無相院覺源璿喜其俊朗引為己徒會橫雲岳大宏三觀十乘之旨於水心法明寺往而受其說眾推為上首居亡何走雁山雙峰未契所言更走千佛毒海清舉為綱維軌範肅然毒海入寂感世無常歎曰義學雖益多聞難禦生死即禦生死舍自性將奚明哉遂更衣入禪走閩之天寶山參鐵關樞授以心要遵而行之似有階漸一日因觸瓠瓜之機地倏平沈毛孔發光舉以求證樞曰此第入門耳最上一乘則邈在萬里之外也汝可悉棄前解專於參提上致力庶乎自入闢奧矣由是精求將踰半載忽焉有省如虛空玲瓏不可湊泊厲聲告樞曰南泉敗闕今已見矣樞復舉不是心不是佛不是物語相詰難順迎機契合遂鳴鐘集眾再行勘驗宗門元旨應答如響尋請分座說法嗣主院事寺制未備多所規畫擇地構亭以增勝槩眾方賴之忽爾棄去過杉關抵百丈上迦葉峯渡江入淮禮諸祖塔經建業回浙中超然如野鶴孤雲無所留礙及反永嘉會王槐卿造報恩院於瑞安大龍山首延順主之參徒寢盛至八百指為建僧堂居之

石室巖主江心仰其高風以首座招之翩然而往未幾又以何山精舍棟宇湫隘不足以容眾拓之為大伽藍殿堂院廡之制燦然畢具像塑壁繪次第告完而平陽吳德大創歸源寺亦請開山至則為造鐘鼓法器授職分班動合規則時東海有警元帥達忠介公帥師鎮台遣使邀順入行府順辭不見達慕咏弗置篆逆川二字遺之嘗因飯囚戒其勿萌遁逃心當重見日月不久而赦書至周吳二囚以為神其後山寇竊發二囚實為渠魁所經之地焚毀略盡而報恩歸源以順故獨存朝廷聞之為降寺額錫以佛性圓辯禪師之號及金襴法衣順曾不為意悉散其衣盂所蓄退居一室掘地為爐折竹為簞怡然自適溫城淨光塔雄鎮一方年久將壞修葺完忽颶風大作其上一乘挾之人海順精誠宏願誓成此塔遣其徒如閩鑄露盤輪相及燄珠之類終遂所志九斗七成鬼輸神運湧峙海隅辨章燕只不花出鎮閩疆道過東甌夜觀塔鐙熒煌知順所造命駕造訪與談般若經心相悅懌呼舟同載入閩宣政分院請居東禪廢刹不一載殿宇廡庫森如煜如梵容穆沖隨相變見靈山一會儼然未散補刊開元藏經仍印施之先是淨業慶城東報國舶塔寶月松峯諸寺兵燹之餘鞠為荒榛福建行中書省將籍其產於官順言於辨章得仍其舊已而思還溫方參政具船迎之千佛院災無有起其廢者順為剔除荒莽一彈指頃高閣立成俄而東甌內附潛居林泉若將終焉有明初造尊尚佛乘召江南高行僧十人於鍾山建無遮法會順與其列升座演講聽者數千人事已還錢塘復振錫往淨慈以兵燹凋殘欲大有設施會中朝徵有道浮屠以備顧問眾咸推順順至南京僅四閱月超然善逝洪武六年八月二十日也閣維得舍利無算其徒文顯興富持靈骨歸建塔藏焉著有五會語若干卷善財五十三參偈一卷

明四明天童寺沙門釋元良傳

釋元良字原明號左庵姓周氏寧海人也初居台之瑞巖元至正十八年戊戌行宣政院奏良道行被旨住天童重建朝元閣範萬銅佛於其上危參政素奉敕紀其績賜號善覺普光禪師庚子丙午間築海隄五百七十五丈成田一十頃有奇為萬佛莊塗田夢堂曇噩記焉主天童十二年鑄金範像開基築閣事績燦然明室初興退居東谷力修山宇事在洪武丙辰以後袁廷玉琪嘗寄詩相贈答詩云歸去山中筍蕨肥石泉茅屋薛蘿衣一經靜坐蒼松下閒看孤雲自在飛塔於東谷庵前東南麓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力金傳

釋力金字西白姓姚氏吳人也母周氏夢一龐眉僧類應真者直前麾斥驚[言*乎]而覺已而有孕時至而育奇芬滿室年方齠髻廣頰修頸皙白如玉見者愛憐性尤穎悟凡書一覽即能記憶嘗游佛寺見像輒自下拜信仰

日深因投縣中寶積院禮道原衍祝髮年十一受具戒精研三觀十乘之旨領其樞要衍主秀之德藏金為綱維軌範肅然忽喟然歎曰名相之學略諳之矣盍棄諸緣而往躋覺路遂更衣入虎林謁古鼎銘於雙徑一見以法器相期示以德山見龍潭語金奮然踊躍直觸其機從而有契遂為記堂未幾分席後堂敷宣大法如山川出雲靈雨沾潤四眾信服復登前堂聲光燁燁起叢林間元至正丁酉出主蘇之瑞光寺會嘉興天寧寺災郡守貳咸以為非金不足以起廢具禮幣遣使者力致之金至未久儼如兜率天宮下見人世道路過者莫不瞻禮贊歎帝師大寶法王聞其賢授以圓通普濟之號有明初興洪武改元弘闡佛乘首開善世院俾擢有道浮屠莅天下名山杭之淨慈主席尚虛僉欲起金居之疏幣交至浙江省丞復遣使趣之金皆力辭既而有旨起住大天界寺先夕有僕夢花發如芙蓉光彩絕異旁一人曰此花天子當取之而去旦而命下果符所兆金既應詔至闕下見於外朝慰勞優渥即令內官送其入院賜以天廚法饌萬幾之暇時召入禁庭奏對多稱旨蓋金精通內典博極羣書其與薦紳譚論霏霏如屑玉故咸樂與之游至於勘辯學子直指心源宗說兼行機用迭發尤足使聞者敬仰四年春詔集三宗名僧十人及其徒眾二千設廣薦法會於鍾山命金總持齋事於是靈承上旨儀制規式皆傳之遠永五年詔復建會大駕臨幸詔金闡揚第一義諦自公候以至庶僚環而聽之靡不悅服一日忽示微疾謝去醫藥飲食手書一偈委順而化洪武六年十二月二十四日也停龕六旬始行荼毗其貌如生火時獲舍利無算壽四十七臘三十六三會語有錄塔於嘉興城西環翠蘭若金幼喪父奉母至孝為築孤雲庵奉之以居或有議者則婉告之曰不見編蒲陳尊宿乎胡言之易易耶平生以宗教為己任神觀秀偉智辯縱橫嘗以楞伽經及法寶壇經為釋門心要當毒暑時揮汗騰鈔鏤梓以傳弟子覺慧深恐遺行將泯因條繫群行為書乞金華宋濂為之銘云文見鑿坡續集

明金陵靈谷寺沙門釋仲義傳(古新)

釋仲義字物先淞東僧也為仲芳倫禪師弟子洪武九年被召住蔣山梁誌公塔寺以寺近宮闕王氣攸聚紫雲黃霧昕夕擁護非惟僧徒食息靡安聖跡神靈均未妥善且佛法以方便為先如得近地改建誠至幸也明祖許之始擇地於朱湖洞南功將就緒有言其地湫隘非京剎所宜義復以聞有旨令舍舊圖新大其規制可容千僧太師李善長相度地形擇於獨龍岡東麓西踞朱湖洞五里而近回巒複阜左右相向方山在其南儼然祇樹之境義以圖進太祖答曰以此奉誌公為宜遂以十四年九月中作大殿其前東曰大悲西曰經藏食堂在東庫院附焉禪堂在西方丈近焉後為演法之堂誌公塔則樹於堂之陰其崇五級附以殿宇以備禮誦左右為屋以棲僧翼以兩廡其壁則繪諸佛梵像神師之迹屏以重門繚以周垣其他規制無有不

具踰年告成賜額曰靈谷禪寺羲實為開基之祖是年授右闡教敕曰入定於大千界裏談經於不二門中解脫為空清虛成性久留心於佛教獨潛跡於禪林去就維時是非不染爾仲羲居山禪伯對月詩宗抱不墮之慈悲樂無窮之清淨乃命闡教之職用副僧錄之司尚宜深究佛書詳窮禪教條分本末縷析始終俾諸僧皆悟靜中之禪而無教外之失今特授爾僧錄司右闡教往欽於訓宜懋爾功復賜紫開堂風徽遠暢宗法攸寄其寺碑則杭州府學教授徐一夔奉敕撰具見文集又古新者金臺尹氏子幼從大興隆靜庵禪師祝髮受戒後至金陵棲息普利成化癸卯推主靈谷時殿宇將圯司禮太監陳祖生奏修煥然一新皆古新勸讚之力云

明崇恩演福寺沙門釋顯示傳

釋顯示字瞽庵姓盧氏寧海人也母金氏夢寶陀大士見五色雲中覺而有娠及生男幼而凝靜不好嬉逐稍長神氣灑然有出塵之思二十一投會稽悟本院為沙彌一山元為之脫白一山度弟子四人取醍醐經開示悟入為之名曰顯示元天曆初受比丘大戒即踰濤江而西欲講天台教觀時天岸濟方主萬壽圓覺寺顯示往事焉久之濟見其天機峻利一日千里之勢乃曰子盍從吾師游乎他日大顯南嶽一宗吾於子有望矣濟之師即佛海也佛海倡道於上天竺靈感觀音教寺來受經者雲蒸海湧顯示裸多士中晝夜研摩三觀十乘之旨察其密微至於蠶絲牛毛設有疑難進而質諸佛海退與四方俊彥縱橫切磋不至於洞達弗止精積日久大小乘部文義字句瞭於心胸有叩之者辯口如水東注不見所窮朋類推服恒以為不可及佛海器之命為司賓及佛海退居南天竺虎巖頤來紹其後升掌讖摩而賢叟思又延居首座鍊徒牧眾不異常時至正五年始出世隆壽教寺田畝侵蝕董而理之殿宇頽壞葺而新之如是者十有二載雖蕞爾蘭若聲望日增遷雷峯顯嚴教寺破屋殘僧觸目皆淒涼之境顯示既至學侶漸集復其舊規蔚為勝地人以為難越六年江浙省丞力聘主崇恩演福教寺寺當兵燹之餘鞠為荒墟顯示為創丈室五楹以納負笈之士遇有咨問悉竭平昔所蘊疊疊而語之至於南屏雪川之同異尤嚴於斷制歷引諸家經疏辯證無遺或惜其過勞笑謝曰桑門為法忘軀義所應爾子以為勞乎會元季喪亂兵禍日亟飄然東邁向悟本樵山棲焉屏絕人事顯志於西方淨土之學終日繫念未嘗少忘屢感瑞應明室初興定鼎金陵草創伊始佛教復隆洪武四年出游虎林未幾順寂於太平興國傳法教寺神思不亂如返故廬再踰年其弟子知曉函靈骨歸藏受經祖塔之側顯示古貌頹躬寡於言笑以清儉自持一榻二十年蕭然如在逆旅當時齒臘相亞職業相若而據席名山自顯示視之澹然如無所繫念其出世為人皆迫於羣情不得已而起性不樂時俗藻麗章句凡有述作一本山家諸師之論人謂能衍佛海之道傳之方

來動靜出處綽有可觀誠不誣也宋文憲濂為撫其遺行而銘諸塔具芝園後集

明寧海報恩寺沙門釋自緣傳

釋自緣字會堂姓陳氏臨海人也父本儒素夙好詩書人稱石泉處士母感奇夢寤而生緣氣骨不凡雖在幼少翛然有出塵之意每入招提見像則變容起敬合爪作禮處士君見之謂其母曰是子如青蓮花水不能沾豈俗能淹耶乃命從四明白雲寺觀公為弟子見其容止修雅言辭溫簡出內典授之讀年十七薙髮受具足戒趺坐一室日以縛禪為事已而還台謁同郡天寧日溪泳一見輒加獎予使執侍左右復付藏鑰泳遷杭之淨慈緣從其行淨慈居五山之列號大叢林四方龍象咸來棲止由是咨厥心要知解日至慚息群念期至無念時處士君春秋高欲歸覲省乃復還台道經寧海日已向暮悲風號林莽間蒼皇疾走欲求憩止之地而不可得夜行三里許乃逢逆旅主人破屋一間不能蔽風雨危坐竟夕因以建庵廬延過客自誓闔闔中有妙相古寺兩廡蕭然不留一物緣往復視之喜曰是足以遂吾志矣白於主僧明公假其西偏湔塗蕪穢具牀几衾褥之屬罔不嚴潔吳楚閩浙之士肩摩袂接投之如歸宿宿信信或至浹旬皆飫其食飲而去先是縣東有桃源橋跨廣度河上故有圓通閣歲久將圯縣人李斯民撤而新之邀緣為主遂遷其處遠方來者從之如初猶以為未足儉衣削食建華嚴閣月集善士閱華嚴經橋之南復築彌陀閣為像淨王十六觀相覽者睹相興行啟發極樂正因閣道行空朱薨耀日儼如天宮事聞於朝授以金襴法衣錫號為佛心普濟禪師更畀報恩寺額以寵異之復念塵居雜遝塵氛襲人無以稱清淨弘偉之觀乃擇大橋之陽去縣治五里而近林樾蒼潤蔚為神區更建報恩禪院晨夕諷詠由是兩地梵聲鐘魚互答會元季喪亂海宇不寧烽火四起三閣與寺鞠為茂草緣盡然傷之又以興復為己任托鉢聚落中隨其地建華嚴傳經會演說因果屠沽為之易業於是施者四集仍於桃源夾河兩隄悉甃以石建傑閣三楹命工造像未幾而緣厭世自知期至[言*乎]筆書偈怡然委順明洪武戊申三月也年五十九臘四十二荼毗得舍利無算弟子祖溢等以其年六月二十一日奉遺骨塔於寺西北偏以鄉先生夏克復所敘行業因方孝孺而徵銘於宋文憲公濂云

明天台上雲峰證道寺沙門釋祖鐙傳

釋祖鐙字無盡姓王氏四明人也父好謙嘗寫華嚴經五色舍利見於筆端父方驚歎曰般若之驗一至於斯耶時鐙年尚幼聞言興感及至成童即求出家依郡中天寧良偉習經咒尋事東白明得度復受具戒於開元奎已而日溪泳來代明說法命掌綱維司藏鑰日溪躋座鐙即問曰生死事大無常

迅速乞賜指示日溪曰十二時中密密參究忽然觸著卻來再問鐙抗聲曰無常迅速生死事大語未終日溪便喝鐙遽禮拜日溪曰見何道理便爾作禮鐙曰開口即錯日溪頷之服勤數載出參名德以驗所證時中峰本在天目方山瑤居淨慈無見覩住華頂斗巖芳主景星證往來辯詰多所印鐙因念既欲得道當澄慮息影蹈晦幽林及遇上雲卓錫其中遂至終身蓋天台之上雲峰在州城西南十餘里重厓疊巘如雲旖翠蕤盪摩於空濛而靈巖龍湫吐納光景尤號勝絕五季時東甌大士永安來居之疏釋經論達百餘卷依者日眾闢為鉅刹錢忠懿王賜額曰證道三百年間游罹災禍焚毀殆盡唯存斷礎於斜照荒煙中元延祐甲寅鐙始至此周覽故址盡焉傷之因縛草為庵宴坐其間虎狼蛇豕交跡戶外鐙一念攝伏猛毒馴化各不相害日與其徒修苦行以自給冬一裘夏一葛朝夕飯一盂影不出山者踰五十載人多慕之以勤勞修持為第一義荆棘之區變為寶坊金碧交暉上轟天際諸禪林環列其下上雲之境遂為之冠有以土田為布施者則辭之曰先佛以乞食為事吾焉用此為南堂名重一時作長偈寄之稱其行業不讓大士然天性尤孝迎母終養山中或疑非沙門所行鐙曰世尊尚升忉利天為母說經我何人斯敢忘所自明洪武己酉春正月忽示微疾召弟子普饒繼其席二月八日復作書別所契道侶夜將半顧左右曰天向明乎對曰未也因舉古德坐疾有問者云還有不病者乎古德云有又問何物是不病者古德云阿爺阿爺良久乃曰如此以為病者得乎眾皆無言鐙曰色身無常早求證悟時至吾將去矣侍者執紙乞偈乃書曰生滅與去來本是如來藏椀到五須彌廓然無背向投筆端坐而逝壽七十八臘五十七火化舍利無算塔於峰左隆恩道原為之狀徵宋文憲濂銘其塔文具鑾坡前集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懷信傳

釋懷信字孚中姓姜氏奉化人也父嘗為縣校官母劉氏夜夢火星墮室中有光如火亟取吞之俄而有孕及誕狀貌異凡而性端凝不妄舉動唯見沙門輒喜與親稍長受三經於宋進士戴公表元聲入心通經旨鬯達然不樂帖括獨企清幽年十五離家從法華院僧子思執童子役已而祝髮為大僧受具戒於五臺寺聞延慶半巖全弘三觀十乘之旨復與之游久之且歎曰教相繁多浩如煙海苟欲窮之是誠算沙徒自困耳即棄去渡浙而西凡過名藍輒往參叩語多柄鑿不勝憤悱華藏竺西坦遷主四明天童景德禪寺信隨質所疑竺西知為法器厲色待之不交一語一曰上堂舉興化與克賓案問之信擬曰俊哉師子兒也自是依止不忍去竺西入滅天寧雲外岫來繼其席命司經藏管鑰文章漸彰不可掩遏元泰定丙寅行宣政院請居四明觀音策勵徒眾珍惜時光唯恐失墜天曆己巳遷住補怛洛迦山清望日崇修行益苦嘗持一鉢乞食吳楚間鎮南王具香華迎至府中虛心問道語中可緊且出菩提達摩像求贊信拈豪揮灑略無停思而辭旨淵邃王甚歎

服宣讓王亦遣使者奉旃檀香紫伽黎衣請示法要信隨其性資利而道之二王雄藩之望首加崇禮諸侯庶士莫不望風瞻仰施資填委姑蘇產奇石因求善工造多寶佛塔十三成載歸海東駙馬都尉高麗王繹而吉尼丞相撒敦以行誼上聞賜號為廣慧妙悟智寶弘教禪師及金襴法衣一襲至正壬午主中天竺永祚寺天曆乙酉遷天童矢志振興百廢具舉佛殿巋然厥工甚鉅亦徹弊而更新之丹輝碧朗照耀海濱復造塔中峯若將終焉己丑冬十月江表大龍翔集慶寺虛席行御史臺奉疏迎信主之龍翔文宗潛邸及踐祚改建佛剎棟宇宏麗甲天下其住持若笑隱訢曇芳忠皆一時碩德勵行百丈清規為東南楷則亡何燬於火忠竭力興復海會堂未就而化信初升座提唱宗乘萬指所指委蛇不迫而玄機自融無大無小皆驩相親戴因出衣盂私貲續前功不日而集會元綱失紐天下喪亂戎馬紛紜寺院蕭條日見艱窘信處之夷然若不介意明室龍興初號吳國大兵下金陵徒侶風雨飄散信獨結跏趺坐目不他顧執兵者滿前無不棄仗而拜太祖嘗幸寺中聽信說法嘉其道行命改龍翔為大天界寺以寵異之寺有逋租在民間者官為徵集僧眾日歸法施益盛一旦晨興索湯沐浴更衣趺坐謂左右曰汝曹苟法自期勵精進行吾將歸矣言畢而瞑侍者呼曰去則去矣寧不留片言以示人乎乃握筆書曰平生為人戾契七十八年漏洩今朝撒手便行萬里晴空片雪擲簡而逝時丁酉八月二十四日也壽七十八臘六十九荼毗聚寶山下舍利如菽五色粲爛煙所及處亦纍纍攢珠貯以瓶水光發於外弟子致凱坎牛首山東麓為宮藏之建塔其上將遷之夕明帝駐兵江陰夢信裼服而來問何之曰將歸且告別及還歸聞其寂滅為之驚異乃出內府泉幣助其喪事且親致奠送於都門之外榮貺之加近代無比著有五會語錄

- 興福篇第九之四(正傳十二人 附見十一人)
 - 明杭州靈隱寺沙門釋忻悟傳
 - 金陵大天界寺沙門釋夷簡傳
 - 五臺山顯通寺沙門釋葛里麻傳
 - 銅梁龍興寺院沙門釋空源傳(圓聰 明愈 智雲 本尊)
 - 江寧華嚴寺沙門釋佛妙傳(果開 祖祥)
 - 泉州開元寺沙門釋正映傳(本源)
 - 杭州淨慈寺沙門釋師頤傳(天宇淨 時庵敷)
 - 四明天童寺沙門釋祖淵傳
 - 杭州淨慈寺沙門釋宗妙傳
 - 遠安福河寺沙門釋普亮傳(弘參 深潤)
 - 鳳凰山聖果寺沙門釋子敬傳
 - 泰山竹林寺沙門釋滿空傳

明杭州靈隱寺沙門釋忻悟傳

釋忻悟字空叟姓紐氏吳人也年方齠齡依龍興白雲間祝髮受戒至正戊戌來游武林參徑山愚庵及及問如何是永明旨悟曰但見一湖水及可之遂容入室癸卯中竺懶庵俊請分席說法時帝者師錫以圓慈正濟之號明洪武庚戌主浙江崇寧百廢之餘一旦振興時論難之勤勞八稔還居中竺時寺廢役繁力任不倦剏建天香閣巋然山峙主席九載忽萌退志寺眾悲泣不忍其去戊辰僧錄選補靈隱學者皆喜贏糧願從鐘鼓變音叢林改觀未幾竟以前住持舊事累逮至京病卒於行臨終偈曰我年五十五信是生多苦踏斷生死關夜半日卓午時洪武二十四年辛未夏五月三日也弟子道淨依法茶毗舌根不壞德緯奉骨歸窆靈芝東岡復分瘞于西溪九曲山生平以慈忍謹敏自將所說偈頌穩密不蕩三坐道場有三會語行世

明金陵大天界寺沙門釋夷簡傳

釋夷簡字同菴初出家時杭之南北兩山禪鬢教苑金碧爭輝魚音相應元之季世天下亂荒餘杭亦罹兵燹寺宇蕩矣惟淨慈巋然獨存而鐘且就毀明洪武十一年海內羈定佛法方興簡以宿德雅望來主淨慈緇素咸歸施者川委簡乃修葺寺院重建鐘樓復聚銅三十二萬兩鑄巨鐘懸於上聲徹江湖兩山闐寂之秋獨南屏成此宏偉且栽松竹於四山鬱以成林二十五

年壬申遷主大天界寺朝廷徵為僧錄左善世教授徐一夔稱為譽徹九重望膺聖眷海內方袍之士倚以為重者殆無愧焉

明五臺山顯通寺沙門釋葛里麻傳

釋葛里麻者烏斯藏人也道懷冲漠神用叵測聞於中都明永樂間太宗遣使西土迎之應命而至封如來大寶法王西天大善自在佛法王性樂林泉輦轂之下恐妨禪業且初意來華志在五頂因請遊臺山於是聖眷隆渥賜以旌幢華蓋之儀遣使衛送至五臺大顯通寺命太監楊昇重修寺宇并葺育王所置佛舍利塔以飾法王之居先是法王隨帝幸靈谷寺感塔影金光之瑞及入臺山帝思前瑞再幸靈谷默有所禱復覩瑞象頗勝於前乃遣書臺山略曰朕四月十五日與弘濟大師詣靈谷觀向所見塔影文彩光明珍奇妙好千變萬態十倍於前雖極丹青之巧言論之辯莫能圖說其萬一此皆大寶法王大善自在佛道超無等德高無比具足萬行闡揚六通化導群品實釋迦佛再現世間而乃顯茲靈應不可思議朕心歡喜難以名言略此相報如來亮之明年法王為疏別帝詞旨了澈未幾入滅火化無遺物是年關吏見法王西邁貽帝所賜玉玦回奏帝覽之驚歎勅太監楊昇塑像於顯通奉之

明銅梁龍興寺沙門釋空源傳(圓聰 智雲 明愈 本尊)

釋空源字不二廣安人明永樂中游蜀至安居鄉聞鐵鑪山為陳希夷修煉之所賞其幽秀遂結草葺寒暑一衲靜居數十年足不出戶圓聰閱其獨處無伴遣弟子明愈侍之因得不二之傳始改庵為龍興寺聚徒說法緇錫漸盛嘉靖時縣令胡國源經其地建坊表之遺跡猶存圓聰字松隱亦參空源有得結廬寺旁種松萬株環繞四圍煙雨晦明變化百態曾太僕為松隱詩刻之石智雲者潼川方氏子生於松州戌所年十六回潼川投靈峰寺依淨源為師嚴守戒行無妄無欲性質靈敏悟機銛利人多敬服嘗經雙河口師子山耽玩林壑因闢地建大如意寺御史周興恭為之記云又本尊者銅梁本尊寺開山僧也斷臂剜睛精誠感格四眾傾仰為之建寺因以其名額之明刑部主事張純作記稱為始祖云

明江寧華嚴寺沙門釋佛妙傳(果開 祖祥)

釋佛妙者昆明人佚其姓字出家于太華寺明洪武十六年赴京朝請太祖嘉之賜鉢杖僧衣并敕遊兩浙名山十八年回京詔居天界寺永樂十六年太宗命主碧峰寺隆儀碩矩見重兩朝譽馳南北聲教爛然嘗慨時當改革兵燹之餘荒邱古剎焚毀廢壞未能興復者十居八九每見破寺輒為悵然

十九年聞江寧安德鄉有古華嚴禪寺年深頹敝因傾己橐益以勝緣遂造佛殿廊廡石塔宣德四年十二月望日沐浴更衣書偈而逝其徒葬之石塔中正統三年僧果開奏乞寺額有旨仍稱華嚴十一年主僧祖祥更廓舊制創菩薩殿閣夾峙左右互相輝映藻繪塗墍侈于前矣

明泉州開元寺沙門釋正映傳(本源)

釋正映字澄淵號潔庵一號月泉晚稱雪老姓洪氏金谿人幼入安仁五峰寺為沙彌演習瑜伽隨唱梵韻庸庸合流不敢立異及閱法華火宅之喻始知佛法廣大不可求之聲音於是矢志窮研翛然物表明洪武十九年試經得度謁靈谷牧庵謙入門舉首探懷取香忽爾墮地因之有省牧庵不見傳語令住三日後呈一偈曰天下禪林第一家法門光彩耀京華御書扁額天香合神衛精藍地氣嘉石鼎香生浮貝葉寶花風落散袈裟我來問道無為理願借真風長善芽庵仍不見命且住著又三日復呈一偈曰夜坐山房歎莫遭本間間的趁勞勞半生事業慚無用一地聲名恨不高聳響碧窗添唧唧風來琪樹轉嘈嘈簿才未畢輕孤負尚擬天津掣巨鼇牧庵乃許領維那後住天界會泉之開元缺席有旨枚卜住持及選出乃映也一座盡驚引見殿中譬諭敦切勉以清心潔己侮謗自消三十一年六月奉敕來院開堂演法眾志翕然首立法堂以示楷模而甘露戒壇次第興建不二年百廢具修永樂元年入京朝請歸至福州諸山推主雪峰重造佛殿及三門兩廊堂寮畢備更開萬工池作金鰲橋繼而遊化八閩歷建道場洪熙改元詔主靈谷宣德元年擢僧錄司左講經正統四年冬示寂有語錄若干卷名古鏡三昧行世葬滄波門外建塔其上賜名寶善寺後映主開元者曰本源晉江人也習法華楞嚴諸經咸通其奧嘗游漳浦道旁有大石源坐其上每夜坐處輒見祥光漳人異焉為立靈嶺巖居久之道譽日遠泉人請主開元永樂十八年正月有敕徵源入京略曰比聞高僧戒行精專智慧超卓造真如之蘊奧悟空寂之玄微深用嘉獎今特遣人賚勅諭意惟冀高僧振錫來游弘宣妙法丕顯宗風以副朕企拳拳極萬之懷故勅源至京奏對稱旨屢承獎賜時論榮之

明杭州淨慈寺沙門釋師頤傳(天宇淨 時庵敷)

釋師頤字希古號簡庵別號佛鑑姓朱氏澈川人也世居樵李積善累功明洪武丙辰重九其母王氏夜夢梵僧益擎一粟大升許授之把玩間忽爆聲若雷白氣騰空驚寤而生髻鬣讀書聰穎異凡年十七從萬壽天宇淨祝髮淨後主臨江西華頤隨侍焉然每參不契乃走靈隱扣時敷庵詰曰江西見馬祖頂相否應聲曰千年桃核裏覓甚舊時仁敷頷之令居擇木寮屢有啟迪而大疑未徹嘗舉趙州狗子語咨其究竟敷曰待冷泉逆流即向汝道自

後若窮子求奇珍不釋懷者逾月一日偶步冷泉亭觀奔流翻激豁然自得即趨白敷曰冷泉逆流也敷曰汝見何來頤曰千峰勢到嶽邊止萬壑聲歸海上消敷曰脫空漢三十年後落節去也頤拂袖飄飄翛然自遠尋上金陵禮雪軒成見其丰裁挺秀吐氣不凡竟畀以藏鑰義學復深歷歲庚辰出世杭之崇福既而退處萬壽卒繼敷席永樂丙戌以高僧徵修大典總持釋宗蜚聲黼座書成碧峰無作行歆其道辟居首席平昔研求古學精於鑑別為太宗所知命乘驛遄征索古彝器歸進所得賜賚甚厚丁酉僧錄司挹其清譽檄住中天竺其寺久廢立視荒煙碎甃間每欲及時興復後以校讐藏典徵詣北原歷歲庚子始竣事辭歸賜佛像經袂衣幣寵渥有加適淨慈主席虛曠僉舉頤辛丑冬寺眾迎入薦紳餞送若慈雲來覆靈鷲再會居數載剏建殿宇高廣可該中塑羅漢神相五百十六金彩炫然如來正殿大棟蠹腐易以良材宛若初成更築圓通殿設三大士像飾三十二應相列無盡寶鐙皆妙智所發真誠感格前後費數千金施者雲集多樂助之靡不即相融性霽教開昏所謂不動舌根盡回向善提者非耶戊申秋頗倦送迎蕭然引退休於寺北萬工池右啜粥默坐五易星霜宣德王子冬十月四日語眾曰吾行矣沐浴更衣結趺危坐書偈云須彌一拳大海一口海渴山崩鳥飛兔走已而徐勵其徒曰世相無常各宜勤修勿令退失眾方念佛寂然而逝闍維白煙四布籠寺林宇移時始散所獲舍利羅五色晶明頂骨齒牙數珠不壞塔於雷峰之陽年五十有七臘四十一楊復為之銘具見寺志

明四明天童寺沙門釋祖淵傳

釋祖淵字天泉號雨庵姓楊氏廬陵人也明永樂癸未受具青原山謁幻居戒多所啟發稱入室弟子然臂明心篤志求道至忘寢食孜孜五載塵妄俱空始出遊參遍禮叢林壬寅還天界刺血書經宣德改元聲譽遠暢四方學者視作表率尋為僧錄司舉住靈峰值天童虛席乃移居之甲寅應召入京命為左覺義時敕建大功德寺成命淵兼之僧徒雲集復賜田四百餘頃淵念禪講教三宗名不可不正奏以大功德大慈恩大隆善三寺為之由是三宗弟子受業各有依歸又以天下寺廢多由學徒未廣請於常度正額外增五分之一廢刹多因是而興未幾遷右善世發上所賜物建大刹於江寧鳳翔山賜額曰普寧禪寺萬善戒壇成命為傳戒宗師又以寺左行道阻溝往來苦之乃拓地甃石作橋建庵其傍施茗利濟行者德焉以正統己巳三月七日示寂臨化書偈擲筆悠然異香滿室上聞遣太監吳弼以金鈔香幣賜弔又遣禮部主事林瑩致奠茶毗得舍利盈掬藏於大功德寺奏請靈骨歸塔南都普寧

明杭州淨慈寺沙門釋宗妙傳

釋宗妙字覺庵別號堆雲叟姓趙氏錢塘人也父好施予喜誦法華亦嘗持齋母感異僧入夢覺而生妙幼性閑靜見佛像致禮唯謹十歲落髮即從慧雲正庵聞受具既而往參靈隱空叟命主藏室時空叟倡道東南妙嘗分座演說遂主嘉興廣法禪寺久廢之餘一力新之遷杭之萬壽報國昔訢公笑隱主此寺時最號名勝繼者非其人日以頽壞妙至首建萬松門及方丈翼以重屋作舞鳳樓碧梧軒香積廚屋後掘地得泉遂瀦為池構亭其上作大悲閣以奉觀世音像佛殿後又造大殿刻臥佛其中環以十弟子土木采章皆極巨麗繚以外垣凡四百丈殫心竭力二十餘年而寺乃復舊觀薦為副都綱精修力踐以振起宗風為己任先是海昌湯鎮潮水蕩激屢壞隄岸民不安其居妙領名僧十二人於其地號佛籲請風潮竟爾止息卒免其患明宣德初入主淨慈首建三門越五年寺眾不戒於火大殿燬焉乃捐資重造歷歲告成壯麗宏偉有加于昔中作三大像諸天十地皆旁侍焉費以巨萬生平溫厚凝重道貌偉然每升席說法音如洪鐘四眾聚觀歡喜讚歎起其信心濟人利物甚於為己惓惓之衷至老不倦當日名公巨子若黃少保宗豫黃尚書宗載王侍郎子清周侍郎恂如張都督以誠皆極推許或贈以詩文人多榮之妙則歉然以為方外不可以此相恩也示寂於正統癸亥七月十二日塔於南屏山陽王直為之銘文具寺志

明遠安福河寺沙門釋普亮傳(弘參 深潤)

釋普亮未知何許人識懷溫敏風儀迺遠弱冠剃染慧解兼人博涉內外獨契真如而道貴利他更思弘濟振錫荆楚卜居妙峰山躬建蘭若其山在遠安城外五十里許地隔塵囂林壑深秀乃剝闢荒壤翦除榛穢道流引渠寥廓泓漾俯視澄清鏡空心澈誠安禪之福地初啟之靈源也天順丁丑奉禮部筭付敕賜額曰福河亮亦深蒙褒許自是厥後神宇櫛比堂殿相望彌漫山阿縈迴河岸一時士大夫歸向玄素蒸蒸宏護之雄莫之與京隆慶初有弘參深潤者重振家聲高大樓觀覆以琉璃法席所宣直闡向上開悟來學亦臨濟之秀法教光顯實寄其人

明鳳皇山聖果寺沙門釋子敬傳

釋子敬姓凌氏海昌人洪武十七年禮海鹽碧雲院懷忠為師年二十受具通內外典為世所宗永樂元年永慶退席卓錫聖果慨寺廢經三百祀力任其事而恢復之宏緒未備至正統九年落成殿閣堂宇庖湑像設煥然如故初南京僧錄司因孝陵久罷講席奏請子敬住持天順元年告疾歸寺八月十五日坐逝壽九十三臘六十三塔躍雲石右諡曰懶耕

明泰山竹林寺沙門釋滿空傳

釋滿空者高麗僧也人稱為雲公蓋其字耳永樂間與數僧航海東來宣德三年給度牒令參方禮祖因登泰山訪古剎重建竹林寺復駐錫普照四方衲衣受法數千人天順七年閏七月二日說偈而逝弟子洪因為建塔立碑稱普照初祖云

- 興福篇第九之五(正傳十一人 附見十九人)
 -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源傳
 - 燕京法華寺沙門釋德聚傳(祖能)
 - 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鎮傳(碧潭 靜璽 道泰 悟景 普旺 青普)
 - 燕京廣濟寺沙門釋普慧傳(且住)
 - 潤州焦山普濟寺沙門釋妙福傳(慧印 樂一)
 - 宜都顯明山寺沙門釋道慶傳(妙性 明鏡)
 - 昆明妙湛寺沙門釋悟本傳(淨月)
 - 潤州金山靈觀閣沙門釋定清傳
 - 通海東華山寺沙門釋慧心傳(真澄)
 - 峨眉普賢寺沙門釋慧宗傳(寶曇 無窮)
 - 洱海般若寺沙門釋真語傳(圖省 定堂 南嵩)

明杭州淨慈寺沙門釋智源傳

釋智源字古淵姓袁氏仁和人也七歲即欲出家宣德己酉七月捨入千佛寺禮性空善受具正統丁巳趨京師試經得度領牒禮部尋參兩庵於功德寺有契侍香室中轉司藏鑰甲子還杭部筭令主真珠景泰甲戌還住萬壽天順戊寅住持千佛建寶閣飾佛相設立石橋浮屠僧廬樓閣殫竭心力時有安福八詠名士文學多以詩紀之成化戊子移住中天竺振舉傾頽雲水畢聚甲午移住淨慈修葺大雄應真諸殿柱蠹者易之像有塵晦者金碧輝諸且建東西坊門以揭南山翠屏之勝自是宗風益暢更集名衲百餘人憤激力參學者多有悟入淨慈自五代潛壽而下百代相繼事久年湮懼無所攷乃徵名流為文刻諸石建亭殿左以示來者復剏塔院於西隱額曰萬峰深處癸卯春屏煩遠囂靜閱大藏逾年而周蓋源自甲戌以來二十年間四住名山所至鼎興煥然改觀及領淨慈十有二載年已七十四臘五十四矣乃謂弟子曰古德言功成者退天之道也吾其隱乎來自何所去自何所西方極樂是吾淨土因作壽藏朱鏞為之銘焉具見寺志

明燕京法華寺沙門釋德聚傳(祖能)

釋德聚字寶峰姓趙氏家世金陵祖謫戊玉田遂為玉田人將生之夜母夢黃光彌戶己心異之童時有老衲見而相之曰此兒骨相不凡將為法門大

器未可以塵俗限也甫五齡嘗于空中見樓閣隱隱之狀年及就傅父母捨之盤山少林寺從隨公出家隨公者聚母舅也宣德戊申聞僧錄右街大雲興公遂于道宣廟寵渥極盛璽書褒獎名重天下往師之講求宗旨夙夜孜孜服勞不懈正統丁巳荷簪吳下受具而還庚申內監劉順以私宅請為梵剎英廟賜名法華命德聚主之即以修舉為己任殿堂廊廡次第完具天順壬午重來盤山慨然歎曰吾少時于此往還曾幾何時已五十餘年矣感化為魏晉古剎毀于兵燹久不能復吾徒碌碌無益于教雖老奚為乃捐己資以圖興建勤敏三年眾緣鳩集崇臺廣宇丹白炫然像飾莊嚴咸臻精妙事聞于朝賜名廣濟以同門白巖森禪師主之成化己丑復還少林愛其峯巒幽秀谿澗縈迴因傾囊橐飭其頽敝式廓規制東作觀音堂西作明月堂中作方丈左右僧舍更傍龍池作竹塢蔬圃以為息老地其徒文擴求柯潛為之記勒諸石文具山志又祖能字蘊空號松軒道人三河孫氏子九歲出家師香林如庵翁後至京師依可堂善復游汴洛香山禮天龍潭公傳付心法仍還香林重新殿宇已而退居白巖自號白巖叟姚太守叔謙常與往還一日步入峻峽石齒礙足躓而傷肩了無愠色蓋契其道誼不憚跋涉時人重兩賢之交樂道其事叢林至今傳之能生平恬退以法自任成化丙戌十月二十日示寂歸葬香林西北隅

明當陽玉泉山寺沙門釋廣鎮傳(碧潭 靜璽 道泰 悟景 普

旺 青普)

釋廣鎮字銳菴少從兄廣銘祝髮于玉泉元至正十八年天下鼎沸荆襄孔道數離兵患鎮才十齡兄弟相携隱匿岩阿雖處亂世而志高峻福慧兼修及銘謝去愈自蹈晦明室龍興海宇漸寧洪武六年乃與碧潭還寺一望瓦礫感傷無已因相與葺廢以居墾荒而食碧潭字淨淵勵行精修理教俱澈元英宗時主玉泉賜號佛慧慈照並襲紫衣天曆間謝院事遭元季喪亂僧侶流亾潭處之怡然及與鎮言旋故寺重尋舊址竭力經營意圖恢復終以老病于洪武二十年奄然而逝著有語錄詩集亦散佚無傳鎮慨老成凋喪荒院淒涼冀得法力再求興建明太祖定鼎金陵褒崇佛典道侶方盛乃飛錫而來得具足戒即參慧日宗泐諸宗師遊歷名山十有八載復歸玉泉頗事修飭略具規模永樂中得請于朝宣諭住持隨力開懇終歲勤動不辭勞瘁迄于宣德之時徒侶漸眾勝施方來有靜璽道泰悟景普旺青普諸賢左提右挈或庇材具或督工技或事募集或掌藏收綱紀井然俱就條理如是辛劬歷三十載始成叢社正統初元乃承敕許講經說戒于是道播海外譽馳寰區緇眾奔赴日食萬指然亂後寺籍散失田產難稽鎮所鋤懇纔及舊日百分之一而檀助日多終足集事以成化十七年九月朔日召弟子靜璽屬累既畢舉手言別坦然坐化世壽一百一十有三歲僧臘七十有四塔于南庵之左青普豫章張氏子于天順時主院事景泰初謝去專事淨修以西

方為歸寂于成化二年二月朔旦興復之功青有力焉靜靈昭邱劉氏子既接鎮席維持象教直闡心宗禪誦之暇補修未備聿嚴像飾頗勤營謀寶鼎花瓶并勞經紀監造關瑩尤深虔謹寂于弘治十六年三月二十六日塔於獅子山下

明燕京廣濟寺沙門釋普慧傳(且住)

釋普慧字喜雲潞人也明天順初至燕京與彭城伯張守忠惠安伯張元善大學士李東陽萬安相友善重建西劉村寺宗風丕振名聞九重賜額廣濟後遂奉為初祖云先是景泰間有得佛像及石礎於土中者知為西劉村寺故址宋末有劉望雲者自謂天台劉真人之苗裔得煉氣法一日有僧號且住者過之望雲出迎僧以佛理砭之雲深折服執其手曰且為我說法因為之建寺曰西劉村寺說法二十年元末為兵火焚燬蕩然無遺至是慧重為興築金碧輝映水雲會萃都闔寶坊斯為第一慧天姿明敏性復沈靜雖曰默默而機鋒所觸犀利莫當涅盤後塔於玉泉山二聖庵側成化六年庚寅帝遣禮部郎中孫洪諭祭於萬壽戒壇詔曰爾早通釋典克持戒律正期闡揚宗風何遽一疾而逝爰昭錫典特賜以祭爾靈有知尚其歆茲弟子大海洪為立碑塔院用垂久遠洪弟子明仁明宗皆能祖述宗旨不墜禪風

明潤州焦山普濟寺沙門釋妙福傳(慧印 樂一)

釋妙福者未知何許人明弘治間來焦山普濟寺寺左有石磯迤而出者踰十丈地勢卑下潮汐往來汪洋汗濫不可涯涘福為募工增土築而高之歲久乃成平地于是削木陶瓦為庵數楹其地峯起中流四面皆水因名水晶庵明楊文襄公一清與福友善為留玉帶以鎮之明武宗嘗幸一清第會福在座為引見之因命福為三山都綱及福遷化歷數傳守者墮廢日以傾頽破壁敗垣蒿榛塞日像偶露立見者惻然久之有僧慧印與其徒樂一亦福之系也一日遊方歸尋其舊地昔之莊嚴已隳埋穿漏雜荒礫中莫可認識黯然而神傷立志興復乞善募眾冒暑衝寒鈴柝忘疲於是七眾感慕檀施泉湧乃撤敝去朽培窪拓隘更謀高出作月波樓建曉清堂悟嵐軒併抵竭[厥/疋]十有餘載始可告成蓋作於康熙丁丑之春藏于己卯之秋冷士帽為之記云

明宜都顯明山寺沙門釋道慶傳(妙性 明鏡)

釋道慶字壽堂初出家師事淨滿研窮性相頓契圓明弘治甲寅歲翔遊荆楚有善士曹宣者為法求賢尋訪高侶偶相逢還語於逆旅諮詢殷殷參入玄際宣心折服因奉邑檄請至宜都有寺距城西四十餘里山曰顯明寺曰

街蹬慶至力崇儉樸屏絕塵緣唯以明因果識罪福倡率徒眾一方化之且以餘力重建殿宇左則方丈右則禪堂及山門廊寮次第興築久之遂成叢林居恆千指誦聲不輟己卯歲造寶塔三極其壯麗又修華嚴會百三十會前後建築幾二十餘年以弘法為務與眾談般若引入圓妙稱為明登上人後寂于寺同時有妙性者率徒明鏡至尖山龍興寺勤修道行拓葺以居時戶部中徐君漢經與李中倫感其清德宏厥勝施遂構棟梁大啟爾宇更捨菽粟以供香積師弟焚修三十餘年皆老于此云

明昆明妙湛寺沙門釋悟本傳(淨月)

釋悟本字真空姓秦氏嵩明邵甸人童穉進修超然塵表得法白齋禪師慧機洞徹律法精嚴疏食飲水禪悅自甘道俗信仰為建邵甸普賢寺持盃呪語攝神龍於崖下泉源清冽異於他處但供香廚不盪腥味若遊人汲之烹鮮煮膾則竟夕不能入口或濯足滌穢其患立見後於昆明官渡復創妙湛寺著有韻略易通編白齋名淨月曲靖胡氏子年十九出家日唯一食積久道重人以白齋稱之弘治間歷遊海內及回滇入雞足山初登峯頂結葺淨憇徒侶攀躋室不能容乃於明歌平處創寺掘地得碑有迦葉入定八大明王歌頌相送之說即聖峰寺也

明潤州金山靈觀閣沙門釋定清傳

釋定清者廣德人也好勤苦早暮不休髮不暇翦亦不櫛沐兩髦毳毳頂結如氈歲久積高尺餘纒若疊螺見者異之號曰秀頭清少入僧籍傳臨濟宗初廣德有老僧來金陵募造佛像清與俱來老僧每出無所得清出輒充切而歸歸悉與老僧後老僧頗為私藏清遂棄去聞祖堂山幽棲寺林谷深秀往棲焉幽棲去城南三十餘里梁武時舊刹也殿廡傾側清見而閔之慨然以興復為己任鉢杖所至檀施恐後三歲功成費幾巨萬已而見金山之陽有閣焉榜曰靈觀歷歲既久岸石崩頽高閣陵夷蕩然無存惟敗垣壞砌蒙蔽榴翳土木偶軀剝蝕風雨清愀然傷之乃募財庀工借石他山取木喬林累岸為基崇高七仞開拓舊址為閣六楹重簷覆宇雄偉壯麗宗棟桷椽繪以青碧扉闥窗壁漆堊塗墍華光神像金粉彩色備極尊嚴眩耀日精始於弘治己卯八月越明年八月閣成所費數千百金皆子身為之清質狀樸野語言拙澀未嘗以巧令干人人無貧富見者皆樂為施與每出募歸輒躬薪水以助役夜則入山號佛精誠不懈平生惟疏食飲水滋味不入口一衲數載寒暑不易足惟草履而已先後所募鎡貨累億萬錢未嘗一毫自私人多感歎故鉅工易成僧宗文者楚石上人再傳弟子乞王徽為之記勒諸石云

明通海東華山寺沙門釋慧心傳(真澄)

釋慧心字妙空姓馬氏通海人母夢遊寺持金像歸覺而育子父早世慧心才數齡採薪織屨歸以奉母途中拾遺金百兩偵其主而還之母有疾割膚和藥母沒廬墓每感異徵後之秀山湧金寺禮智曉祝髮專壹懃懇拜誦法華感圓通得定七日方起即發言中理莫不驚異道聲嘖嘖達於婦孺每入城市前後謹[言*乎]皆致敬禮嘗遇大疫流行慧心為之諷經祈求足跡所至病者俱起去縣數里曰東華山舊有湫窟倚邪灣曲可通人跡有怪狀甚寧暴樵牧至者每為電火焚擊一方患之慧心獨杖策入窟趺坐其中未幾果見怪物狀如龍蛇張爪鼓鬣若將吞噬雷雨大作七日方霽忽有偉服三人進而告之曰神龍所據何苦在茲顧不懼害耶慧心曰吾欲服此孽耳語竟遂失三人所在鄉人以為數日不出必攫其害聚眾百人持炬而入見慧心兀坐如故咸以為神即於其上建寺居之又於雞足盤龍兩地飯僧數達二億暮年遊筇竹喜其山林幽勝乃重葺之不日燦然寂時年六十五僧行四十塔後三日忽發異香移時乃散真澄字所庵尋甸張氏子年十五慕玉龍法光道範常思見之見園中柿熟欲將為贅攀樹摘取緣枝墮地神魂驚越昏昏如夢竟赴光所與光問答歷歷在目及甦乃知身臥墮處遂悟生死不在色身即往禮光受五戒年十八復投曲江見古梅始從蕪染已而遍參名山乃至北都居千佛寺依徧融多所發明遂嗣其法後住五台山弘敷教席為近代法師之冠及回雞足建那蘭陀寺於金龍潭

明峨湄普賢寺沙門釋慧宗傳(寶曇 無窮)

釋慧宗字別傳雲夢人明嘉靖中遊峩湄山觀普賢像因敬生悟留居四十年剏造銅殿復範金為普賢像一諸佛銅像六十五諸佛大銅像三鑄銅鐘三重二萬五千兩初寶曇國師當洪武時敕主峨湄山重建鐵瓦殿造普賢金像留蜀十五年道化行相傳為斷崖再世後召還寂于天界寺太祖嘗賜御詩二章云斷崖知是再來僧今日還修未了因借問山中何所有清風明月最相親山中靜閱歲華深舉世何人識此僧不獨峨湄幻銀色從教大地變黃金又無窮禪師從通天學苦行彌堅身炷四十八火表其所願刺血書華嚴經兩部峩眉縣東大佛寺銅造大士像高三丈餘者即無窮所募建也萬曆中官齎帑金為之寺前後賜賚甚多有金書金剛經若干卷又金書貝葉經一函非中土所有尤可寶云

明洱海般若寺沙門釋真語傳(圓省 定堂 南嵩)

釋真語字默庵姓李氏賓川人也生有善性幼喜事佛明嘉靖癸丑禮師正宗薙髮剏止止庵真語初不識字及授經論禮誦華嚴日夜不輟七易寒暑慧性頓開口誦心惟便通妙義後李中溪請弘法崇聖寺遂躋講席化道既廣歸來日眾因於白崖建徧照寺又於洱海創般若寺萬松庵以處徒侶著

有觀世音經註行世萬曆十七年慈聖太后遣妙峯齋藏供雞足山賜真語紫衣坐化時壽七十五塔於萬松深處同時有圓省者甘州人年十六出家初棲伏牛山後歷五臺峩眉嘉靖間來滇至雞足睹華首幽勝思建寺憇止亦與李中溪相值機緣契合遂為興築今放光寺是也圓省居山三十餘年德馨遠邇時神宗頒藏賜敕供奉又定堂名本帖或作本鍊尋甸楊氏子嘉靖時禮秀嵩山白齋得度參萬法歸一旨有省篤實精進遊學三十餘載始歸曲靖將至之夕按察使唐豫夢感神僧及見本鍊謂為再來人重修東山梵剎居之又於清水塘建勸善樓後憇雞足金龍潭十八年屢見龍爪出沒椒樹生光故創庵名椒花後更額曰寂光寺化日書偈杳然解去南嵩者不知何許人依印光出家習杜多行雞足檀花簞素為盜藪嵩獨坐結茅路旁晝夜經行三十餘年盜多感化勉為善人近鄉檀越欲為建寺嵩拈香祝曰若此地當興神示靈異須與金光照徹林壑皆黃久之始散因建金華庵復於庵東石洞中禮佛十三年由是大聖翔龍等九剎相繼翺立皆感金華之異遐邇信仰故法會日興道侶雲從將寂之日命門人具饌邀諸二眾沐浴盆中跌而化超然來去眾皆嗟歎茶毘時人皆覺有異香云

- 興福篇第九之六(正傳十四人 附見十人)
 - 明房山上方普濟寺沙門釋銀圓傳
 - 黃山慈光寺沙門釋惟安傳
 - 當陽玉泉紫紫庵沙門釋法瑄傳
 - 鼓山白雲洞沙門釋悟宗傳
 - 宜都廣濟寺沙門釋徹天傳(徹容)
 - 黃山雲嶺禪院沙門釋如本傳(妙光慧 櫟庵)
 - 杭州靈隱寺沙門釋如通傳(良玠 慎庵祥)
 - 沙市白齋庵沙門釋道通傳(德全 香林)
 - 雲中普興禪院沙門釋義玄傳
 - 皖中浮山華嚴寺沙門釋本智傳
 - 遠安壽隆寺沙門釋普義傳
 - 燕京資福寺沙門釋鎮端傳
 - 梓潼廻龍寺沙門釋慧慈傳(無妄)
 - 代州七佛寺沙門釋道相傳(道梅 法源)

明房山上方普濟寺沙門釋銀圓傳

釋銀圓字孤山姓李氏武清人也少待內庭給事銀局工作公餘多暇留意內典耽味久之思出塵誼乃乞退徧遊名山遠航南海還至少林遇無言師為之披剃具道從來因以銀圓名之取其精堅不磨流通無礙即謝曰銀則無須此但期圓滿足矣居數歲復事遊參邁跡上方構朝陽庵息靜山阿將從此終焉顧上方地接皇都山勢懸邈雲水幽勝甲於寰區游侶日眾自孤山口至兜率寺二十餘里馬不能行故來僧至孤山已饑疲交困無休憩處或望而卻步圓獨發願欲於孤山剏建十方叢院以利行者早夜殷殷默禱顯叩卒達所志殿宇既成額曰普濟禪寺遂為始祖人稱孤山長老以地名之嘉其志也以萬曆庚申正月十一日示寂其徒通祥通昱依浮屠法葬其骨於寺西北隅

明黃山慈光寺沙門釋惟安傳

釋惟安字雲亭讀經中普門喜其誼廣大無礙因自號普門姓奚氏郿人也幼失怙恃不識生平而志骨挺立弗甘俗賤年約十歲為人牧羊迅雷夜半驚起自憤消除卑念投入空門年近二十薙髮受具遍叩宗匠三十年中往

來少林五臺太行伏牛補陀間饑不言疲患至不怖晝夜精勤鍛鍊周密直至無可轉處必欲轉得如是努力自疑自豁嘗於元日入山負薪被風吹落身心兩無前後際斷如月映澄潭花明空鏡雖青巖擊竹高峰落枕無以過也獨以未經明眼印可不敢自信再上臺山謁空印呈偈請益一聞提驚便破桶底若洪鐘既叩靡不響應矣萬曆二十一年立禪之夜似夢初醒覺黃山境象如在目前三十二年行至新安因緣所集宰官居士緇素道侶信受歸依幾及千人安乃破雪尋奇捫蘿陟峭得黃山之勝恍與夢符遂入開山草創法海禪院來者日眾糗糧乏絕相與采苦飲水亦不相離道價翔溢聲達禁苑敕賜慈光寺額及七級四面金像并藏經金書法華經紫衣金鉢賞賚有加天啟三年飛錫戾夫椒山祥符寺山荒地僻厨竈無煙安與眾閉門七日不火許居士鼎臣叩扉直入見其道貌清峻略無疲色歎為華嚴不思議境界消凍餓想儼然雪山麻麥也無何以賜佛因緣北至清源乘願禪林即安十年前所建也少傅蓼水朱公相留結夏亦自知遷化期近即止憇焉以天啟五年六月十二日示寂趺坐說偈曰處處西方地我無西方心滿目皆蓮花惟不見我身合掌而逝僧臘五十餘載弟子輦骨黃山造塔寺後白石鑿鑿流水環繞許鼎臣為之銘

明當陽玉泉紫紫庵沙門釋法瑄傳

釋法瑄字玄徹幼棲燕山託身桑門明萬曆時南游至當陽止于玉泉會無迹重修殿閣及十方堂成將弘講席造就新徒欲得大藏以饒學者以瑄來自都門諳識舊事使慈航偕之赴京僕僕風塵舟船南北終遂所請並載而歸玉泉之右林谷幽秀有峰名紫紫流水環繞其下鄉貢袁君中道別治一葺讀書其中丙辰歲袁君捷南宮成進士以葺付瑄而去逾年瑄復謀于袁君曰凡蘭若當具三寶者也今佛相修矣法典備矣獨往來游侶尚無一粥飯為棲息之地可奈何袁君聞而善之為文徵諸善信卒置田百有餘畝以贍行者瑄勤於護法嚴於律身凡所綜營利財不苟人多敬服主紫紫庵十餘年[諒-小+日][諒-小+日]以念佛為第一義後無疾誦佛合掌而化

明鼓山白雲洞沙門釋悟宗傳

釋悟宗姓傅氏閩人也出世學道苦行精進萬曆間結茅于鼓山之鳳池深山峭谷人跡罕至每當中夜風淒露冷有聲呦呦喞喞似蛩似鹿若泣若訴悟宗持誦華嚴了無恐怖久之見光熒熒自前峰飛來至庵而止時或散作金光數百道朗耀燭天如是數數乃依不光處跡之披榛五里許得石穿石披土土盡而得洞其上而小者為海音洞下而廣袤如覆鐘如削玉者為白雲洞洞前空青隆起為佛頭巖巖石稍平者為說法臺臺傍為潭所謂三潭九井之一也而石之仰者為鉢立者為杖皆以形似名之登洞則日月虧蔽

雲霞從足底起伏江流如帶滄海若污無諸城郭隱見煙中一蟻垤耳悟宗性行超凡慧心獨運鳩工蒐材剏立寺宇而同時有善卜者伽藍神憑焉言應如響於是遠近雲集布舍物力畢具金像紺垣香厨精舍不日而成轟然林表然下視絕崖殊難攀躋則又鑿石千武縣梯萬仞起於平地為三天門蛇屈而登跨龍背渡吼雷湫印月潭踰金剛石數百級至化龍橋觀瀑布如綫散入橋下天梯轟雲峨峨然王懋復太史為題白雲洞天初有巨石橫巨洞前下臨絕壑石工相與謀曰此石鑿斷我輩且齏粉矣因釋工而臥夜分大聲轟然如天地崩烈巖谷震動眾驚視石已斷矣以為神感云悟宗後居郡之羅山有法海寺為勢家所奪且一甲子曆數主矣悟宗為引法曲諭頓令檀越發心捨宅還寺不及三載金碧珠林煥復舊觀護教宏法願力尤深長樂謝肇淛為碑文並題三絕白雲洞云白雲不生滅古洞無開閉僧臥雲亦還松風吹巖際海音洞云法海本無音空洞自岌嶮誰為大知識鑿此渾沌竅三天門云鳥道蟠石罅危梯不可度下有面壁僧上有通霄路

明宜都廣濟寺沙門釋徹天傳(徹容)

釋徹天未詳何許人有道行攝化于荆楚間宜都劉太史恆河暮年好善傾心佛果捨宅為寺旁求高賢奉為開山及聞徹天品格清峻玄旨淵深抒忱禮請欣然戾止說法拈佛緇白化之今為廣濟始祖是也又徹容者川人也賦性堅忍慧猛兼資環眼晶睛劍眉黑面萬曆乙未始至玉泉棲于別院舊名龍興寺為唐恆景律師道場日就埋廢容慨然動念立志恢復奔趨三載呼號十方溽暑嚴寒不憚跋涉卒告成功視前之棟楹撓折桶檻腐敝薨齧破缺赤白漫漶者經之營之治之葺之輦礫穢燔榴翳斬茅而藝嘉樹發石而引清泉怡神養性助我禪悅當機唱導歲無虛日後終于斯寺翠波歸然餘芬未沫

明黃山雲嶺禪院沙門釋如本傳(妙光慧 櫟庵)

釋如本字妙圓萬曆時與妙光慧禪師同遊黃山止于佛嶺把茅葺亭設薑施茗弘其願力相與胼胝百具更新遂成勝地慧為歙巖王氏子本則遺其氏里嘗自述佛嶺紀事一篇略云萬曆甲辰自浙之虎跑來遊黃山至歙西潛口之上五里曰佛嶺前後十里間悄無人煙嶺頭有亭額曰佛嶺雲亭時當炎夏行人苦渴因與道侶雪樵行頭陀行煮水以贍行旅就亭右誅茅為蔽風雨計忽於荒草中見一斷碣苔蘚瀰漫大半剝蝕然隱隱可辨於唐有志滿於宋有雲林具見林傳而亭亦於淳祐甲辰為汪楨珉所建工費壯固自宋至元廢興不常明洪武甲子亭將圯眾為修治有僧櫟庵居之正德丙寅里人汪以輔氏又為更新蓋佛嶺之名由來舊矣本既愛其疊峰排空中通一綫松聲澗響雲影山光鳥鳴啾啾掩映其間誠佳境也爰與道友定居

焉此可見本之志願矣又亭之北麓有水一泓乳汁涔涔出石骨中白擬流酥清同法鑑者雪照泉也泉以石為腹泉心清澈可鑑毛髮偶立久之涼氣沁人不待洗滌塵垢自消慧初闢地時疏鑿成池用以濟行旅饑渴因給庵僧食飲至今賴之本嘗參憨山清清有示妙圓禪者偈曰湛湛青蓮花居泥而不染明明出世心雪在玻璃盞足狀其禪心澈悟功候圓成故寂時辭眾偈云打破虛空如風掃葉天外山青嶺頭日白正岳豁堂雪霽寄妙圓老宿有寄言久臥寒巖柏共拂高枝仰太陽之句岳康熙中始寂本蓋有高年者又謝彥章贈妙光上人詩敘曰十年前為作募修石路疏今路已成經樓佛閣亦復煥然觀其願力可謂無負厥功其詩云四十年如一日過入泥入水意如何從他覺路光明殿不比山僧願力多可見本與慧開拓之勤

明杭州靈隱寺沙門釋如通傳(良玠 慎庵祥)

釋如通字易庵姓杭氏母氏潘夢梵僧借宿而覺是日生通年十五出家禮大海為師未幾往雙徑萬松抉擇心要松問如何是白雲不倚青山住通曰明月常懸古澗心松為首肯乃付以法嘉靖癸亥司寇五臺陸公延主南山慧因前後改觀萬曆壬午冢宰元洲張公禮致北山靈隱重建大覺殿十五年瓦礫一旦更新其功不可泯也先是宣德九年寺燬於火有伐石良玠者方建姑蘇虎邱寺大殿郡人慕之禮主靈隱前後建置多其力也又慎庵祥者海昌李氏子少穎悟經典過目應誦受戒於全庵理得法於壁菴璘景泰間主顯寧天順時遷靈隱大弘法化學子景從重修殿宇樓閣交輝丈室寮廡傾橐所葺時論高之

明沙市白齋庵沙門釋道通傳(德全 香林)

釋道通字白齋西蜀人也早歲披緇苦行自勵壯而發足躡屨負簷徧跡名山獨以荆門西達峨嵋北通五臺而滇黔湘隴四方行脚者欲瞻文殊而禮普賢多道出沙市水雲往還殊無止息之地使過者煩苦來者沮喪非所望於弘法者也乃矢志修持自甘淡泊感應人天卒遂所願建庵沙市人以白齋呼之因以名焉于是遠近遊侶接踵而至伊蒲之給四時無缺通臨化時謂諸僧曰法性本無生今復何滅其不立一切法者亦不捨一切法也吾所以苦心經營正以待諸佛子耳豈有他耶前為殿三楹以棲像為閣五楹以棲法為樓左右以棲僧而禪室方丈俱備居者得所行者如歸有田可粒有圃可蔬爾曹善護之吾將他往矣安禪而寂閣維得舍利無算因立塔焉通勤修有恆昕夕無惰五十年如一日其徒全德續緒續焰律肅宗明更宏殿宇洞啟法門荆南會稽陶公崇道為之記又香林僧者吳人也不詳其姓字萬曆初遊荆會同侶于南湖倡建眾香林以饜往來行者其主斂米已而不繼吳僧持鉢徧袒而出索之市井朝饗之餘家才一盞三衢未徧而白粲之

積足飽千僧自是厥後日以為常施者不費來者取足人多效之黃太史輝為題其額曰眾香林吳僧亦以是而得名焉時荆沙兩地水雲流行俱得挂搭而北詣清涼西踐泐雪者依此止息稍修煩困已公安袁宏道亦為之記云

明雲中普興禪院沙門釋義玄傳

釋義玄字古鏡姓賈氏雲中人也父林母李氏生有異徵髫年厭俗禮郡中定盛出家志切向上及長辭師操方初至京都於萬壽戒壇受具足戒徧禮名山參訪知識決策已躬有所發明念佛慧未圓功行不具中年還鄉廣作佛事結飯僧緣不以數計造滲金像以嚴佛土繪水陸以拔幽冥修橋梁以濟厲揭建窰堵以標人天跪誦往生咒三十六萬遍以資淨業凡在利益靡不精心竭力以導利多人由是四眾歸依王臣敬仰雲中邊地逼虜民情慄悍以玄之教化轉殺機為善種變鴟鴞以好音見者欣說景從體厚而性柔學富而行高故感代藩國主三世崇重吉陽端惠諸王咸為外護建普興禪院遂為開山祖以明萬曆乙巳年入滅世壽八十僧臘四十有奇塔於雲中郊外釋德清為之銘云

明皖中浮山華嚴寺沙門釋本智傳

釋本智字慧光姓李氏曲靜人也先世居金陵後徙滇南生而倜儻夙然自遠隱有出塵之志曲城之陽有朗目山智父白齋出家居此智年十二住依之遂薙髮為驅烏後行腳遇黃道月舍人與語相得為更其號曰朗目白齋以華嚴為業智多所熏發即從事焉年十九受具白齋將寂智請益乃瞿然曰是惡知不旦暮為人壻也因發憤決志操方北遊中原遍歷名山足跡半天下南北法門若伏牛之大方印宗南嶽之無盡廬山之大安薊門之遍融月心皆一時教禪師匠咸及其門經爐冶鉗鎚故若宗若教得其指歸但於參究已躬恐未悟徹乃立禪一十二年始得心光透露由是機辯自在發跡北遊過六安劉公為新中峯華嚴蘭若居之未幾去白下給諫宇瀄鍾公頗研內典然多才傲物素少沙門無撓其鋒者一日至天界問主者曰善世法門可有禪者否主者推智出見便爾請問天界寺還在心內心外智曰寺且置借問爾以何者當作心給諫默然智曰莫道天界即三千諸佛只在山僧拂子頭上鍾良久作禮退然心服始知法門有人陶公允宜官比部時即與莫逆及左遷廬州別駕署篆六安創鏡心精舍以待未暇及也皖之東九十里曰浮山昔遠師與歐陽公說法處有華嚴道場古剎為一闡提所破廢吳太史觀我每慨之欲興而未能也智自淝水飄然一錫而來吳太史一見與語相印契再拜而啟曰浮度固為九帶宗乘近為古亭演化地華嚴道場即重豎剎竿也今為有力者負之以趨其如茲山何古亭為滇南人師豈其後

身適來胡不理前願耶智聞而愕然曰予少時每對古亭肉身瞻戀無已抑聞開法浮度不知即此山也因思華嚴乃出家本始皆若宿契遂欣然許之於是禱於護法神遂戛然而去太史猶未知所向也智至淮陰沁水劉中丞東星建節於淮夙慕方外友邂逅於龍興寺覩其機警喜愜素心乃館之公舍暇與語間及浮度因緣劉公忻然曰此彈指之力耳即檄下郡邑令一行闡提懾伏盡歸侵地百五十年之廢墜一言而興之豈非願力耶寺既復乃北入京師會神廟為慈聖皇太后敕頒印施大藏尊經智乃奉璽書持大藏歸浮山始戊戌訖壬寅五年之間而浮山華嚴寺巍然如從地湧出寶光瑞色照耀人寰非有夙因孰能致此叢林就緒即付其徒聞劉公薨感其誼好走沁水弔焉瀋王為佛法金湯聞智入國欲致一見乃語使者曰久嚮賢王深心外護法門若以世法相見則不敢辱王之明德使者覆王曰願聞法要詰朝王坐中殿延之入智長揖問王曰喜哉世主富有國土貴無等倫作何勝因感斯妙果王曰從三寶修來智曰若然因何見僧不禮生大我慢王悚然下座請入存心殿爇香成禮請問法要因言華嚴梵行品云身語意業佛法僧寶俱非梵行畢竟何者是梵行智曰一切俱非處正是清淨梵行王聞之喜遂執弟子禮所供種種獨受一紫伽黎及水晶念珠留鎮浮度山門王亦竟為華嚴檀越乙巳冬慈聖聖母周三百六十甲子建法會於都南之廣慈懿旨請講楞嚴未及二軸忽告眾曰生死去來皆目眚所見耳吾行矣華藏莊嚴吾所圖也今歸矣踞座端然而逝時萬曆乙巳十二月二十四日也訃聞聖母悼恤賜金造塔返靈骨於浮度妙高峰之南麓從其志也吳太史觀我為之銘有云古座歸路為來路遠錄宗乘入教來皆實錄也

明遠安壽隆寺沙門釋普義傳

釋普義字了乘姓胡氏古陸人也髫年祝髮順時進具勤習三學博覽群經壯歲遊方飯眾廬山見真面目如識本來浮江東下循海而南瞻禮補陀還至金陵請求藏典跋涉山川護經回寺萬曆丙辰刱建彌陀院劬勞三載上下堂寮左右樓閣莫不輪奐雙美金碧交輝復鑄三大士金身刻彩十六佛龕增置田疇裕蓄香積夷陵徵士雷思沛為之碑文玉泉無跡禪師著有彌陀院記並垂久遠足示來茲義雖傳臨濟而夕梵晨鐘數豆念佛清心自課邑侯張公題所居曰莊嚴淨土蓋知其回向證願已具極樂玄猷所詣既成蟬脫而去其芳模碩德備載縣志

明燕京資福寺沙門釋鎮端傳

釋鎮端字守心姓陳氏長冶人生多祥符鄰里驚異弱歲自矜風骨卓然年十二依黎城洪福庵惠忍為受業師居無何棄去登伏牛禮補陀既而入代之五臺山謁二虎禪師一見契焉為入室弟子及還故山瀋王聞而敬之延

住資福禪院給供甚勤一日慨然曰大丈夫不出家即當以仁義輔弼明主澤流遐邇出家則當精深宗教徹法底源闡揚佛祖之道俾博地凡夫彈指登聖以報佛恩始不愧為男子顧吾於二者之間一無所有瀋王雖勤厚濡滯一方莫能廣惠方來終非所志於是復棄去來燕山宛平蘆溝橋東白茨數椽聊為諸方息肩之地亦願資福者示不忘瀋王也又於寺之西南隙穿大井一置石漕六發願曰無論黑白愚智人畜凡有知者沾我滴水食我粒米同此供養水泉不枯勝緣無盡然賦性嚴冷不喜阿曲即豪貴臨門或不少屈故施者簡寂常住荒寒乃力抱枯澹歡接來眾了無倦色或不堪其憂端處之泰然殊不為意瀋王恭妃仰其玄風遣中貴易茅茨為金碧端方暢志樹功德幢焉明萬曆二十年冬十二月預知時至謂門弟子曰我明日行矣積年勞動施者使我成就行門我去後無乏方來粥飯我死猶生也至期悠然坐化僧臘五十七世壽七十三門弟子依法闍毘歸骨南岡塔奉為初祖釋達觀為之銘文詞超邁具紫柏遺集

明梓潼迴龍寺沙門釋慧慈傳(無妄)

釋慧慈漢中人明萬曆庚辰來遊梓北百四十里許有古寺曰迴龍棲息其間精修不倦如是者亦有年一夕坐化感兆土人冷潮父子為奉其肉身入龕香花供之歷久不壞寺後忽湧甘泉潺湲不竭時見白蟹大如盃每逢歲旱里人取泉於寺禱雨輒應因改修廟宇大其規制額曰活佛寺以顯異之後有無妄姓段氏梓潼人出家城偶天封寺自念大本五蘊非有乃走岷峩勤修數十年復歸天封晝夜持誦後坐化於鐵鑪山亦多靈跡土人立廟祀之

明代州七佛寺沙門釋道相傳(道梅 法源)

釋道相字契真姓楊氏岢嵐人年十三依蘆芽遠公披剃行腳至五臺習講師子山窟禁閱三載出而過代士民留居北斗宮久之不樂曰吾侍佛者也而習見酒肉烏乎可欲辭之士民感其行誼為闢淨域造僧房顏曰七佛時明萬曆十七年也相復自誓足不踰閩者十餘年晨鐘暮梵勤讀大藏以此終焉後數十百年有道梅者戒行精嚴雅志潔修見斯崇臺高閣廊廡環列蒼柏垂陰囂塵不至信禪悅之清涼游棲之福地而饘粥無資住僧謝去梅獨發願欲振頽綱卒感善信檀施不絕清康熙二十二年地震樓殿損壞梅甚憂之因謀於眾為修復計會參憲陳公捐俸為助而前後殿堂扶危奠傾正其柱礎禪室厨庫次第綢繆俱臻鞏固弟子法源遠近叩請躬任其勞敝衣惡食一介不苟故經營二十餘年復告完善者雖曰梅為之主而相與有成源之功不可沒也

- 興福篇第九之七(正傳九人 附見三人)
 - 明五臺山聖光寺沙門釋福登傳
 - 雲南雞足山傳衣寺沙門釋寂觀傳
 - 四川黃龍寺沙門釋觀止傳
 - 曲靖玉泉寺沙門釋海量傳(來秀 性壽)
 - 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大艤傳
 - 潤州金山寺沙門釋洪肇傳
 - 湘鄉荊紫山寺沙門釋無學傳
 - 杭州上天竺寺沙門釋萬靈傳(萬富)
 - 端州慶雲禪院沙門釋道邱傳

明五臺山聖光寺沙門釋福登傳

釋福登字妙峰姓續氏平陽人續鞠居之裔也生秉奇姿脣掀齒露鼻昂喉結七歲失怙恃為里人牧羊年十二祝髮攜一瓢至蒲坡行乞村市夜棲文昌閣廡下閣為山陰王所建一日王晨出遊值登裴回階間見而異之謂閣僧曰是子五官皆露而神凝骨堅他日造詣殊未可量曷善視之頃之地大震屋宇傾覆登壓於下三日不死王聞益奇之因修中條棲巖蘭若使居焉登乃閉關習禪取棘刺列四旁以絕倚不設牀坐晝夜鵠立三年心忽開悟始至介休山聽講楞嚴遂受具戒策杖南走徧參知識浮南海禮普陀而歸復於中條深處誅茆辟穀日飲勺水又三年大有會心山陰王建梵宇於南山延登居之登每念二親幽靈未妥卜吉遷葬刺舌血書華嚴經一部欲報劬勞藉感人天復下山設無遮大會結文殊萬聖緣時明神宗御極皇儲久虛遣官武當禱祈請乞禮視高媒登聞之乃曰吾徒凡所為皆為國報本今宜專誠盡忠為皇上祈子乃啟會至百二十日九邊八省緇白奔赴者道路不輟事畢一鉢飄然結庵蘆芽期年皇長子生奉勅就蘆芽建華嚴寺造萬佛鐵塔于山巔加賜金帛命往秦晉中州飯僧已忽念故山往修萬固寺三載塔殿樓閣煥然一新渭川河水病涉宣府西院議建大河橋登應命至度之水闊沙深乃建橋二十三孔亦竟成嘗願範金成三大士像以銅為殿送三名山各就其顯化之地祀焉己亥春杖錫潞安謁藩王王適造滲金普賢像送峨嵋登言銅殿事王問費幾何登曰每座須萬金王欣然願造峨嵋者即具緇重送登至荊州聽其監製用取足於王殿高廣丈餘滲金雕鏤諸佛菩薩像精妙絕倫世所未有殿成送至峨嵋大中丞霽宇王公撫蜀聞登至請見問心要有契公即願助南海者乃采銅於蜀就匠氏於荊門工成載

至龍江時普陀僧力拒之不果往遂卜地於南都之華山奏聖母賜建殿宇安置遂成一大剎登乃造五臺者所施皆出於民間未幾亦就乙巳春躬送至五臺議建臺懷顯通寺上聞遣御馬太監王忠聖母遣近侍太監陳儒各賚帑金往視卜地建殿安奉以丙午夏五月興工鼎新創立大殿前後六層周匝樓閣重重列聳規模壯麗賜額大護國聖光永明寺工竣先事峨嵋繼事南海會倭夷構難海氛未靖中途而止乃三卜三吉至得寶華山詣京都奏請特敕許之賜予有加慈聖太后更賜造寺金及藏經佛像幢幡之屬落成乃之五臺鳩工庀材帝與太后復賜內帑建寺賜額建華嚴七處九會道場所費悉出內帑初五臺山路崎嶇行者苦之至是平鋪石片三百餘里谿有津梁道有亭院以相接待迄今利賴造橋於阜平縣賜名曰普濟築庵于龍關外勅曰惠濟院渴飲病醫皇慈施捨歲費帑金御書著妙峰額之于院隨頒龍藏起閣供之更創七如來殿又於阜平立長壽莊為太后祈福建殿閣七層賜慈祐圓明額以尊異之他如修會城道路石橋皆人力所不能登一一成之人服其神忽以微疾還山一日鳥雀翻飛繞簷喧噪逐之不去登曰百鳥哀鳴吾將行矣即命治龕眾見紅光接引端然而逝壽七十有三帝聞賜葬祭建塔于永明之西御書封號真正佛子妙峯高僧之塔太后賜金千兩布五百匹供葬事登起于孤微刻志苦修終身不著席一衲外無長物足跡所至屢有建立動費億萬天子聖母王侯卿相皆樂助其成豈偶然哉

明雲南雞足山傳衣寺沙門釋寂觀傳

釋寂觀字法界姓陳氏葉榆人生性純篤牛角喪母哀泣幾滅見俗演目連乃愀然曰欲報劬勞之恩非此莫能盡心因思出家往白於父父有難色固請許之往蕩山禮印光得度光學富理超貫激宗教既得寂觀知為後勁命名錫字開示殊深久之乃辭光曰南歷百城差別之竟已見東邁萬里難獲之法可求詎敢坐迷所寶辜負此生光改顏而遣之曰吾道行矣遂徧游名山乃至燕都叩徧融入室請益至再至三俱承印可時葉榆薦紳欽其名德累致書祈請卻之不赴後聞光寂乃回洧過響山遇虎眈目視之虎頰首而去後居雞足傳衣寺時寺燬于火乃危坐松下檀越感應不日興復規制弘備更勝於昔當眾務餘殷之日手不釋卷而事無墮廢風徽遠矣

明四川黃龍寺沙門釋觀止傳

釋觀止者未知何許人善講經論願力弘深天啟初遊岩渠見黃龍寺廢荒慨然以興復為己任法輪默運信捨景從殿宇樓閣赫然屹立學侶雲蒸更宏精舍破山明公曾為之記其略曰自鷲嶺分證而冷光熱燄莫可勝紀然幢幢列剎相望者無越黃龍也寺去城北二十里建自隆慶時興而復廢至

天啟三年觀止法師于是作師子吼地搖人震道逗羣機遠近響應則殿閣堂宇煥然一新咸乘師之疇昔願輪所致也顧慮法久生弊始問記于予予固未學敢以鼠尾續貂然事關象教興廢又誼不可辭祇可向冷冷孤光處撥燄寥寥疎影裏洞機聊寫墨滴以災劫石永同金剛不朽云爾

明曲靖玉龍寺沙門釋海量傳(來秀 性壽)

釋海量字大千南陽人七歲披緇日務勤勞不及文字恆守師訓誦拜華嚴以為常課歷久不輟每獲勝因凡所到處必感檀施明崇禎初年杖錫南來底滇曲靖有三岔荒山樵牧罕到豺虎夜嘯量於此處刈草覆葺復事華嚴魚梵響處二虎伏聽夜則擊柝遶山達旦虎亦隨之行與俱行止與俱止量殊坦然虎亦習之略不加害山居無水汲道甚遙未幾有泉從地湧出行之期年樵者跡之始見茅庵乃大驚異羣相問訊具道所以伏虎出泉莫不感歎膜拜而去遐邇聆之皈崇日眾大創禪林今玉龍寺是也久之欲遊雞足道過祿豐至獅子口時野盜出沒行人畏之量復架茆壘石出盆中餘粒以饒來者由是商旅驛使望而投歸因開山建刹直指姜公為題其額曰文殊寺且贈以詩群盜慕化皆知斂跡竟成坦途又於縣西避處半山之中建淨蓮寺山亦乏水量就道禮經未及期月果出甘泉但不可洗穢煮腥犯則立竭寂時壽已百齡僧臘九十三又來秀字雲聚亦河南人苦行自持初棲雞足後於四觀峰荆金頂山居數十年精勤不懈戒德少倫至崇禎末耆壽而化後有性壽三宗者蜀僧也亦於崇禎初至滇卓錫白馬山方擬建寺開基之日忽見祥光中成獅形金色燦爛大小不一因感黔國沐公賜諭題額助修善緣遂成巨刹今傳經寺是也寂年七十九塔於寺側稱開山祖云

明鼓山白雲峯湧泉寺沙門釋大艤傳

釋大艤一名元來字無異姓沙氏龍舒人也早歲禮五臺落髮往參無明於寶方閣傳鐙有省往見無明復茫然自失居久之隨無明至玉山聞護法神倒劃然絕解以偈呈無明無明曰子到門矣一日見人升樹恍如大徹走至無明所問曰近日何如艤曰卻有一條活路只是不許人知曰因甚不許人知對曰不知不知無明乃舉婆子燒庵及龍吟霧起公案艤皆頌出無明曰今日方知吾不汝欺也後隱信州博山學侶輻輳遂成叢席天啟丁卯鼓山僧眾方議合一剎作叢林曹能始觀察與鄉人聯詞延艤主之至則立規飭繩四眾翕然徒侶累千遂為始祖上堂春日乍寒乍暖春風倏有倏無若從此處會去佛法天地懸殊不從此處會又向何處去纔涉思惟成群作隊不思惟處又如何行人更在青山外居六月而歸崇禎庚午九月十八日示寂建塔博山鼓山僧徒更塔衣鉢於香爐峰前艤嘗登喝水巖吟曰雲磴如鱗

砌扶筇縱步行水從龍口出松倚石痕生濃樹藏嘉羽層巒疊翠屏懶譚西
祖意獨對遠山明

明潤州金山寺沙門釋洪肇傳

釋洪肇字縉雲姓高氏蜀人也性質聰瑩思力敏卓髫鬣之歲芟染於鳳凰
寺被甲律儀下帷經閣年十六參學南詢遍歷講席受戒於愍山聽法於巢
松一雨蓮峰二楞力修梵行操持罔懈既而歎曰正法道要唯在解脫拘滯
文字其能濟乎乃走少室參學於無言方丈之室侍立三載簞瓢之供日常
一食於是密參宗要身心豁然蒼蘊沁香醐醞喻味乃摩頂受偈依派傳宗
道法既明有無俱徹辭杖履飛錫吳門會潤州金山伽藍乍謝教鐘中否縉
紳士子僉契慈緣稽首請赴卓錫之日幡幢飛翔白黑忭舞洪肇念本慈悲
心懷信義權實安定通觀平等斗尺無私衣止一衲檀施雲委悉充常住苦
提之域枳棘滌除般若之杭橫流已濟群情充洽眾志咸服門徒贊誦不絕
於口以大徹堂為寶誌肇興水陸之地而像法久湮前修未續乃造水陸變
像六十四軸備其儀文建水陸閣度焉更於堂之前楹創立準提閣以奉香
像建置周密信施駢羅精舍攸躋度城斯感凡碩士令名道樞鼎望莫不響
風參請仰叩洪鐘肇應受融明機對敏給奉儀形者荷師子之威凜戒說者
悅甘露之澤雲雷拯其萬數藥草溉其根莖共喻法因均承善誘鐙傳雨潤
虛往實歸戶外之屨爛其滿矣肇密教內修肅嚴外度興復三有安喻四因
兼以創構聿興勤劬過瘁因仍成病猶自振飾乃太息曰吾性植虛恬願耽
雲壑因緣大眾墜影塵勞雖日飯萬人創楹千舍未足以益我性真曷若孤
松片雲蕭然靜寄無言自合無相誰離哉崇禎五年歲在壬申七月七日子
夜拈偈辭眾正目端身日建辰晷趺坐示滅年四十有七臘三十有九明年
四月九日同衣福城謹護法體歸藏靈龕建塏京口寶蓋山陽明潘一桂為
作誌銘追書本行勒之貞珉詞曰大德名化為天人師舟筏三昧鐙巨毘尸
慈雲覆身福河灌頂識解脫機破煩惱奔興慈運悲萬物調景往而不著行
而不永器為外假形為煙聚隨世生滅我無去住慧光無盡法身不遷塔樹
勿翦永對鑪煙

明湘鄉荊紫山寺沙門釋無學傳

釋無學姓王氏歙人也早歲為諸生後讀書齊雲巖閱華嚴合論有省遊黃
山履險幾墜觸悟機棄家投廬山依敬堂披緇受具後參諸方善自深藏若
不識字者唯愍心知之薦往會稽見湛然澄心心印合復謁雪嶠參谷泉入
龍潭既得法要笑曰吾決志自了不隨眾起倒也因携一瓢至南嶽徒侶雲
集西至湘鄉荊紫峰縛茅以居署其庵曰單丁破納晏坐六年四方奔赴乃
為演法授戒南入九疑劉侍御興秀為築室以居閉門獨處而從者麇至湘

人士苦迎出山無學示偈云世亂懶出山病多難開口閒坐深澗中高拱兩隻手已而入常寧訪阿育王塔獠民多信仰明崇禎癸未夏歸荆紫冬張獻忠陷長沙無學歎曰際此劫火焚如正吾橫擔獨步時耳因占偈曰五十三年獨養機與人同宿不相知者番獨自出山去鳥道音書寄與誰端坐而寂蓋荆紫鼻祖也

明杭州上天竺寺沙門釋萬靈傳(萬富)

釋萬靈字心臺姓邵氏仁和人萬曆甲申同侶世榮投華藏房靈源師祝髮食貧守苦備嘗險阻拮据自勞以營堂構嘗建別業曰靜處齋有終焉之志會大士殿圯議鼎新之靈與同志航海採木功成錢師相麟武虞銓部德園黃學使貞父俱崇護之崇禎壬申八月二十日手書遺示嘗三捨鉢資為雲棲飯僧至此復建道場七晝夜命徒眾聚而念佛取曆擇日日二十九日午時吾從此逝矣屆期更衣吉祥而逝壽六十二臘四十八萬富字春山姓錢氏雪人也禮上竺意正為師居秋香閣苦行清修丙申閣燬于火遂肇基普門之旁創興傑構不殫勞勩會上竺正殿傾圯復與同侶十有四人共謀鼎新終遂所願後以齒高多病謝去先是富築準提閣退息其中禮法華諸經晨昏靡間誦佛號日以萬計走天童受密雲大師戒越三年預知期至呼徒屬曰除夕吾正七也命浴浴罷猶手持貫珠輪誦而逝時七十有二

端州慶雲禪院沙門釋道邱傳

釋道邱字離際亦號栖壑順德龍山柯氏子母陳氏感神僧入夢驚而舉子故生時室有異光妙齡雜染後侍憨山於寶林典通內外心澈教禪乃度嶺至金陵親雪浪一雨深究宗趣復如杭參蓮池授以淨土法門付之衣鉢更入江右侍博山無異久之又入匡廬會同參家宗保禪師於金輪遂歸廣州道路傳聞爭相趨謁陳秋清梁未央延住白雲蒲澗學侶輻輳共坐枯木種藝自給嘗訪六祖路出端州望鼎湖山水秀麗策杖而入知為福地迺開山焉光是地主梁少川與清波延僧構庵其中共結淨社聞道邱至奉為住持竟成大刹內有涅槃臺慶雲禪院寮舍僧房非萬金不就道邱譚笑成之噫異矣昔憨山嘗遊此峯懸記曰不久當有至人于茲開山紀以詩曰蓮花瓣瓣湧滄溟寶殿高高傍七星白晝雲封無犬吠夜深說法有龍聽至是果驗寺無擔石之儲而眾至數百有齎金請置田者卻而不受開山十年未嘗困乏因白蓮盛開索筆書蓮花頌而寂

- 興福篇第九之八(正傳十一人 附見七人)
 - 清雲南雞足山斷際庵沙門釋寂定傳(楚石 普聯)
 - 四明大梅山保福寺沙門釋行幟傳
 - 公安玉泉寺沙門釋海福傳
 - 當陽東禪堂沙門釋性關傳(覺聰 本赤 印正)
 - 荊州天王寺沙門釋慧海傳
 - 四川雙桂福國禪院沙門釋海明傳
 - 盤山正法禪院沙門釋行乾傳(養心)
 - 黃檗山寺沙門釋隆琦傳
 - 興教萬壽禪寺沙門釋道仁傳
 - 黃檗山寺沙門釋性願傳(超炯)
 - 衡陽東山智勝寺沙門釋明德傳

清雲南雞足山斷際庵沙門釋寂定傳(楚石 普聯)

釋寂定字自如別號鐵牛姓張氏劍川人也明天啟間隨南禮科給事中揚棟朝之任金陵習見俗榮頗懷厭惡思捨去之恐不得遂乃解衣履置之胥井眉竟從之逸已乃知其至衡嶽為僧初受度於無相隱者時年十七後受戒於三昧復遊大江南北參請名宿博研經律仍返南嶽依顯愚得其法登壇講授名與師埒明崇禎辛巳歸滇住雞足山弘敷法席名振一時乃建斷際庵居之數載劍川趙鶴公州之耆儒仰其德教延至石寶山趙氏所建曰寶岩居寂定既主寶岩不復至雞足其時清師定滇明桂藩出奔緬甸故錦衣衛都督指揮段叵棄官歸與為方外交請為卜地石寶山頂填築龍湫別建佛頂寺寺成主其法席鄧川劉濤石致大藏一部度寺閣清順治己亥冬示寂壽六十一臘四十四寂定宗律湛深尤精教義書兼行草有閣帖遺意雞山猶存墨跡所著語錄詩文十卷未梓而佚楚石者自云湖南人而不詳其姓字明季遊滇至寶石山喜其林壑幽勝假榻寶岩居躬親汲爨課誦之暇輒吟詩詩成則焚之當寂定之主寶岩也緇素多在弟子列而楚石落落如故每與寂定論經律詩文多出意表嘗以箴言規寂定寂定深敬之及別建佛頂寺寂定兼主其席徒侶從之頗復相攜徙去而寶岩鐘魚聲歇廟宇紺落楚石傷之迺出己資於山麓別築數椽榜曰海雲居置田數十畝供香積一日謂弟子普聯曰吾欲去久矣徒以不欲負空乘三宿之戀與平昔告寂定之言始發憤與子別關生面今幸勉償志事子善守之遂去不知所終普聯字斷若劍川向湖村趙氏子幼從楚石披剃嘗稱其慧心苦行必光佛

土使至雞山受戒於非相寂定之主寶岩亦深器之寂定沒其徒頗慕之普聯不與校從楚石講授如故楚石創海雲居躬庀材木普聯芒屨草笠朝出暮入檀施麤至相與有成寂定寂後函骨二十餘年未葬普聯於海雲居左卜地立普同塔院始瘞焉並以寶岩同學諸釋子骨附之晚歲退院別于庵後構精舍曰梅溪室每於春秋佳日與文士勝流揮麈譚道以終其身生平勤於學嚴於戒果於任事而存心至厚人以為有古德遺風寂後其弟子歸骨普同更立浮圖於上以表異焉

清四明大梅山保福寺沙門釋行幟傳

釋行幟字法幢姓林氏瑞安人也原名增志明崇禎戊辰進士官中允甲申李自成犯闕抗節不屈酷刑幾斃賊敗乃間關南旋及聞大清定鼎燕京知事不可為遂薙髮為僧時年已五十四初讀書興善寺即契禪衲館頭陀山密印寺即唐宿覺道場也古殿將傾隱懷興復志日與僧摩相講習益知有向上事及作令蒲圻御史黃宗昌見僧摩有宗門三關語因問之曰儒亦有三關乎曰有不知為不知是知也者初關也吾有知乎哉無知也者二關也吾無行而不與二三子者三關也宗昌懌然結契彌厚及改僧服居呂峰山更厲切磋究心生死嘗具夙願再造密印祖庭卒達所志事多玄感詳載重興碑記壬辰曳履過四明登雪竇拜石奇僧受具足且付以法焉乙未入大梅山訪漢尉梅子真蹟鑿穢翦荆新唐僧法常舊觀蓋八百餘年荒庭至是乃得與諸佛子披霜立雪本分提持遠近趨蹌漸成叢林苒荏六載復還東甌庚子冬開鑪密印丙午應括蒼淨覺請以密印付多子無丁未夏季示微疾舟還陀峰八月十二日對眾說偈曰七十五年間打闢總無奇特出常倫而今撒手懸厓去一任諸方說幻真悠然而逝著有語錄若干卷

清公安玉泉寺沙門釋海福傳

釋海福字恒河姓吳氏名山人也少依峨嵋萬佛寺正陽祝髮年二十二始南遊參度門正誨付以偈云老僧亦愛恒河水洗盡凡塵即聖胎復至荆受一齋衣法惠藩將修護國寺欲得人監之以海福操持精嚴不昧因果強督其事功既成辭返玉泉因明季兵火化為榛莽浸成虎穴人跡罕至福歸即有興築惠藩贈金三百略助補葺乃斬茅理樹引流辟塗棟楹樑桷葺瓦磚石墜堊赤白一董新之無愧前哲更請於朝復除寺徭蓋自元鍾而後有造於玉泉者莫福若也以順治十六年二月二十二日示寂偈曰騎象牽牛西復東明珠穿破兩頭空本來面目尋常處付與來者好用功寂年七十有四塔於南菴

清當陽東禪堂沙門釋性關傳(覺聰 本赤 印正)

釋性關字遍雲姓吳氏鄖陽人少孤薙髮襄陽仁皇寺事惺然為師年二十遊吳越受華山三昧寂光衣鉢復得法金陵天界寺中隱西上荊州於聖水寺旁結茆曰松庵讀圓覺了義有悟後辟亂漢沔間時開講席人多重之順治七年入玉泉躬立東禪堂演法弘律歸依者眾順治十五年正月十二日寂于監利靈照庵二十年中駐錫十有八處講說所施津梁無絕所著語錄詩文戒不授梓故佚而不傳弟子覺聰本赤保守東禪鋤墾田土補修殿宇不墜舊聲後有印正字蓮月者岳池江氏子母喪聞僧誦經有三界火宅語悚然有世外之心因自斷髮出涪陵禮破山明尋具戒并授偈拂始開法于東印寺及入楚歷主福昌天皇玉泉三寺晚歲于玉泉增修毘盧殿勤勞二十餘年遂成叢社寂於康熙三十年七月十日壽七十有八著有語錄塔于寺東梅花洞北仙琴山

清荊州天王寺沙門釋慧海傳

釋慧海字水鑑別號沙翁姓謝氏興國人也少無俗氛常懷逸志年二十始披緇進具後精嚴戒律遨遊洛北講肄經論究窮妙旨頗能敷說然以生死事重語言文字終非上乘遂看本來面目探入幽窅苦莫能得沈悶無聊一朝飯後劃然廓悟乃謁徑山容復有增長次金粟琇禹門微虎岳忞互相發明後於吳興靈山敬遂稟法焉順治戊戌飛錫荊南嘗嘆像教陵夷古剎湮滅慨然以興廢自期偶因通志載有天王寺不知其誤也略致訪求御路旁有天王社者慧海以為即古天王寺舊址百計經營尅日鼎新其實荊但有天皇志載天王者即皇之偽也蓋天王為古代有天下之號猶天子也內典稱曰帝釋慧海以為天王者即四大天王之義乎而正名錄且辯之甚晰茲不具也康熙壬寅受儀徵地藏寺請至則重建殿堂輪奐美復歷主荊門之鐵佛鄂渚之黃龍漢陽之棲賢二十年中六坐道場後寂于天王著有語錄四卷寺志二卷尤工詩詞唱和多名流而無傳集

清四川雙桂福國禪院沙門釋海明傳

釋海明字破山人稱曰萬峰老人姓蹇氏世居渝城後徙大竹遂為大竹人生含聰睿質挺奇標識者謂其狀類黃檗年十九祝髮於大持庵以融光尊宿為師偶聽慧然法師講楞嚴經至一切眾生皆由不知常住真心性淨明體用諸妄想此想不真故有輪轉終日疑悶乃讀古人語錄頌古無可入處遂孤身出蜀見數耆宿莫能取決俄棲楚之破頭山經行萬丈懸崖自誓刻期取證限以七日日盡晌午忽見銀色世界一平如掌信步舉足不覺墜岩左足已傷尚不自知胸中塊磊渙爾解釋但叫屈屈自此出山南行見憨山博山雙髻雪橋諸宿微有啟悟再謁湛然頓圓大戒聞天童密雲悟赴金粟徑往造請機語契合竟付以源流一紙信金一緘祇受而返息止苕溪崇禎

己巳冬嘉禾紳耆嚮其道風請主東塔遐邇學者歸之如雲王申春張金吾振宇馮銓部伯井皆蜀人請明還蜀闡化鄉里而明亦動峨鷲瓦屋之思辭密西邁卓錫萬峰古剎既而中慶佛恩白兔已振威音鳳山棲靈祥符無際並撒布衣感紳薦之歸依受藩王之隆養二十年間九坐道場譚梁生司業所云花開攜李果熟蠶叢者信不虛也明季甲申之變刀兵橫起殺人盈野有李將軍立陽者殘忍尤甚人呼李鷄子嘗請明至營中明思導以慈念化其殺機陽遂強之食肉明曰公不嗜殺人僧何惜一口陽曰弟子不殺人願師常肉食然每於暴怒之下多所全活時以曹山酒誌公鵠比之尤有足多者清順治癸巳蜀難漸平乃回梁山依金城寨去寨半里有舊紳別墅尚餘老桂二株葺而居之顏其堂雙桂院曰福國未幾四眾歸之遂成叢林山門佛殿一時聿新康熙甲辰總制李凱既定巫山道通川楚以母喪故再使延請明不得已杖錫巴渝盤桓九旬相得甚歡及其別也李公亨之牢醴明喟然嘆曰昔遇惡魔而踰閑今逢善友而昭戒從茲不近酒肉矣遂辭而歸丙午春年已七十餘道俗稱慶來者萬指方祝無量無何示疾垣化時康熙五年三月十日也壽七十四臘五十九塔于梁山良龍山麓別眾偈云初開劫運九開爐七十年來志不渝每見駒隙難度尾常聞老蚌易生珠得法弟子八十餘人可謂英靈並集已而或疑其濫不知明際鼎革狂禪滿地過於峻拒恐將折而趨邪故以傳法為衛法也明著述最富其傳者破山語錄山居詩雙桂草諸集幾盈尺已付梓云

清盤山正法禪院沙門釋行乾傳(養心)

釋行乾字大博姓胡氏達州人也母夢神人抱子入懷及生時白光彌室年十三祝髮西聖寺後入都門愍忠寺得戒復南詢參萬如微公於龍池機契乃付衣拂歸而出世于天津地藏法幢既樹祖燄更輝已而之燕山結制于法通寺復結制于弘善寺比及三年乃北遊磬山有薊州僧來儀者慕其行誼精嚴以古中盤精舍一區獻之乾亦喜其連峰疊嶂嵌空突兀澗谷委蛇果樹茂蔚誠禪悅之勝地特規模狹小院宇不完思欲廓之以為叢林卒得和碩諸親王之助成茲寶坊額曰正法禪院以康熙十二年八月十日冥坐而逝乾坐道場十有四處說法十有七年著有語錄四卷董閭為之序其塔院碑記則魏裔介所撰并見山志又養心尊宿者耀州陳氏子初謁博山無異苦行力參久之有得乃北來歷叩名宿居無常所順治辛丑至磬山重興法藏寺衲子歸之後不知所終

清黃檗山寺沙門釋隆琦傳

釋隆琦字隱元姓林氏黃檗人也生有靈徵幼志凝重因父遠遊不歸絕意婚娶附舟詣補陀禱祝睹大士境界遂欲軼塵乃禮黃檗鑑源為師薙染易

服遍造諸方潛穎真參心光燦發聞密雲居金粟逕往依之始露頭角機鋒酬酢迴出尋常密雲甚相契重逮受黃檗請琦迺偕還舊山結茅於師子巖隱安繼主檗山琦本同參則延之領眾因繼其法費隱既受別請林御史汝翥與士眾請居祖席始出世焉坐夏十稔指踰三千鞭龍策象聲光遠播萬里扶桑梯航申禮祈教彼土懇請尤摯琦亦自知信於東倭實有宿緣當為了之故揚帆破浪海若效靈遂底長琦島主欣迎萬象雲擁駐錫興福益以崇福兼茲二刹法雨所施罔不沾溉受請普門國王大將軍咸來致敬寵錫優渥珍服名香絡繹充積琦亦漠然惟思流通正教弘我佛旨但每念祖庭時有故山之思國王感其眷戀乃於太和山更起梵宮仍名黃檗以慰其心移居未久舉首座性瑄自代退隱松堂國王為建壽塔優游泉石十有餘載預知報謝乃示微疾彼國王臣慰問再四皆裁偈酬答端居而化康熙十二年癸丑四月三日也壽八十有二臘五十有三得法者二十二人有七會語錄琦貌魁偉秉性剛正苦行高誼具在年譜檗山大眾仰其餘徽為築衣鉢塔釋如幻弘為之記銘見瘦松集

清興教萬壽禪寺沙門釋道仁傳

釋道仁字惟誠姓鄭氏福唐人父玉立母吳氏將誕之夕祥光滿室鄰里異之幼而失怙養於舅氏仁體貌清俊舉止端凝毀齒之歲便厭火宅其種性然也年十三禮福唐靈巖良真出家左右服勤無間寒暑隨真入黃檗祖山而福嚴費隱方開法席仁祝髮入堂時祖席重光英俊雲集有西堂時恒師解行兼優通內外典仁常親炙奉為楷模而默究本分晨宵無間因參趙州衫子語久礙胸次一夕經行堂中舉頭見琉璃燈將滅復明瞥然有省遂頌曰趙州用處天然別提起布衫重七斤只是尋常家裏物令人千古亂紛紛即書呈費費領之自是益加奮厲受具後雲峰巨來繼主席見仁彌加器重勉以法語隨眾入堂屢受鉗鎚生平所得渙然若釋雖久往檗山幾閱爐鞴而腳跟脫落實在此際泊巨遷羅山至住漳之報劬廣嚴仁皆殫力輔贊眾咸皈仰庚寅歲始承屬付應青山之請丙申游金浦有懶雲上人請居梁山白雲洞丁酉重興清泉巖巨命專使齎贈源流法衣庚子冬受總鎮王公敏齋請出世興教萬壽禪寺寺自唐妙應開闢以來已歷千載香煙灰冷鐘梵無音仁來蒞止道風遠播四眾雲臻數年間佛殿法堂山門廊廡一以新之而金像夾輝華麗勝昔雖曰檀護傾輸亦仁之德誠感孚有以致之也癸丑秋偕眾遊月江歸而示疾日以耗損緇素踵至勉以精誠自來知好修書言別若話平生臨化之夜呼行者汎埽曰吾將行矣弟子元昇問末後一句仁曰踏徧周沙界脫體月明前曰畢竟向何處去仁曰何處不風光遂奄然而寂康熙十二年十一月十二日也塔於青泉之左釋超弘為之銘

清黃檗山寺沙門釋性願傳(超炯)

釋性願字虛白姓林氏江陰人少而穎異記誦不忘與羣兒遊未嘗嬉戲年十五隨父過城山訪無生大德欣慕禪林懇求二親允從出家聞天童密雲開法黃檗多以棒喝接人心甚疑之有超宗自樵李還與人言舉臨濟參黃檗三棒因緣性聞之躍然始知知識用處迥出常情因勵志參究嘗詣獅巖叩隱元見而契之及應黃檗攜之入山遂登戒具又往參金粟費問蚯蚓斬作兩段佛性在那一頭性請開示即驀然一棒直得迷悶盈臆寢食不寧欲徹此懷因看百丈政禪師語錄老宿見日影透窗問語因緣忽有省乃頌曰窗就日兮日就窗現成一物露堂堂房中有客好歸去莫向渠農問短長呈似西堂玄密密曰何物露堂堂性舉拳示之曰見麼密擊一棒云且道是賞是罰性喝密亦喝遂作禮而退俄隨密回閩住芙蓉密寂復還檗山後住長樂德成巖忽憶古人云差別未明住山無益重詣黃檗更進侍寮潛鞭密練益臻玄奧及隱元乘桴浮海倡道扶桑性乃潛處松溪白雲庵隱元遣使航海萬里付與法衣以表信尋有江西之行路出寧化緇素懇留重興東山古剎寺前長橋久頽行者病涉乃募千金先為築造鼎建寺宇規制弘麗遂為甲觀落成未幾黃檗耆宿以玉融檀信敦請繼席性至重法剔蠹揀魔辨異登堂演說如香象渡河徑截逆流鵝王擇乳不事亂喙以故諸方翹仰龍象駢趨有浙僧冒稱福嚴法系持數十金入山掃塔性驗其非是而卻之有楚僧頻以怪異惑眾領宰官善信至寺設宴性疾其邪斥之而逃時或以為執拗後兩僧皆敗露人始服其卓識居山十載怡養恬靜氣韵孤特而誘進初機唯恐不及挫敗類之偷心指學人於實地皆從自證中發用真切生平法利所獲悉付司庫及將遷化囊鉢空懸以康熙十二年癸丑六月十四日示寂得年五十有八坐夏四十三塔於黃檗寶峰山又超炯字參唯亦得法於雪峰巨後居漳之天柱建之武夷晚隱泉州安溪之妙峰復結茆紫溪山中竟終於此炯賦性孤硬律身苦嚴耿介卞急見稗販闖葺汗巖法門必痛加訶斥緇素之倫敬而禪之凡所挂錫則檀信向慕為築精舍意有不可飄然長往不繫情去留性喜施與不蓄長物貞風峻節砥礪末流及將滅度忽至清谿與所知好李太史在明語別殷殷但言遣遊莫喻其旨歸而取生平著作文字悉燔棄之泊然而逝闍維頂骨不壞時康熙乙巳五月二十二日釋超弘如幻並銘其塔

衡陽東山智勝寺沙門釋明德傳

釋明德字本無亦號明愍姑蘇人幼歲捨身於練川西隱寺初為沙彌便耽禪味及長得戒於龍興美元長老會明季兵燹四起避地南來禮拜衡嶽更尋幽僻卓錫於穿崖洞煙竹村村外東山高千仞常見紫氣飛騰其巔有石窟石岩石穴虧蔽日月遮護風雨開闢以來莫知年歲相傳為謝氏地德跌其巔數日不起土人感之竟訪其山主乞得片地築廬而居山故多虎豹薪

采者苦之自德戾止虎亦馴化雖與人遇略不加害寂於康熙癸酉壽九十
餘塔於山陽

- 興福篇第九之九(正傳十一人 附見十七人)
 -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老藏傳
 - 仙溪城峰禪院沙門釋一空傳
 - 漳州南山萬善庵沙門釋無疑傳(行勉)
 - 杭州靈隱寺沙門釋弘禮傳(戒顯 濟玆)
 - 公安報慈寺沙門釋濟亮傳(問石 原直 樹可徹 雪幹遠)
 - 大瀉山寺沙門釋明應傳(要旨輝 敬元足 浮雪正 天樞鉉 遠目敬)
 - 臨安迎恩寺沙門釋淨極傳(普灼 妙庵 性融 悟禎)
 - 金陵靈谷禪寺沙門釋宗運傳(際曙)
 - 杭州靈隱寺沙門釋性證傳
 - 仁和良山崇福寺沙門釋超海傳
 - 四明阿育王山沙門釋持荃傳

清五臺山清涼寺沙門釋老藏傳

釋老藏者本曰老藏丹貝蒙古大喇嘛行二字略也初入衛籍為趙氏居京師禮崇國寺僧為導師又嘗師土波沙門藍建巴始至清涼居中頂及羅睺結念所依數歲不去後復遠涉土波蒙古於其國語言文字靡不通曉更自清涼山歸崇國寺時清室龍興世祖入關定鼎燕都褒崇佛法雅慕高僧己亥歲詔眾推選清涼山住持僉舉丹貝庚子卓錫茲山辛亥受鉢蒞眾重葺經堂遠接水雲廣護人天不分畛域聖祖御宇鑾輿西狩遂幸斯山至菩薩頂則金碧輝煌筍虞璀璨花臺寶幢尊嚴峻肅異於他處獎賚有加既而奉命監修五頂精藍悉力殫思恭恪從事甲子復以陳請山顛大殿改覆碧琉璃瓦自山入都跋履艱辛遂成勞瘵偃臥崇國乃邀恩眷日遣御醫調治終莫能瘳及其滅也賜金存恤闍維塔於鳳林谷生平樸質沖澹器宇疎朗妙解文義兼工書法其於學也專事薰修蓋息心淨行之流以康熙二十三年甲子五月示寂春秋五十有三僧臘四十有四乙丑夏其徒丹巴將泐碣山阿述其行狀乞翰林院侍讀學士錢塘高士奇為之銘文具山志

清仙溪城峰禪院沙門釋一空傳

釋一空字朗然姓郭氏莆陽人也幼失怙恃依叔氏居恒持齋素年十九叔為謀婚娶強使肉食因走入壺山石泉寺從閒公大德剃染勤苦精能靡間朝昏聞閒公所舉機緣懷疑不決常提父母未生前語一日歸山擲石敲門

有省乃發志參方首造鼓山叩雪關染指法昧返莆尋天壺舊址縛茅而居率徒力作樵薪種茶以給餽餼昕夕焚修不墮厥規復參黃檗隱元為典庫鑰傾心血眾道譽籍甚會時學開法漳之廣嚴卷械相從酬酢投契水乳相合承其屬累時移天壽福廬皆竭力輔贊法化大行莆龜洋禪寺唐無了慧忠二禪師故剎久歷劫火荒殘殊甚空受眾請率徒躬耕不憚劬辛每以向上相提撕不數載百廢俱振祖道重光晚歲移住仙溪城峰院兵燹之後山門寥落營求締構煥然一新衲子麇至望風恐後甲辰三月方值誕辰即告眾曰吾今六十有一臘四十餘生平向饅頭邊成辦箇事實非草草今且休矣不數日遂示寂康熙甲辰四月七日也空雖尚貞樸汰除浮薄潛鞭密練不愧古人居龜洋時旦坐方丈有虎跑伏階前空為說三皈依竟攝尾去又一日經行客寮有巨蛇長丈餘當道侍者欲擊之空止之曰彼以毒來我以慈受亦為授三皈依蛇逡巡退眾皆異之平昔拈頌機緣言皆見諦吟咏篇什亦多天真流暢知其所得深矣塔于天壺東岡釋超弘作銘

清漳州南山萬善庵沙門釋無疑傳(行勉)

釋無疑姓林氏浯海人中歲厭俗禮印指披剃於金門寶月性姿純實篤杜多行雪峰巨開法羅山無疑知院事拈据劬苦以身率眾時承激發知有向上事逮巨移住芙蓉乃結茅於三秀中峯耕種自足不染外緣俄遭寇亂同安石尾相繼淪陷僵尸填城野偕其徒行勉達已拾厥遺骸聚而瘞之於同安城北立兆域以識曰同歸所壬辰漳城被圍幾七月城中人相食及清兵南下轉戰百里積骸如山無疑復領徒眾行勉觀素輩收斂錄觸於烈日苦雨中備嘗辛艱亦立同歸所於南山寺更建萬善庵香鐙鐘梵以利幽冥遠近聞之皆感泣涕漣以為真大士行願也及乙未歲仙遊陷被屠無疑力起犇赴掩霾如前計十年中所瘞尸骸何止萬眾斯生民之慘變而苦行悲願其功德誠不可思議同安有甘露遺址檀越陳公慕其道誼延之鼎新又嘗住輪山圓通寺重修大殿足壯觀瞻一時雲水至者如歸俄而示疾數日淹化行勉者浯海蔡氏子年二十薙髮於寶月庵因讀石室語錄有省遂造青林參重眉服勞數載值世顛連人罹非命乃隨其師躬掩埋之役戮力為多又募砌石尾城通溪石路數里以便跋涉重眉主漳之隆壽復依為化士遂付以偈山居四十年所居亦數易俱以力耕悟道晚隱溫陵金粟刻苦不懈無改於初及將入滅寢疾於示現庵沐浴更衣而化亦塔於甘露

清杭州靈隱寺沙門釋弘禮傳(戒顯 濟玆)

釋弘禮字具德姓張氏紹興人初為鍛工好與黃冠游有紫陽洞蘇道者教以息養方本天台小止觀與首楞嚴合因讀是經而發正信投普陀寶華庵仲雅祝髮既受具乃參三峰漢月藏禪師因承記莛授以臨濟正宗是宗在

明初法運中微漢月初從折竹洞悟徹盡法淵後乃得源流於金粟悟而其始終加護者則在綱宗綱宗者全提五家宗旨而於臨濟則從一句中分寶主玄要照用堂奧森嚴使學者不滯鑑覺洞抉佛祖心髓弘禮聞之亟往參叩時漢開法安隱以本來面目示之苦求未得偶窺鏡見影被同侶一推猛然有省由是精進服勤左右歷三峰鄧尉者十有七載徹悟宗旨遂承衣拂三峰既歿同參潭吉忍著五宗救弘禮贊助居多書成而闡揚綱宗三峰道法始曉然於天下雖當時辨難三峰者持論不無異同是書一出淆譌立判矣潭又告寂弘禮歸隱雲門御史念臺劉公請主廣孝寺陶鍊學人名動諸方繼遷安隱顯寧復應江北請說法泰興之慶雲秦郵之地藏維揚之天寧嗣居佛日靈隱會稽華嚴徑山先後十坐道場開大法門雷震海內在天寧日湖海浩歸衲侶犇奏所謂五千衲子下揚州者紀其實也靈隱方興巨工事同開剎大殿火重新之施者坌集購大木於深山人力罕致一夕雷雨暴洪汛漲浮湧畢達缺一石礎感神示夢因之募得故功成鉅麗甲於天下又以其餘葺浙之廣孝安隱法相靈峰諸寺而徑山頻以興復請乃以靈隱付其徒晦山而自往徑山將興法席為弟子巨渤封塔再至天寧臨行機語皆似息機投老者既至七日刻晷為筵熱香禮佛五鼓易衣端然坐逝時康熙丁未十月十九日也壽六十八僧臘四十七塔於靈隱慧日軒吳梅村祭酒偉業為之銘著有弘宗說正訛說二書弟子晦山戒顯太倉王氏子弱齡游泮有聲庠序甲申之難作文告廟入金陵禮三昧祝法受具參天童雪橋遇靈隱弘禮於皋亭大悟雲門拄杖諧遂得法初隱廬山開法雲居歷主東湖薦福黃梅四祖臨皋安國武昌寒溪荊州護國撫州疏山化行江楚道望大著所至興建不後其師康熙丁未繼席靈隱著有禪門鍛鍊說十三篇現果錄佛法本草及語錄詩文集若干卷又五嶽濟亥者古越吳氏子亦弘禮弟子生時人聞空中音樂三歲誦心經如宿記成童出家依石屋年十七遊方登講肆詞如瓶瀉受具天童密參西來大意便有人處歸越沙溪將盥觸翻水盆得大灑脫出而遍叩謁弘禮於顯寧遂授以法其倡化諸刹皆亥佐揚之力為多出世安隱遇火重興之道譽流聞相率敦請如福善夕照隆平諸刹先後戾止津梁不倦及靈隱虛席遂補其處振緒飭綱紹芳先哲和碩康親王慕其高範敬禮有加焉

清公安報慈寺沙門釋濟亮傳(問石 原直 樹可徹 雪幹遠)

釋濟亮字灰如姓王氏萍鄉人也父本儒素母簡氏亦有善德世積醞和感徵吉兆故亮生有夙因幼習誦讀便喜內典鄉塾之後樂近僧徒因告二親願出塵網竟弗之許年三十乃託商游楚舟次繡林始從自性老宿薙落俄而受戒大瀉訪道吳門首依大樹證公遵教參究久之大有發明蓋已升其堂矣後歷天童三峰徧謁諸老咸以法器目之亮殊以大慧未圓悟時深警策已而聞問石唱道天隆遂往依之服膺拳拳三易寒暑曲盡大法所謂五

家宗旨不傳之密俱從定力得之如指諸掌更無所疑因仍反楚住于夾山是時問石亦應楚藩之請道重湖南北間亮則屏息於碧巖青嶂若弗聞也者待其退席白雲乃走僧致詢白雲門庭高峻不輕授人顧於亮眷眷弗捨若風穴之於首山焉亮終自韜晦時思引退乃靈巖挽之於前檠庵推之於後而原直且激勵之使之出世原直道眼空闊不可一世於亮獨傾倒篤摯勉令升座九峰萬眾歎服未幾應公安報慈之請寺本創自唐時藏嶼禪師曆宋迄元宗風蔚然殿宇宏麗明季鼎革燼于兵燹雖圓通一殿古制猶存亦僅支梁棟而廊廡寮舍蕩然俱空白亮率彼高足憇錫于茲法幢既建檀施旋集曾不踰期而法堂禪關香積之厨次第具舉雖築垣植樹事必躬親蓋弛笠之時但見莖草晏坐之際蔚為寶坊矣後為湖南撫軍衡齋周公請赴白雲亮亦自以為得法之地力為興復慈風所扇神人悅助舉已失之土田久廢之殿閣於荒煙蔓草中恢擴崇隆悉復舊觀謂少酬夙願而亮亦勤瘁矣公安二聖寺者初始安遠二公佛東圓悟亦嘗於此演唱宗乘廢毀已甚亮久懷興葺乃建立就緒適值南詔之變兵抵江介亮年臘已高弟子迎歸報慈一時悍弁武卒入其境者莫不展敬迴怒為悲其馴感暴惡如此亮性剛介嚴冷輕名重道志堅行密去留無所執恠所至之地如威鳳卒止百鳥翔集契嵩善嗔慈明喜罵亮蓋兼之而徒眾益盛遠近趨風隨其根器各有所造以清康熙辛酉冬十一月二十九日示寂壽八十臘四十九荼毘得舍利數十所著語錄四卷塔于寺西原弟子樹可徹雪幹遠復繼其志重修大雄殿藏經閣不數載興廢舉墜光復舊物皆足砥柱末法唱導叢林雪後繼席報慈樹又徇神山之請興復祖庭矣

清潭州大瀉山寺沙門釋明應傳(要旨輝 敬元足 浮雪正 天

樞鉉 遠目敬)

釋明應字易庵姓蔣氏龍標人也將誕之夕母夢白象到門驚寤而婉紫胞裏體父異之因名象蒂雖在髻齒頗甘素茹既終親養決志出家投武攸蓮花庵祝髮謁大瀉慧山海圓具執侍左右參三不是諳有省乃行脚吳越徧謁尊宿久之覺真淳之氣終以瀉阜為優遂還山不出間檢傳證至雲門章次頓舉平昔疑滯渙釋無餘從此精修孳孳昕夕苒苒寒暑十有五載服勤既久因受記剃首眾代講初開法朗州西禪風行沅澧清康熙庚戌應上湘白雲古貌嚴冷略進枯株提倡死心叟之為人昭示來學矩範一肅甲寅更主龍山別立堂奧諸方頌之丁巳大瀉虛席寺眾啟請五讓乃就既至百廢具舉宗風大振聲施愈遠已而白雲性宗上人再請蒞席晚節卓然策勵門子不少弛假道譽益崇感其邑宰及諸檀護敬禮優加殿宇廡廊一革其故號為中興方及落成遽示微疾封龕舉火俱自留偈時康熙乙丑孟夏十六日也年五十有八臘三十有七著有法錄數卷初至白雲山鳴七日卒符其兆塔於白雲山下西甯陶太史之典為之銘焉嗣法弟子曰要旨輝曰敬元

足曰浮雪正曰天樞鉉曰遠目敬皆能纘紹不愧師承輝為豫章冷氏子初禮大冶青山薙染受具後偕敬元參大瀉慧復隨易庵於白雲發明大事同承記荊辛亥輝主白雲院事行道六載遠邇禪芬後闢青峰因巖結構輪奐鼎新傑然物表著有法言數卷足師曾住壺天之歸雲褒忠之白雲婁席之大悲上湘之三峰大施鉗鎚造就方來及赴龍山紹厥先緒輯錄永鐙巨典垂諸來葉厄坐孤峰匆匆一紀而大瀉啟迫及主其席摘蠹拯敝百度更新三聖殿水雲堂次第告成復修禪譜山志期年之間功績昭昭亦有語錄數卷正字浮雪衡陽劉氏子從善權薙染圓具於古梅參易庵受記隨至白雲興復之功多所贊助實鉉字天樞臨川張氏子始投衡陽青獅峰省元薙染詣岳麓肺上人受具首謁易庵於龍山承記荊後六坐道場其住白雲龍山尤多繼述有語錄四卷實敬字遠目別號漚花道人邵陽周氏子六齡從淨明祝髮年十一侍易庵窮究玄理聽墮盃聲有省詣易庵求證便問萬法歸一曰水歸原在海又問一歸何處曰月落不離天自是機峰秀發清康熙時於上湘闢蘿月庵荆鳳林寺皆前所未有己卯住白雲前後十餘載重修大殿塑大像置百人香火田雍正十一年加封佑祖大圓靈覺禪師齋僧五百實敬躬逢其盛吁亦難矣

清臨安迎恩寺沙門釋淨極傳(普灼 妙庵 性融 悟禎)

釋淨極字達一姓曹氏兗州人也明崇禎甲戌遊南嶽從學明落髮後參諾諾大師有悟清康熙癸卯入滇初至臨安修迎恩寺庚戌居雞足重建迦葉殿寂于戊午冬年五十餘普灼字中也太和人祝髮於雞足傳依悟性敏達繼謁無住受具於大理崇聖寺掩關十年德感郡人重興其寺一覽煥然歸者日眾不可勝計寂年六十六僧行四十妙庵字石樓昆明張氏子年十二詣筇竹得度性極穎異質近生知歷參名宿授以狗子無佛性語矢志勤攻遂有悟入機辯如流德業精雅士庶欽重數興古剎寂年五十九僧臘三十五又性融三昧廣濟周氏子童時見朝黃梅者即起信心願往從之及長禮普陀回舟放洋遇颶風波濤大作船眾漂沒獨性融負屍得度望海禮拜因感無常欲超塵網父母既喪詣黃梅求度因事不果後至黔遇本空始從剃度乙未遊滇參無住遂入定遠白馬山結茅潛修時土官李仁捨宅為庵延性融居之復於獅子窩開建妙吉祥寺數十年間紺殿巖然法物備具清康熙甲子歲綏遠將軍蔡公為請大藏作鎮名山寂年六十無疾告終又悟禎字友山姚安高氏子出自華胄性契禪修因棄職出家創建曇華寺精修梵行數十餘年凡經古剎名藍偶見破壞者無不矢願重修必使棟宇增華佛像光輝而後已積誠所感卒償其願清康熙己巳秋吉祥而寂

清金陵靈谷禪寺沙門釋宗運傳(際曙)

釋宗運字于南師事南屏豁堂晝夜密參豁公印可即付以法大興靈谷弘開講演時經兵燹之餘山中幽寂陰雨啾啾夜聞鬼哭運至攝以道力利濟幽宴其聲遂絕值歲荒獨錫走句曲為眾乞食賴以樂飢豁堂嘗挂吏議繫于圜室運聞倉皇就道竭力營救事乃得解當其將至靈谷也值明室鼎革寺宇荒涼眾皆出亡有僧夜夢伽藍神語曰將有大知識來興此山一旦無量殿上忽放異光鐘樓大鐘不叩自鳴是日運至其感應如此後重修毘盧殿惟務德感不事攀求而善緣自集寺傍種桃萬樹當春如紅霞照耀掩映林谷望若仙闕或以為羽南者誤也又際曙字曉蒼山陽人康熙辛未入主靈谷經營葺理百廢具興重修寺志丁亥春聖祖南巡翠華幸寺雍容奏語深承帝眷御書聯額賞賚有差為一代異數云

清杭州靈隱寺沙門釋性證傳

釋性證字無新姓鄧氏錢江人早歲從靈隱易庵薙髮相依日久重其樸誠以法器待之密傳衣鉢證復韜采匿光徧叩老宿具聞法要值靈隱重築廢宇締構煩艱工徒千指仰食餅盃丹腹既畢首復宋直指堂於是飛來峰坊廻龍橋密因閣冷泉石門諸勝皆一時煥新而棲雲介如古心愍山率樂就寺弘法講席之盛甲於東南晚歲靈鷲隙起潛叩檀護盡力保持幸免摧剝改易輪殿重新韓蘄王翠亭歲補九里松晚猶不倦更護飛來竹樹於斫伐之際存古禪堂於崩敗之餘改廻龍橋於山洪未發之日五易大殿柱所費不貲致峨眉老僧萬里寄語凡所建樹出自實行嘗對人言我來時赤條條去時豈容一絲自挂故破衲而外無長物也生平於持名反念默自體會不復以機鋒自顯化去之日徐疊雙趺有六十四年打攪常住之偈可謂踐履純篤矣以康熙乙亥五月五日示寂塔于北峰之麓陳繼儒為作行業記

清仁和艮山崇福寺沙門釋超海傳

釋超海字四航福巖僧也傳臨濟三十三世福巖與崇福本同宗派康熙丙申里人吳岐生吳道深親詣石門啟請至再海始應命飛錫翩翩惠然戾止雖喬木陰濃新綠可愛而棟宇傾頹規制狹小海有道聲徒侶朋來累千餘指室不能容於是宏構禪堂剏大悲閣重葺殿房丈室廚庫以次興修六載告成壬寅六月翛然引退旋主餘杭龍泉雍正乙巳士眾同詞請歸崇福以雍正戊申四月朔日示寂世壽六十有七塔于院西南清宮港傍有語錄一卷為侍者普兢所編皆海主石門福巖餘杭龍泉及崇福時法語海雖明禪宗而接眾論道以淨律為先可謂不忘本矣寺剏於宋燬於元建於明永樂至清初荒廢已甚佛像沒於草中海為中興云

清四明阿育王山沙門釋持荃傳

釋持荃字嵩來六齡芟染初依鎮海海雲庵雖屬沙彌已露頭角年十六為大僧始參學於育王秋遠一見器之留掌書記大藏之外兼及百家穎悟貫通頗窮妙理迨秋老謝世荃以次相繼主席初育王久經殘燬一望蕭然舍利殿外僅方丈數楹荃苦心焦慮締構經營荒煙蔓草間忽見金碧輝煌遠近緇白咸深讚頌宗風大闡學侶雲集乾隆十六年春翠華南幸荃隨班奉迓於武林乃聖眷東顧稠人廣眾中獨奇荃儀表召至馬前垂訊殷殷酬荅無爽賞賚有差回鑾後又賜御書心經一卷二十一年再覲天顏特賜紫衣他物稱之荃自遭際恩榮益知策勵復造承恩堂以大其賜精進修持老而更篤寂於乾隆己卯十一月二十日著有語錄一卷弟子證性編而刻之今見傳本

- 興福篇第九之十(正傳十四人 附見四人)
 - 清江甯古林寺沙門釋普璠傳
 - 虞山福興寺沙門釋然理傳
 - 維揚智珠寺沙門釋性賢傳
 - 姑蘇治平寺沙門釋性言傳
 - 鎮海瑞巖寺沙門釋宗輝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圓琳傳
 - 龍城雙鳳山朝陽寺沙門釋語蓮傳(吼天)
 - 孤嶼江心寺沙門釋通榛傳
 - 燕京龍泉寺沙門釋真如傳(月天寬)
 - 衡山曉霞峯沙門釋續桂傳
 - 當陽玉泉寺沙門釋惠證傳(寂清)
 - 衡陽太和菴沙門釋果法傳(清和澄)
 - 新化四願禪寺沙門釋慈源傳
 - 長沙定湘王廟沙門釋續成傳

清江甯古林寺沙門釋普璠傳

釋普璠字魯玉姓趙氏黃梅人也賦性孤高不偕流俗早歲雜染受具後務絕世緣獨精戒法而心思敏達每讀經論別有悟入故于宗律二門融會貫通獨標玄旨緇素之士奉為津梁清雍正九年有富人閔君仰其清望諮訪要妙既聆法語便爾心折因請易青石戒壇築磬成之雕刻精工時世罕匹其善氣感物類如此主席十三年雖就衰老猶勤焚修以清乾隆元年二月二日示寂世壽七十有七戒臘四十二塔于山後

清虞山福興寺沙門釋然理傳

釋然理字智宏姓趙氏本宋宗室藩守蓉城世居江陰父子祥母裘氏理生有夙緣幼而穎異依近邑廣福寺大乘為度師年二十五秉戒於寶華閔緣鑽研律部精進不已後至姑蘇入真諦利咸室分主婁東海寧大施法雨化導彌多雍正元年應虞山福興之請時殿堂圯廢廊廡蕭然榛草蔓延香煙斷絕千年古剎代有高僧荒蕪若此心焉傷之遂立弘誓殫志修復而歲值凶歉一粥難支又前者棄產負糧迫呼日迫幸檀越不遠化施相應陶太史汪宮贊皆力為護持虞山趙氏同出江陰亦竭貲相濟二十年中頽者葺之

廢者興之昔日榛莽煥焉改觀甲子冬年己六十門人方思為壽理力止之謂四相皆空何有壽者士林聞之益加敬仰乾隆十一年丙寅以院事付其徒至善乃退居於破山西偏一鑪一經翛然自遠不知所終

清維揚智珠寺沙門釋性賢傳

釋性賢字德增姓嵇氏安東人也遠祖中散世為名族父祥生有隱德母孫氏夢慶雲入懷遂覺有身產時異香滿室三日不乳舉家怪之禱佛福佑俄而就哺稍長不茹辛羶兒童嬉戲輒拜偶像慧根夙具有志出塵父母奇之不拂其意年十一於廟灣祇園寺禮子敏為師寺故以瑜伽教徇世俗請吹螺唱唄日紛如也賢廁其間鬱鬱不得慨然曰吾聞如來救世明心見性顧如是耶吾其行矣年二十一始詣寶華受具足戒於文海一見器之令侍瓶中左右服勤薰心砭骨數易寒暑欲徧參知識乃造虎邱謁洞明慧悟超凡勇往精詣洞徹宗旨雍正十二年憲廟特召文海入都立壇演戒賢從襄事恩賜絳衣臨壇作證期畢圓明園引見奉命內庭參禪賞賚優渥高宗御極拜勅還山復至寶華時維揚有吉祥院者地臨河濱窪隘蹢躅塵為游氓逼處日就荒廢郡有檀護汪交戴南翁輩請賢住錫至再至三啟勸無已乃慨然自任敗壁頽垣榛莽塞路賢至為之掃除經紀殿閣寮廡依次修建基址式廓曾不數載遂成巨剎乾隆十六年辛未聖駕南巡率眾迎候蒙賜智珠寺額天章璀璨炳曜日星復承恩眷頒賜內帑梵宇巍峩益臻鉅麗於是創造戒壇並構精藍五處增擴齋田四百餘畝資給稟戒禪眾食指數千寂然無譁賢言貌伉朗風骨森峻而居心和易接物以誠引導後進有教無類人多愛而敬之依依不忍捨去其自律甚嚴恬然澹退而眾心嚮慕不言而信今為智珠鼻祖云

清姑蘇治平寺沙門釋性言傳

釋性言字理筠姓徐氏平湖人也母俞氏善心慈物雅信釋經含苦茹素祈佛得子故稟性柔和穎異過人童機妙應靈感獨先幼誦儒書終懷逸思及二親終養益驚旅寄嘗喟然曰幻軀浮業四大非真堅如鐵石寧不消磨乃投德藏寺雨曇受染雍正九年登寶華山稟具於文海馥[有*惑]戒芬威儀棣棣深見器許授以院事及文海奉詔入都大起皇壇弘戒法源言輔弼贊助厥功甚鉅隨海還山分席天隆勤劬三載乾隆二十五年江蘇巡撫陳公請主治平古剎時蔓草荒煙淒清滿目言至始為闢除蕪萊勝地重輝廢寢忘餐不辭勞瘁乾隆壬午聖駕南巡乙酉之歲再幸江南前後迎謁奏對稱旨御賜聯額恩施爛然及文海謝沒復來寶華嗣主法席經營五祀祖道增輝以乾隆己丑春二月九日示寂世壽六十有一僧臘四十有八坐夏三十有四荼毘時金光燭天雲霞四布門人收遺骨塔焉

清鎮海瑞巖寺沙門釋宗輝傳

釋宗輝字淨月清乾隆戊午重建總持寺鐘樓積精竭力不日告成復修大殿墻垣廊廡煥然一新輝初得法於育王秋遠碧公傳臨濟宗三十四世後住靈芝領院事歷有年所創立法堂增置寺產是冬開法靈芝普慶禪院止作兼持未幾移錫瑞巖寺值殘荒輝一入院百廢具舉叢林為之改觀平生願力弘深常懷利濟得瑜伽三昧廣興法施一衲之外他無長物衣鉢之貲悉以修葺橋梁平治道路郵亭破院尤盡心焉乙亥春復住鎮海普慶於正月九日掩關自閱三載乃出即呈偈曰入此禪關一剎那竟忘三載疾如梭尋空到得無空際放下空空便出窩乾隆二十四年復為育王嵩公及鄞鎮諸檀護所請卓錫阿育王山廣利禪寺輝晚年喜為韻語天資敏捷揮豪立就其臨機說法具正知見真足津梁末世所著芝峰語錄一編謝閭祚為之序謂其能於叩募之暇閉關之餘了明心性悟四大皆空之理成六塵不染之身而其登堂說法復能指示玄詮令當下機鋒人人猛省益信古人所傳頑石點頭花雨諸天為不虛也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圓琳傳

釋圓琳字琮璋姓張氏宛平人也幼依京師龍姥宮受染長乃具足於岫雲洞初潛心律學不避寒暑屢歲荒早食止糲粥眾多苦之殊難下咽琳獨泊如始發願力增置香租聞都中西方寺講演楞嚴躬往聽受偶因疾作不能隨眾深以為惜已而復參迦陵調梅二宗匠機峰迅利洞徹本源均見稱許岫雲印徹方監院事招之還山復進引禮兼綜內外四十餘年三易丈席屢承推舉乃退避不遑惟用志苦修殫思建置殿堂寮舍百廢具興岫雲名勝遂甲於畿輔歲在甲子高宗幸臨覽秀賞奇歎為靈境御賜額聯兼題詩句宸章燦發照映泉石而佛樓道場嚴整陳設欽命琳為總理其見重如此嘗念步禮五臺游侶跋涉恆苦饑渴設亭施茶用廣接待力行三年靈感種種事詳清涼山志又有十方緇素窮苦無告者殊堪悲憫乃建安樂延壽堂於寺左使得就養朝暮入堂導眾課誦專修淨業丁丑堂成設無量壽會和碩莊親王為之記庚辰歲發願航海跣履普陀過餘杭淨慈寺因修濟公塏立五百尊者名號牌及歸過廣陵齋運高公仰慕清望請留瓶鉢於慧因寺度夏復求送佛於寶華拜經臺用式儀表冬乃還山為皇太后萬壽啟建道場於萬壽寺祝延聖禧甲申歲聖駕復幸山中次前韻詩一章賜銀三百兩玉佛塔一尊皇太后加賜銀器供具一堂自有叢林以來不居丈席而荷天恩之渥疊未之前聞其任院事前後增廣租地二百餘頃雖資出檀施非盛德感人何以致此直督方公吉林德公皆為文以紀之而德公則記重修大悲壇方公則專記延壽堂增置養贍地者一時朝貴傾心聖后眷德猶以避席為高視後之爭主方丈驚馳京省纏訟經年者可同日語耶

清龍城雙鳳山朝陽寺沙門釋語蓮傳(吼天燦)

釋語蓮湘鄉李氏子誕生之夕母凌氏夢蛇入室齟齬雜染於冠梓園最樂禪院能達後主翠竹山蓮池庵生平耿介素履端方年三十始從大瀉山吼天燦受具一日侍坐吼天示以宗要三月弗契忽夜夢一尊者自稱準提問云汝意云何蓮曰不見一物尊者云如是如是次日參吼天吼天亦云如是如是蓮頓開悟嘗說法於雪峰最樂堂直指人心不惑於物後於湘上雙鳳山剎朝陽寺開堂說戒法雨蒸蒸殆徧衡湘晚歲天機浩然禪悅之餘吟詠自適嘗與鄧筆山張紫雨劉麟書諸人結社為文字交著有語錄詩草若干卷詩中警句如將心寄明月放眼看青山魚知入定潛沙澗花解離塵上釣船為世傳誦其開示後學警提親切不倦津梁嘗說偈曰四弘誓願惟持己一片婆心只為人若要佛法留後代直行天性不欺心張正笏序其語錄稱其中兩語路從平處險人向靜中忙此即心不在注腳可為求放心者作一棒喝惟楔出楔其旨莫妙於此即讀宗門家言亦須解此方為有益斯誠定論吼天亦號放翁曾主大瀉後住宗鏡六座道場為湘中老宿讀書通性命之旨以詞賦著稱楚黔之間所與遊者皆一時達人蓮其高弟也乾隆三十二年吼天寂訃至蓮哭之哀上供云龍門山水路迢迢水自低兮山自高痛觀萬卉皆垂淚恰似心田插下刀讀此可知其慨矣

清孤嶼江心寺沙門釋通榛傳

釋通榛字茂霞別號全愚姓姜氏永嘉人也家世儒素代有聞達榛幼而穎悟五歲失怙母氏憫其孤貧嘗戲謂之曰汝願棲空門為苾芻不耶榛即欣然領諾知其具有佛性送入江心寺時正庵禪師方主席見其行止端詳審為法器遂與剃度及正庵寂因嗣席焉時年二十二虔意焚修晨鐘暮梵積行不怠初西塔荒圯怒焉傷之矢願重興乾隆五十四年制府伍公中丞琅公福公先後來甌感其精誠共捐廉俸守宰以下同獻金帛寶殿更新伍公三至江心嘉其志也至龍翔興慶兩剎均自捨衣資興築補葺不假斗粟尺布之助而事自集以是人服其勤晚卜塔於福昌寺左寂乃藏焉陳豐為之銘文具山志

清燕京龍泉寺沙門釋真如傳(月天寬)

釋真如字清遠姓李氏利川人世守農田襁褓時姊負之墮峭壁中而懸藤護之竟無恙少與羣兒登金山之巔戲曰此處當建梵宇後果如其言剎金沙寺稍長竟脫白於金沙寺有月祖者與真如同出李氏從父行也尋於寺中受具足戒年二十隨月祖朝五臺至雒陽病殆野老延圍治之而愈頻行謂之曰後當弘法利生善自護持珍重別去過保陽參宗慶長老與制府梁

公何堂一見而知為法器入都往來法華鐵山諸寺會長椿主人還天日延之主席寺有苦井化為醴泉時人歎異驚為瑞應聲譽蒸蒸而名巨鄉若朱文正珪戴文端衢亨阮文達元蔣副憲祥墀陳侍郎嵩慶諸子皆樂與酬答諮問法語而張船山吳蘭雪蔣笙階又以詩偈唱和無虛日蔡君鏡舫號稱善人見長椿院宇就圯出橐重修比及三年殿寮彩絢而主人亦歸自天目真如退息壽佛寺眾與俱往蔡君即請主其寺又三年始得城南古刹於荒煙蔓草間并得寺契於張氏蔡君復為鳩工庀材佛閣僧房廚庫廊垣次第落成乃移錫住之時嘉慶十年正月也居久之恐修持或懈宗風未隆乃發十大願揭之寺壁有僧不出寺寺不募緣之語又謂明心悟道禪那為宗而讀華嚴始知富貴瞻法相乃見精誠於是退處靜室閱藏數春而宗教一貫矣已而南遊高旻天寧金山至天目而還蓋自中興龍泉已四十二年矣寂于道光乙巳三月九日壽七十有二臘五十有七塔于寺院著有語錄及彌陀偈其發人深省者有云念頭空處更須空到得空空處處通若是有些空不了茫茫業識亂如蓬又月天寬者玉田孫氏子年二十九始事雜染得戒具于盤山未幾參大覺莊親王稱其真心實行遐邇信瞻遭遇聖恩頒發帑金重興大覺一時禪子感厥盛會歎為希有壬申三月九日示疾坐化住大覺九年奉命兼理印務謹守祖法無愧人天有語錄二卷頌古甚多有女子出定頌云一切時中不起念塵勞妄想何須斷回光返照兩無私見不及時無可見

清衡山曉霞峯沙門釋續桂傳

釋續桂字蘊空人稱香山長老衡陽李氏子髫齡歸依祈佛慧命聰穎過人及長好游名山尋勝入古滇居壽佛宮十載始言旋道光甲申衡山曉霞峯延之主席其時院堂神像皆朽懷剝落桂傾囊修之丁亥謝去退歸東山咸豐辛亥改建寺寮式廓舊基僧房佛殿歸乎煥焉壬子年已七十懼朋輩為壽走匿雁峯踰月而歸偶看金剛經偈至一切有為法如夢幻泡影浩然歎曰我一生辛苦皆為法所纏縛今已矣重陽後一日正襟趺坐集徒焚香一笑而寂

清當陽玉泉寺沙門釋惠證傳(寂清)

釋惠證字達順或云一名眼順生有殊質秀拔倫表髫齡入玉泉從真如出家依年進具參靜然顯遠頓悟玄旨乾隆五十三年戊申繼主玉泉言行兼修禪講並弘近遠眾生多沾惠慈寺旁有大士閣年久廢落證懷耿耿思復舊觀嘉慶初元當陽汪令知崇佛旨證候其來寺從容語及慨焉聽許不數年間高閣巍巍聳出林際十年遠安緇白以清溪法席迎之大開講席力振三學徒侶雲從登堂入室頗不乏人以嘉慶十六年三月二日示偈有但得

本來心任他塵與客遂悠然而寂塔象王峰下清初有寂清者字映月居宜都佑聖宮值兵燹之餘廟宇灰燼寂清披荆翦棘夙夜不遑重修殿堂更廣庭廡輪奐斯新美不勝頌化時僧臘七十有三

清衡陽太和菴沙門釋果法傳(清和澄)

釋果法字名則姓徐氏贛人也幼罹寇亂轉徙衡中依太和慧明出家精持律儀謹言慎行目不邪視務力勤奮刻意苦行辛劬三十年重葺殿堂式廓舊模視法初來時院宇頽敝香廚無一日之積不啻倍蓰後因碧巖開西禪叢席且欲捐其田租百石以助勝緣再傳弟子清和澄稟承懿範贊襄尤多時出餘貲修道設亭以利行者西禪之捐卒成其手

清新化四願禪寺沙門釋慈源傳

釋慈源字悟道亦號守拙姓曾氏新化人父傳唯母張氏夙抱悲懷事佛惟謹誕源之夕祥光燭隅里人異之幼侍母食同甘蔬菜母沒經堂佛像親絜供奉不異存日嘗自陳明水一盂祝曰此水不腐吾當歸依瞬焉五載清潔如初丙子父喪告終乃禮邑中法華菴松華披剃旋具戒於福巖怡復依南嶽祝聖默葺仁親炙既久得力獨多深造堂奧遂承心印稱南宗高足丙戌還新獨躡鉅貲修葺城南承熙寺寺為宋章惇平蠻後所剏建年湮荒蕪至是闢為叢林法席重暉僧侶雲集衡之悟真邵之尊美皆禮之首座參同異焉甲午說法邵陽師子峯龍華寺集者數百人丙申復依仁於祝聖日誦法華以為常課丙午卓錫資東錦石峯舊有古寺曰慧龍日就隕廢而山水之勝甲於一郡源因拓其前址廓其新式棟宇有輝金像赫赭額曰四願從所志也寺中規制一如叢社道風翕然溢於資流寂於光緒三十四年七月十三日年五十七臘二十八塔於錦石峯下衡山戴鰲為之銘

清長沙定湘王廟沙門釋續成傳

釋續成字覺道姓徐氏善化人也家世力農澹懷樸素幼而祝髮入邑中城隍廟為沙彌性明敏主僧如靜教之經論便能了解知為法器久之竟付衣盃當咸同間粵寇竊發曾國藩治兵衡湘一時豪雋浮湘上下多與成為方外交及亂定安輯撫卹諸善舉成率隱與有力而尤以興復祖庭為志職初上林寺被摧毀改為印卷局而省會遂無叢林成慨然動念請於巡撫王文韶卒申所願講席復啟祖道重光開福寺舊為叢席寺田為田戶所奪日形衰削田戶隸曾國藩部下積功至總兵主僧無可如何成乃倡捐巨貲贖歸侵田立石以警來者麓山寺田亦為人侵據成亦殫力清還見義勇為不辭勞勩谷山住持改傳法為薙度法門訟之成為曉譬谷山退院其訟遂息成

廣穎方頤謙下洽眾鄉夫村童望而展敬以光緒甲申仲春示寂壽六十一
臘五十四塔桐溪寺南

- 興福篇第九之十一(正傳十六人 附見十二人)
 - 清新都寶光寺沙門釋覺賢傳(真印)
 - 燕京圓廣寺沙門釋顯珠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普德傳
 - 沔陽甘露寺沙門釋悟丘傳(昌珩)
 - 江陵章華寺沙門釋松青傳
 - 新都寶光寺沙門釋宗興傳(本立 清福 達摩波羅)
 - 東天目山昭明寺沙門釋頓覺傳(圓參 慈壽)
 - 東安麒麟寺沙門釋無彼傳
 - 成都昭覺寺沙門釋通朗傳
 - 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常照傳(肇圓)
 - 江甯古林寺沙門釋昌心傳(虛舟真 輔仁友)
 - 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地華傳(奇量)
 - 漢陽圓照寺沙門釋體海傳
 - 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覺海傳
 - 維揚福緣寺沙門釋日照傳
 - 梓潼永利寺沙門釋圓鏡傳(海瑞)

清新都寶光寺沙門釋覺賢傳(真印)

釋覺賢字妙勝姓曹氏母氏梁夢僧入室跌坐寤而生子兒時嬉戲即陳佛事年十二落紉旌陽栴木院禮常為師從塾師讀聞講中庸天命性道章旨悉心體會頗有所省每日晡時從塾返院皆有定晷獨此向暮不見其歸常甚怪之使人覓得出數里外常詰其故且謂熟路日行何至迷失賢言方聆性道未契惛歸心有所在循塗而走竟忘南北常師由此奇之嘗誦金剛經至諸心皆為非心是名為心必反覆數四若別有悟入者常師聞之曰此不凡器也清嘉慶癸酉受戒於寶光繼彰由是力涉經論兼窮教外別傳心印丙子南遊謁江天寺志學偕至餘杭跋山涉水渴飲饑餐忽有所得求證於志志欲擴其知識不囿一隅乃曰今天寧之恆贊圓明之真月高旻之方聚皆有道者也汝盍往參之賢如其言往還三寺勤劬數載互相啟發盡聞法要癸未歸蜀奉養慈親藥鼎湯鑪備極勞瘁及母壽告終補藏諷經於開元寺欲資冥福冀得超登忽忽三年更下江天與志學諸耆宿往復議論則超然塵溢之外矣復至寶光寺有經樓而無藏經人多惜之賢與州人李祖德善勸其資助得數千金攜之北上未幾橐載數十篋以歸贊歎之聲徹於遠

近會月耀勸勞方思退處以席讓賢遂主寶光盡心誘掖凡所造請先後接踵達二千餘人病者藥之寒者衣之望風投止僧至如歸戊戌建蓮社堂創普同塔養生送死各得其所戊申築藏經樓崇高五丈規制閎廓更東造問本堂西營靜照亭以翼輔之己酉修羅漢堂咸豐五年戊午重新佛殿高壯稱經樓於是殿堂樓閣礙日凌雲比美江南而賢亦老矣是秋九月九日示寂其弟子真印者字蓮叢亦號自信姓王氏彭人也年二十禮明鈺薙髮習經三載受具於寶光月耀道光癸巳妙勝賢自闕請經至見真印朝夕禮誦華嚴深契之因以初祖不立文字之旨令其參悟夜聞鐘聲有省詰旦語賢曰此非究竟引之以向上事戊戌發脚南遊底維揚謁古燈參領妙諦己亥至定海禮普陀復詣常州謁恆贊雪巖二老了悟華嚴法義庚子旋蜀後賢始付以正法眼藏賢寂之明年李藍亂蜀寶光寺眾星散真印收而主之仍以冬夏結制弘法造就末學咸豐十一年辛酉建七佛殿同治二年癸亥賊氛熾甚人心惶恐而真印固視若無事且以餘金建尊勝念佛堂嘗謂人曰當以慈航消彼逆燄而攝其沈淪眾生免於災害人多仰之甲子更主郫縣東林義林二寺置香田三百餘畝丙寅至成都重修大悲寺寺為康熙時主僧所敗乃以三千金反其土地堂室一一新之復建千佛大雄觀音接引四殿禪觀戒三堂經樓方丈山門及僧寮數十載落成費金三萬省會招提中號為巨觀將軍崇文勤公素重其行履故護持有加得以竣事光緒二年丙子彭中緇素請主龍興寺至則為修觀佛樓及丈室廊廡寺為預知禪師道場開建叢林功久未訖真印主茲三寺專以弘闡宗旨為己任平生苦行不可思議以光緒五年己卯十一月四日示寂宏戒三十期得戒弟子二千餘人以壬午仲冬塔于寶光西南隅雪堂含漱為之銘云

清燕京圓廣寺沙門釋顯珠傳

釋顯珠字慶然別號竹心姓朱氏昌平人父德庫母牛氏家本寒素幼依州城東嶽廟永亮薙髮受具於潭柘岫雲棟昌既精律儀泛及經論止持兼至性相雙融嘗言一夕入定心契法微髣髴有象若黃衲瞿曇趺坐相對演述上乘由是諸妄祛釋五蘊俱空又嘗還顧本形蛻化枯骨因念眾生種種苦厄作如是觀偶往菜畦詢於老圃菜有心否答以菜本無心言下有悟得大解脫燕都阜成闔外有圓廣寺明隆慶萬曆間曾事修葺閱歲三百棟宇傾廢珠來其會慨然有志誓復招提廣祈法喜得粟萬斛金銀五百凡諸布施靡不具足已涉願海終見伽藍僧夏方盛遽爾就寂光緒三十四年八月六日也戶部侍郎鐵嶺楊儒為撰碑銘刻之石以貽來者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普德傳

釋普德字慈雲姓傅氏大興人也母賈氏慈心愛物茹素奉佛生子三長次皆以痘殤德最小尤鍾愛及痘發復瀕于危乃虔心禱佛願度為僧竟獲安九歲禮藥王廟奇峰為師未入寺而峰寂因從同參長者學經典寺有塾師教授童蒙日就正之兼誦儒書頗解文義年十九始祝髮道光二十五年冬登潭柘山乘尸羅於西峰由是親近善友棲息禪堂精研毘尼舉止威儀昕夕無懈眾以清才目之後膺維那充收掌和輯僧伽權衡出入秋豪不爽復擢引禮至教授羯磨二十年間備歷辛勤尤以謹慎小心不昧因果為本故一生廉介自持不寶珍翫不苟財利嘗曰珍奇異物人之所欲遠之則無害仁義道德人之所尚行之則致祥吾輩身登戒品當力除貪嗔勉修梵德庶報佛恩耳翊教寺海然察其功行知為法門砥柱以所得敕封闡教禪師達天理祖衣卷付之為賢首宗三十四世達天第五傳也自得法後益加策勵同治六年為眾推舉繼席岫雲倡導清修法侶雲從食指恆逾二千法喜之盛異於曩日每念梵宇傾圮風雨飄搖遊眾往來無所棲止於是先立剎竿以壯觀瞻次修齋堂以供僧飯繼而東西諸殿南樓禪寮左右廊廡方丈靜室上則舍利塔大悲殿外則龍潭觀音洞少師室闕者補之舊者新之金碧輝煌參天耀日其他則有黎園奉福寺城內翊教寺皆下院也并嚴藻繪蔚為大觀二者尤以奉福為香火出納財產總匯之區每當秋月春風游客往來檀越憩息得信宿之安免奔馳之勞人多便之普德幼性穎異絕倫雙眸炯炯如曉星言笑不苟素喜事佛雖在塵俗常默默端坐如僧伽識者知為再來人事母尤孝所得覲資悉以供養不使年老有所缺乏既居丈室更持平等六時行道一意念佛法眼所照職事得人故能興廢起衰所作皆辦

清沔陽甘露寺沙門釋悟丘傳(昌珩)

釋悟丘字開梅姓徐氏沔陽人也壯歲出家行苦頭陀游徧名山道出金陵總督陸公企慕碩範延之府中諮問法旨淹留近旬始得辭去給傳護送餽遺甚豐悟婉卻之躡屩五臺因至燕都提督向公想望尤殷聞芳躅匪遙已擁篲除道執弟子禮入室請益備極崇敬名公巨子嚮其風聲多相造謁悟不樂塵蹻復辭之而歸沔陽有廢廟曰水府蓋六府之一天子之監設於諸侯者雲夢大澤不以封當有王官職司水虞後世祀之因名水府年湮禮失淪為僧居又頽敗焉悟倡修之以待游侶更闢廣長社為十方叢林僦僦學子皆得所止咸豐間至仙桃鎮喜其地望為川陸通衢水雲流行築基創甘露寺會粵亂方殷匪盜蠱起斯寺落成即罹兵燹乃悟志不渝剔除餘燼復構美材深慈弘願感召人天卒遂厥初殿閣重新禪客奔赴同治初年湘軍屢捷江漢載清又以新堤巨鎮重湖孔道殊無梵宇不便游僧更創萬佛寺使湖湘衲子發足參訪中途煩勞得所止憩悟戒德貞堅性尤耿介不屑干請每有興舉信施麇集如期而至精誠所格有自來矣同時有昌珩字慧山者荆門朱子子也九歲出家棲于玉泉受具于荊州東山寺遠叩名宿深有

契合接席東山三弘宗法慨念寺古風霜飄蝕院宇頽敝金像剝落乃事修葺首毘盧殿次藏經樓且重造門外石礪嚴飾佛相足資觀感以咸豐癸丑四月十八日示寂塔于旗鼓山麓周柳溪為之銘春秋五十四僧臘三十五

清江陵章華寺沙門釋松青傳

釋松青字空萬姓蔡氏安陸人幼性誠實喜聆因果年方舞勺便從荆落棲於沙津清涼寺弱冠稟戒於舊口蓮華寺專精毘尼篤志勤修嘗受華嚴法華涅槃大乘諸經知法華經藏深固幽遠無人能到唯佛與佛乃能究竟諸法實相故矢志弘揚淨土以念佛為本及從事游參諸方尊宿僉以法器目之咸豐九年始來東山時章華法席欲墜沙市耆舊馬印川李星垣輩舉松為住持請於江陵令張公一見即相贊許曰松禪師神氣靜穆不染浮囂是誠有道者及入院見敗宇頽垣荒榛滿目慨然以興復為己任始事叩募有以穢物予之松絕不與校坦然無忤雖重耳受塊師德乾唾方之蔑然人以是服其雅量感厥真誠欣欣樂助不二載佛像廟貌煥然一新三年退謝盡其所餘遺之繼席一衣一鉢飄然長往首登五臺旋踐峨嵋四年復返沙津仍棲東山四眾叩請更還本寺因念規制羸定將專志淨修閉關七載一日寺僧上市馬君印川問曰松禪師何日出關耶寺僧曰未也馬君曰吾昨於行路見之非邪遂從至寺見封識如故乃歎其神異久之而去松生平篤厚語不妄發六時禮誦五十餘年無一日虛度歸依弟子數百人嘗建涅槃會垂數十秋光緒二十六年佛涅槃日忽喟然曰余於斯會止於今矣明年春果示疾二月十九日合掌向西說偈而逝壽七十六臘六十三荼毘時五色火光似蓮花飛舞遠近觀者覩此異相嗟咨無已塔於本寺舊藏

清新都寶光寺沙門釋宗興傳(本立 清福 達摩波羅)

釋宗興字世昌姓張氏崇慶人也父萬錡有隱德母鄭氏夢撫松枝而生興賦有殊性髫年秀發幼禮上光嚴寺心維雜度初習課誦即問其師曰出家如此還有事否心維大異之年二十四始受具於寶光慈心上光嚴寺者亦稱上古寺禪林雖啟毘尼無聞及興得戒歸一方觀感始重律儀更勵苦行不憚勤瘁經營締造寺貌聿新舊有龍藏歲久蠹蝕頗多殘缺興為之寫補凡數十百卷累時經歲幾易寒暑乃告完備及登主席百廢具舉規制弘大無異叢林達士名流咸與親近已而發志南游參訪名宿光緒癸卯冬歸所證益深寶光本立馳函相促即付以法界之重任先是寶光古剎建自唐時垂數千年號為富蓄人多覬覦清之季世新學流行奪寺設校所在告控本立處此難於應付知興精敏彊幹善解方便必能操縱裕如兼品德清高眾所推敬故繼席之後外侮不侵寺中資積賴以無損本立字道生遂寧熊氏子十歲出家受具寶光圓公親侍有年嘗事遊參遠謁海岩結茆匡廬南禮

普陀北叩清涼足跡半天下及回蜀初棲成都大慈寺後主寶光癸卯冬以席昇興甲辰春三月七日即示寂然寺僧以付託得人卒攘外患至今念之興居數稔更新造舍利石塔初寶光舊有舍利塔即神州塔寺錄所載寶光塔者肇自周靈王四十一年即西域阿育王之四十三年育王以所得舍利造八萬四千塔其在震旦者十有九寶光其一也唐僖宗幸蜀寺中忽放異光掘出石函得如來舍利十有三瑩徹明洞不可方物遂建浮圖號曰寶光今清福真修大師遠渡重洋求佛勝跡逕暹羅出緬甸底印度印度者古天竺國也復進千餘里拜楞伽山見唐玄奘舊所經行處還至錫蘭都城會梵僧達摩波羅方重修佛塔塔藏佛骨舍利百餘顆清福虔誠祈請至再至三乞得十之一以歸又得玉佛六尊及貝葉經若干秩皆別有記載清福既以舍利三玉佛二供奉寶光興乃增修一塔與古塔雙標並峙後先輝映其功德皆不可思議戊申秋傳法靜照退隱古寺其時古寺亦重煥殿宇興力居多生平勇於為善惟力是視不敢自逸積勞忘軀癸丑冬示疾甲寅三月十七日寂于古寺塔之寺西寶光徒眾念其勤勞議迎衣鉢建塔以示觀感嶺南張元鈺為之記嘗寄鈺詩一百四首蓋仿寒山隨意吟咏以見道者

清東天目山昭明寺沙門釋頓覺傳(圓參 慈壽)

釋頓覺字智海永康人幼於雲栖西方庵披剃道光二十九年受具足於天目山維章咸豐初受記荊於雲林寺引泉庚辛之間粵寇入浙焚毀寺院舊日僧侶水流雲散同治初年吳越漸平歸棲靈隱六年陳令小齋任於潛屬興西日招其友人玉輝回山一肩擔荷遂闢勝境時東日荒蕪尤甚探詢前派渺無蹤跡復得其徒靜能助之披翦荆榛掃除瓦礫一囊一鉢重開新宇往復數載歷盡艱辛十一年移錫普照寺又新之以光緒五年己卯六月十九日示寂塔于東山白雲窩弟子圓參字靜能桐城張氏子賦性剛直心行穩密幼歲學書丁年從軍於干戈擾攘中勘破浮生放下毒具歸心佛門初投臨安湧蓮庵悟勝出家同治六年於祇園寺受戒遂得法於智海聞百丈云修行以念佛為穩當深信念佛法門朝夕不倦有問者曰念佛是誰圓參應聲答之曰覲面呈君君不見錯過蓬萊路八千監持院事十有餘載不憚塵勞多方叩募故東日中興殿棟煒煌雖曰頓覺初始實成於圓參為多後十餘年又得慈壽為之繼述乃臻完備慈壽字松華號幻栖漢陽黃氏子九歲於江夏龍池堂禮福善披剃初學瑜伽見日落時便淒然淚下十五聞雷聲得念佛法門光緒三十年受具戒於黃州安國寺慧明始事游參嘗於真寂寺耆舊堂有宏上人問不去不來時語疑情如窒忽聞牆外人聲豁然有省遂述偈云十年參叩事更奇無端平地忽生疑一聲打破疑團後萬妙千玄總自欺即閱宗鏡序真源湛寂性海澄清絕名相之端無能所之迹云云似有證據焉

清東安麒麟寺沙門釋無彼傳

釋無彼字高岸姓陳氏清泉人也身幹雄偉胸懷磊落有古豪士風曾以軍功授藍翎千總髮逆平定還鄉省親聞衡陽羅漢寺法空成說法有省乃歎曰世相無常榮名非寶吾當於茲披精進鎧除煩惱賊矣成因為剃染命從東林律師圓具後佐恒志開法岐山紫雲無彼持律精苦常以杜多行自勵聞九疑巖谷幽邃攜杖孤往道過東安麒麟觀因留習定士民嚮其梵行爭營淨宇衲子從者如雲遂成叢林晚年專修淨業入太華山縛茅以居而檀施所集輪奐斯崇戒定薰修蛇虎馴伏其慈心密行感物若是未幾邑人迎還麒麟閣開闡毘尼四眾從之乞戒者凡百有七十餘人寂於光緒二十一年十一月二十七日世壽七十有七僧臘三十有五弟子遵其遺命奉龕歸太華建塔釋敬安狀其道行以昭來許

清成都昭覺寺沙門釋通朗傳

釋通朗字明照姓楊氏崇寧人母季氏夢僧追虎入室驚覺而婉心異之幼時隨母入法忍寺見尊者挖心出佛像指問何人母告曰心中有佛故對曰兒心亦然稍長即思出塵禮普照寺普榮披剃道光癸卯赴昭覺道公見而器之付正法眼藏備歷執事調護水利報効輸將弗殫艱險幾二十年願力甚鉅其職西堂時已建成都準提閣殿宇同治癸酉夏繼主昭覺勤儉自持清償積逋為數巨萬甲戌以後重葺天王殿五嶽宮修治北路官道塔院彩繪莊嚴足人信仰戊寅翻刻釋迦譜以宣佛果一時名公巨鄉皆為蓮社制府丁公稚璜嘗相過從若有夙契偶至方丈問曰此為丈室和尚又在何處朗曰制府今在何處相視輒然又問坐禪如何朗曰隨時而坐曰坐時如何曰前有龍眼橋後有威鳳山中間方丈室復以拂子一拂云不即不離若即若離丁公曰真善知識也嗟歎者久之為奏頒龍象神通題額贈之以表異焉廉訪如公亦深於禪宗者聞丁公言造寺諮厥要旨且問如何是究竟法朗曰得安樂時即安樂如公笑曰恁般安樂朗曰廉訪自能分曉如公不禁憮然曰昨與丁公言深得禪中三昧殆不虛也乃攜手上經樓問此樓創自何人曰康熙時修自丈雪曰可重建矣朗曰早有斯志但力未足耳公舉一莖草建梵剎竟之旨朗曰釋諦須實地公首肯助銀三千兩成之一日自云佛誕之後即吾歸期時光緒乙酉四月十七日丑時大眾聞佛聲西去壽六十五臘五十八得戒弟子千餘人得法者二十四人朗性剛直操行堅決智慧皆從閱歷中出人目為伏虎再來云

清潤州焦山定慧寺沙門釋常照傳(肇圓)

釋常照字昌道號雲颿姓夏氏海陵人也根植菩提生而敏慧九歲厭腥領鑿澄遠年及舞勺通經史大義不逐嬉遊值洪揚之亂家人流離子焉塊處有衣紫者奇其俊峭欲羸負之以為其子照不屑也因以計說年十五乃歸依春庭於觀音庵受雜經翻貝葉口誦如瀉香動木樨心清得妙弱冠受具於焦山大須神秉雋悟智理雙融典習律教中邊俱徹須器其量識授以衣盃乃本其誓願期濟羣惑辭師行脚苦志參方望名藍而戾止入虛白而知空偶息金山從觀心慧研窮一乘復返焦岩執事監院鎧披堅忍幢樹精進清課六時調御四眾及主丈席提倡戒乘鐘磬凜徹於鷲峰杖拂謹嚴乎鹿苑慈雲罨覆覺樹蘊蒹甘露霑濡慧珠瑩澈密持功行殫心梵籍嘗註金剛般若經若干卷尚待梓行二十年間雖事著述不墜事功創建海雲枯木諸殿堂整設僧寮嚴飾佛像朝暉燦其雕棟寶燄見其金身吁亦勤矣清光緒三十二年十二月十三日示寂僧臘五十有三塔於夾山竹林寺右弟子肇圓字峰屏丹陽束氏子年十九感因緣幻化人事無常厭塵捨家投句容寶塔德生剃度逾年受具焦山芥航旋參金山高旻寶華天寧諸叢林得善知識往復尋究默識潛通數年之間竟爾直透三關了明最上又以道貴朗澈事在躬行遂歸焦山專禮華嚴夙夜兢兢寒暑無懈照知為龍象付傳心印繼主法席辛勤十載院宇增修寺寮嚴肅退後示微疾索浴更衣安然坐化塔於夾山西坡

清江甯古林寺沙門釋昌心傳(虛舟真 輔仁友)

釋昌心字定願一號宇堂姓查氏涇人也父光遠母氏徐心生有異相廣穎豐頤賦性直爽語言無妄幼歲出家于九華山百歲宮及長來古林從虛舟真受具留侍依鉢才十八日即遭髮賊之亂金陵既陷寇勢洶洶莫撓其峰因隨虛舟避禍田莊行則扶之涉則負之匍匐山谷幾瀕于危稍得棲息雖徧地干戈猶日飯僧百餘人蓋患難相從多不忍捨然烽火數驚他人或往往散去自求生計獨心侍虛舟左右奉養惟謹因感其道誼於田莊授記荊未幾淝來諸邑悉為寇據虛舟避之宿州心遂檢師所付牒錄簿書藏之莊地不敢一日離雖身在賊中偽為瞽者行乞道旁然兵氛攘擾艱於得食日噉蘆菹數枚而已同治甲子官軍收復金陵迺躬詣宿境迎還虛舟而兵燹之餘寺宇焚燬荆蒿滿砌瓦礫塞途于是結茅為廬累磚作爨始構三楹終興百堵數年之間殿宇堂室規制靡備以清光緒十二年丙戌夏四月二十六日示寂寂後十餘年而有庚子九月八日庫藥火災之變其三傳弟子輔仁友者方清賦田間聞訊歸來見火藥衝突地皆易位昔日莊嚴化為烏有餘煙斷木碎石破瓿充塞滿前而傷亾僧眾號泣悲嘯響應山谷見者愴懷聞者隕涕友為稟懇劉督部忠誠公命由司局給資撫卹友竭力經營晝夜勤劬跣足從事善信傾心施予雲集不及三稔殿宇金容煥然朗耀規模崇

遠視前有加好友為文先代行事多所採輯乃於愍忠法源世系派別辨析幽微淺淺不已撰述祖庭彙誌以證明之噫可謂有心者矣

清南海檳榔嶼極樂寺沙門釋地華傳(奇量)

釋地華字妙蓮號雲池姓馮氏歸化人父曰書泰以茂才出家怡山衣鉢餘財盡資放生母楊氏亦稟優婆夷戒故家世善緣福根有自光緒三年戊寅省親怡山因誡之曰汝出家時至矣緣在鼓山甚勿錯過遂投石鼓禮奇量剃度逾年得本山懷忠授具戒自是志願深閎威儀簡重然以淨土為歸時鼓山大殿頽壞志懷修復乃虔誠竭慮獨往臺灣僕僕海霧苦心感物隨叩獲應用集施翹歸築殿堂甲申量公退老付以法席四眾翕然乙酉華年四十復杖錫南遊歷抵羣島卒從所願歸而重建龜山崇熙寺由是聲譽日騰清暉懋發因念法隨地展道以人弘南洋島嶼自弛禁後番舶雲屯商旅臻輻煙火繁盛非有佛教曷興善感而剏建梵刹之舉已怛怛於心矣且華往還島嶼僑商稔習信慕日多曾請住廣福宮食其祖賦宮即島中公所也優禮如此辛卯之歲爰度厥地經之營之勝緣廣及檀捨雲從不日之間屹屹紺宮已雄峙海隅乃顏曰極樂寺南洋之有叢林自茲始也華為開山祖云閩省白塔寺者古刹也剝蝕荒殘華見而傷之乃搜集鉢餘益以樾助卒重修之且築迴龍閣焉漳州崇福寺眾仰其清望請主法席未幾引退歸極樂建普同塔甲辰至京師請藏經二於是極樂崇福俱得一藏炎荒遐服法寶光臨前所未有時年已六十一矣以寺事付本忠而返鼓山又重修天王殿南山寺之頽亦若待華鼎新者復主其事土木方竣竟以微疾寂于閩之崇熙寺世壽六十有二

清漢陽圓照寺沙門釋體海傳

釋體海字惟清姓李氏孝感人也生感神奇器宇不羣自甘素茹遂託空門同治時受戒于漢陽歸元寺遍游名藍歷抵宗匠如定念觀心青光寶悟諸老宿咸許入室鑪鞬所施機鋒敏捷定慧交融嘗登九華把茅以棲已而捨去浮海詣補陀還遊兩浙掛錫大雄雖足跡半天下而無所留滯後於天甯老人窮五家宗旨得大解脫隨心自在光緒七年旋楚卜地於漢臯仁里得善士信心為之築基初名鹿野苑四海英才聞風而至檀越施予有感必應曾不數年一片荒壤化為寶坊事若神功因更其稱曰圓照寺俄而歸元緇眾迎海首席一日示眾有若識白祖旨後面翠微峰之語蓋接引初機顯指實地也由是道譽遠流名聞京國龍泉主僧慕其高風遣使相迓遂陟首都闡揚心印一音唱演四眾歸懷佛日再中不可言喻海知報緣將盡幻質匪堅乃重詣五臺再訪二林十五年春言旋漢臯諸刹交迎俱辭不赴示恙湘

館說偈而逝偈曰說法本無法傳心本無心一切幻化境見物即見心時光緒十五年六月二十四日也春秋五十有五

清燕京潭柘岫雲寺沙門釋覺海傳

釋覺海字慧寬姓郭氏臨清人也生而岐嶷賦性聰穎髫年多病瘦骨嶙嶙因甘澹泊不茹辛腥稍長銳志讀書而厭絕塵躅超然有軼俗之致父母知有夙緣不以世務督責送之大佛寺禮闍然禪師祝髮研心經咒深求佛旨謹身清淨年二十一始發足游參遍歷名勝因詣京西潭柘山岫雲寺稟尸羅於心純同治癸卯授書記更誦法華楞嚴維摩報恩諸經旁及三壇儀範歷教授闍黎訓誡後學悉中規矩復思禪宗教義奧旨弘深不得良師未易窺測負笈京師賢良寺任以維那益加精進未幾慈雲眷念召之還山證果倍蓰光緒戊子年傳授衣鉢繼席領眾宏濟之懷孜孜不倦傳戒十壇津梁益遠深味古德語重修天王觀音龍王藥師諸殿及廳堂朝房靜室石路龍潭塔院餘力復及下院翊教寺後閣輪奐並美金碧交映晚歲見阜城門外海潮觀音庵年久荒廢頽垣破宇怒焉傷之發願興起傾囊萬金鳩工庀材傑然崇構光彩一新皆覺海之功歷歷可徵者宣統三年秋冬之交示微恙乃傳席覺正養疴靜室一日誡眾曰道在心不在事法由己非由人當勉力以達神用以為解脫之詞也明年春二月疾甚念佛西去世壽七十僧臘五十弟子建翠堵波於山之南塔崖下

清維揚福緣寺沙門釋日照傳

釋日照字信林姓孫氏生而穎異託迹桑門年十二依福善庵谷山薙染內外經典銳志研求光緒二十年受具於金陵寶華浩淨律學精勤威儀無忒旋於焦山講筵諦聽真義金山宗匠參叩玄旨由是教觀雙明禪心獨印復聞通智法師講楞嚴於維揚萬壽寺徑往相依止息十年忽生惺悟刺指書華嚴經八十一卷法華經七卷血痕猶在悲願益深更禮阿育王釋迦舍利然指兩度信心潑潑了無慟苦嘗慨念祖庭棟屋頽敗力任修建煥然改觀尋徇眾請主席揚州福緣八載辛勤重造山門河堤禪堂經樓淨室廊廡七十餘間將次落成忽遇狂飈樓閣傾覆忿不欲生赴水幾沒以救得甦復感檀助劬勞三載卒復舊模以辛酉九月三日示寂春秋四十有八僧臘三十有六照戒行森嚴生平無倦楞嚴十卷晨夕諷誦寒暑罔間於禪教蓮宗皆得其奧念佛利生望人甚深開導法化如瓶瀉水傾心造福財不私蓄尤為僧所難云

清梓潼永利寺沙門釋圓鏡傳(海瑞)

釋圓鏡姓魏氏梓潼人也父曰芝梧夙有善心故鏡生而聰慧妙解天成年六歲捨入永利度為沙彌時道光初元也苦志求學酷嗜經義六時梵唄深契禪定經論宏旨俱能了澈四方游侶多相質證皆悅懌以去時廟宇頽敗常虞傾圮鏡乃勞動自勵兼事耕耨數年經營集資千百重修正殿增葺兩廊紺文金相煥然有赫復以餘力置香田百餘畝差供僧眾晚歲鑿池寺後約方十畝栽種蓮藕春餘夏初新荷出水便饒幽勝迨及花時香風習習扇於數里四圍芙蕖亭亭玉立菡萏初放光映曉霞的實將成粉涵秋露池上古柏蒼翠芳艸芊芊鏡往來其間自契禪悅鬚髮皤然神明清朗略無塵意寂時壽已百有八歲今徒眾繁衍與蓮花並盛又海瑞姓楊氏姚人幼從祥雲水日山剃道光緒十一年依滇城南歸化寺清光受具復侍藥師院清虛五載盡得其法還山後慨寺宇凋零遂發悲願苦志堅持卒使水日寶華兩寺次第興修金碧相映舊時銅像赫赫生輝縣中每以正月八日香會甚盛欲壯觀瞻使人信仰則此功德不可泯也以庚申九年三月十六日示寂弟子達禪彙其行誼備採擇云

- 雜識篇第十之一(正傳十一人 附見六人)
 - 宋京師左街天壽寺沙門釋贊寧傳
 - 虎邱雲巖寺沙門釋元淨傳(思悅)
 - 餘杭靈隱寺沙門釋如璧傳(白崖長老 如琳 慧光)
 - 潤州金山寺沙門釋懷賢傳
 - 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良策傳
 - 潭州南嶽寺沙門釋宣義傳(了信)
 - 長沙開福寺沙門釋洪蘊傳(法堅)
 - 真定木浮圖寺沙門釋懷丙傳
 - 京師相國寺沙門釋智緣傳
 - 四明雪竇資聖寺沙門釋曇穎傳
 - 溫州明慶院沙門釋處巖傳

宋京師左街天壽寺沙門釋贊寧傳

釋贊寧姓高氏德清人初出家於餘杭祥符後棲靈隱習南山律宗著述毗尼時稱律虎錢武肅王欽其聲望署為兩浙僧統宋太祖徵入京錫號通慧兼賜紫衣淳化三年兼翰林史館編修寧博物強記辯語縱橫嘗著通論有駁董仲舒難王充斥顏師古證蔡邕非史通等說王禹偁深服之興國三年太宗聞其名召對滋福殿延問彌日更號通慧七年敕修高僧傳與新譯經同入藏端拱元年書成都三十卷曰有宋高僧傳令弟子顯忠拜表進納有敕嘉許略云一乘妙道六度玄門代有奇人迭恢聖教若無纂述何以顯揚繫爾真流棲心法苑成茲編集頗效辛勤備觀該總之能深切歎嘉之意其所進高僧傳已令僧錄司編入大藏今賜絹三千匹至可領也故茲獎諭想宜知之又詔撰三教聖賢事一百卷初補左街講經首座知西京教事咸平中加右街僧錄年七十入至道九老會後二年示寂塔龍井塢所著更有內典集一百五十卷外學集四十九卷內翰王禹偁為之序極其讚許寧博聞多識雖張茂先不能遠過徐常侍鉉仕江南日嘗襍被入直澄心堂至飛虹橋馬輒不進裂鞍斷轡箠之流血掣韁卻立鉉遺書贊寧寧答曰下必有海馬骨水火俱不能毀惟漚以腐糟隨毀者是也鉉斲之去土丈餘果得巨獸骨上脛可長五尺膝面下長三尺髀骨若段柱然積薪焚三日不動以腐糟漚之遂爛焉徐諤嘗畫牛一幅畫嚙草欄外夜則歸臥欄中持以獻後主煜煜獻之宋太宗以示諸臣無能辨其理寧曰南倭海水或滅灘磧微露倭人

拾方諸蚌腊中有餘淚和色著物則晝隱夜見沃焦山或風燒飄擊有石落海岸滴水碧色染物則晝見夜隱此二形殆二物所畫也

宋虎邱雲巖寺沙門釋元淨傳(思悅)

釋元淨字雪庭雙溪人具正法眼機鋒敏妙為圓悟弟子嘗謁郡守以詩僧自通守書其刺云詩僧焉敢謁王侯淨續云大海終須納細流昨夜虎邱山上望一輪明月照蘇州守見之出坳交敲三韵令題淨即應云久不下山坳出林逢虎交侯門深似海也許老僧敲守大喜又思悅宋治平中虎邱僧也編陶淵明詩辨其義熙以後止題甲子云自庚子迄丙辰十七年晉安帝時作恭帝元熙二年宋始禪蓋二十年豈有宋未禪二十年前遽有所諱邪有書靖節先生集後一則文致清逸見曾季狸詩話

宋餘杭靈隱寺沙門釋如璧傳(白崖長老 如琳 慧光)

釋如璧字倚松姓饒氏臨川人原名節字德操以文章著稱曾子宣丞相禮為上客陳了翁諸人皆與之游往來襄鄧間頗有宦意遇白崖長老與之語欣然有得嘗令僕守舍歸見其占對異常怪而問之僕曰守舍無所用心聞鄰寺長老有道價往請一轉語忽覺身心泰然無他也德操慨然曰爾能是我乃不能何哉徑往白崖問道八日而悟盡發囊橐與其僕祝髮為浮圖德操名如璧僕名如琳徧參諸方陳了翁兄弟皆以詩稱美之至江浙樂靈隱山川因止息焉琳病璧躬進藥餌及其歿也盡送終之義後主襄陽天寧夏均父為請疏其略云無復挾書更逐康成之後何憂成佛不居靈運之先又云豈惟江左公卿盡傾支遁獨有襄陽耆舊未識道安時稱其精當尋移餘杭淨慈上堂云變化密移何太急剎那念念一呼吸八萬四千方便門且道何門不可入入不入曉來雨打芭蕉濕殷勤更問箇中人門外堂堂相對立又聞啄木鳥聲說偈曰剝剝剝裏面有蟲外面啄多少茫茫瞌睡人頂後一錐猶未覺若不覺更聽山僧剝剝剝晚歲稱倚松道人所為詩文皆高邁曰倚松集又潛庵慧光繼璧主淨慈者上堂舉趙州因僧問狗子還有佛性否趙州云無頌曰狗子無佛性全提摩偈令纔擬犯鋒鋦喪卻窮性命慧光亦能文但無專集

宋潤州金山寺沙門釋懷賢傳

釋懷賢字潛道姓何氏溫州永嘉人也兒時夙根萌發常合掌僧坐父母異之時郡之西山有僧嗣仁修西方白蓮淨觀行甚高眾多歸之號嗣仁社主乃以賢從社主出家天禧二年普度天下僧遂落髮受具戒時年十四也賢既得法器又仰高規藝行日進同侶無與比有講肆輒往聽受久之盡傳其

學慨然長懷有志四方辭仁遠參所至處延居上游最後見達觀禪師曇穎於潤之因聖遂得法焉皇祐初潤守王公琪雅聞賢敏悟乃具禮請傳法甘露而太平繁昌又以隱靜相召賢以甘露頗近城市隱靜僻在深山遂從太平繁昌之請初賢從瑞新遊十有二年具知宗門承襲賓主之事比至達觀會中聞所開示類皆世緣俗諦或雜以委瑣恢奇之言又嘗以事斥一僧去每升座輒追論前事矢口謾罵累日不休賢心陋之乃潛詣丈室請達觀曰為人天師當只說法奈何預以世俗間事且僧有過斥去則已何足重辱達觀頷而不答賢亦因此省悟居隱靜七年王公移守金陵復召以清涼辭不赴明年達觀自明州雪竇徙金山之龍游州人乃以雪竇召賢既行道過龍游留一月會達示寂潤之衣冠緇素因以狀詣郡請止賢繼焉而龍游主者故事當稟命朝廷郡守以白部使者上之報可龍游自火災之後棟宇灰燼瑞新禪師實中興之未既而卒賢述其事積勤八載殿堂廊廡燦然具備今宮宇之盛冠絕淮海雖始於新多成於賢然其地當長江下游帆檣迅至游客登臨日不暇給賢頗厭之熙寧元年遂謝去隱於金牛山去丹陽縣數十里人跡罕至庭養猿鶴孔雀鸚鵡白鷗皆就掌取食號五客各為一詩贈之士大夫欲相見者就山中訪焉三年劉公述謫守九江招賢主圓通賢聞匡廬山水幽秀得疏欣然題詩壁間有歲晚當期返竹門之句示不久留也居匡廬山下一年果謝去復還金牛明州復以雪竇來請固以疾辭史官刁公約謂賢曰雪竇東南名山明覺達觀相繼居其地二十年間請者三至可謂勤矣今又不赴無乃孤其望乎賢素善刁公從之乘舟遵海北轉海門遇大颶卒起風檣摧敗黑夜漂泊至慈溪東岸觸礁舟破從者百餘人皆散走賢獨淹坐水中從者還救乃免居雪竇一年復謝去還金牛以元豐五年九月甲午示寂壽六十有七臘五十三葬於金牛之西壠累墳為塔秦少游狀其行賢操行卓越遇人有恩雖對賓客未嘗與眾異饌雅好施予所得金錢繒帛率以散眾人多歸之又多才藝工於詩字畫有法當時賢士大夫皆傾意願與之游以參知政事高若訥奏賜紫復以節度使李端愿奏賜號圓通大師凡十被請從之者四皆天下名山巨剎道化方行輒託事隱去州郡雖欲挽留不可得弟子五十有五人所著詩頌文集凡五卷又撰次其自少至老出處之迹一篇號釋耄典記以自見云

宋金陵太平興國寺沙門釋良策傳

釋良策字慧炬福人得法雲秀初見六合牧稍有發明詣圓通會下頓釋疑滯闡發華藏次遷鍾山一日上堂雪消殘分外寒向火易暖涉道艱難好是和衣打睡任他日上闌干祖師雪沒腰臂吾徒莫作等閒光陰荏苒人事多端這邊綠水那邊青山難難百年三萬六千日看看便是鬢毛斑山僧與麼說話未免拖泥帶水雖然如是養子方知父母恩

宋潭州南嶽寺沙門釋宣義傳(了信)

釋宣義字夢英南嶽寺僧也禪悟深澈博學多通尤工篆法宋乾符五年召至京師陳希夷先生與當時宰執俱贈以詩晚歸終南山老焉今所見有夢英書法又了信者南嶽高臺寺主僧也有詩名張南軒遊嶽讀其集題曰蕭然僧榻碧雲端細讀君詩夜未闌門外蒼松霜雪裏比君佳處讓高寒

宋長沙開福寺沙門釋洪蘊傳(法堅)

釋洪蘊姓藍氏長沙人母翁氏初以無子專誦佛經既而有娠生洪蘊年十三詣郡中開福寺智巴求出家誦課餘暇兼攻方枝醫祝之書後游京師以醫術知名太祖召見賜紫方袍號廣利大師太平興國中詔求醫術洪蘊錄數十以獻真宗在蜀邸洪蘊嘗以方藥謁見咸平初補右街首座累轉左街副僧錄洪蘊尤工於診切每先歲時言人生死無不應貴戚大臣有疾者多詔遣診療景德元年卒年六十八又有廬山僧法堅亦以善醫著名久遊京師嘗賜紫方袍號廣濟大師後還山景德二年以雍王元份久疾被召赴闕至則元份已薨法堅復歸山而卒

宋真定木浮圖寺沙門釋懷丙傳

釋懷丙真定人為人多巧思出自天成非學所能至故其法不傳真定構木為浮圖十三級勢尤孤絕既久而中級大柱壞欲西北傾他匠莫能為懷丙度長短別作柱命眾工維而上已而却眾工以一介自從閉戶良久易柱下不聞斧鑿聲趙州洹河鑿石為橋冶鐵貫其中自唐以來相傳數百年大水不能壞歲久鄉民或盜鑿鐵橋遂欹倒計千夫不能正懷丙不役眾工以術正之使復故河中府浮梁用鐵牛八維之以一牛且數萬斤後水暴漲絕梁牽牛沒於河募能出之者懷丙以二大舟實土夾牛維之用大木為權衡鉤牛徐去其土舟浮牛出輯運使張燾以聞賜紫衣尋卒

宋京師相國寺沙門釋智緣傳

釋智緣隨州人善醫嘉祐時召至京師舍於相國寺每察脈知人貴賤禍福休咎診父之脈而能道其子之吉凶所言若神士大夫爭造之王珪與王安石在翰林珪疑古無此安石曰昔醫和診晉侯而知其良臣將死夫良臣之命乃見於其君之脈則視父知子亦何足怪哉熙寧中王韶謀取青唐上言蕃族重僧而僧結吳叱臘主部帳甚眾請智緣與俱至邊神宗召見賜白金遣乘傳而西遂稱經略大師智緣有口辯徑入蕃中說詰吳叱臘歸化而他

族俞龍珂禹藏訥令支等皆因以書疑韶頗忌惡之言其撓邊事召還以為右街首座卒

宋四明雪竇資聖寺沙門釋曇穎傳

釋曇穎字達觀姓丘氏錢塘人得法谷隱聰穎性爽直語言率真取譬曉人以近喻遠聞所開示類皆世緣俗諦或雜鬼瑣諧譚嘗以事斥一僧去每升堂輒追念舊惡慢詈累日有一僧心非之竟詣丈室面數穎過穎頷之而不言而僧因從此悟去乃以信香嗣穎法穎有文采名人多與之遊主雪竇時梅堯臣送之詩曰朝從雪竇請暮卷雪衲輕莫問居士病自從他方行吳霜點髭根海鳥隨眾迎安隱彼道場萬事都忘情處山無厭山林鳥正關關月入潭心白花明谷口間采薪能自至流水不知還聞欲觀滄海高峰峻亦攀穎嘗遊上雪竇亦有詩曰下雪竇遊上雪竇過雲峰後望雲峯如趨仙府經三島似入天門徹九重無日不飛丹洞鶴有時忽起隱潭龍只應奉詔西歸去此境何由得再逢政和五年建亭於山麓以憩行人穎又有四明十題梅堯臣和之並見山志

宋溫州明慶院沙門釋處嚴傳

釋處嚴字伯威姓賈氏樂清人也父靖居鄉以長者稱母萬氏方娠夢黑龍自天而下俄化為道人入其家及嚴生有異相幼時警悟不凡經史過目輒能成誦舅氏東平先生規邑之名儒也試之聯語隨聲應答由是奇之少長不茹辛羶母強之卒不從一日遊精舍歸白其母曰兒蔬食居俗非所宜願出家學佛惟慈親割愛遂往里之明慶禮僧知性為師既落髮受具游歷郡刹初學律未幾習天台教觀慨然歎曰吾邦僻在海隅見聞不廣遂之錢塘依南屏臻公聽天台大部明法華諸經時學者尚編錄務相詰難嚴聽法罷端然默坐同輩問之發明師說了無遺誤因謂之曰文字分別馳騁法相吾不能為乃遠游禪林訪尋老宿叩擊玄旨嚴志節清高學識超邁杖錫所至道眼相契為多會有以首座詔之者嚴曰吾宅心世外逍遙自適能為人役耶於是西遊帝都觀伊洛南周旋江淮間凡名山勝境叢林巨刹靡不至焉時道潛思聰與東坡居士游聲名籍甚二僧咸與嚴善數以篇章往來嚴博學能文詩詞尤典雅且工書有晉宋法或勸以所作謁縉紳求知已嚴笑謝曰古之桑門上首與士大夫游非求之也道自合焉爾故終身不以一字干謁識者高之元祐間還永嘉寓淨光大雲開元諸寺其徒翕然歸之扣門請益者屢相躡也嚴訓以本業復以詩書子史導之凡經指授者咸見頭角時開元建護國天王殿命嚴作記文辭雄偉太守范公見之稱歎良久命刻之石昭垂來許元符初歸故山誅茅結廬循除蓄流自號潛澗賦詩鼓琴以自娛有古林下風嚴有辭辨長於講釋里中巨室欲屈之講經恐不能致因

具法筵廣集眾侶預設巍座俟其至與眾迫之忽遽就席闡揚奧旨緣飾以文吐音鴻亮聽者忻悅明慶自創業幾七百年無文蹟可攷嚴始為撰記並書之時稱二絕郡守張公平聞其名以禮致之躬受楞嚴大義欲授以僧正且請主禪席皆力辭之每詣府手提一笠未嘗輿也人以為府座所厚或屬以事則正色峻拒然政有不便於民者委曲以告守改容聽之瑞安令呂公勤慕其道學初相邂逅要與俱還為築庵於廳治後圃為留三宿而去邑令丁公湛每訪嚴談道終日忘返晚歲絕人事惟精修淨業所諷楞嚴圓覺維摩光明法華諸經精熟流暢靜夜孤坐焚香高誦琅琅之聲出於林表嘗手書法華光明二經以報母德又書華嚴經八十卷首末不懈字法益工宋政和王辰正月二十一日示寂年五十四臘三十九三月闍維得舍利數百明瑩如珠明年九月植塔於故廬之旁以遺骨並舍利葬焉後四十餘年縣人梅溪王十朋為之銘十朋之生也即嚴寂日其母夢嚴來惠以金環覺而舉子忽聞嚴化以此異之十朋之大母嚴之同母娣嚴弟子寶印又十朋之叔父也嘗以伏臘相過從故其母識嚴及十朋長道經石橋寺寺僧先夕夢迎嚴和尚詰旦而十朋至故其詩云人喚我為嚴首座前身曾寫石橋碑銘有別致見梅溪集

- 雜識篇第十之二(正傳十人 附見三人)
 - 南宋泉州開元尊勝院沙門釋太初傳(宗達)
 - 江西羅湖沙門釋曉瑩傳
 - 臨安靈隱寺沙門釋智融傳
 - 元雲南蒼山寺沙門釋圓護傳
 - 餘杭淨慈寺沙門釋希陵傳
 - 四明仗錫延勝寺沙門釋炳同傳(善來)
 - 泰安靈巖寺沙門釋福海傳(覺達)
 - 泰安靈巖寺沙門釋思泉傳
 - 泉州開元寺沙門釋大圭傳
 - 渭南洪福寺沙門釋子成傳

南宋泉州開元尊勝院沙門釋太初傳(宗達)

釋太初字子愚溫陵人也世業儒修蔚為里望初生有奇氣幼而倜儻及為詩文不落凡俗已而棄家人開元尊勝以佛律已盡去塵習當世士大夫多推重之南劍報恩虛席郡守陳宓以書致初而真德秀復以大瀉山延之匡眾垂二十年聚徒千人其道博大無異古德秀既參大政函使往還諮詢要妙致仕歸日與之游從容論道晏坐清香略無倦意初以純實接學者始會儒釋之通使得其門而入終示吾道之圓以為之歸故人樂聞其說而服其義之精深同時有宗達者字無外泉之晉江人善出世學與初相友亦有詩聲郡人王顯世趙彥慧韓雲瑞翁定皆一時名流初與達同結為社文字酬唱無虛日達居開元之普賢與尊勝鄰近證契尤密真德秀守郡時嘗以崇福延達達殊落落惟精心研核窮究藏典考訂佛頂說圓璿之未至者如以劫波羅為氎非髑髏天之類率正舊譌者焉初嘗出導氏一章曰夜氣者名牛山經以受學者然初不輕作文作則傳播一時如承天僧堂記簡嚴有體叢林多誦之又評蔡襄洛陽樓記當點竄三字至今猶傳其語知非深於文法者不能道也夫儒釋之不相入者以不知其道故無文以發之則其理不顯初之牛山經蓋能會其通也是故真德秀以正心誠意之學而與之游王顯世為德秀以德行薦者且與之善以其文能明道道合則交深有在言語文字之外者佛但微笑孔欲無言亦如是也

南宋江西羅湖沙門釋曉瑩傳

釋曉瑩字仲溫未知何許人亦不詳其氏族既離塵俗歷訪叢席頓明大事四眾推重晚歸羅湖杜門卻掃不與世接惟以平昔所見聞諸方尊宿提倡向上及道侶譚說發揮宗教之言或殘碑蠹簡有關要旨者皆採輯成編曰羅湖野錄其間文詞之粹美機鋒之勁捷氣格之宏曠可以輔翼宗乘垂訓後學故讀者挹其風味不啻與命世宗匠賢士大夫雍容酬答晤對一堂誠足助爾禪悅發人清省也

南宋臨安靈隱寺沙門釋智融傳

釋智融姓邢氏名澄世居汴京以醫入仕南渡居臨安萬松嶺號草庵邢郎中官至成和郎出入禁庭賞賚殊渥年五十棄官謝妻子祝髮入靈隱寺諸公貴人挽之不可又游諸方徑山康廬經行殆徧聞靈山之勝遂投迹為終焉計獨行獨坐或至移晷人不知其能畫也山中多蛇忽作二奇鬼於壁一吹火向空一蹋蛇而掣其尾蛇患遂除而時有火警又於火端作土梟梟聲為之革嘗畫龍首半體禱旱輒應遇其適意嚼蔗折草蘸墨以作坡岸巘石尤為古勁間作物象不過數筆寥寂蕭散生意飛動或極力摹寫亦有形似而遽不及遠甚樓攻媿鑰嘗寄匹紙求畫融久不與攻媿以詩迫促之曰古人惜墨如惜金老融惜墨如惜命又云人非求似韵自足物已忘形影猶映地蒸宿霧日未高雨帶寒煙山欲暝融始為之作歲寒圖融作詩不多語意清絕每自言若得為僧三十秋瞑目無言萬事休紹熙四年五月卒壽八十僧臘如其言

元雲南蒼山寺沙門釋圓護傳

釋圓護字念菴大理人也因讀證道歌有悟段氏稱為弘辯大師護初號無念後遊大方見中峯便以羅什捧盃永嘉無念無生之旨扣之護曰我之無念異乎其所聞什師過在絕念不起永嘉過在任念自起二者皆有念也我無念者心體靈明湛寂不動如水鑑像如鏡顯物未嘗毫髮隱也惟洞徹法源者叵測未易與纏情縛識者語也峯乃呵之為作無念字說並授三聚淨戒而歸廣錄稱為護藏主也嘗夢神人授書法與松雪老人筆意同入三昧為世所珍聞其右手自肘至腕瑩白如玉然則筆力之精妙信非偶然故人稱為玉腕禪師所著有磨鏡法並所書證道歌碑及佛都二字大徑數尺皆其真蹟

元餘杭淨慈寺沙門釋希陵傳

釋希陵字西白姓何氏義烏人也年十九落髮東陽資壽依東叟隱於淨慈掌內記後侍石林鞏兼外記徑山雲峰高尤敬之分座設法凜凜諸老之遺

風元世祖召見作法施儀適合上旨賜號佛鑒成宗加號大圓仁宗更加號慧照三朝聖眷恩寵無比至正壬戌四月十二日手書付屬說偈而逝諡大辨塔曰寶華著有瀑布集及語錄行世

元四明仗錫延勝寺沙門釋炳同傳(善來)

釋炳同字野翁姓張氏新昌人得法於大川濟宋亾之日避迹仗錫十二年出主華藏三載復還仗錫榜其室曰晚泊閉戶書法華經有老來非厭客靜裏欲書經之句一時遺老黃則堂文本心黃東發舒閩風周伯弼咸與之遊晚主雪竇以寄幻顏所居元大德六年示寂壽八十臘六十八提刑牟獻銘其塔有送僧之華頂見溪西詩高高峰頂屹雲中八十溪翁也眼空相見莫言行腳事累他雙耳又添聾善來號石門象山樊氏子亦得法大川濟常作剪刀頌曰渾鋼打就冷光浮兩刃交鋒未可休直截當機為人處何曾動著一絲頭至元十七年主雪竇二十五年四月大火惟涅槃堂存善來復之三年而成

元泰安靈巖寺沙門釋福海傳(覺達)

釋福海字普耀自名所居曰月庵姓楊氏翼城人也誕生之夕異光照室爰在稚年性好浮圖里開寺曰香雲每戲往則累日忘歸父兄知其志乃捨入香雲依講主成公時才五齡誦讀不再略無遺忘歲戊午年十六始披剃受具戒罄獲成公平昔之業有龍象稱乃納履而西入安西伯達禪師處窮究無懈久之伯達訝其敏悟以趙州柏樹子檢量海機鋒勁捷辭理明晰遂承記莝且云他日祖道必賴此子宏揚常自度云雖達毗盧宜宗普賢聞寶應嵩巖與復庵唱道聲高器量沈雅禪風大振存誠敬謁遂入嵩巖室參訪之暇思留翰墨重九有句云賴有黃花封巖頂又添紅葉壯嵩陽嵩巖聞之曰海維那異日當為嵩山法主至元丙子聞復庵受萬壽寺疏遂北上入復庵室見其穎悟特達即以衣頌付之及復庵退居齊河以書召之俾應嵩山法王請果符其兆至元庚辰春倡演大法使綱頹載振紐絕復維叢席規矩井井有序猶以臺門殿堂棟宇榱桷宜壯瞻眎乃鑿西堂堦垣後崖廣基以起海會延十方雲侶金碧燦爛實嵩陽之勝跡也丙戌夏龍門寶應汝陽香山二疏交至乃就香山欽綸命也自指門登座至大德丁酉凡十二臘其創者四圍石基正門丈室水擊來麤之具厥三所焉寺處山顛唯雨水是賴海以己資餽運給用始終如一昕夕課程傳誦不怠度苾芻千餘指大德戊戌移席靈巖至則曰危哉巖乎名非妄得遽命匠師鑿鑿廣平隆殿堂於久替新丈室於將敗簷牙棟桷無不備焉大德壬寅挂錫南陽丹霞山古跡成燼府北叢竹廣袤三頃寺產也比丘眾野處其中海傾囊鳩工作塹深廣成尋以禦諸畜舉磬魚竈釜於瓦礫之餘手足胼胝不辭勞苦竹利遂充日用已而

詢眾泣請返錫香山未幾應召入都主萬壽禪寺大德乙巳勅賜元寶萬五千緡王公通施亦二萬緡以之濟眾羸羨計焉至大己酉春正月戊戌以疾示寂茶毗靈骨分瘞靈巖香山法王丹霞皆壽塔焉壽六十有八僧臘五十一皇慶二年孫榮享為之銘桂庵覺達為之書丹並篆額覺達字彥通桂庵其別號也尉氏李氏子幼穎悟年十三禮龍門寶應嵩巖為師披剃之後登壇受具施以鉗鎚便有人路嘗造燕京之萬壽復庵一見待若故人授以衣鉢復參林泉心清目冷室奧門深屏退紅塵消殘白日百煨千煉刮垢磨光林泉付以衣頌至元二十二年出世椴谷山龍巖禪寺人懷優足物慶豐榮四載而退居燕山藥師小剎粥魚有序齋鼓依時寒谷生春燼灰發焰及寶峰退院靈巖虛席遽疏禮請辭讓再三殷勤六祀百廢具興渡河而南至於法王暫為小隱又為法侶延居香山普門闡化無窮浮生有數達既能文頗復擅書所傳塔碑多出達手筆力質勁今有存者

元泰安靈巖寺沙門釋思泉傳

釋思泉姓何氏象元人早失恃怙瑩然孑立年十有六禮寶峯順為師泉氣宇不凡既習經業兼究玄旨大愜順心瞻禮四方首詣燕都報恩林泉蕪香叩請窮研數載頗有悟入後至萬壽東川總統入室誠祈亦有啟迪偶值餘暇旁通醫書嘗遊上都依經作法捨施妙藥居數十稔頗厭京塵直詣山東靈巖充職首座廣種桃杏徧滿山谷依元舍藥不悵囊貲人多德之同侶思亨姓趙氏愛凌人亦寶峯順弟子也披度後負笈游學博通諸經又以餘力兼窮儒典善讀廣韻能曉切音道高貌古德厚人欽諸路釋教都總統仰厥譽聞加號圓明慈覺大師而昭文館大學士榮祿大夫又加號曰明宗廣教大師思泉亦受慈濟大師之號於昭文館大學士萬山司徒蓋當時加號出自朝廷國師而外更出自達官抑昭文館或謂屬之司徒即朝官司僧教者乎而亨歷充燕京萬壽山東靈巖教讀皆著道聲云

元泉州開元寺沙門釋大圭傳

釋大圭字恒白號夢觀姓廖氏晉江人也父曰休庵家世儒學圭初亦習帖括苦志勤學稍長善屬文有聲於時父忽詔之曰吾為佛不果吾以汝捨佛汝其毋違圭乃禮開元廣漉得度凡三歷職而至分座秉拂宣政院檄主承天謝不起客有勸之者示以偈云幾年學得舞腰肢到處身將竿木隨底事逢場羞作戲只愁笑倒鄧禪師又云水牯還生水牯兒入田不放鼻頭低秋來禾麥多成稗空負先農一把犁乃相視一笑而罷嘗築室開元之西曰夢觀堂吟詠自怡素性爽特學博識端為文似柳為詩似陶吳鑿稱其為圓機之士能貫儒釋而一之真知言哉所著有夢觀集紫雲開士傳今讀其書自唐迄元傳七十二人以匡護始以契祖終祖之嗣曰始照曰崇會其行事皆

有可傳而圭乃自記曰照吾嘗侍其旁掌其記會吾嘗分其坐知之固甚詳然必為之傳則私而諛矣故繫其名於祖傳以俟作者傳之於戲可想見圭之為人

元渭南洪福寺沙門釋子成傳

釋子成字彥美別號妙明子霸陵人出家於渭南洪福寺遇魚巖老人祥公處得法闡揚大乘經論元至正間詔封傳大乘戒賜紫闍大國師其性愛書史喜翰墨樂遊學好著述每與賢士大夫詩詞唱和一聯一句落在叢席人多傳之如鸚鵡詩云學得人言字字明便能巧語為通情不知身在樊籠裏猶向堂前弄舌輕晝寢云夢魂不管擎書手一帙南華墮枕邊閑遊云家家明月誰無分處處青山我有緣水心亭云綠芰青荷香滿池環亭冷浸碧琉璃高軒矮榻無纖暑臥看清波浴鷺鷥其長篇短偈例皆如此尤能洞明本宗佛法白水鄉貢屈蟠與縣大夫張昂請註心經五日而成萬二千言辭理精當歎為難能又嘗綴述本色法事文集僅二百首語句雄麗旨意渾成同侶得之珍秘不出抑為艱得無意多傳後以兵火數驚避居終南石室契此山林怡我禪性嘗與來客問難詰折事盡終始遂錄成軸名曰折疑論首之以序問終之以會名凡二十篇言簡而理當文約而義豐涵泳六經略備諸子每一篇之中其引類證斷決折疑理甚明白今見傳本金臺大慈恩寺西域師子比丘為之述註

- 雜識篇第十之三(正傳十五人 附見十九人)
 - 明海鹽福臻寺沙門釋梵琦傳(梅雪)
 - 虎邱靈巖寺沙門釋至仁傳(心覺 德珉)
 - 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宗繁傳(善緣)
 - 泉州開元東塔院沙門釋正派傳(無斷)
 - 燕京萬福寺沙門釋淨倫傳(覺明 覺義 波羅)
 - 荊州普仰寺沙門釋滿秀傳(正海 死心)
 - 雲南昆明寺沙門釋廣慧傳(天祥)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照兼傳(清蔭 寂章)
 - 荊州天皇寺沙門釋寒灰傳(常鎮 碧空)
 - 永嘉西岑紫芝峯沙門釋性靜傳
 - 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智闇傳
 - 金陵棲賢庵沙門釋性潔傳
 - 雲南石寶山寶巖寺沙門釋思明傳(大錯 警秀)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德璩傳(德一 德言)
 - 福州雪峯寺沙門釋超弘傳

明海鹽福臻寺沙門釋梵琦傳(梅雪)

釋梵琦字楚石小字曇耀象山人嘗閱楞嚴至緣見因明暗成無見恍然有悟元叟端倡道雙徑琦往問之言發非聲色前不物其意如何叟就以詰之琦擬答叟叱之使出自是胸疑如填巨石會元英宗詔粉黃金為泥書大藏經以琦善書選至闕下一夕聞樓鼓動汗如雨下拊几笑曰徑山鼻孔今日入吾手矣因成偈有捨得紅鑪一點雪卻是黃河六月冰之句旋入雙徑叟見其氣宇充然謂曰西來密意喜子得之矣元泰定中出主海鹽之福臺尋遷永祚明洪武初詔名浮屠於蔣山建廣薦會琦首應詔躋席說法圓音高唱萬籟俱清帝心悅懌賜宴文樓親承顧問既還出帑金以賜之館於天界寺忽謂噩夢堂曰吾將去也曰子欲何之曰西方爾因訊之曰西方有佛東方無佛邪琦厲聲一喝泊然而化茶毘齒牙舌根數珠咸不壞舍利黏綴遺骨纍纍如珠所著有楚石語錄及和永明山居詩并見寺志又梅雪亦閱楞嚴次見一毫端現寶王剎有疑後至江陰觀乾明寺佛閣壯麗頓釋疑情淨慈休休翁證之其所著亦有和永明詩寄幻集

明虎邱靈巖寺沙門釋至仁傳(心覺 德珉)

釋至仁字行中姓吳氏番陽人晚號澹居子又號熙怡子父仲華江州廣文仁五歲其親使拜報恩寺真純牧公七歲得度西土控空上人赴英宗召便道憇報恩見而歎曰再世人天師也令參厚叟於雙徑叟喜謂曰仁書記虎而翼者也出世蘄之德章越之雲頂崇報吳之萬壽明洪武三年來往虎邱之雲巘道涵德隆四眾雲集旁通外經尤邃於易發為詞章嚴簡而有法務在匡宗不以此自多嘗撰黃州蘇文忠祠堂記虞道園稱其文言謹奧有西漢風張潞公寄以詩曰今代能仁叟高風播海涯宋文憲亦曰虎邱尊者名浮屠見性炯若摩尼珠被召至京以佛旨為書而對太祖大喜洪武十五年三月十九日示寂壽七十四臘六十七又心覺源住虎邱名德推重郡人易恒詩有白雲尋老衲有約不須招之句又姚少師廣孝詩所謂聞道蟾公似贊公一瓶一鉢寄山中者是也與高啟徐賁為詩友德珉字伯貞號在牕嘉興人洪熙間住虎邱工詩

明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宗繁傳(善緣)

釋宗繁字獨芳姓陳氏閩人也年十六從鼓山光嚴得度出嶺參天界寺芳林明洪武壬戌舉住舒州浮山己巳閩郡僧綱舉送教府考選中程主席當山繁富於文學尤擅詩名與郡人唐震王褒周元王偁為友多所唱和有詩集行世寂於壬午葬祖塔善緣字了心侯官姚氏子七歲依城東寶峰庵無塵出家參鼓山藍田後住南京靈谷寺禮僧錄闡教幻居大師永樂三年鼓山虛席領檄主之建千佛閣五年春詔設廣薦大會於蔣山徵天下名僧善緣應詔入京說法稱旨恩賚甚渥賜號成就秋歸舉任都綱後寺燬於火善緣重興殿閣及諸寮舍宣德庚戌還珠閣壞更為募建明年落成十月示微疾十九日沐浴更衣口述生平行業命侍僧書之所積金穀悉委其徒命剏大殿三門語終而寂塔於獅峰著有靈源集蓋取鼓山前代老宿事實編為敘傳及名人文藝為山志之權輿後黃用中徐興公相繼纂輯即本於善緣

明泉州開元東塔院沙門釋正派傳(無斷)

釋正派字覺非姓蔡氏晉江人也生有夙慧苦志勤學出家後居東塔院博洽諸經兼以文藝助我禪悅時有無斷老宿棲止寺中淹通內外典籍素見重於王遵嚴諸文學正派承其啟迪別有會心無斷深契之一時名籍甚郡司寇詹昞亭以直言歸結室北山巢雲延正派居之禮意殷殷山中唱和有竹下烹茶雲入袖松間倚杖鶴窺人之句後遊吳越名藍勝境咸有題詠人多傳誦昞亭復邀朋輩及諸名德結楞嚴社每會人立一義多方參辨唯正每奪其標有云慙愧未能成底事逡巡難得似前人可見派之素履不以文害志也臨終示偈曰勿毀勿讚本無涯岸雲度長空月浮碧漢世壽七十九

明燕京萬福寺沙門釋淨倫傳(覺明 覺義 波羅)

釋淨倫字大巍姓康氏昆明人也幼性敏慧卓越不凡明正統庚申禮大華無極泰出家受禪學戊辰謁大方天順癸未參古庭於浮山一日問答間偶呈偈曰叢林處處播春風此日尋師到別峯末後聲前句非句寫在山河大地中庭喜遂入室授法為臨濟二十四世薄團深穩極盡玄妙成化乙酉卓錫都城創萬福禪林宗風鬯懋緇白來者無虛日癸卯登五臺弘治庚戌復遊五臺王子歸竹室閉戶讀藏薰室自脩所著有竹室集多宗門語同學有覺明覺義者明字絕機李氏子義字徹堂倪氏子皆滇城人也俱為無邊海弟子偕參古庭一日相與言笑忽焉語歇並坐化去乃共為一穴造塔其上額曰雙月淨倫為詩紀之曰塔目何緣題作雙月名道人高行信湛評虛懷比比冰霜清小朗大朗為弟兄三十青黃節不更只觀百歲如長庚日嘗一鉢和羅羹庵前孰趁春風畊有時對月陶幽情有時坐石談無生此身不啻一點晴雲輕身外何時能營營虛空無縫藏枯形卻把雲根苦鑿成巖壑含虛兩鏡明海天瀉影雙珠擎碧雞午夜空山鳴溪頭眠雪泥牛驚可似南陽一片話頭行千古萬古遺嘉聲又波羅禪師姓趙氏大理人初居蒼山嘗登懸崖西向禮佛洞明經地後謁諸方印心於古庭歸而禮佛如故一日經行巖上屹然立化七日不踣鄉人香燭禱之輕如一葉遂就茶毘得堅固子七瘞於浮圖後人名其壁曰波羅巖山勢巖嶮登者凜然風吹草木皆作禮佛聲所立之石足紋宛然塔於蕩山院宇猶存

明荊州普仰寺沙門釋滿秀傳(正海 死心)

釋滿秀字天柱自號倉谷老人初依北宗出家傳大通下二十八世後參伏牛發明心要龍池老人以衣授之於時有兩宗並立之目以秀北宗人南宗法也及主荊南普仰寺暢厥宗風復區南北有禪者正海自宜都來與語契之煅鍊三載即付以北宗正海別有傳其南宗法派則傳之正海云以明隆慶戊辰說法示寂門人取舍利建塔奉之有倉谷集若干卷行世後有死心者黃崗諸生袁文煒也削髮京師崇國寺公安袁宏道兄弟偕之作吳越遊已而歸楚愛大別山水卓錫藏經閣明萬曆時止龍灣之南聖壽寺宏道有贈死心詩具別集時遼陽用兵死心感而賦詩云烽火城邊百將營百家鈴鐸萬家聲中原子弟花千朵絕塞將軍草一莖膏血總輸還列陣文章無補漫談兵只今海內干戈起未必禪房夜夜清死心頗好吟詠惜多散佚

明雲昆明寺沙門釋廣慧傳(天祥)

釋廣慧字野愚嵩明人幼習詩書才情開敏既通文理尤契玄機後得法於水月禪師便事遊參行腳江南數十載始歸滇胸懷廓落居無定所而學藝

日進雅望益崇著有頌古百則漚花集諸編其他題詠頗富有雞足山觀風一絕云遊徧蒼崖盡法身誰云門內更藏真相逢欲問拈花事千古空傳獻笑人聚洲王太史以師禮事之後於昆明示寂闍維獲舍利手骨赤如珊瑚辭世偈云一句原無踏倒太初非凡非聖萬象如如後有天祥者不知何許人居大理城中通志載其詩有聞角一絕云十年遊子在天涯半夜秋風又憶家恨殺葉榆城上角曉來吹入小梅花又題龍關水樓云此樓登眺好終日俯平湖葉盡村村樹花殘岸岸蘆漁翁晴獨釣沙鳥晚相呼何處微鐘動雲藏島寺孤有禪外意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照兼傳(清蔭 寂章)

釋照兼字守泉姓陳氏海鹽人幼而機警性復慷慨以利濟為心九歲出家為小沙彌從塾師受四子書讀孟子至盡心章恍然曰心藏佛者也性即佛也見性則見佛見佛則無佛而後可以證道乃屏雜家專究釋典又念人生斯世須有功德及物慈航普濟願力深廣未克一時了償因欲量力拯救隨緣施捨拔去疾苦則事易舉於是禪習之餘更習醫方詳繹內經靈素洞曉脈理活人不可勝計嘉靖中運分宜用事瘡痍遍世忠良莫保照慨然欲如京師面短之同侶咸謂非僧家所宜乃止然每中夜趺坐北向長吁不置云嘗闢外麓山房延接名流更設藥局以宏胞與與人談論洋洋灑灑終日無倦容見有疾則愀然為之不樂若大病之臨身也茶毗後瘞安樂山塔弟子清蔭字宏泉嘉興蔡氏子少聰敏薙髮外麓襲照業以醫鳴於時而修持益力因往平窰聞谷大師所受具足戒歸請徑山義航法師說楞嚴般若諸經有楚才者重建圓通閣未畢而歿蔭為勉力成之復倡修大雄殿木商倪作霖曾受病幾瀕於危為蔭所全活因施三百金購大木以畢其願及蔭寂塔於西山月桂峰下後數十年開拓禪房猶用其遺材不盡云又寂章字密印桐鄉毛氏子自幼披剃受具足於靈隱具德禪師以醫能救濟眾生遂紹宏泉之業且謂人曰不能作人天師何弗精岐黃術可想見其為人

明荊州天皇寺沙門釋寒灰傳(常鎮 碧空)

釋寒灰不知何許人善誦梵唄杭聲高引字句清圓響入重霄令人聞之竦然起敬萬曆間來棲天皇嘗以香水和金汁寫金剛經從朝至暮手不遑息偶近黃昏几上無鐙若有微光筆不停書便入初夜因饑思食纔一轉瞬即呈黑暗[言*乎]火視之字畫端嚴無異平日同時有常鎮字玉菴者當陽李氏子也好學不倦於孔墨莊老無所不讀一日閱佛書悟三界無安猶如火宅悚然學出世法與碧空禪師水乳交融乃說髮焉鎮風度端凝神采挺秀士大夫咸推重之每講摩訶止觀大智度論涅槃諸經聽者萬指嘗有偈云珠泉白日淨塔影半空沈門外長安路雲中智者心時南大理寺卿陳夕

矚贈詩有詩能譚上界我亦愜西方之句居寺三十五載德流緇素名播中外以萬曆九年十月十七日示寂塔於大通寺後其辭世偈云彌陀此日來山僧此日去登高一叉天撒手雲深處雲深處沒毀譽吾道一貫之原來是忠恕

明永嘉西岑紫芝峰沙門釋性靜傳

釋性靜字普緣武林人也初淨髮於西湖久之弗怡攜所貯手掣茶策杖天台千丈瀑下及五泄龍湫遍試之至永嘉聞西岑紫芝峰下有鑑泉為張又新守郡時烹茶水亟荷瓶往至則一泓冰冽出旗鎗淪鬪不在中櫺惠山下迥然曰吾老是山矣遂卓庵其旁穀雨團黃競芽走大羅諸絕巘摘盈簍肩歸以意製之越宿茶成注諸甌令雪黑浮香撲案啜之一時遐邇噪紫紫芝峯下僧茶特異凡高人墨客名緇勝羽及薦紳先生赴如奔泉靜不殊彼我操單持滌鑿注缶人人自以新遭盧玉川癖歸而吸他茶便不爾或詩渴酒醒亟詣雙杵茶煙下乞一杯如醍醐灌頂性簡率冬夏一方布袍修幹鶴[月*翟]留髭伐髮或兼旬嬾薙毳毳被兩耳晨昏無恒課而魚磬自若不輕度弟子而道侶日相問訊所居不過茅茨而盛飾一無量壽佛像窮極莊嚴客至伺陸竈水沸開雲腳浮乳花引滿別去不講道說偈而禪味醴醴直從舌根證入林殿閣任先劉方伯元受邵水部金門周雪朗陳三有兩孝廉咸與之遊皆深徹佛旨謂靜乃透悟如趙州喚喫茶者不是過也而自起鑪竈獨關心傳熱鑄熾炭煨十指如舌錐其醜遠則署曰普緣茶得之者珍異如摩尼珠優曇花不必曹溪一花五葉而後侈盛也靜以明萬曆庚申住此山至己丑十月十有一日示寂郭仙庵茶毗葬紫芝峯下李象坤為作茶祖禪師塔銘文詞清麗自載別集

明福州鼓山湧泉寺沙門釋智闇傳

釋智闇字雪關姓傅氏上饒人齠齡捨身徧習經論便解文義稍長讀壇經火燒海底句心大疑之往參博山山示以船子藏身語默究久之偶見槽廠拽磨忽磨鼻脫去有省作偈呈山山曰子可參禪也一日指衲衣令作頌闇援筆立成五頌山曰汝偈固佳但風骨大露須知宗門語句如滿口含冰不曾道著水字復曰子根太利須是死却全心始得闇再拜受教即閉關六載中懸大鏡對之趺坐纔覺業識心動便指摘鏡中人久之收放自然作雪關歌山見之擊節稱善乃為啟關壬申曹能始觀察請開法當山解制上堂曰九十日期已滿閉門作活事不曾捏殺彌猴子重疊山關未易過大抵末法禪期真參罕遇縱他意樹抽枝未見心花成片雖然如是冷冷豈無一粒豆燭有不跨石門扶持祖風者乎如無且向蘆花深處宿月明穿過釣魚臺未幾示寂建塔博山闇亦能詩詠天鏡巘云扁秘靈奇久鴻濛忽啟藏巘吞江

霧白泉灑洞門涼鏡可容天面窗惟貯月光道人何所見一鳥過滄浪惜多
佚亾

明金陵棲賢庵寺沙門釋性潔傳

釋性潔字潤庵別號樂愚博野人失其姓氏童年依城西寺瑜伽師剃落習
讀經論年二十隨香者步至五臺山見師子窟法席之勝乃求依止時空印
喜其年少氣勁許之入堂三年之中華嚴大鈔與諸經論聽習已周究竟佛
法大旨不在文字知見因棄前日所蘊敝衲一肩孤身萬里歷抵諸祖道場
禪講尊旨一視無餘拂衣竟去仍歸五臺空印視之曰南方行腳一遭一領
破衲也不曾換卻性潔曰師不與換誰能換得空印頷之萬曆庚子隨侍空
印至燕京止明因寺啟楞嚴法席踰年南行止雙徑凌霄峰下而同侶觀衡
禪師方出天臺直造徑山相訪見之大喜是時茶熟要衡入山摘茶衡曰住
山人貪心亦不除多茶何為潔曰你也得飲衡曰我祇待人以茶飲我潔一
喝衡曰幸汝不似我般人已而衡去潔亦結社匡山栖賢寺未幾復持鉢白
門縛茅於謝公墩右雖在城市蕭然獨處瓦罐茶鐺更清於巖穴深處真火
宅中一團冰雪有為煩熱所逼一與相接頓入清涼從此高人名士多就之
消其俗燄即塵肆若山林未捨人間已超然世外矣而大司馬李公殿元劉
公密契尤深而印入心源者則宗伯凌公侍御陳公已形影無間於是易茆
茨以薨棟儼然一功德林因自栖賢來亦頷曰栖賢志不忘也潔居此二十
餘年煙霞城市變幻無時心目間唯匡廬在望而已以崇禎十五年九月二
十九日示寂卜塔於牛首山中啟穴則有山之耆宿號慧明者先在其中乃
二函同葬共作一塔亦如多寶釋迦分坐一塔以示十世古今終始不離於
當念十方剎海自他不隔於毫端者也癸未釋觀衡為之銘具顯愚集

明雲南石寶山寶巖居沙門釋思明傳(大錯 警秀)

釋思明者劍川向湖村趙氏子本名啟華以諸生試高等食廩餼將貢太學
而明亾因入寶巖披薙自號思明以寄意焉往來三迤間行腳無定晚出黔
蜀不知所終所著詩曰一衲吟草已佚獨雞山傳其題壁一律云浮杯萬里
涉煙波白衲團團破似蓑龍象箇中知己少江湖方外故人多幾年行腳誰
能識一曲陽春獨自歌到處隨緣堪挂錫無邊風景寄松蘿又有大錯者丹
徒錢邦芑也明季官雲南巡撫品節學問冠絕流輩明桂藩稱帝建號永曆
邦芑竭力翊衛為結李定國劉文秀白文選以阻抑孫可望其功最多帝倉
卒奔緬甸相從不及乃削髮改僧服自號大錯往來滇黔晚至衡嶽死即塔
焉雞足山志徐霞客創稿簡略未刊大錯居山一年大有增補為滇中山志
善本所著蕉書及詩文集皆散佚劍川趙聯元搜輯編為遺稿四卷其詠梅
柳詩舊有傳本已刊入雲南叢書又警秀字補樵永昌人年十一遭亂被掠

至江南為宦家子心厭浮華入南嶽福嚴寺為僧初師原直後從見月及主德山尋親至滇父母早世作履霜詠而還著有湘煙集倚鳴禪師語錄

明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德璩傳(德一 德言)

釋德璩字寶兩姓陳氏嘉禾人璩他本或作[王*虔]而字姓籍地事跡皆同知一人也璩方七歲隨父入杭至雲居聖水禪寺見紺宇宏麗寶龕嚴飾道心激發如逢夙遊捨之出家欣焉樂從初禮慕雲後參覺明十年之間兩師繼寂璩未披緇縵膺寺務勤瘁敏達咸嗟異之年二十三受戒於聞谷大師持之嶄嶄惟謹及赴新伊古德講席數年得提示之要於是攜屐挈鉢西走豫章訪匡氏之遺廬踞紫霄之絕巘空濛寂歷如遇真如久之乘風放武昌摩赤壁長江盪胸大崖聳日廓然有洗空一切之意迴櫂白門花巘彷彿南宗點滴在師軍持一揮手間即得所至境與年忘尋以歲歉還棲寺中蓋冥心參訪又幾許年復杯浮閩渤延睇武夷攬九華三谿之勝三年而遇漢冲林君鼓琴而樂之盡得其傳遂稱絕調願受教者無虛時過萬玉山房有聲從巖谷冷冷而出不知其在十指間也璩為人伉爽能任事與人交歷久無倦容更好為之下遇橫逆則坦然受之不與校世人以是益重之性誠慤每登壇作法必有奇應常為延平令陸君道胤追薦亾母夜風雨滅燭有光白天照壁如日見者驚歎馮之煥父參軍楚南樞返自燕未抵家門夜半於逆旅蹴同行者夢中使起曰吾家有使召我及歸詢之方百日仗璩設薦故也儀真守將楊新亡母迎璩資往見母冉冉駕空躡梁而來新投地哀號望璩頂禮微師吾誰與見母生天也著有如雲集又德一字達方仁和郎氏子禪學之餘兼精詩賦一時名流樂與往還年登大耋趺坐而化有詩集一卷德言字心學精岐黃工詩能文總河陳鵬年少宰湯右曾仇兆鰲往復唱和有趺翠樓詩集一卷

明福州雪峯寺沙門釋超弘傳

釋超弘字如幻姓劉氏惠安人也父佑官潮州府學教授家世儒素生而聰邁髻齒能文手不踰慮十九為諸生屢試冠其曹受知賞於黃相國石齋才學重於時年二十七嬰劇疾知四大匪堅生死事大偶讀維摩詰經益信有宗門向上詣遂有絕塵之思喜從方外遊值雪峯巨往還黃檗道出惠安邂逅瞻拜便蒙激發於是矢志皈[殷- 爻]尚羈俗緣荏苒歲月世情愈澹明季喪亂清兵入關天下改革頒令薙髮弘乃慨然辭父母捨妻子就平山寺從徹際脫白然戎馬滿郊所在糜沸久之途徑稍通乃卷衲趨漳依巨師於南山寺止於侍寮痛下鉗鎚多有省悟巨所居泉之招慶延福會城之芙蓉雪峯弘皆執侍左右殷勤十載拈頌機答無爽玄旨一日巨問簷前雨聲點點滴向何處眾所酬對俱未契弘曰否則落在師鼻孔裏巨首肯之丁酉歲

隨之慶城竟授以衣拂戍^戊春歸溫陵不常厥居盤桓山水間笠杖蕭然久之出主靈應寺無香儲恒苦不給因自持鉢以資饘粥乙巳^巳霞舒蘇家諸檀樾延居楊梅山雪峯院亦真覺禪師舊刹也與衲子數輩刀耕火種暇則為說大義道望蔚然距雪峯二里許有慧泉古基王子蘇君爾源翺建精藍迎弘居之從此逍遙兩寺與名流達者詩偈書疏往來酬答十有四載戊午春年已七十四矣知期將至謂其徒曰曉露春霜光陰無幾可預建一卵塔身後毋為爾累即啟土督役復自撰銘中夏工就每言中示意不久於世至十月初始有疾眾進藥食則卻之曰世緣已盡食無益也客至則執留之曰相見無多日吾當與子訣笑言不衰二十日沐浴更衣吉祥而逝壽七十四夏三十二著述甚富今所傳者瘦松集八卷及語錄二卷

- 雜識篇第十之四(正傳十四人 附見九人)
 - 清虎邱雲巖寺沙門釋自局傳
 - 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元賢傳(道霈)
 - 泰山普照寺沙門釋元玉傳(佛藏正)
 - 四明天童寺沙門釋本豐傳(一揆)
 - 磬山青溝禪院沙門釋智朴傳
 - 福州雪峰寺沙門釋照拙傳
 - 漳州南山報劬寺沙門釋超極傳
 - 長沙嶽麓寺沙門釋續燈傳
 - 嘉魚西安禪院沙門釋弘照傳(宏琛)
 - 燕京觀音禪寺沙門釋元徹傳
 - 南嶽石浪庵沙門釋法智傳(異目宗)
 - 黃山雲嶺禪院沙門釋普信傳
 - 昆明妙湛寺沙門釋讀徹傳(一雨 水目)
 - 大埔南安寺沙門釋幽冥傳(成鷲)

清虎邱雲巖寺沙門釋自局傳

釋自局字道開號闔庵姓周氏吳人出家虎邱詩如石田畫宗巨然師事蒼雪徹汰如河通賢首慈恩二宗旨歸講圓覺於虎邱講涅槃於華亭講楞伽於武塘妙義雲委如餅瀉水順治壬辰六月自檣李歸虎邱東小庵屬疾數日邀蒼公坐榻前手書訣別有曰一事無成五十二載一場懨懨雙手拓開志氣清明字畫端好斂衣端容擲筆而逝塔在庵右其徒文圭謁虞山錢謙益為撰塔銘

清鼓山白雲峰湧泉寺沙門釋元賢傳(道霈 法文)

釋元賢字永覺姓蔡氏建陽人父雲津世守詩書遠祖西山為宋大儒賢初名德懋早歲入泮為名諸生嗜周程張朱之學年二十五讀書山寺聞誦法華偈豁然開朗因從趙居士豫齋受楞嚴法華圓覺諸經明年壽昌無明開法董巖賢往謁之反覆詰難無明曰此事不可以意解須力參乃契歸究語頭久之無所入一日留僧夜坐舉南泉軒貓語有省乃作頌曰兩堂紛鬧大無端寶劍揮時膽盡寒幸有晚來趙州老毘盧頂上獨盤桓舉呈無明明謂之曰參學之士不得於一機一境上取則雖百匝千重垂手直過尚當遇人

所謂身雖已在青雲上猶更將身入眾藏是參學眼也為別頌曰大方之家手段遇物一刀兩斷趙州救得此猫未免熱瞞一上若是有路英靈畢竟要他命換賢得頌益省年四十始棄家往建昌依壽昌寺無明落髮未幾得承心印及無明遷化依博山無異三載遂進具戒嘗舟過劍津聞同行僧唱經云一時警效俱共彈指是二音聲徧至十方諸佛世界賢因徹悟見壽昌用處乃作偈曰金雞啄破碧琉璃萬歇千休祇自知穩臥片帆天正朗前山無復兩鳩啼癸亥秋居甌寧金仙庵閱大藏三年徙建安荷山明年之樵李請藏經歸作建州宏釋錄復會通儒釋作窠言壬申謁聞谷於寶善庵時宜興曹安祖兵憲請作諸祖道影贊乃屬賢命筆賢成百餘贊聞谷驚訝不已即以大戒付之推主鼓山年已五十有七矣尋遷泉之開元杭之真寂劍之寶善復歸鼓山重剎梵宇諸所撰述並語錄凡二十種都百餘卷其目曰淨慈要語諸祖道影傳開元志禪餘內外集楞嚴義奧疏金剛略疏心經指掌四分戒本約義律學發軔鼓山志洞上古轍及續窠言補鐙錄以補五鐙會元之闕復作繼鐙錄蓋傳鐙錄止於宋自宋至明四百餘年未有修者賢廣蒐博採至是乃有成書寂於順治丁酉年十月七日壽八十臘四十有二臨化偈云末後句親分付三界內外無可尋處塔於寺之西畚其居山頗致瑞應甲戌四月十一日甘露降山門松樹賢有偈曰聖瑞端宜降大都窮山何得獨沾濡曉來扶杖三門外笑看松頭綴玉珠至九月十九日甘露復降亦偈云玉露霏霏又一番滿林花木已同繁丁寧莫道甜如蜜恐惹遊人人石門道霈字為霖建安丁氏子出家白雲寺參聞谷密雲歷諸講肆後得法於賢撰述甚富有語錄行世寂於康熙壬午壽八十有八又法文字淡然姓蕭氏沙人也依天寧常青披剃參圓玉得法乾隆時繼席鼓山能屬文擅詩名有詩集行世

清泰山普照寺沙門釋元玉傳(佛藏正)

釋元玉字祖珍號古翁廣陵崇川得法金粟天岸居泰山普照寺聚經典數千卷澄思密探寺前一石題曰界塵石名流往訪咸比之遠公蓮社有石堂集金臺隨筆諸刻佛藏正禪師者江南望族履豐處順顧棄之若遺誓死入山終能解脫得大自在康熙丁巳秋緇素敦請繼席古中盤初有大博禪師道隆望重中興斯寺正從之修省得其法要奮厥孤標苦志枯守不下山者有年戊午九月翠華臨幸入丈室取正所著語錄偈頌閱之欣然命筆題額且賜之詩詩曰中盤遙望蓮華峯日映山林氣色重老衲吟詩渾半偈翠輿臨發又從容是年除夕重書前詩命御前大臣薩畢漢賚之至寺正復以偈讚之云御筆題詩第一峯翠華初駐靄重重盤山草木承恩澤野衲欣逢識聖容蓋自彩筆倡酬三聚雲臻一乘雷震而祖庭道法丕宏厥緒矣

清四明天童寺沙門釋本儂傳(一揆)

釋本豐字遠菴姓陸氏崑山人也襁褓即孤依母與兄因感嫂亡屍動懼而告母求出塵世母曰我昔見天童僧行不凡汝果有志可往從之即依命翦髮徑投天童時明崇禎壬午六月初七值密雲退休通玄欲往求度俄阻危疾既聞密逝山翁道忞繼席遂從薙度前後追隨歷經八刹服勤一紀其間鉗錘鑪鞴艱苦備嘗受付囑於崑山安禪菴清順治十二年冬就維揚寶積院請明年四月始入院示眾僧問春風吹大野萬物盡光新為復法爾如然為復神通妙用豐云脫殼烏龜飛上天僧云一聲幽鳥雲天外靄靄山光翠欲流豐云卻被風吹別調中僧云青帝不勞常作主迥然不逐四時凋豐云如何是不逐四時凋底句僧禮拜豐便喝豐嘗至巴陵叢禪人統四眾就普濟庵請小參不傳之道迴絕雕鐫松直棘曲鶴白烏玄山僧不是無玄可說無妙可宣不欲強生節目誑惑閭閻簡直說一句究取父母未生前機緣尋應湘陰神鼎之請始為開法遷主天童凡十二載移蛟川之瑞巖未幾繼席平陽山翁示寂應鄞白雲之請尋復歸瑞巖康熙癸亥秋入寂世壽六十有一著有前後語錄詩集數卷其被衲歌戲贈兀菴大師者詞曰千絲織萬絲綴通身是眼百雜碎秋雲卷處波紋開荷芰幅邊柳線脆翦盡煙霞補不全歷窮天地不知歲冀掃衣何森秀鳳毛麟腋俱落後領頭袖底自玲瓏文彩縱橫欺綿繡非全瀾真越格千聖不傳誰爭得珍衣不換老瞿曇護持那費迦葉力不入眾寧隨色非青非白非黃黑挂松時上綠苔痕梳風不染紅塵跡或時蒙或時披世事如麻總不知不特御寒還御熱任數日炙與風吹誰為伴誰為鄰椶輦竹杖與蒲輪竹杖他時化龍去渠能解作彌天雲詩境禪心道通為一一揆禪師者後雲外而闡化神鼎者也其掃雲外塔云慣能喝罵諸方盡謂師有超師之作殊不知日月出而燭火息獅子吼而百獸藏雲散盡月孤圓逢人索盡遼天價罕遇鸞膠續斷絃

清磐山青溝禪院沙門釋智朴傳

釋智朴字拙庵徐州人早歲參方嘗謁南華憇佛日峰住五老東西二林間最後得法青龍百愚為洞宗三十世康熙辛亥始艘磐谷構葺青溝之中盤漸成巨刹禪餘更耽藝文詩有佳句為世所稱丙寅季冬聖祖駕幸青溝朴口占應制詩曰冷靜峰頭雲水香六龍車駕幸山堂百年勝觀唯今日塊兩條風祝我皇既愜聖賞遂承宸翰舊無山志朴思剏之搜集遺聞傍及碑碣都十有四卷體例嚴潔九載乃成後得王阮亭朱竹垞諸賢為之參訂益臻完善但朴所著書甚富曰谷響集曰電光錄曰雲鶴集曰盤谷集曰存誠錄曰遊臺集曰辛壬蔓草其寺後人亦稱盤谷寺沒葬寺東同治時寺已荒落薊州李江過而傷之為立石題曰清詩僧智朴之墓

清福州雪峯寺沙門釋照拙傳

釋照拙字道余姓方氏莆田人也父漢卿儒修甚勤母陳氏感奇香滿室而娠崇禎癸酉重九日生兒香氣如前鄰居異之年十二怙恃俱失從聖壽寺竹叟薙染誦習十載往福爐依時學受具足戒竹叟既沒仍參福爐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良久領悟大旨作禮而退益加策勵會如幻移錫芙蓉邈迤之間便承激揚有如鍼芥遂依座下久之復辭去參虛白於黃檗機鋒酬酢證合無異及如幻應武榮雪峯之請馳書招之隨至雪峰兢兢自守戊午重九日如幻付以衣拂使之繼席雪峰後如幻寂為輯其語錄序而刊之寺左六和樓改建方丈久未就拙集檀信經營乃成以康熙甲申年四月二十四日示寂壽七十二臘五十塔於寺右拙賦性恬澹言笑不苟住山四十餘年甘淡泊以法道自持高風峻節足為典型著有雪峰語錄雪峰詩集二卷及毬堂草一卷

清漳州南山報敏寺沙門釋超極傳

釋超極字休耳晚號笨翁姓陳氏靖人也父於明季以卿貢進士謁選入都病沒燕山會流冠鷗張京城淪陷旅櫬未還心懷忍痛絕意世榮竟從雪峰巨薙染得法後飄笠孤征辛勤萬里遂負櫬歸得首正丘嘗慨中原板蕩陵谷遷變欲滅跡銷聲枯槁嶷岳因結茅曹巖之白壑復移長泰天城山息影棲遲極殊樂之及遊興逸發聞之武夷粵中佳山水靡不登臨少時已有詩名中歲益適至天真爛熳不屑作猶人語每浩唱清吟知音傳播[遄-而+王][遄-而+王]膾炙人口顧於鉗鎚之下參究精勤智珠燦發雪峯每舉古德法旨勘驗學徒極每拈頌出人意表凡厥酬對應機無爽雪峰甚器之有瞌睡虎之喻授拂表信聲譽欵起流播諸方而華亭總憲徐公孚遠同安儀部紀公許國處士洪思又以氣節文章交契獨厚晚住南山思建法幢而世事更新兵伍雜處唯鍵戶縮足委順而已以康熙十五年丙辰八月示疾浹旬奄然坐化年五十四臘二十八幻如超弘為之銘誌稱其道眼圓明文辭瑰瑋行潔冰霜情酣泉石信不誣也

清長沙嶽麓寺沙門釋續燈傳

釋續燈字彌嵩號頑叟姓鄭氏孝昌人幼從廣化頓悟薙染受具戒於華山見月體律師得法於嶽麓肺山檀遂繼其席拈槌之餘坐嘯峰麓湘水環回夕陽西下帆歸天際澤畔行吟觸物成韻翛然迥出之資非尋常所及沈吟八載詩境禪悅俱入妙品遷居南嶽中葦及清涼寺中葦居七十二峰之中昔大錯老人卜築於此其賦詠為楚南所傳誦而續燈避亂其間每一登眺山鳴谷應偶有所得稱口而哦有南嶽山居詩三十韻自東至咸一韻一篇及中葦後草數十篇南嶽海雲詩十首昔人謂其雄奇古樸直逼少陵蓋以虛靈之質寫浩瀚之境如雲舒風卷不可端倪其嶽麓山居詩為次南澗法

兩大師韻者數十首蒼涼幽峭清醞淡遠之意皆獨杼機軸暗逗針鋒隨所見聞俱成義諦蓋其胸中圓明湛定興會所屬自然成響今錄其五言古詩與禪旨親切者如聽鳥云春晴花欲然山畫靜如徹側耳坐茅檐細聽鳥能說鳥語夫何為獨使我心悅所吐無煩囂喃喃照冰雪人口多雌黃愛惡恣其轍訛言亂友朋讒言陷忠烈未若杜宇心生成一片血所惜知音希空使寒光裂惜鸚鵡鳥篇云鸚鵡鳥之俊羽毛亦足奇羽毛不足羨爾乃工言辭賈客愛金寶遠販關西陞江南尚華美高價來京畿公子見之笑未惜囊中資得之不輕易銀籠懸高枝肉食恐不屑呼童打蟲兒美人畏言語計害心離披托意挽釵釧擾亂清油絲強悍罵公子畜此胡爾為背裏謂奴婢碎羽滅毛皮細詢所憾故母乃狗其私鸚鵡竟何罪美人良足悲荒年賣兒行去年禾盡死今年禾尚遲米價日騰貴戶市爭糠粃東南軍餉急秋賦當夏支雖有升斗粟又為官納之東家不可貸西家不可移入門控饑婦躊躇欲賣兒兒去口亦去兒饑我更饑與其死共處不若生別離將兒出門去得粟淚垂垂又雪中古意巖寺遶冰花鐘聲碎寒玉楫火無全威凍雲驅不出面壁擬高山衲服蒙頭入誰復乞安心夜深門外立調高格古韻遠意深使讀者灑然王戎還長沙觀察趙雲岑方伯薛梁翁中丞泰巖丁公皆樂為之助重興嶽麓有三會語錄若干卷均刊行於世世壽五十九僧臘四十七寂於康熙庚午六月二十九日掩靈骨於舍利塔上得法弟子文惺為之銘

清嘉魚西安禪院沙門釋弘照傳(宏琛)

釋弘照字隱嵐參博達廿餘年深有證入付以偈云幽絃別操古佛風刻羽引商未足同賴有知音續正響人天從此得奇逢後主嘉魚西安院上堂僧問祖意西來是若何照云山靈有意點頑石於峯頭藥木當機開生面於劫外是以棲心丘壑晦跡雲隈豈冀驀地從空劈腦直得通身粉碎縱使通身有口難言通身有手無指祇得屈己從仁顧視左右曰領略是不領略是良久乃云其或未然聽取一偈為續心燈出一頭青林有毒累吾儔傳來消息無多子浩浩靈源萬古流法照詩歌風雅辯論超倫有曉園吟集行世又宏琛與照同參博達有寤達以偈印之後主橫溪題詠甚富有聽月吟集數卷

清燕京觀音禪寺沙門釋元徹傳

釋元徹字壁山姓侯氏高淳人襁褓失怙菴菴子立年十六發心出家依寧國蓮花禪院一枝剃度復圓戒於溧陽崇福寺石鑑尋至報恩作苦兩載勤力參究終無省發因行脚吳越踏徧禪叢每觸雲山煙水花發鳥啼覺非境界性靈絕待雖不自信為有悟處而隨響答機頗無滯相歸省一枝夜起廊下舉頭見月直下豁然一如身外無餘有偈云通身即見大光明猶是迷雲遮太清明暗兩關俱打破驢胎馬腹任縱橫時年二十有六己亥中秋也過

溧水塔下寺見永泰互相勘發亦有人處為數日留乃訪鐵舟金陵天隆叩自問於宜興芙蓉更於福巖謁費隱各見機用當仁不讓隨至嘉興萬壽寺聽三宜講楞嚴經頗新見聞多落窠臼聞太平采石鎮麓心寺大咸善誘方來誨人不倦往依杖履視其語默時或觸機點撥生大慚愧清夜感悲深懷悔責咸見其真誠因勉之曰眾生無邊誓願度己身未度先度人者菩薩發心煩惱無盡誓願斷斷一切煩惱證一切菩提法門無盡誓願學佛稱種智修假多聞佛道無上誓願成虛空真盡我願無窮情與無情同圓智種徹聆斯語服膺拳拳淹忽三年隨咸退歸東山以聯芳源流付之勗其躬行實踐深蓄厚養以待時節因緣不可輕出淺露康熙丁未將往盛京道出維揚與劉居士調元遇於舟中萍水契合受其約請住古燕觀音道場六月望日入院云釋迦已過去彌勒猶未來乃顧左右曰相逢不識面著眼莫依稀著有語錄二卷有住山偈云居在深林遠市塵山中無事絕攀緣荆門鎮日無人到時看殘霞落照前栽松根深培植在山隈日見青青覆緣苔可與山門標景致四時蒼翠拂雲堆又和友人韻深山幽谷且隨緣種粟澆蔬數畝園寒暑來時渾不覺披雲坐起覆西軒

清南嶽石浪庵沙門釋法智傳(異目宗)

釋法智字破門維揚人莫詳其族姓初來衡山結茅下火場庵名石浪工草書亦有詩名與樞巡彭禹峰友善或云法智初習若行沈於厨飪嘗以鐵鉗畫其門扉效懷素體歲月浸淫扉為之破書法遂入妙品時人因號曰破門又異目宗禪師者江西人居南嶽上封寺偶夜乘月登絕頂偈云孤迴迴明歷歷料得幾人夢覺知不是山僧消眼閉清光空過夜深時禪理清澈心與景超自是大興祖席湖湘宗之得法弟子四人正庵統源庵本綸庵經裔庵興均有德聲語錄傳世

清黃山雲嶺禪院沙門釋普信傳(蒼霞際)

釋普信字師古號梅嶼姓鄭氏歙人也母夢道人手法華經一卷來遂誕信幼而善病禮雲嶺參照哲御為師年才十齡受以經論俱能了解哲喜其靈慧未幾進具於華山見月既研律議更究文藝好學深思每見騷客詞人虛懷請益人以是稱之著有聽松閣詩四卷郡司馬安丘曹貞吉為之序稱為草際幽蘭雞羣野鶴今觀其除夜詩云寂寞山居歲月遷閑敲清磬出孤煙懶傾竹葉歌除夜喜見梅花放隔年又草堂吟草堂在深谷久與人世疏好鳥松間鳴間雲與之俱心安無所營度閣留踐書龕門有時啟以待故人車嘗植山花數百株每當春晚如丹霞赤城庵前木蓮一株花時香聞數里欲從山徑徧種梅花坐臥寒香以娛晚歲胸懷灑落詩思高超殆罕其儔蒼霞際者亦雲嶺僧也禪經之餘遊心書畫著有讀畫樓詩一卷中有過蘿青庵

山行不覺遠忽到白雲窠逕曲依松轉泉高上屋過花薰人欲醉鳥學梵相
和何日煙瓢挂澹松衣薜蘿又自題畫夕陽紅葉圖山寒木落籬花白水碧
沙明竹葉青曳杖不知何處去夕陽影裏一茅亭際與普職慎為同輯雲嶺
志六卷聽松閣讀畫樓兩集均附刊信寂於康熙辛巳三月五日

清昆明妙湛寺沙門釋讀徹傳(一雨 水月)

釋讀徹字蒼雪初字見曉姓趙氏雲南呈貢人生性敏捷慧悟天成童年隨
父捨身昆明妙湛復游雞足為寂光水月侍者講誦之餘研窮義諦文詞泉
湧辯者莫當年二十五發志行脚一笠飄然徧覽名勝遂達吳門嗣法一雨
會明季喪亂天下多故不遑寧處徹獨晏然更啟法會欲以慈祥化彼殺機
及居中峰繼主講席道風鬱鬱聲聞南北復興支公道場海內宗之又以禪
暇與眉叟玄宰牧齋梅村請公往復酬唱詩名藉甚生平著述頗富筆蹟尤
珍晚歲講楞嚴於寶華山手編未終踞坐而逝書有遺誡十章詞曰無端講
席應寶華老病人扶上小車南國遠鐘蕭帝寺東陽古井誌公家蒼茫不盡
江邊葦狼藉空餘臺畔花一白雲光登說後獨憐沽酒送煙霞南朝帝業幾
經衰碧眼無人辨劫灰山抱玉泉荒寺在峯標金地大僧來鍼鋒一撥山河
轉棗葉重移殿閣開衣盃相仍誰繼武法筵龍象見宏才閉門莫怪老山僧
打睡從來接上乘十日庖羹咽未下千人講席病猶登鼓將風力聲難轉散
入烟霞氣不勝如是我聞知未及奉行倍受已先膺最初方便請開經末後
圓通擇性靈我自無心聊為說誰人有耳不能聽蘸乾海墨收佳句縮小江
山人淨瓶珍重莫教蓮社冷天涯諸子各飄零到岸乘風實快哉親迎遺像
幾還回香花夾道羣情肅旛蓋摩空宿雨開人化雙虹天上去泉飛百道樹
頭來儼然未散靈山會想望荆溪入五臺慶喜慣啼拋止葉飲光解笑示拈
花而今哭笑俱非是何啻宗乘辯正邪試問此槌曾白否可憐雙眼果青耶
剝竿倒却門前久大廈將傾賴木義囊蟲鹿水細微事粒米同餐展盃巾雞
足傳衣猶在定鵝頭開戒徧分身鄉音莫辨難兄弟老景無多惜主賓博取
大千憑手掌陶家游戲轉雙輪多聞誤墮示兒曹作飯蒸砂事枉勞欲漏未
除習漏重愛根不斷命根牢無心淫女能成佛又手屠兒早放刀道眼滄桑
何足問雲霄萬里一鴻毛晝長無暑夜無蚊帷幔虛牽擲扇巾好與時人談
笑語任留知己訴辛勤難辭緞羽投林鳥強作無心出岫雲一自金經讀破
久奈何洩漏盡東君毛端五色障開經勞久狂花淨眼停刁斗更聲催歷歷
明量煙火散熒熒交光攝入川源影網相盤回樓閣形何物無情頭解點也
須說與眾山聽又中峯喜逢白公夜集法公方丈云久別幾於消息斷重逢
猶記道途間兩山相憶秋同老一夜剛隨雨到山故舊何人堪共語林巒有
主暫投閒亂流落葉聲兼下聽盡寒巖水抱關又法公招遊狼山登大觀樓
云海上海樓壯大觀煙波無盡此凭欄江南一水橫衣帶天外三山落彈丸
潮色不來風勢緊客心欲渡浪聲寒高明勝會知何日回首斜陽幾度看又

解制送恆生還山云滿堂瓢笠忽天涯雲水茫茫去路賒同坐那知君是客
送行翻覺我無家九秋露冷芙蓉色一夜風吹蘆荻花最是不堪回首處夕
陽江影片帆斜又鐵橋云自墮黃塵每慨然故鄉卿相我無緣眼前見畫思
雞足夢裏尋家渡鐵蓮苗庶尚潛諸葛洞儒臣不去小西天料應難得今生
見先過此橋五十年又送唐大來還滇云小艇難禁五兩風雞山有路幾時
通殷勤為我傳鄉信結箇茅團在雪中送元白之燕云一帶燕山色常時入
夢間平生未到處今日逢君還客路無時盡秋心不自閒塞鴻牽別思早已
出江關挂瓢云抱膝向空坐偶然同許由一瓢還似累何物更須留潤響懸
孤影風翻入夜秋幾時從空出猶見在枝頭送朗癯入匡山云獨向匡廬去
安禪弟幾重九江黃葉寺五老白雲峯落日眠蒼兕飛泉挂玉龍到時應為
我致意虎溪松別吳中諸子云相看了無意臨歧還黯然回看吳苑樹獨上
秣陵船春老還山路江昏欲雨天白鷗頗怪我聚散綠波前其所著書有法
華珠髻并同麗府木公參補華巖海印懺儀四十二卷在藏聞所傳詩文散
佚頗多有南來堂集刊入雲南叢書中王漁洋評當代釋子詩以蒼雪為第
一卒葬中峯牧齊為撰塔銘

清大埔南安寺沙門釋幽明傳(成鷲)

釋幽冥仁和人九歲披剃參萬如有省順治間自江西龍虎山仙巖寺度嶺
抵大埔三河壩南安寺駐錫焉康熙壬寅正月立三河拱極門顧佛頂山欣
然樂之賦詩云清風細雨送香來借問重重寶砌開世事不能為此量天然
相遇妙高臺又云行腳腰包意若何我知無法法無多碧山垂下言精妙今
日拈將贈彩波上佛頂山復題偈云今日移來佛頂岡疎疎空裏雨花香摘
來幾個黃梅子世上酸酣點不嘗逾年而寂預示諸徒日時不爽取水沐浴
趺坐默然又成鷲字跡刪番禺人父國驊明季舉於鄉鼎革後隱居授徒成
鷲年十三入學後為名諸生年三十五喪父感念無常別母學佛於鼎湖晚
棲大通古寺號東樵山人一時名卿巨公多與往還藩使王朝恩學使樊澤
達給事鄭際泰盛譽之名益顯詩文最富所著咸陟堂前後集識者謂其筆
響風雷崩山立海凡蠻煙黑雨渴虎饑蚊草木離奇劍嘯芒飛直歸紙上浙
西陳元龍謂其文發源於周易而變化於莊騷涵互呈豁辨才無礙詩在靈
運香山之間時人以為非阿好成鷲戒律精嚴道範高峻與貴人遊以宏鬯
道妙為本他無所及遇人有所諮請瞑目趺坐寂然若無聞焉年八十餘卒

- 雜識篇第十之五(正傳十二人 附見十七人)
 - 清當陽玉泉寺沙門釋道嚴傳(道乾 遍見 弘禮 性愷 聖義)
 - 海寧安國寺沙門釋大涵傳
 - 房山上方山寺沙門釋常岫傳(大觀 知幻 達聞)
 - 太平白雀雨花寺沙門釋聖通傳(東悟本)
 - 南嶽曉霞峰沙門釋文惺傳(大成)
 - 潤州焦山寺沙門釋智先傳(德鏡 行載)
 - 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湛傳(通淵 元玠 實懿)
 - 福州雪峯寺沙門釋海印傳
 - 杭州淨慈寺沙門釋明幢傳
 - 杭州雲林寺沙門釋義果傳(上志)
 - 棲水大善寺沙門釋篆玉傳
 - 長沙華林寺沙門釋文楷傳(文暢)

清當陽玉泉寺沙門釋道嚴傳(道乾 遍見 弘禮 性愷 聖

義)

釋道嚴字悅可姓趙氏當陽人也幼入玉泉妙齡秀發清康熙間參蓮月老人久之印可並荷衣法甲申歲繼主寺席廣宣律教講席之暇博覽羣籍幽契山水怡養性靈游興所至輒喜題詠有堆藍紀勝詩云堆藍秀峙依羣岡草自茈茈花自香浩蕩風光駒過隙一天春色興偏長又題鐵塔云瀉影飛騰出眾崗遊人遙指玉山旁一朝雲起疑天墮卻得浮圖撐上蒼篇什雖富佚散甚多故無專集率眾二十餘年翹翹後進咸就陶成以康熙五十年二月八日示寂偈云寄跡玉陽七十一談玄自有波羅蜜翻身吞卻金剛圈豈待獲麟始絕筆塔於寺左青龍山同時有道乾者字健若一名超乾亦參蓮月機契向上康熙三十六年接主玉泉慧辯瀉流往從如水雖宏提倡不廢吟哦舊傳一律云靈機本自出天然繭足南詢不計年乘興訪梅探白雪間來覓菊步青蓮昔時已結法王社今日重開秘密筵最後極譚無所示拈花唯有此心傳後循迹人世不知所終遍見字慧日者昭邱楊氏子也幼而志學具染紫紫參鑑葺惺決擇向上擔荷正法闡揚弘旨誨人不倦嘗有偈曰藍峰玉水兩幽清苔護前朝造鑊名幾度裴褻思聖化一番錘鍊勝天成元鐘墮地山魂斷宋塔干宵鶴影驚只有今宵亭上月依稀猶見古人情退老紫紫庵結印而逝又弘禮字廓曙枝江人青年落髮師玉泉道隆圓具後往參蓮月老人數載精求發明心地康熙癸丑主上方法席增置水田以供香

積建講經臺修東禪堂善論說喜吟哦曾題朝曦閣云巉岩一片草[廿/淒][廿/淒]古閣斜陽石徑迷十載憑臨惟此跡青山一路鳥空啼寂於雍正五年三月二日塔地藏院後又性愷字天茨江陵徐氏子卯角剃落從師誦讀穎悟邁眾長通經史兼善草隸蓮月弘法天皇往造焉機契日深直臻堂奧自是定慧雙圓詩歌自得與許瑤圃時相唱和其次韵有僧非巢父偏鄰許世無陳蕃懶姓徐之句有聲士林康熙丁亥主玉泉嘗贈聖義上座詩云藕葉衣同老松花食自甘水惟思噴玉山祇愛堆藍牧笛昭邱北漁歌敖塚南尋常無限意歲晚自難堪有遺語文集行世聖義名興宣出當陽涇溪雷氏三歲為道嚴弟子復受記荊續燄玉泉講座高談議論風生嘗說摩訶止觀法音一展聽者萬指雍正六年主清溪上堂云浪跡天涯數十秋枕流漱石懶垂鉤此番若得金鱗至不枉衝波冒險遊乾隆初退歸玉泉稱三寶而寂塔於青龍山承道嚴派文字亦近之

清海寧安國寺沙門釋大涵傳

釋大涵字雁黃姓潘氏吳江人也九歲出家習誦梵典聰穎過人能通大義既長入靈巖從師繼起游南嶽禪理文心俱極超妙有名於時俗僧忌之謀折其足乃夜遁走大雪中饑則搏雪食之自號齧雪子後住雁蕩山又入黃山因字雁黃其在黃山聞伐木聲丁丁靜中有悟盜擊之不死後居海寧安國寺陳中丞元龍撫粵西招之游羅浮歸至肇慶鼎湖山示微疾說偈而化塔在桂林棲霞寺傍著有黃山草西湖草補陀南參集彈指集桂羅壯游集鹽官剩草皆已刻陳元龍為之塔誌見於別乘

清房山上方山寺沙門釋常岫傳(大觀 知幻 達聞)

釋常岫字蒼林一號松阿姓巴氏黃巖人少習經史頗能屬文嘗為人手書尺素詞足達意遂交譽之因讀內典契心空門歸依印空長老為之剃度千佛寺從大演義公習梵教年二十於廣濟受玉光大師規律畢即參游五臺南海諸名勝已而棲隱上方五載忽焉南旋結小廬於越溪遂寂其間著有松阿集弟子迎其骨塔於六聘北隅乾隆丁巳四月傳噩為之銘文詞修絜詳具山志又大觀道日者閩南人值海氛不淨舊林難問倦飛莫還偶來上方林谷蒼秀不覺神悟遂構一茅名歸一庵相將入室內侍以觀音殿主席見招至則重建堂宇修治道橋叢院規制略備丁未冬復由上方歸隱棲賢興建梅山勤勞八載丙寅秋托鉢北來自浙及燕重履雲洞山靈投合若不忍捨賦還山詩十首用記始末依然出山看雲南下弟子知幻字筠客嘉興仲氏子也幼習儒學長厭世累拜新城鎮能仁寺淡月上人薙髮依道日圓具隨入參堂精誠穎悟神契於道康熙丁卯道日見其純篤知為法器付以上方觀音主席既而入山應物獨標清風歲寒挺特偶遇詩客亦唱亦和但

不落恒谿嘗有偈云懶經營疏榮辱深知世事有定數名利眼前花伎倆水上浮食充飢衣遮寒無得無失樂餘年清風明月不相關至道無難罔費草鞋錢直須澗飲林棲絕掛攀撥轉瞳神祖翁鼻孔總撩天居山三十五載以康熙辛丑七月十日示寂塔於紫萬峰下又達聞字自如者六齡入山從師講授漸了文義及長更耐辛勞獨處約苦居山五十餘年朝夕孜孜日課有恒嘗以上方自東漢以來千七百餘年未聞有志引為遺憾乾隆辛未淹關假死軒搦管直書於平日所集斷碑殘碣名勝人物建置物產詩文風景一一詳之成山志四卷壬申而稿成江寧吳仁敵為序而刊之

清太平白雀雨花寺沙門釋聖通傳(東悟本)

釋聖通字貫一晚號拙存姓王氏常熟人生有靈兆少懷逸志長就外傳略加指授即便成誦因病廢業遂專心學佛往依城中長壽庵履貞薙染素風老人為寺尊宿喜其穎異詩法書畫皆所教導年十九圓戒於三峰川回以法器日之復思參叩發明大事首謁虎邱洞明尊者授無夢無想語如雲開見日獲覩舊物雖力究苦研脇不沾席負簋兩載徧訪諸方殊少所契會川倡道維揚上方趨往依止深相印合川再主三峰倚畀甚重付以大法及川遷化即命繼席乾隆時翠華南幸駐蹕雲林感荷聖恩重光祖德因建大殿築山門以承先志輝煥林際先是白雀寺火曾就燼餘更事鼎勑及東城方塔燬又應眾請力完勝果并主智林次第修舉勞不知疲年且七十矣慮諸弟子將以新春為壽癸未殘臘避居郡之北禪寺甲申正月九日偶示微疾奄然順化壽七十臘五十有一塔於白雀聖通夙具慧心深明誼諦因人說法成就眾多而文詞微妙闡發菩提信口吟詠亦得玄旨其事素風老人尤謹辛未迎就白雀寺孝養有加病時親調藥餌殷勤累月略無倦容及其滅也喪葬如法復為校刻息影齋詩鈔行世聖通於法語外亦有著述但存錄頗少今所見者有自題畫牡丹詩云紛紛紅紫鬪春風國色天香一瞬空何似毫端呈色相一枝影見墨痕中又謝顧鈍伯山以蘭卷見貽點染幽芳巧逼真恍從九畹吐花新淋漓墨幻山中意濃澹香舍硯北春縱筆橫施皆有法間塗漫灑亦通神安排斐几供清玩看取烟生湘水濱隨流本者字東悟姓陳氏吳人也父曰久康母虞山高氏嘗禱於神乞子而生二女神示兆曰此子足傳宗矣本生而聰穎幼好讀書性至孝母篤信佛故本矢志不字託迹空門絜養蒸蒸久而彌敬得法於維摩山為費隱禪師四世法裔嘗禮衲眉游補陀歷九華朝五臺四至京師所止之處如摩尼圓照令人欽慕于石梅關智林法苑立淨業於塵埃之表晚復卓錫燕都齊化郭外靈官庵蒲團靜攝間為吟詠以寫性真或繪佛像山水花卉藉資禪悅而瀟灑活潑之致時流露於楮墨著有語錄南帙九卷及鑿雲留跡諸集都十餘卷其自題荊州寓庵求畫西湖云移將江浙置荊州咫尺西湖任所遊神入妙時天地闊意融通處水山優雲烟每斂開林道霞彩頻興擁殿樓一帶芳隄春正好三

潭印月又堪秋又題智林莊巖閣圖融融麗日洞天幽一種清華近寶樓香篆去從朝彩接白雲來自曉風收泉流竹葉將成筏霞覆桐枝欲化虬瑞氣滿峰花滿麓直教斗室作神州乾隆庚午輔國公如嵩乾庵為作鑿雲錄銘

清南嶽曉霞峰沙門釋文惺傳(大成)

釋文惺字阿諾姓周氏湘潭人也祝髮清涼寺初不曉文字一旦豁然兼解文藝法語皆得正詮開席南嶽曉霞峰因號曉霞著南嶽遊仙記後為嶽麗繼席日與其徒研窮第一義諦箋妙法蓮華經間嘗弄翰賦詩句琢字削不工不止有嶽麓雜詠曉霞詩集並阿諾語錄三卷其救蛾詩云入夜風雨狂竹窗吹破紙銀缸影亂搖飛蛾拂燈檠趁去復飛來焦頭不畏死吾見恐爾燎爾撲胡為喜滅燄息徜徉免爾墮油裏又捕瓜螢居山樂清貧種瓜趁時節瓜瓣藤未抽螢火先食葉天胡降爾殃羣聚類蝨蟹朝食葉萎焦暮食根莖折爾腹亦靈明爾心何毒烈珠露僅可餐林花亦可齧胡獨害瓜苗頓令瓜種絕吾輩望秋成助長意不輟護生固吾事相視忍驅滅掘地愧先賢遠離無秘訣佛旨禪心詞意悱然又出山云路下藤蘿不可攀諸峯回首白雲間扶筇極目湘江水一帶長虹走亂山亦饒有致又釋大成者字竺庵醴陵人少披剃於南嶽後行腳四方居天目山最久及老欲歸故山清順治丁酉移錫南嶽毘廬洞廣濟寺著有會聖堂集

清潤州焦山寺沙門釋智先傳(德鏡 行載)

釋智先字古樵原名興上姓張氏儀徵人年十一投焦山元孚出家參問石乘無得一日登山失足傾仆遂翻然有省博綜內典兼善文翰住焦巖四十年從事興復始終不倦鳩工庀材百廢具舉四方之眾至者如歸嘗寫大士像刻石自為之贊纂山志未削稟而卒弟子德鏡字鑑堂姓劉氏山陽人智先創藏閣功未竟德鏡嗣之以繼述為己任悉臻完善其徒行載字碩庵姓段氏泰州人與江都謝家樹山陰潘寧同輯焦山志就智先初藁而續成之載幼時出家於清淨庵有橋在庵東半里載常至橋下取柴十數年未嘗過橋其天性恬靜如此

清杭州雲居聖水寺沙門釋寂湛傳(通淵 元玠 實懿)

釋寂湛字休復究心禪理博綜典籍率弟子明倫算輯寺志蓋寺自唐咸通中玉田道膺禪師由涿州至江西雲居山既而至杭結茅於斯而不忘雲名仍以名庵至明以聖水寺并入乃稱寺寂湛草創寺志未臻完善而寂後有通淵字崙山海昌人復掇拾舊聞雍正己酉仁和邑令荆門胡公罷官居寺甄綜蒼萃遂成完帙實懿師事通淵髫年讀書寺中一病幾危通淵醫之而

瘳遂不還家諷唄齋薰兼精歧黃顧以寺志數百年失修開闢有自顛末無稽恐山靈騰謔梅魂獻嘲既辭都綱自徹緣障肆力搜討追蹤清芬凡建置人物靈異詩文有可傳誦者都為六卷復刊中峰梅花百詠二卷及實懿水明山樓集四卷其和楊知誨趺翠山樓避暑詩云高處塵襟謝恬吟不自休門臨山路近榻傍竹窗幽雨氣迷江樹秋聲入寺樓晚涼應可納欹坐且遲留又元玠字玉山有愁囊集一卷行世

清福州雪峯寺沙門釋海印傳

釋海印字端章號葆光姓張氏德人也父性純母氏陳生甫一周即失所恃育於外祖母家年十七喪父乃有空門之志丁丑就開元雲齊閣出家禮道岸為師己卯受戒於鼓山為公自是奮勵參究凡宗門碩德莫不願入其門未幾叩雪峯道余機譚心契最垂珍賞甲申道余示疾召印至山屬以衣拂遂繼厥席是時道余方寂院宇零落景物淒清印堅忍艱苦賴以不墮嘗參無夢無想主人在何處一句久無所入一夕經行次聞風撼林樹聲覺心身慶快口占偈云一夜金風飄嶺上蕭蕭木葉盡凋殘徹悟未生真面目不將藥汞認金丹前日疑情一時渙釋甲寅丁巳之間三居法座行證昭乎晚歲殫精著述撰心鏡合明四卷融會易理發明教典為引儒入釋之徑時年已八十矣預知時至自作塔銘語錄有雲閣法語及戴雲法語詩則有愧軒草

清杭州淨慈寺沙門釋明幢傳

釋明幢字果樹蕪湖人也而忘其姓氏幼從雜染康熙季年始遊京邑參禮五臺還至燕山略事棲息譚言玄妙詞意藹然名動公卿雍正六年以莊親王教居德勝庵十年於武英殿行走奉旨閱視藏經十二年正月又以莊親王手教命住法源寺四月八日皇戒壇畢引見命留內庭十月世宗恩賜紫衣四襲并特賜永明禪師像三幀及鑪硯如意鉢杖紅磁盤語錄法書緞袍四時法服十二月奉恩命出住浙江淨慈寺十三年二月十日永覺禪師南下幢隨之行時杭州織造長白隆公奉旨送幢入院至則重飭寺規親釐百務幾復舊觀而六時宏唱益暢宗風江南鐘版之盛道俗參學之眾自此始也

清杭州雲林寺沙門釋義果傳(上志)

釋義果字巨濤姓章氏丹徒人年十一父母命出家於焦山及長蕪染操行清苦自名薺草行人陳太守滄州甚器重之受具於燕京西山潭柘寺德彰後至杭侍雲林諦暉執勤九載略無倦容命參不是話久之入堂便問不是心不是佛不是物是何語未竟暉迎擊一篋因有省即呈偈云一擊敲開海

底天塵塵剝剝盡歸源當場拈出無私句鐵馬嘶風躍九淵暉頷之旋受付屬雍正時繼席雲林未幾入長安於法門多所保護乾隆戊午復主院事道望益崇汪光祿感其精懇捨貲建築廢墜一新寂於乾隆二十三年六月壽六十四有語錄及薈艸行人詩集沈廷瑞為之序又聞竹上志者秀水人亦得衣鉢於諦暉主禾中天寧二載尋接雲林席雍正十年秋饑寺僧絕糧志為眾持鉢朝夕市廛卒賴以濟而心身俱瘁示疾徂化年六十五臘四十九有忍菴贖語果亦留心文學增修雲林寺志八卷錢塘舉人厲鶚為之纂集焉

清棲水大善寺沙門釋篆玉傳

釋篆玉字讓山號嶺雲姓萬氏仁和人也年十七投淨慈寺雜染受戒昭慶嗣雷巖傳臨濟第三十五世正宗貫通義疏精研戒律清雍正十二年遊京師和碩莊親王招住海淀法界觀心佛堂十三年四月侍郎海望帶領引見奉旨偕永覺超盛考察智覺法派時已加封妙圓正修之號帝心儀之也還住萬峰禪誦之餘游情翰墨雅善鼓琴工行草書時復吟句生峭自喜夫佛本行經言太子方入學即問師六十四種梵書大樹王子彈琴對佛香風菱花為首楞嚴絕妙好詞天親無著以造論之才一轉而為寒拾青蘿吠犬東坡追步不及張無盡以居士反附契嵩以傳詩有別才豈非性海中光明藏哉萬峰地連宗鏡面對雷峯旋螺而入拾級而躋浮嵐暖翠近挹几筵玉與詩壇老宿遠瞻頰眺別構數楹結社其中烹葵燒筍薦伊蒲之饌施龍天之食清唵抱[邱-丘+(暴-(日/共)+來)]韻播蓊林雖片席地與五山十剎莊嚴樓閣相聳峙則詩禪兩絕也乾隆十六年德清令李芳榕延住棲水大善寺當六飛初幸江浙大府遴高僧十人迎鑾以備顧問玉在其列及回鑾馭送至碧天橋垂問[諒-小+日][諒-小+日]即遣內臣賜銀錠十亦異數也寺故貧瘠損衣縮食為僧眾粥飯猶恐不繼然居寺十載不萌退志二十五年桐鄉令陳虞盛請住秀溪之龍翔亦猶大善也然樂其間靜若將終焉乾隆三十二年重九日作偈曰來無一物去無一物快恬七九逍遙自得遂爾入滅壽六十三臘四十六所著南屏續志一卷詩十卷葬南屏杭世駿為之銘

清長沙華林寺沙門釋文楷傳(文暢)

釋文楷字志甫亦號不二志衡山人初出家時依南嶽清涼阿諾惺而胸臆灑落趨向高遠固已器之矣惺於禪暇究心詩文不異老儒楷隨侍三十餘年時有啟誨更苦志探求遂盡傳其學復事遊參遍歷江淮吳越使勝地風景叢林雅範皆以奚囊貯之今詩集有過高旻招隱江天寺諸作可想見矣乾隆甲戌夏歸自金陵靜居白雲與同參文暢聽松觀瀑徜徉塵外偶爾揮

翰吟嘯終以守巖穴為念乾隆三十一年丙戌秋為緣六法長延繼華林勝地八景殊少題留楷幽棲數稔禪居多暇作八絕以紀之獨尊峰云突兀勢參天巖幽林亦窅快登此獨尊四顧羣山小裴休橋云橋古號裴休度來非略約四時澗水清照徹行人腳望日臺云臺石轟幽岑朝曦遙入望扶桑忽吐紅滾滾金毬漾片雲石云怪石列岡陵宛如雲一片奇根本自殊終不因風轉伏虎巖云峭壁一巉崖二虎曾自伏猶遺哮吼音訪道人難復仰天湖云湓湖勢儼然山頂自開掘祇可宕心胸范蠡舟難越呼龍潭云潭深莫亂呼只恐龍驚起大地灑甘泉誰知龍釀水滴水巖云岩下散明珠山頭懸瀑布朝朝雜鳥語滴滴增奇趣楷初學詩與文暢同請業於岫嶠東林簡南禪師及庚寅夏同門將刻楷所作詩文而暢已先寂於白雲楷哭之哀因并暢詩刊之曰合刊詩草暢字不偶亦湘人也春日懷文楷詩已入國朝詩選其遊西林詩云伏霞盡處有青岑曲折寧辭仄徑深崖樹疎疎行古殿廚泉悄悄界東林采薪頻入增山曉游客希來便陸沈不是天龍曾衛護樓臺未必到於今西林有峯名青岑昔為禪林今易數主未能長護持也楷暢并有語錄詩則昔人稱為聲律正宗不愧唐禪亦最上乘也

- 雜識篇第十之六(正傳十一人 附見十八人)
 - 清長沙鐵佛寺沙門釋無跡傳
 - 金陵靈谷寺沙門釋彌垠傳(彌澍)
 - 杭州雲林寺沙門釋悟森傳(見初品 蓮月 寶林鑑品 高峰 體純 潔 研庵謙)
 - 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清恒傳(覺證 覺詮)
 - 銅梁壽隆寺沙門釋悟賢傳(真空 智曇)
 - 峩湄臥雲庵沙門釋源通傳(六義 涌泉 德輝)
 - 公安今古寺沙門釋如慧傳
 - 當陽玉泉寺沙門釋隆昇傳(培潤滋 香山濛)
 - 金陵靈谷寺沙門釋禰修傳(光遠)
 - 成都昭覺寺沙門釋照常傳
 - 四明天童寺沙門釋敬安傳(精一)

清長沙鐵佛寺沙門釋無跡傳

釋無跡字寄塵又號八九山人湘潭彭氏子幼寄佛寺便從雜度性質穎異釋年誦經即會其旨既長工書畫喜吟詠時袁簡齋太史搜羅名流刊入詩話極一時風雅之盛獨取其淨壇風掃地清課月為鐙之句以為得禪悅味然無跡雖好吟哦殊無留稿今不多見初居南嶽稱衡麓山人清嘉慶時浮湘至長沙城下棲鐵佛寺寺為唐法華尊者道場相傳為衡山王神捨鐵造佛尊者以錫卓地得鐵數百鈞遂冶之造三佛像及大悲陀羅尼塔故名鐵佛無跡居之因號湘濱道人後往閩粵又曰航海道人隨地易名不拘於物嘗與人言曰予以琴韻詩詞為聲音佛事以臨書描畫為禪關語頭雖世間學即超世間法也凡所游處達官文士悉欣慕之晚游吳復之閩客將軍幕府無疾而化遂葬其地清之末葉新學盛行校宇林立多假佛地寺為學堂侵占今農校廓張寺已湮沒唯鐵佛猶存

清金陵靈谷寺沙門釋彌垠傳(彌澍)

釋彌垠字福溪吳人博通經史事親以孝盧雅兩都轉深器重之延入幕中觀內典有省厭俗出家於牛首山祖堂寺得法祇園繼主靈谷三載乾隆甲辰春高宗駐蹕寺中賜無量壽經石刻娑羅樹如意寂於靈谷著有語錄詩集又彌澍字滄洪德化人生有佛緣幼而聰慧嘗遊古寺恍如舊居祝髮故

里受具華山亦參祇園嗣其法為彌垠同門弟也初居九江龍池寺已振宗風乾隆甲寅夏繼席鍾山篤志清修不酬俗事時陳東甫方伯慕其雅度延之入署澍辭以偈云十年塵夢悟華胥曾奪驪龍頷下珠自入山來皆雪意更於何處覓紅鑪好風吹入白雲關有約來朝暫出山不是在山雲懶出出山那及在山間其高尚如此主靈谷五載嘉慶己未春偶因微疾而寂年五十八著有語錄詩偈

淨杭州雲林寺沙門釋悟森傳(見初品 蓮月 寶林鑑品 高

峰 體純潔 研庵謙)

釋悟森字道光姓陳氏華亭人雅性靜默獨喜禪坐嘗與懷清老人參論得其稱許遂受記荊歷訪名山十有餘載嘉慶二十年復來雲林延為首座後靜養於普賢閣終日潛處杜門不出著有詩稿語錄若干卷道光九年九月四日書偈而逝弟子見初字懶堂精篆刻晶玉陳鼻生司馬甚契之品蓮月字藕船江都徐氏子早歲脫白既冠受具戒相既圓堅持無犯研窮教典竟入悟門嘗棲雲林止觀入神妙通畫意專工蘭竹得所南翁之旨揚州吳貫之號稱八怪名擅一時樂與森交且精琴理所作詩詞書法別有逸趣獲證於志安秀老人嘉慶十四年繼主雲林三年退養於千佛閣禁足禮華嚴經時雖鼓琴弄翰而禪理功深心多解脫譚笑而逝壽六十又六寶林鑑者嘉興人幼通釋典負笈求師得具於玉山扣厥心要通明一切因承其法習誦之餘學寫梅蘭親炙一泉老人久之亦工畫法頗有時名乾隆五十五年出主勝果寺年七十始告退弟子品高峯者杭州陳氏子既承師資兼得筆法所謂明月梅花師若弟子者不是過也嘉慶十年繼席勝果閱十五載以病乞退寂於道光元年春秋五十有七又體純師名潔字粹白吳江柳氏子生質不凡自拔塵表幼依雲林妙應閣昇達象禪師脫白後隨至京都潔性好學內外文辭莫不精研一時名士大夫慕其風徽多與往還互相酬唱結為詩社已而南旋養靜靈山凡故舊出京過訪往往辭謝欲杜門避世不為名高唯鎮浙將軍薩宥阿請決禪要嘗許過從潔雖偶耽幽韻自暢禪機而性心無礙枯寂空山與放浪豪吟者非可同日語也道光六年夏示疾旬餘即作偈曰卅年功德兩茫然想被前程業識牽今用金剛王寶劍一揮斬絕生死緣生來死去總分明老病猶能自遣情忽地一聲參已透便應一一了無生一點向人瞞不得石龜說殼事何如可堪常寂光中樂定裏身心了幻虛萬事雲煙縈滿眼百年榮辱不關心平居自信塵緣淨久約慈航直到今靈明湛寂家中寶罔象撈空海底鉞祇上任君拈頌得圓機逗徹意何深松鬣驚風鳴萬壑梅梢得月影逾幽緣心若不離緣緣何啻虛空釘櫬頭寂年六十六又研庵名儀謙字見能桐鄉沈氏子依仁和法海禪院嵩年剃度受具於聖因寺中立尋入雲林為記室禪餘工寫山水可登巨然之堂德山老人付以法物嘉慶丙子推繼祖席未幾寺災自觀音閣延及行宮大殿俱為灰

燼於是誓志興修苦行叩募浙撫入奏內廷頒發帑銀萬兩而儀謙亦購大木於楚歸而重興土木道光八年落成謙仍主院事更請沈太史聽篁續脩寺志

清丹徒焦山定慧寺沙門釋清恒傳(覺鐙 覺銓)

釋清恒字巨超別號借庵姓陳氏海寧人也幼而聰秀受讀塾中風致楚楚便異羣兒稍解文義探求玄理妙契禪機即厭世味受具後得法於焦山澄洮繼席定慧誦課之餘輒肄及詩古文辭涵泳心性儀徵阮文達公元丹徒王徵君豫相與莫逆往還酬唱時有所作多見傳詠因之士大夫皆樂與之遊然性甘澹泊雖境極清苦耐寒忍饑貧衲乞請絕口不言有借庵詩草行世塔於五州山弟子二覺鐙字秋屏覺銓字性源並承清法相繼住持兼工吟詠各有遺稿鐙尤有才能理得連山東州佚產山中香火至今賴之

清銅梁壽隆寺沙門釋悟賢傳(真空 智曇)

釋悟賢字愚嶺姓周氏銅梁人也襁褓多疾寄養空門稍長因披衲城北壽隆寺資性穎悟超卓倫輩諷誦餘閒兼習文翰六寅波崙皆所棲止嘗游東南歷覽名區禪機既暢吟詠益工因與同里廖先達王明誠左昌華吳乃賡合州孝廉張乃孚禹湛巴縣龔有融諸名士結社賦詩極一時韻事著有六寅唱和集及自定詩草一卷銅梁雅秀僧中以愚嶺為清代首稱云又真空字問渠大足彭氏子為智曇五傳弟子好讀經史手不停披工書法耽吟咏喜與文人唱和著有嶼峒吟一卷智曇自楚來銅卓錫計都每以所餘造橋修路利濟行人真空師其法善叩善施樂利尤溥且至性天成篤於孝友有古德遺風

清峩眉臥雲庵沙門釋源通傳(六義 涌泉 德輝)

釋源通湖南人年二十學道峨眉山絕頂臥雲庵中居恒唯一蒲團寒暑不易蓋三十餘年研闡釋典華嚴楞嚴諸經尤熟讀默識了然心目隨舉扣之卷數篇第指說無譌山中衲子多其徒黨道風所扇歸依者眾年八十八無疾而化六義者峩眉人居萬年寺毘盧殿即廣濬彈琴處恒誦蓮花七軸靈文朝夕不爽臘踰七十而鶴髮松姿和藹可親人服其德涌泉居龍門院參悟有年通五經古文善詩畫年八十一笑而逝揚廷瑞題其所居曰一笑堂德輝者川北名家子中歲棄家居峩眉之息心所博極梵典著有語錄若干卷及甄奧賦注釋賦為明蜀巡撫廖大亨作詞句多不可曉德輝為之疏析云

清公安今古寺沙門釋如慧傳

釋如慧者姓姜氏高陽人俗稱許老蓋其字也父文章母楊氏慧生有善根性靈獨異幼齡多疾蠲除腥味持心茹素已逾廿載年三十始削髮從師託迹公安今古寺禮俊旃禪宿傳臨濟正宗梵經咒語昕夕課誦爾後出世報慈寺三乘奧旨胸次灑然力行既深道心徹悟山光悅性無非靈機潭影澄空早已參透是以登壇說法花雨齊飛贈答揮毫烟雲並落即事摘詞便成韻語因人作偈話出迷津兼術精青鳥風鑑獨神喜譚靈龜妙言微中著有金繩指迷錄一卷文人墨士多相傳寫名公巨子尤深信仰嗣法弟子遂以付梓荆湘間猶有傳本云

清當陽玉泉寺沙門釋隆昇傳(培潤滋 香山濬)

釋隆昇字雲樵姓陳氏江陵人也舊為望族代有簪纓昇生而穎異不昧靈根幼入玉泉歸投柱公言行超卓氣宇灑然嘗從聊溪周先生學詩文經義靡不淹通既妙詞翰尤擅草隸一時騷人墨客多與往還道光十四年始從東山寺慧山珩受具習演經律兼悟禪觀機鋒敏妙辯論風生遂受柱公衣拂主席玉泉乙卯宏法講經啟迪來哲孳孳不卷丙辰領眾六合盈二千指清初以來未曾有也丁巳退處經樓焚修自課同治十年辛未二月三日示寂塔於河西旗鼓山著有語錄詩文若干卷皆佚而不傳弟子培潤滋者石門何氏子貌古神清言語簡重道心堅固真實不苟同治五年受昇屬付六年主席上方聿弘戒法九年杖錫峨眉參雙桂宗乘並徹已而歸山專修淨業以約自持至葺治殿宇嚴飾神像備極尊崇光緒二十七年辛丑二月二日沐浴更衣集眾示曰幻身六十六虛空復何有不往兜率陀徑超安樂土諸子莫悲傷吾今暫回首努力赴前節各自尋門走振起滄沱宗常作師子吼大道更何言願伸補天手寂後塔於伏牛山其徒香山仁濬者宜昌東山劉氏子也少習舉子業通經史善書翰中年忽悟無常禮玉泉曉公出家受具於荊州承天寺復得滋公衣拂主席上方光緒十年宏戒傳徒得法者眾乙酉退居涪溪日課金剛丁酉冬十月十七日示疾涅槃壽七十有二臘三十五著有文集三卷今已失傳自題壽塔云孤雁旅孤洲孤洲水常流眾鳥高飛盡唯爾獨鳴秋塔在涪溪寺前

清金陵靈谷寺沙門釋禰修傳(光蓮)

釋禰修字德鐙姓袁氏金陵人披剃天印山東霞寺受具華山繼衣鉢於靈谷慈善成性悲愍感物平昔扶持忠義周恤喪亾引為己事視若固然當咸豐初年洪秀全竊據金陵負隅死守官軍於朝陽門外掘長壕困之日事攻戰凡陣亾及軍營病沒者多厝寺傍禰修悉書其姓名於冊使後有所稽攷

枯骸在野拾而葬之事平請於曾文正國藩重建龍神祠主寺三十餘年寇至不去舊有寺志十四卷深自護持不敢失墜光緒乙亥傳法光蓮靜修一室人罕得見寂於庚辰九月二十一日年六十六葬玉帶橋之南光蓮字利華泰州邵氏子八歲出家初事岱岳寺僧為師後於華山受具徧遊天臺九華南海光緒紀元五月朔禰修夜起見香鑪有光狀若蓮花五日而光蓮至寺禰修異之因授以衣拂墾荒竹重造山門及金剛殿以節省餘資未嘗募叩生平苦志清脩與物以誠無疾言厲色尤好勸人為善光緒戊戌二月九日示寂年七十四亦葬玉帶橋南

清成都昭覺寺沙門釋照常傳

釋照常字朗西姓稅氏溫江人也父登第母杜氏夙孕靈根早通慧業質挺蓮植居近禪房年才十八界空萬千清同治壬申披薙於羅禪古寺初習梵經便窮微旨俄而太師性長與師祖寂澄相繼謝世遂主寺事新矩既崇舊規仍守增輝院宇培植林園費無旁貸務必躬親禪修之餘兼工文藝左蘇右黃積墨橫錦超王邁倪繪素生姿好學多材為時稱翊光緒丁亥附近市場更易商旅無依乃竭願力別造廣廈且築樓近水起閣傍山沱江左右暉映霞表地靈人傑於焉聚集後依文殊院香巖律師受具香來木樨花滿祇樹戊午主昭覺法席彌復專精擬作雲遊徧留雪爪己未謁普賢道場膺大佛殿方丈已而辭去躡屩南海負簦北燕歷盡塵勞庶成佛果庚申七月乘杯西蜀駐錫東川棲止羅漢古洞竟於十月七日坐化壽六十有七川東蘇兆奎為之銘

清四明天童寺沙門釋敬安傳(精一)

釋敬安字寄禪姓黃氏湘潭人也其先世為山谷苗裔宋時由江西遷茶陵明季乃徙湘潭之石潭世業農父宣杏母胡氏嘗禱白衣大士夢蘭而生數歲時好聞仙佛事常終日喃喃若有所吟誦七歲失母諸姊皆嫁父或他適則以安兄弟寄食鄰家日昃不返即嘯號蹤迹之里人為之惻然年十一始就塾師授論語未終篇父又沒零了孤苦極厥慘傷其弟以幼依族父安獨無所得食嘗為人牧牛輒攜書於牛背誦之一日與羣兒避雨村中聞讀唐詩至少孤為客早句潛然淚下塾師周雲帆駭問其由以父沒不能讀對雲帆甚憐之曰爾為我炊爨洒掃可乎即下拜雲帆喜甚每語人曰此兒耐苦讀後必有所樹立余老不及見耳無何雲帆病沒安遂散去然猶不廢業聞里中豪家欲覓一僮伴兒讀即欣然往就至則使供驅役自讀輒遭訶叱因悲歎以為屈身為讀書計既違所願豈可為區區衣食為人奴乎即辭去習工藝鞭撻尤甚絕而復甦者數一日見籬間白桃花忽為風雨摧敗不覺失聲大哭因慨然動出塵想遂投湘陰法華寺出家禮東林長老為師時同治

七年也冬初復詣南嶽祝聖寺從賢楷律師受具首參恒志於岐山專司苦行諸職暇則隨眾坐禪越五年頗有省時精一首座為維那間以詩自娛安諷之曰出家人不究本分上事乃學世諦文字耶因笑曰汝髫齡精進他日成佛未可量至文字般若三昧恐今生未能證得後省舅氏至巴陵登岳陽樓友人分韻賦詩安獨澄神趺坐下視湖光一碧萬頃忽得洞庭波送一僧來句歸述於郭菊蓀謂有神助且言其有宿根力勸之學授唐詩三百篇一日成誦後精一見安所作大奇之精一名思參長沙張氏子天資聰穎幼從塾課便解文義淡於科第而好佛書見庭中桃花因風飄落悟世無常乃從剃度具足復還長沙置慈雲精舍於城南迎母養之與人論說詞簡易明引導後學當機立判故於安前激後勸卒玉其成然安自以為讀書少用力尤苦一字未愜如負重累至忘寢食有一詩至數年始成者念生死事切時以禪定為正業一日靜坐參父母未生前語冥然入定內忘身心外遺世界坐一日如彈指頃猝聞溪聲有悟嗣後徧遊吳越凡海市秋潮見未曾有遇嶽谷幽邃輒獻詠其中饑渴時飲泉和柏葉下之喜以楞嚴圓覺雜莊騷以詩人目為狂嘗冒雪登天台華頂峰雲海盪胸振衣長嘯睡虎驚立咆哮攫前以慈心視之虎威亦解又曾於深山遇一巨蟒御風行頭大如斗舌電尺餘因念佛亦無怖旋養疴皋亭山中中夜聞剝啄聲甚急啟關月明如晝四顧無人如是者數數次夕伺叩門聲急開戶見一黑眚若圓球滾滾而去安嗾羣犬逐之窮追至山腰厲聲曰擾我何為我豈汝怖苟有所求當為汝度之遂號佛達旦怪尋滅病亦尋癒其住四明最久窺天童雪竇窮攬霞嶼月湖之勝郡中文學呂文舟徐舵仙胡魯封馬文齋沈問梅皆相與酬唱生平好善疾惡觸境而生嘗渡曹娥江謁孝女廟叩頭流血同行者曰奈何以比丘禮女鬼安曰汝不聞波羅提木叉孝順父母諸佛聖人皆從孝始吾觀此女與佛身等禮拜亦何過焉甲申八月返櫂長沙年三十有四行腳已閱十霜明年還石潭省先塋宿莽縱橫不可復識望窮山慟哭村老聞之為指其葬處始復憶識蓋去鄉里已二十餘年積思幽潛故悲不自勝也自是往來衡湘時有著述同縣王湘綺先生為當代詩人見安所作未嘗不稱善有陳伯嚴羅順循皆擅詞翰曾綜其詩十卷刻之乞湘綺先生為之序

[CBETA 贊助資訊](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